

2021 서울청년패널조사(1차)

김승연 변금선 김상일
오은주 김진하 김호기
박민진 박동화 임아름



2021 서울청년패널조사(1차)



연구책임

김승연 서울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 연구위원

연구진

변금선 서울연구원 도시모니터링센터 부연구위원
김상일 서울연구원 도시모니터링센터 선임연구위원
오은주 서울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 연구위원
김진하 서울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 연구위원
김호기 서울연구원 도시인프라계획센터 부연구위원
박민진 서울연구원 도시모니터링센터 연구원
박동화 서울연구원 (전)도시사회연구실 위촉연구원
임아름 서울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 위촉연구원

심층분석

박나리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이용호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이동준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박사후 연구원
조민서 위스콘신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조사업체

박종선 한국리서치 여론조사본부 이사
최광선 한국리서치 여론조사본부 부장
최선아 한국리서치 여론조사본부 차장
김지은 한국리서치 여론조사본부 대리
이승찬 한국리서치 여론조사본부 연구원
김지영 한국리서치 여론조사본부 연구원

서울시 2021년 서울청년패널조사 수행 근거 기반 청년정책 추진 디딤돌 마련

서울청년패널조사, 서울시 청년정책 근거 마련·청년연구 활성화 목적으로 수행

서울청년패널조사(SYPS: Seoul Youth Panel Study)는 서울시 청년정책 수립과 실효성 향상을 위한 근거 마련과 청년 연구 활성화를 목적으로, 횡단면 조사(cross-sectional study)의 한계를 극복하고 청년 삶의 다차원적 변화양상과 생애주기의 이행경로를 추적조사하는 종단면 조사(longitudinal study)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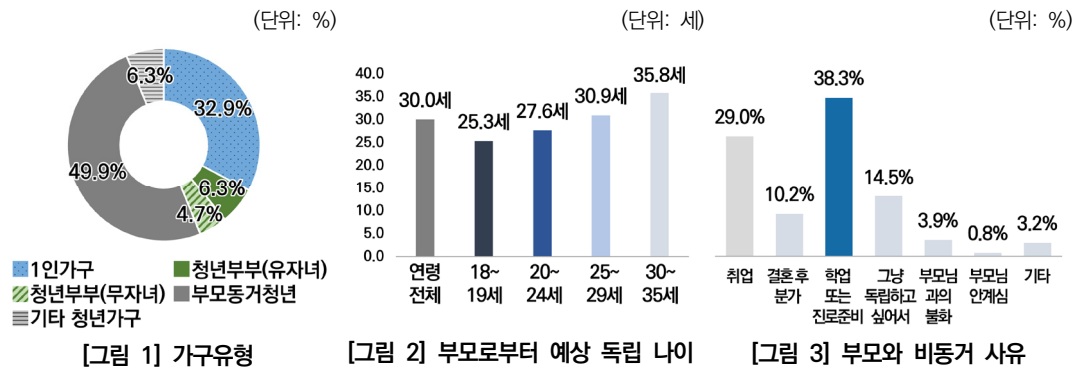
이 조사의 목표 모집단은 2021년 11월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34세 내국인이며 목표 표본 규모는 5,000명으로 설정하였다. 조사영역은 교육·훈련, 일자리, 경제, 주거, 삶의 여건과 인식, 정책 경험과 평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삶의 변화 등으로 구성했으며 삶의 다차원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영역을 조사하였다. 조사는 2021년 11월 1일부터 2022년 4월 1일까지 이루어졌다. 조사방법으로 표본 구축은 전문면접원의 가구 방문으로 이루어졌으며 설문 응답은 조사 참여 의향과 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한 뒤 조사 링크(URL)를 발송하여 응답자가 컴퓨터(CAWI)나 모바일(CAMI)로 인터넷상에서 직접 응답하는 방식(자계식)으로 수행하였다. 표본설계와 관련하여 표본추출틀로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2020년 기준 서울시 18,748개 집계구를 활용했으며 확률비례계통추출법(probability proportional to size samplings)을 활용해 1,500개 표본(조사) 집계구를 임의로 추출하였다. 임의로 추출한 집계구 1개당 3~4명의 패널을 구축하는 방식을 활용하였으며, 표본으로 추출된 패널은 QGIS 프로그램을 활용해 응답자 주소지와 집계구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응답자 모바일 검증과 응답오류 검증을 거쳐 5,194명의 최종 유효표본을 구축하였다.

[표 1] 2021년 서울청년패널조사(SYPS: Seoul Youth Panel Study) 조사 개요

구분	내용
목표 모집단 및 표본규모	목표 모집단: 2021년 11월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34세 내국인
조사 기간	2021년 11월 1일 ~ 2022년 4월 1일
조사방법	가구방문 패널 구축 및 온라인 자계식 응답
표본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본추출틀: 2020년 기준 서울시 18,748 집계구 - 표본추출방법: 확률비례계통추출법(probability proportional to size samplings) - 표본 집계구: 1,500개
최종 표본	유효표본 5,19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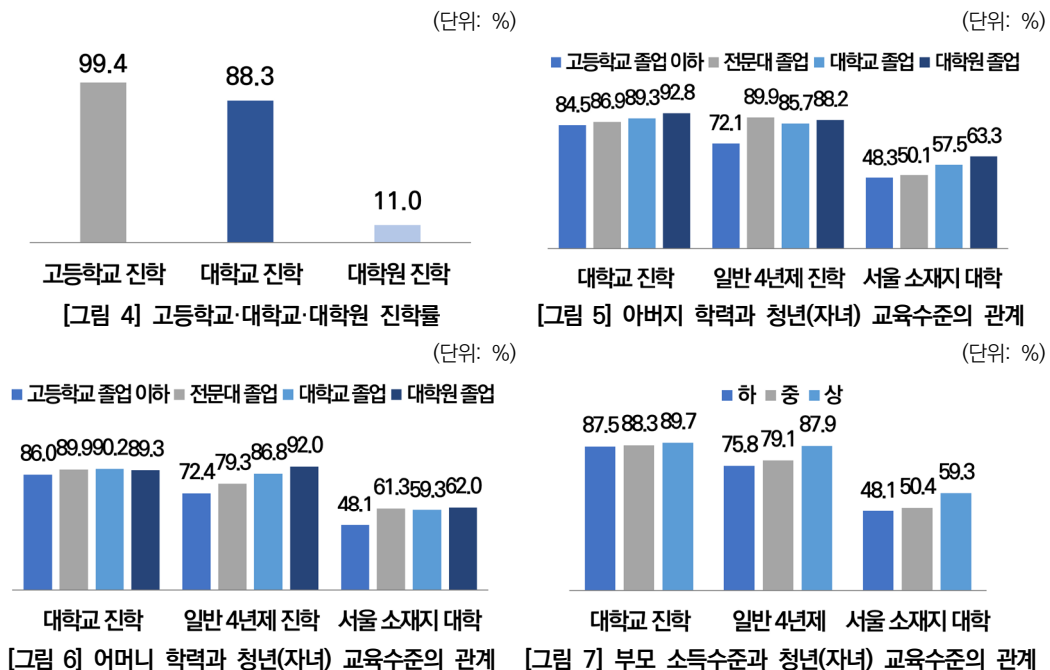
청년 1인가구는 32.9%, 부모동거가구는 49.9% ... 예상 독립나이는 평균 30세

서울 청년의 가구유형 분석 결과, 1인가구는 32.9%로 나타났으며 부모동거 가구는 49.9%로 가구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이 예상하는 독립 나이는 평균 30세로, 연령이 많을수록 예상하는 독립 나이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편,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청년들은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이유로 학업 또는 진로준비(38.3%)나 취업(29.0%)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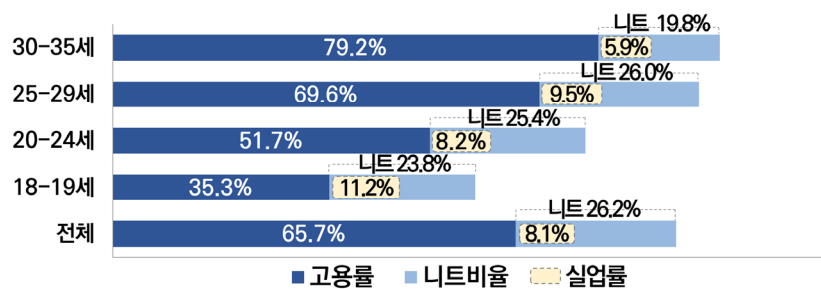
대학진학률은 88.3% ... 청년 교육수준은 부모의 교육·경제수준과 밀접한 연관

서울 청년의 대학 진학률은 88.3%로 조사되었으며 부모의 교육수준과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청년(자녀)의 대학교 진학률, 일반 4년제 대학교 진학률, 서울 소재지 대학교 진학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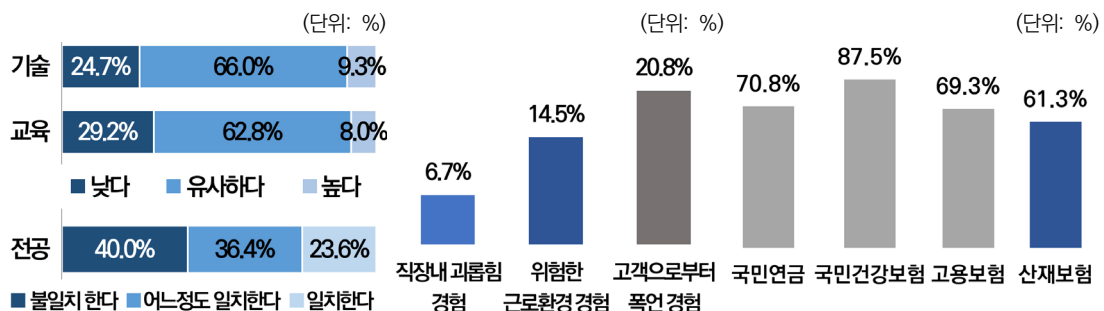


청년 고용률은 65.7% … 전공·노동시장 미스매치 현상 뚜렷하고 근무환경 열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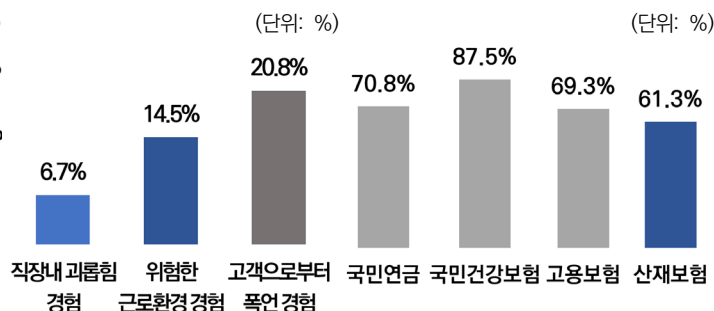
서울 청년의 고용률은 65.7%, 실업률은 8.1%, 니트(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NEET) 비율은 26.2%로 조사되었다. 연령이 올라갈수록 고용률이 높았고, 25~29세는 니트족 비율이 26.0%로 높게 나타났다. 본인의 전공 분야와 현재 일자리의 직무가 불일치한다는 응답은 40.0%로 전공과 직무가 일치한다는 응답(23.6%)보다 약 1.7배 높게 나타나 전공과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현상이 두드러진다. 또한, 현재 취업자 중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경우는 6.7%, 위험한 근로환경에 노출된 경우는 14.5%, 고객으로부터 폭언을 들은 적이 있는 경우는 20.8%로 조사되었다. 이는 결코 낮은 수준으로 볼 수 없다. 한편, 상당수의 청년이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재보험 가입률은 61.3%, 고용보험 가입률은 69.3%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그림 8] 고용현황



[그림 9] 직무적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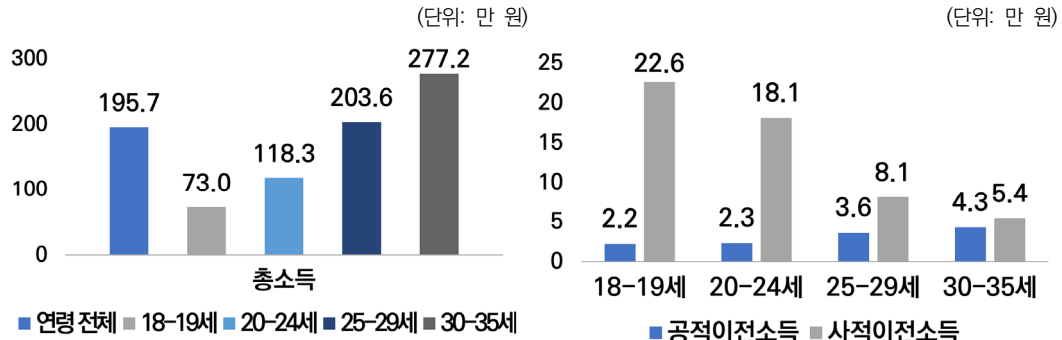


[그림 10] 근로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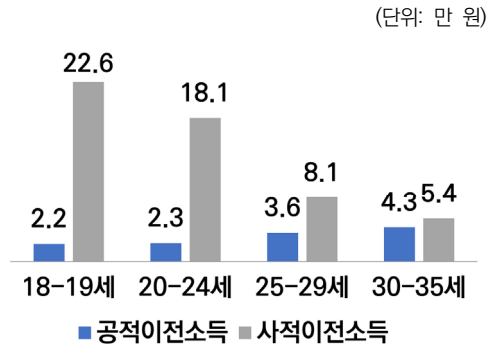
[그림 11] 사회보험 가입률

월평균 소득 195만원, 청년 47.3% “생활비 부족 경험” … 부모 경제 의존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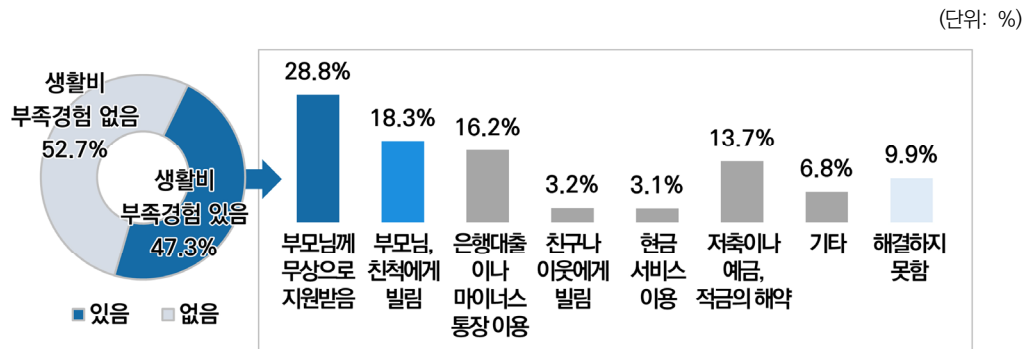
서울 청년의 월평균 소득은 약 195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 월평균 소득은 18~19세는 73만 원, 20~24세는 118만 원, 25~29세는 203만 원, 30~35세는 277만 원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소득 역시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으며 20대와 30대 간 소득격차가 크다. 나이가 많을수록 사적이전소득은 감소하고, 공적이전소득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연령 증가에 따른 사적이전소득의 감소 폭에 비해 공적이전소득의 증가 폭은 크지 않다. 한편, 47.3%의 청년은 생활비 부족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해결책은 부모의 손을 빌리는 경우(무상으로 지원받음 28.8%, 부모님, 친척에게 빌림 18.3%)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림 12] 연령별 월평균 총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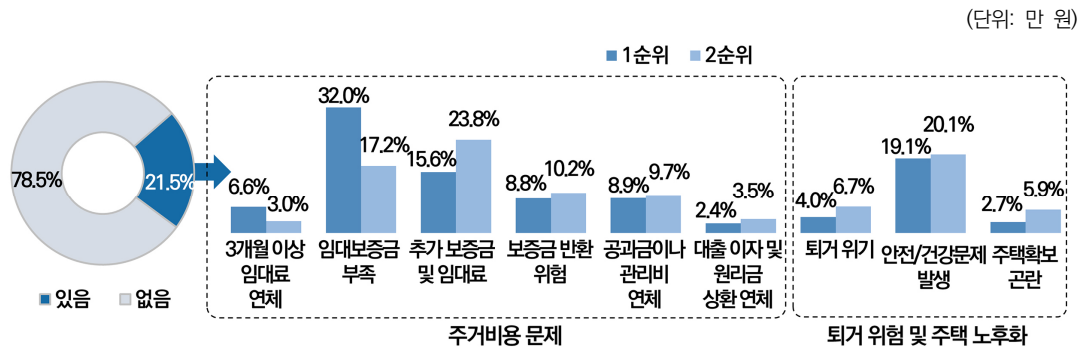
[그림 13] 연령별 사적이전·공적이전소득 비교



[그림 14] 생활비 부족 경험과 해결방법

부모동거가구는 자가, 기혼가구는 전세, 1인가구는 월세 비율이 가장 높아

서울 청년의 가구유형별 점유형태를 분석한 결과, 부모동거 가구는 자가 비율이 53.2%, 자녀가 없는 기혼 가구는 전세 비율이 60.2%, 자녀가 있는 기혼 가구도 전세 비율이 46.8%, 1인가구는 보증부 월세 비율이 50.6%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한편,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PIR)은 17.1배로, 청년이 연소득에서 지출을 전혀 하지 않고 17년간 모아야 자가를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더불어 서울 청년 중 21.5%는 주거와 관련된 불안 상황을 경험하였고, 주거불안 상황의 74.2%(1순위 기준)가 주거비용과 관련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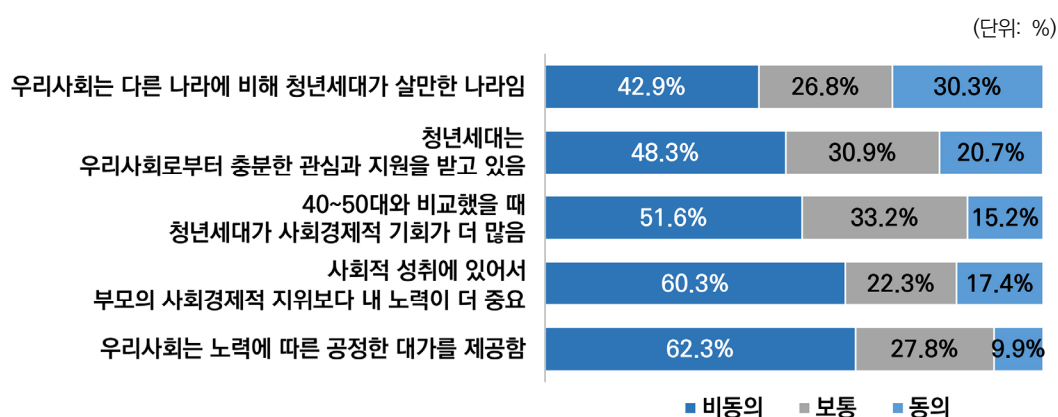


[그림 15] 주거불안 경험

청년 34.2%는 우울증상 의심 … 60% 이상 “노력과 관련된 공정성에 부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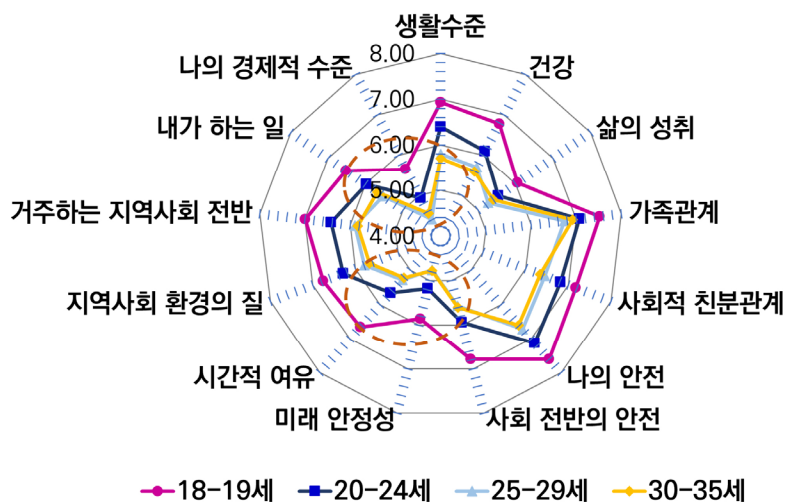
서울 청년 중 34.2%가 우울 증상이 의심되는 상태이며 지난 1년간 진지하게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는 청년은 15.0%로, 적지 않은 수의 청년이 심각한 마음건강 위기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울 청년이 최근 이슈인 공정성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분석한 결과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공정하다는 인식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우리 사회가 노력에 따른 공정한 대가를 제공하는지는 62.3%, 사회적 성취에 있어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보다 내 노력이 더 중요한지는 60.3%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특히 노력과 관련된 공정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삶의 영역에서는 미래 안전성(4.95점)과 경제적 수준(4.67점) 만족도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16] 공정성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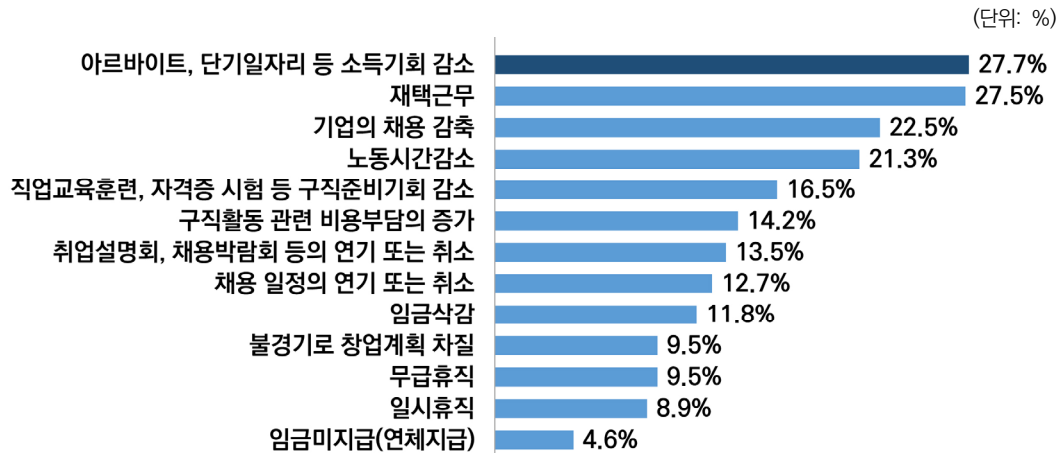
(단위: 0-10점)



[그림 17] 분야별 삶의 만족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소득기회 감소 포함 일자리 관련 부정적인 변화 경험

서울 청년 역시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에 부정적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중 아르바이트, 단기일자리 등 소득기회의 감소(27.7%)가 가장 많았고, 재택근무(27.5%), 기업의 채용 감축(22.5%), 노동시간 감소(21.3%) 등이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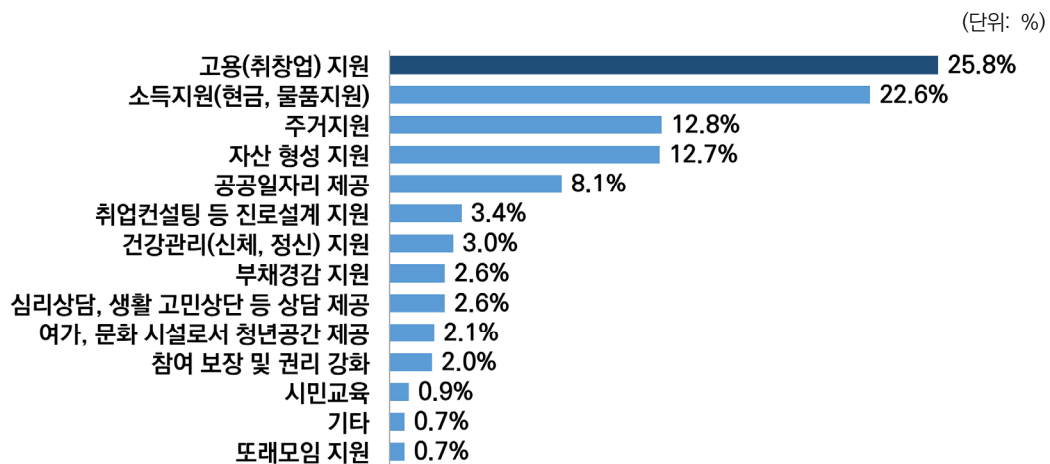


[그림 18]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관련 변화 경험

역세권 청년주택 등 주거분야 지원정책 수요 1위 … 고용지원 정책 강화 필요

청년지원 정책 중 이용 의향이 가장 높은 사업은 역세권 청년주택(59.1%), 청년임차보증금 지원(55.5%) 등으로 조사되었다.

앞으로 청년세대를 위해 강화해야 할 사업 분야로는 고용(취·창업) 지원(25.8%)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소득지원(현금, 물품지원)(22.6%) 사업으로 확인됐다.



[그림 19] 청년세대를 위해 강화해야 할 사업 분야

서울청년패널 원데이터 활용한 심층분석으로 청년이슈 기반 정책 함의 도출

2021년 서울청년패널조사는 원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영역을 심층분석하고, 청년이슈와 관련된 실질적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여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고 서울시 청년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 분석 주제는 서울시 청년집단의 이질성 연구이다. 청년집단을 부모동거 가구와 비동거 가구로 구분해 각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고, 집단별로 가장 불안정한 집단을 식별하여 분석하였다. 부모와 동거하지 않으면서 빈곤 상태인 20대 후반 청년이 가장 불안정한 집단으로 식별되었다. 이들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청년정책의 실효성 파악과 수요자 중심의 정책 방향 개선이 필요하다. 두 번째 분석 주제는 청년의 일자리 이행이다. 청년층의 전반적인 일자리 이행과 관련하여 초기 일자리 이행, 일자리 정착, 일자리 이행과정 유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교육수준(교육 프리미엄)이 괜찮은 일자리 이행(첫 직장, 이직)에 미치는 정적(+) 영향, 노동시장 내 청년 취업자 간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시장 상향 이동(이행) 격차를 확인하였다. 이는 청년층 일자리 지원은 단기적 방안이 아닌 중장기적 방안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세 번째 분석 주제는 미취업 청년이 겪는 부채부담에 관한 연구이다. 미취업 청년의 부채부담 실태 전반에 대한 탐색적 분석과 2021년 서울청년패널조사 본조사 대상자 중 연구 주제에 적합한 연구참여자를 모집하여 심층 인터뷰를 실시해 질적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미취업 청년은 부채부담 정도가 높다는 점과 부채부담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사회적 고립감, 취약한 정신건강 상태에 처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청년지원 프로그램의 복잡성 개선과 질적 향상, 법률 서비스와 채무 관련 상담 제공 등을 제안한다.

네 번째 분석 주제는 청년세대의 재테크 실천에서 확인되는 불평등이다. 청년의 재테크 실천현황, 재테크로 운용하는 자산과 소득의 크기와 불평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청년 중 47.2%가 하나 이상의 재테크를 실천하고 있다. 자산 종류별 자산 불평등 기여도는 소유부동산(67.6%)이 가장 높았으며, 소득 종류별 자산 불평등 기여도는 근로소득(83.8%)이 가장 높다. 청년들의 개인화된 불안의 집합적 해결을 고민하고, 재테크를 하지 않으면 충족될 수 없는 사회경제적 안정성의 부재라는 문제를 읽어냄으로써 청년들이 재테크에 몰두하는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목차

01 조사 개요	2
1_조사 배경 및 목적	2
2_조사 설계	4
3_조사방법 및 체계	9
4_표본 설계	12
5_표본현황 및 가중치 조정	18
02 기초분석	30
1_일반특성	30
2_청년기 주요 이행 특성	38
3_교육과 훈련	49
4_일자리	71
5_경제	124
6_주거	154
7_삶의 여건과 인식	205
8_코로나19로 인한 변화	252
9_정책경험과 평가	264
03 심층분석	272
1_서울시 청년집단의 이질성 연구: 부모동거가구와 비동거가구 청년 간 비교를 중심으로	272
2_청년의 일자리 이행	291
3_미취업 청년들이 겪는 부채부담에 관한 연구	315
4_청년세대의 재테크 실천에서 나타나는 불평등	348
참고문헌	365
부록	370
Abstract	439

표 목차

[표 1-2-1] 서울청년패널조사 프레임	4
[표 1-2-2] 2021년 서울청년패널조사 조사영역 및 주요 내용	8
[표 1-3-1] 조사 진행 절차	12
[표 1-4-1] 자치구, 성별, 연령대별 인구	13
[표 1-4-2] 자치구별 추출 집계구 분포	15
[표 1-4-3] 목표 표본수	17
[표 1-5-1] 조사유형별 유효표본 현황	19
[표 1-5-2] 2020년 사전조사 예비패널 최종 유효 표본 현황	20
[표 1-5-3] 2021년 대면조사 최종 유효 표본 현황	21
[표 1-5-4] 2021년 Master Sample 예비패널 최종 유효 표본 현황	22
[표 1-5-5] 2021년 SKT 최종 유효 표본 현황	23
[표 1-5-6] 최종 유효 표본 현황	24
[표 2-1-1] 인구사회학적 특성	31
[표 2-1-2] 연령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34
[표 2-1-3] 주거·경제 특성	36
[표 2-1-4] 연령별 주거·경제 특성	37
[표 2-2-1] 경제활동 상태	38
[표 2-2-2] 서울 이주 여부 및 이주 당시의 연령	40
[표 2-2-3] 서울로 이주한 이유	41
[표 2-2-4] 만 18세 이전 가장 오래 살았던 거주지역	42
[표 2-2-5] 서울태생이 아닌 경우 만 18세 이전 가장 오래 살았던 거주지역	43
[표 2-2-6] 부모동거 특성	44
[표 2-2-7]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의 예상 독립 시기	44
[표 2-2-8]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청년의 비동거 사유	45
[표 2-2-9] 혼인 특성	46
[표 2-2-10] 미혼 청년의 결혼 의향	47

[표 2-2-11] 자녀 유무에 따른 청년 특성	48
[표 2-2-12] 자녀가 없는 청년의 향후 자녀 계획	49
[표 2-3-1] 고등학교 진학 및 졸업 여부, 고등학교 유형	50
[표 2-3-2] 대학경험 여부	51
[표 2-3-3] 대학교 유형	52
[표 2-3-4] 대학(교) 재학 및 졸업 상황	53
[표 2-3-5] 대학 소재지	54
[표 2-3-6] 전공계열	55
[표 2-3-7] 대학원 진학 경험	56
[표 2-3-8] 대학원 재학 및 졸업 상황	57
[표 2-3-9] 학교 교육 기회	58
[표 2-3-10] 원하는 단계까지 교육을 받지 못한 이유	59
[표 2-3-11] 추후 대학(교) 진학 계획	60
[표 2-3-12] 부모 교육 수준과 자녀 교육 수준의 관계	61
[표 2-3-13] 부모 소득 수준과 자녀 교육 수준의 관계	61
[표 2-3-14] 직업훈련 경험	62
[표 2-3-15] 직업훈련 경험 사항	63
[표 2-3-16] 직업훈련 유형	63
[표 2-3-17] 취업이나 창업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64
[표 2-3-18] 자격증 취득 경험 및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 경험	65
[표 2-3-19] 진로와 관련한 현재 상황	66
[표 2-3-20] 하고 싶은 일에 대한 경험의 도움 정도	67
[표 2-3-21] 일자리 선택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1, 2순위)	68
[표 2-3-22] 일자리 선택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1순위)	69
[표 2-3-23] 일자리를 구할 때 어려움 정도	70
[표 2-4-1] 서울 청년 고용 실태	72
[표 2-4-2] 특성별 실업률 및 고용률	73
[표 2-4-3] 특성별 고용보조지표 및 니트 비율	74
[표 2-4-4] 지난 1주일간 수입 목적 일 경험	75
[표 2-4-5] 지난 1주일간 일하지 않은 주된 이유(휴가 및 일시 휴직)	76
[표 2-4-6] 과거 일자리 경험	77
[표 2-4-7] 가장 최근 그만둔 일자리	78
[표 2-4-8] 가장 최근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 그만둔 후 가장 어려운 점	79
[표 2-4-9] 실업급여 수급 경험	80
[표 2-4-10] 취업자의 근로형태	81

[표 2-4-11] 취업자의 현재 주된 일자리 구직활동 기간	82
[표 2-4-12] 현재 재직 중인 일자리 개수	83
[표 2-4-13] 구직활동 시 가장 필요한 지원	84
[표 2-4-14] 종사상 지위	85
[표 2-4-15] 현재 일자리의 플랫폼 노동 여부	86
[표 2-4-16] 사업장 유형	87
[표 2-4-17] 현재 취업자의 근로형태	88
[표 2-4-18] 주된 일자리 임금	89
[표 2-4-19] 전체 일자리 임금	90
[표 2-4-20] 주된 일자리 근로시간	91
[표 2-4-21] 전체 일자리 근로시간	92
[표 2-4-22] 지난주 36시간 미만 일한 이유	93
[표 2-4-23] 현재 주된 일자리의 직업 분류	94
[표 2-4-24] 현재 주된 일자리의 산업분류	95
[표 2-4-25] 근무지 위치 및 장소	96
[표 2-4-26] 왕복 통근시간	97
[표 2-4-27] 주된 일자리 월평균 희망소득	98
[표 2-4-28] 주된 일자리 희망 주당 근로시간	99
[표 2-4-29]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선호 여부,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이유	100
[표 2-4-30] 주된 일자리 만족도	101
[표 2-4-31] 주된 일자리 직무 유사성	102
[표 2-4-32] 대학(교) 또는 대학원 전공지식의 일자리 업무수행 도움 정도	103
[표 2-4-33] 근로환경 및 사회보험 가입 여부	104
[표 2-4-34] 이직 또는 창업 활동 의향과 준비 경험	105
[표 2-4-35] 이직 예정 시기	106
[표 2-4-36] 이직을 희망하지만 이직하지 않는 주된 이유	107
[표 2-4-37] 이직을 희망하는 가장 주된 이유	108
[표 2-4-38] 미취업자 현황	109
[표 2-4-39] 지난 4주간 구직활동	110
[표 2-4-40] 지난주에 일이 주어졌더라도 일을 시작할 수 없었던 이유	111
[표 2-4-41] 지난 4주 이내에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1순위)	112
[표 2-4-42] 지난 4주 이내에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	113
[표 2-4-43] 직장을 구하지 못한 이유	114
[표 2-4-44] 지난 1년간 구직 활동 및 창업 준비 경험	115
[표 2-4-45] 향후 구직 또는 창업 활동 의향	116

[표 2-4-46] 구직 방법	117
[표 2-4-47] 일자리를 구하는 주된 이유	118
[표 2-4-48] 구직활동 시 가장 필요한 것	119
[표 2-4-49] 창업 준비 경험	120
[표 2-4-50] 창업 준비 활동	121
[표 2-4-51] 창업 정보 수집 방법	121
[표 2-4-52] 창업 준비 이유	122
[표 2-4-53] 창업 준비 시 어려웠던 점	122
[표 2-4-54] 창업 준비 시 가장 필요한 지원	123
[표 2-5-1] 가구 연소득	124
[표 2-5-2] 가구 월소득	125
[표 2-5-3] 본인 연소득	126
[표 2-5-4] 본인 월소득	127
[표 2-5-5] 소득 원천별 본인 월소득	130
[표 2-5-6] 2020년 1년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 여부	131
[표 2-5-7]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수령 여부, 수령금액	132
[표 2-5-8] 가구 월생활비	133
[표 2-5-9] 본인 월생활비	134
[표 2-5-10] 본인 생활비 항목별 지출 비율	135
[표 2-5-11] 2020년 1년 동안 생활비 부족 경험	136
[표 2-5-12] 생활비 부족 시 해결방법	137
[표 2-5-13] 생활비 부담이 가장 큰 항목	137
[표 2-5-14] 생활비 부담이 가장 큰 항목(1순위)	138
[표 2-5-15] 생활비 부담이 가장 큰 항목(2순위)	139
[표 2-5-16] 1인 적정 월평균 생활비	140
[표 2-5-17] 본인 재산 금액 및 분포	141
[표 2-5-18] 재산 항목별 금액	143
[표 2-5-19] 자동차 보유 대수	144
[표 2-5-20] 자산형성을 위한 재테크 여부 및 수단	145
[표 2-5-21] 재테크 목적	146
[표 2-5-22] 재테크 목적(1순위)	147
[표 2-5-23] 재테크 목적(2순위)	148
[표 2-5-24] 재테크를 하지 않는 이유	149
[표 2-5-25] 부채 총액 및 분포	150
[표 2-5-26] 부채용도	150

[표 2-5-27] 부채용도(1순위)	151
[표 2-5-28] 부채용도(2순위)	152
[표 2-5-29] 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 정도	153
[표 2-6-1] 주택유형	155
[표 2-6-2] 주택 점유형태	156
[표 2-6-3] 거주층	157
[표 2-6-4]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여부	158
[표 2-6-5] 주택 계약당사자	159
[표 2-6-6] 방의 구조	160
[표 2-6-7] 방 개수	161
[표 2-6-8] 방거실 개수	162
[표 2-6-9] 화장실 개수	163
[표 2-6-10] 주택 전용면적	165
[표 2-6-11]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과밀도 기준)	167
[표 2-6-12] 주거지 상태 평가	170
[표 2-6-13] 주거지 상태 평가(계속)	173
[표 2-6-14] 최근 1년간 주거불안 상황 경험 여부	174
[표 2-6-15] 최근 1년간 경험한 주거불안 상황	174
[표 2-6-16] 자가 가격	175
[표 2-6-17] 전세 보증금	176
[표 2-6-18] 전세 관리비	177
[표 2-6-19] 보증부 월세 보증금	178
[표 2-6-20] 보증부 월세 임대료	179
[표 2-6-21] 보증부 월세 관리비	180
[표 2-6-22] 보증금 없는 월세 임대료	181
[표 2-6-23] 보증금 없는 월세 관리비	182
[표 2-6-24] 주택관련 부채 유무 및 부채 금액	184
[표 2-6-25] 임차가구 주거비 부담(RIR, HCIR)	187
[표 2-6-26] 자가 가구 연소득대비 주택가격 배율(PIR: Price to Income Ratio)	189
[표 2-6-27] 주택비용 마련방법	190
[표 2-6-28] 주택비용 마련방법(1순위)	191
[표 2-6-29] 주택비용 마련방법(2순위)	192
[표 2-6-30] 본인 명의 주택 마련에 대한 전망	193
[표 2-6-31] 본인 명의 주택(자가) 소유 필요 정도	194
[표 2-6-32] 본인 명의 주택(자가)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195

[표 2-6-33] 본인 명의 주택(자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196
[표 2-6-34] 1인가구 거주 적정 주택면적	197
[표 2-6-35] 집의 의미	198
[표 2-6-36] 집의 의미(1순위)	199
[표 2-6-37] 집의 의미(2순위)	200
[표 2-6-38] 향후 내 집 선택 시 고려사항	201
[표 2-6-39] 향후 내 집 선택 시 고려사항(1순위)	202
[표 2-6-40] 향후 내 집 선택 시 고려사항(2순위)	203
[표 2-6-41] 주택 및 주거환경 만족도	204
[표 2-7-1]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생활 결핍 경험	207
[표 2-7-2]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생활결핍 경험 수	208
[표 2-7-3]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식생활 결핍 경험	209
[표 2-7-4] 주관적 건강 상태	210
[표 2-7-5] 최근 1년간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주로 취한 조치	211
[표 2-7-6]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	212
[표 2-7-7]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1순위)	213
[표 2-7-8]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2순위)	214
[표 2-7-9] 최근 2년간 건강검진 여부	215
[표 2-7-10] 우울증상 여부 및 위험도	216
[표 2-7-11] 우울감을 느낄 때 하는 주된 행동	217
[표 2-7-12] 지난 1년간 자살생각 여부 및 이유	218
[표 2-7-13] 최근 한달 간 3주 이상 외출하지 않은 경험	219
[표 2-7-14]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여부 및 인원	221
[표 2-7-15]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여부 및 인원(계속)	223
[표 2-7-16] 가족과의 대면 교류	224
[표 2-7-17] 가족과의 비대면 교류	225
[표 2-7-18] 친인척들과의 대면 교류	226
[표 2-7-19] 친인척들과의 비대면 교류	227
[표 2-7-20] 친한 친구나 친한 사람과의 대면 교류	228
[표 2-7-21] 친한 친구나 친한 사람과의 비대면 교류	229
[표 2-7-22] 직장, 학교,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 대면 교류	230
[표 2-7-23] 직장, 학교,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 비대면 교류	231
[표 2-7-24] 온라인 커뮤니티, SNS로 알게 된 사람들과의 대면 교류	232
[표 2-7-25] 온라인 커뮤니티, SNS로 알게 된 사람들과의 비대면 교류	233
[표 2-7-26] 시간 사용에 대한 여유 정도	234

[표 2-7-27] 시간 부족을 느끼는 활동 영역	235
[표 2-7-28] 삶의 전반에 대한 만족도	236
[표 2-7-29] 생활영역별 만족도	239
[표 2-7-30] 생활영역별 만족도(계속)	242
[표 2-7-31] 사회 신뢰	243
[표 2-7-32] 노력 대비 공정성 인식	244
[표 2-7-33] 사회적 성취에 있어서 부모의 경제·사회적 지위의 중요성	245
[표 2-7-34] 40~50대 대비 청년세대의 사회·경제적 기회	247
[표 2-7-35] 청년세대에 대한 사회의 관심	248
[표 2-7-36] 외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	249
[표 2-7-37] 최근 1년간 불안을 느낀 사회문제	250
[표 2-7-38] 최근 1년간 불안을 느낀 사회문제(1순위)	250
[표 2-7-39] 최근 1년간 불안을 느낀 사회문제(2순위)	251
[표 2-7-40] 30년 뒤 한국의 미래 전망	252
[표 2-8-1]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관련 변화(노동시간, 임금, 무급휴직)	254
[표 2-8-2]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관련 변화(임금 연체, 재택근무, 일시휴직)	255
[표 2-8-3]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관련 변화(채용일정, 기업 채용 감소, 창업계획)	257
[표 2-8-4]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관련 변화(소득 기회, 정보, 구직준비 기회)	259
[표 2-8-5]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관련 변화(구직활동 관련 비용부담)	260
[표 2-8-6]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훈련 관련 변화	261
[표 2-8-7] 코로나19로 인한 주거 관련 변화	262
[표 2-8-8]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생활 관련 변화	264
[표 2-9-1] 일자리 관련 사업	265
[표 2-9-2] 주거 관련 사업	265
[표 2-9-3] 복지 사업	266
[표 2-9-4] 참여·공간 사업	266
[표 2-9-5] 중앙정부 주요 사업	267
[표 2-9-6] 청년세대를 위해 강화해야할 사업 분야	268
[표 2-9-7] 청년세대를 위해 강화해야할 사업 분야(1순위)	269
[표 2-9-8] 청년세대를 위해 강화해야할 사업 분야(2순위)	269
[표 3-1-1] 불안정 속성의 구성	274
[표 3-1-2] 부모동거-비동거 가구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278
[표 3-1-3]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불안정 속성	280
[표 3-1-4] 부모동거가구-연령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281
[표 3-1-5] 비동거가구-연령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283

[표 3-1-6] 부모동거여부-연령별 불안정성 유형 분석	285
[표 3-1-7] 빈곤가구의 불안정성 유형 분석	285
[표 3-1-8] 서울시 주요 청년지원정책	286
[표 3-1-9] 불안정 유형별 정책이용 경험	287
[표 3-1-10] 불안정 유형별 정책이용 경험: 전체가구-대영역	288
[표 3-1-11] 불안정 유형별 정책이용 경험: 부모동거가구-연령 범주별	289
[표 3-1-12] 불안정 유형별 정책이용 경험: 비동거가구-연령 범주별	289
[표 3-2-1] 초기 일자리 이행 독립변인	293
[표 3-2-2] 졸업 이후 첫 일자리까지 구직기간	293
[표 3-2-3] 구직기간에 미치는 영향요인	295
[표 3-2-4] 초기 일자리 임금수준	296
[표 3-2-5] 초기 일자리 임금수준 영향요인	297
[표 3-2-6] 초기 일자리 고용형태	298
[표 3-2-7] 고용형태에 미치는 영향요인	299
[표 3-2-8] 일자리 정착(근무기간·이직횟수) 독립변인	301
[표 3-2-9] 일자리 정착(불안정성) 독립변인	302
[표 3-2-10] 평균 근무기간	303
[표 3-2-11] 평균 근무기간에 미치는 영향요인	304
[표 3-2-12] 이직 횟수	305
[표 3-2-13] 이직 횟수에 미치는 영향요인	306
[표 3-2-14] 노동시장 내 불안정 경험	307
[표 3-2-15] 노동시장 내 불안정 경험 영향요인	308
[표 3-2-16] 일자리 이동	311
[표 3-2-17] 경제활동상태 서열화	311
[표 3-2-18] 청년 특성에 따른 노동시장 이행유형 비교	313
[표 3-3-1] 부채부담 측정	319
[표 3-3-2] 연구참여자들의 기초정보	320
[표 3-3-3] 분석 대상의 일반적 특성	322
[표 3-3-4] 미취업 청년 부채부담 현황	323
[표 3-3-5] 현재 상태에 따른 부채부담	324
[표 3-3-6] 본인 소득분위에 따른 부채부담	325
[표 3-3-7] 생활비 부족 경험 여부에 따른 부채부담	325
[표 3-3-8] 가구 내 지위에 따른 부채부담	326
[표 3-3-9] 청년 가구주 연령에 따른 부채부담	327
[표 3-3-10] 가구소득 분위별 부채부담	327

[표 3-3-11]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른 부채부담 분석	328
[표 3-3-12] 부모의 경제적 지원 여부에 따른 부채부담	329
[표 3-3-13] 부모 동거 여부에 따른 부채부담	329
[표 3-3-14] 사례 간 분석의 공통범주	334
[표 3-3-15] 부채 보유 및 과중채무 여부에 따른 미취업 청년의 결핍 경험 분석	339
[표 3-3-16] 미취업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분석(취업 청년과의 비교)	343
[표 3-3-17] 과중채무 보유 여부에 따른 미취업 청년의 건강실태 분석	345
[표 3-4-1] 재테크 참여 현황	355
[표 3-4-2] 연령별 재테크 참여 현황	355
[표 3-4-3] 재테크 수단별 재테크 동기	357
[표 3-4-4] 근로소득에 따른 재테크 동기의 차이	358
[표 3-4-5] 자산 종류별 현황	359
[표 3-4-6] 자산 종류별 불평등(해당 자산이 있는 경우에 국한)	359
[표 3-4-7] 자산 종류별 전체 자산 불평등에 대한 기여도	360
[표 3-4-8] 소득 종류별 현황	361
[표 3-4-9] 소득 종류별 불평등(해당 소득원이 있는 경우에 국한)	362
[표 3-4-10] 소득 종류별 전체 자산 불평등에 대한 기여도	362

그림 목차

[그림 1-2-1] 2021 서울청년패널조사 조사 영역 흐름도	5
[그림 1-3-1] 서울청년패널조사 운영체계	10
[그림 1-5-1] 자치구별 일반 가중치 분포	26
[그림 3-2-1] 청년의 일자리 이행 연구모형	291
[그림 3-2-2] 노동시장 이행 유형화	312
[그림 3-4-1] 연령별 재테크 참가 비율	356



01

조사 개요

1_조사 배경 및 목적

2_조사 설계

3_조사방법 및 체계

4_표본 설계

5_표본현황 및 가중치 조정

01. 조사 개요

1_조사 배경 및 목적

1) 서울청년패널조사 추진 배경

- 우리 사회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로 청년들의 삶의 국면 역시 변화하였고 청년정책의 필요성과 수요가 늘어남. 이에 따라 서울시 청년정책의 범위가 넓어지고 규모와 비중 역시 증가하고 있음
- 서울시 청년정책 인식과 패러다임 또한 변화하고 있음
 - 최근 청년정책은 독립적인 사회정책의 영역으로 인식되기 시작함
 - 일자리 위주의 정책에서 주거, 금융, 복지, 정신건강, 사회참여, 공간, 공정성과 사회 인식 등에 이르기까지 청년 삶의 전반으로 영역이 확대됨
- 실증적 통계자료에 근거한 정책 수립과 과학적 방법에 따른 청년정책의 효과성 평가와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함
 - 노동과 일자리, 복지, 경제 등 주요 분야의 정부 정책은 패널조사를 통해 구축한 장기적인 실증 데이터를 근거로 수립하여 평가하고 있음
 - 서울시 청년정책 추진에 따른 청년 삶의 변화와 정책성과에 대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분석과 관리가 필요함
 - 서울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정책 효과성 점검이 필요함
- 이를 위해 높은 신뢰도를 제고 하면서 청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조사 자료가 필수
- 최근 수년간 청년의 삶과 고용 상황 및 일자리 실태 등을 파악하고, 청년정책 수립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등에서 다양한 단편적 조사를 수행하였음
- 하지만 단편적 조사만으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조건과 청년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어려움
- 전국단위 청년실태조사가 실시되고 있지만, 서울시 청년의 표본이 크지 않아 통계적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청년이 직면하게 되는 변화양상을 지속 추적하는 것이 매우 어려움

- 청년의 생활실태 및 이행기 과정에 대한 장기적 추적조사가 필요함
- 특히 청년기는 삶의 변화양상이 다양하고 복잡하며 변화의 폭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편적인 횡단면 조사는 한계가 있으며 서울 청년의 삶 전반에 관한 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종단조사가 필요함
 - 청년의 생활실태 및 이행기 과정에 대한 장기적 추적조사가 필요함
 - 다양하고 다차원적인 정책 수요를 체계적이고 다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종합적인 자료수집이 필수적임
- 이러한 배경과 문제 인식하에 서울연구원과 서울시는 서울청년패널(Seoul Youth Panel Study)을 구축하기로 협의하였으며 2021년부터 본조사를 시작하였음
 - 서울시의 지역적 특수성과 서울 청년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패널 데이터 생산 기반 마련
 - 청년 현안 파악 및 청년정책 수립의 과학적 근거 마련
 - 서울연구원이 조사책임기관으로서 표본설계 및 실사관리, 문항개발, 조사결과 분석, 패널 유지·관리 등을 총괄 수행

2) 서울청년패널조사 구축 목적

- 서울청년패널(Seoul Youth Panel Study)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서울 청년의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의 다차원적 변화와 생애주기의 이행과정을 추적조사하여 동태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청년정책의 실효성 향상과 근거 마련
- 둘째, 경제활동 상태, 노동시장 진입 준비 과정, 가구 배경, 부모의 경제사회적 지위 등 청년세대 내의 다양한 이질적인 집단을 구분하고, 이에 따른 생애 위험사건, 정책 수요 등을 파악함으로써 효율적·효과적인 청년정책 집행과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 셋째,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데이터 축적을 통해 학계 연구자 및 정책 입안자를 비롯한 이용자에게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청년 분야 연구를 활성화하고,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2_조사 설계

1) 조사 문항 구조

- 서울청년패널조사는 이행기 청년의 다차원적 삶의 변화를 고려하고, 청년을 둘러싼 환경과 미시적 삶의 자원, 네트워크, 관계, 활동과 관련된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함
- 이를 위해 이행기 특성, 다차원적 삶의 영역, 다층적 삶의 격차, 정책 경험과 평가를 기이 조사 프레임으로 설정하고, 코로나19의 영향을 부가적인 프레임으로 설정함
 - 이행기 특성은 청년의 생애주기에서 교육-노동-독립-가족형성에 이르는 이행경로와 이행기의 위험사건을 파악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함
 - 다차원적 삶의 영역은 교육 및 훈련, 일자리, 경제, 주거, 생활여건과 삶의 질, 사회적 관계, 건강, 사회참여, 사회인식 등으로 분야를 구분하여 문항을 구성함
 - 다층적 삶의 격차는 성별, 연령, 계층, 가구배경, 이행상태에 따른 평균 차이, 불평등 수준 및 격차, 박탈 등 청년세대 내 다층적 격차를 파악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함
 - 정책 경험과 평가는 서울시 및 중앙정부 청년정책의 인지율, 이용 여부, 향후 이용 의향과 정책 수요를 파악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함
 - 코로나19의 영향은 조사 시기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변화와 생활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부가조사 문항을 추가 구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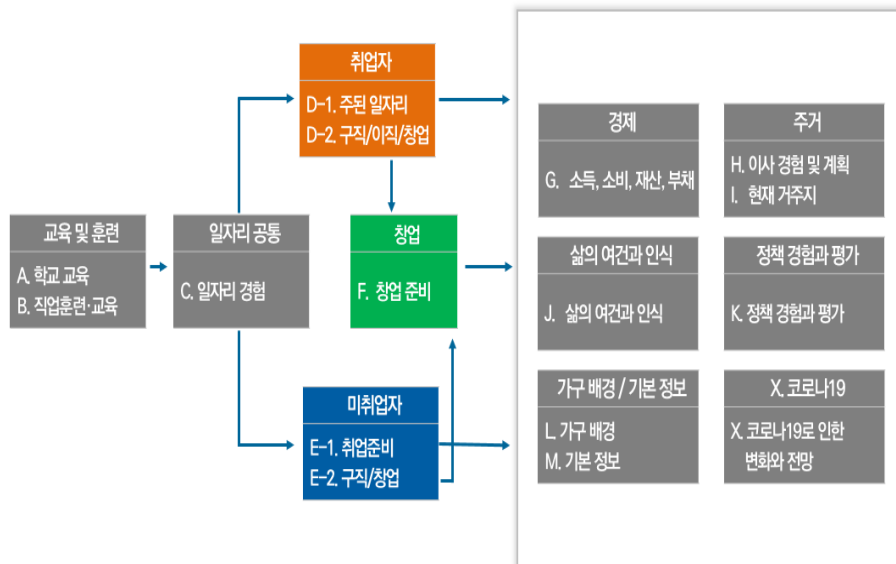
[표 1-2-1] 서울청년패널조사 프레임

구분	내용
이행기 특성	‘교육-노동-독립-가족형성’에 이르는 이행경로와 위험사건
다차원적 삶의 영역	교육 및 훈련, 일자리, 경제, 주거, 생활여건과 삶의 질, 사회적 관계, 건강, 사회참여, 사회인식
다층적 삶의 격차	성별, 연령, 계층, 이행상태에 따른 평균 차이, 불평등 수준 및 격차, 박탈
정책 경험과 평가	서울시 및 중앙정부 청년정책의 인지율, 이용 여부, 향후 이용의향, 정책 수요
코로나19의 영향	코로나19로 인한 변화와 전망

· 이행기 청년의 다차원적 삶의 변화 고려
· 청년을 둘러싼 환경과 미시적 삶의 자원, 네트워크, 관계, 활동에 관한 종합실태 파악

2) 조사 문항 내용

- 2021년 서울청년패널조사는 11개 영역 21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통영역을 포함한 취업자 응답 문항(총 202개)과 미취업자 응답 문항(총 183개)으로 설계함
- 조사영역은 청년의 이행을 고려해 순서를 배치하였으며 조사의 흐름도는 [그림 1-2-1]과 같음
- 2021년 서울청년패널조사의 모든 응답자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설문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음. 첫째, 공통 조사영역 중 교육 및 훈련 영역과 일자리 공통영역에 응답함. 둘째, 일자리 공통영역에서 일자리 이력을 파악하고, 문항 로직에 따라서 취업자와 미취업자를 판별함. 셋째, 취업자와 미취업자는 각 영역의 문항에 응답함. 넷째, 취업자와 미취업자는 각 영역의 문항에 응답한 뒤 모두 창업 준비 경험을 묻는 문항에 응답함. 넷째, 모든 응답자(취업자와 미취업자 모두)는 공통 조사영역인 경제, 주거, 삶의 여건과 인식, 정책 경험과 평가, 가구배경/기본정보, 코로나19 순으로 응답하고 설문을 종료함



[그림 1-2-1] 2021 서울청년패널조사 조사 흐름도

- 조사 영역별 문항은 서울청년패널조사 프레임에 따라 [표 1-2-2]와 같이 다양한 영역에서 청년의 삶 전반과 생활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음
- 먼저 교육 및 훈련 영역은 학교 교육 및 직업훈련 교육과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되었으며,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함
 - 학교 교육은 학교 유형, 입학 및 졸업 시기, 전공, 재학 여부 등 정규교육 경험 전반에 대한 문항과 향후 상급 학교 진학계획 등과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됨
 - 직업훈련·교육은 취·창업을 위해 준비했던 사항, 취·창업 교육 경험, 직업 인식 및

계획 등과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됨

- 일자리 공통영역은 조사시점 기준 현재의 경제활동을 포함하여 과거 3년간 경험한 모든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함
 - 청년 대상 조사는 이행기 관점에서 일자리 이력에 대한 파악이 핵심이며, 따라서 과거 일자리 이력을 최대한 파악하기 위해 해당 영역을 구성함
 - 첫 일자리 시작 시기, 최근 3년간 일자리 개수, 일자리 시작시기, 재직 여부, 고용 형태, 직종, 근로시간, 근로소득 등 현재 일자리를 포함 최근 3년간 경험한 모든 일자리에 대한 세부적인 이력을 파악하도록 함
 - 현재 일자리가 여러 개인 경우는 응답한 모든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조사함
- 취업자 영역은 주된 일자리, 구직/이직/창업과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일자리 공통영역에서 취업자로 판별된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함
 - 주된 일자리는 산업분류, 사업체 유형 및 종사자 수, 통근시간 등 주된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고, 전체 일자리(여러 개의 일을 하는 경우 모든 일자리)에 대해 플랫폼 일자리 여부, 여러 개의 일을 하는 이유 등을 조사함
 - 구직/이직/창업은 구직활동 경험, 이직 의향, 이직 활동 및 창업 준비 경험, 창업 의향, 필요 지원 등을 조사함
- 미취업자 영역은 취업준비, 구직/창업 준비 활동과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일자리 공통영역에서 미취업자로 판별된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함
 - 취업준비는 지난 4주간 취업 준비(구직) 경험, 구직하지 않은 이유, 일을 시작할 수 없었던 이유, 희망 직업 등을 조사함
 - 구직/창업은 지난해 구직활동 및 창업 준비 경험, 향후 취·창업 준비 의향, 필요 지원 등을 조사함
- 창업 준비 영역은 창업 준비 이유, 창업을 위한 준비 사항, 창업 준비 시 어려웠던 점, 필요한 지원 등과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취업자와 미취업자 중 창업 준비를 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함
- 경제영역은 소득, 소비, 재산, 부채 실태에 대해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함
 - 소득은 본인 소득(종류별 소득)과 가구소득(가구 전체 소득금액)을 조사함
 - 소비는 소득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생활비 지출(항목별 지출)과 가구의 전체 생활비 지출을 조사함
 - 재산은 본인의 재산 총액과 항목별 재산 금액을 조사함
 - 부채는 본인의 부채 총액과 부채가 있는 경우 부채의 용도 등을 조사함

- 주거영역은 이사 경험 및 계획과 현재 거주지의 정보와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함
 - 이사 경험 및 계획은 출생 지역, 서울로 이사한 이유, 향후 이사 계획 등을 조사함
 - 현재 거주지는 주택 유형, 점유형태 등의 주거 특성, 주거환경, 자가, 전·월세 가격 등 주거비용, 주거에 대한 만족도 등 주거인식 등을 조사함
- 삶의 여건과 인식 영역은 결핍, 사회관계, 건강, 사회인식, 시간 사용과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함
 - 결핍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생활 경험과 식생활 결핍 경험, 삶의 만족도 등을 조사함
 - 사회관계는 외출, 교류 등 사회적 고립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함
 - 건강은 주관적 건강과 우울 및 자살생각 등 정신건강을 조사함
 - 사회인식은 사회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 현재와 미래의 전망을 조사함
 - 시간 사용은 시간 사용 만족도, 시간 부족을 느끼는 활동영역을 조사함
- 정책 경험과 평가 영역은 서울시 및 중앙정부 청년정책에 대한 인지 여부, 이용률, 이용 의향을 파악하도록 구성되었으며,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함
- 가구배경 영역은 본인과 가구배경과 기본정보와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함
 - 가구원 정보(본인과의 관계, 동거 여부, 가구 내 지위, 취업 여부, 교육수준 등)와 혼인상태 및 계획, 자녀 여부 및 계획, 경제적 독립, 생계기여 여부, 성장 배경(부모의 소득 수준, 장애 여부, 군 복무) 등을 조사함
- 부가조사 영역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변화와 전망과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함
 -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일자리, 교육·훈련, 주거, 일상생활 영역에서의 변화 경험을 조사함

[표 1-2-2] 2021년 서울청년패널조사 조사영역과 주요 내용

영역	세부 영역	주요 내용
I. 교육·훈련	A. 학교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규교육 경험: 고등학교 경험, 대학 경험, 대학원 경험, 교육기회 진학계획: 대학 미진학 사유 및 진학 계획
	B. 직업훈련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창업 준비: 준비경험, 교육·훈련 경험, 교육·훈련 비용 및 부담정도 진로와 직업계획: 직업인식 및 계획
II. 일자리 공통	C. 일자리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험일자리: 과거 일자리 경험
III. 취업자	D-1. 주된 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자리 정보: 주된 일자리 정보, 전체 일자리 정보, 이직 의향, 일자리 인식
	D-2. 구직/이직/창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자 구직활동: 구직활동 경험, 창업 의향, 필요지원
IV. 미취업자	E-1. 취업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준비: 지난 4주간 취업준비 경험, 향후
	E-2. 구직/창업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직 및 창업 활동: 지난해 구직활동 및 창업 준비 경험, 구직활동 시 필요한 지원, 취·창업 준비 의향
V. 창업준비	F. 창업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준비: 창업준비경험
VI. 경제	G.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 소비, 자산, 부채: 응답자 본인 소득, 소비, 자산, 부채, 가구 월평균 소득/생활비, 가구 총 자산/부채
VII. 주거	H. 이사경험 및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사경험 및 계획: 18세 이후 이사경험, 2022년 이사 계획
	I. 현재 거주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상태: 주거특성, 주거비용, 주거환경 주거인식: 주거인식 및 불안, 만족도
VIII. 삶의 여건과 인식	J. 삶의 여건과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핍: 박탈 경험, 주관적 만족도 사회관계: 사회적 고립 건강: 주관적 건강 및 정신건강 사회인식: 현재/미래 전망, 신뢰와 공정성, 시간사용: 시간사용, 일생활 균형
IX. 정책 경험 및 평가	K. 정책 경험과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 경험 및 평가: 중앙정부 및 서울시 정책 인지 여부, 이용 여부, 이용의향
X. 가구배경	L. 가구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 및 가구 정보: 가구원 정보, 혼인상태 및 계획, 자녀여부 및 계획, 경제적 독립, 생계기여
	M. 기본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장배경 및 기본정보: 성장배경, 군입대 경험
XI. 부가조사	N. 코로나19로 인한 변화와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19 경험 및 전망: 코로나19로 인한 변화 경험

3_조사방법 및 체계

1) 조사방법

- 2021년 서울청년패널조사는 CAWI¹⁾/CAMI²⁾/TAPI³⁾를 결합한 Multi Method 방식으로 설계함
 - 2021년 서울청년패널조사는 면접원의 조사대상자에 대한 대면접촉이 제한적인 코로나19 상황과 종이설문보다 컴퓨터나 모바일 응답을 선호하는 청년층 성향을 고려하여 웹조사 방법으로 기획함
 - CAWI/CAMI/TAPI는 설문 문항 로직에 따라 이동 경로를 사전에 지정하여 응답자의 응답에 따라 자동으로 문항 이동이 이루어지므로 면접원이나 응답자가 잘못된 경로로 이동하는 오류를 방지할 수 있음
 - 또한, 응답자의 현재 상황과 응답 내용에 맞는 문항만 선별하여 질문하므로 응답자가 불필요한 안내문을 읽거나 문항 이동에 소모하는 시간을 줄여 조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음
 - 문항에 따라 응답 범위를 사전에 지정하고, 논리적으로 응답할 수 없는 값을 입력하는 경우 팝업창을 띄워 응답한 값을 재확인하는 기능을 장착하여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및 실수를 최소화시킴
- 2021년 서울청년패널조사의 조사방법은 조사전문기관의 문자 및 이메일 발송 시스템을 활용한 CAWI/CAMI 조사 링크 발송, 전문면접원에 의한 방문 및 전화 면접조사 후 TAPI를 활용한 CAWI/CAMI 조사 링크 발송, 전문면접원에 의한 면접조사 후 TAPI를 활용한 직접 조사 방식으로 설계함
 - 2020년도 사전조사에서 기 구축한 예비패널 및 2021년 이 조사 전 조사회사에서 서울청년패널조사 참여 의향을 확인한 집계구 내 거주자에 대해서는 조사전문기관 문자 및 이메일 발송 시스템을 활용해 응답자 핸드폰과 이메일로 개인별 조사 링크를 발송하여 이 조사에 본인이 직접 응답하는 자계식으로 진행함
 - 2021년도 신규 구축 패널에 대해서는 전문면접원이 집계구 내 표본가구를 방문하여 조사 대상 적합 여부, 집계구 거주 여부 및 패널조사 참여 의향을 확인 후, 조사원이 패널에게 이름, 주소,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등 기본정보를 질문하고, 타계식 대면면접조사 방식으로 응답 내용을 태블릿 PC에 입력한 후, 입력한 연락처 정보로

1) CAWI(Computer Assisted Web Interviewing): 조사설문지를 응답자의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상에서 직접 질문을 묻고 답할 수 있는 환경의 조사

2) CAMI(Computer Assisted Mobile Interviewing): 조사 설문지를 응답자의 모바일을 통해 조사하여 신속한 의견 취합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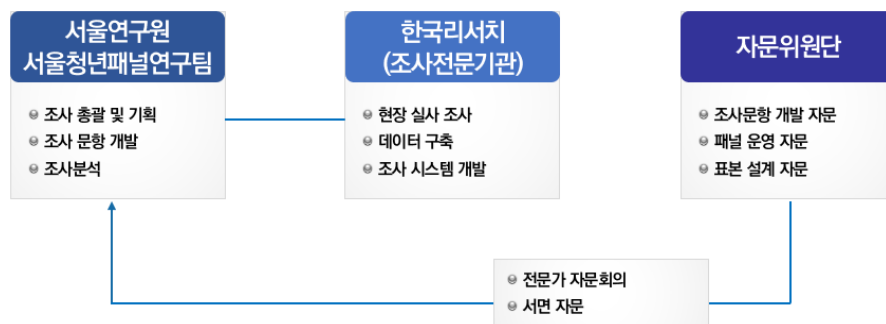
3) TAPI(Tablet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면접원이 태블릿을 통해 구현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직접 응답자에게 질문을 하고, 응답하여 조사

CAWI/ CAMI 조사링크를 발송하여 자계식으로 이 조사를 진행함

- 2021년도 신규패널 구축을 위해 전문면접원이 집계구 내 표본가구를 방문했을 때 가구에 거주자가 없으면 우편함과 현관 앞에 사전조사 링크와 QR코드가 탑재된 유인물을 유지함
- 거주자가 사전조사에 링크에 접속해 이름, 주소,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등 응답자 기본정보를 응답하면 조사전문기관 담당자가 면접원에 전달하여 면접원이 전화면접을 통해 패널구축 대상자 거주 여부, 패널조사 참여 의향 확인 후 타계식 대면면접조사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태블릿 PC에 입력한 후 입력한 연락처 정보로 CAWI/CAMI 조사링크를 발송하여 자계식으로 이 조사를 진행함
- 응답자가 신체 등 물리적인 문제나 개인적인 상황으로 CAWI/CAMI 조사를 자계식으로 조사할 수 없거나 타계식 대면면접조사 방식을 희망하는 경우 면접원이 태블릿 PC를 활용하여 TAPI 방식으로 이 조사를 진행하도록 설계하였으나 응답자 수요가 없어 실제 이 조사에서 활용하지는 않았음

2) 조사 운영체제와 조사과정

- 2021년 서울청년패널조사는 서울연구원 서울청년패널 연구팀이 기획하였으며 조사문항 개발, 조사분석 등을 총괄 진행함
-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청년연구자를 비롯한 연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사문항 개발과 표본설계, 패널 운영 등 관리방안을 지속 논의하는 과정을 거침
- 조사전문기관은 서울연구원 서울청년패널연구팀이 개발한 조사 문항을 바탕으로 현장 실사와 데이터 구축 업무를 수행했으며, 청년층에 특화된 웹조사 및 모바일 조사 시스템을 개발함



[그림 1-3-1] 서울청년패널조사 운영체제

- 2021년 서울청년패널조사는 2020년도 사전조사에서 구축한 예비표본 유지 및 신규 표본 구축을 동시에 진행하였으며, 아래 [표 1-3-1]과 같은 절차로 수행됨

- 2020년도 사전조사에서 기 구축한 예비표본 유지 및 신규표본 구축을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 조사설계, 조사방법, 조사일정 등의 조사계획을 수립함
- 이 조사의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청년 관련 단체 등의 의견 수렴하였으며 서울시의 지역적 특수성 및 서울 청년의 특성을 반영한 데이터를 생산하기 위해 다양한 관계 기관의 의견 수렴함
- 조사전문기관은 공개입찰경쟁을 통해 서면심사와 프레젠테이션 심사를 거쳐 (주)한국리서치로 최종 결정하였음
- 서울청년패널조사의 목표 표본 수는 5,000명으로, 표본 추출틀은 2020년 사전조사와 마찬가지로 서울시 집계구를 활용하기로 결정함
- 2021년 서울청년패널조사 조사 문항 개발은 2020년 사전조사 조사 문항을 토대로 수정 및 보완 작업을 거쳐 최종 조사 문항을 확정함
 - 일차적으로 서울연구원 내부 연구진의 회의 및 검토를 통해 문항을 개발하고 조사수행기관과 협의하여 수정해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함
 - 일자리, 교육, 주거, 경제 등 주요 영역별 전문가 자문회의와 서면 검토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문항 영역에 대해 서울시 청년정책 실무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함
 - 현재 상태(대학 재학, 취업 여부, 취창업 준비), 성별, 연령, 분가 여부 등을 고려해 인지면접 참여자를 모집하여 응답자 인지면접을 실시함. 인지면접을 통해 조사 문항의 난이도와 응답시간을 측정하여 청년의 특성과 웹조사 환경에 적합하도록 설문용어 및 문항의 길이 등을 검토하고 설문 구조와 순서를 변경함
 - 이상의 검토과정을 바탕으로 서울연구원 연구진과 조사수행기관의 전체 회의를 통해 최종 조사 문항을 확정함
- 실사 준비 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응답률을 높이고 조사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서울시 조사협조 공문, 조사원 신분증, 조사 안내문 등을 준비하였으며, 집계구 일치여부와 정확한 조사대상자 선별을 위해 사전조사 URL과 QR코드가 기입된 이 조사 유인물을 준비함
 - 포스터, 보안각서, 응답자 답례품 등도 함께 준비하였음
- 2020년 사전조사 예비표본에 대해 2021년 서울청년패널조사 참여 의향과 인원을 파악하기 위해 확인 전화조사를 실시함
- 체계적인 현장 실사를 위한 조사도구로 웹 조사 및 조사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였음
 - 웹조사 시스템의 주요 기능으로 오류 방지를 위한 문항 간 이동 로직, 문항 별 응답범위 및 이상값 확인창, 무응답 확인창 등이 있음
 - 조사관리 시스템의 주요 기능으로 집계구와 기본정보 확인 및 입력, 조사링크 발송,

응답자별 진행상황 관리 등이 있음

- 본조사(현장실사) 전 조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높이고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행동지침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사지침서를 제작하여 조사원 교육을 실시함
 - 조사원 교육은 조사전문기관이 진행하였으며 서울연구원 연구진이 직접 참관하여 모니터링하였음
- 조사원 교육 이후 패널 구축 및 본조사를 진행하였음
 - 현장조사의 진행상황과 조사의 정확성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매주 조사 진행 실적을 조사전문기관에게 보고받아 확인하였음

[표 1-3-1] 조사 진행 절차

진행 일정	진행 단계	내용
2021년 1~3월	계획 수립	서울청년패널조사 패널 구축, 조사계획 수립 등
2021년 3~4월	관계 기관 의견수렴	학계, 청년 관련 단체 등 의견수렴
2021년 6월	조사기관 선정	이 조사의 실사를 진행할 조사기관 선정
2021년 7~10월	조사 설계	표본 크기 결정 및 자치구별 배분 서울시 25개 구별 집계구 추출(1,500개)
2021년 8~10월	조사문항 개발	조사문항 개발 및 확정, 조사문항 점검을 위한 FGD 실시
2021년 8~10월	실사 준비	조사협조공문, 조사안내문, 포스터, 보안각서, 답례품 등 준비
2021년 9월	사전조사	20년 사전조사 예비패널 확인 전화 조사
2021년 10~11월	웹조사 및 조사관리 시스템 개발	웹(CAWI/CAMI/TAPI) 조사 시스템 개발, 인터뷰어 및 매니저 시스템 개발
2021년 11월	조사원 교육	조사지침서 개발, 조사원 집체교육 실시
2021년 11월~2022년 4월	패널 구축 및 본조사 진행	패널 구축 및 조사 실시, 조사 실적 보고

4_표본 설계

1) 모집단의 정의

- 목표 모집단은 2021년 11월 말 기준 서울시 청년정책 대상이 되는 서울시 거주 청년으로 만 18세에서 34세의 내국인임
 - 서울시 18-34세 청년의 자치구, 성별, 연령대(18~24세, 25~29세, 30~34세)의 분포는 다음 [표 1-4-1]과 같음
 - 목표 모집단은 총 2,313,636명으로 여성은 1,182,549명(51.1%), 남성은 1,131,087명(48.9%)임
 - 조사 모집단은 현재 가구방문조사에서 접촉이 가능한 주택(아파트와 주거용 주택 등)에 거주하는 만 18세에서 34세의 내국인임

[표 1-4-1] 자치구, 성별 연령대별 인구

자치구별	18~24세		25~29세		30~34세		합계(명)
	남	여	남	여	남	여	
강남구	21,349	22,013	18,243	20,534	17,734	20,042	119,915
강동구	16,971	16,697	16,723	17,981	16,985	17,353	102,710
강북구	11,259	12,171	11,436	11,073	9,570	8,909	64,418
강서구	20,161	22,281	23,888	28,794	25,125	25,452	145,701
관악구	20,180	24,362	35,596	34,417	27,805	21,930	164,290
광진구	14,049	16,446	17,500	19,051	14,503	14,717	96,266
구로구	14,157	14,498	15,382	16,013	15,505	15,227	90,782
금천구	8,152	8,801	11,782	11,587	10,993	8,926	60,241
노원구	23,960	23,016	17,625	16,660	15,265	15,141	111,667
도봉구	12,533	12,306	11,374	10,940	9,699	9,373	66,225
동대문구	14,213	16,847	15,798	14,610	12,557	11,954	85,979
동작구	15,545	17,306	18,874	19,371	16,162	15,828	103,086
마포구	13,856	17,015	16,516	19,627	14,943	17,306	99,263
서대문구	12,371	14,604	13,395	13,606	10,920	11,288	76,184
서초구	15,833	16,273	13,352	14,848	13,197	15,302	88,805
성동구	11,005	11,979	12,503	12,445	11,069	11,984	70,985
성북구	18,329	21,359	17,031	16,930	14,227	14,155	102,031
송파구	24,711	25,428	24,318	27,677	25,095	27,398	154,627
양천구	19,331	18,161	15,053	14,923	13,220	13,156	93,844
영등포구	12,632	14,099	17,234	19,782	18,399	18,252	100,398
용산구	7,811	8,723	9,215	10,157	9,601	9,757	55,264
은평구	17,925	18,680	17,396	19,465	16,052	17,050	106,568
종로구	5,737	6,638	6,395	6,376	5,111	5,066	35,323
중구	4,035	4,858	5,148	5,695	5,104	5,155	29,995
종랑구	13,972	14,083	15,621	16,340	14,771	14,282	89,069
합계	370,077	398,644	397,398	418,902	363,612	365,003	2,313,636

2) 표본추출틀

- 2021년 서울청년패널조사는 2020년 사전조사에서 구축한 예비표본을 최대한 유지하고 추가로 신규표본을 구축하고자 함
- 따라서 표본추출틀은 2020년 사전조사와 동일하게 2020년 통계청 집계구를 사용함
 - 서울청년패널은 국가승인통계가 아니기 때문에 약 60가구를 기준으로 구획된 통계청의 인구센서스 자료를 이용할 수 없음
 - 집계구는 평균 200가구를 기준으로 구획되어 있음
- 집계구에서는 가구 명부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집계구의 기준지점을 중심으로 조사대상 가구를 선정하고 조사함
 - 2020년 인구총조사 기준 서울시 전체 집계구수는 18,748개이고, 25개 구별 집계

구 분포는 [표 1-4-2]와 같으며 송파구의 집계구가 1,286개로 가장 많으며 중구의 집계구는 237개로 가장 적음

3) 표본 크기와 표본 배분

- 표본크기는 조사비용, 목표 허용오차의 크기, 조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5,000명으로 결정함
- 2021년 서울청년패널조사 표본설계의 중요한 부분은 2020년 사전조사의 집계구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신규 집계구를 추출하는 것임
 - 2020년 사전조사에서 500개의 집계구를 추출하고 집계구당 10명 조사완료율 목표 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과 대면조사가 어려운 청년 집단의 특수성으로 인해 500개 집계구당 10명 조사 완료는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음
 - 또한, 조사의 어려움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대상자를 표집한 결과 표본설계상의 500개 집계구와 일치하는 집계구는 약 300여개 정도였음
 - 조사대상자를 종단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패널조사의 목적을 잘 달성하고자 한다면 이 조사에서는 체계적인 집계구 관리 및 신규 표본 구축, 패널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 사전조사 대상자들을 최대한 본조사에도 참여시키면서 체계적인 패널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조사의 집계구를 활용하면서 집계구를 추가로 추출하여 신규 표본을 확보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임
- 2021년 이 조사에서는 사전조사의 예비표본을 활용하고자 당시 추출된 집계구를 최대한 유지하고 목표 표본 5,000명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집계구를 1,000개, 1,500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함
 - 2020년 사전조사 표본설계안에 제시된 집계구와 일치하는 집계구 300여개는 그대로 유지하되, 나머지 집계구에 대한 검증 및 확인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집계구도 포함시켜 총 1,000개의 집계구 또는 1,500개의 집계구를 추출하는 방향으로 설계함
 - 1,000개의 집계구를 추출한다면 집계구당 평균 5명 조사완료 기준임. 1,500개의 집계구를 추출한다면 집계구 당 평균 3.3명 조사 완료 기준이며, 3,000개의 집계구를 추출한다면, 집계구 당 평균 1.6명 조사 완료 기준임
 - 집계구 확대는 통계적 대표성을 더 담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며 집계구는 하나의 집락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표본설계상 추출될 수 있는 집락 수가 많아지면 추정량의 효율성이 좋아짐
 - 일정주기로 시행하는 대규모 조사인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조사』, 『노인실태조사』 등에서 조사 완료수는 이전 조사와 비슷하지만, 조사구 확대(여기에서는 집계구 확대와 같은 개념) 고려를 통계청으로부터 요청받은 바 있음

- 이는 조사구 확대로 표본의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승인통계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
- 다만, 집계구 수가 늘어나면 조사비용이 늘어나는 단점이 있으나, 코로나 19로 인 해대면조사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집계구 확대를 검토함

[표 1-4-2] 자치구별 추출 집계구 분포

구별	추출 집계구(개)		
	모집단	2021년 표본설계 1안	2021년 표본설계 2안
강남구	1,017	54	81
강동구	823	42	63
강북구	603	28	42
강서구	1,136	60	90
관악구	953	64	96
광진구	674	40	60
구로구	783	38	57
금천구	436	28	42
노원구	1,078	50	75
도봉구	652	30	45
동대문구	685	34	51
동작구	754	42	63
마포구	730	40	60
서대문구	615	32	48
서초구	828	40	60
성동구	582	30	45
성북구	883	42	63
송파구	1,286	68	102
양천구	874	42	63
영등포구	722	38	57
용산구	431	28	42
은평구	912	44	66
종로구	282	26	39
중구	237	24	36
종량구	772	36	54
합계	18,748	1,000	1,500

- 2021년 서울청년패널조사의 표본은 2020년 사전조사에서 구축한 예비패널 및 신규 표본으로 구성됨. 신규 표본 구축은 대면조사면접원을 통한 방문조사를 기본으로 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과 대면접촉을 선호하지 않는 청년층 특성으로 인해 신규 표본 구축이 원활하지 않아 통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추출된 집계구 내에 거주하는 조사전문기관의 마스터 샘플 활용과 SKT 텔레콤 가입자 정보 활용 등 조사방법의 다각화를 검토함
- 조사전문기관 마스터 샘플은 조사 집계구가 확정된 뒤 해당 집계구 내에 거주하는 마스터 샘플 중에서 조사 참여 의향자를 모집하는 방법임. 이 경우 조사 집계구가 확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표본 bias인 응답자 편의가 생길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며 표본으로 추출된 집계구 내에 할당된 표본 수를 우선 대면 조사하되 그 집계구

안에서 조사의향이 있는 마스터 샘플을 활용하는 것이므로 신규패널이 전부 마스터 샘플로 구축되지는 않음. 서울특별시의 18~34세 인구현황은 2,313,636명(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2021년 11월 기준)이고, 조사에 포함될 수 있는 마스터 샘플의 서울시 18~34세 규모는 39,075명으로 마스터 샘플을 활용한다고 해도 이 조사의 표본 대표성은 유지될 것임

- 신규 표본 구축 시 조사대상자 확보를 위해 추출된 집계구 내의 SK텔레콤 가입자 정보 활용을 검토함. SKT 텔레콤의 협조를 통해 출생연도가 1987~2003년도이며 조사대상 집계구가 속한 행정동에 거주하는 가입자는 총 463,553명임. 이들을 대상으로 서울청년패널조사 참여 의향을 묻는 사전조사 링크를 발송하여 이 중 총 18,400명이 사전조사에 응답함. 사전조사에서 성, 연령, 주소 정보를 재확인하여 추출 집계구에 거주하고 연령이 적합한 조사대상자를 한정해 조사가 진행되어 응답자 편이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됨
- 서울청년패널의 모집단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18~34세 청년이며, 표집틀은 집계구임. 단일한 모집단과 표집틀 내에서 대면조사(무작위표집), 조사전문기관의 마스터샘플 활용, SKT 통신사 협조 등 조사방법을 다각화 한 것이므로 서울청년을 단일 모집단으로 설정하고 표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조사방법이 가중치(설계, 무응답, 사후층화)를 고려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음
- 일반 청년이 아닌 추출된 집계구 내에 거주하는 청년이 대상이므로, 실질적으로 추출된 집계구 내에 있는 청년들과 접촉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표본의 다양성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통계전문가의 자문의견을 받았음
 - 이미 정해진 집계구 내에서 청년과 접촉하는 조사방법의 다양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조사결과와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표본 배분은 청년 인구수에 비례하여 표본을 할당함
 - 자치구별 표본 배분은 2021년 11월 주민등록인구현황을 기준으로 모집단에 비례하여 표본 산정하였으며 추출률은 0.21%임
 - 종로구와 중구의 경우, 모집단의 규모도 상대적으로 적고 표본을 과대할당(oversampling)하더라도 사전조사에서도 확인하였듯이 대면조사 자체의 어려움이 존재하므로 비례 배분으로 할당하되, 추후 패널 유지를 위한 관리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n_h = 5,000 \cdot \frac{N_h}{\sum_{h=1}^L N_h}$$

- N_h 는 h구의 조사대상 연령층(18~34세)의 주민등록인구수
- 자치구별 성별, 연령대별 표본 배분은 각 자치구의 총표본규모를 유지한 채 골고루

조사될 수 있도록 표본을 할당함

- 구별 표본 집계구가 행정동에서 고르게 추출될 수 있도록 행정동의 행정코드를 기준으로 정렬한 후에 조사대상 인구수를 기준으로 확률비례계통추출법(probability proportional to size samplings)으로 표본 집계구를 추출함
 - 자치구별로 선정된 표본 집계구의 중심을 기준으로 3~4가구를 계통추출법으로 조사대상 가구를 1차로 선정함
- 1차로 선정된 가구 내에 가구원 중에서 조사적격자(만 18~34세)가 있는 가구를 방문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만일 1차 선정 가구 내 조사적격 가구원이 없는 경우 시계방향으로 바로 인접 가구를 조사대상으로 대체하여 방문조사를 실시함
 - 사회조사에서 대면조사가 어려운 경우 인접 지역에서 조사하는 것은 흔히 발생하는 일이며 추출된 집계구 내에 조사적격자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조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인접 집계구가 포함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는 통계전문가의 자문의견이 있었음

[표 1-4-3] 목표 표본 수

구별	18~24세		25~29세		30~34세		합계(명)	추출 집계구 (개)
	남	여	남	여	남	여		
강남구	46	48	39	44	38	43	258	81
강동구	37	36	36	39	37	37	222	63
강북구	24	26	25	24	21	19	139	42
강서구	44	48	52	62	54	55	315	90
관악구	44	53	77	74	60	47	355	96
광진구	30	36	38	41	31	32	208	60
구로구	31	31	33	35	33	33	196	57
금천구	18	19	25	25	24	19	130	42
노원구	52	50	38	36	33	33	242	75
도봉구	27	27	25	24	21	20	144	45
동대문구	31	36	34	32	27	26	186	51
동작구	34	37	41	42	35	34	223	63
마포구	30	37	36	42	32	37	214	60
서대문구	27	32	29	29	24	24	165	48
서초구	34	35	29	32	28	33	191	60
성동구	24	26	27	27	24	26	154	45
성북구	40	46	37	37	31	31	222	63
송파구	53	55	53	60	54	59	334	102
양천구	42	39	33	32	29	28	203	63
영등포구	27	30	37	43	40	39	216	57
용산구	17	19	20	22	21	21	120	42
은평구	39	40	38	42	35	37	231	66
종로구	12	14	14	14	11	11	76	39
중구	9	10	11	12	11	11	64	36
중랑구	30	30	34	35	32	31	192	54
합계	802	860	861	905	786	786	5,000	1,500

5_표본현황 및 가중치 조정

1) 유효 표본 검증

- 조사는 2021년 11월 10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총 5,210명에 대한 응답 데이터를 확보함
- 설문에 참여한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응답 주소지를 좌표 변환한 뒤 QGIS 프로그램을 통해 거주지 집계구를 검증함. 이후 추출 집계구 좌표와 대조하여 응답자 거주지가 추출 집계구에 정확하게 해당하는지 검증하고, 일치하지 않을 경우 탈락 처리함
-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전체 IP주소, 거주지 주소, 연락처를 확인하여 중복 참여를 검증하고, 주소와 연락처 뒷자리, 주소와 응답자 주요정보 등 응답자 정보를 조합하여 가구내 중복 참여를 확인한 뒤 1인 2회 이상 및 1가구 내 2인 이상 참여 시 탈락 처리함
-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중 신규 응답자에 대해 모바일 검증을 실시함. 청년응답자 특성을 고려하여 전화검증 대신 모바일 검증방식으로 조사 본인 참여 여부, 생년, 성별, 주소, 패널조사 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면접원에 의한 비표본 오차를 확인하였으며, 검증되지 않은 경우 탈락 처리함
- 응답자 본인이 직접 응답하는 자제식 방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응답오류를 검증하기 위해 응답값에 대한 사후 검증을 실시함. 웹조사 시스템 상에서 에러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논리적으로 응답 오류가 의심되는 경우 전화로 재조사를 실시하여 응답값을 확인함. 확인 결과 단순 기입 오류인 경우 응답값을 정정하고, 응답 비적격자 및 불성실 응답자로 판별되는 경우 유효 표본에서 제외함
- 유효 표본에서 제외한 경우는 예컨대, 응답자 연령에 비해 고등학교나 대학교 입학 시기나 일자리 시작 시기가 빠르거나 늦은 경우, 응답자 성별과 병력 정보가 매칭되지 않는 경우, 응답자 학력, 직종 대비 소득이나 지출이 많은 경우 등이 포함됨
- 응답자 검증 과정에서 일부 응답자가 제외되어, 최종적으로 5,194명의 유효 표본을 확정함

2) 유효 표본 현황

- 2020년도 사전조사에서 기 구축한 예비패널 5,496명 중 전화 확인 조사 시 2021년 서울청년패널조사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1,851명을 대상으로 본조사 링크를 발송하였으며, 최종적으로 754명이 응답함
- 전문면접원이 집계구 내 표본가구를 방문하여 직접 또는 사전조사를 통해 응답자 기본정보를 확보하고, 거주여부 및 패널참여 의향을 확인한 후 태블릿 PC를 활용하여 CAWI/CAMI 조사 링크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2,313명의 응답자를 확보함

- 이 조사의 조사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서 보유한 1987~2003년생 Master Sample 중 추출된 집계구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서울청년패널조사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에게 CAWI/CAMI 조사 링크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824명의 응답자를 확보함
 - Master Sample은 지역, 성별, 연령, 학력, 소득, 혼인 비율 등에 있어서 전체 인구 분포와 유사하게 구성된 56만 여명의 응답자 풀로, 조사를 위해 접촉할 수 있는 연락처 및 기본적인 인구통계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여 활용이 가능함
- SKT텔레콤의 협조를 통해 출생연도가 1987~2003년도이며 조사대상 집계구가 속한 행정동에 거주하는 가입자 463,553명에게 서울청년패널조사 참여의향을 묻는 사전조사 링크를 발송하였으며, 이 중 47,146명이 접속하여 총 18,400명이 사전조사에 응답함. 사전조사에서 성, 연령, 주소 정보를 재확인하여 추출 집계구에 거주하고 연령이 적합한 조사대상자 1,903명을 선별한 뒤 이 조사 CAWI/CAMI 링크를 발송하여 1,303명의 응답 데이터를 확보함
- 응답자 검증 후 최종 확정된 조사유형별 유효표본은 현황은 아래 [표 1-5-1]과 같음

[표 1-5-1] 조사유형별 유효표본 현황

구분	인원 수(명)	비율(%)
2020년 사전조사 예비패널	754	14.5
2021년 대면조사	2,313	44.5
2021년 Master Sample	824	15.9
2021년 SKT	1,303	25.1
총계	5,194	100.0

- 2020년 구축한 사전조사 예비표본의 성비 불균형에 따라 2021년 사전조사 예비표본의 최종 유효 표본 중 남성이 213명, 여성이 541명으로 남성 대 여성이 1:2 이상의 성비 차이를 보임
- 이로 인한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표본설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2021년 신규패널 구축 시 목표할당을 성비로도 구분하고, 대면면접조사, 조사전문기관 Master Sample 활용, SKT 협조 등 조사방법 다각화를 통해 목표할당을 채우고자함
- 집계구 내의 대면조사에서 남성 51%, 여성 48%로 남성을 과대 표집하였으나 2020년 사전조사에서 기인한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으며 Master Sample과 SKT협조 표본은 대상자의 연령, 성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장점을 활용하여 남성 표본을 추가 조사함
- 최종 유효 표본의 성비는 47:53으로 나타났으며 최종 유효 표본 현황에 대해 모집단

의 성비를 맞추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이므로 표본설계전문가로부터 문제없다는 검토 의견을 받았음

- 아래 [표 1-5-2]에서 [표 1-5-6]는 조사유형별 유효표본의 자치구별·성별·연령별 현황을 제시한 것임
- 2020년 사전조사 예비패널의 경우 만 35세 응답자가 포함되었는데, 이는 2020년 사전조사에서 연령이 만 34세였던 응답자가 포함되었기 때문이며 따라서 최종 유효표본 현황에도 만 35세가 포함됨
 - 목표 모집단의 연령은 만 18~34세로 설정되어 있지만,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의 청년 연령의 범위는 만 19~39세이므로 기존 응답자가 만 39세가 되는 시점까지 조사에 응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함

[표 1-5-2] 2020년 사전조사 예비패널 최종 유효 표본 현황

구별	18~24세		25~29세		30~35세		합계(명)
	남	여	남	여	남	여	
강남구	3	11	3	10	1	4	32
강동구	-	-	2	4	2	4	12
강북구	-	6	1	3	-	2	12
강서구	2	5	3	10	5	16	41
관악구	4	10	13	17	7	12	63
광진구	1	7	4	10	2	7	31
구로구	1	3	1	9	-	8	22
금천구	4	5	5	6	2	5	27
노원구	4	12	9	12	4	8	49
도봉구	6	6	4	4	1	5	26
동대문구	3	4	4	11	1	4	27
동작구	5	11	5	14	5	8	48
마포구	2	5	3	12	4	8	34
서대문구	5	6	5	9	4	3	32
서초구	2	3	2	5	1	2	15
성동구	1	5	2	11	2	8	29
성북구	6	9	8	15	3	10	51
송파구	-	5	4	10	3	6	28
양천구	1	2	4	7	-	9	23
영등포구	2	2	1	5	7	6	23
용산구	3	8	-	13	2	5	31
은평구	-	10	1	21	2	10	44
종로구	1	3	-	3	1	6	14
중구	-	1	-	2	2	2	7
종랑구	4	6	6	9	2	6	33
합계	60	145	90	232	63	164	754

[표 1-5-3] 2021년 대면조사 최종 유효 표본 현황

구별	18~24세		25~29세		30~34세		합계(명)
	남	여	남	여	남	여	
강남구	37	27	20	21	18	14	137
강동구	21	16	13	6	10	5	71
강북구	12	16	11	13	11	6	69
강서구	12	18	9	17	7	9	72
관악구	22	27	42	25	17	13	146
광진구	4	3	8	6	8	10	39
구로구	26	31	24	25	29	20	155
금천구	4	4	2	3	2	2	17
노원구	49	33	21	23	16	22	164
도봉구	15	22	13	14	17	7	88
동대문구	18	16	10	14	11	15	84
동작구	22	16	18	16	18	14	104
마포구	21	33	24	24	13	17	132
서대문구	26	27	12	12	16	21	114
서초구	29	16	25	26	23	17	136
성동구	5	6	4	3	1	-	19
성북구	7	14	10	10	11	9	61
송파구	6	8	3	2	5	5	29
양천구	18	23	14	15	10	12	92
영등포구	22	24	24	32	25	32	159
용산구	9	10	10	3	5	7	44
은평구	34	26	28	13	16	16	133
종로구	28	18	20	15	19	6	106
중구	8	8	8	7	5	15	51
종량구	17	19	18	15	9	13	91
합계	472	461	391	360	322	307	2,313

[표 1-5-4] 2021년 Master Sample 예비패널 최종 유효 표본 현황

구별	18~24세		25~29세		30~34세		합계(명)
	남	여	남	여	남	여	
강남구	-	-	7	8	3	12	30
강동구	8	11	2	13	5	8	47
강북구	2	-	4	6	2	3	17
강서구	6	7	6	12	11	18	60
관악구	9	10	10	21	9	17	76
광진구	1	9	7	13	3	9	42
구로구	1	3	4	5	2	2	17
금천구	1	5	4	3	4	7	24
노원구	1	13	6	5	4	8	37
도봉구	3	4	-	3	4	9	23
동대문구	3	8	4	8	5	8	36
동작구	5	5	5	13	7	5	40
마포구	1	8	7	9	7	4	36
서대문구	3	1	7	8	5	2	26
서초구	2	2	6	5	2	8	25
성동구	2	2	5	7	4	4	24
성북구	3	8	4	10	4	9	38
송파구	5	6	5	18	8	18	60
양천구	2	4	5	6	4	5	26
영등포구	2	1	2	6	7	5	23
용산구	-	2	4	8	2	9	25
은평구	2	4	4	6	6	12	34
종로구	2	2	2	4	-	3	13
중구	-	5	4	5	4	-	18
종랑구	-	2	5	3	7	10	27
합계	64	122	119	205	119	195	824

[표 1-5-5] 2021년 SKT 최종 유효 표본 현황

구별	18-24세		25-29세		30-34세		합계(명)
	남	여	남	여	남	여	
강남구	5	7	10	9	14	13	58
강동구	10	9	13	19	22	21	94
강북구	8	4	5	4	6	8	35
강서구	14	21	25	25	34	15	134
관악구	16	10	19	13	27	13	98
광진구	18	10	23	18	17	5	91
구로구	2	2	6	3	4	5	22
금천구	5	6	8	14	17	6	56
노원구	13	2	7	-	9	1	32
도봉구	2	3	3	7	4	1	20
동대문구	7	5	13	1	6	-	32
동작구	8	9	7	10	8	9	51
마포구	6	-	9	10	5	10	40
서대문구	2	-	8	-	2	1	13
서초구	3	6	1	-	7	6	23
성동구	14	8	15	8	11	7	63
성북구	23	14	15	5	7	5	69
송파구	21	25	30	29	29	29	163
양천구	19	12	7	5	18	9	70
영등포구	2	3	7	2	7	-	21
용산구	6	-	7	-	5	1	19
은평구	5	8	6	11	11	2	43
종로구	-	-	-	-	-	-	-
중구	2	-	2	-	4	-	8
종량구	8	5	10	8	12	5	48
합계	219	169	256	201	286	172	1,303

[표 1-5-6] 최종 유효 표본 현황

구별	18~24세		25~29세		30~35세		합계(명)
	남	여	남	여	남	여	
강남구	45	45	40	48	36	43	257
강동구	39	36	30	42	39	38	224
강북구	22	26	21	26	19	19	133
강서구	34	51	43	64	57	58	307
관악구	51	57	84	76	60	55	383
광진구	24	29	42	47	30	31	203
구로구	30	39	35	42	35	35	216
금천구	14	20	19	26	25	20	124
노원구	67	60	43	40	33	39	282
도봉구	26	35	20	28	26	22	157
동대문구	31	33	31	34	23	27	179
동작구	40	41	35	53	38	36	243
마포구	30	46	43	55	29	39	242
서대문구	36	34	32	29	27	27	185
서초구	36	27	34	36	33	33	199
성동구	22	21	26	29	18	19	135
성북구	39	45	37	40	25	33	219
송파구	32	44	42	59	45	58	280
양천구	40	41	30	33	32	35	211
영등포구	28	30	34	45	46	43	226
용산구	18	20	21	24	14	22	119
은평구	41	48	39	51	35	40	254
종로구	31	23	22	22	20	15	133
중구	10	14	14	14	15	17	84
종량구	29	32	39	35	30	34	199
합계	815	897	856	998	790	838	5,194

3) 가중치 조정

(1) 가중치 산출 방법

- 표본조사에서 표본의 분포특성과 모집단의 분포특성간의 차이를 보정해주는 방법 중 하나가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치의 편향을 줄이는 것이며 패널조사에서 가중치는 종단면 가중치와 횡단면 가중치로 구분됨
- 종단면 가중치는 패널의 변동 또는 변화를 분석하는 데 이용되고 횡단면 가중치는 조사 시점에서 모집단의 특성을 분석하는데 사용되며, 패널조사를 처음 구축하는 시점에서는 횡단면 가중치와 종단면 가중치가 동일함
- 서울청년패널조사의 가중치는 설계 가중치, 응답률 보정 가중치와 사후층화보정 가중치로 구분하여 계산하고 최종 가중치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 산출됨

(2) 설계 가중치

- 설계 가중치(design weight)는 각 표본조사대상자의 추출확률의 역수로 계산 가능하며 서울청년패널조사의 표본설계는 층화집락추출에 해당하기 때문에 2단계에 걸친 추출 확률을 기초로 설계 가중치를 계산함
- 설계 가중치는 표본 집계구 추출률의 역수, 표본 집계구내에서 가구 추출률의 역수와 가구내에서 조사적격자의 추출률의 역수를 곱해서 계산하며,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냄

$$w_{hij} = \frac{\sum_{i=1}^{N_h} M_{hi}}{m_h M_{hi}} \times \frac{M_{hi}}{m_{hi}} \times H_{hij}$$

- 여기서, m_h 는 h 층에 할당된 표본 집계구수, N_h 는 h 층의 모집단 집계구 수, M_{hi} 는 h 층의 i 집계구 내의 가구수, m_{hi} 는 h 층내의 i 집계구 내의 표본조사 가구수를 나타내며 H_{hij} 는 h 층 i 집계구 j 가구내의 조사적격가구원수를 의미함

(3) 무응답 보정 가중치

- 무응답은 단위무응답과 항목 무응답으로 구분하며, 단위무응답에 대한 보정방법은 무응답자와 응답자의 특성이 유사하다는 가정에서 응답률의 역수를 무응답 보정 가중치로 사용함
- 여기서는 단위무응답의 경우 표본대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1차연도 이 조사 시의 무응답 보정 가중치는 없지만, 패널의 특성상 차수에 따른 실제 표본 크기 감소를 반영하기 위한 무응답 보정은 다음과 같음

$$w_t = w_{\text{기본}t\text{차}} \times \hat{p}_t^{-1}$$

- t차수의 기본 가중치를 $w_{기본t차}$, 로지스틱 회귀 분석으로 예측된 예측 응답 확률을 \hat{p}_t 라고 하면 무응답 보정으로 얻어지는 가중치 w_t 는 위 식과 같이 표현됨
- \hat{p}_t 은 조사시점 t에서 응답여부를 종속변수로 하고 응답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설명변수로 사용한 로지스틱 회귀 모형의 응답 확률임

(4) 사후 층화 보정 가중치

- 사후 층화 보정 가중치는 자치구별로 전체 조사대상인 청년의 정보(성별과 연령대)를 이용하여 추정치의 편향을 축소하기 위해서 보정해 주는 가중치를 의미하며 성별과 연령대별 청년수와 가중치 합계의 비를 사후 층화 보정 가중치(BF)로 사용

$$BF_g = \frac{NPS_g}{\sum_{h=1} \sum_{i=1} \sum_{j=1} W_{hi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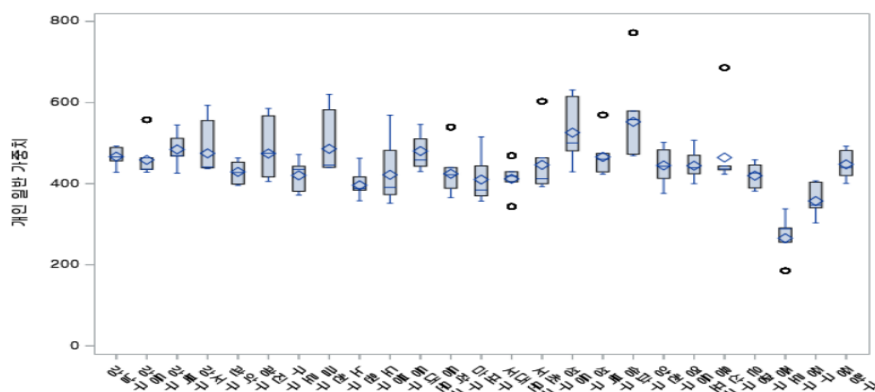
- NPS_g 는 사후 층화 변수 g에 대한 조사모집단에서 구한 합계이고 분모의 가중치 합계는 설계 가중치와 무응답보정 가중치를 곱한 가중치에 대해서 사후 층화 변수 g를 기준으로 합계한 값임

(5) 최종 가중치

- 응답자 개인별로 적용할 최종 가중치는 설계 가중치, 무응답 보정 가중치와 사후 층화 보정 가중치를 곱해서 아래 식과 같이 계산됨

$$W_{hijk}^f = W_{hij} \times w_t \times BF_g$$

- 자치구별 일반가중치 분포는 다음과 같음



[그림 1-5-1] 자치구별 일반 가중치 분포

(6) 가중치 산출방법

- 일반가중치(모수가중치)는 특정 표본이 구별/성별/연령별 전체인구 중 몇 사람을 대변하는지를 의미하며, 이런 가중치를 적용한 분석은 표본조사 정보를 근거로 모집단 전체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는 데 유용함
- 표이 조사된 사람을 근거로 모집단 특성을 추론하는 경우 표준화 가중치(standardized weight)를 사용해야 함
 - 표준화 가중치는 표본가중치(샘플가중치)라고도 하며 일반가중치에 전체 표본크기를 곱하고, 일반가중치의 합계로 나눈 값이므로, 표준화 가중치를 모두 합하면 표본 크기와 동일한 값이 됨
 - 특히 표준화 가중치는 두 변수간의 연관성 분석이나 카이제곱 분석할 경우와 통계적 가설검정 등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음. 왜냐하면 일반가중치는 표본사례수에 비해서 큰 값의 자유도를 나타내지만 표준화 가중치는 자유도가 표본사례수와 유사한 값을 갖기 때문임
- 표준화 가중치는 모평균이나 모비율을 추정할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으나 모총계를 추정할 경우에는 일반가중치를 적용해야 함

(7) 모수추정

- 본조사의 표본설계는 여러 단계의 추출과정을 거쳐서 표본을 선정한 복합표본설계 기법이므로 이에 적합한 모수추정식을 사용해야 함
- 주요 관심 대상의 추정량이 모평균 또는 모비율 추정량일 경우에 모비율 추정 및 추정량의 분산은 모평균 추정방법과 동일하지만 모비율 추정의 경우 조사변수 값이 1 또는 0의 값을 갖게 됨
 - 이 조사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모수를 추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음

① 모평균(모비율) 추정식

$$\hat{\bar{Y}} = \frac{\sum_{h=1}^H \sum_{i=1}^{n_h} \sum_{j=1}^m w_{hij}^f y_{hij}}{\sum_{h=1}^H \sum_{i=1}^{n_h} \sum_{j=1}^m w_{hij}^f}$$

② 모평균에 대한 분산추정

$$\hat{V}(\hat{Y}) = \sum_{h=1}^H \frac{n_h(1-f_h)}{n_h-1} \sum_{i=1}^{n_h} (e_{hi\cdot} - \bar{e}_{h\cdot})^2$$

$$f_h = \frac{N_h}{n_h}, \quad e_{hi\cdot} = \left[\sum_{j=1}^m w_{hij} (y_{hij} - \hat{Y})^2 \right] / w_{h\cdot}, \quad \bar{e}_{h\cdot} = (\sum_{i=1}^{n_h} e_{hi\cdot}) / n_h$$

③ 모평균에 대한 표준오차

$$\widehat{SE}(\hat{Y}) = \sqrt{\hat{V}(\hat{Y})}$$

④ 모평균에 대한 상대표준오차 계산

- 표본오차는 표본추출 과정에서 생기는 우연한 오차이므로 표본의 크기가 점차 커질수록 점점 작아짐. 또한 추정량의 표준오차를 기준으로 그 추정량의 통계적 정도(precision)를 평가하는 데 이용되는데, 추정량의 표준오차는 추정하고자 하는 모수가 무엇이냐에 따라 그 크기가 상대적으로 달라져서 표준오차의 크고 작음을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이러한 이유로 추정의 정도를 나타내기 위한 상대적인 기준으로서 상대표준오차(relative standard error: RSE)를 많이 이용하며, 상대표준오차는 추정량의 표준오차를 모수의 추정치로 나눈 값으로 다음과 같이 산출할 수 있음

$$\widehat{RSE}(\hat{Y}) = \frac{\sqrt{\hat{V}(\hat{Y})}}{\hat{Y}} \times 100(\%)$$

- 상대표준오차는 추정값의 표준오차가 작을수록 작아지는데, 상대표준오차의 값이 작을 때 추정량의 정도가 높다고 하며, 그러한 추정값은 믿을 만한 값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반면, 상대표준오차의 값이 클 때는 추정량의 정도가 낮다고 하고, 상대표준오차의 크기에 따라서 추정치의 결과의 공표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통상 상대표준오차가 25% 이상이면 대외적인 공표보다는 업무상 내부 참고자료로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임



02

기초분석

- | | |
|----------------|----------------|
| 1_일반특성 | 6_주거 |
| 2_청년기 주요 이행 특성 | 7_삶의 여건과 인식 |
| 3_교육과 훈련 | 8_코로나19로 인한 변화 |
| 4_일자리 | 9_정책경험과 평가 |
| 5_경제 | |

02. 기초분석

1_일반특성

1) 서울청년의 기본 특성

(1) 인구사회학적 특성

- 응답자의 성별 분포는 남성은 48.9%, 여성은 51.1%로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남
- 연령분포는 18~19세는 6.0%, 20~24세는 27.2%, 25~29세는 35.3%, 30~35세는 31.5%로 나타났으며, 10대는 6.0%, 20대는 62.5%, 30대는 31.5%로 나타남
- 응답자가 거주하는 지역을 5대 권역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서남권은 32.8%, 동북권은 29.7%, 동남권은 20.1%, 서북권은 12.2%, 도심권은 5.2%로 나타남
- 응답자의 학력 분포를 살펴보면 대학교 졸업이 42.8%로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 졸업 이하 39.2%, 전문대 졸업 12.9%, 대학원 졸업은 5.1%로 나타남
- 응답자의 혼인상태를 살펴보면 미혼이 87.7%로 가장 높았고,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는 11.4%, 배우자와 사별(0.2%)하거나 이혼(0.5%) 또는 별거(0.2%) 중인 응답자는 0.9%로 나타남
- 가구 유형은 부모동거가구가 49.9%로 가장 높았고, 1인가구는 32.8%, 무자녀 부부가구와 기타 가구는 6.3% 유자녀 부부가구는 4.7%로 나타남
- 자녀가 없는 응답자는 94.8%, 자녀가 있는 응답자는 5.2%로 나타남
- 가구규모는 두 가지의 기준으로 살펴보았는데, 거주지를 기준으로 현재 동거하고 있는 가구원만을 포함하여 가구 규모를 살펴본 거주 기준과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기준으로 한 가구원 수로 나누어 살펴보았음
- 먼저 거주기준의 가구 규모를 살펴보면 1인가구가 33.6%로 가장 많았으며, 4인 가구는 24.6%, 3인가구는 20.6%, 2인가구는 15.6%, 5인 이상 가구는 5.7%로 나타남
- 경제생활을 기준으로 본 가구 규모는 4인가구가 34.5%로 가장 많았고, 1인가구는 22.8%, 3인가구는 18.5%, 2인가구는 13.4%, 5인 이상 가구는 10.8%로 나타남

- 부모와의 동거 여부와 경제적 지원 여부를 살펴보면,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응답자는 49.0%,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는 51.0%로 나타남
- 부모와 동거하지 않으면서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는 응답자는 36.0%, 부모와 동거하지 않으면서 경제적 지원을 받는 응답자는 15.0%로 나타남
- 부모와의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부모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 응답자는 전체 중 43.3%였으며,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이 없는 응답자는 56.7%로 나타남
- 청년 본인이 가구주인 경우는 43.7%이며, 가구주는 아니지만 가구 생계에 기여하는 경우는 37.6%로 나타남

[표 2-1-1]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전체		5,194	100.0
성별	남성	2,539	48.9
	여성	2,655	51.1
연령별	18~19세	311	6.0
	20~24세	1,415	27.2
	25~29세	1,832	35.3
	30~35세	1,636	31.5
연령대	10대(18~19세)	311	6.0
	20대	3,247	62.5
	30대	1,636	31.5
권역 ¹⁾	도심권	271	5.2
	동북권	1,542	29.7
	동남권	1,046	20.1
	서북권	633	12.2
	서남권	1,702	32.8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034	39.2
	전문대 졸업	670	12.9
	대학교 졸업	2,223	42.8
	대학원 졸업	267	5.1
장애 유무	있음	134	2.6
	없음	5,060	97.4
혼인상태	미혼	4,557	87.7
	배우자 있음	593	11.4
	사별	9	0.2
	이혼	25	0.5
	별거	10	0.2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가구유형	1인가구		1,706	32.8
	무자녀 부부가구		326	6.3
	유자녀 부부가구		242	4.7
	부모동거 가구		2,593	49.9
	기타가구		327	6.3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68	5.2
	자녀 없음		4,925	94.8
가구규모	거주기준 가구규모	1인	1,744	33.6
		2인	809	15.6
		3인	1,070	20.6
		4인	1,277	24.6
		5인 이상	294	5.7
	경제생활 기준 가구규모 ²⁾	1인	1,185	22.8
		2인	698	13.4
		3인	959	18.5
		4인	1,790	34.5
		5인 이상	562	10.8
부모와의 동거 및 경제적 지원	부모와 동거		2,542	49.0
	부모 비동거	경제지원 있음	784	15.0
		경제지원 없음	1,868	36.0
부모의 경제적 지원	경제적 지원 있음		2,251	43.3
	경제적 지원 없음		2,943	56.7
가구내 지위	가구주		2,269	43.7
	가구 생계 기여	생계에 기여하지 않는 가구원	971	18.7
		생계 일부를 책임지는 가구원	1,736	33.4
		생계 대부분을 책임지는 가구원	164	3.2
		생계 전부를 책임지는 가구원	54	1.0

주: 1) 거주지역은 서울의 5개 권역인 도심권(종로구, 중구, 용산구), 동북권(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성북구, 중랑구, 동대문구, 광진구, 성동구), 동남권(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서북권(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서남권(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동작구, 영등포구)으로 구분함.

2) 가구규모에서의 경제적 기준은 가구 내에서 소득과 소비를 공유하는 생활공동체 관계를 기준으로 함

- 다음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연령별로 살펴봄
- 성별 분포는 18~19세는 남성의 비율(55.7%)이 여성의 비율(44.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4세는 남성은 46.5%, 여성은 53.5%, 25~29세는 여성은 48.7%, 남성은 51.3%, 30~35세는 남성은 49.9%, 여성은 50.1%로 나타남
 - 10대를 제외하고 20대와 30대는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연령별 거주지역을 살펴보면 18~19세, 25~29세, 30~35세는 경우 서남권, 동북권, 동남권, 서북권, 도심권 순으로 나타난 반면, 20~24세는 동북권, 서남권, 동남권, 서북권, 도심권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 최종학력을 살펴보면 18~19세는 모두 고등학교 졸업 이하(100.0%)로 나타났고, 20~24세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74.6%로 가장 높았고, 25~29세(56.8%)와 30~35세(59.9%)는 대학교 졸업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별 혼인상태를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미혼의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18~19세의 98.1%, 20~24세의 97.6%, 25~29세의 93.5%, 30~35세의 70.8%가 미혼으로 나타남
- 연령별 가구 유형을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모동거 가구가 감소하고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18~19세는 부모동거가구가 88.2%, 1인가구가 10.3%로 나타난 반면 30~35세는 부모동거 가구는 30.1%, 1인가구는 35.8%로 나타남
-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모와의 동거 비율이 낮아지며,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는 청년의 비율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응답자 본인이 가구주인 경우를 살펴보면 18~19세는 11.8%, 20~24세는 28.6%, 25~29세는 48.3%, 30~35세는 57.7%로 나타남
- 연령별로 응답자 본인이 가구주가 아닌 경우를 살펴보면 18~19세는 본인의 가구내 지위가 가구주가 아니고 생계에도 기여하지 않는 가구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과반수를 넘는 53.9%였으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비율이 20~24세에는 31.5%로, 25~29세는 14.8%, 30~35세는 5.3%로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남

[표 2-1-2] 연령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18~19세	20~24세	25~29세	30~35세	
전체 (n=5,194)			6.0	27.2	35.3	31.5	
성별	남성		55.7	46.5	48.7	49.9	
	여성		44.3	53.5	51.3	50.1	
권역	도심권		5.0	4.9	5.3	5.5	
	동북권		25.3	33.7	29.0	27.8	
	동남권		22.4	20.3	18.8	21.0	
	서북권		16.1	11.5	12.6	12.0	
	서남권		31.2	29.6	34.6	33.8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00.0	74.6	23.2	14.9	
	전문대 졸업		0.0	10.9	15.2	14.5	
	대학교 졸업		0.0	14.3	56.8	59.9	
	대학원 졸업		0.0	0.2	4.8	10.7	
혼인상태	미혼		98.1	97.6	93.5	70.8	
	배우자 있음		0.0	1.6	5.8	28.4	
	사별		0.4	0.2	0.2	0.2	
	이혼		0.9	0.7	0.3	0.4	
	별거		0.6	0.1	0.3	0.1	
가구유형	1인가구		10.3	25.6	39.6	35.8	
	무자녀 부부가구		0.0	0.8	3.6	15.2	
	유자녀 부부가구		0.0	0.3	1.8	12.6	
	부모동거 가구		88.2	68.2	47.0	30.1	
	기타가구		1.6	5.1	8.0	6.3	
자녀 유무	자녀 없음		99.7	99.4	97.8	86.7	
	자녀 있음		0.3	0.6	2.2	13.3	
가구 규모	거주 1인		10.3	25.9	40.2	37.2	
	기준 2인		4.1	9.9	14.3	24.0	
	가구 3인		25.3	20.2	18.6	22.3	
	규모 4인		44.4	35.0	22.5	14.2	
	기준 5인 이상		16.0	9.0	4.4	2.2	
	경제 1인		3.6	12.8	28.7	28.5	
	생활 2인		3.0	7.2	11.9	22.6	
	기준 3인		19.7	17.5	16.8	20.9	
	가구 4인		53.1	46.8	33.0	21.8	
	규모 5인 이상		20.7	15.6	9.6	6.2	
부모와의 동거 및 경제적 지원	부모와 동거		82.7	63.0	46.3	33.3	
	부모 경제지원 있음		9.6	19.6	15.4	11.9	
	비동거 경제지원 없음		7.7	17.4	38.3	54.8	
부모의 경제적 지원	경제적 지원 있음		73.5	67.2	37.3	23.8	
	경제적 지원 없음		26.5	32.9	62.7	76.2	
가구내 지위	가구주		11.8	28.6	48.3	57.7	
	가구 생계 기여	생계에 기여하지 않는 가구원		53.9	31.5	14.8	5.3
		생계 일부를 책임지는 가구원		30.8	36.8	33.9	30.4
		생계 대부분을 책임지는 가구원		1.9	2.3	2.2	5.2
		생계 전부를 책임지는 가구원		1.7	0.8	0.8	1.4

주: 거주지역은 서울의 5개 권역인 도심권(종로구, 중구, 용산구), 동북권(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성북구, 중랑구, 동대문구, 광진구, 성동구), 동남권(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서북권(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서남권(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동작구, 영등포구)으로 구분함.

(2) 주거·경제 특성

- 서울 거주 이력을 살펴보면 서울에서 태어난 응답자는 60.1%였으며, 서울태생이 아니면서 서울로 이주한 응답자는 39.9%로 나타남
- 주거 점유 형태는 월세/기타가 36.4%로 가장 높았고, 자가는 32.1%, 전세는 31.5%로 나타남
-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응답자는 73.8%로 나타났으며 취업자는 65.7%, 실업자는 8.1%,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재학생은 10.6%, 재학생도 아니면서 취업도 하지 않는 비재학 미취업자는 15.6%로 나타남
- 본인 소득이 있는 경우는 90.5%이며, 본인의 소득이 없는 경우는 9.5%로 나타남
- 본인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 분포(월소득)를 살펴보면 200만~300만 원이 32.9%로 가장 높았고, 100만 원~200만 원 미만 22.1%, 300만 원~400만 원 13.6%, 50만 원~100만 원 미만 12.9%, 400만 원 이상 9.7%, 50만 원 미만 8.8% 순으로 나타남
- 부채가 있는 응답자는 46.1%로 나타났고 본인의 부채 규모가 1억 원 이상인 경우가 39.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응답자가 인식하는 본인의 주관적 소득수준을 살펴보면 67.1%가 중간층이라고 응답하였고, 하층은 26.2%, 상층은 6.7%로 나타남

[표 2-1-3] 주거·경제 특성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전체			5,194	100.0
서울 거주 이력	서울 태생		3,120	60.1
	서울로 이주	국내	2,033	39.1
		국외	41	0.8
주거 점유 형태	자가		1,666	32.1
	전세		1,634	31.5
	월세/기타		1,894	36.4
경제활동 상태 ¹⁾	경제활동	취업	3,411	65.7
		실업	421	8.1
	비경제활동	재학생	550	10.6
		비재학 미취업	812	15.6
본인 소득 유무	없음		494	9.5
	있음		4,700	90.5
본인 소득 ²⁾	50만 원 미만		415	8.8
	50만~100만 원 미만		605	12.9
	100만~200만 원 미만		1,042	22.1
	200만~300만 원 미만		1,549	32.9
	300만~400만 원 미만		640	13.6
	400만 원 이상		454	9.7
부채 유무	부채 없음		2,795	56.9
	부채 있음		2,394	46.1
본인 부채 규모 (부채 있는 경우)	500만 원 미만		297	12.4
	500만~1,000만 원 미만		159	6.7
	1,000만~5,000만 원 미만		578	24.2
	5,000만~1억 원 미만		415	17.4
	1억 원 이상		945	39.4
주관적 계층의식	하		1,362	26.2
	중		3,483	67.1
	상		349	6.7

주: 1) '취업'은 지난 1주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경우이며, '실업'은 미취업자 중 '지난 4주 이내에 일자리를 구해본 적이 있는 경우

2) 본인 소득은 월평균 소득 기준이며, 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4,700명의 소득을 분석함

- 응답자의 주거·경제 특성을 연령별로 살펴봄
- 연령별로 서울태생 여부를 살펴보면 18~19세가 76.9%로 가장 높았고, 20~24세는 65.2%, 25~29세는 55.1%, 30~35세는 58.1%로 나타남
- 연령이 높을수록 주거 점유 형태가 자가인 비율이 낮아지고, 전세인 경우와 월세 및 기타인 경우는 연령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연령이 높아질수록 취업자 비율이 높아지고 실업자 및 재학생의 비율이 낮아지며 비재학 미취업자(재학상태도 아니면서 취업도 하지 않은 상태)는 20~24세가 17.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이 높을수록 본인 소득이 있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으며, 25~29세와 30~35세 중 90% 이상이 본인 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소득 분포를 살펴보면 18~19세는 50만 원 미만이 30.9%로 가장 높았고, 20~24세는 100~200만 원 미만이 30.7%, 25~29세와 30~35세는 200~300만 원 미만이 각각 39.9%와 40.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이 높을수록 부채가 있는 경우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주관적 소득수준은 모든 연령대에서 중간층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음

[표 2-1-4] 연령별 주거·경제 특성

[단위: 명, %]

구분			18~19세	20~24세	25~29세	30~35세
전체 (n=5,194)			6.0	27.2	35.3	31.5
서울 거주 이력	서울 태생		76.9	65.2	55.1	58.1
	서울로 이주	국내	22.5	34.0	44.2	41.1
		국외	0.7	0.8	0.8	0.8
주거 점유 형태	자가		48.2	38.5	27.5	28.5
	전세		19.7	23.9	32.4	39.3
	월세/기타		32.1	37.6	40.1	32.2
경제활동 상태 ¹⁾	경제활동	취업	35.3	51.7	69.6	79.2
		실업	11.2	8.2	9.5	5.9
	비경제활동	재학	40.9	22.9	4.5	1.0
		비재학 미취업	12.7	17.2	16.5	13.9
본인 소득 유무	없음		34.0	14.9	6.4	3.7
	있음		66.0	85.1	93.6	96.3
본인 소득	50만 원 미만		30.9	16.8	6.0	2.9
	50만~100만 원 미만		29.3	27.0	9.8	3.3
	100만~200만 원 미만		22.5	30.7	24.2	13.3
	200만~300만 원 미만		11.6	16.8	39.9	40.5
	300만~400만 원 미만		2.0	4.9	12.7	22.8
	400만 원 이상		3.7	3.9	7.5	17.2
부채 유무	부채 없음		83.7	72.2	49.9	36.8
	부채 있음		16.3	27.8	50.1	63.2
본인 부채 규모 (부채 있는 경우)	500만 원 미만		24.1	27.6	14.1	4.5
	500만~1,000만 원 미만		5.2	11.5	7.6	4.1
	1,000만~5,000만 원 미만		11.2	24.7	26.2	22.8
	5,000만~1억 원 미만		15.3	13.7	19.6	16.9
	1억 원 이상		44.2	22.5	32.5	51.7
주관적 소득수준	하		24.5	24.0	28.7	25.7
	중		65.4	67.9	65.9	68.0
	상		10.2	8.1	5.5	6.3

주: 1) '취업'은 지난 1주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경우이며, '실업'은 미취업자 중 '지난 4주 이내에 일자리를 구해본 적이 있는 경우

2_청년기 주요 이행 특성

1) 경제활동 상태

- 경제활동인구는 73.8%로 나타났으며, 취업자는 65.7%, 실업자는 8.1%로 나타남
- 비경제활동인구는 26.2%로 나타났으며, 재학생은 10.6%, 비재학 미취업자(재학 중이지 않으며 취업하지 않은 상태)는 15.6%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 경제활동인구를 살펴보면 남성은 취업자 63.3%, 실업자 8.0%로 나타났고, 여성은 취업자 68.0%, 실업자 8.2%로 여성이 남성보다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 비경제활동 인구를 살펴보면 남성은 재학생 12.6%, 비재학 미취업자 16.1%로 나타났고, 여성은 재학생 8.7%, 비재학 미취업자 15.2%로 남성이 여성보다 재학생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남
- 연령이 높을수록 취업자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실업자 및 재학생 비율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남
- 학력별 취업자 비율을 살펴보면 대학원 졸업이 82.3%로 가장 높았고, 대학교 졸업은 75.5%, 전문대 졸업은 70.5%, 고등학교 졸업 이하는 51.0%로 나타남
- 가구유형별로 취업자 비율을 살펴보면 무자녀 부부가구가 82.8%로 가장 높았고, 기타가구는 71.8%, 1인가구는 70.3%, 유자녀 부부가구는 67.1%, 부모동거 가구는 59.6%로 나타남

[표 2-2-1] 경제활동 상태

[단위: %]

구분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취업	실업	재학	비재학 미취업
전체(n=5,194)		65.7	8.1	10.6	15.6
성별	남성	63.3	8.0	12.6	16.1
	여성	68.0	8.2	8.7	15.2
연령	18~19세	35.3	11.2	40.9	12.7
	20~24세	51.7	8.2	22.9	17.2
	25~29세	69.6	9.5	4.5	16.5
	30~35세	79.2	5.9	1.0	13.9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51.0	8.8	23.4	16.6
	전문대 졸업	70.5	9.9	1.4	18.2
	대학교 졸업	75.5	7.3	2.6	14.7
	대학원 졸업	82.3	4.9	2.7	10.1
가구유형	1인가구	70.3	7.3	8.6	13.9
	무자녀 부부가구	82.8	5.7	1.7	9.8
	유자녀 부부가구	67.1	2.8	0.0	30.1
	부모동거 가구	59.6	9.4	14.7	16.3
	기타가구	71.8	8.6	4.8	14.9

2) 거주 이력

(1) 서울 이주

- 서울태생은 전체 응답자 중 60.1%로 나타났고, 서울 이외 지역에서 태어나 서울로 이주한 응답자는 39.9%이며 이 중 절반 이상이 15세 이후에 서울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 서울태생 여부를 살펴보면 남성의 62.5%가, 여성의 57.8%가 서울태생인 것으로 나타남
- 연령이 낮을수록 서울태생인 경우가 높게 나타남
- 학력에 따라서 서울태생 여부를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 이하는 68.1%, 전문대 졸업은 64.5%, 대학교 졸업은 52.2%, 대학원 졸업은 53.6%로 나타남
- 가구유형별로 서울태생 여부를 살펴보면 부모동거 가구가 82.3%로 가장 높았고, 1인 가구가 31.7%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서울로 이주한 당시 연령대를 살펴보면 22~28세가 39.9%로 가장 높았고, 15~21세 31.8%, 8세 미만 13.9%, 8~14세 8.2%, 29세 이후 6.2% 순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 서울로 이주한 당시 연령대를 살펴보면 남성(41.8%)과 여성(38.3%) 모두 22~28세에 서울로 이주한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서울로 이주한 당시 연령대를 살펴보면 18~19세(42.9%)는 8세 미만일 때, 20~24세(45.4%)는 15~21세 시기에, 25~29세(50.1%)는 22~28세 시기에, 30~35세(42.3%)는 22~28세에 서울로 이주한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서울로 이주한 당시 연령대를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 이하는 15~21세에 서울로 이주한 경우가 가장 높았고, 전문대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은 22~28세에 서울로 이주한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남
- 가구유형별로 서울로 이주한 당시 연령대를 살펴보면 부모동거 가구를 제외한 모든 가구 유형에서 22~28세 서울로 이주한 경우가 가장 높았고, 부모동거 가구는 8세 미만 시기에 서울로 이주한 경우가 가장 많았음

[표 2-2-2] 서울 이주 여부 및 이주 당시의 연령

[단위: %]

구분		거주이력 (n=5,194) ¹⁾		서울로 이주 - 이주 당시 연령대 ²⁾ (n=2,069)				
		서울 태생	서울로 이주	8세 미만	8~ 14세	15~ 21세	22~ 28세	29세 이후
전체		60.1	39.9	13.9	8.2	31.8	39.9	6.2
성별	남성	62.5	37.6	14.1	9.1	28.1	41.8	7.0
	여성	57.8	42.2	13.8	7.4	35.0	38.3	5.5
연령	18~19세	76.9	23.1	42.9	17.8	39.3	0.0	0.0
	20~24세	65.2	34.8	20.7	8.7	45.4	25.2	0.0
	25~29세	55.1	45.0	12.0	6.9	29.3	50.1	1.6
	30~35세	58.1	41.9	8.3	8.2	24.3	42.3	16.9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68.1	31.9	21.7	9.7	41.5	25.3	1.8
	전문대 졸업	64.5	35.5	15.0	7.2	26.5	43.9	7.4
	대학교 졸업	52.2	47.8	9.1	7.6	26.9	48.1	8.3
	대학원 졸업	53.6	46.4	12.5	6.3	33.3	38.7	9.2
가구 유형	1인가구	31.7	68.3	3.9	2.4	37.4	48.9	7.4
	무자녀 부부가구	52.4	47.6	7.8	7.8	24.3	47.4	12.7
	유자녀 부부가구	64.9	35.2	5.5	10.4	20.4	51.6	12.0
	부모동거 가구	82.3	17.7	47.6	24.0	18.6	8.8	1.1
	기타가구	35.9	64.2	4.1	4.9	39.7	47.5	3.9

주: 1) 거주이력은 응답자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서울로 이주는 서울로 이주 경험이 있는 2,069명을 대상으로 함

2) 이주 당시 연령 = 서울 이주 연도 - 생년

-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태어나 서울로 이주한 응답자의 이주 사유를 살펴보면, 학업을 위해 서울로 이사한 경우가 34.9%로 가장 높았고, 일자리와 관련된 이유로 이사 34.7%, 부모님(혹은 주된 양육자)을 따라서 이사 22.7%, 결혼, 독립 등의 이유로 이사 3.7%, 거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사 1.7%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2-2-3] 서울로 이주한 이유

[단위: %]

구분	(n=2,069) ¹⁾
학업을 위해서 이사	34.9
일자리와 관련된 이유로 이사	34.7
부모님(혹은 주된 양육자)을 따라서 이사	22.7
결혼, 독립 등의 이유로 이사	3.7
거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사	1.7
주거지 계약만료 등으로 인하여 이사	0.5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사	0.5
자녀의 교육 및 보육 환경을 위해서 이사	0.5
주거지원을 받게 되어서 이사	0.3
내 집을 마련하여서 이사	0.1
기타	0.6

주: 1) 서울로 이주한 2,069케이스를 분석함

(2) 만 18세 이전 가장 오래 살았던 거주지역

- 만 18세 이전 가장 오래 살았던 거주지역을 살펴보면 서울은 61.4%, 서울 이외 지역은 37.7%, 국외 지역은 0.9%로 나타남
- 성별로는 남성(63.5%)과 여성(59.4%) 모두 만 18세 이전 가장 오래 살았던 지역으로 서울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남성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남
- 연령과 학력이 높을수록 만 18세 이전 가장 오래 살았던 지역이 서울인 경우가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가구유형별로 만 18세 이전 가장 오래 살았던 거주지역을 살펴보면 서울태생인 경우는 부모 동거가구가 90.0%로 가장 높았고, 서울 이외 지역은 1인가구가 73.7%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2-2-4] 만 18세 이전 가장 오래 살았던 거주지역

[단위: %]

구분		서울	서울 이외	국외
전체(n=5,194)		61.4	37.7	0.9
성별	남성	63.5	35.9	0.7
	여성	59.4	39.6	1.1
연령	18~19세	88.3	11.7	0.0
	20~24세	68.9	30.0	1.2
	25~29세	56.4	42.7	1.0
	30~35세	55.4	43.9	0.8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71.6	27.4	1.1
	전문대 졸업	65.8	34.0	0.3
	대학교 졸업	51.6	47.7	0.7
	대학원 졸업	54.2	43.6	2.2
가구유형	1인가구	25.5	73.7	0.8
	무자녀 부부가구	49.1	49.4	1.4
	유자녀 부부가구	60.9	38.3	0.8
	부모동거 가구	90.0	9.2	0.8
	기타가구	33.9	64.7	1.5

- 서울태생이 아닌 응답자들이 만 18세 이전 가장 오래 살았던 거주지역을 살펴보면 이들 중 79.8%가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것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 만 18세 이전 가장 오래 살았던 거주지역을 살펴보면 남성(79.8%)과 여성(79.7%) 모두 서울 이외 지역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만 18세 이전 가장 오래 살았던 거주지역을 살펴보면 18~19세는 서울에 살았던 경우가 55.0%로 서울 이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고 나머지 연령은 서울 이외 지역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학력에 따라서 만 18세 이전 가장 오래 살았던 거주지역을 살펴보면 모두 서울 이외 지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고등학교 졸업 이하는 서울인 경우가 27.7%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가구유형별로 만 18세 이전 가장 오래 살았던 거주지역을 살펴보면 부모동거 가구를 제외한 모든 가구유형은 서울 이외 지역에서 가장 오래 산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남

[표 2-2-5] 서울태생이 아닌 경우 만 18세 이전 가장 오래 살았던 거주지역

[단위: %]

구분		서울	서울 이외	국외
전체(n=2,069) ¹⁾		18.9	79.8	1.3
성별	남성	18.9	79.8	1.3
	여성	19.0	79.7	1.3
연령	18~19세	55.0	45.0	0.0
	20~24세	25.7	72.8	1.5
	25~29세	16.5	81.8	1.7
	30~35세	13.3	86.0	0.7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7.7	70.6	1.7
	전문대 졸업	20.2	79.0	0.8
	대학교 졸업	13.7	85.4	0.9
	대학원 졸업	16.2	80.8	3.0
가구유형	1인가구	5.1	94.0	0.8
	무자녀 부부가구	11.7	87.3	1.1
	유자녀 부부가구	13.8	85.1	1.2
	부모동거 가구	62.5	35.3	2.2
	기타가구	7.9	90.2	1.9

주: 1) 서울로 이주한 2,069케이스에 대해 분석함

(3) 부모로부터의 독립과 전망

- 부모와 동거 중인 응답자는 49.0%이며, 부모와 동거하지는 않지만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응답자는 15.0%, 부모와 동거하지 않고 경제적 지원도 받지 않는 응답자는 36.0%로 나타남
- 성별로는 남성의 48.5%, 여성의 49.4%가 부모와 동거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과 학력이 높을수록 부모와 동거하는 응답자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서 부모와 동거하는 응답자 비율을 살펴보면 재학생이 65.3%로 가장 높았고, 실업자 56.3%, 비재학 미취업자 54.1%, 취업자 44.2% 순으로 나타남

[표 2-2-6] 부모동거 특성

[단위: %]

구분			부모와 동거	비동거	
				경제지원 받음	경제지원 받지 않음
전체(n=5,194)			49.0	15.0	36.0
성별	남성		48.5	13.8	37.7
	여성		49.4	16.3	34.0
연령	18~19세		82.7	9.6	7.7
	20~24세		63.0	19.6	17.4
	25~29세		46.3	15.4	38.3
	30~35세		33.3	11.9	54.8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61.7	17.1	21.2
	전문대 졸업		51.5	8.2	40.3
	대학교 졸업		38.4	15.1	46.6
	대학원 졸업		33.1	17.4	49.5
가구유형	1인가구		0.1	31.1	68.8
	무자녀 부부가구		8.4	16.5	75.2
	유자녀 부부가구		36.1	25.6	38.4
	부모동거 가구		92.6	1.8	5.7
	기타가구		7.5	28.2	64.3
경제활동 상태	경제활동	취업	44.2	12.2	43.6
		실업	56.3	16.4	27.3
	비경제활동	재학	65.3	23.8	10.8
		비재학 미취업	54.1	20.4	25.5

- 현재 부모와 동거하는 응답자가 예상하는 독립 연령은 평균 30세로 나타났으며, 연령과 학력이 높을수록 예상하는 독립 연령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현재 부모와 동거하는 응답자가 생각하는 예상 독립 시기를 2~5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64.1%로 가장 높았으며, 1년 후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14.6%, 10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14.0%, 5~10년 이내 독립할 것이라 생각하는 응답자는 7.3%로 나타남

[표 2-2-7]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의 예상 독립 시기

[단위: %]

구분		예상독립연령 ²⁾	1년 후	2~5년 이내	5~10년 이내	10년 이상
전체(n=1,168) ¹⁾		30.0	14.6	64.1	7.3	14.0
성별	남성	30.2	14.8	65.7	7.3	12.2
	여성	29.8	14.4	62.3	7.4	15.9
연령	18~19세	25.3	5.7	42.4	22.4	29.6
	20~24세	27.6	9.8	61.9	10.7	17.7
	25~29세	30.9	16.2	72.2	2.6	9.0
	30~35세	35.8	26.3	65.7	0.9	7.2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7.9	9.8	59.5	12.3	18.4
	전문대 졸업	31.5	18.5	66.8	2.7	12.0
	대학교 졸업	32.1	19.5	69.5	2.3	8.8
	대학원 졸업	34.2	23.0	68.5	0.0	8.5

주: 1) 부모와 동거하는 2,540명 중 독립시기를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1,363명과 무응답자 9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2) 현재 연령+예상독립시기

-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청년의 비동거 사유는 학업 또는 진로 준비가 38.3%로 가장 높았고, 취업 29.0%, 그냥 독립하고 싶어서 14.5%, 결혼 후 분가 10.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청년의 비동거 사유를 살펴보면 남성(38.0%)과 여성(38.7%) 모두 학업 또는 진로준비 때문에 동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나머지 비동거 사유들의 분포도 유사하게 나타남
- 연령이 낮을수록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사유가 학업 또는 진로준비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연령이 높을수록 취업 때문에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학력별로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청년의 비동거 사유를 살펴보면 전문대 졸업은 취업이 37.0%로 가장 높았고, 나머지는 학업 또는 진로 준비로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별로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청년의 비동거 사유를 살펴보면 모두 학업 또는 진로 준비로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남

[표 2-2-8]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청년의 비동거 사유

[단위: %]

구분			학업 또는 진로준비	취업	결혼 후 분가	부모님과 의 불화	그냥 독립하고 싶어서	부모님 안계심 (사망)	기타
전체(n=2,621) ¹⁾			38.3	29.0	10.2	3.9	14.5	0.8	3.2
성별	남성		38.0	30.6	9.9	3.1	14.1	1.0	3.3
	여성		38.7	27.5	10.6	4.7	14.9	0.6	3.1
연령	18~19세		63.1	14.4	0.0	3.3	15.9	0.0	3.3
	20~24세		57.1	18.4	2.0	3.1	14.3	0.8	4.3
	25~29세		40.4	33.9	4.1	4.4	13.5	1.0	2.8
	30~35세		26.3	30.5	20.1	4.0	15.4	0.8	3.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48.1	17.5	5.7	5.7	17.5	1.4	4.1
	전문대 졸업		20.5	37.0	12.2	5.0	21.5	1.3	2.5
	대학교 졸업		35.7	34.9	11.4	2.9	11.6	0.4	3.1
	대학원 졸업		48.7	19.3	17.5	2.0	10.6	0.8	1.2
경제 활동 상태	경제활동	취업	32.0	33.8	11.0	3.7	15.5	0.7	3.3
		실업	42.5	24.0	7.5	7.7	13.3	1.8	3.3
	비경제활동	재학	81.2	3.9	3.5	1.7	7.1	0.0	2.7
		비재학 미취업	46.7	19.7	11.2	4.4	13.7	1.5	2.8

주: 1)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1,575명에 대해 분석함

- 전체 응답자 중 87.7%는 결혼을 하지 않았으며 이들 중 70.5%는 현재 결혼하지 않았지만 향후 결혼 의사가 있는 미혼, 17.2%는 현재 결혼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결혼할 의사가 없는 비혼인 것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은 78.5%가 미혼, 10.8%가 비혼이고, 여성은 62.9%가 미혼, 23.3%가 비혼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비혼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20대가 비혼 비율이 상대적으로 10대와 30대의 비해 높았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미혼비율은 감소하고 기혼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남
- 학력이 낮을수록 미혼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기혼 비율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가구유형별로 현재 기혼인 부부가구를 제외하고 살펴보면 미혼 비율은 부모동거 가구가 79.8%로 가장 높았고, 비혼 비율은 기타 가구가 26.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주거 점유형태에 따라서도 미혼이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전세인 경우 기혼 비율이 20.2%로 다소 높게 나타남
 - 이는 부부가구 중 상당수가 전세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표 2-2-9] 혼인 특성

[단위: %]

구분		미혼	비혼	기혼
전체(n=5,194)		70.5	17.2	12.3
성별	남성	78.5	10.8	10.7
	여성	62.9	23.3	13.8
연령	18~19세	85.2	12.9	1.9
	20~24세	77.7	19.9	2.4
	25~29세	74.2	19.2	6.5
	30~35세	57.4	13.4	29.2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75.5	17.8	6.7
	전문대 졸업	67.6	18.0	14.4
	대학교 졸업	67.6	16.9	15.5
	대학원 졸업	64.3	12.8	22.9
가구 유형	1인가구	79.6	19.9	0.6
	무자녀 부부가구	0.0	0.0	100.0
	유자녀 부부가구	0.0	0.0	100.0
	부모동거 가구	79.8	18.1	2.2
	기타가구	72.7	26.4	0.9
주거 점유형태	자가	73.9	16.6	9.5
	전세	65.0	14.9	20.2
	보증부 월세	71.5	20.7	7.8
	보증금 없는 월세	70.5	20.8	8.7
	무상	76.5	16.0	7.5
	기타	75.1	16.3	8.6

주: '미혼'은 현재 배우자가 없고 향후 결혼할 의향이 있거나,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임. '비혼'은 결혼 이력도 없고, 결혼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임

- 현재 미혼인 응답자의 결혼 의향을 살펴보면 결혼할 의향이 있는 경우는 44.6%, 결혼할 의향이 없는 경우는 19.7%,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35.7%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 결혼 의향이 없는 경우는 남성은 12.1%, 여성은 27.2%로 다소 차이가 크게 나타남
- 연령별로 결혼 의향이 없는 경우를 살펴보면 25~29세가 20.6%로 가장 높았고, 18~19세가 13.2%로 가장 낮게 나타남
- 학력별로 결혼 의향이 없는 경우를 살펴보면 전문대 졸업이 21.1%로 가장 높았고, 대학원 졸업이 16.7%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기혼 가구를 제외하고 가구유형별로 결혼 의향이 없는 경우를 살펴보면 기타 가구가 26.9%로 가장 높았고, 1인가구는 20.1%, 부모동거 가구는 18.5%로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별로 결혼 의향이 없는 경우를 살펴보면 비재학 미취업자가 22.5%로 가장 높았고, 재학생이 17.4%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2-2-10] 미혼 청년의 결혼 의향

[단위: %]

구분			결혼할 의향 있음	결혼할 의향 없음	모르겠다
전체(n=4,538) ¹⁾			44.6	19.7	35.7
성별	남성		54.2	12.1	33.7
	여성		35.2	27.2	37.7
연령	18~19세		49.4	13.2	37.4
	20~24세		43.0	20.5	36.6
	25~29세		44.7	20.6	34.7
	30~35세		45.3	19.0	35.7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44.4	19.1	36.5
	전문대 졸업		40.1	21.1	38.9
	대학교 졸업		44.9	20.1	34.9
	대학원 졸업		56.5	16.7	26.9
가구 유형	1인가구		44.8	20.1	35.1
	부모동거 가구		45.3	18.5	36.2
	기타가구		38.3	26.9	34.9
경제활동 상태	경제활동	취업	45.3	19.3	35.4
		실업	39.3	20.8	39.9
	비경제활동	재학	49.1	17.4	33.4
		비재학 미취업	41.1	22.5	36.5

주: 1) 미혼 청년 4,551명 중 무응답을 제외한 4,538에 대해 분석함

- 현재 자녀가 없는 청년은 응답자는 94.8%, 자녀가 있는 응답자는 5.2%로 나타남
- 연령과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가 있는 경우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경제활동 상태별로 자녀가 있는 경우를 살펴보면 비재학 미취업자가 10.2%로 가장 높았고, 재학생이 0.2%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2-2-11] 자녀 유무에 따른 청년 특성

[단위: %]

구분			자녀 없음	자녀 있음
전체(n=5,194)			94.8	5.2
성별	남성		96.0	4.0
	여성		93.8	6.2
연령	18~19세		99.7	0.3
	20~24세		99.4	0.6
	25~29세		97.8	2.2
	30~35세		86.7	13.3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97.3	2.7
	전문대 졸업		92.9	7.1
	대학교 졸업		93.6	6.4
	대학원 졸업		91.6	8.4
가구유형	1인가구		99.8	0.2
	무자녀 부부가구		100.0	0.0
	유자녀 부부가구		0.0	100.0
	부모동거 가구		99.4	0.7
	기타가구		98.5	1.5
경제활동 상태	경제활동	취업	94.8	5.2
		실업	98.4	1.6
	비경제활동	재학	99.8	0.2
		비재학 미취업	89.8	10.2

- 현재 자녀가 없는 응답자 중 49.3%는 앞으로도 자녀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자녀 계획 있는 경우는 1명의 자녀를 가질 계획인 경우는 15.1%, 2명은 30.4%, 3명 이상은 5.2%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 현재 자녀가 없고 앞으로도 자녀 계획이 없는 경우를 살펴보면 남성은 37.7%, 여성은 60.7%로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다소 차이가 크게 나타남
- 학력별로 현재 자녀가 없고 앞으로도 자녀 계획이 없는 경우를 살펴보면 전문대 졸업이 51.9%로 가장 높았고, 대학원 졸업이 37.6%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가구유형에 따라서 현재 자녀가 없고 앞으로도 자녀 계획이 없는 경우를 살펴보면 기

타 가구가 59.0%로 가장 높았고, 무자녀 부부가구가 29.5%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별로 현재 자녀가 없고 앞으로도 자녀 계획이 없는 경우를 살펴보면 실업자가 52.4%로 가장 높았고, 재학생이 44.8%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2-2-12] 자녀가 없는 청년의 향후 자녀 계획

[단위: %]

구분			자녀 계획 없음	1명	2명	3명 이상
전체(n=4,920) ¹⁾			49.3	15.1	30.4	5.2
성별	남성		37.7	15.7	39.6	7.0
	여성		60.7	14.5	21.3	3.5
연령	18~19세		47.7	13.2	32.5	6.6
	20~24세		52.8	11.6	30.0	5.6
	25~29세		50.2	14.3	30.4	5.0
	30~35세		45.0	20.1	30.2	4.7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50.0	12.5	31.5	5.9
	전문대 졸업		51.9	14.1	28.3	5.7
	대학교 졸업		49.1	17.3	29.1	4.4
	대학원 졸업		37.6	20.3	37.3	4.9
가구 유형	1인가구		50.6	14.1	29.6	5.7
	무자녀 부부가구		29.5	37.9	29.3	3.3
	부모동거 가구		49.7	13.5	32.0	4.9
	기타가구		59.0	10.9	23.0	7.2
경제활동 상태	경제활동	취업	49.0	15.6	30.1	5.3
		실업	52.4	14.2	29.9	3.5
	비경제활동	재학	44.8	14.7	35.1	5.4
		비재학 미취업	52.0	13.8	28.4	5.9

주: 1) 자녀가 없는 청년 4,920명에 대해 분석함

3_교육과 훈련

1) 학교 교육

(1) 고등학교

- 응답자의 99.4%는 고등학교 진학 경험이 있었으며,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는 0.5%로 나타남
- 고등학교 유형은 일반계/인문계 고등학교가 77.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특성화고등학교 10.1%, 자율형고등학교 5.4%, 특목고 3.4%, 예술/체육 고등학교 1.4%, 마이스터고등학교 0.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 고등학교 유형을 살펴보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남성(7.1%)이 여성(3.8%)보다 자율형 고등학교에 진학한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남
- 연령이 높을수록 일반계/인문계 고등학교 진학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
- 부와 모의 교육수준과 현재 부모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자율형 고등학교 진학 비율은 높아지고, 특성화 고등학교 진학 비율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

[표 2-3-1] 고등학교 진학 및 졸업 여부, 고등학교 유형

[단위: %]

구분			고등학교 진학 및 졸업 여부			고등학교 유형 (n=5,177) ¹⁾						
			다니고 있거나 다닌 적이 있다	다닌 적이 없다	검정고시로 졸업	일반계/인문계고	특목고	자율형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예술·체육고	기타
전체(n=5,194)			99.4	0.1	0.5	77.4	3.4	5.4	0.3	10.1	1.4	2.0
성별	남성		99.5	0.2	0.4	77.0	3.3	7.1	0.4	9.5	1.0	1.8
	여성		99.4	0.1	0.5	77.8	3.5	3.8	0.2	10.6	1.9	2.2
연령	18~19세		99.1	0.0	0.9	71.7	3.5	5.9	0.7	15.0	2.2	1.0
	20~24세		99.2	0.3	0.5	72.4	3.6	9.7	0.1	10.4	1.6	2.0
	25~29세		99.7	0.1	0.2	78.0	4.0	5.4	0.3	8.9	1.5	2.0
	30~35세		99.4	0.1	0.5	82.1	2.5	1.7	0.3	10.1	1.1	2.2
부모의 교육 수준	부 (n=2,791)	고등학교 졸업 이하	99.7	0.1	0.2	76.2	1.5	4.5	0.5	14.9	1.4	1.1
		전문대 졸업	99.0	0.0	1.0	80.0	3.7	8.1	0.6	6.1	0.5	1.1
		대학교 졸업	99.5	0.1	0.5	78.1	4.2	9.0	0.2	4.7	1.5	2.2
		대학원 졸업	99.3	0.0	0.7	74.2	7.8	10.6	0.0	2.1	1.9	3.5
	모 (n=3,081)	고등학교 졸업 이하	99.7	0.0	0.3	77.2	2.3	4.7	0.6	13.2	1.0	1.0
		전문대 졸업	99.1	0.0	0.9	81.1	3.1	8.0	0.0	5.6	1.3	0.9
		대학교 졸업	99.5	0.1	0.4	76.1	5.0	10.2	0.1	4.5	1.9	2.2
		대학원 졸업	99.3	0.0	0.7	70.0	4.2	10.3	0.0	3.8	3.6	8.1
현재 부모의 소득 수준	하		99.1	0.1	0.8	72.3	3.6	4.8	0.5	16.2	0.8	1.9
	중		99.5	0.1	0.4	79.1	2.7	5.0	0.3	9.7	1.6	1.8
	상		99.3	0.3	0.4	75.3	6.9	8.5	0.3	4.5	1.5	3.1

주: 1) 고등학교 진학경험이 있는 5,177명에 대해 분석함

(2) 대학(교) 및 대학원

- 대학진학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88.3%로 나타났고, 대학진학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1개의 대학을 다닌 경우는 78.4%, 2개는 9.5%, 3개 이상의 대학 경험이 있는 경우는 0.5%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 대학진학 경험을 살펴보면 남성은 85.1%, 여성은 91.4%로 여성이 남성보다 대학진학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 연령이 높을수록 대학진학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부의 교육수준과 현재 부모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대학진학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표 2-3-2] 대학경험 여부

[단위: %]

구분			있다				없다
			소계	1개	2개	3개 이상	
전체(n=5,194)			88.3	78.4	9.5	0.5	11.7
성별	남성		85.1	75.4	9.5	0.3	14.9
	여성		91.4	81.3	9.5	0.6	8.6
연령	18~19세		51.6	50.0	1.6	0.0	48.4
	20~24세		87.8	80.5	7.1	0.3	12.2
	25~29세		91.1	81.5	9.3	0.4	8.9
	30~35세		92.7	78.7	13.3	0.8	7.3
부모의 교육 수준	부 (n=2,791)	고등학교 졸업 이하	84.5	74.8	9.4	0.3	15.5
		전문대 졸업	86.9	76.3	10.5	0.0	13.1
		대학교 졸업	89.3	80.8	8.1	0.4	10.7
		대학원 졸업	92.8	81.6	10.9	0.3	7.2
	모 (n=3,081)	고등학교 졸업 이하	86.0	76.7	9.1	0.3	14.0
		전문대 졸업	89.9	79.3	10.6	0.0	10.1
		대학교 졸업	90.2	81.1	8.5	0.6	9.8
		대학원 졸업	89.2	77.4	10.5	1.3	10.8
현재 부모의 소득수준	하		87.5	76.5	10.0	1.0	12.5
	중		88.3	78.7	9.3	0.3	11.7
	상		89.7	79.5	9.9	0.3	10.3

- 다음은 대학을 경험한 응답자들의 대학교 유형을 살펴본 것으로 여러 개의 대학을 경험한 경우는 가장 마지막 경험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음
- 대학을 경험한 응답자의 대학교 유형은 일반 4년제가 76.2%로 가장 높았고, 2~3년제 18.1%, 기타 1.6%, 사이버대학교 1.7%, 방송통신 대학교 1.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 대학교 유형을 살펴보면 남성(78.0%)과 여성(74.6%) 모두 일반 4년제 대학교 진학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남성이 약간 높았고, 2~3년제 진학 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약간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대학교 유형을 살펴보면 모든 유형에서 일반 4년제 대학교에 진학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18~19세는 2~3년제 진학 비율이 22.7%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부와 모의 교육수준과 현재 부모의 소득준이 높을수록 4년제 대학교 진학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표 2-3-3] 대학교 유형

[단위: %]

구분			일반 4년제	2~3년제	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 대학	사이버대	폴리텍	기타
전체(n=4,580) ¹⁾			76.2	18.1	0.0	0.4	1.5	1.7	0.5	1.6
성별	남성		78.0	16.8	0.0	0.2	1.2	1.4	0.7	1.8
	여성		74.6	19.3	0.0	0.5	1.8	2.1	0.3	1.5
연령	18~19세		70.9	22.7	0.0	0.0	1.6	0.5	0.5	3.9
	20~24세		76.1	19.8	0.0	0.3	0.6	1.1	0.5	1.6
	25~29세		76.9	17.6	0.0	0.3	1.4	1.6	0.5	1.8
	30~35세		76.0	16.9	0.0	0.5	2.4	2.5	0.5	1.3
부모의 교육 수준	부 (n=2,791)	고등학교 졸업 이하	67.5	25.6	0.0	0.2	2.2	2.2	0.5	1.8
		전문대 졸업	75.0	21.1	0.0	0.0	1.5	2.3	0.0	0.0
		대학교 졸업	83.2	13.2	0.0	0.4	1.0	1.0	0.5	0.7
		대학원 졸업	86.7	8.5	0.0	0.4	0.4	0.8	0.7	2.7
	모 (n=3,081)	고등학교 졸업 이하	68.3	25.5	0.0	0.3	1.8	2.1	0.7	1.5
		전문대 졸업	76.1	19.4	0.0	0.0	1.5	1.7	0.4	0.9
		대학교 졸업	84.9	12.1	0.0	0.2	0.9	0.9	0.3	0.7
		대학원 졸업	89.6	6.1	0.0	0.0	1.6	0.8	0.0	1.9
현재 부모의 소득 수준	하		70.1	21.6	0.0	0.7	3.1	2.0	0.4	2.2
	중		75.8	18.8	0.0	0.3	1.3	1.7	0.5	1.6
	상		85.3	10.7	0.0	0.5	0.4	1.6	0.6	0.9

주: 1) 대학(교) 진학 경험이 있는 4,580명에 대해 분석함

- 대학 진학자들의 대학교 재학 및 졸업 상황을 살펴보면 졸업한 경우가 67.7%로 가장 높았고, 재학 중인 경우는 19.8%, 휴학 중은 5.3%, 중퇴는 5.2%, 졸업 유예는 2.1%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 대학교 재학 및 졸업 상황을 살펴보면 여성(72.6%)이 남성(62.1%)보다 졸업자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 연령이 낮을수록 현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연령이 높을수록 현재 대학교를 졸업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부와 모의 교육수준과 현재 부모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재학 중인 경우가 높게 나타났는데 의미 있는 관계로 해석되지는 않음

[표 2-3-4] 대학(교) 재학 및 졸업 상황

[단위: %]

구분			재학 중	휴학 중	졸업 유예	중퇴	졸업
전체(n=4,580) ¹⁾			19.8	5.3	2.1	5.2	67.7
성별	남성		21.8	6.7	1.8	7.5	62.1
	여성		17.9	4.0	2.3	3.1	72.6
연령	18~19세		81.6	17.3	0.0	1.1	0.0
	20~24세		51.7	13.6	3.4	3.6	27.8
	25~29세		6.6	2.0	2.8	5.6	83.0
	30~35세		1.5	0.9	0.5	6.5	90.6
부모의 교육 수준	부 (n=2,791)	고등학교 졸업 이하	21.0	7.4	2.1	6.5	63.0
		전문대 졸업	30.8	4.7	3.8	3.6	57.3
		대학교 졸업	33.7	9.2	3.2	3.0	50.9
		대학원 졸업	35.6	5.3	2.2	2.6	54.3
	모 (n=3,081)	고등학교 졸업 이하	20.6	6.6	2.2	6.3	64.4
		전문대 졸업	32.3	8.3	2.5	2.1	54.8
		대학교 졸업	36.4	7.8	3.2	2.8	49.8
		대학원 졸업	38.5	9.4	2.7	2.2	47.3
현재 부모의 소득 수준	하		14.9	3.4	2.3	7.6	71.7
	중		19.2	5.1	1.8	4.8	69.1
	상		28.6	8.3	3.2	4.2	55.8

주: 1) 대학(교) 진학 경험이 있는 4,580명에 대해 분석함

- 대학 진학자들이 경험한 대학교의 소재지를 살펴보면 서울이 51.2%로 가장 높았고, 경기/인천 23.2%, 기타 지역 18.7%, 광역시/세종시 7.0% 순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 대학교 소재지를 살펴보면 남성(48.4%)과 여성(53.7%) 모두 서울 소재의 대학에 진학한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에 따라서 대학교 소재지를 살펴보면 대학교 소재지가 서울인 경우는 20~24세가 58.8%로 가장 높았고, 30~35세가 47.2%로 가장 낮게 나타남
- 부와 모의 교육수준과 현재 부모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서울 소재지 대학교에 진학한 경우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임

[표 2-3-5] 대학 소재지

[단위: %]

구분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세종시	기타 지역
전체(n=4,580) ¹⁾			51.2	23.2	7.0	18.7
성별	남성		48.4	24.5	7.1	20.0
	여성		53.7	21.9	6.9	17.5
연령	18~19세		54.8	28.3	2.3	14.5
	20~24세		58.8	22.9	4.1	14.2
	25~29세		48.9	22.7	7.9	20.5
	30~35세		47.2	23.3	8.8	20.7
부모의 교육 수준	부 (n=2,791)	고등학교 졸업 이하	48.3	28.2	3.8	19.8
		전문대 졸업	50.1	29.1	4.4	16.5
		대학교 졸업	57.5	23.0	4.0	15.6
		대학원 졸업	63.3	17.9	2.1	16.7
	모 (n=3,081)	고등학교 졸업 이하	48.1	28.7	4.5	18.8
		전문대 졸업	61.3	25.7	2.0	11.1
		대학교 졸업	59.3	22.1	3.4	15.2
		대학원 졸업	62.0	11.8	5.5	20.7
현재 부모의 소득수준	하		48.1	24.6	7.1	20.2
	중		50.4	23.5	7.4	18.8
	상		59.3	19.8	4.5	16.5

주: 1) 대학교 진학 경험이 있는 4,580명에 대해 분석함

- 대학 진학자들의 전공계열을 살펴보면 인문사회교육이 46.9%로 가장 높았고, 자연공학 31.1%, 예체능 14.6%, 의/약학 5.1%, 기타 계열 2.3% 순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 전공계열을 살펴보면 남성은 자연공학인 경우가 43.1%로 가장 높았고, 여성은 인문사회교육이 52.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에 따라서 전공계열을 살펴보면 18~19세는 자연공학인 경우가 40.5%로 가장 높았고, 나머지 연령은 인문사회교육 계열인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남
- 부와 모의 교육수준 및 현재 부모의 소득수준과 전공계열은 어떤 관련성을 보이지는 않았음

[표 2-3-6] 전공계열

[단위: %]

구분			인문사회교육 ²⁾	자연공학 ²⁾	의/약학	예체능	기타 ²⁾
전체(n=4,580) ¹⁾			46.9	31.1	5.1	14.6	2.3
성별	남성		41.0	43.1	2.9	11.0	2.0
	여성		52.2	20.4	7.0	17.9	2.6
연령	18~19세		36.7	40.5	5.1	16.9	0.8
	20~24세		43.8	33.9	5.7	14.4	2.3
	25~29세		47.4	30.5	5.3	14.8	2.1
	30~35세		50.1	28.5	4.3	14.4	2.7
부모의 교육 수준	부 (n=2,791)	고등학교 졸업 이하	46.3	34.7	4.0	13.3	1.7
		전문대 졸업	45.5	32.8	2.8	16.4	2.5
		대학교 졸업	47.7	33.9	4.8	11.9	1.7
		대학원 졸업	48.2	31.0	5.6	13.3	1.8
	모 (n=3,081)	고등학교 졸업 이하	46.4	34.4	4.0	13.3	2.0
		전문대 졸업	50.0	29.5	4.5	15.6	0.4
		대학교 졸업	46.3	33.1	5.5	12.9	2.2
		대학원 졸업	43.8	31.0	9.6	14.0	1.7
현재 부모의 소득수준	하		45.2	31.4	4.0	16.0	3.4
	중		47.0	30.7	5.2	14.9	2.3
	상		48.7	32.7	5.8	11.6	1.2

주: 1) 대학교 진학 경험이 있는 4,580명에 대해 분석함

2) 인문사회교육은 “인문계열”, “사회계열”, “교육계열”을 합한 값임. 자연공학은 “자연계열”, “공학계열”을 합한 값임. 기타에는 “사관학교(육사, 해사, 공사) 및 경찰대”, “기타”가 포함됨

- 대학원 진학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1.0%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은 11.7%, 남성은 10.1%로 여성이 남성보다 대학원 진학 비율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남
- 연령이 높을수록 대학원 진학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부와 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대학원 진학 비율이 높게 나타남
- 현재 부모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대학원 진학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2-3-7] 대학원 진학 경험

[단위: %]

구분			진학	비진학
전체(n=4,580) ¹⁾			11.0	89.0
성별	남성		10.1	89.9
	여성		11.7	88.3
연령	18~19세		0.0	100.0
	20~24세		3.3	96.7
	25~29세		12.4	87.6
	30~35세		16.7	83.3
부모의 교육 수준	부 (n=2,791)	고등학교 졸업 이하	6.6	93.4
		전문대 졸업	5.3	94.7
		대학교 졸업	9.2	90.8
		대학원 졸업	18.6	81.4
	모 (n=3,081)	고등학교 졸업 이하	7.7	92.3
		전문대 졸업	5.3	94.7
		대학교 졸업	10.9	89.1
		대학원 졸업	12.2	87.8
현재 부모의 소득수준	상		13.8	86.2
	중		10.7	89.3
	하		9.7	90.3

주: 1) 대학 경험이 있는 4,580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 대학원 진학자들의 재학 및 졸업 상황을 살펴보면, 졸업한 경우가 46.6%로 가장 높았고, 재학 중인 경우는 33.7%, 졸업 유예는 9.2%, 중퇴는 7.9%, 휴학 중인 경우는 2.6%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 대학원 재학 및 졸업 상황을 살펴보면 졸업한 경우는 남성은 49.0%, 여성은 44.9%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게 나타남
- 연령에 따라서 대학원 재학 및 졸업 상황을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졸업자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부와 모의 교육수준과 현재 부모의 소득수준은 대학원 재학 및 졸업 상황과 어떤 관련성을 보이지는 않았음

[표 2-3-8] 대학원 재학 및 졸업 상황

[단위: %]

구분			재학 중	휴학 중	졸업 유예	중퇴	졸업
전체(n=499) ¹⁾			33.7	2.6	9.2	7.9	46.6
성별	남성		34.1	2.0	9.6	5.6	49.0
	여성		33.4	3.0	8.9	9.9	44.9
연령	18~19세		0.0	0.0	0.0	0.0	0.0
	20~24세		86.2	2.6	0.0	6.6	4.7
	25~29세		45.1	1.3	8.9	8.0	36.6
	30~35세		15.8	3.7	10.9	8.0	61.7
부모의 교육수준	부 (n=2,791)	고등학교 졸업 이하	38.0	2.8	12.1	9.1	38.0
		전문대 졸업	9.3	0.0	10.6	30.0	50.2
		대학교 졸업	41.2	3.3	7.2	5.0	43.3
		대학원 졸업	52.0	0.0	3.9	0.0	44.1
	모 (n=3,081)	고등학교 졸업 이하	33.1	2.5	12.5	7.9	44.1
		전문대 졸업	54.5	0.0	0.0	21.7	23.8
		대학교 졸업	45.7	2.1	6.7	4.7	40.9
		대학원 졸업	67.6	0.0	5.3	0.0	27.1
현재 부모의 소득수준	하		24.0	0.0	12.3	8.5	55.3
	중		33.6	3.0	7.9	8.1	47.5
	상		42.3	3.3	11.5	6.7	36.3

주: 1) 대학교 진학 경험이 있는 499명에 대해 분석함

(3) 학교 교육 기회

- 본인이 원하는 단계까지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75.8%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의 76.7%, 여성의 74.9%가 원하는 단계까지의 학교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이 낮을수록 원하는 단계까지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임
- 현재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원하는 단계의 학교 교육을 받았는지 살펴보면 원하는 단계까지 받았다는 응답에 있어서 하층(65.3%)과 상층(77.7%)의 격차가 다소 크게 나타남

[표 2-3-9] 학교 교육 기회

[단위: %]

구분			원하는 단계까지 교육을 받았음	원하는 단계까지 교육을 받지 못함
전체(n=5,194)			75.8	24.2
성별	남성		76.7	23.3
	여성		74.9	25.1
연령	18~19세		64.3	35.7
	20~24세		75.6	24.4
	25~29세		76.7	23.3
	30~35세		77.1	22.9
본인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71.2	25.8
	전문대 졸업		74.3	25.7
	대학교 졸업		79.6	20.4
	대학원 졸업		81.9	18.1
부모의 교육 수준	부 (n=2,791)	고등학교 졸업 이하	74.5	25.5
		전문대 졸업	80.9	19.1
		대학교 졸업	78.7	21.3
		대학원 졸업	73.1	26.9
	모 (n=3,081)	고등학교 졸업 이하	75.3	24.7
		전문대 졸업	80.5	19.6
		대학교 졸업	77.2	22.8
		대학원 졸업	71.9	28.1
현재 부모의 소득수준	하		65.3	34.7
	중		77.9	22.1
	상		77.7	22.3

- 원하는 단계까지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그 이유를 살펴보면 기타를 제외하고 학비 마련이 어려워서가 39.1%로 가장 높았고, 입학시험에 실패해서 21.2%, 가사를 돌보아야 해서 3.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남성(34.1%)과 여성(43.7%) 모두 학비 마련이 어려워서 원하는 단계까지 교육을 받지 못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남성은 입학시험에 실패해서 원하는 단계까지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여성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원하는 단계까지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이유를 살펴보면 18~19세(41.1%)와 20~24세(29.4%)는 입학시험에 실패한 경우가 가장 높았고 25~29세(46.8%)와 30~35세(49.4%)는 학비마련이 어려워서 원하는 단계까지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남
- 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학비마련이 어려워서 원하는 단계까지 교육을 받지 못하였다는 응답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부모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학비 마련이 어려워져 원하는 단계까지 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 하층(62.2%)과 상층(20.1%)간의 격차가 크게 나타남

[표 2-3-10] 원하는 단계까지 교육을 받지 못한 이유

[단위: %]

구분		학비 마련이 어려워서	학교가 멀어서	입학시험 에 실패해서	가족의 성차별, 인식 부족 등	가사를 돌보아야 해서	질병, 신체적 장애로 인해	기타
전체(n=1,266) ¹⁾		39.1	2.6	21.2	1.2	3.8	1.7	29.4
성별	남성	34.1	4.8	23.5	0.6	4.4	2.1	30.6
	여성	43.7	2.6	19.1	1.7	3.3	1.3	28.3
연령	18~19세	16.0	4.1	41.1	1.9	1.0	2.8	33.1
	20~24세	26.0	6.1	29.4	0.8	0.6	1.1	36.0
	25~29세	46.8	2.1	17.4	1.4	3.9	1.0	27.4
	30~35세	49.4	2.9	12.0	1.1	7.5	2.7	24.3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8.5	5.3	30.7	1.0	2.7	2.8	29.1
	전문대 졸업	40.6	2.9	30.2	2.7	5.1	1.1	17.4
	대학교 졸업	51.1	2.1	7.8	1.0	4.5	0.7	32.9
	대학원 졸업	50.5	0.0	0.0	0.0	7.0	0.0	42.5
부모의 교육 수준	부 (n=2,791)	고등학교 졸업 이하	35.3	4.6	25.2	1.3	3.2	27.9
		전문대 졸업	41.8	7.9	23.5	2.3	0.0	24.6
		대학교 졸업	29.0	5.7	31.0	1.4	1.8	30.3
		대학원 졸업	25.0	2.6	24.5	1.3	3.0	41.1
	모 (n=3,081)	고등학교 졸업 이하	38.1	4.6	27.3	1.4	2.2	25.4
		전문대 졸업	36.9	4.0	21.5	1.8	0.0	1.8
		대학교 졸업	23.5	5.4	29.0	0.9	3.7	1.8
		대학원 졸업	35.2	2.5	24.9	0.0	0.0	2.5
현재 부모의 소득 수준	하	62.2	1.4	12.9	1.3	5.5	2.4	14.3
	중	34.1	4.1	24.5	1.0	3.6	1.6	31.2
	상	20.1	5.5	20.6	2.1	2.0	0.6	49.2

주: 1) 원하는 단계까지 학교교육을 받지 못하였다고 응답한 1,266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4) 진학 계획 및 진로

- 대학을 진학한 경험이 없는 응답자 중 추후 대학에 진학할 계획이 있는 경우는 45.8%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 대학 미진학자 중 향후 대학에 진학할 계획이 있는 경우는 남성은 43.6%, 여성은 49.5%로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남

- 연령이 낮을수록 대학 미진학자 중 향후 대학에 진학할 계획이 있는 경우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대학 미진학자 중 향후 대학에 진학할 계획이 있는 경우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표 2-3-11] 추후 대학(교) 진학 계획

[단위: %]

구분			있음	없음
전체(n=614) ¹⁾			45.8	54.2
성별	남성		43.6	56.5
	여성		49.5	50.5
연령	18~19세		84.3	15.7
	20~24세		46.5	53.5
	25~29세		28.3	71.8
	30~35세		20.3	79.7
부모의 교육 수준	부 (n=2,791)	고등학교 졸업 이하	39.4	60.6
		전문대 졸업	55.0	45.0
		대학교 졸업	70.7	29.3
		대학원 졸업	76.2	23.8
	모 (n=3,081)	고등학교 졸업 이하	44.5	55.5
		전문대 졸업	80.2	19.8
		대학교 졸업	69.9	30.1
		대학원 졸업	66.8	33.2
현재 부모의 소득수준	하		44.8	55.2
	중		44.6	55.4
	상		53.9	46.1

주: 1) 대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614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5) 부모의 계층과 자녀 교육 수준의 관계

- 전체 응답자 중 88.3%는 대학에 진학하였으며, 이들 중 일반 4년제 대학교 진학 비율은 79.8%, 서울 소재지 대학에 진학한 비율은 51.2%이며 대학원에 진학한 비율은 11.0%인 것으로 나타남
- 대학교 진학자에 대해 부모 교육 수준과 자녀 교육 수준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대학교 진학 비율과 일반 4년제 진학 비율, 서울 소재지 대학 진학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표 2-3-12] 부모 교육 수준과 자녀 교육 수준의 관계

[단위: %]

구분		대학교 진학 (n=5,149) ¹⁾	일반 4년제 (n=4,580) ²⁾	서울 소재지 대학 (n=4,580) ³⁾	대학원 입학 (n=4,580) ⁴⁾
전체		88.3	79.8	51.2	11.0
부 (n=2,791)	고등학교 졸업 이하	84.5	72.1	48.3	6.6
	전문대 졸업	86.9	89.9	50.1	5.3
	대학교 졸업	89.3	85.7	57.5	9.2
	대학원 졸업	92.8	88.2	63.3	18.6
모 (n=3,081)	고등학교 졸업 이하	86.0	72.4	48.1	7.7
	전문대 졸업	89.9	79.3	61.3	5.3
	대학교 졸업	90.2	86.8	59.3	10.9
	대학원 졸업	89.3	92.0	62.0	12.2

주: 1) 고등학교를 졸업한(검정고시 포함) 5,149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2)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4,580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3)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4,580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4)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4,580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 부모의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대학교 진학 비율, 일반 4년제 진학률, 서울 소재지 대학 진학률, 대학원 입학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표 2-3-13] 부모 소득 수준과 자녀 교육 수준의 관계

[단위: %]

구분		대학교 진학 (n=5,149) ¹⁾	일반 4년제 (n=4,580) ²⁾	서울 소재지 대학 (n=4,580) ³⁾	대학원 입학 (n=4,580) ⁴⁾
전체		88.3	79.8	51.2	11.0
현재 부모의 소득수준	하	87.5	75.8	48.1	9.7
	중	88.3	79.1	50.4	10.7
	상	89.7	87.9	59.3	13.8

주: 1) 고등학교를 졸업한(검정고시 포함) 5,149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2)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4,580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3)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4,580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4)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4,580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2) 직업훈련·교육

(1) 취업 및 창업 목적의 교육이나 직업훈련 참여 경험

- 전체 응답자 중 87.8%가 직업훈련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 직업훈련 경험이 있는 경우를 살펴보면 남성은 83.1%, 여성은 90.3%로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남
- 연령이 높을수록 직업훈련 경험이 있는 경우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학력이 높을수록 직업훈련 경험이 있는 경우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서는 취업자의 89.1%, 실업자의 88.9%, 재학생의 72.7%, 비재학 미취업자의 85.4%가 직업훈련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3-14] 직업훈련 경험

[단위: %]

구분			있음	없음
전체(n=5,194)			87.8	13.2
성별	남성		83.1	16.9
	여성		90.3	9.7
연령	18~19세		58.9	61.1
	20~24세		85.0	15.0
	25~29세		90.0	10.0
	30~35세		90.0	1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78.9	21.1
	전문대 졸업		88.8	11.2
	대학교 졸업		92.4	7.6
	대학원 졸업		94.7	5.3
경제활동 상태	경제활동	취업	89.1	10.9
		실업	88.9	11.1
	비경제활동	재학	72.7	27.3
		비재학 미취업	85.4	14.6

- 경험한 직업훈련 내용을 살펴보면 직무 관련 자격증 취득이 16.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턴·아르바이트 등 직무 경험 16.0%, 학교성적 관리 및 복수·부전공 13.6%, 어학연수 또는 외국어 준비(외국어 자격증 취득 포함) 12.3%, 직무 관련 직업교육 이수 10.2%, 공개채용 등 취직 시험 준비 8.2%, 봉사활동 경험이 7.6%, 취업 관련 동아리 및 스터디 참여 6.9%, SNS, 블로그 등 인맥관리 3.8% 순으로 나타남

[표 2-3-15] 직업훈련 경험 사항

[단위: %]

구분	빈도(n=16,513) ¹⁾
직무관련 직업교육 이수	10.2
직무관련 자격증 취득(기능, 기술 등)	16.6
어학연수 또는 외국어 준비(외국어자격증 취득 포함)	12.3
인턴·아르바이트 등 직무경험	16.0
공개채용 등 취직 시험 준비	8.2
SNS, 블로그 등 인맥관리	3.8
학교성적 관리 및 복수·부전공	13.6
봉사활동 경험	7.6
취업 관련 동아리 및 스터디 참여	6.9
기타	0.6

주: 1) 취업이나 창업을 위해 지금까지 준비했거나 현재 준비하고 있는 사항을 분석한 것으로 복수응답 수치임

- 아래의 직업훈련 유형에 대한 경험 여부를 살펴보면 기타를 제외하고 유튜브 강의 시청이 54.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온라인 강의 전문 사이트 45.0%, 오프라인 학원 수강 30.8%, TV 및 라디오 강좌 21.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기타 직업훈련 유형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 취업지원 교육, 인턴십, 학점은행, 체력훈련, 스터디, 회사 자체교육, 아르바이트, 대학 지원 교육 등이 있었음

[표 2-3-16] 직업훈련 유형

[단위: %]

구분	전 체(n=4,498) ¹⁾	
	있음	없음
직장연수	13.5	86.5
오프라인 학원수강	30.8	69.2
오프라인 교양강좌(사회교육원, 평생교육원 등)	12.0	88.0
TV 및 라디오 강좌	21.9	78.1
온라인 강의 전문 사이트를 이용한 강의	45.0	55.0
전문 모바일 앱을 이용한 강의	21.8	78.2
유튜브의 강의 시청	54.0	46.0
개인 또는 그룹과외	8.7	91.3
기타	79.6	20.4

주: 1) 직업훈련 경험이 있거나 현재 받고 있는 4,498명에 대해 분석함

- 취업이나 창업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좋은 일자리 창출이 21.2%로 가장 높았고, 다양한 형태의 경험 기회 제공 20.8%. 구직 탐색 비용 및 구직 기간 비용 지원 15.7%, 교육·훈련 정보와 기회 14.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 취업이나 창업을 위해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남성은 좋은 일자리 창출이 23.2%로 가장 높았고, 여성은 다양한 형태의 경험 기회가 21.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취업이나 창업을 위해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18~19세(21.1%)와 20~24세(23.7%)는 다양한 형태의 경험 기회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25~29세(22.0%)와 30~35세(22.1%)는 좋은 일자리 창출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함
- 학력이 높을수록 취업이나 창업을 위해 좋은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경제활동 상태별로 취업이나 창업을 위해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취업자(21.5%)와 재학생(24.6%)은 다양한 형태의 경험 기회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실업자(21.4%)와 비재학 미취업자(22.7%)는 좋은 일자리 창출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함

[표 2-3-17] 취업이나 창업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단위: %]

구분		적성검사 및 상담	다양하고 많은 구인 정보	자세하고 정확한 구인 정보	교육·훈 련 정보와 기회	다양한 형태의 경험 기회	구직 탐색 비용 및 구직기 간 비용 지원	좋은 일자리 창출	공공 일자리 확대	기타	
전체(n=5,194)		5.4	8.1	9.4	14.6	20.8	15.7	21.2	4.1	0.6	
성별	남성	6.5	8.5	9.4	15.3	20.4	12.2	23.2	3.8	0.8	
	여성	4.4	7.7	9.5	14.0	21.2	19.2	19.3	4.3	0.4	
연령	18~19세	7.0	11.4	9.4	16.2	21.1	8.6	20.5	5.8	0.0	
	20~24세	6.0	7.5	8.6	13.8	23.7	14.9	19.2	5.8	0.6	
	25~29세	5.0	8.2	9.7	13.2	19.8	17.9	22.0	3.4	0.8	
	30~35세	5.1	8.0	9.9	16.6	19.3	15.4	22.1	3.0	0.6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6.3	8.5	8.8	14.2	21.4	15.0	19.6	5.6	0.7	
	전문대 졸업	7.8	8.9	8.5	16.9	19.4	15.2	19.8	3.1	0.4	
	대학교 졸업	4.0	7.9	10.0	14.4	20.7	17.1	22.5	2.9	0.5	
	대학원 졸업	4.2	5.3	12.4	14.0	19.7	11.5	26.8	4.7	1.5	
경제 활동 상태	경제활동	취업	5.3	7.9	9.8	15.1	21.5	15.6	21.0	3.3	0.5
		실업	3.8	8.5	8.0	12.4	19.8	19.3	21.4	5.8	1.0
	비경제활동	재학	6.2	9.1	9.2	12.9	24.6	11.4	20.2	6.0	0.5
		비재학 미취업	6.3	8.1	9.0	15.1	15.6	17.3	22.7	5.0	1.0

- 다음은 자격증 취득 경험, 공무원 또는 공단, 교원 임용시험 등을 포함한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 경험에 대한 분석 결과임
- 자격증 취득 경험이 있는 경우는 56.8%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 자격증 취득 경험을 살펴보면 남성은 52.4%, 여성은 61.1%로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남

- 연령과 학력이 높을수록 자격증 취득을 경험한 경우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서 자격증 취득 경험을 살펴보면 취업자가 61.4%로 가장 높았고 재학생이 34.2%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공무원 또는 공단(공사), 교원 임용 시험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을 준비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30.0%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 경험이 있는 경우를 살펴보면 남성은 28.4%, 여성은 31.6%로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남
- 연령과 학력이 높을수록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 경험이 있는 경우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서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 경험이 있는 경우를 살펴보면 비재학 미취업자가 39.0%로 가장 높았고, 재학생이 21.5%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2~3~18] 자격증 취득 경험 및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 경험

[단위: %]

구분			자격증 취득 경험 ¹⁾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 경험 ²⁾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전체(n=5,194)			56.8	43.2	30.0	70.0
성별	남성		52.4	47.6	28.4	71.6
	여성		61.1	38.9	31.6	68.4
연령	18~19세		24.4	75.6	10.2	89.9
	20~24세		46.4	53.6	24.6	75.4
	25~29세		62.5	37.5	33.7	66.3
	30~35세		65.7	34.4	34.4	65.6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40.3	59.7	22.4	77.6
	전문대 졸업		66.9	33.1	26.0	73.8
	대학교 졸업		67.3	32.7	37.2	62.8
	대학원 졸업		69.9	30.1	38.1	61.9
경제활동 상태	경제활동	취업	61.4	38.7	29.4	70.6
		실업	56.0	44.0	29.2	70.8
	비경제활동	재학	34.2	65.8	21.5	78.5
		비재학 미취업	53.5	64.5	39.0	61.0

주: 1) 국가자격증(기술사, 기능사, 교사자격증, 영양사 등), 민간자격증 또는 외국자격증 등 포함

2) 시험준비는 학교 재학 시절을 포함하여 현재까지의 시험 준비 경험 모두를 의미, 공단(공사) 직원의 내부 진급을 위한 시험은 포함되지 않음

(2) 진로와 직업 계획

- 진로와 관련된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내가 원하는 일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31.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구체적으로 정해진 않았지만 진로를 물색 중인 경우는

22.4%, 진로와 관련된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중인 경우는 18.5%, 어느 정도 진로를 결정하고 탐색 중인 경우는 13.4%, 진로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은 경우는 7.8%, 진로가 확정되어 취업, 창업 등 활동 시작 예정인 경우는 6.1%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 진로와 관련된 상황을 살펴보면 남성(31.7%)과 여성(32.1%)모두 원하는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에 따라서 진로와 관련된 상황을 살펴보면 18~19세(41.0%)와 20~24세(30.7%)는 구체적으로 정하진 않았지만 물색 중인 경우가 가장 높았고, 25~29세(37.3%)와 30~35세(48.7%)는 원하는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남
- 학력에 따라서 진로와 관련된 상황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 이하는 구체적으로 정하진 않았지만 물색 중인 경우가 가장 높았고, 나머지는 원하는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서 진로와 관련된 상황을 살펴보면 비경제활동 인구가 경제활동 인구에 비해 진로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2-3-19] 진로와 관련한 현재 상황

[단위: %]

구분			진로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음	구체적으로 정하진 않았지만 물색 중	어느 정도 진로를 결정하고 탐색 중	진로와 관련된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중	진로가 확정되어 취업, 창업 등 활동 시작 예정	내가 원하는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음
전체(n=5,194)			7.8	22.4	13.4	18.5	6.1	31.9
성별	남성		8.4	21.4	14.0	18.2	6.4	31.7
	여성		7.2	23.3	12.7	18.9	5.8	32.1
연령	18~19세		16.2	41.0	18.6	17.3	4.0	3.1
	20~24세		6.9	30.7	21.2	23.2	6.1	11.9
	25~29세		6.8	18.3	10.2	19.8	7.7	37.3
	30~35세		8.0	16.2	9.1	13.4	4.7	48.7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0.3	30.8	19.1	21.6	5.9	12.2
	전문대 졸업		8.7	23.0	11.5	14.5	6.8	35.5
	대학교 졸업		5.9	16.0	9.0	16.8	6.0	46.4
	대학원 졸업		1.8	9.3	10.6	19.6	6.2	52.4
경제 활동 상태	경제활동	취업	6.8	19.1	10.8	13.6	5.0	44.8
		실업	5.9	26.7	20.2	24.0	13.1	10.1
	비경제활동	재학	10.9	34.1	22.6	26.2	4.9	1.3
		비재학 미취업	11.0	25.9	14.4	31.2	7.7	9.8

- 본인의 경험들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해 도움이 되는지, 도움이 된다면 그 경험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전공지식에 대해서는 전공 공부를 경험한 경우는 78.9%로 나타났고, 이를 경험한 응

답자 중 67.0%가 이 경험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해 도움(도움됨 + 매우 도움됨)이 된다고 응답함

- 이전 직장(일자리) 경험이 있는 경우는 56.3%로 나타났고, 이를 경험한 응답자 중 75.7%가 이 경험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함
- 동아리 또는 동호회 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는 50.1%로 나타났고, 이를 경험한 응답자 중 37.9%가 이 경험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함
- 정부 또는 서울시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경험한 경우는 26.9%로 나타났고, 이를 경험한 응답자 중 47.8%가 이 경험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함
- 민간 취·창업 상담 및 컨설팅을 참여한 경우는 20.2%로 나타났고, 이를 경험한 응답자 중 41.8%가 이 경험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함
- 취·창업 관련 교육을 경험한 경우는 33.7%로 나타났고, 이를 경험한 응답자 중 49.2%가 이 경험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함
- 자격증 취득을 해본 적이 있는 경우는 63.2%로 나타났고, 이를 경험한 응답자 중 62.5%가 이 경험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함

[표 2-3-20] 하고 싶은 일에 대한 경험의 도움 정도

[단위: %]

구분	경험 여부 (n=5,194)		도움 정도				
	없다	있다	전혀 도움되지 않음	도움되지 않음	보통	도움됨	매우 도움됨
전공지식 ¹⁾	21.1	78.9	4.9	7.0	21.2	40.7	26.3
이전 직장(일자리) 경험 ²⁾	43.7	56.3	3.3	4.3	16.7	40.7	35.0
동아리 또는 동호회 활동 경험 ³⁾	49.9	50.1	9.6	16.5	36.0	29.9	8.0
정부 또는 서울시의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⁴⁾	73.1	26.9	7.4	12.2	32.6	37.3	10.5
민간 취·창업 상담 및 컨설팅 ⁵⁾	79.8	20.2	7.8	13.5	37.0	34.2	7.6
취·창업 관련 교육 ⁶⁾	66.3	33.7	5.2	10.3	35.3	38.7	10.5
자격증 취득 ⁷⁾	36.8	63.2	3.2	8.3	26.0	39.6	22.9

주: 1) 전공지식의 도움 정도는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4,092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2) 이전 직장(일자리) 경험의 도움 정도는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2,924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3) 동아리 또는 동호회 활동 경험의 도움 정도는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2,598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4) 정부 또는 서울시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도움 정도는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1,401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5) 민간 취·창업 상담 및 컨설팅의 도움 정도는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1,052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6) 취·창업 관련 교육의 도움 정도는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1,734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7) 자격증 취득의 도움 정도는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3,281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3) 일자리 인식

- 일자리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을 1순위와 2순위를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1순위와 2순위의 응답 결과가 유사하게 나타남
- 일자리 선택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 1순위는 급여(보상) 수준이 높은 일자리가 38.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적성에 맞는 일자리 20.2%, 고용 안정성이 높은 일자리 13.0%, 미래 성장 비전이 있는 일자리 7.5%, 조직문화가 수평적인 일자리 5.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자리 선택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 2순위 역시 급여(보상) 수준이 높은 일자리가 20.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적성에 맞는 일자리 18.3%, 고용 안정성이 높은 일자리 15.7%, 미래 성장 비전이 있는 일자리 12.7%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2-3-21] 일자리 선택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1, 2순위)

[단위: %]

구분	1순위(n=5,194)	2순위(n=5,194)
조직문화가 수평적인 일자리	5.6	4.7
급여(보상) 수준이 높은 일자리	38.0	20.4
사회적 인지도가 높은 일자리	2.9	4.6
고용 안정성이 높은 일자리	13.0	15.7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가 자유로운 일자리	5.3	8.5
미래 성장 비전이 있는 일자리	7.5	12.7
적성에 맞는 일자리	20.2	18.3
복리후생이 우수한 일자리	3.3	9.1
자아실현이 가능한 일자리	4.1	5.7
기타	0.2	0.3

- 일자리 선택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 1순위에 대해 성별, 연령, 학력,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분석한 결과를 아래에 제시함
- 성별에 따라서 일자리 선택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 1순위를 살펴보면 남성(39.6%)과 여성(34.5%) 모두 급여(보상) 수준이 높은 일자리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이 높을수록 급여(보상)수준이 높은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지고 적성에 맞는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18~19세는 적성에 맞는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일자리 선택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 1순위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 전문대 졸업자, 대학교 졸업자, 대학원 졸업자 모두 급여(보상) 수준이 높은 일자리가 중요하

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조직문화가 수평적인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서 일자리 선택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 1순위를 살펴보면 모두 급여(보상) 수준이 높은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실업자와 재학생은 적성에 맞는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2-3-22] 일자리 선택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1순위)

[단위: %]

구분		조직문화가 수평적인 일자리	급여(보상) 수준이 높은 일자리	사회적 인지도가 높은 일자리	고용 안정성이 높은 일자리	근무시간/장소가 자유로운 일자리	미래 성장 비전이 있는 일자리	적성에 맞는 일자리	복리후생이 우수한 일자리	자아실현이 가능한 일자리	기타
전체(n=5,194)		5.6	38.0	2.9	13.0	5.3	7.5	20.2	3.3	4.1	0.2
성별	남성	5.6	39.6	3.6	11.8	5.8	9.0	18.3	2.3	4.0	0.2
	여성	5.6	34.5	2.3	14.2	4.8	6.1	22.1	4.2	4.3	0.1
연령	18~19세	2.2	31.5	4.1	12.2	2.5	6.4	32.4	2.9	5.7	0.0
	20~24세	4.7	36.7	3.1	12.0	4.9	7.5	23.5	3.1	4.6	0.1
	25~29세	7.5	37.9	3.1	13.3	5.2	7.6	17.9	3.0	4.2	0.3
	30~35세	4.9	40.5	2.3	13.7	6.1	7.6	17.5	3.8	3.4	0.1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4.5	35.7	3.3	12.8	5.5	8.0	22.5	3.0	4.5	0.3
	전문대 졸업	5.6	40.7	1.1	9.8	6.4	6.7	22.4	4.8	2.4	0.0
	대학교 졸업	6.4	39.2	3.1	14.2	4.8	7.5	17.6	3.1	4.0	0.1
	대학원 졸업	6.8	38.9	2.9	12.7	4.5	6.0	18.4	3.0	6.8	0.0
경제활동 상태	경제활동	취업	5.4	40.4	2.7	11.9	5.4	7.6	19.4	3.2	0.1
		실업	7.4	32.5	2.9	13.7	3.9	9.1	23.4	2.5	0.3
	비경제활동	재학	5.2	34.0	4.3	15.5	3.5	6.8	23.0	2.9	0.0
		비재학 미취업	5.8	33.7	2.7	15.5	6.7	6.5	20.1	4.2	0.3

- 일자리를 구할 때 어려움의 정도에 대해 분석한 결과(그렇다 + 대체로 그런 편이다 의 응답 비율)를 제시하였음
-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64.8%로 나타남
- 취업·창업정보가 부족하거나 잘 몰라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은 55.4%로 나타남
- 학력, 기술, 기능이 모자란다고 응답한 비율은 31.0%로 나타남

- 경험이 부족하여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은 62.7%로 나타남
- 제시된 사업 또는 일자리의 수입이 적다고 응답한 비율은 69.1%로 나타남
- 근로환경이나 근로시간이 안 맞아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은 48.1%로 나타남
- 나이 제한 때문에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은 37.8%로 나타남

[표 2-3-23] 일자리를 구할 때 어려움 정도

[단위: %]

구분 (n=5,194)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하다	23.7	41.1	19.4	12.4	3.4
취업·창업정보가 부족하거나 잘 모른다	14.8	40.6	26.0	14.9	3.8
학력, 기술, 기능이 모자란다	8.0	23.0	30.0	28.6	10.5
경험이 부족하다	20.7	42.0	21.4	12.6	3.4
제시된 사업 또는 일자리의 수입이 적다	27.3	41.8	23.0	6.4	1.6
근로환경이나 근로시간이 안 맞는다	15.8	32.3	30.5	17.2	4.2
나이 제한이 있다	12.1	25.7	33.3	20.9	7.9

4_일자리

1) 일자리 경험

(1) 서울 청년의 경제활동과 현재 상태

- 전체 응답자의 고용실태를 살펴본 결과 고용률은 65.7%, 실업률은 8.1%, 니트비율은 26.2%로 나타남⁴⁾
- 연령별 고용실태를 살펴보면 20~35세의 고용률은 67.6%, 실업률은 7.9%, 니트비율은 24.5%로 나타났으며, 18~29세의 고용률은 59.5%, 실업률은 9.1%, 니트비율은 21.4%로 나타남
- 고용률 및 실업률과 더불어 서울 청년의 고용시장 상황을 좀 더 다각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노동공급과 수요의 불일치를 파악하기 위해 3가지 고용보조지표를 함께 살펴보았음
- 고용보조지표는 노동공급과 수요의 불일치로 근로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못하는 노동력을 파악하기 위해 활용하는 지표로 실업률과는 다른 개념임
- 고용보조지표1은 $(\text{시간 관련 추가취업가능자} + \text{실업자}) / \text{경제활동인구} \times 100$ 으로 산출함
 - 여기서 시간 관련 추가취업가능자는 조사대상기간에 실제 취업시간이 36시간 미만인 사람 중에서 추가 취업을 희망하고, 추가 취업의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을 의미함
- 고용보조지표2는 $[(\text{실업자} + \text{잠재경제활동인구}) / \text{확장경제활동인구} \times 100]$ 으로 산출함
 - 잠재경제활동인구는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취업에 관심을 표현한 사람을 의미하며, 확장경제활동인구는 경제활동인구와 잠재경제활동인구의 합임
- 고용보조지표3은 $[(\text{시간 관련 추가 취업가능자} + \text{실업자} + \text{잠재경제활동인구}) / \text{확장경제활동인구} \times 100]$ 으로 산출함
- 전체연령의 고용보조지표1은 11.3%, 고용보조지표2는 14.3%, 고용보조지표3은 14.6%로 나타남⁵⁾
- 연령별로 고용보조지표를 살펴보면 20~35세의 고용보조지표1은 10.7%, 고용보조지표2는 13.7%, 고용보조지표 3은 13.9%로 나타났으며 18~29세의 고용보조지표1은 13.6%, 고용보조지표2는 17.2%, 고용보조지표 3은 17.5%로 나타남

4) 2021년 경제활동인구조사의 15~29세(청년층) 고용률(2021년 12월 기준)은 45.1%, 실업률 5.7%로 나타남

5) 2021년 경제활동인구조사의 15~29세(청년층) 고용보조지표 1은 8.8%, 고용보조지표 2는 16.9%, 고용보조지표 3은 19.6%로 나타남

[표 2-4-1] 서울 청년 고용 실태

[단위: %]

구분	고용률 ¹⁾	실업률 ²⁾	니트 ³⁾	고용보조지표 ⁴⁾		
				지표1	지표2	지표3
18~35세	65.7	8.1	26.2	11.3	14.3	14.6
20~35세	67.6	7.9	24.5	10.7	13.7	13.9
18~29세	59.5	9.1	21.4	13.6	17.2	17.5

구분	내용
1) 고용률	지난 1주일 동안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의 비율
2) 실업률	경제활동인구(실업자 및 취업자) 중 ① 조사대상기간에 수입이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②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으며, ③조사 기간에 일이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
3) 니트	2016년 OECD 기준에 따라 형식교육(formal education)에 참여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않는 청년으로 정의하며, 실업자와 비재학 미취업자가 해당됨
4) 고용보조지표	<p>고용보조지표1 = (시간 관련 추가 취업가능자+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p> <p>고용보조지표2 = (실업자+잠재경제활동인구)/확장경제활동인구×100</p> <p>고용보조지표3 = (시간 관련 추가 취업가능자+실업자+잠재경제활동인구)/확장경제활동인구×100</p> <p>시간관련추가취업자: 조사대상기간에 실제 취업시간이 36시간 미만인 사람 중에서 추가취업을 원하고, 추가 취업의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p> <p>잠재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취업에 관심을 표현한 사람</p> <p>잠재취업가능자: 비경제활동인구중에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했었지만, 조사대상기간에 취업가능성이 없었던 사람</p> <p>잠재구직자: 비경제활동인구중에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으나, 조사대상기간에 취업을 원하고, 취업가능성이 있는 사람</p>

자료: 지역별고용조사(2021), 경제활동인구조사(2021)

- 성별, 연령, 학력, 가구유형에 따라 고용률과 실업률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 성별에 따른 고용률을 살펴보면 여성은 68.0%, 남성은 63.3%로 여성의 고용률이 더 높게 나타남
- 연령이 높을수록 고용률도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 실업률은 연령에 비례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남
- 학력이 높을수록 고용률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 실업률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남
- 가구유형별 고용률은 무자녀 부부가구가 82.8%로 가장 높았고 부모동거 가구가 59.6%로 가장 낮게 나타남. 실업률은 부모동거 가구가 9.4%로 가장 높았고, 유자녀 부부가구가 2.8%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2-4-2] 특성별 실업률 및 고용률

[단위: %]

구분		실업률	고용률
전체(n=5,194)		8.1	65.7
성별	남성	8.1	63.3
	여성	8.2	68.0
연령	18~19세	11.2	35.3
	20~24세	8.2	51.7
	25~29세	9.5	69.6
	30~35세	5.9	79.2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8.8	51.2
	전문대 졸업	9.9	70.5
	대학교 졸업	7.3	75.5
	대학원 졸업	4.9	82.3
가구유형	1인가구	7.3	70.3
	무자녀 부부가구	5.7	82.8
	유자녀 부부가구	2.8	67.1
	부모동거 가구	9.4	59.6
	기타가구	8.6	71.8

- 성별, 연령, 학력, 가구유형에 따라서 고용보조지표와 니트 비율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 성별에 따라서 고용보조지표와 니트 비율을 살펴보면 고용보조지표1과 고용보조지표3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고, 고용보조지표2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니트 비율은 남성(28.7%)이 여성(23.9%)보다 더 높게 나타남
- 연령이 높을수록 고용보조지표 1~3과 니트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학력이 높을수록 고용보조지표 1~3과 니트 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가구유형에 따라서 고용보조지표와 니트 비율을 살펴보면 니트비율은 부모동거 가구가 31.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용보조지표 1~3은 부모동거 가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2-4-3] 특성별 고용보조지표 및 니트 비율

[단위: %]

구분		고용보조지표 ¹⁾			니트 비율 전 체(n=5,194)
		1 전 체(n=431)	2 전 체(n=570)	3 전 체(n=1,005)	
전체		11.3	14.3	14.6	26.2
성별	남성	11.4	11.7	14.9	28.7
	여성	11.1	14.0	14.4	23.9
연령	18~19세	24.7	30.0	30.5	53.6
	20~24세	14.1	18.0	18.4	40.1
	25~29세	12.3	15.4	15.7	21.0
	30~35세	7.1	9.2	9.4	14.9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5.2	19.8	20.2	40.0
	전문대 졸업	12.3	15.2	15.2	19.6
	대학교 졸업	8.9	11.0	11.1	17.3
	대학원 졸업	7.1	8.9	10.3	12.8
가구유형	1인가구	9.7	13.2	13.5	22.5
	무자녀 부부가구	6.4	8.3	8.3	11.5
	유자녀 부부가구	4.5	8.2	8.7	30.1
	부모동거 가구	13.9	16.9	17.2	31.0
	기타가구	10.7	13.0	13.0	19.7

주: 1)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 기준으로 분석함

- 조사 시점 기준 지난 1주일간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있는 응답자는 66.7%로 나타났고, 휴가나 일시 휴직인 경우는 3.5%, 일을 하지 않은 경우는 29.8%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 지난 1주일간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경우는 여성(68.8%)이 남성(64.8%)보다 더 높게 나타난 반면 일을 하지 않은 경우는 남성(32.7%)이 여성(27.0%)보다 더 높게 나타남
- 연령이 높을수록 지난 1주일간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경우가 높게 나타났으며 일을 하지 않은 경우는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연령과 마찬가지로 학력이 높을수록 지난 1주일간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경우가 높게 나타났으며 일을 하지 않은 경우는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가구유형별로는 지난 1주일간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경우는 무자녀 부부가구가

82.1%로 가장 높았고, 일을 하지 않은 경우는 부모동거 가구가 35.1%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2-4-4] 지난 1주일간 수입 목적 일 경험

[단위: %]

구 분		일을 하였음	휴가 및 일시 휴직	일을 하지 않았음
전체(n=5,194)		66.7	3.5	29.8
성별	남성	64.8	2.5	32.7
	여성	68.6	4.4	27.0
연령	18~19세	37.9	2.7	59.4
	20~24세	55.8	1.8	42.4
	25~29세	70.7	3.8	25.5
	30~35세	77.2	4.8	18.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54.4	2.5	43.1
	전문대 졸업	73.2	4.2	22.6
	대학교 졸업	74.8	4.2	21.0
	대학원 졸업	77.7	3.5	18.8
가구유형	1인가구	72.1	2.5	25.4
	무자녀 부부가구	82.1	3.9	13.9
	유자녀 부부가구	59.1	11.4	30.5
	부모동거 가구	61.9	3.0	35.1
	기타가구	68.6	5.9	25.5

- 조사 시점 기준 지난 1주일간 일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일자리가 없어서가 31.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진학 준비 혹은 정규교육기관에 재학 중이어서 28.5%,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9.9%, 일시적 병 혹은 사고 때문에 4.5%, 휴가·연가 등의 사용으로 4.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 지난 1주일간 일하지 않은 주된 이유를 살펴보면 남성은 진학 준비 혹은 정규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가 31.7%로 가장 높았고, 여성은 일자리가 없어서 일하지 않은 경우가 35.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지난 1주일간 일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18~19세(52.3%)와 20~24세(44.8%)는 진학 준비 혹은 정규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가 가장 높았고, 25~29세(44.2%)와 30~35세(34.1%)는 일자리가 없어서 일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지난 1주일간 일하지 않은 주된 이유를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 이하(43.4%)는 진학 준비 혹은 정규교육 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가 가장 높았고, 나머지는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하지 않았던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남

[표 2-4-5] 지난 1주일간 일하지 않은 주된 이유(휴가 및 일시 휴직)

[단위: %]

구 분		일시적 병 혹은 사고 때문에	휴가 연 가 등의 사용으 로	진학 준비 혹은 정규교 육기관 에 재학	집안일 로 인해	사업장 이 일시적 으로 휴업하 여서	일자리 가 없어서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날씨가 좋지 않아서	사업이 부진하 여서	기타
전체(n=1,729) ¹⁾		4.5	4.5	28.5	6.1	1.0	31.6	9.9	0.5	0.8	12.6
성별	남성	4.5	4.0	31.7	2.4	1.1	29.5	10.8	0.7	0.9	14.5
	여성	4.4	5.1	25.2	10.0	0.9	35.9	9.0	0.2	0.7	10.5
연령	18~19세	3.3	1.7	52.3	0.0	0.0	12.2	16.1	2.6	0.0	11.8
	20~24세	2.8	1.1	44.8	1.6	0.6	25.2	14.1	0.1	0.5	9.2
	25~29세	5.0	5.9	17.0	4.3	1.7	44.2	5.9	0.4	0.5	15.0
	30~35세	7.2	9.8	5.6	19.3	1.3	34.1	5.5	0.0	2.2	15.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3.8	1.8	43.4	3.4	0.6	22.1	13.4	0.8	0.4	10.4
	전문대 졸업	6.9	7.7	6.9	9.0	2.2	38.4	8.7	0.0	0.6	19.6
	대학교 졸업	4.9	7.3	11.4	9.4	1.3	44.9	5.2	0.2	1.4	14.0
	대학원 졸업	3.4	12.0	24.1	8.4	1.7	32.8	4.6	0.0	1.8	11.3
가구 유형	1인가구	3.9	4.9	28.3	1.9	1.3	38.1	9.4	0.4	1.0	10.8
	무자녀 부부가구	8.2	11.7	4.8	14.8	1.6	29.1	9.8	1.7	1.7	16.6
	유자녀 부부가구	4.1	6.3	0.9	65.8	1.0	2.9	1.0	0.0	2.1	16.0
	부모동거 가구	4.3	3.5	33.8	2.0	0.6	30.8	11.6	0.5	0.5	12.4
	기타가구	6.8	6.7	19.9	0.9	3.2	39.1	5.3	0.0	0.9	17.0

주: 1) 지난주에 일시적으로 휴직한 1,729명에 대해 분석함

(2) 과거 일자리 경험

- 과거 일자리 경험은 현재 일자리를 포함하여 일주일에 1시간 이상 1개월 이상 일한 경험에 대해 살펴봄
 -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취업자를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 조사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일주일에 1시간 이상 일한 상태를 취업자로 정의하고 일자리 경험을 살펴보았음
- 현재 일자리를 포함하여 과거 일자리 경험이 있는 경우는 87.5%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 과거 일자리 경험이 있는 경우를 살펴보면 남성은 85.7%, 여성은 89.4%가 과거 일자리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남
- 연령과 학력이 높을수록 현재 일자리를 포함하여 과거 일자리 경험이 있는 경우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가구 유형별로 과거 일자리 경험이 있는 경우는 무자녀 부부가구가 94.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최근 3년간 1주일에 1시간 이상 1개월 이상 지속한 일자리 개수는 1개가 43.4%로 가장 높았고 2개는 25.4%, 3개는 15.9%, 4개는 6.5%, 5개 이상은 8.9%로 나타남
- 성별에 따른 최근 3년간 경험한 일자리 개수는 남성은 평균 2.1개 여성은 2.3개로 여성이 약간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최근 3년간 경험한 일자리 개수를 살펴보면 20~24세가 평균 2.8개로 가장 높았고, 30~35세가 평균 1.8개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이는 연령에 따라서 일자리에 대한 인식이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보임
- 학력이 높을수록 최근 3년간 경험한 일자리 개수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 이는 낮은 학력 구간에 비교적 연령이 낮은 응답자가 분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가구유형별로 최근 3년간 경험한 일자리 개수를 살펴보면 기타 가구가 평균 2.4개로 가장 높았고, 유자녀 부부가구는 평균 1.7개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2-4-6] 과거 일자리 경험

[단위: %]

구 분		일자리 경험 여부 ¹⁾		최근 3년간 경험한 일자리 개수(n=4,480) ²⁾					
		없음	있음	평균	1개	2개	3개	4개	5개 이상
전체(n=5,194)		12.5	87.5	2.2개	43.4	25.4	15.9	6.5	8.9
성별	남성	14.3	85.7	2.1개	46.2	25.0	15.6	5.9	7.3
	여성	10.6	89.4	2.3개	40.8	25.7	16.1	7.0	10.4
연령	18~19세	44.1	55.9	2.1개	48.8	21.9	16.4	4.5	8.4
	20~24세	18.3	81.7	2.8개	29.2	23.8	20.0	11.8	15.2
	25~29세	8.3	91.8	2.2개	41.7	26.5	17.4	6.1	8.4
	30~35세	6.1	93.9	1.8개	55.4	25.9	10.9	3.1	4.8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1.4	78.6	2.5개	37.0	24.8	17.1	9.4	11.8
	전문대 졸업	7.5	92.5	2.2개	43.1	27.5	15.1	5.0	9.3
	대학교 졸업	6.7	93.3	2.1개	47.9	25.6	14.8	4.9	6.7
	대학원 졸업	4.9	95.1	2.1개	47.2	22.6	18.2	4.2	7.8
가구유형	1인가구	8.9	91.1	2.2개	72.8	26.7	15.9	6.1	8.5
	무자녀 부부가구	5.3	94.7	1.8개	60.6	20.4	10.4	4.6	4.0
	유자녀 부부가구	12.7	87.3	1.7개	62.4	22.1	8.2	3.3	4.1
	부모동거 가구	15.9	84.1	2.3개	40.3	25.5	16.8	7.1	10.3
	기타가구	10.4	89.6	2.4개	38.1	25.3	19.3	7.7	9.7

주: 1) 현재 일자리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일주일에 1시간 이상, 1개월 이상 일을 한 경험

2) 일자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4,480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 가장 최근 그만둔 일자리를 스스로 원해서 그만둔 청년은 74.3%였고, 스스로 원하지는 않았지만 그만둔 청년은 25.7%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는 본인이 원하지 않았지만 일자리를 그만둔 경우는 남성(76.5%)이 여성(72.5%)보다 더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본인이 원하지 않았지만 일자리를 그만두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교육수준도 마찬가지로 비례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표 2-4-7] 가장 최근 그만둔 일자리

[단위: %]

구분		스스로 원해서 그만둔	
		예	아니오
전체(n=2,883) ¹⁾		74.3	25.7
성별	남성	76.5	23.5
	여성	72.5	27.5
연령	18~19세	82.3	17.7
	20~24세	76.2	23.8
	25~29세	74.2	25.8
	30~35세	71.0	29.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76.4	23.6
	전문대 졸업	73.9	26.1
	대학교 졸업	73.4	26.6
	대학원 졸업	66.4	33.6
가구유형	1인가구	72.2	27.8
	무자녀 부부가구	74.3	25.7
	유자녀 부부가구	72.3	27.7
	부모동거 가구	76.2	23.9
	기타가구	71.7	28.3

주: 1) 일자리 경험이 있는 4,540명 중 가장 최근 일자리를 그만둔 경험이 있는 2,883명을 대상으로 분석

- 가장 최근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를 살펴보면 계약기간이 끝나서 그만둔 경우가 23.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일이 임시이거나 장래성이 없어서 13.3%, 근로시간 또는 근로환경이 나빠서 10.0%, 소득 또는 보수가 적어서 9.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을 그만둔 후 가장 어려웠던 점을 살펴보면 특별이 없었던 경우가 45.0%로 가장 높았고, 생계유지를 위한 생활비 부족 32.4%, 재취업을 위한 일자리 기회 부족 8.6%, 재취업을 위한 일자리 정보 부족 4.4%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2-4-8] 가장 최근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 그만둔 후 가장 어려운 점

[단위: %]

그만둔 이유 전체(n=2,883) ¹⁾	비율	그만둔 후 가장 어려운 점 전체(n=2,883) ¹⁾	비율
직장의 파산, 폐업, 휴업 등으로 인해	4.5	생계유지를 위한 생활비 부족	32.4
정리해고로 인해	0.9	재취업을 위한 교육, 훈련 기회의 부족	3.8
권고사직	2.8	재취업을 위한 일자리 정보 부족	4.4
명예퇴직(희망퇴직)	1.0	재취업을 위한 일자리 기회 부족	8.6
계약기간이 끝나서	23.2	이전 직장경력으로 인한 재취업 과정에서의 차별	1.3
소득 또는 보수가 적어서	9.9	창업을 위한 자금조달 등 어려움	1.7
일거리가 없거나 적어서	1.9	가족을 돌보면서 할 수 있는 일자리 기회 부족	1.6
일이 임시이거나 장래성이 없어서	13.3	기타	1.3
적성, 지식, 기능 등이 맞지 않아서	7.1	특별히 없었음	45.0
근로시간 또는 근로환경이 나빠서	10.0		
자기(가족) 사업을 하려고	1.4		
건강, 고령 등의 이유로	2.7		
회사 내 인간관계 때문에	4.9		
회사가 이사하여(전근·발령으로)	0.4		
우리집이 이사하여서	1.7		
기타	14.2		

주: 1) 사직 및 해고 경험이 있는 2,883명에 대해 분석함

- 일자리를 그만둔 적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경험이 있는 경우는 14.1%로 나타남
- 성별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경험은 남성은 13.1%, 여성은 14.9%로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남
- 연령이 높을수록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가구유형에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경험을 살펴보면 부부가구(무자녀, 유자녀)가 20.6%로 가장 높았고, 부모동거 가구가 11.8%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별로 실업급여 수급 경험을 살펴보면 실업자가 22.9%로 가장 높았고, 재학생이 4.8%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2-4-9] 실업급여 수급 경험

[단위: %]

구분		있음	없음
전체(n=2,883) ¹⁾		14.1	85.9
성별	남성	13.1	86.9
	여성	14.9	85.1
연령	18~19세	4.1	95.9
	20~24세	6.7	93.3
	25~29세	14.8	85.3
	30~35세	24.0	76.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9.4	90.6
	전문대 졸업	20.7	79.3
	대학교 졸업	16.6	83.4
	대학원 졸업	14.0	86.0
가구유형	1인가구	15.6	84.4
	무자녀 부부가구	20.6	79.4
	유자녀 부부가구	20.6	79.5
	부모동거 가구	11.8	88.2
	기타가구	16.7	83.3
경제활동 상태	경제 활동	취업	86.4
		실업	77.1
	비경제 활동	재학생	95.2
		비재학 미취업	83.8

주: 1) 일자리 경험이 있는 4,540명 중 일자리를 그만둔 경험이 있는 2,883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2) 취업자

(1) 취업자 기본 특성

- 취업자의 근로형태를 살펴보면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는 91.9%, 자영업자는 7.6%, 무급가족종사자는 0.5%로 나타남
- 성별에 따른 근로형태는 남성(91.6%)과 여성(92.2%) 모두 임금근로자가 가장 높았으며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음
- 연령별로 취업자의 근로형태를 살펴보면 모든 연령에서 임금근로자가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연령이 높을수록 자영업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학력별로 취업자의 근로형태를 살펴보면 임금근로자가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학력

이 높을수록 자영업자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가구유형별로 취업자의 근로형태를 살펴보면 모든 가구유형에서 임금근로자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무자녀 부부가구(10.6%)와 유자녀 부부가구(11.6%)는 자영업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2-4-10] 취업자의 근로형태

[단위: %]

구 분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전체(n=3,409) ¹⁾		91.9	7.6	0.5
성별	남성	91.6	7.9	0.5
	여성	92.2	7.3	0.6
연령 ²⁾	18~19세	93.8	4.5	1.8
	20~24세	93.9	5.7	0.4
	25~29세	92.6	6.9	0.5
	30~35세	90.0	9.5	0.5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89.3	9.9	0.8
	전문대 졸업	89.2	9.8	1.1
	대학교 졸업	94.0	5.7	0.3
	대학원 졸업	94.3	5.7	0.0
가구유형	1인가구	92.0	8.0	0.1
	무자녀 부부가구	89.4	10.6	0.0
	유자녀 부부가구	86.6	11.6	1.8
	부모동거 가구	92.8	6.4	0.8
	기타가구	92.7	6.8	0.4

주: 1) 현재 일자리가 있는 3,409명에 대해 분석함

2) 18~19세 111명, 20~24세 719명, 25~29세 1,291명, 30~35세 1,288명에 대해 분석함

- 취업자의 현재 주된 일자리의 구직활동기간은 1개월 미만이 40.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36.9%, 6개월 이상 1년 미만 12.3%, 1년 이상 10.4% 순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 현재 주된 일자리의 구직활동 기간은 남성보다 여성이 다소 짧게 나타남
- 연령과 학력이 높을수록 현재 주된 일자리의 구직활동 기간이 길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표 2-4-11] 취업자의 현재 주된 일자리 구직활동 기간

[단위: %]

구 분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전체(n=3,136) ¹⁾		40.5	36.9	12.3	10.4
성별	남성	39.5	36.7	12.9	10.9
	여성	41.3	37.0	11.8	9.9
연령 ²⁾	18~19세	73.7	20.6	0.0	5.8
	20~24세	61.9	26.8	7.4	4.0
	25~29세	35.7	37.3	14.5	12.5
	30~35세	29.9	43.8	14.0	12.3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59.1	38.9	5.2	6.8
	전문대 졸업	44.9	38.9	9.8	6.3
	대학교 졸업	28.7	40.1	17.2	14.0
	대학원 졸업	37.2	44.2	11.9	6.7
가구유형	1인가구	35.9	40.4	12.2	11.5
	무자녀 부부가구	29.5	44.3	12.5	13.7
	유자녀 부부가구	27.1	38.5	19.2	15.1
	부모동거 가구	47.1	33.0	11.3	8.7
	기타가구	41.1	35.2	14.6	9.1

주: 1) 현재 일자리가 있는 3,409명 중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한 3,136명에 대해 분석함

- 취업자의 현재 재직 중인 일자리 개수를 살펴보면 1개가 95.6%로 가장 높았고, 2개는 3.5%, 3개는 0.9%, 4개 이상은 0.1%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 현재 재직 중인 일자리 개수를 살펴보면 현재 일자리 개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남성이 여성보다 약간 더 높게 나타남
- 연령이 낮을수록 현재 일자리 개수가 2개 이상인 경우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학력별로 현재 재직 중인 일자리 개수를 살펴보면 현재 일자리 개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대학원 졸업이 가장 높았고, 대학교 졸업이 가장 낮게 나타남
- 가구유형별로 현재 재직 중인 일자리 개수를 살펴보면 현재 일자리 개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기타가구가 가장 높았고, 무자녀 부부가구가 가장 낮게 나타남

[표 2-4-12] 현재 재직 중인 일자리 개수

[단위: %]

구 분		1개	2개	3개	4개 이상
전체(n=3,409) ¹⁾		95.6	3.5	0.9	0.1
성별	남성	95.0	4.0	1.0	0.1
	여성	96.1	3.0	0.9	0.1
연령 ²⁾	18~19세	92.6	4.4	2.9	0.0
	20~24세	94.7	3.9	1.2	0.2
	25~29세	95.9	3.1	0.9	0.2
	30~35세	95.9	3.5	0.6	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94.6	4.3	1.2	0.2
	전문대 졸업	95.6	3.5	0.9	0.0
	대학교 졸업	96.7	2.7	0.6	0.0
	대학원 졸업	92.8	4.9	1.9	0.5
가구유형	1인가구	95.8	3.2	1.0	0.0
	무자녀 부부가구	96.2	3.8	0.0	0.0
	유자녀 부부가구	94.5	3.9	1.7	0.0
	부모동거 가구	95.7	3.3	0.9	0.2
	기타가구	93.2	5.2	1.2	0.4

주: 1) 현재 일자리가 있는 3,409명에 대해 분석함

2) 18~19세 111명, 20~24세 719명, 25~29세 1,291명, 30~35세 1,288명에 대해 분석함

- 구직활동 시 가장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교육·훈련 정보와 기회 제공이 28.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세하고 정확한 구인 정보 24.9%, 구직기간 동안의 비용 지원 21.1%, 다양하고 많은 구인 정보는 16.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 구직활동 시 가장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남성(28.4%)과 여성(28.7%) 모두 교육·훈련 정보와 기회 제공이 가장 높았고, 여성은 남성에 비해 구직기간 동안의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구직활동 시 가장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18~19세는 다양하고 많은 구인정보가 27.0%로 가장 높았고 나머지 연령은 교육·훈련 정보와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구직활동 시 가장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대학원 졸업은 자세하

고 정확한 구인 정보가 32.7%로 가장 높았고, 나머지는 교육·훈련 정보와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가구유형별로 구직활동 시 가장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부부가구(무자녀, 유자녀)는 자세하고 정확한 구인정보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나머지 가구 유형은 교육·훈련 정보와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2-4-13] 구직활동 시 가장 필요한 지원

[단위: %]

구 분		적성검사 및 상담 지원	다양하고 많은 구인 정보	자세하고 정확한 구인 정보	교육·훈련 정보와 기회 제공	구직기간 동안의 비용 지원	기타
전체(n=3,409) ¹⁾		8.5	16.3	24.9	28.6	21.1	0.7
성별	남성	10.4	16.1	25.8	28.4	18.4	1.0
	여성	6.9	16.5	24.1	28.7	23.5	0.4
연령 ²⁾	18~19세	13.7	27.0	21.2	26.8	11.4	0.0
	20~24세	8.2	17.1	22.8	29.6	21.4	0.9
	25~29세	7.8	14.4	24.0	29.2	24.2	0.4
	30~35세	9.0	16.8	27.3	27.5	18.7	0.8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0.3	18.7	22.9	26.6	20.6	0.9
	전문대 졸업	10.1	19.4	21.3	26.7	22.1	0.4
	대학교 졸업	7.3	13.9	26.1	30.6	21.5	0.6
	대학원 졸업	5.6	16.9	32.7	25.9	18.2	0.8
가구유형	1인가구	8.1	15.9	24.4	28.6	22.2	0.9
	무자녀 부부가구	10.2	15.0	28.2	26.1	20.5	0.0
	유자녀 부부가구	10.2	16.2	30.4	23.9	18.3	1.1
	부모동거 가구	8.6	17.1	24.3	29.7	20.0	0.3
	기타가구	7.1	14.0	23.5	27.1	25.8	2.5

주: 현재 일자리가 있는 3,409명에 대해 분석함

-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비정규직은 30.8%, 정규직은 57.1%, 비임금근로자는 12.1%로 나타남. 자영업자는 7.6%, 무급가족종사자는 0.5%, 특수형태근로자는 4.0%로 나타남
- 성별에 따른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정규직 및 비임금 근로자 비율이 높았고, 비정규직 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남
- 연령이 높을수록 정규직과 자영업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학력이 높을수록 비임금근로자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 정규직 비율은 대학교 졸업이 71.5%로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30.2%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가구유형별로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비정규직의 비율은 기타 가구가 39.2%로 가장 높았고, 정규직 비율은 유자녀 부부가구가 75.9%로 가장 높았으며 자영업자 비율은 부모동거 가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2-4-14] 종사상 지위

[단위: %]

구 분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비정규직				정규직 (계속 근무)					계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1년미만	1년이상 또는 무기계약	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특수형태 근로자	
전체(n=3,409) ¹⁾		2.3	15.8	12.8	30.8	57.1	6.0	1.6	0.5	4.0	12.1
성별	남성	2.6	15.3	10.5	28.4	58.8	6.2	1.7	0.5	4.5	12.9
	여성	2.0	16.2	14.8	33.0	55.6	5.7	1.6	0.6	3.6	11.4
연령 ²⁾	18~19세	10.0	44.8	14.4	69.1	16.5	2.6	1.9	1.8	8.1	14.4
	20~24세	4.7	37.6	17.2	59.4	28.9	4.2	1.6	0.4	5.5	11.6
	25~29세	1.6	11.9	12.8	26.4	62.5	5.6	1.4	0.5	3.7	11.1
	30~35세	0.9	4.9	10.1	15.8	71.1	7.6	1.9	0.5	3.1	13.1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4.8	33.1	15.4	53.2	30.2	7.8	2.1	0.8	5.9	16.6
	전문대 졸업	1.0	11.1	12.3	24.4	62.2	6.7	3.0	1.1	2.6	13.4
	대학교 졸업	1.3	7.2	10.7	19.3	71.5	4.7	1.1	0.3	3.3	9.3
	대학원 졸업	0.5	9.7	16.9	27.0	63.8	5.0	0.8	0.0	3.4	9.2
가구유형	1인가구	2.3	15.8	12.8	30.8	57.1	6.0	1.6	0.5	4.0	12.1
	무자녀 부부가구	1.5	12.8	10.6	24.8	63.1	6.3	1.7	0.1	4.1	12.1
	유자녀 부부가구	0.3	4.7	6.4	11.4	75.9	9.2	1.5	0.0	2.1	12.7
	부모동거 가구	0.6	5.4	12.7	18.8	65.6	8.1	3.5	1.8	2.2	15.6
	기타가구	2.9	21.5	14.8	39.2	49.3	5.0	1.5	0.8	4.2	11.5

주: 1) 현재 일자리가 있는 3,409명에 대해 분석함

- 취업자의 현재 일자리가 플랫폼 노동인 경우는 26.1%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 현재 일자리가 플랫폼 노동인 경우는 남성은 24.7%, 여성은 27.4%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현재 일자리가 플랫폼 노동인 경우를 살펴보면 18~19세가 32.5%로 가장 높았고, 25~29세가 24.7%로 가장 낮게 나타남
- 학력별로 현재 일자리가 플랫폼 노동인 경우는 전문대 졸업이 30.1%로 가장 높았고, 대학원 졸업이 19.8%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가구유형별로는 현재 일자리가 플랫폼 노동인 경우를 살펴보면 유자녀 부부가구가 30.7%로 가장 높았고, 1인가구가 24.0%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2-4-15] 현재 일자리의 플랫폼 노동 여부

[단위: %]

구 분		예	아니오
전체(n=3,409) ¹⁾		26.1	73.9
성별	남성	24.7	75.3
	여성	27.4	72.6
연령 ²⁾	18~19세	32.5	67.5
	20~24세	27.4	72.6
	25~29세	24.7	75.3
	30~35세	26.2	73.8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9.6	70.5
	전문대 졸업	30.1	69.9
	대학교 졸업	23.6	76.4
	대학원 졸업	19.8	80.2
가구유형	1인가구	24.0	76.1
	무자녀 부부가구	27.9	72.1
	유자녀 부부가구	30.7	69.3
	부모동거 가구	26.8	73.2
	기타가구	27.0	73.0

주: 1) 현재 일자리가 있는 3,409명에 대해 분석함

- 취업자들이 근무하는 사업장 유형을 살펴보면 민간 중소기업이 39.4%로 가장 높았고, 기타 20.8%, 민간 대기업 17.9%, 공공부문 11.9%, 소규모 사업체 10.1% 순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 사업장 유형을 살펴보면 남성(37.9%)과 여성(40.7%) 모두 민간 중소기업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이 높을수록 민간 대기업에 근무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고, 법인단체나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경우가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학력이 높을수록 민간 대기업에 근무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고 소규모 사업체에 근무하는 경우가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가구유형별로 사업장 유형을 살펴보면 모든 가구유형에서 민간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부부가구(무자녀, 유자녀)는 공공부문이나 민간 대기업에 근무하는 경우가 다른 가구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2-4-16] 사업장 유형

[단위: %]

구 분		공공부문	민간 대기업	민간 중소기업	소규모 사업체	기타(법인단체, 프리랜서 등)
전체(n=3,409) ¹⁾		11.9	17.9	39.4	10.1	20.8
성별	남성	11.7	19.7	37.9	11.7	19.1
	여성	12.1	16.3	40.7	8.7	22.2
연령 ²⁾	18~19세	7.7	3.3	34.6	14.3	40.2
	20~24세	6.3	9.3	37.1	17.6	29.7
	25~29세	12.4	19.2	39.9	8.7	19.8
	30~35세	14.9	22.8	40.6	6.8	14.9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6.9	10.0	34.3	19.5	29.3
	전문대 졸업	4.9	12.5	50.8	9.3	22.6
	대학교 졸업	15.6	23.1	39.8	5.8	15.6
	대학원 졸업	19.3	24.1	34.8	3.0	18.8
가구 유형	1인가구	12.4	19.7	41.2	8.6	18.2
	무자녀 부부가구	15.2	29.2	33.8	5.8	16.0
	유자녀 부부가구	21.2	26.0	34.3	7.2	11.4
	부모동거 가구	10.1	14.0	39.6	11.8	24.5
	기타가구	11.3	17.2	38.2	12.5	20.9

주: 1) 현재 일자리가 있는 3,409명에 대해 분석함

- 현재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의 근로 형태를 살펴보면 정규직은 64.9%, 비정규직은 35.1%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62.7%)보다 남성(67.5%)의 정규직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연령이 높을수록 정규직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학력에 따른 정규직 비율은 대학교 졸업이 78.8%로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36.2%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가구유형별로 정규직 비율은 무자녀 부부가구가 86.9%로 가장 높았고, 부모동거 가구가 55.7%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2-4-17] 현재 취업자의 근로형태

[단위: %]

구 분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n=2,994) ¹⁾		64.9	35.1
성별	남성	67.5	32.5
	여성	62.7	37.3
연령	18~19세	19.3	80.7
	20~24세	32.7	67.3
	25~29세	70.3	29.7
	30~35세	81.8	18.2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36.2	63.8
	전문대 졸업	71.8	28.2
	대학교 졸업	78.8	21.2
	대학원 졸업	70.3	29.7
가구유형	1인가구	71.8	28.2
	무자녀 부부가구	86.9	13.1
	유자녀 부부가구	77.7	22.3
	부모동거 가구	55.7	44.3
	기타가구	57.8	42.2

주: 1) 임금근로자 2,994명에 대해 분석함

- 취업자의 주된 일자리의 평균 임금은 225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분포는 200만~300만 원 미만이 39.5%로 가장 높았고, 100만 원 미만 18.3%, 100만~200만 원 미만 17.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 주된 일자리의 평균 임금을 살펴보면 남성은 238만 원, 여성은 213만 원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남
- 연령과 학력이 높을수록 주된 일자리의 평균 임금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가구유형별로 주된 일자리의 평균 임금을 살펴보면 무자녀 부부가구가 301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부모동거 가구가 194만 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2-4-18] 주된 일자리 임금

[단위: 만 원, %]

구 분		평균(만 원)	100만 원 미만	100~200만 원 미만	200~300만 원 미만	300~400만 원 미만	400만 원 이상
전체(n=3,409) ¹⁾		225	18.3	17.9	39.5	17.1	7.2
성별	남성	238	16.2	16.2	37.6	20.2	9.7
	여성	213	20.2	19.4	41.1	14.2	5.0
연령 ²⁾	18~19세	86	71.1	20.8	5.0	2.2	0.9
	20~24세	138	42.8	27.2	25.0	4.1	0.9
	25~29세	229	11.5	19.2	48.9	15.4	5.1
	30~35세	281	6.8	11.1	41.3	27.3	13.5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50	40.1	22.8	26.6	7.7	2.9
	전문대 졸업	216	9.1	27.8	50.6	10.2	2.3
	대학교 졸업	261	8.9	13.1	44.3	23.9	9.9
	대학원 졸업	295	7.2	10.4	40.1	24.2	18.0
가구유형	1인가구	242	11.9	16.3	44.3	19.8	7.7
	무자녀 부부가구	301	5.5	8.8	41.7	26.3	17.8
	유자녀 부부가구	281	13.0	10.9	29.4	31.9	14.8
	부모동거 가구	194	26.4	21.3	35.5	12.3	4.5
	기타가구	216	16.4	19.5	45.4	13.4	5.3

주: 1) 현재 일자리가 있는 3,409명에 대해 분석함

- 취업자의 전체 일자리의 평균 임금은 226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분포는 200만~300만 원 미만이 40.5%로 가장 높았고, 100만~200만 원 미만 18.3%, 300만~400만 원 미만 17.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 전체 일자리의 평균 임금을 살펴보면 남성은 242만 원, 여성은 212만 원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남
- 연령과 학력이 높을수록 전체 일자리의 평균 임금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가구유형별로 전체 일자리의 평균 임금을 살펴보면 무자녀 부부가구가 301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부모동거 가구가 196만 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2-4-19] 전체 일자리 임금

[단위: 만 원, %]

구 분		평균(만 원)	100만 원 미만	100~200만 원 미만	200~300만 원 미만	300~400만 원 미만	400만 원 이상
전체(n=3,409) ¹⁾		226	15.8	18.3	40.5	17.8	7.7
성별	남성	242	13.5	16.3	38.5	21.0	10.6
	여성	212	17.8	20.0	42.2	14.8	5.1
연령 ²⁾	18~19세	92	66.7	24.1	5.0	3.4	0.9
	20~24세	141	40.4	28.0	26.2	4.5	1.0
	25~29세	231	9.2	19.6	49.9	15.7	5.7
	30~35세	281	4.0	11.1	42.3	28.5	14.1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1	37.2	23.6	27.5	8.3	3.4
	전문대 졸업	220	6.2	27.9	52.0	10.9	3.0
	대학교 졸업	260	6.8	13.2	45.3	24.5	10.3
	대학원 졸업	292	3.4	11.5	40.1	26.1	18.9
가구유형	1인가구	242	9.1	17.1	45.0	20.7	8.1
	무자녀 부부가구	301	2.9	8.7	42.7	27.4	18.2
	유자녀 부부가구	278	10.0	10.1	30.9	31.9	17.1
	부모동거 가구	196	24.3	21.7	36.2	12.9	4.9
	기타가구	223	12.2	18.5	49.4	13.8	6.1

주: 1) 현재 일자리가 있는 3,409명에 대해 분석함

- 주된 일자리의 평균 근로시간은 37시간으로 나타났으며, 분포는 36시간 이상 52시간 이하가 67.0%로 높았고, 15시간 미만 14.4%, 15시간 이상 36시간 미만 13.1%, 52시간 초과 5.6% 순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 주된 일자리의 평균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남성은 38시간, 여성은 36시간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약간 더 높게 나타남
- 연령과 학력이 높을수록 평균 근로시간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가구 유형에 따른 주된 일자리의 평균 근로시간은 무자녀 부부가구가 42시간으로 가장 높았고, 부모동거 가구가 34시간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2-4-20] 주된 일자리 근로시간

[단위: 시간, %]

구 분		평균(시간) ²⁾	15시간 미만	15시간 이상 36시간 미만	36시간 이상 52시간 이하	52시간 초과
전체(n=3,409) ¹⁾		37	14.4	13.1	67.0	5.6
성별	남성	38	12.7	12.0	68.2	7.2
	여성	36	15.8	14.1	65.9	4.1
연령 ²⁾	18~19세	18	53.2	29.8	16.1	0.9
	20~24세	28	31.8	22.2	41.6	4.4
	25~29세	39	8.9	11.4	74.1	5.6
	30~35세	41	6.6	8.2	78.7	6.5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9	29.8	21.4	42.8	6.0
	전문대 졸업	39	9.4	11.2	74.6	4.8
	대학교 졸업	40	6.9	9.0	78.5	5.7
	대학원 졸업	40	8.9	8.8	77.8	4.5
가구유형	1인가구	39	10.7	9.3	73.9	6.1
	무자녀 부부가구	42	5.6	9.3	78.0	7.1
	유자녀 부부가구	40	9.5	10.5	71.7	8.3
	부모동거 가구	34	19.5	16.4	59.2	4.8
	기타가구	37	12.6	16.8	66.8	3.7

주: 1) 현재 일자리가 있는 3,409명에 대해 분석함

- 전체 일자리의 평균 근로시간은 37시간으로 나타났으며, 분포는 36시간 이상 52시간 이하가 67.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5시간 이상 36시간 미만 12.9%, 15시간 미만 12.5%, 52시간 초과 6.9% 순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 전체 일자리의 평균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남성은 39시간, 여성은 36시간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게 나타남
- 연령과 학력이 높을수록 평균 근로시간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가구 유형에 따른 전체 일자리의 평균 근로시간은 무자녀 부부가구가 42시간으로 가장 높았고, 부모동거 가구가 34시간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2-4-21] 전체 일자리 근로시간

[단위: 시간, %]

구 분		평균(시간) ²⁾	15시간 미만	15시간 이상 36시간 미만	36시간 이상 52시간 이하	52시간 초과
전체(n=3,409) ¹⁾		37	12.5	12.9	67.8	6.9
성별	남성	39	10.3	11.4	69.1	9.2
	여성	36	13.8	14.1	67.2	4.9
연령 ²⁾	18~19세	19	48.7	31.6	18.0	1.7
	20~24세	29	29.8	22.6	42.3	5.4
	25~29세	40	6.7	11.1	75.2	7.0
	30~35세	42	4.5	7.5	79.9	8.2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31	27.0	22.0	43.6	7.4
	전문대 졸업	40	6.6	11.0	75.8	6.6
	대학교 졸업	41	5.2	8.3	79.7	6.9
	대학원 졸업	40	7.1	7.9	79.1	5.9
가구유형	1인가구	40	8.4	9.2	74.9	7.6
	무자녀 부부가구	42	4.5	8.2	78.4	8.9
	유자녀 부부가구	41	5.9	10.4	72.9	10.8
	부모동거 가구	34	17.5	16.3	60.5	5.7
	기타가구	38	9.7	15.5	68.0	6.8

주: 1) 현재 일자리가 있는 3,409명에 대해 분석함

- 지난 주 36시간 미만 일한 응답자가 36시간 미만 일한 이유를 살펴본 결과 정규근무시간이 36시간 미만이어서가 44.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교육훈련 23.1%, 기타 16.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 36시간 미만으로 일한 이유를 살펴보면 남성(40.9%)과 여성(46.3%) 모두 정규근무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36시간 미만으로 일한 이유를 살펴보면 모든 연령에서 정규근무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18~24세는 교육훈련, 25~35세는 일시적으로 일거리가 없어서 36시간 미만으로 일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36시간 미만으로 일한 이유를 살펴보면 모두 정규근무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고등학교 졸업 이하는 교육훈련(28.5%), 전문대 졸업은 일시적으로 일거리가 없어서(21.0%) 36시간 미만으로 일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가구유형별로 36시간 미만으로 일한 이유를 살펴보면 유자녀 부부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유형은 정규근무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경우가 가장 높았고, 유자녀 부부가구는 기타 응답 비율이 79.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기타 응답의 내용으로는 육아, 가족적 이유 등이 있었음

[표 2-4-22] 지난주 36시간 미만 일한 이유

[단위: %]

구분		정규근무시간 36시간 미만	건강문제	휴가, 연가, 공휴일	교육훈련	일시적으로 일거리가 없어서	기타 ²⁾
전체(n=866) ¹⁾		44.1	3.0	1.6	23.1	11.7	16.6
성별	남성	40.9	3.0	1.3	25.5	14.3	15.0
	여성	46.3	3.0	1.9	21.4	9.9	17.6
연령	18~19세	42.9	2.4	1.1	30.6	7.0	16.0
	20~24세	44.4	1.7	0.7	30.0	9.0	14.1
	25~29세	48.2	4.1	3.7	17.1	12.2	14.6
	30~35세	37.9	4.6	1.2	10.4	20.3	25.7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42.3	3.2	0.9	28.5	9.3	15.9
	전문대 졸업	45.7	0.0	2.2	8.3	21.0	22.9
	대학교 졸업	47.1	4.0	3.4	18.0	14.2	13.2
	대학원 졸업	46.9	0.0	0.0	11.9	8.1	33.2
가구유형	1인가구	49.1	4.6	1.7	20.3	10.9	13.4
	무자녀 부부가구	31.4	5.4	2.7	8.6	27.8	24.2
	유자녀 부부가구	13.9	0.0	0.0	3.1	3.0	79.9
	부모동거 가구	44.9	2.3	1.5	26.5	11.4	13.5
	기타가구	40.6	3.2	3.1	20.3	12.4	20.5

주: 1) 취업자 중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866명에 대해 분석함

2) 기타: "날씨가 좋지 않아서", "육아", "가족적 이유", "노사분규", "사업부진, 조업중단", "기타"

- 취업자의 현재 주된 일자리를 직업분류는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기준에 따라 살펴보았음
- 취업자의 현재 주된 일자리는 사무직이 32.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7.4%, 서비스직 18.3%, 판매직 6.8%, 단순노무직 5.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 현재 주된 일자리의 직업분류를 살펴보면 남성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46.5%로 가장 높았고, 여성은 사무직이 37.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이 높을수록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와 사무직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서비스직 종사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학력이 높을수록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 학력이 낮을수록 서비스직과 판매직 종사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표 2-4-23] 현재 주된 일자리의 직업 분류

[단위: %]

전체(n=3,409)		전체	성별		연령				학력			
			남성	여성	18세 ~19세	20세 ~24세	25세 ~29세	30세 ~35세	고등학교 졸업 이하	전문대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 이상
직업 ¹⁾	관리자	2.6	3.7	1.7	3.7	1.5	2.9	2.9	2.7	1.5	2.8	3.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7.4	46.5	28.3	8.7	20.7	30.0	30.3	13.8	25.4	31.6	64.8
	사무직	32.6	27.5	37.1	7.5	20.6	35.2	38.9	19.6	29.2	43.0	22.3
	서비스직	18.3	18.6	18.1	40.2	30.5	15.0	12.9	31.4	20.6	11.5	3.8
	판매직	6.8	7.2	6.5	16.5	9.1	5.2	6.3	13.2	6.7	3.7	0.9
	농림어업 숙련직	0.1	0.2	0.0	0.0	0.0	0.2	0.1	0.1	0.2	0.1	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1.7	3.0	0.6	1.5	1.4	2.3	1.3	2.0	2.7	1.5	0.0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1.2	2.3	0.2	2.6	1.1	0.9	1.5	1.2	2.7	0.8	1.4
	단순노무직	5.1	6.1	4.2	16.5	10.9	3.7	2.1	11.4	4.3	1.9	0.9
	직업군인	0.1	0.3	0.0	0.0	0.1	0.0	0.3	0.0	0.0	0.3	0.0
기타	4.0	4.6	3.5	2.9	4.2	4.6	3.4	4.7	6.7	3.0	2.7	

주: 1) 취업자 3,409명에 대해 분석함.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기준에 따름

- 현재 주된 일자리의 산업분류는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기준에 따라 살펴보면
있음
- 현재 주된 일자리의 산업분류는 교육서비스업이 11.6%로 가장 높았고,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0.8%, 정보통신업 10.1%, 도매 및 소매업 9.8%, 숙박 및 음식점업
9.7%, 제조업 9.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 현재 주된 일자리의 산업분류를 살펴보면 여성은 교육서비스업
(14.3%), 남성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1.7%)에 종사하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현재 주된 일자리의 산업분류를 살펴보면 18~19세(39.4%)와 20~24세
(19.8%)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 비율이 가장 높았고, 25~29세(13.0%)와 30~35세
(12.0%)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종사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현재 주된 일자리의 산업분류를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숙박 및 음
식점업이 21.5%, 전문대 졸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11.9%, 대학교 졸업
은 정보통신업이 13.3%, 대학원 졸업 이상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 30.6%
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2-4-24] 현재 주된 일자리의 산업분류

[단위: %]

전체(n=3,409)	전체	성별		연령				학력			
		남성	여성	18세 ~19세	20세 ~24세	25세 ~29세	30세 ~35세	고등학교 졸업 이하	전문대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 이상
농업, 임업 및 어업	0.3	0.5	0.2	0.0	0.4	0.3	0.4	0.3	0.2	0.3	1.1
광업	0.1	0.3	0.0	0.0	0.3	0.2	0.0	0.3	0.0	0.1	0.0
제조업	9.1	10.3	8.1	6.2	5.5	9.5	11.0	6.5	9.2	10.7	9.3
전기, 가스, 증기, 공기조절업	0.7	1.1	0.2	1.9	0.3	1.0	0.4	0.5	0.4	0.9	0.0
수도, 하수, 폐기물, 원료재생	0.2	0.3	0.0	1.0	0.0	0.2	0.2	0.1	0.0	0.2	0.0
건설업	3.6	4.7	2.6	1.7	2.0	3.6	0.5	2.8	3.4	4.0	4.4
도매 및 소매업	9.8	10.0	9.6	7.6	8.9	9.3	11.0	13.0	11.0	8.3	3.2
운수 및 창고업	2.6	3.9	1.5	3.2	3.0	2.1	2.9	3.2	2.5	2.5	0.9
숙박 및 음식점업	9.7	9.6	9.8	39.4	19.8	6.4	4.7	21.5	9.7	3.4	1.7
정보통신업	10.1	11.5	8.9	0.8	6.5	12.2	10.9	5.3	10.7	13.3	7.0
금융 및 보험업	4.6	5.2	4.1	0.8	1.5	5.0	6.4	3.1	1.7	6.6	3.2
부동산업	1.1	1.3	0.8	0.0	0.7	1.4	1.0	0.9	1.4	1.0	1.0
산업 ¹⁾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0.8	11.7	10.1	2.2	6.3	13.0	12.0	4.6	10.5	12.2	30.6
사업서비스업(시설, 지원, 임대)	2.2	2.6	1.8	4.1	2.7	2.2	1.7	3.7	2.6	1.2	1.3
공공 행정, 국방, 사회보장 행정	5.0	5.0	5.0	1.7	3.8	4.9	6.0	3.8	2.1	6.6	5.2
교육서비스업	11.6	8.6	14.3	13.8	18.5	9.4	9.8	14.1	7.0	10.7	16.6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7.0	3.9	9.8	0.9	6.4	8.0	6.9	2.7	11.9	8.3	7.3
예술, 스포츠 및 여가 서비스	7.8	6.4	8.9	8.1	8.8	8.2	9.7	8.6	11.7	6.8	2.9
협회(단체), 수리, 기타 개인 서비스	2.9	2.7	3.0	4.9	3.1	6.7	2.8	3.4	3.3	2.3	3.8
가구 내 고용활동 및 자가생산	0.6	0.4	0.8	1.6	1.1	0.6	0.3	1.3	0.6	2.4	0.5
국제 및 외국기관	0.3	0.2	0.4	0.0	0.4	0.1	0.5	0.4	0.2	0.4	0.0

주: 1) 취업자 3,409명에 대해 분석함.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기준에 따름.

- 취업자의 근무지 위치는 서울이 89.3%로 가장 높았고, 경기도는 8.2%, 인천은 1.3%, 그 외 지역은 1.2%로 나타남
-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근무지 위치가 서울이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남성은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10.3%로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이 높을수록 경기도와 인천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학력이 높을수록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가구유형별로 취업자의 근무지 위치를 살펴보면 모든 가구유형에서 서울에 근무하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부부가구는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취업자의 근무장소는 사업장 내가 83.2%로 가장 높았고, 사업장 외 지정장소는 8.4%, 자택은 6.8%, 기타는 1.6%로 나타남
- 성별에 따른 근무장소는 남성과 여성 모두 사업장 내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남성은 사업장 외 지정장소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11.2%로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이 높을수록 사업장 내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 18~19세는 사업장 외 지정장소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11.9%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근무장소를 살펴보면 모두 사업장 내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고등학교 졸업이하(10.8%)와 전문대 졸업(10.4%)은 사업장 외 지정장소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가구유형별로 근무 장소를 살펴보면 모든 가구유형에서 사업장 내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남

[표 2-4-25] 근무지 위치 및 장소

[단위: %]

구분		근무지 위치				근무 장소			
		서울	경기	인천	그 외 지역	자택	사업장 내	사업장 외 지정장소	기타
전체(n=3,409) ¹⁾		89.3	8.2	1.3	1.2	6.8	83.2	8.4	1.6
성별	남성	86.8	10.3	1.5	1.4	5.7	80.8	11.2	2.3
	여성	91.5	6.3	1.2	1.1	7.8	85.4	5.8	1.0
연령	18~19세	92.9	3.2	0.0	3.8	3.0	79.1	11.9	6.0
	20~24세	91.3	7.1	0.5	1.1	8.5	81.0	8.7	1.8
	25~29세	89.7	7.5	1.6	1.2	6.4	84.1	8.0	1.5
	30~35세	87.4	9.9	1.7	1.0	6.6	84.1	8.2	1.2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91.1	6.8	0.8	1.4	7.5	78.8	10.8	2.9
	전문대 졸업	88.6	8.3	2.1	1.0	5.5	82.8	10.4	1.3
	대학교 졸업	88.7	8.7	1.5	1.1	6.6	86.0	6.3	1.1
	대학원 졸업	86.5	10.7	1.4	1.4	8.1	84.0	7.9	0.0
가구 유형	1인가구	91.2	5.9	1.4	1.4	7.9	83.1	7.6	1.5
	무자녀 부부가구	85.6	11.0	2.4	1.1	5.2	88.1	6.3	0.4
	유자녀 부부가구	85.5	13.2	0.7	0.6	5.9	85.0	9.2	0.0
	부모동거 가구	88.5	9.2	1.2	1.1	6.3	82.5	9.1	2.2
	기타가구	91.3	6.3	1.2	1.2	7.9	81.6	9.7	0.9

주: 1) 취업자 3,409명에 대해 분석함

- 평균 왕복 통근시간은 58분으로 나타났으며, 근무지 위치에 따라 왕복 통근시간에 다소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근무지가 서울인 경우 왕복 통근시간은 54분으로 나타났으며, 경기도는 1시간 31분, 인천은 1시간 49분, 그 외 지역은 1시간 29분으로 나타남

[표 2-4-26] 왕복 통근시간

[단위: 분, 시간, %]

구분(n=3,367) ¹⁾		전체	서울 ²⁾	경기 ²⁾	인천 ²⁾	그 외 지역 ²⁾
왕복 통근시간	평균	58분	54분	1시간 31분	1시간 49분	1시간 29분
	30분 미만	19.5	21.1	6.3	0.0	7.1
	30분 이상 1시간 미만	29.9	31.8	13.5	4.0	24.0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39.8	38.7	49.3	50.2	41.9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8.2	6.7	22.1	27.8	8.6
	3시간 이상	2.6	1.6	8.9	18.0	18.5

주: 1) 취업자 3,409명 중 이상값을 제외 한 3,367명에 대해 분석함

2) 서울 3,019명, 경기 269명, 인천 46명, 그 외 지역 33명에 대해 분석함

(2) 희망 일자리

- 주된 일자리 월평균 소득은 219만 원, 희망하는 월평균 소득은 357만 원으로 현재 월평균 소득 대비 희망 소득의 비율은 163.0%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는 현재 월평균 소득과 월평균 희망 소득 모두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남
- 연령이 높을수록 현재 월평균 소득과 희망 소득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 현재 월평균 소득 대비 희망소득 비율은 18~19세가 233.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학력이 높을수록 현재 월평균 소득과 희망 소득 모두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 현재 월평균 소득 대비 희망소득 비율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196.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가구유형별로 현재 월평균 소득과 희망 소득을 살펴보면 현재 월평균 소득(293만 원)과 희망 소득(420만 원) 모두 무자녀 부부가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현재 월평균 소득 대비 희망소득 비율은 부모동거 가구가 173.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종사상 지위에 따라서는 현재 월평균 소득은 정규직 근로자가 270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희망 소득은 비임금 근로자가 426만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현재 월평균 소득 대비 희망 소득 비율도 비임금 근로자가 236.7%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2-4-27] 주된 일자리 월평균 희망소득

[단위: 만 원, %]

구분		월평균 소득 ¹⁾ 전 체(n=3,404)	월평균 희망소득 전 체	현재 월평균 소득 대비 희망소득 비율 ¹⁾ (n=3,404)
전체(n=3,409)		219	357	163.0
성별	남성	233	399	171.2
	여성	207	320	154.6
연령	18~19세	84	196	233.3
	20~24세	207	287	138.6
	25~29세	225	362	160.9
	30~35세	272	406	149.3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54	302	196.1
	전문대 졸업	212	306	144.3
	대학교 졸업	254	395	155.5
	대학원 졸업	281	442	157.3
가구유형	1인가구	246	377	153.3
	무자녀 부부가구	293	420	143.3
	유자녀 부부가구	265	402	151.7
	부모동거 가구	190	329	173.2
	기타가구	208	337	162.0
종사상 지위	비정규직 근로자	142	289	203.5
	정규직 근로자	270	380	140.7
	비임금 근로자	180	426	236.7

주: 1) 취업자 3,409명 중 결측값 5개를 제외하고 분석함

- 주된 일자리 현재 주당 근로시간은 평균 36시간, 희망 주당 근로시간은 평균 35시간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 남성은 현재 평균 주당 근로시간과 평균 희망 근로시간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여성은 현재 주당 근로시간보다 희망 근로시간이 1시간 적게 나타남
- 연령이 높을수록 현재 주당근로시간과 희망 근로시간 모두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임
- 학력별로 현재 주당 근로시간과 희망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현재보다 더 많은 시간 일하기를 희망했고 나머지는 현재 근로시간보다 더 적게 일하는 것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가구유형별로 현재 주당 근로시간과 희망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부모동거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유형은 현재 근로시간보다 더 적게 일하는 것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종사상 지위에 따라서 현재 주당 근로시간과 희망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비정규직 근로자와 비임금 근로자는 현재보다 더 많은 시간 일하기를 희망했고 정규직 근로자는 현재보다 더 적게 일하는 것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4-28] 주된 일자리 희망 주당 근로시간

[단위: 시간, %]

구분		현재 주당 근로시간 ²⁾	희망 근로시간(n=3,404) ³⁾				
		평균	평균	15시간 미만	15시간 이상 36시간 미만	36시간 이상 52시간 이하	52시간 초과
전체(n=3,408) ¹⁾		36	35	11.8	24.0	58.0	6.2
성별	남성	37	37	11.2	16.4	64.1	8.3
	여성	35	34	12.3	30.3	53.0	4.4
연령	18~19세	17	27	24.3	37.8	34.2	3.6
	20~24세	27	33	17.3	27.1	49.9	5.7
	25~29세	38	36	10.5	20.9	61.5	7.1
	30~35세	40	36	9.1	24.1	61.1	5.8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9	33	17.4	25.3	50.5	6.8
	전문대 졸업	38	35	14.3	21.9	57.7	6.1
	대학교 졸업	39	36	8.4	24.0	61.9	5.6
	대학원 졸업	38	37	6.0	22.1	64.1	7.8
가구유형	1인가구	38	36	9.8	22.7	61.2	6.3
	무자녀 부부가구	40	35	11.5	27.5	56.5	4.5
	유자녀 부부가구	39	36	9.1	24.9	60.6	5.5
	부모동거 가구	33	34	13.7	23.8	56.0	6.5
	기타가구	36	35	11.8	27.0	55.3	5.9
종사상 지위	비정규직 근로자	27	33	15.2	29.3	50.2	5.4
	정규직 근로자	42	37	8.7	21.6	63.9	5.9
	비임금 근로자	28	35	18.1	21.9	50.4	9.6

주: 1) 취업자 3,409명 중 결측값 1개를 제외하고 분석함

2) 분 단위 이하 버림

3) 취업자 3,409명 중 결측값 및 이상값 5개를 제외하고 분석함

- 비정규직 근로자 중 90.0%는 정규직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정규직 근로자가 현재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이유는 기타를 제외하고 살펴보면 경험을 쌓을 수 있어서가 17.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업/직업훈련 때문에 15.3%, 정규직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서 15.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 현재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이유를 기타를 제외하고 살펴보면 남성(18.1%)과 여성(16.3%) 모두 경험을 쌓을 수 있어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현재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이유를 기타를 제외하고 살펴보면 18~19세

(31.3%)와 20~24세(25.5%)는 학업/직업훈련 때문인 경우가 가장 높았고, 25~29세는 경험을 쌓을 수 있어서가 20.3%, 30~35세는 정규직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서가 20.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현재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이유를 기타를 제외하고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 이하는 학업/직업훈련이 25.0%, 전문대 졸업은 경험을 쌓을 수 있어서가 17.0%, 대학교 졸업도 마찬가지로 경험을 쌓을 수 있어서가 21.1%, 대학원 졸업은 정규직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서가 29.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가구유형별로 현재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이유를 기타를 제외하고 살펴보면 1인가구는 경험을 쌓을 수 있어서가 19.4%, 무자녀 부부가구(19.6%)와 유자녀 부부가구(19.5%)는 정규직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서, 부모동거 가구는 학업/직업훈련이 18.6%, 기타 가구는 정규직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서가 20.5%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2-4-29]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선호 여부,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이유

[단위: %]

구분		정규직 선호 여부		현재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이유					
		예	아니오	정규직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서	정규직 전환 가능성	근무 시간 조정이 자유로움	학업/ 직업훈련 때문에	경험을 쌓을 수 있어서	기타 ¹⁾
전체(n=1,506) ²⁾		90.0	10.0	15.2	6.8	12.2	15.3	17.1	33.5
성별	남성	88.1	11.9	15.6	5.6	13.7	14.8	18.1	32.3
	여성	91.5	8.5	14.8	7.8	11.0	15.7	16.3	34.4
연령	18~19세	81.7	18.1	6.4	1.4	7.0	31.3	12.3	41.7
	20~24세	89.1	10.9	10.2	4.1	13.1	25.5	15.3	31.7
	25~29세	91.8	8.2	18.5	8.8	11.4	8.8	20.3	32.2
	30~35세	90.5	9.5	20.1	9.4	13.1	4.9	15.9	36.6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86.3	13.7	12.0	3.1	14.6	25.0	12.9	32.5
	전문대 졸업	91.5	8.5	16.2	9.4	13.0	5.1	17.0	39.2
	대학교 졸업	93.4	6.7	16.4	10.5	9.4	8.1	21.1	34.5
	대학원 졸업	93.1	6.9	29.3	6.5	9.7	7.6	23.3	23.6
가구유형	1인가구	89.1	10.9	15.6	7.9	11.7	13.4	19.4	32.1
	무자녀 부부가구	90.7	9.4	19.6	11.4	12.4	9.2	16.7	30.7
	유자녀 부부가구	89.7	10.3	19.5	8.2	13.3	0.0	6.1	52.9
	부모동거 가구	90.4	9.6	13.6	6.1	11.8	18.6	16.5	33.4
	기타가구	90.8	9.2	20.5	5.2	15.7	8.9	16.4	33.4

주: 1) 기타에는 “지금 직장에서 퇴직(또는 정리해고) 후 다시 재취업”, “가사”, “육아, 자녀돌봄”, “많은 임금을 보장하므로”, “단기간만 일하길 원했기 때문”, “돈이 급해서”, “건강상의 이유로”, “일의 성격상 계절적이어서”, “기타”가 포함됨.

2) 비정규직 근로자 1,506명에 대해 분석함

(3) 일자리 만족도와 근로환경

- 주된 일자리 만족도는 평균 3.4점(5점 만점)으로 나타났고, 분포를 살펴보면 현재 주된 일자리에 만족(만족+매우 만족)하다는 응답은 48.7%, 불만족(불만족+매우 불만족)하다는 응답은 14.9%로 나타남
- 성별에 따른 일자리 만족도를 살펴보면 여성(16.3%)이 남성(13.5%)보다 주된 일자리에 대해 불만족하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남
- 연령이 높을수록 주된 일자리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학력에 따른 일자리 만족도를 살펴보면 대학교 졸업자와 대학원 졸업자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와 전문대 졸업자보다 주된 일자리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다소 높게 나타남

[표 2-4-30] 주된 일자리 만족도

[단위: 5점, %]

구 분		평균	불만족함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함	만족	매우 만족
전체(n=3,409) ¹⁾		3.4	14.9	3.0	11.9	36.3	48.7	40.2	8.5
성별	남성	3.4	13.5	2.8	10.7	36.8	49.8	39.1	10.7
	여성	3.3	16.3	3.3	13.0	35.9	47.8	41.2	6.6
연령 ²⁾	18~19세	3.6	6.3	0.4	5.9	47.1	46.7	31.1	15.6
	20~24세	3.4	12.2	2.4	9.8	40.2	47.5	39.9	7.6
	25~29세	3.4	16.9	4.0	12.9	34.5	48.6	39.2	9.4
	30~35세	3.4	15.2	2.6	12.6	35.0	49.8	42.2	7.6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3.4	11.7	2.5	9.2	42.3	46.1	37.4	8.7
	전문대 졸업	3.3	16.6	4.0	12.6	39.5	43.9	37.4	6.5
	대학교 졸업	3.4	16.2	2.9	13.3	32.9	50.8	42.3	8.5
	대학원 졸업	3.5	17.3	4.3	13.0	27.0	55.8	43.5	12.3

주: 1) 현재 일자리가 있는 3,409명에 대해 분석함

- 주된 일자리에 대한 직무 유사성을 교육, 기술, 전공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먼저 현재 주된 일자리의 직무수준이 교육수준보다 낮다는 응답은 29.2%, 자신의 기술보다 낮다는 응답은 24.7%, 전공과 불일치하다는 응답은 40.0%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 주된 일자리에 대한 직무 유사성 정도를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직무수준이 교육수준과 기술수준에 비해 낮다고 응답한 비율과 전공과 불일치하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남
- 연령이 높을수록 주된 일자리에 대한 직무 유사성에 있어서 미스매치자의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학력별로 주된 일자리에 대한 직무 유사성 정도를 살펴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직무가 교육수준 및 기술 수준에 비해 낮다고 응답한 비율과 전공과 불일치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표 2-4-31] 주된 일자리 직무 유사성

[단위: %]

구 분		교육			기술			전공		
		낮다	유사하다	높다	낮다	유사하다	높다	불일치	유사하다	일치
전체(n=3,409) ¹⁾		29.2	62.8	8.0	24.7	66.0	9.3	40.0	36.4	23.6
성별	남성	27.5	63.2	9.3	23.8	66.0	10.2	39.4	38.3	22.3
	여성	30.8	62.5	6.8	25.5	66.1	8.5	40.5	34.7	24.8
연령 ²⁾	18~19세	48.1	40.1	11.8	40.8	50.3	8.9	65.5	22.8	11.6
	20~24세	41.3	51.9	6.8	33.9	57.0	9.1	49.2	32.3	18.5
	25~29세	25.8	65.8	8.5	22.1	68.1	9.8	35.4	38.8	25.8
	30~35세	24.2	68.0	7.9	20.6	70.5	8.9	37.1	37.6	25.4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39.4	52.4	8.2	33.9	57.0	9.1	56.3	32.3	11.4
	전문대 졸업	26.0	64.5	9.5	24.0	35.7	10.4	38.1	38.4	23.5
	대학교 졸업	24.6	68.0	7.4	20.2	70.6	9.2	33.5	39.0	27.5
	대학원 졸업	23.0	68.8	8.2	17.5	74.3	8.2	15.7	31.9	52.4

주: 1) 현재 일자리가 있는 3,409명에 대해 분석함

- 대학(교) 또는 대학원 전공지식의 업무수행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47.8%로 나타났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33.1%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는 전공지식이 업무수행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과 도움이 된다는 응답 모두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약간 더 높게 나타남
- 연령이 높을수록 전공지식이 업무수행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종사상 지위에 따라서 전공지식의 일자리 업무수행에 대한 도움 정도를 살펴보면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은 비임금 근로자가 36.3%로 가장 높았고,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정규직 근로자가 52.5%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2-4-32] 대학(교) 또는 대학원 전공지식의 일자리 업무수행 도움 정도

[단위: %]

구분		전공지식 도움 정도					
		도움이 안 됨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보통이다	도움 됨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전체(n=3,063) ¹⁾		33.1	15.3	17.8	19.2	47.8	34.6
성별	남성	32.8	16.0	16.8	20.7	46.5	32.9
	여성	33.3	14.7	18.6	17.9	48.9	36.1
연령	18~19세	51.9	36.2	15.7	16.8	31.4	24.9
	20~24세	41.4	19.7	21.7	20.2	38.4	27.3
	25~29세	29.9	13.9	16.0	19.7	50.4	36.6
	30~35세	30.7	13.2	17.5	18.3	50.9	37.0
종사상 지위	비정규직 근로자	35.4	16.7	18.7	18.9	42.8	30.7
	정규직 근로자	28.3	11.7	16.6	19.3	52.5	38.1
	비임금 근로자	36.3	15.8	20.5	20.0	43.8	33.0

주: 1) 취업자 3,409명 중 대학(교) 또는 대학원 경험이 있는 3,063명에 대해 분석함

- 취업자의 근로환경을 살펴보면, 취업자 중 직장 내 괴롭힘은 6.7%, 위험한 근로환경에 노출된 경우는 14.5%, 고객으로부터 폭언을 경험한 경우는 20.8%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 근로환경을 살펴보면 직장 내 괴롭힘, 위험한 근로환경 노출, 고객으로부터의 폭언 경험 모두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남
- 연령이 높을수록 직장 내 괴롭힘, 위험한 근로환경 노출, 고객으로부터의 폭언 등을 경험한 경우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학력별로 근로환경을 살펴보면 직장 내 괴롭힘은 대학원 이상이 15.4%, 위험한 근로환경은 전문대 졸업이 22.0%, 고객으로부터의 폭언 경험은 전문대 졸업이 28.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사회보험인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하나라도 가입된 응답자는 89.7%로 나타남
- 사회보험 종류별 가입률을 살펴보면 국민연금은 70.8%, 특수직역연금은 4.6%, 건강보험은 87.5%, 고용보험은 69.3%, 산재보험은 61.3%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 사회보험 가입률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산재보험의 경우 여성

이 남성보다 가입률이 다소 낮게 나타남

- 연령과 학력이 낮을수록 사회보험에 미가입된 경우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특히 산재보험의 경우 18~24세, 고등학교 졸업 이하, 전문대 졸업자의 가입률이 상당히 낮게 나타남

[표 2-4-33] 근로환경 및 사회보험 가입 여부

[단위: %]

전 체(n=3,409) ¹⁾		전체	성별		연령				학력			
			남	여	18세 ~19세	20세 ~24세	25세 ~29세	30세 ~35세	고등학교 졸업이하	전문대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
직장내	경험있음	6.7	6.6	12.4	0.8	4.2	11.4	11.9	4.0	13.5	11.4	15.4
괴롭힘	경험없음	90.3	93.4	87.6	99.2	95.8	88.6	88.1	96.0	86.5	88.6	84.6
위험한	경험있음	14.5	14.5	14.5	7.1	9.5	15.7	16.8	10.9	22.0	14.2	17.7
근로환경	경험없음	85.5	85.5	85.5	92.9	90.5	84.3	83.2	89.1	78.0	85.8	82.3
고객으로	경험있음	20.8	16.2	24.9	10.4	17.7	20.4	23.8	18.3	28.5	21.2	12.9
부터 폭언	경험없음	48.4	51.8	45.3	67.7	55.3	47.3	43.9	57.1	43.6	45.5	39.6
	해당사항없음	30.8	32.0	29.8	22.0	27.0	32.3	32.3	24.6	27.9	33.3	47.5
사회보험 ²⁾	가입	89.7	88.9	90.5	56.6	74.9	92.9	97.8	77.1	94.0	95.4	97.4
	가입	70.8	71.3	70.4	19.7	43.9	76.4	84.8	48.0	80.7	80.3	84.9
국민연금	미가입	8.9	8.7	9.1	10.3	8.1	7.9	10.3	9.7	4.4	10.1	5.5
	모름	20.3	20.0	20.5	70.0	48.0	15.7	4.9	42.3	14.9	9.6	9.6
특수직역	가입	4.6	4.1	5.0	1.6	1.8	4.7	6.3	2.1	2.3	6.9	4.3
연금	미가입	77.8	76.1	79.4	53.8	63.1	80.0	86.0	67.3	80.3	82.2	88.5
	모름	17.6	19.8	15.6	44.6	35.1	15.3	7.7	30.6	17.4	10.9	7.2
건강보험	가입	87.5	87.2	87.8	52.3	70.9	90.7	96.7	73.5	91.8	93.9	96.0
	미가입	1.3	1.3	1.3	2.1	2.2	1.0	1.0	2.1	1.5	0.9	0.4
	모름	11.2	11.5	1.09	45.6	26.9	8.2	2.3	24.4	6.8	5.2	3.6
고용보험	가입	69.3	69.4	69.3	18.0	43.1	75.3	82.6	43.3	75.6	82.0	82.7
	미가입	6.6	6.4	6.7	10.5	6.6	5.1	7.7	8.8	5.7	5.6	5.1
	모름	24.1	24.2	24.1	71.5	50.2	19.6	9.8	47.9	18.8	12.4	12.2
산재보험	가입	61.3	63.8	59.1	16.7	37.4	66.3	73.6	37.9	65.4	73.4	71.2
	미가입	6.6	6.4	6.8	8.5	7.0	5.1	7.8	9.1	5.9	5.5	5.1
	모름	32.1	29.8	34.1	74.8	55.6	28.6	18.7	53.0	28.8	21.2	23.7

주: 1) 취업자 3,409명에 대해 분석함

2)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하나라도 가입되어 있는 경우 가입한 것으로 간주함

(4) 이직과 창업

- 취업자 중 이직 의향이 있는 경우는 54.6%, 창업할 의향이 있는 경우는 12.4%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 이직 또는 창업 의향을 살펴보면 이직 의향이 있는 경우는 남성보다 여성이 높았고, 창업 의향이 있는 경우는 여성보다 남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25~29세가 이직 의향이 있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18~19세가 창업 의향이 있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남
- 학력이 높을수록 이직 의향이 있는 경우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가구유형별로 이직 또는 창업 의향을 살펴보면 이직 의향과 창업 의향 모두 기타 가구

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지난 1년간 이직 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는 32.2%로 나타났고, 창업 준비 경험이 있는 경우는 6.3%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 지난 1년간 이직 또는 창업 준비 경험을 살펴보면 여성(35.0%)은 남성(29.1%)보다 이직 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가 더 높았고 창업 준비 경험은 남성(7.2%)이 여성(5.4%)보다 더 높게 나타남
- 연령이 높을수록 이직 활동 경험과 창업 준비 경험이 있는 경우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학력별로 지난 1년간 이직 또는 창업 준비 경험을 살펴보면 이직 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는 대학원 졸업이 38.1%로 가장 높았고, 창업 준비 경험이 있는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8.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가구유형별로 지난 1년간 이직 또는 창업 준비 경험을 살펴보면 이직 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는 기타 가구가 37.2%로 가장 높았고, 창업 준비 경험이 있는 경우는 무자녀 부부가구가 8.9%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2-4-34] 이직 또는 창업 활동 의향과 준비 경험

[단위: %]

구분		이직 또는 창업 의향			지난 1년간 이직 또는 창업 준비		
		이직 의향 있음	창업할 의향 있음	이직 및 창업의향 없음	이직 활동 경험 있음	창업 준비 경험 있음	이직 및 창업 준비 경험 없음
전체(n=3,409) ¹⁾		54.6	12.4	33.0	32.2	6.3	61.6
성별	남성	48.8	14.5	36.7	29.1	7.2	63.7
	여성	59.9	10.6	29.6	35.0	5.4	59.6
연령	18~19세	37.1	18.7	44.1	9.3	4.9	85.8
	20~24세	48.7	13.6	37.8	17.1	5.5	77.4
	25~29세	59.6	11.5	29.0	36.5	5.8	57.7
	30~35세	54.6	12.1	33.2	38.4	7.3	54.3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43.2	17.3	39.5	19.5	8.5	71.9
	전문대 졸업	56.5	14.2	29.3	38.0	7.0	55.0
	대학교 졸업	59.4	9.8	30.8	37.6	4.7	57.7
	대학원 졸업	68.6	5.2	26.2	38.1	5.8	56.1
가구유형	1인가구	57.7	11.2	31.2	34.3	7.0	58.7
	무자녀 부부가구	53.6	14.3	32.2	36.6	8.9	54.5
	유자녀 부부가구	45.7	13.5	40.8	32.0	6.6	61.4
	부모동거 가구	52.6	12.2	35.2	29.0	5.2	65.7
	기타가구	59.7	17.5	22.8	37.2	6.1	56.7

주: 1) 취업자 3,409명에 대해 분석함

- 이직 의향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직 예정 시기에 대해 살펴본 결과 1년 이후가 27.3%로 가장 높았고, 6개월 이상 1년 이내는 18.2%,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는 15.1%, 3개월 이내는 11.5%로 나타남.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는 27.9%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 이직 예정 시기를 살펴보면 남성은 1년 이후라고 응답한 비율이 29.0%로 가장 높았고, 여성은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27.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이직 예정 시기를 살펴보면 18~19세(42.8%)와 30~35세(31.5%)는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20~24세(29.3%)와 25~29세(29.1%)는 1년 이후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이직 예정 시기를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 이하(31.0%)와 전문대 졸업(30.3%)은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대학교 졸업(29.3%)과 대학원 졸업(33.5%)은 1년 이후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가구유형별로 이직 예정 시기를 살펴보면 무자녀 부부가구(35.0%)와 유자녀 부부가구(41.8%)는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나머지 가구유형은 1년 이후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2-4-35] 이직 예정 시기

[단위: %]

구분		3개월 이내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	6개월 이상 1년 이내	1년 이후	모르겠다
전체(n=1,860) ¹⁾		11.5	15.1	18.2	27.3	27.9
성별	남성	10.8	13.8	17.9	29.0	28.5
	여성	12.1	16.0	18.4	26.0	27.4
연령	18~19세	18.1	7.4	11.4	20.4	42.8
	20~24세	14.8	14.6	16.7	29.3	24.7
	25~29세	11.7	17.2	16.9	29.1	25.2
	30~35세	9.4	13.6	20.8	24.7	31.5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4.6	16.6	14.3	23.5	31.0
	전문대 졸업	10.1	16.6	20.3	22.7	30.3
	대학교 졸업	11.0	14.4	19.4	29.3	25.9
	대학원 졸업	8.2	12.5	18.5	33.5	27.3
가구 유형	1인가구	11.6	15.3	17.7	28.7	26.7
	무자녀 부부가구	7.4	9.4	20.3	27.9	35.0
	유자녀 부부가구	5.8	3.7	23.6	25.1	41.8
	부모동거 가구	13.0	15.8	17.7	26.3	27.2
	기타가구	9.9	22.0	18.5	26.4	23.1

주: 1) 취업자 3,409명 중 이직 또는 창업할 의향이 있는 1,860명에 대해 분석함

- 이직을 희망하지만 이직하지 않는 이유를 기타를 제외하고 살펴보면 당장 생계유지가 급하기 때문인 경우가 26.0%로 가장 높았고, 다른 직장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서 16.2%, 재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14.5%, 다시 취업을 준비할 자신이 없어서 14.1%, 시간이 지나면 개선될 것으로 생각해서 6.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 이직을 희망하지만 이직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 남성(26.2%)과 여성(25.9%) 모두 당장 생계유지가 급해서 이직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이직을 희망하지만 이직하지 않는 이유를 기타를 제외하고 살펴보면 모든 연령에서 당장 생계유지가 급해서 이직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연령이 높을수록 다른 직장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서 이직하지 않는 경우가 높게 나타남
- 학별로 이직을 희망하지만 이직하지 않는 이유를 기타를 제외하고 살펴보면 당장 생계유지가 급해서 이직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학력이 높을수록 다른 직장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서 이직하지 않는 경우가 높게 나타남
- 가구유형별로 이직을 희망하지만 이직하지 않는 이유를 기타를 제외하고 살펴보면 무자녀 부부가구는 다른 직장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서 이직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높았고 나머지 가구유형은 당장 생계유지가 급해서 이직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남

[표 2-4-36] 이직을 희망하지만 이직하지 않는 주된 이유

[단위: %]

구분		다른 직장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서	다시 취업을 준비할 자신이 없어서	재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당장 생계유지가 급해서	시간이 지나면 개선될 것으로 생각해서	기타
전체(n=1,860) ¹⁾		16.2	14.1	14.5	26.0	6.6	22.6
성별	남성	17.2	11.0	13.7	26.2	9.0	23.0
	여성	15.5	16.3	15.2	25.9	4.9	22.3
연령	18~19세	11.0	14.6	22.0	13.5	13.9	24.9
	20~24세	11.6	11.2	11.0	27.7	7.5	30.9
	25~29세	13.2	15.7	15.4	26.3	7.0	22.6
	30~35세	22.1	13.7	15.0	25.6	5.1	18.2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0.7	10.9	14.1	31.9	8.8	23.6
	전문대 졸업	15.8	10.7	20.1	29.0	4.3	20.2
	대학교 졸업	17.8	17.3	13.0	22.9	6.0	23.0
	대학원 졸업	22.8	8.2	16.2	23.4	8.5	20.9
가구 유형	1인가구	17.2	15.7	11.9	27.0	4.9	23.5
	무자녀 부부가구	28.6	12.5	9.3	26.9	8.2	14.5
	유자녀 부부가구	20.2	12.2	18.1	26.4	6.6	16.5
	부모동거 가구	13.7	14.1	17.1	23.1	8.2	23.8
	기타가구	11.6	8.4	16.2	36.8	6.6	22.2

주: 1) 취업자 3,409명 중 이직 또는 창업할 의향이 있는 1,860명에 대해 분석함

- 이직을 희망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더 나은 보수/복지를 위해서가 58.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개인발전/승진 14.8%, 더 나은 근무환경(직장상사, 동료, 식대, 출퇴근 시간/거래 등) 11.2%, 더 나은 안정성을 위해 5.5%,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 5.3%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2-4-37] 이직을 희망하는 가장 주된 이유

[단위: %]

구분	(n=1,860) ¹⁾
더 나은 보수/복지를 위해	58.8
개인발전/승진	14.8
더 나은 근무환경(직장상사, 동료, 식대, 출퇴근 시간/거래 등)	11.2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	5.3
더 나은 안정성을 위해	5.5
기술 또는 기능 수준이 맞지 않아서	0.9
개인 사업을 위해서	1.2
건강상의 이유로	0.3
집안사정 때문에(육아, 가사부담 등 포함)	0.6
기타	1.4

주: 1) 취업자 3,409명 중 이직 또는 창업할 의향이 있는 1,860명에 대해 분석함

3) 미취업자

(1) 미취업자 특성

- 미취업자 중 실업자는 23.6%, 재학생은 30.9%, 재학생도 아니고 취업자도 아닌 비재학 미취업자는 45.5%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은 34.2%, 여성은 27.2%가 재학생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고, 실업자는 남성은 21.9%, 여성은 25.5%로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으며 비재학 미취업자는 남성은 44.0%, 여성은 47.3%로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남
- 연령이 높을수록 재학생 비율은 낮게 나타났고 비재학 미취업자 비율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학력별로 살펴보면 18~19세는 재학생이 63.2%, 20~24세는 재학생이 47.5%, 25~29세는 비재학 미취업자가 54.1%, 30~35세는 비재학 미취업자가 66.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가구유형별로는 모든 가구 유형에서 비재학 미취업자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유자녀 부부가구의 경우 비재학 미취업자 비율이 91.6%로 매우 높게 나타남

[표 2-4-38] 미취업자 현황

[단위: %]

구분		실업 ²⁾	재학 ³⁾	비재학 미취업
전체(n=1,785) ¹⁾		23.6	30.9	45.5
성별	남성	21.9	34.2	44.0
	여성	25.5	27.2	47.3
연령	18~19세	17.3	63.2	19.6
	20~24세	17.0	47.5	35.6
	25~29세	31.1	14.8	54.1
	30~35세	28.4	4.9	66.8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8.1	27.9	34.0
	전문대 졸업	33.6	4.7	61.7
	대학교 졸업	29.6	10.6	59.8
	대학원 졸업	27.8	15.0	57.2
가구유형	1인가구	24.5	29.0	46.6
	무자녀 부부가구	33.0	10.1	56.9
	유자녀 부부가구	8.4	0.0	91.6
	부모동거 가구	23.3	36.5	40.3
	기타가구	30.3	17.0	52.7

주: 1) 취업자를 제외하고, 1,785명 분석

2) 실업은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지난 4주간 직장을 구해본 경우임

3) 실업상태이면서 재학상태인 경우는 재학상태로 분류함

- 미취업자 중 지난 4주간 직장을 구해본 경우는 32.0%, 직장을 구해보지 않은 경우는 68.0%로 나타남
 - 미취업자 중 직장을 구해보았고, 지난주에 직장이 주어졌다면 일을 할 수 있었던 경우는 23.6%, 직장을 구해보았지만 직장이 구해졌더라도 일을 시작할 수 없었던 경우는 8.4%로 나타남
 - 미취업자 중 직장을 구해보지는 않았지만 지난주에 직장이 주어졌더라면 일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경우는 32.3%, 직장을 구해보지도 않았고, 직장이 주어졌더라도 일을 시작할 수 없었던 경우는 35.7%로 나타남
- 지난 4주간 구직활동 여부를 성별, 연령, 학력, 가구유형에 따라 살펴보았음
- 성별에 따라서 지난 4주간 직장을 구해본 적이 있는 경우를 살펴보면 남성은 29.7%, 여성은 34.5%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지난 4주간 직장을 구해본 적이 있는 경우는 25~29세가 41.5%로 가장 높았고, 18~19세가 23.3%로 가장 낮게 나타남
- 학력별로 지난 4주간 직장을 구해본 적이 있는 경우를 살펴보면 대학원 졸업이 45.2%로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25.9%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가구유형별로 지난 4주간 직장을 구해본 적이 있는 경우를 살펴보면 무자녀 부부가구가 43.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유자녀 부부가구가 18.2%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유자녀 부부가구는 직장이 주어졌더라도 일을 시작할 수 없었던 경우가 67.1%로 매우 높게 나타남

[표 2-4-39] 지난 4주간 구직활동

[단위: %]

구분		직장을 구해보았음			직장을 구해보지 않음		
		전체	지난주에 직장이 주어졌다면 일할 수 있었다	지난주에 직장이 주어졌더라도 일을 시작할 수 없었다	전체	지난주에 직장이 주어졌다면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	지난주에 직장이 주어졌더라도 일을 시작할 수 없었다
전체(n=1,785) ¹⁾		32.0	23.6	8.4	68.0	32.3	35.7
성별	남성	29.7	21.9	7.9	70.3	34.0	36.4
	여성	34.5	25.5	9.0	65.5	30.5	35.0
연령	18~19세	23.3	17.3	6.0	76.7	31.2	45.5
	20~24세	23.5	17.0	6.5	76.6	35.8	40.7
	25~29세	41.5	31.1	10.5	58.5	30.5	28.0
	30~35세	38.6	28.4	10.2	61.4	29.0	32.5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5.9	18.1	7.8	74.1	32.9	41.2
	전문대 졸업	42.7	33.6	9.1	57.3	33.6	23.8
	대학교 졸업	38.1	29.6	8.5	61.9	31.8	30.1
	대학원 졸업	45.2	27.8	17.4	54.8	20.7	34.1
가구유형	1인가구	36.0	24.5	11.6	64.0	31.3	32.7
	무자녀 부부가구	43.6	33.0	10.6	56.5	32.6	23.9
	유자녀 부부가구	18.2	8.4	9.8	81.8	14.7	67.1
	부모동거 가구	29.9	23.3	6.7	70.1	34.0	36.0
	기타가구	38.1	30.3	7.8	61.9	33.2	28.7

주: 1) 미취업자 1,785명에 대해 분석함

- 지난주에 일이 주어졌더라도 일을 시작할 수 없었던 이유는 기타를 제외하고 학교에 다니고 있어서가 35.2%로 가장 높았고, 당분간 쉬고 싶어서 15.1%, 학원 및 직업훈련 기관을 다니고 있어서 13.2%, 학원을 다니지 않고 취·창업 준비 8.4%, 육아 7.6%, 건강문제 6.8%, 학원을 다니지 않고 진학준비 3.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 지난주에 일이 주어졌더라도 일을 시작할 수 없었던 이유를 살펴보면 남성(37.9%)과 여성(32.2%) 모두 학교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성은 육아라고 응답한 경우가 14.8%로 다소 높게 나타남
- 연령이 높을수록 육아나 건강문제로 일을 시작할 수 없었던 경우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 연령이 낮을수록 학교로 인해 일을 시작할 수 없었던 경우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학력별로 살펴보면 전문대 졸업은 당분간 쉬고 싶어서 일을 시작할 수 없었던 경우가 19.7%로 가장 높았고, 나머지는 학교로 인해 일을 시작할 수 없었던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남

- 가구유형별로 지난주에 일이 주어졌더라도 일을 시작할 수 없었던 이유를 살펴보면 1인가구(38.4%), 부모동거 가구(40.5%), 기타 가구(21.4%)는 학교, 무자녀 부부가구는 당분간 쉬고 싶어서(25.7%), 유자녀 부부가구는 육아(88.5%)가 가장 높게 나타남

[표 2-4-40] 지난주에 일이 주어졌더라도 일을 시작할 수 없었던 이유

[단위: %]

구분		학교	학원 및 직업훈련 기관	학원을 다니지 않고 진학준비	학원을 다니지 않고 취·창업 준비	육아	가사일	건강문제	당분간 쉬고 싶어서	기타
전체(n=793) ¹⁾		35.2	13.2	3.3	8.4	7.6	1.0	6.8	15.1	9.4
성별	남성	37.9	15.0	4.1	8.9	1.1	0.8	5.6	15.3	11.3
	여성	32.2	11.3	2.4	7.9	14.8	1.3	8.2	14.8	7.2
연령	18~19세	54.6	19.2	4.4	0.8	0.0	0.0	3.8	13.5	3.7
	20~24세	49.7	10.5	2.8	9.7	0.3	0.0	3.9	16.1	7.0
	25~29세	23.1	16.8	4.3	8.9	5.3	1.9	9.0	16.5	14.3
	30~35세	7.0	9.8	2.1	10.2	32.9	2.8	12.3	11.7	11.3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46.8	12.0	3.6	7.5	2.6	0.5	5.3	14.7	7.0
	전문대 졸업	7.9	13.0	2.8	7.7	17.3	1.5	16.2	19.7	14.0
	대학교 졸업	17.2	16.3	3.1	10.5	16.3	1.8	7.4	14.7	12.8
	대학원 졸업	29.9	11.8	0.0	11.8	8.1	4.7	7.5	12.6	13.6
가구 유형	1인가구	38.4	16.9	2.2	9.7	0.0	0.4	6.6	14.3	11.4
	무자녀 부부가구	9.3	4.9	0.0	4.8	0.0	9.4	24.9	25.7	21.0
	유자녀 부부가구	0.0	0.0	0.0	0.0	88.5	1.9	5.0	1.5	3.1
	부모동거 가구	40.5	13.5	3.8	9.3	0.9	0.9	5.8	16.6	8.7
	기타가구	21.4	14.1	12.2	5.2	5.4	0.0	14.9	18.2	8.6

주: 1) 미취업자 중 "지난 주에 직장이 주어졌더라도 일을 시작할 수 없었다"고 답한 793명에 대해 분석함

- 미취업 청년이 지난 4주간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이유(1순위)를 살펴보면, 기타를 제외하고 학교에 다니고 있어서가 24.7%로 가장 높았고,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7.5%, 일할 욕구를 느끼지 못해서 7.4%, 진학준비 6.8%, 원하는 임금수준, 근로조건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5.8%, 육아 또는 가사일 4.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기타를 제외하고 남성(26.3%)과 여성(22.8%) 모두 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일자리를 구하지 않았던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성은 육아 또는 가사일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지 않았던 경우가 다소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지난 4주간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면, 30~35세는 육아 또는 가사일 때문에 구하지 않은 경우가 23.1%로 가장 높았고 나머지 연령은 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구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지난 4주간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 이하(32.1%)와 대학원 졸업(28.2%)은 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전문대 졸업은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11.8%), 대학교 졸업은 취업 또는 창업 준비(18.2%)가 가장 높게 나타남

- 가구유형별로 지난 4주간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면, 1인가구(27.7%), 부모동거 가구(26.9%), 기타 가구(14.1%)는 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무자녀 부부가구는 취업 또는 창업 준비(21.4%), 유자녀 부부가구는 육아 또는 가사일 때문에(75.5%)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남

[표 2-4-41] 지난 4주 이내에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1순위)

[단위: %]

구분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원하는 임금수준, 근로조건 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취업 또는 창업 준비 ²⁾	일할 욕구를 느끼지 못해서	진학 준비 ³⁾	육아 또는 가사일 때문에 ⁴⁾	기타 ⁵⁾
전체(n=1,219) ¹⁾		7.5	5.8	24.7	11.0	7.4	6.8	4.9	31.9
성별	남성	9.3	5.8	26.3	8.9	6.4	9.1	0.6	33.6
	여성	5.4	5.8	22.8	13.5	8.7	4.0	10.0	29.9
연령	18~19세	9.8	2.5	31.3	2.8	8.9	16.8	0.0	28.0
	20~24세	6.8	4.2	35.1	9.5	8.2	5.2	0.3	30.8
	25~29세	7.9	8.0	17.9	13.2	8.4	6.2	3.0	35.4
	30~35세	7.0	8.9	4.4	17.3	3.0	4.2	23.1	32.1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6.9	4.8	32.1	7.7	7.9	7.9	2.2	30.4
	전문대 졸업	11.3	11.8	6.3	8.6	7.6	5.6	9.8	39.0
	대학교 졸업	7.6	6.3	14.5	18.2	6.8	4.9	8.6	33.2
	대학원 졸업	8.6	0.0	28.2	21.6	0.0	3.8	12.1	25.7
가구 유형	1인가구	10.1	6.6	27.7	13.9	7.1	6.0	0.3	28.3
	무자녀 부부가구	6.6	13.0	8.9	21.4	12.8	0.0	6.5	30.9
	유자녀 부부가구	2.8	5.7	1.5	0.0	1.9	0.0	75.5	12.6
	부모동거 가구	6.8	5.1	26.9	10.4	7.9	7.8	0.8	34.4
	기타가구	8.3	6.7	14.1	9.1	7.1	9.4	3.2	42.2

주: 1) 미취업자 1,785명 중 일자리를 구해보지 않은 1,219명을 대상으로 분석

- 2) "취업, 창업을 위한 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에 다니고 있어서", "학원이나 기관에 다니지 않고 취업, 창업 준비" 포함
- 3) "입시학원에 다니고 있어서", "학원에 다니지 않고 진학 준비" 포함
- 4) "어린 자녀를 돌보기 때문에"와 "자녀 이외 가족돌봄 및 가사활동" 포함
- 5) "근처에 일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여겨서",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서 포기함", "기능, 학력, 능력이 부족해서", "여성, 고령자, 장애인에 대한 차별 때문에", "여행, 문화예술, 취미활동을 위해서", "질병이나 지병 때문에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군입대 대기중", "인간관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진로를 정하지 못해서", "기타" 포함

- 지난 4주 이내에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 1순위는 기타를 제외하고 학교(정규교육기관) 다니고 있어서가 24.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7.5%, 기능, 학력, 능력이 부족해서, 일할 욕구를 느끼지 못해서가 각각 7.4%, 원하는 임금수준, 근로조건에 맞는 일자리(직장)가 없을 것이라고 여겨서 5.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지난 4주 이내에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 2순위는 일할 욕구를 느끼지 못

해서가 12.5%로 가장 높았고, 원하는 임금수준, 근로조건에 맞는 일자리(직장)가 없을 것이라고 여겨져서 11.3%, 진로를 정하지 못해서 9.0%,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8.3%, 기능, 학력, 능력이 부족하여 7.5%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2-4-42] 지난 4주 이내에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

[단위: %]

구분	1순위(n=1,219) ¹⁾	2순위(n=793) ²⁾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7.5	6.0
원하는 임금수준, 근로조건에 맞는 일자리(직장)가 없을 것이라고 여겨져서	5.8	11.3
근처에 일자리(직장)가 없을 것이라고 여겨져서	2.2	4.2
일자리(직장)를 찾을 수 없어 포기함	3.7	5.2
기능, 학력, 능력이 부족하여	7.4	7.5
성별, 연령, 장애 등에 대한 차별 때문에	0.7	0.4
일할 욕구를 느끼지 못해서	7.4	12.5
여행이나 문화예술, 취미활동을 위해서	2.0	4.5
어린 자녀를 돌보기 때문에	3.4	2.2
자녀 이외 가족 돌봄, 가사 활동 때문에	1.5	3.0
질병이나 지병 때문에 휴식을 취하기 위해	1.6	2.0
학교(정규교육기관)에 다니고 있어서	24.7	8.3
입시학원에 다니고 있어서	4.1	2.3
학원에 다니지 않고 진학준비 중이어서	2.7	3.2
취업, 창업을 위한 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에 통학 중이어서	5.5	5.3
학원이나 기관에 다니지 않고 취업, 창업 중이어서	5.5	5.2
군입대 대기 중이어서	1.9	2.3
인간관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1.0	3.1
진로를 정하지 못해서	4.5	9.0
기타	7.0	2.7

주: 1) 미취업자 중 일자리 구해보지 않은 1,219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2) 일자리 구해보지 않은 미취업자 1,219명 중 2순위 응답자 793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 직장(일)을 구하지 못한 이유가 사회 전반적 문제라고 응답한 비율은 37.9%, 개인적 사유라고 응답한 비율은 62.1%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 직장(일)을 구하지 못한 이유가 사회 전반적 문제라고 응답한 경우는 여성이(44.1%) 남성(32.3%)보다 높게 나타남
- 연령과 학력이 높을수록 직장(일)을 구하지 못한 이유가 사회 전반적 문제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가구 유형별로 직장(일)을 구하지 못한 이유가 사회 전반적 문제라고 응답한 비율은

무자녀 부부가구가 47.4%로 가장 높았고, 기타 가구가 30.7%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별로 직장(일)을 구하지 못한 이유가 사회 전반적 문제라고 응답한 비율은 실업자가 49.8%로 가장 높았고, 비재학 미취업자는 35.0%, 재학생은 33.1%로 나타남

[표 2-4-43] 직장을 구하지 못한 이유

[단위: %]

구분			사회 전반적 문제	개인적 사유
전체(n=1,785) ¹⁾			37.9	62.1
성별	남성		32.3	67.7
	여성		44.1	55.9
연령	18~19세		31.3	68.7
	20~24세		33.3	66.7
	25~29세		42.0	58.0
	30~35세		44.4	55.7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32.9	67.1
	전문대 졸업		35.3	64.7
	대학교 졸업		46.9	53.1
	대학원 졸업		50.2	49.8
가구 유형	1인가구		41.4	58.6
	무자녀 부부가구		47.4	52.6
	유자녀 부부가구		43.6	56.4
	부모동거 가구		35.9	64.1
	기타가구		30.7	69.3
경제활동 상태	경제 활동	실업	49.8	50.2
	비경제 활동	재학	33.1	66.9
		비재학 미취업	35.0	65.0

주: 1) 미취업자 1,785명에 대해 분석함

(2) 구직활동

- 다음은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2020년부터 조사 참여자의 응답 시점까지 구직활동 및 창업 준비 경험을 확인한 결과임
- 미취업자 중 구직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는 45.3%, 창업 준비 경험이 있는 경우는 4.4%, 구직활동 경험도, 창업 준비 경험도 없는 경우는 50.2%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 구직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를 살펴보면 남성은 41.6%, 여성은 49.4%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구직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는 18~19세가 13.1%로 가장 낮았고, 25~29세가 64.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구직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가 높

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연령이 높을수록 창업준비 경험이 있는 경우도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학력별로 구직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를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30.1%가 가장 낮았으며 전문대 졸업 이상인 경우는 그중 60% 이상이 구직활동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가구 유형별로 구직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는 무자녀 부부가구가 66.8%로 가장 높았고, 부모동거 가구가 40.0%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서 구직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를 살펴보면 실업자는 73.7% 재학생은 18.7%, 비재학 미취업자는 48.7%로 다소 편차가 크게 나타남

[표 2-4-44] 지난 1년간 구직 활동 및 창업 준비 경험

[단위: %]

구분			구직활동 경험 있음	창업 준비 경험 있음	구직활동 및 창업준비 경험 없음
전체(n=1,785) ¹⁾			45.3	4.4	50.2
성별	남성		41.6	4.7	53.7
	여성		49.4	4.1	46.5
연령	18~19세		13.1	1.7	85.2
	20~24세		30.8	2.8	66.4
	25~29세		64.2	5.9	29.9
	30~35세		62.5	7.0	30.5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30.1	3.9	66.0
	전문대 졸업		62.1	5.9	32.0
	대학교 졸업		65.6	4.9	29.5
	대학원 졸업		62.5	3.9	33.7
가구유형	1인가구		55.4	4.9	41.8
	무자녀 부부가구		66.8	10.1	23.2
	유자녀 부부가구		41.4	10.7	48.0
	부모동거 가구		40.0	3.2	56.8
	기타가구		52.0	7.4	40.6
경제활동 상태	경제 활동	실업	73.7	4.0	22.3
	비경제 활동	재학	18.7	1.8	79.5
		비재학 미취업	48.7	6.5	44.9

주: 1) 미취업자 1,785명에 대해 분석함

- 미취업 청년 중 향후 구직 또는 창업 활동 의향을 살펴보면 구직이나 창업 활동 의향이 있는 경우는 73.9%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 향후 구직 또는 창업 활동 의향이 있는 경우는 남성은 71.7%, 여성은 76.3%로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향후 구직 또는 창업 활동 의향이 있는 경우는 18~19세는 58.3%로 20세 이상 응답자에 비해 비교적 낮게 나타났으며 20세 이상 응답자 중 70% 이상이 향후 구직 또는 창업 활동을 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학력이 높을수록 향후 구직 또는 창업 활동 의향이 있는 경우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가구 유형별로 향후 구직 또는 창업 활동 의향이 있는 경우를 살펴보면 모든 가구 유형에서 응답자의 70% 이상이 향후 구직 또는 창업 활동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서 향후 구직 또는 창업 활동 의향이 있는 경우를 살펴보면 실업자는 87.7%, 재학생은 67.3%, 비재학 미취업자는 71.2%로 나타남

[표 2-4-45] 향후 구직 또는 창업 활동 의향

[단위: %]

구분			있다	없다	모르겠다
전체(n=1,785) ¹⁾			73.9	9.0	17.1
성별	남성		71.7	10.4	17.9
	여성		76.3	7.5	16.2
연령	18~19세		58.3	12.8	28.9
	20~24세		74.2	8.3	17.5
	25~29세		77.5	9.5	12.9
	30~35세		76.5	7.6	16.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70.5	9.7	19.7
	전문대 졸업		77.7	7.3	15.0
	대학교 졸업		77.7	8.3	14.1
	대학원 졸업		85.1	10.7	4.3
가구유형	1인가구		75.2	9.9	14.9
	무자녀 부부가구		76.7	7.3	16.1
	유자녀 부부가구		71.4	12.1	16.5
	부모동거 가구		73.1	8.6	18.3
	기타가구		76.3	7.5	16.3
경제활동 상태	경제 활동	실업	87.7	4.6	7.8
	비경제 활동	재학	67.3	11.5	21.2
		비재학 미취업	71.2	9.7	19.1

주: 1) 미취업자 1,785명에 대해 분석함

- 미취업자의 구직 방법 1순위를 살펴보면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하여 구직한 경우가

66.0%로 가장 높았고 학교, 학원에서 제공하는 취업정보를 통해서 11.2%, 친구, 친지의 소개 5.4%, 고용복지센터를 통해서 4.6%, 취업하고 싶은 일자리(직장, 사업, 일거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 4.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미취업자의 구직 방법 2순위를 살펴보면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하여 구직한 경우가 29.6%로 가장 높았고, 취업하고 싶은 일자리(직장, 사업, 일거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 14.3%, 고용복지센터를 통해서 12.2%, 친구, 친지의 소개 11.2%, 학교 학원에서 제공하는 취업정보를 통해서 9.8%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2-4-46] 구직 방법

구분	[단위: %]	
	1순위(n=804) ¹⁾	2순위(n=499) ²⁾
학교, 학원에서 제공하는 취업정보를 통해서	11.2	9.8
교사, 교수, 스승을 통해서	2.4	1.8
친구, 친지의 소개	5.4	11.2
고용복지센터를 통해서	4.6	12.2
신문, TV, 벽보 등의 광고를 통해서	1.0	3.7
일하고 싶은 곳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2.3	4.9
가족을 통해서	1.1	3.7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하여	66.0	29.6
취업하고 싶은 일자리(직장, 사업, 일거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	4.1	14.3
전 일자리(직장, 사업, 일거리)에서 업무상 알게 된 사람을 통해	1.0	7.9
기타	0.9	0.8

주: 1) 미취업자 1,785명 중 구직활동 경험이 있는 804명에 대해 분석함

2) 구직활동 경험이 있는 미취업자 804명 중 2순위 응답자 499명에 대해 분석함

- 일자리를 구하는 주된 이유를 살펴보면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가 67.9%로 가장 높았고, 자신의 발전을 위해 19.3%, 본인 학비 또는 용돈을 벌기 위해 8.3%, 지식이나 기술의 활용을 위해 2.5%, 여가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 1.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남성(66.2%)과 여성(69.5%) 모두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자리를 구한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과 학력이 높을수록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고, 본인 학비 또는 용돈을 벌기 위해 일자리를 구하는 경우는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임
- 가구유형별로 모든 가구유형에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부모동거 가구는 본인 학비 또는 용돈을 벌기 위해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경우가 12.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별로 실업자, 재학생, 비재학 미취업자 모두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자리

를 구하고 있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재학생은 본인 학비 또는 용돈을 벌기 위해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경우가 23.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표 2-4-47] 일자리를 구하는 주된 이유

[단위: %]

구분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배우자 또는 다른 가족의 실직	본인 학비 또는 용돈을 벌기 위해	자신의 발전을 위해	지식이나 기술의 활용을 위해	여가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	기타	
전체(n=804) ¹⁾		67.9	0.1	8.3	19.3	2.5	1.3	0.6	
성별	남성	66.2	0.2	9.1	19.8	2.7	1.1	0.8	
	여성	69.5	0.0	7.6	18.8	2.3	1.4	0.5	
연령	18~19세	38.1	0.0	33.4	16.2	0.0	12.3	0.0	
	20~24세	60.6	0.0	15.9	18.7	2.3	2.0	0.5	
	25~29세	71.2	0.2	5.4	19.0	2.8	0.8	0.6	
	30~35세	73.2	0.0	2.7	20.7	2.5	0.0	0.9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63.9	0.0	15.2	16.4	1.3	2.2	1.0	
	전문대 졸업	64.4	0.0	4.6	27.6	1.8	0.8	0.8	
	대학교 졸업	71.6	0.2	4.3	19.3	3.7	0.5	0.3	
	대학원 졸업	78.2	0.0	3.2	12.7	3.0	3.0	0.0	
가구유형	1인가구	71.8	0.0	3.6	19.8	3.3	0.5	1.2	
	무자녀 부부가구	74.4	0.0	2.3	14.8	5.9	2.6	0.0	
	유자녀 부부가구	91.3	0.0	0.0	8.8	0.0	0.0	0.0	
	부모동거 가구	61.4	0.2	12.4	21.6	2.2	1.7	0.5	
	기타가구	81.5	0.0	9.9	6.7	0.0	1.8	0.0	
경제활동 상태	경제 활동	실업	69.3	0.0	4.7	21.5	2.3	1.7	0.6
	비경제 활동	재학	52.8	0.0	23.1	19.9	0.9	2.3	1.0
		비재학 미취업	70.7	0.2	7.4	17.3	3.1	0.7	0.6

주: 1) 미취업자 1,785명 중 구직활동 경험이 있는 804명에 대해 분석함

- 미취업자가 구직활동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교육·훈련 정보와 기회 제공이 25.9%로 가장 높았고, 자세하고 정확한 구인정보 24.6%, 구직기간 동안의 비용 지원 23.4%, 다양하고 많은 구인정보 18.8%, 적성검사 및 상담 지원 6.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 구직활동 시 가장 필요한 지원을 살펴보면 남성은 자세하고 정확한 구인정보가 26.0%로 가장 높았고, 여성은 교육·훈련 정보와 기회 제공이 26.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구직활동 시 가장 필요한 지원을 살펴보면 18~19세(30.1%), 20~24세(29.2%)는 교육·훈련 정보와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25~29세(27.6%), 30~35세(31.2%)는 구직기간 동안의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

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학력에 따라서는 구직활동 시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고등학교 졸업 이하(27.2%)와 전문대 졸업(25.2%)은 교육·훈련 정보와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대학교 졸업(30.8%)과 대학원 졸업(30.1%)은 구직기간 동안의 비용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가구유형별로 구직활동 시 가장 필요한 지원을 살펴보면 1인가구(30.9%) 무자녀 부부가구(29.6%) 기타 가구(30.3%)는 구직기간 동안의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부모동거 가구는 교육·훈련 정보와 기회 제공(27.5%)이, 유자녀 부부가구는 자세하고 정확한 구인 정보(28.4%)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서는 구직활동 시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실업자(26.0%)와 비재학 미취업자(27.1%)는 구직기간 동안의 비용 지원이, 재학생은 교육·훈련 정보와 기회 제공(31.1%)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2-4-48] 구직활동 시 가장 필요한 것

[단위: %]

구분			적성검사 및 상담 지원	다양하고 많은 구인 정보	자세하고 정확한 구인 정보	교육·훈련 정보와 기회 제공	구직기간 동안의 비용 지원	기타
전체(n=1,785 ¹⁾)			6.9	18.8	24.6	25.9	23.4	0.6
성별	남성		7.3	19.8	26.0	25.2	20.8	0.9
	여성		6.4	17.6	22.9	26.6	26.2	0.2
연령	18~19세		9.7	24.8	25.5	30.1	9.5	0.4
	20~24세		6.3	19.5	24.5	29.2	20.1	0.5
	25~29세		6.3	14.7	25.8	25.1	27.6	0.5
	30~35세		7.4	20.4	22.2	17.9	31.2	0.9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7.8	20.3	24.5	27.2	19.8	0.3
	전문대 졸업		7.1	22.8	24.6	25.2	19.3	1.1
	대학교 졸업		5.0	14.5	24.4	24.3	30.8	0.9
	대학원 졸업		7.0	18.0	26.6	18.4	30.1	0.0
가구유형	1인가구		5.9	14.8	24.0	23.3	30.9	1.0
	무자녀 부부가구		4.7	17.5	23.0	25.2	29.6	0.0
	유자녀 부부가구		6.3	21.5	28.4	19.8	22.7	1.2
	부모동거 가구		7.0	21.0	25.3	27.5	18.8	0.4
	기타가구		12.7	13.9	16.5	26.6	30.3	0.0
경제활동 상태	경제 활동	실업	6.5	18.9	24.1	23.9	26.0	0.7
	비경제 활동	재학	7.1	21.0	24.8	31.1	15.9	0.2
		비재학 미취업	6.9	17.2	24.7	23.3	27.1	0.7

주: 1) 미취업자 1,785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4) 창업 준비

(1) 창업 준비 경험

- 전체 응답자 중 창업 준비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8.0%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 창업 준비 경험이 있는 경우는 남성은 8.9%, 여성은 7.1%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게 나타남
- 연령이 높을수록 창업 준비 경험이 있는 경우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학력별로 창업 준비 경험이 있는 경우는 대학원 졸업이 7.0%로 가장 낮았고, 전문대 졸업이 9.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가구유형별로 창업 준비 경험이 있는 경우는 부모동거 가구가 5.8%로 가장 낮았고, 무자녀 부부가구가 12.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별로 창업 준비 경험이 있는 경우는 재학생이 3.0%로 가장 낮았고, 취업자, 실업자, 비재학 미취업자 모두 8%대로 유사하게 나타남

[표 2-4-49] 창업 준비 경험

[단위: %]

구분			있다	없다
전체(n=5,149)			8.0	92.0
성별	남성		8.9	91.1
	여성		7.1	92.9
연령	18~19세		3.1	97.0
	20~24세		5.5	94.5
	25~29세		8.4	91.6
	30~35세		10.7	89.3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8.0	92.0
	전문대 졸업		9.1	90.9
	대학교 졸업		7.8	92.2
	대학원 졸업		7.0	93.0
가구유형	1인가구		9.3	90.7
	무자녀 부부가구		12.9	87.1
	유자녀 부부가구		11.8	88.2
	부모동거 가구		5.8	94.2
	기타가구		10.4	89.6
경제활동 상태	경제 활동	취업	8.7	91.3
		실업	8.0	92.0
	비경제 활동	재학	3.0	97.0
		비재학 미취업	8.5	91.5

- 창업 준비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창업을 위해 지금까지 준비했거나 현재 준비하고 있

는 사항을 살펴보면 사업 아이템 선정이 18.6%로 가장 높았고, 사업계획 수립 14.9%, 자금마련 12.8%, 창업관련 교육 이수 8.4%, 상권 분석 8.3% 인턴·아르바이트 등 직무경험 8.2%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2-4-50] 창업 준비 활동

[단위: %]

구분	(n=1,306) ¹⁾
창업관련 교육 이수	8.4
사업 아이템 선정	18.6
사업계획 수립	14.9
입지 선정	5.8
상권 분석	8.3
자금마련	12.8
인턴·아르바이트 등 직무경험	8.2
관련업종 담당 종사자 만남	7.5
마케팅 계획 수립	7.7
창업 관련 스터디 참여	4.9
기타	0.2
준비 안 함	2.5

주: 1) 중복선택 가능한 문항으로 창업을 위해 지금까지 준비했거나 현재 준비하고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 분석함

- 창업 준비 경험자의 창업 정보 수집 방법 1순위를 살펴보면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서가 35.8%로 가장 높았고, 친구, 가족, 친지를 통해서 15.4%, 창업 관련 교육을 들어서 14.9%, 교사, 교수, 스승을 통해서 7.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순위를 살펴보면 1순위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서가 30.6%로 가장 높았고, 창업하고자 하는 분야의 전문가를 직접 찾아다니면서 18.3%, 친구, 가족, 친지를 통해서 16.5%, 창업지원센터, 고용복지센터를 통해서 12.0%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2-4-51] 창업 정보 수집 방법

[단위: %]

구분	1순위(n=415) ¹⁾	2순위(n=242) ²⁾
창업 관련 교육을 들어서	14.9	10.9
교사, 교수, 스승을 통해서	7.5	4.8
친구, 가족, 친지를 통해서	15.4	16.5
창업지원센터, 고용복지센터를 통해서	5.6	12.0
신문, TV, 벽보 등의 광고를 통해서	3.7	4.5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서	35.8	30.6
창업하고자 하는 분야의 전문가를 직접 찾아다니면서	7.1	18.3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통해서	1.4	2.6
기타	0.7	0.0
알아보고 있지 않음	8.0	0.0

주: 1) 창업 준비 경험이 있는 응답자 415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2) 창업 준비 경험자 중 2순위 응답자 242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 창업 준비 경험자의 창업 준비 이유를 살펴보면 장기적으로 임금근로자보다 소득이나 장래성이 더 나을 것 같아서가 36.3%로 가장 높았고, 창업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일 이어서 18.9%, 일하는 시간이 자유로운 편이어서 12.8% 누군가(직장상사 등)의 간섭 이 싫어서 10.3%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2-4-52] 창업 준비 이유

[단위: %]

구분	(n=415) ¹⁾
장기적으로 임금근로자보다 소득이나 장래성이 더 나을 것 같아서	36.3
적당한 임금근로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서	5.1
창업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일이어서	18.9
누군가(직장상사 등)의 간섭이 싫어서	10.3
일하는 시간이 자유로운 편이어서	12.8
가정과 가까운 곳에서 일하려고	3.2
취업시 스펙이 될 수 있어서	4.0
배우자(또는 친지, 친척)의 일이라 함께 해야 하므로	0.7
가업(또는 집안에서 하도록 정해진 일)이어서	1.4
친구나 친지의 추천으로	3.1
기타	4.5

주: 1) 창업 준비 경험이 있는 응답자 415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 창업 준비 경험자가 창업을 준비할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은 자금 부족이 46.5%로 가장 높았고, 창업 지식 부족 18.8%, 창업 성공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11.3%, 창업지원 부족 6.0%, 창업 인프라 부족 4.8%, 복잡한 창업 절차 4.5%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2-4-53] 창업 준비 시 어려웠던 점

[단위: %]

구분	(n=415) ¹⁾
자금 부족	46.5
기술 부족	2.4
인력확보 어려움	2.5
창업 지식 부족	18.8
창업지원 부족	6.0
창업 인프라 부족	4.8
복잡한 창업 절차	4.5
창업 성공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11.3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 창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1.7
기타	1.6

주: 1) 창업 준비 경험이 있는 응답자 415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 창업을 준비 시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는 창업 및 운영 자금의 장기, 저리 지원 34.2%, 창업 및 경영 1:1 맞춤형 컨설팅 13.6%, 창업 관련 교육 12.4%, 청년, 노인 고용 장려금 등 임금 지원 9.0%, 행정서비스 지원(세무, 회계, 법률 등) 8.2% 순으로 나타남

[표 2-4-54] 창업 준비 시 가장 필요한 지원

[단위: %]

구분	(n=415) ¹⁾
창업 관련 교육	12.4
창업 및 경영 1:1 맞춤형 컨설팅	13.6
창업 및 운영 자금의 장기, 저리 지원	34.2
온라인 상거래 지원	7.2
창업 공간지원(보육센터 등)	7.4
청년, 노인, 고용 장려금 등 임금 지원	9.0
행정서비스 지원(세무, 회계, 법률 등)	8.2
직업교육훈련 지원(자격증 과정 등)	3.1
벤처기업 육성	4.3
기타	0.8

주: 1) 창업 준비 경험이 있는 응답자 415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5_경제

1) 소득

- 전체 가구의 연소득은 평균 5,270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분포는 3천만~5천만 원 미만 이 30.1%로 가장 높았고, 1천만~3천만 원 미만 21.0%, 7천만~1억 원 미만 18.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남성은 5,207만 원, 여성은 5,331만 원으로 여성이 약간 높게 나타남
- 연령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은 18~19세가 5,486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25~29세가 5,074만 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학력별로 가구의 연소득은 대학원 졸업이 5,730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전문대 졸업이 4,956만 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가구유형별 가구의 연소득은 부모동거 가구가 6,233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1인가구가 3,735만 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별 가구의 연소득은 취업자가 5,435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실업자가 4,728만 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2-5-1] 가구 연소득

[단위: 만 원, %]

구분 ¹⁾			금액		분포					
			평균	중위 소득	1천만 원 미만	1천만 ~3천만 원 미만	3천만 ~5천만 원 미만	5천만 ~7천만 원 미만	7천만 ~1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성별	전체(n=5,130) ²⁾		5,270	4,800	4.3	21.0	30.1	17.7	18.2	8.7
	남성		5,207	4,800	5.2	20.1	30.8	17.8	17.3	8.8
	여성		5,331	4,800	3.5	21.9	29.4	17.5	19.1	8.6
연령	18~19세		5,486	4,800	9.5	12.7	29.1	17.8	19.5	11.4
	20~24세		5,350	4,800	6.9	20.1	24.9	18.5	20.3	9.3
	25~29세		5,074	4,200	4.2	25.6	30.1	14.5	17.3	8.3
	30~35세		5,381	4,800	1.4	18.1	34.6	20.4	17.4	8.2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5,181	4,800	7.2	20.3	27.2	18.2	18.3	8.8
	전문대 졸업		4,956	4,200	2.5	27.5	31.4	14.3	18.5	5.9
	대학교 졸업		5,390	4,800	2.6	20.3	31.9	18.1	17.8	9.3
	대학원 졸업		5,730	4,836	1.8	15.8	32.6	18.8	20.8	10.2
가구 유형	1인가구		3,735	3,096	7.5	36.4	35.9	10.1	6.4	3.7
	무자녀 부부가구		6,177	6,000	0.3	10.7	28.6	25.8	25.2	9.5
	유자녀 부부가구		5,710	5,400	0.4	10.4	36.8	26.7	19.5	6.3
	부모동거 가구		6,233	6,000	3.1	12.2	25.1	21.1	25.9	12.7
	기타가구		4,484	3,600	4.8	27.8	35.4	15.2	12.2	4.6
경제 활동 상태	경제	취업	5,435	4,800	2.1	21.0	30.9	18.2	18.8	9.1
	활동	실업	4,728	3,756	7.6	25.0	30.8	14.7	14.8	7.0
	비경제	재학	5,392	5,004	11.4	15.9	22.4	17.7	21.3	11.3
	활동	비재학 미취업	4,768	4,200	7.6	22.5	31.4	16.8	15.5	6.2

주: 1) 월평균 소득으로 응답한 값을 연소득으로 환산함

2) 전체 응답자 5,194명 중 결측값 64개를 제외하고 분석함

- 전체 가구의 월소득은 평균 439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분포는 100만~300만 원 미만 이 28.4%로 가장 높았고, 300만~500만 원 미만 26.8%, 500만~700만 원 미만 21.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은 434만 원, 여성은 444만 원으로 여성이 약간 높게 나타남
- 연령별 가구의 평균 월소득은 18~19세가 457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25~29세가 423만 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이는 18~19세 청년 중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의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학력별 가구의 평균 월소득은 대학원 졸업이 477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전문대 졸업 이 413만 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가구유형별 가구의 평균 월소득은 부모동거 가구가 519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1인가 구가 311만 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별 가구의 평균 월소득은 취업자가 453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실업자가 394만 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2-5-2] 가구 월소득

[단위: 만 원, %]

구분			금액		분포					
			평균	중위 소득	100만 원 미만	100만~300만 원 미만	300만~500만 원 미만	500만~700만 원 미만	700만~1,000만 원 미만	1,000만 원 이상
전체(n=5,130) ¹⁾			439	400	4.8	28.4	26.8	21.1	12.4	6.5
성별	남성		434	400	5.8	27.8	27.8	20.0	12.1	6.6
	여성		444	400	3.9	29.0	25.8	22.1	12.7	6.4
연령	18~19세		457	400	9.5	15.9	29.2	23.1	15.3	7.0
	20~24세		446	400	8.0	23.2	23.4	24.9	13.5	7.1
	25~29세		423	350	4.6	34.0	25.8	16.5	12.6	6.5
	30~35세		448	400	1.5	29.0	30.3	22.5	10.8	5.9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432	400	7.9	25.1	25.7	22.2	12.7	6.5
	전문대 졸업		413	350	3.1	36.8	25.3	19.1	11.3	4.4
	대학교 졸업		449	400	3.0	29.2	28.1	20.5	12.3	6.8
	대학원 졸업		477	403	2.2	26.0	27.6	22.0	14.1	8.3
가구 유형	1인가구		311	258	8.3	49.4	26.1	9.5	4.2	2.6
	무자녀 부부가구		515	500	0.3	17.1	29.6	31.8	14.9	6.4
	유자녀 부부가구		476	450	0.4	18.5	37.3	25.8	13.3	4.7
	부모동거 가구		519	500	3.4	16.0	25.2	27.6	18.2	9.6
	기타가구		374	300	5.9	35.0	32.0	16.0	7.4	3.7
경제 활동 상태	경제	취업	453	400	2.5	29.4	27.3	21.2	12.9	6.6
	활동	실업	394	313	8.4	33.1	25.5	18.3	8.5	6.3
	비경제	재학	449	417	12.0	17.4	23.4	24.0	15.9	7.5
	활동	비재학 미취업	397	350	8.3	29.0	27.3	20.0	10.0	5.4

주: 1) 전체 응답자 5,194명 중 결측값 64개를 제외하고 분석함

- 전체 응답자 본인의 연소득은 평균 2,349만 원으로 나타났고 분포는 1천~3천 만 원 미만 39.1%, 1천만 원 미만 27.7%, 3천~5천만 원 미만 26.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은 2,425만 원, 여성은 2,276만 원으로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남
- 연령과 학력이 높아질수록 본인의 연소득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가구유형별로 본인의 연소득을 살펴보면 무자녀 부부가구가 3,777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부모동거 가구가 1,935만 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별로 본인의 연소득을 살펴보면 취업자가 2,847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재학생이 975만 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2-5-3] 본인 연소득

[단위: 만 원, %]

구분			금액		분포					
			평균	중위 소득	1천만 원 미만	1천만 ~3천 만 원 미만	3천만 ~5천 만 원 미만	5천만 ~7천 만 원 미만	7천만 ~1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전체(n=5,194)			2,349	2,400	27.7	39.1	26.5	5.0	1.3	0.5
성별	남성		2,425	2,400	28.1	35.7	28.0	5.9	1.5	0.7
	여성		2,276	2,376	27.3	42.2	25.1	4.2	1.0	0.2
연령	18~19세		876	480	71.4	22.3	4.7	1.0	0.4	0.3
	20~24세		1,419	1,080	49.5	38.7	9.7	1.7	0.2	0.2
	25~29세		2,444	2,400	20.2	47.1	27.6	3.8	1.1	0.3
	30~35세		3,327	3,120	8.9	33.5	44.0	10.1	2.6	0.9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03	1,200	46.5	36.0	14.4	2.5	0.4	0.3
	전문대 졸업		2,440	2,400	15.5	55.2	25.6	2.1	1.1	0.5
	대학교 졸업		2,895	2,760	15.9	38.0	36.1	7.5	1.9	0.6
	대학원 졸업		3,258	3,240	13.6	30.6	41.7	10.6	2.7	0.9
가구 유형	1인가구		2,600	2,520	17.2	45.0	31.4	4.8	1.3	0.4
	무자녀 부부가구		3,777	3,360	5.1	30.4	44.3	14.2	4.3	1.7
	유자녀 부부가구		3,080	3,024	19.6	26.6	39.9	10.1	3.4	0.5
	부모동거 가구		1,935	1,740	38.9	36.3	19.9	3.7	0.6	0.4
	기타가구		2,359	2,400	21.4	47.4	26.3	3.4	1.5	0.0
경제 활동 상태	경제 활동	취업	2,847	2,676	14.7	42.3	33.9	6.6	1.9	0.6
		실업	1,684	1,620	40.4	40.2	17.2	2.2	0.0	0.0
	비경제 활동	재학	975	600	68.0	24.3	5.4	2.0	0.0	0.3
		비재학 미취업	1,533	1,200	48.3	34.7	14.8	1.7	0.4	0.3

주: 월평균 소득으로 응답한 값을 연소득으로 환산함

- 전체 청년 본인의 월소득은 평균 196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분포는 200만~300만 원 미만이 29.8%로 가장 높았고, 100만~200만 원 미만 20.0%, 50만 원 미만 17.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은 202만 원, 여성은 190만 원으로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남
- 연령과 학력이 높을수록 본인 월 소득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가구유형별로 본인의 월소득을 살펴보면 무자녀 부부가구가 315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부모동거 가구가 161만 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별로 본인의 월소득을 살펴보면 취업자가 237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재학생이 81만 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2-5-4] 본인 월소득

[단위: 만 원, %]

구분		금액		분포					
		평균	중위 소득	50만 원 미만	50만~100만 원 미만	100만~200만 원 미만	200만~300만 원 미만	300만~400만 원 미만	400만 원 이상
전체(n=5,194)		196	200	17.5	11.6	20.0	29.8	12.3	8.7
성별	남성	202	200	17.7	11.6	18.9	27.9	13.3	10.6
	여성	190	198	17.3	11.6	21.1	31.6	11.4	6.9
연령	18~19세	73	40	54.4	19.4	14.8	7.6	1.3	2.4
	20~24세	118	90	29.2	23.0	26.1	14.3	4.2	3.3
	25~29세	204	200	12.1	9.1	22.6	37.3	11.9	7.0
	30~35세	277	260	6.5	3.2	12.8	39.0	22.0	16.6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34	100	28.8	19.9	22.1	18.5	6.1	4.7
	전문대 졸업	203	200	10.5	6.1	26.3	43.7	9.2	4.2
	대학교 졸업	241	230	10.4	6.4	17.1	35.6	17.9	12.7
	대학원 졸업	272	270	8.5	6.1	13.2	32.4	21.3	18.4
가구 유형	1인가구	217	210	10.6	7.9	22.3	34.9	15.9	8.3
	무자녀 부부가구	315	280	3.2	2.3	8.3	41.2	21.8	23.3
	유자녀 부부가구	257	252	15.3	5.5	12.2	27.6	22.0	17.4
	부모동거 가구	161	145	24.7	15.8	20.0	24.8	8.0	6.6
	기타가구	197	200	12.2	11.4	26.1	32.6	10.9	6.7
경제 활동 상태	경제 활동	취업	237	223	7.3	8.8	19.4	37.0	15.9
		실업	140	135	29.2	12.7	23.6	24.6	6.5
	비경제 활동	재학	81	50	45.2	24.6	19.5	4.3	3.3
		비재학 미취업	128	100	35.6	14.1	21.1	19.5	6.5

- 소득 원천별 본인 월소득은 근로소득이 163.9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사업소득, 금융소득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른 근로소득은 남성은 166.9만 원, 여성은 161.0만 원으로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남
- 연령과 학력이 높을수록 근로소득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소득은 부모동거 가구가 130.8만 원으로 가장 낮았고 무자녀 부부가구가 264.0만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에 따른 근로소득은 취업자가 205.9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재학생이 43.9만 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사업소득은 평균 7.0만 원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른 사업소득은 남성은 8.6만 원, 여성은 5.5만 원으로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남
- 연령이 높을수록 사업소득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학력별로 사업소득을 살펴보면 전문대 졸업이 11.2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대학원 졸업이 5.4만 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가구유형에 따라 사업소득을 살펴보면 무자녀 부부가구가 17.7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부모동거 가구가 4.7만 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사업소득을 살펴보면 취업자가 9.9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재학생이 0.1만 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재산소득 중 금융소득은 평균 6.5만 원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른 금융소득은 남성은 7.3만 원 여성은 5.7만 원으로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남
- 연령과 학력이 높을수록 금융소득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가구유형별로 금융소득을 살펴보면 무자녀 부부가구가 16.8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기타 가구가 5.1만 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서 금융소득을 살펴보면 취업자가 8.1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실업자가 2.9만 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가상자산소득은 평균 2.0만 원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은 남성은 2.7만 원 여성은 1.3만 원으로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남
- 연령이 높을수록 가상자산소득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학력별로 가상자산소득을 살펴보면 대학원 졸업이 4.1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전문대 졸업이 1.2만 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가구유형별로 가상자산소득을 살펴보면 무자녀 부부가구가 8.6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1인가구가 1.0만 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경제활동상태별로 가상자산소득을 살펴보면 비재학 미취업자가 2.7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실업자가 1.2만 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공적이전 소득은 평균 3.4만 원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른 공적이전 소득은 여성은 4.2만 원, 남성은 2.6만 원으로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남
- 연령이 높을수록 공적이전소득이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공적이전소득을 살펴보면 전문대 졸업 및 대학교 졸업이 3.8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2.8만 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가구유형별로 공적이전소득을 살펴보면 유자녀 부부가구가 13.2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부모동거 가구가 2.5만 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별로 공적이전소득은 비재학 미취업자가 5.0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재학생이 1.5만 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사적이전소득은 평균 10.9만 원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른 사적이전소득은 남성은 11.8만 원, 여성은 10.0만 원으로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남
- 연령이 높을수록 사적이전소득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학력별로 사적이전소득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17.2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전문대 졸업이 4.1만 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가구유형별로 사적이전소득을 살펴보면 부모동거 청년가구가 13.6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무자녀 부부가구가 3.5만 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별로 사적이전소득은 재학생이 28.6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취업자가 5.9만 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공적이전 소득은 30~35세에 가장 많이 분포하는 유자녀 부부가구가 가장 높은 반면 사적이전소득은 18~19세와 20~24세에 가장 많이 분포하는 부모동거 가구가 가장 높게 나타남

[표 2-5-5] 소득 원천별 본인 월소득

[단위: 만 원]

구분			총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가상자산소득	공적이전	사적이전	기타
						금융소득	임대소득	기타				
전체(n=5,194)			195.7	163.9	7.0	6.5	0.7	0.5	2.0	3.4	10.9	1.0
성별	남성		202.1	166.9	8.6	7.3	0.6	0.5	2.7	2.6	11.8	1.3
	여성		189.7	161.0	5.5	5.7	0.7	0.5	1.3	4.2	10.0	0.7
연령	18~19세		73.0	41.7	0.4	1.3	3.2	0.2	0.4	2.2	22.6	1.0
	20~24세		118.3	90.7	0.8	3.1	0.0	0.3	1.7	2.3	18.1	1.1
	25~29세		203.6	176.7	6.4	5.1	0.2	0.4	2.0	3.6	8.1	1.1
	30~35세		277.2	236.0	14.3	12.0	1.3	0.9	2.5	4.3	5.4	0.6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33.6	101.5	5.6	2.9	0.6	0.3	1.5	2.8	17.2	1.2
	전문대 졸업		203.3	175.2	11.2	6.4	0.1	0.9	1.2	3.8	4.1	0.4
	대학교 졸업		241.3	209.2	7.2	9.1	1.0	0.6	2.4	3.8	7.4	0.7
	대학원 졸업		271.5	234.1	5.4	12.3	0.1	0.6	4.1	3.4	8.0	3.4
가구 유형	1인가구		216.7	187.9	7.2	6.1	0.2	0.5	1.0	3.6	9.1	1.1
	무자녀 부부가구		314.7	264.0	17.7	16.8	1.0	0.4	8.6	2.6	3.5	0.3
	유자녀 부부가구		256.6	205.1	15.8	11.0	1.7	0.0	1.4	13.2	7.7	0.7
	부모동거 가구		161.2	130.8	4.7	5.2	0.9	0.6	2.0	2.5	13.6	1.0
	기타가구		196.6	170.6	7.3	5.1	0.1	0.2	1.4	3.1	7.9	0.9
경제 활동 상태	경제 활동	취업	237.2	205.9	9.9	8.1	1.0	0.5	2.0	3.1	5.9	0.9
		실업	140.3	112.5	1.5	2.9	0.0	0.1	1.2	4.8	16.1	1.1
	비경제 활동	재학	81.2	43.9	0.1	3.4	0.1	0.4	1.8	1.5	28.6	1.3
		비재학 미취업	127.7	95.1	2.4	3.7	0.0	0.9	2.7	5.0	16.8	1.1

- 2020년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률은 2.1%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은 2.6%, 남성은 1.7%로 여성이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률이 더 높게 나타남
- 연령이 낮을수록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률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학력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률은 전문대 졸업이 3.7%로 가장 높았고, 대학교 졸업이 0.6%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가구유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률은 부모동거 가구가 3.1%로 가장 높았고 무자녀 부부가구가 0.6%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률은 실업자가 3.6%로 가장 높았고, 취업자가 1.6%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2-5-6] 2020년 1년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 여부

[단위: %]

구분			수급	비수급
전체(n=5,194)			2.1	97.9
성별	남성		1.7	98.4
	여성		2.6	97.4
연령	18~19세		5.6	94.4
	20~24세		3.0	97.0
	25~29세		1.6	98.4
	30~35세		1.3	98.7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3.3	96.7
	전문대 졸업		3.7	96.3
	대학교 졸업		0.6	99.4
	대학원 졸업		2.2	97.8
가구유형	1인가구		0.8	99.2
	무자녀 부부가구		0.6	99.5
	유자녀 부부가구		2.4	97.6
	부모동거 가구		3.1	96.9
	기타가구		2.5	97.5
경제활동상태	경제 활동	취업	1.6	98.4
		실업	3.6	96.4
	비경제활동	재학	2.8	97.2
		비재학 미취업	3.2	96.8

- 근로장려금을 수령한 경우는 12.1%로 나타났고, 근로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수령금액은 평균 69만 원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른 근로장려금 수령 비율은 남성은 11.0%, 여성은 13.2%로 여성이 더 높았고, 근로장려금 수령금액은 여성은 70만 원, 남성은 69만 원으로 유사하게 나타남
- 연령별 근로장려금 수령 비율은 25~29세가 15.8%로 가장 높았고, 수령금액은 30~35세가 73만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학력별 근로장려금 수령 비율은 전문대 졸업이 14.0%로 가장 높았고, 수령금액은 대학원 졸업이 79만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수령 비율은 1인가구가 18.5%로 가장 높았고, 수령금액은 유자녀 부부가구가 90만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에 따른 근로장려금 수령 비율은 실업자가 17.3%로 가장 높았고 수령금액은 취업자가 71만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자녀장려금 수령 비율은 0.6%로 나타났고, 자녀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수령금액은 평균 80만 원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른 자녀장려금 수령 비율은 남성은 0.4%, 여성은 0.7%로 여성이 약간 높았고 수령 금액도 남성은 77만 원, 여성은 82만 원으로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남

- 연령별 자녀장려금 수령 비율은 30~35세가 1.6%로 가장 높았고 수령금액도 30~35세가 83만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이는 30~35세가 청년 중에 자녀가 있는 가구의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
- 학력에 따른 자녀장려금 수령 비율은 전문대 졸업이 0.9%로 가장 높았고 수령금액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85만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가구유형별로는 유자녀 부부가구만 자녀장려금을 수령했으며 수령 비율은 12.0%, 수령금액은 80만 원으로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에 따른 자녀장려금 수령 비율은 비재학 미취업자가 1.6%로 가장 높았고, 수령금액도 83만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2-5-7]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수령 여부, 수령금액

[단위: 만 원, %]

구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받지 않음	받음	금액	받지 않음	받음	금액
전체(n=5,194)			87.9	12.1	69	99.4	0.6	80
성별	남성		89.0	11.0	69	99.6	0.4	77
	여성		86.8	13.2	70	99.3	0.7	82
연령	18~19세		97.9	2.1	49	100.0	0.0	-
	20~24세		86.6	13.4	63	99.9	0.1	70
	25~29세		84.3	15.8	72	99.9	0.2	58
	30~35세		91.2	8.9	73	98.4	1.6	83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87.6	12.4	67	99.4	0.6	85
	전문대 졸업		86.0	14.0	68	99.1	0.9	69
	대학교 졸업		88.8	11.2	71	99.6	0.4	84
	대학원 졸업		86.9	13.1	79	99.3	0.8	76
가구 유형	1인가구		81.5	18.5	68	100.0	0.0	-
	무자녀 부부가구		92.4	7.6	88	100.0	0.0	-
	유자녀 부부가구		92.1	7.9	90	88.0	12.0	80
	부모동거 가구		91.9	8.2	66	100.0	0.0	-
	기타가구		82.1	17.9	74	100.0	0.0	-
경제 활동 상태	경제 활동	취업	88.0	12.0	71	99.5	0.5	79
		실업	82.7	17.3	64	100.0	0.0	-
	비경제 활동	재학	92.6	7.4	59	100.0	0.0	-
		비재학 미취업	86.9	13.1	70	98.4	1.6	83

2) 소비

- 전체 가구의 월 생활비 지출은 평균 259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분포는 1백~3백만 원 미만 49.9%로 가장 높았고, 3백~5백만 원 미만 26.1%, 1백만 원 미만 11.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른 가구의 월 생활비 지출은 여성은 265만 원, 남성은 253만 원으로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남

- 연령에 따른 가구의 월 생활비 지출은 18~19세가 314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25~29세가 247만 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이는 18~19세가 부모동거 비율이 높아 가구원 수가 많은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학력별로 가구의 월 생활비 지출을 살펴보면 대학원 졸업이 275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전문대 졸업이 246만 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가구유형에 따른 가구의 월 생활비 지출은 부모동거 가구가 평균 308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1인가구가 185만 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에 따른 가구의 월 생활비 지출은 재학생이 293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비재학 미취업자가 245만 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2-5-8] 가구 월생활비

[단위: 만 원, %]

구분			금액		분포					
			평균	중위 수	1백만 원 미만	1백만~3백만 원 미만	3백만~5백만 원 미만	5백만~7백만 원 미만	7백만~1천만 원 미만	1천만 원 이상
전체(n=5,149)			259	208	11.9	49.9	26.1	9.0	2.4	0.7
성별	남성		253	200	12.4	50.1	26.6	8.2	2.3	0.6
	여성		265	208	11.5	49.7	25.7	9.8	2.5	0.8
연령	18~19세		314	300	14.3	29.1	36.4	13.3	5.6	1.2
	20~24세		269	230	14.0	42.2	29.8	10.1	3.1	0.8
	25~29세		247	200	13.3	52.5	22.5	9.0	1.9	0.7
	30~35세		256	208	8.1	57.3	25.2	7.2	1.7	0.5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71	250	13.8	42.7	29.6	10.2	2.9	0.9
	전문대 졸업		246	200	11.6	56.1	22.3	6.9	2.2	0.9
	대학교 졸업		251	200	10.5	54.4	24.4	8.4	1.8	0.5
	대학원 졸업		275	240	10.0	51.1	24.2	10.8	3.5	0.4
가구 유형	1인가구		185	150	21.1	63.1	11.2	3.3	0.9	0.4
	무자녀 부부가구		258	233	4.8	61.7	25.9	6.0	0.9	0.6
	유자녀 부부가구		302	250	2.6	49.0	35.0	10.9	2.6	0.0
	부모동거 가구		308	300	7.9	38.3	35.9	13.3	3.6	1.0
	기타가구		232	200	10.0	61.2	20.6	6.4	1.5	0.3
경제 활동 상태	경제 활동	취업	259	208	10.4	52.9	25.1	8.8	2.3	0.6
		실업	251	200	14.9	47.5	26.4	7.0	3.0	1.2
	비경제 활동	재학	293	300	14.4	34.2	33.7	13.4	3.1	1.3
		비재학 미취업	245	200	15.0	49.0	25.4	8.0	2.2	0.4

- 응답자 본인의 월 생활비는 평균 106만 원으로 나타났고, 분포는 50만~100만 원 미만 29.6%, 50만 원 미만 25.7%, 100만~150만 원 미만 18.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은 109만 원, 남성은 103만 원으로 여성의 생활비 지출이 더 높게 나타남
- 연령과 학력이 높을수록 본인의 월 생활비 지출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가구유형에 따른 본인의 월 생활비 지출은 유자녀 부부가구가 143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부모동거 가구가 77만 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부모동거 가구 청년의 생활비가 비교적 낮게 나타난 것은 연령이 낮고, 부모의 소득과 지원으로 생활비의 상당 부분이 해결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경제활동 상태에 따른 본인의 월 생활비 지출은 취업자가 119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재학생이 68만 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2-5-9] 본인 월생활비

[단위: 만 원, %]

구분		금액		분포					
		평균	중위수	50만 원 미만	50만~100만 원 미만	100만~150만 원 미만	150만~200만 원 미만	200만~300만 원 미만	300만 원 이상
전체(n=5,149) ¹⁾		106	83	25.7	29.6	18.1	12.2	10.8	3.7
성별	남성	103	83	27.7	30.0	17.4	11.1	10.2	3.7
	여성	109	83	23.9	29.2	18.8	13.2	11.3	3.7
연령	18~19세	63	42	56.7	27.7	7.1	2.0	3.1	3.4
	20~24세	72	58	39.3	37.0	13.5	5.6	3.2	1.4
	25~29세	108	83	21.4	30.0	22.0	13.7	9.8	3.1
	30~35세	141	125	13.3	23.1	19.6	17.9	19.7	6.4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81	60	38.7	32.7	13.3	7.4	5.5	2.4
	전문대 졸업	104	83	24.1	29.9	19.8	12.9	11.5	1.9
	대학교 졸업	125	100	15.9	27.9	21.1	15.6	14.5	5.0
	대학원 졸업	139	125	14.4	19.7	24.7	17.2	17.1	7.0
가구 유형	1인가구	139	120	10.0	23.6	24.1	18.0	18.2	6.2
	무자녀 부부가구	138	125	11.7	26.1	20.2	18.6	18.1	5.3
	유자녀 부부가구	143	100	23.5	19.1	14.2	13.7	19.7	9.9
	부모동거 가구	77	60	38.5	34.4	14.0	7.3	4.4	1.4
	기타가구	100	83	23.0	34.8	19.7	12.1	7.7	2.7
경제 활동 상태	경제 활동	취업	119	100	19.3	28.6	19.4	14.8	13.6
		실업	85	67	34.2	32.0	17.5	7.8	6.6
	비경제 활동	재학	68	50	45.4	33.6	12.5	2.9	2.7
		비재학 미취업	86	67	35.5	29.9	16.6	9.5	6.3

주: 1) 전체 응답자 5,194명 중 결측값 45개를 제외하고 분석함

- 본인 생활비의 항목별 지출 비율을 살펴보면 식비가 38.4%로 가장 높았고, 주거비 12.4%, 의류/잡화비 12.1%, 문화여가비 9.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식비 비율이 가장 높고, 여성이 의류/잡화비 비율이 남성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에서 식비 비율이 가장 높고, 18~19세, 20~24세는 교육비와 문화 여가비, 25~29세, 30~35세는 주거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모든 학력 수준에서 식비 비율이 가장 높고, 학력이 높을수록 주거비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의류/잡화비 비율은 낮게 나타남
- 가구유형별로는 모든 가구유형에서 식비 비율이 가장 높고, 1인가구는 주거비 비율 22.2%로 다소 높게 나타남.
 - 부모동거 가구의 경우 주거비 비율이 4.9%로 상당히 낮고 의류 잡화비 14.0%, 문화 여가비 11.1%로 나타나는데, 이는 연령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서도 식비 비율이 가장 높고, 재학생의 경우 주거비 비율이 8.1%로 상대적으로 낮고 문화 여가비 비율이 12.2%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2-5-10] 본인 생활비 항목별 지출 비율

[단위: %]

구분		생활비 지출 항목									
		식비	주거	의류/잡화	교통	통신	교육	양육	의료	문화여가	기타
전체(n=5,194)		38.4	12.4	12.1	8.1	5.6	5.3	0.8	3.7	9.2	4.3
성별	남성	38.3	12.7	10.9	8.4	6.0	5.3	0.7	3.3	9.4	5.1
	여성	38.6	12.1	13.2	7.8	5.2	5.3	0.9	4.1	9.1	3.5
연령	18~19세	36.5	4.0	13.3	10.1	4.9	10.4	0.7	2.5	12.6	5.1
	20~24세	39.3	8.4	13.2	8.5	5.3	6.7	0.3	3.0	11.4	3.9
	25~29세	38.6	14.1	12.1	7.7	5.9	4.9	0.4	3.8	8.7	3.9
	30~35세	37.9	15.6	11.0	7.8	5.5	3.7	1.7	4.5	7.3	4.9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38.3	9.1	12.5	8.5	5.8	6.8	0.7	3.1	10.5	4.6
	전문대 졸업	38.7	13.0	12.2	8.4	5.9	3.8	0.8	4.1	8.9	4.2
	대학교 졸업	38.2	15.0	11.8	7.6	5.3	4.5	0.9	4.1	8.4	4.2
	대학원 졸업	40.9	15.3	11.3	7.6	4.7	4.7	1.1	3.8	7.6	2.9
가구유형	1인가구	36.9	22.2	10.0	6.7	4.8	3.9	0.1	3.6	7.3	4.4
	무자녀 부부가구	40.4	16.6	11.2	7.5	5.0	2.8	0.1	4.6	7.5	4.1
	유자녀 부부가구	37.7	13.6	8.7	6.5	5.3	3.7	11.9	3.7	5.5	3.4
	부모동거 가구	39.1	4.9	14.0	9.3	6.2	6.9	0.4	3.7	11.1	4.3
	기타가구	39.4	15.9	11.1	7.3	5.5	4.5	0.2	3.5	8.6	4.0
경제활동상태	경제활동	취업	38.2	13.5	12.4	8.1	5.4	4.3	0.7	4.0	4.6
		실업	38.8	11.8	11.7	8.1	5.8	7.0	0.6	3.7	3.8
	비경제활동	재학	38.0	8.1	12.6	8.6	5.0	9.4	0.4	2.4	12.2
		비재학 미취업	39.6	11.3	10.8	7.5	6.5	6.3	1.8	3.5	4.0

- 2020년 1년 동안 생활비 부족을 경험한 경우는 47.3%로 나타남
- 성별로는 여성은 51.0%, 남성은 43.5%로 여성이 남성보다 생활비 부족을 경험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생활비 부족 경험을 살펴보면 25~29세가 50.1%로 가장 높았고, 18~19세가 37.8%로 가장 낮게 나타남
- 학력별로 생활비 부족 경험을 살펴보면 전문대 졸업이 52.9%로 가장 높았고 대학원 졸업이 44.8%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가구유형에 따른 생활비 부족 경험을 살펴보면 기타 가구가 57.5%로 가장 높았고, 무자녀 부부가구가 40.4%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서 생활비 부족 경험을 살펴보면 실업자가 59.5%로 가장 높았고, 재학생이 39.9%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2-5-11] 2020년 1년 동안 생활비 부족 경험

[단위: %]

구분			있다	없다
전체(n=5,194)			47.3	52.7
성별	남성		43.5	56.5
	여성		51.0	49.0
연령	18~19세		37.8	62.3
	20~24세		45.5	54.5
	25~29세		50.1	49.9
	30~35세		47.7	52.4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46.8	53.2
	전문대 졸업		52.9	47.1
	대학교 졸업		46.5	53.5
	대학원 졸업		44.8	55.2
가구유형	1인가구		54.0	46.0
	무자녀 부부가구		40.4	59.6
	유자녀 부부가구		53.8	46.2
	부모동거 가구		41.9	58.1
	기타가구		57.5	42.5
경제활동상태	경제 활동	취업	46.8	53.2
		실업	59.5	40.5
	비경제활동	재학	39.9	60.1
		비재학 미취업	48.4	51.6

- 생활비 부족 시 해결 방법 1순위는 부모에게 무상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가 28.8%로 가장 높았고, 부모에게 빌린 경우 17.3%, 은행 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 이용 16.2% 저축이나 적금의 해약 13.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생활비 부족 시 해결방법 2순위는 부모에게 빌려 해결하는 경우가 21.8%로 가장 높

있고, 저축이나 예금이나 적금의 해약 21.2%, 부모님에게 무상으로 지원을 받음 13.1%, 친구나 이웃에게 빌림 13.0%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2-5-12] 생활비 부족 시 해결방법

[단위: %]

구분	1순위 (n=2,467) ¹⁾	2순위 (n=1,419) ²⁾
은행 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 이용	16.2	7.6
현금서비스 이용	3.1	4.1
부모님에게 무상으로 지원을 받음	28.8	13.1
부모에게 빌림	17.3	21.8
친척이나 친지에게 빌림	1.0	3.3
친구나 이웃에게 빌림	3.2	13.0
사채이용	0.1	0.4
부동산매각이나 전세금 인상	0.0	0.4
전세나 월세의 규모를 줄임	0.9	1.0
저축이나 예금이나 적금의 해약	13.7	21.2
주식이나 채권을 비롯한 금융자산 매각	1.9	7.8
자동차나 내구재 또는 금·은 등의 귀중품 매각	0.5	2.4
기타	3.5	3.8
해결하지 못함	9.9	0.0

주: 1) 전체 응답자 중 생활비 부족 경험이 있는 2,467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2) 생활비 부족 경험이 있는 2,467명 중 2순위 응답자 1,419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 생활비 부담이 가장 큰 항목 1순위는 주거비가 18.9%로 가장 높았고, 외식비 16.7%, 가정내 식료품비 16.5%, 사교육비, 자기계발비 8.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생활비 부담이 가장 큰 항목 2순위는 외식비가 16.0%로 가장 높았고, 주거비 12.5%, 가정내 식료품비 11.9%, 문화사교비 8.9%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2-5-13] 생활비 부담이 가장 큰 항목

[단위: %]

구분	1순위 (n=5,194)	2순위 (n=4,022) ¹⁾
가정내 식료품비	16.5	11.9
외식비	16.7	16.0
의료비	3.4	5.2
공교육비	1.3	1.1
사교육비, 자기계발비	8.6	8.5
주거비(월세, 관리비 등)	18.9	12.5
각종 빚(채무)의 원리금 상환	4.6	5.7
교통비(대중교통 이용, 자동차 유지비용)	2.0	5.8
경조사비	1.2	3.0
통신비(휴대폰, 인터넷)	2.4	5.7
사회보험료	0.7	1.6
주택마련자금	5.3	6.8
가족이나 친지 보조(같이 살고 있지 않은 부모님, 가족을 위해 지출한 비용)	0.7	2.0
세금이나 공과금	1.9	4.7
문화사교비	4.3	8.9
기타	0.5	0.7
부담되는 경우가 없다	11.0	0.0

주: 1) 2순위 응답자 4,022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 생활비 부담이 가장 큰 항목 1순위를 성별, 연령, 학력, 가구유형,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서 살펴봄
- 성별에 따라서는 식비를 제외하고 남성과 여성 모두 주거비가 각각 17.7%, 20.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이 낮을수록 문화사교비 부담이 크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 학력이 높을수록 부담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고, 주거비와 채무상환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 가구유형별로는 식비 부담이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부모동거 가구는 부담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16.5%로 다소 높고, 1인가구는 주거비 부담이 크다고 응답한 비율이 37.5%로 다소 높게 나타남.
 - 주택마련 부담의 경우 무자녀 부부가구가 15.1%, 유자녀 부부가구가 11.3%로 다소 높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별로는 식비 부담이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재학생의 경우 주거비 부담이 크다고 응답한 비율이 10.6%로 상대적으로 낮고, 교육비 부담이 크다고 응답한 비율이 17.9%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2-5-14] 생활비 부담이 가장 큰 항목(1순위)

[단위: %]

구분		부담 없음	식비 ¹⁾	의료 비	교육 비 ²⁾	주거 비	채무 상환	교통 비	통신 비	주택 마련	문화 사교 비	기타 ³⁾
전체(n=5,194)		11.0	33.3	3.4	9.9	18.9	4.6	2.0	2.4	5.3	4.3	5.0
성 별	남성	12.9	34.8	2.4	8.2	17.7	4.9	2.3	2.4	5.8	4.4	4.3
	여성	9.2	31.8	4.3	11.5	20.0	4.3	1.7	2.4	4.8	4.3	5.7
연 령	18~19세	17.9	39.2	1.3	21.5	3.9	0.4	2.5	2.6	1.3	6.4	3.3
	20~24세	15.3	34.7	2.9	16.5	11.3	0.8	3.3	3.0	2.0	7.8	2.5
	25~29세	10.1	33.1	3.4	7.8	23.2	4.9	1.2	2.3	4.9	3.7	5.4
	30~35세	7.0	31.2	4.2	4.3	23.4	8.4	1.7	1.9	9.4	1.6	7.0
학 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4.2	36.1	3.0	13.8	12.0	3.0	2.2	3.2	2.7	6.3	3.5
	전문대 졸업	10.7	32.9	4.2	5.2	20.2	5.8	2.7	3.0	6.5	3.1	5.8
	대학교 졸업	8.5	30.6	3.5	8.3	23.9	5.8	1.7	1.6	7.0	3.0	6.1
	대학원 졸업	8.3	34.8	2.9	5.0	26.2	4.3	1.4	0.7	7.7	3.0	5.6
가 구 유 형	1인가구	5.0	32.4	2.6	4.6	37.5	4.4	1.1	0.9	4.9	3.1	3.7
	무자녀 부부가구	5.2	32.2	2.8	1.8	21.5	10.8	1.2	0.0	15.1	1.2	8.2
	유자녀 부부가구	7.3	32.5	1.3	6.3	21.5	7.9	0.4	0.4	11.3	0.5	10.7
	부모동거 가구	16.5	33.7	4.3	14.9	4.8	3.8	2.9	3.9	3.9	6.2	5.2
	기타가구	7.4	36.5	2.9	8.7	28.6	4.0	1.5	2.1	3.7	1.9	2.9
경 제 활 동 상 태	경제 활동	취업	10.7	32.4	3.4	7.3	20.8	5.5	2.0	1.9	6.5	5.7
		실업	8.7	33.4	4.2	14.0	17.7	3.6	3.5	3.3	2.8	3.9
	비경제 활동	재학	14.5	38.3	1.6	17.9	10.6	0.5	2.0	2.3	1.5	7.7
		비재학 미취업	11.3	33.4	4.1	13.3	16.8	4.0	1.4	3.8	4.0	4.0

주: 1) '가정내 식료품비', '외식비' 합산 비율

2) 공교육비, '사교육비, 자기계발비' 합산 비율

3) '경조사비', '사회보험료', '가족이나 친지보조', '세금이나 공과금', '기타' 합산 비율

- 생활비 부담이 가장 큰 항목 2순위를 성별, 연령, 학력, 가구유형,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서 살펴봄
- 성별로는 식비와 주거비를 제외하고 여성의 경우 의료비 부담이 크다고 응답한 비율이 6.5%로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이 낮을수록 교육비와 문화사교비 부담이 크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식비 부담이 크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학력이 높을수록 주택마련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 가구유형별로는 식비 부담이 크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부모동거 가구는 주거비 부담이 크다고 응답한 비율이 6.4%로 낮고, 교육비가 12.0%, 문화사교비가 14.4%로 다소 높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별로는 식비 부담이 크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실업자와 재학생의 경우 교육비 부담이 크다고 응답한 비율이 16%대로 다소 높게 나타남

[표 2-5-15] 생활비 부담이 가장 큰 항목(2순위)

[단위: %]

구분		부담 없음	식비 ¹⁾	의료 비	교육 비 ²⁾	주거 비	채무 상환	교통 비	통신 비	주택 마련	문화 사교 비	기타 ³⁾
전체(n=4,022) ⁴⁾		0.0	27.9	5.2	9.6	12.5	5.7	5.8	5.7	6.8	8.9	11.9
성 별	남성	0.0	27.8	3.8	9.0	13.0	5.7	5.6	6.7	7.6	9.2	11.8
	여성	0.0	28.1	6.5	10.1	12.0	5.8	5.9	4.9	6.2	8.6	12.0
연 령	18~19세	0.0	21.5	6.0	20.8	4.4	0.5	15.0	3.1	3.6	21.3	3.8
	20~24세	0.0	27.2	5.4	13.7	9.4	2.1	8.4	8.0	3.7	14.9	7.3
	25~29세	0.0	30.8	5.0	9.0	13.2	5.2	3.8	6.4	7.2	7.2	12.3
	30~35세	0.0	26.4	5.2	5.3	15.5	10.0	4.3	3.7	9.4	3.9	16.3
학 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0.0	27.7	4.2	14.0	9.2	3.2	7.9	7.7	4.3	13.6	8.3
	전문대 졸업	0.0	25.8	6.4	8.3	13.1	7.7	4.7	7.7	6.4	5.8	14.0
	대학교 졸업	0.0	28.7	5.8	6.5	15.0	7.1	4.6	3.8	8.7	6.2	13.8
	대학원 졸업	0.0	28.4	4.7	8.0	12.5	7.4	3.3	3.1	10.7	5.7	16.2
가 구 유 형	1인가구	0.0	32.3	5.0	8.0	18.2	6.5	3.7	3.9	6.8	5.1	10.5
	무자녀 부부가구	0.0	24.5	5.6	3.1	20.1	10.1	3.0	1.3	12.1	2.5	17.6
	유자녀 부부가구	0.0	29.3	1.8	9.0	11.9	13.2	2.6	4.5	10.8	0.6	16.5
	부모동거 가구	0.0	24.7	5.7	12.0	6.4	3.5	8.3	7.9	5.7	14.4	11.4
	기타가구	0.0	29.5	4.9	8.9	15.7	6.6	4.5	5.7	5.9	4.8	13.4
경 제 활 동 상 태	경제 활동	취업	0.0	27.4	5.6	6.8	13.4	7.1	5.7	5.2	8.1	13.6
		실업	0.0	28.7	4.9	16.1	10.6	3.2	5.0	7.7	4.3	10.2
	비경 제 활 동	재학	0.0	29.9	4.6	16.5	7.9	1.0	8.3	5.2	2.7	18.4
		비재학 미취업	0.0	28.5	4.3	13.7	12.5	4.3	4.9	7.4	5.2	9.5

주: 1) '가정내 식료품비', '외식비' 합산 비율

2) 공교육비, '사교육비, 자기계발비' 합산 비율

3) '경조사비', '사회보험료', '가족이나 친지보조', '세금이나 공과금', '기타' 합산 비율

4) 2순위 응답자 4,022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 1인 적정 월평균 생활비는 평균 212만 원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 1인 적정 월평균 생활비를 살펴보면 남성은 238만 원, 여성은 187만 원으로 남성이 더 높았고 실제 생활비와의 차이도 남성이 135만 원으로 더 크게 나타남
- 연령에 따라서 1인 적정 월평균 생활비를 살펴보면 18~19세가 253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20~24세가 188만 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실제 생활비와의 차이도 18~19세가 190만 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남
- 학력별로 1인 적정 월평균 생활비를 살펴보면 대학원 졸업이 221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전문대 졸업이 205만 원으로 가장 낮았으나 실제 생활비와의 차이는 18~19세가 130만 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남
- 가구유형별로 1인 적정 월평균 생활비를 살펴보면 기타 가구가 267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유자녀 부부가구가 208만 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실제 생활비와의 차이도 기타 가구가 167만 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별로 1인 적정 월평균 생활비를 살펴보면 취업자가 217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실업자와 비재학 미취업자가 200만 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실제 생활비와의 차이는 재학생이 142만 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남

[표 2-5-16] 1인 적정 월평균 생활비

[단위: 만 원]

구분			실제 본인 생활비(A)	1인 적정 생활비(B)	차이(B-A)
전체(n=5,149) ¹⁾			106	212	106
성별	남성		103	238	135
	여성		109	187	78
연령	18~19세		63	253	190
	20~24세		72	188	116
	25~29세		108	204	96
	30~35세		141	235	94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81	211	130
	전문대 졸업		104	205	101
	대학교 졸업		125	214	89
	대학원 졸업		139	221	82
가구유형	1인가구		139	219	80
	무자녀 부부가구		138	246	108
	유자녀 부부가구		143	208	65
	부모동거 가구		77	196	119
	기타가구		100	267	167
경제활동상태	경제활동	취업	119	217	98
		실업	85	200	115
	비경제활동	재학	68	210	142
		비재학 미취업	86	200	114

주: 1) 전체 응답자 5,144명 중 결측값 45개를 제외하고 분석함

3) 자산

(1) 재산

- 재산 총액은 평균 6,297만 원으로 나타났고 재산총액을 구간을 나누어 살펴보면 1,000만 원 미만이 49.4%로 가장 높았고, 1,000만~5,000만 원 미만 28.0%, 1억~5억 미만 10.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 재산 총액을 살펴보면 남성 6,606만 원, 여성 6,002만 원으로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남
- 연령과 학력이 높을수록 재산 총액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가구유형에 따라서 재산 총액을 살펴보면 유자녀 부부가구가 24,629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부모동거 가구가 3,360만 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별로 재산 총액을 살펴보면 취업자가 7,862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재학생이 2,038만 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2-5-17] 본인 재산 금액 및 분포

[단위: 만 원, %]

구분		총액	1,000만 원 미만	1,000만~5,000만 원 미만	5,000만~1억 원 미만	1억~5억 원 미만	5억~1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
전체(n=5,194)		6,297	49.4	28.0	9.2	10.0	2.2	1.2
성별	남성	6,606	51.7	26.0	8.8	9.6	2.5	1.4
	여성	6,002	47.2	30.0	9.6	10.3	1.9	1.0
연령	18~19세	954	89.6	8.5	0.8	0.6	0.3	0.3
	20~24세	1,250	72.2	23.5	2.6	1.4	0.1	0.2
	25~29세	4,410	46.2	34.7	9.7	7.5	1.5	0.5
	30~35세	13,792	25.5	28.3	16.0	22.0	5.3	3.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333	70.5	20.9	3.5	4.0	0.8	0.4
	전문대 졸업	4,528	47.0	32.8	9.4	8.7	1.8	0.3
	대학교 졸업	9,767	33.5	32.8	13.2	15.1	3.3	2.0
	대학원 졸업	12,061	26.0	30.7	18.7	15.9	6.1	2.6
가구 유형	1인가구	5,253	44.9	31.8	10.3	10.7	1.9	0.5
	무자녀 부부가구	20,275	21.0	23.4	11.9	29.3	10.1	4.4
	유자녀 부부가구	24,629	23.2	19.8	10.6	28.1	11.7	6.7
	부모동거 가구	3,360	57.9	27.1	8.2	5.5	0.5	0.7
	기타가구	7,514	52.7	26.9	8.1	8.7	2.4	1.3
경제 활동 상태	경제 활동	취업	7,862	39.6	31.9	11.2	13.1	2.7
	실업	2,334	65.8	25.4	5.4	2.0	1.4	0.0
	비경제 활동	재학	2,038	77.7	15.9	3.0	2.2	0.7
	비재학 미취업	4,662	62.6	21.4	6.9	6.4	1.6	1.1

- 항목별 재산 금액을 살펴보면 소유부동산이 평균 3,782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 자산, 전세금 및 임대보증금, 가상화폐 순으로 나타남

- 소유 부동산 금액은 평균 3,782만 원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 소유부동산 금액을 살펴보면 남성은 4,096만 원, 여성은 3,481만 원으로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남
- 연령과 학력이 높을수록 소유부동산 금액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가구유형에 따른 소유부동산 금액은 유자녀 부부가구가 19,222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부모동거 가구가 1,459만 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무자녀 부부가구도 14,532만 원으로 높은 편인데 이는 결혼을 위해 주택을 구입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서 소유부동산 금액을 살펴보면 취업자가 4,683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재학생이 1,068만 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전세금 및 임대보증금 금액은 평균 196만 원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 전세금 및 임대보증금의 금액을 살펴보면 남성은 219만 원, 여성은 174만 원으로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남
- 연령이 높을수록 전세금 및 임대보증금 금액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학력별로 전세금 및 임대보증금 금액을 살펴보면 대학교 졸업이 385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대학원 졸업이 40만 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가구유형에 따라서 전세금 및 임대보증금 금액을 살펴보면 무자녀 부부가구가 754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부모동거 가구가 50만 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가구유형에 따라서 금액의 편차가 크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서 전세금 및 임대보증금 금액을 살펴보면 취업자가 260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재학생이 0.2만 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취업자와 미취업자의 금액 차이가 다소 크게 나타남
- 금융재산 금액은 평균 2,229만 원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 금융재산 금액을 살펴보면 여성은 2,301만 원, 남성은 2,154만 원으로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남
- 연령과 학력이 높을수록 금융재산 금액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가구유형에 따라서 금융재산 금액을 살펴보면 유자녀 부부가구가 4,862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부모동거 가구가 1,759만 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기혼 가구가 미혼 가구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음
-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서 금융재산 금액을 살펴보면 취업자가 2,822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재학생이 776만 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가상화폐 재산 금액은 평균 98만 원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 가상화폐 재산 금액을 살펴보면 남성은 147만 원, 여성은 51만 원으로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남성이 여성보다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해석됨

- 연령이 높을수록 가상화폐 재산 금액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학력에 따라서 가상화폐 금액을 살펴보면 대학원 졸업이 160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전문대 졸업이 57만 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고졸 이하 및 전문대 졸업과 대학교 졸업 및 대학원 졸업 간의 금액 차이가 크게 나타남
- 가구유형에 따라서 가상화폐 금액을 살펴보면 무자녀 부부가구가 188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기타 가구가 66만 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서 가상화폐 금액을 살펴보면 재학생이 196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비재학 미취업자가 29만 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2-5-18] 재산 항목별 금액

[단위: 만 원]

구분			총액	소유부동산 (n=5,185)	전세금 및 임대보증금 (n=5,190)	금융재산 (n=5,193)	가상화폐 (n=5,193)
전체(n=5,194)			6,297	3,782	196	2,229	98
성별	남성		6,606	4,096	219	2,154	147
	여성		6,002	3,481	174	2,301	51
연령	18~19세		954	571	2	357	28
	20~24세		1,250	406	4	778	64
	25~29세		4,410	2,161	163	1,996	92
	30~35세		13,792	9,115	436	4,099	148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333	1,323	58	893	63
	전문대 졸업		4,528	2,532	51	1,888	57
	대학교 졸업		9,767	5,954	385	3,300	134
	대학원 졸업		12,061	7,516	40	4,345	160
가구 유형	1인가구		5,253	2,833	223	2,105	92
	무자녀 부부가구		20,275	14,532	754	4,801	188
	유자녀 부부가구		24,629	19,222	542	4,862	74
	부모동거 가구		3,360	1,459	50	1,759	97
	기타가구		7,514	4,977	408	2,084	66
경제 활동 상태	경제 활동	취업	7,862	4,683	260	2,822	107
		실업	2,334	1,204	82	1,019	33
	비경제 활동	재학	2,038	1,068	0.2	776	196
		비재학 미취업	4,662	3,168	121	1,348	29

- 자동차 보유 대수를 살펴보면 자동차가 없는 경우가 86.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대 12.6%, 2대 0.6%, 3대 0.0%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자동차가 없는 경우는 여성은 91.0%, 남성은 82.4%로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남
- 연령에 따라서 자동차가 없는 경우는 20~24세가 96.7%로 가장 높았고, 30~35세가 72.7%로 가장 낮게 나타남
- 학력이 높을수록 자동차가 없는 경우가 낮게 나타남

- 가구유형별로 자동차가 없는 경우는 부모동거 가구가 91.6%로 가장 높았고, 유자녀 부부가구가 55.6%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별로 자동차가 없는 경우는 재학생이 96.7%로 가장 높았고, 취업자가 83.5%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2-5-19] 자동차 보유 대수

[단위: %]

구분			없음(0대)	1대	2대	3대
전체(n=5,194)			86.8	12.6	0.6	0.0
성별	남성		82.4	16.7	0.9	0.0
	여성		91.0	8.7	0.3	0.0
연령	18~19세		96.4	3.3	0.4	0.0
	20~24세		96.7	3.0	0.3	0.0
	25~29세		90.1	9.3	0.6	0.1
	30~35세		72.7	26.4	0.9	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92.6	6.7	0.6	0.0
	전문대 졸업		85.7	13.9	0.5	0.0
	대학교 졸업		82.9	16.6	0.4	0.1
	대학원 졸업		77.1	21.1	1.9	0.0
가구 유형	1인가구		87.5	12.1	0.4	0.0
	무자녀 부부가구		65.0	34.0	1.0	0.0
	유자녀 부부가구		55.6	41.4	3.1	0.0
	부모동거 가구		91.6	7.9	0.5	0.0
	기타가구		89.8	9.9	0.3	0.0
경제 활동 상태	경제활동	취업	83.5	15.8	0.7	0.0
		실업	93.0	7.0	0.0	0.0
	비경제활동	재학	96.7	2.9	0.4	0.0
		비재학 미취업	90.7	8.6	0.6	0.0

(2) 재테크

- 재테크를 하고 있는 응답자는 전체 중 47.4%로 나타남
-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재테크를 하고 있는 경우는 모두 47%로 동일하게 나타남
- 연령과 학력이 높을수록 재테크를 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가구유형에 따라서는 무자녀 부부가구가 63.4%로 재테크를 하고 있는 경우가 가장 높았고, 부모동거 가구가 43.3%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서는 취업자가 55.3%로 재테크를 하고 있는 경우가 가장 높았고, 재학생이 29.8%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재테크를 하는 경우 재테크의 수단을 살펴보면 예금 및 적금이 39.1%로 가장 높았고, 주식/펀드 38.4%, 가상화폐 10.6% 등의 순서로 나타남

- 성별로는 재테크 수단으로 남성은 주식/펀드가 38.8%로 가장 높았고, 여성은 예금 및 저축이 41.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이 높아질수록 재테크 수단으로 예금 및 적금이나 가상화폐를 활용하는 비율이 낮고 반면, 저축성 보험을 활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학력에 따라서 재테크 수단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 이하(40.0%), 전문대 졸업(40.9%), 대학교 졸업(38.4%)은 예금 및 적금을 활용하는 경우가 가장 높았고, 대학원 졸업은 주식/펀드를 활용하는 비율이 40.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가구유형에 따라서 재테크 수단을 살펴보면 1인가구(39.5%), 무자녀 부부가구(37.3%), 부모동거 가구(39.8%)는 예금 및 적금을 활용하는 경우가 가장 높고, 유자녀 부부가구(37.2%)와 기타가구(40.4%)는 주식/펀드를 활용하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서 재테크 수단을 살펴보면 취업자는 예금 및 적금을 활용하는 경우가 39.2%로 가장 높고 실업자(39.7%), 재학생(45.3%), 비재학 미취업자(41.3%)는 주식/펀드를 활용하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남

[표 2-5-20] 자산형성을 위한 재테크 여부 및 수단

[단위: %]

구분			재테크 여부		재테크 수단(n=2,463) ¹⁾					
			하고 있음	하지 않음	예금 및 적금	저축성 보험	부동산 투자	주식/ 펀드	가상 화폐	기타
전체(n=5,194)			47.4	52.6	39.1	7.9	3.4	38.4	10.6	0.6
성별	남성		47.5	52.5	36.4	6.9	3.8	38.8	13.3	0.7
	여성		47.4	52.6	41.5	8.9	3.0	38.1	8.1	0.5
연령	18~19세		15.3	84.7	45.6	1.2	0.0	36.1	15.6	1.6
	20~24세		35.8	64.2	40.8	3.9	0.9	42.1	11.3	0.9
	25~29세		51.4	48.6	39.7	7.7	2.8	38.5	10.7	0.5
	30~35세		59.1	40.9	37.5	10.2	5.2	36.8	9.9	0.4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33.7	66.3	40.0	5.4	1.7	39.6	12.4	1.0
	전문대 졸업		45.6	54.4	40.9	9.0	1.7	37.5	9.9	1.0
	대학교 졸업		58.7	41.3	38.4	8.9	4.4	37.9	10.0	0.3
	대학원 졸업		62.8	37.2	38.2	7.8	4.2	40.0	9.6	0.3
가구 유형	1인가구		50.2	49.8	39.5	7.5	3.7	38.0	11.0	0.3
	무자녀 부부가구		63.4	36.6	37.3	8.1	6.9	36.8	10.4	0.5
	유자녀 부부가구		53.5	46.5	35.6	13.8	6.5	37.2	6.2	0.7
	부모동거 가구		43.3	56.7	39.8	7.7	1.8	39.0	10.8	0.9
	기타가구		45.7	54.3	37.5	6.3	4.8	40.4	10.8	0.3
경제 활동 상태	경제 활동	취업	55.3	44.7	39.2	8.8	3.8	37.4	10.3	0.5
		실업	34.4	65.6	39.5	5.3	1.6	39.7	13.3	0.7
	비경제 활동	재학	29.8	70.2	37.3	2.4	1.3	45.3	12.4	1.2
		비재학 미취업	33.2	66.8	39.5	6.0	2.4	41.3	10.2	0.6

주: 1) 복수응답

- 재테크를 하는 응답자의 재테크 목적은 1순위는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가 28.7%로 가장 높았고, 주택마련 24.3%, 생활비 마련 18.7%, 결혼 준비 9.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재테크를 하는 응답자의 재테크 목적은 2순위는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가 26.3%로 가장 높았고, 노후 대비를 위해서 19.6%, 주택 마련 19.4%,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9.3%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2-5-21] 재테크 목적

[단위: %]

구분	1순위 (n=2,451) ¹⁾	2순위 (n=2,139) ²⁾
대학, 대학원 등 교육비 마련	2.9	1.4
생활비 마련	18.7	7.5
결혼 준비	9.8	8.8
주택 마련	24.3	19.4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28.7	26.3
노후 대비를 위해	9.1	19.6
여가/취미생활을 위해	2.8	7.3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3.4	9.3
기타	0.3	0.4

주: 1) 재테크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2,451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2) 2순위 응답자 2,139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 재테크 목적 1순위를 성별, 연령, 학력, 가구유형,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살펴봄
- 성별에 따라서 재테크 목적 1순위를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경제적 자유가 28%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남성은 결혼 준비가 12.2%로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재테크 목적 1순위를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경제적 자유를 위해 재테크를 하는 경우가 낮게 나타났고 반면, 주택마련을 위해 재테크를 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학력이 높을수록 주택마련을 위해 재테크를 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가구유형에 따라서 재테크 목적 1순위를 살펴보면 1인가구(27.1%)와 부모동거 가구(29.8%), 기타가구(28.4%)는 경제적 자유를 위해 재테크를 하는 경우가 가장 높았고 반면, 무자녀 부부가구(37.9%)와 유자녀 부부가구(31.5%)는 주택마련을 위해 재테크를 하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서 재테크 목적 1순위를 살펴보면 취업자(29.4%)와 재학생(31.6%)은 경제적 자유를 위해 재테크를 하는 경우가 가장 높았고 반면, 실업자(30.3%)와 비재학 미취업자(27.2%)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재테크를 하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남

[표 2-5-22] 재테크 목적(1순위)

[단위: %]

구분			교육 비	생활 비	결혼 준비	주택 마련	경제 적 자유	노후 대비	여가 취미	불안 감	기타
전체(n=2,451) ¹⁾			2.9	18.7	9.8	24.3	28.7	9.1	2.8	3.4	0.3
성별	남성		2.5	18.7	12.2	25.3	28.9	6.5	2.6	3.0	0.4
	여성		3.3	18.8	7.5	23.3	28.6	11.5	2.9	3.8	0.2
연령	18~19세		16.4	18.4	0.0	12.8	31.6	3.9	9.7	7.1	0.0
	20~24세		5.0	21.5	5.0	20.6	30.3	5.2	6.6	5.1	0.8
	25~29세		2.1	19.4	11.3	23.9	29.2	8.3	2.1	3.7	0.2
	30~35세		1.9	16.6	11.4	27.2	27.3	12.2	1.1	2.1	0.1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4.6	23.7	5.6	18.6	29.7	6.5	5.9	4.9	0.6
	전문대 졸업		2.2	18.2	12.4	25.8	25.0	9.9	1.5	4.6	0.4
	대학교 졸업		2.4	16.5	11.1	26.6	28.9	10.2	1.6	2.6	0.1
	대학원 졸업		1.7	16.7	12.0	27.1	30.0	9.5	1.2	1.1	0.7
가구 유형	1인가구		1.7	21.1	9.7	24.3	27.1	10.0	2.4	3.6	0.1
	무자녀 부부가구		1.9	14.1	3.4	37.9	31.2	8.7	0.9	1.9	0.0
	유자녀 부부가구		3.9	15.8	0.0	31.5	26.3	18.3	3.4	0.8	0.0
	부모동거 가구		3.8	17.4	11.9	21.7	29.8	7.2	3.7	3.9	0.5
	기타가구		3.4	23.7	12.0	18.7	28.4	10.7	0.0	3.2	0.0
경제 활동 상태	경제 활동	취업	2.5	15.9	11.1	26.1	29.4	9.4	2.4	2.9	0.3
		실업	2.2	30.3	8.7	20.7	22.5	8.1	2.2	5.3	0.0
	비경제 활동	재학	8.2	27.0	1.5	14.4	31.6	3.1	7.2	7.0	0.0
		비재학 미취업	3.3	27.2	6.6	19.6	25.4	10.8	2.9	3.9	0.4

주: 1) 재테크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2,451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 재테크 목적 2순위를 성별, 연령, 학력, 가구유형,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살펴봄
- 성별에 따라서 재테크 목적 2순위를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경제적 자유를 위해 재테크 하는 경우가 가장 높고, 남성은 주택마련이 22.6%, 여성은 노후대비가 22.7%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에 따라서 재테크 목적 2순위를 살펴보면 모든 연령에서 경제적 자유가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연령이 높을수록 주택마련을 위해 재테크를 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남
- 학력에 따른 재테크 목적 2순위도 마찬가지로 경제적 자유가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학력이 높을수록 주택마련을 위해 재테크를 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남
- 가구유형에 따라서 재테크 목적 2순위를 살펴보면 1인가구(25.2%)와 무자녀 부부가구(33.3%), 부모동거 가구(25.9%)는 경제적 자유를 위해 재테크를 하는 경우가 가장 높았고 반면, 유자녀 부부가구(35.1%)와 기타가구(21.3%)는 노후 대비를 위해 재테크를 하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서 재테크 목적 2순위를 살펴보면 모든 응답자들이 경제적 자유를 위해 재테크를 하는 경우가 가장 높은 가운데 재학생은 여가나 취미를 위해 재테크를 하는 경우가 22.3%로 다소 높게 나타남

[표 2-5-23] 재테크 목적(2순위)

[단위: %]

구분			교육 비	생활 비	결혼 준비	주택 마련	경제 적 자유	노후 대비	여가 취미	불안 감	기타
전체(n=2,139) ¹⁾			1.4	7.5	8.8	19.4	26.3	19.6	7.3	9.3	0.4
성별	남성		1.1	7.7	10.5	22.6	26.7	16.3	7.7	7.0	0.5
	여성		1.7	7.3	7.3	16.4	26.0	22.7	6.9	11.4	0.3
연령	18~19세		4.1	8.7	4.0	5.2	36.9	13.2	15.5	10.2	2.2
	20~24세		3.8	9.7	5.7	12.1	29.7	12.5	12.3	13.8	0.5
	25~29세		0.4	7.2	11.7	22.0	23.4	18.9	7.0	9.0	0.4
	30~35세		1.0	6.5	7.9	21.1	26.9	24.2	4.7	7.4	0.2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9	10.0	8.8	13.8	27.7	11.9	11.5	12.8	0.7
	전문대 졸업		1.1	4.7	8.3	18.9	24.8	25.0	6.7	10.1	0.3
	대학교 졸업		0.7	7.1	9.1	21.1	26.4	22.0	5.7	7.7	0.2
	대학원 졸업		1.6	5.4	8.0	27.5	23.7	21.2	5.0	7.0	0.6
가구 유형	1인가구		0.9	8.7	9.0	20.0	25.2	18.8	6.9	10.2	0.4
	무자녀 부부가구		1.2	7.5	0.5	15.5	33.3	32.5	2.6	6.9	0.0
	유자녀 부부가구		0.9	11.3	0.0	12.5	31.5	35.1	1.7	6.2	0.9
	부모동거 가구		1.9	5.9	11.4	20.7	25.9	15.8	8.7	9.5	0.3
	기타가구		1.5	9.0	8.7	17.1	21.2	21.3	11.3	9.3	0.6
경제 활동 상태	경제 활동	취업	1.4	6.6	9.1	20.6	26.1	20.5	6.2	9.2	0.3
		실업	0.7	11.2	8.2	18.5	30.5	19.4	3.6	6.9	0.9
	비경제 활동	재학	1.7	11.4	5.7	9.6	24.8	12.5	22.3	11.2	0.8
		비재학 미취업	1.6	9.0	9.3	16.5	26.9	17.5	8.5	10.2	0.5

주: 1) 2순위 응답자 2,139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 재테크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살펴보면 여유자금이 없는 경우가 46.8%로 가장 높았고, 관심 없음 25.8%, 방법과 정보를 몰라 시작 못함 21.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 재테크를 하지 않는 이유는 남성(48.5%)과 여성(45.1%) 모두 여유자금이 없어서 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이 낮을수록 재테크에 관심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여유자금이 없어 재테크를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학력이 높을수록 여유자금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고 관심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가구유형별로 재테크를 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 여유자금이 없어 재테크를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무자녀 부부가구(23.4%)와 부모동거 가구(22.4%)는 방법과 정보를 몰라 시작을 못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별로는 여유자금이 없어 재테크를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재학생은 관심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31.1%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2-5-24] 재테크를 하지 않는 이유

[단위: %]

구분		여유자금 없음	재테크 시도 후 실패	관심 없음	방법과 정보를 몰라 시작 못함	기타	
전체(n=2,743) ¹⁾		46.8	5.5	25.8	21.0	1.0	
성별	남성	48.5	6.1	27.7	16.7	1.1	
	여성	45.1	4.9	24.0	25.1	0.9	
연령	18~19세	34.0	2.7	35.4	27.5	0.4	
	20~24세	44.1	3.3	30.1	21.5	1.0	
	25~29세	50.9	6.9	21.9	19.4	0.9	
	30~35세	49.9	7.6	21.2	19.8	1.4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43.5	4.1	29.8	21.6	1.0	
	전문대 졸업	46.5	5.8	22.9	24.5	0.3	
	대학교 졸업	50.8	7.3	21.7	19.0	1.3	
	대학원 졸업	55.1	6.2	19.9	17.8	1.0	
가구 유형	1인가구	50.9	6.0	22.7	19.3	1.1	
	무자녀 부부가구	41.8	10.7	22.5	23.4	1.6	
	유자녀 부부가구	46.8	8.5	23.3	17.9	3.5	
	부모동거 가구	43.6	4.6	28.6	22.4	0.8	
	기타가구	57.0	4.7	20.7	17.6	0.0	
경제 활동 상태	경제 활동	취업	44.7	7.0	25.3	22.1	1.0
		실업	54.2	1.8	23.0	20.0	1.0
	비경제 활동	재학	44.5	2.6	31.1	21.1	0.8
		비재학 미취업	50.6	5.0	24.9	18.2	1.3

주: 1) 재테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2,743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3) 부채

- 부채를 보유한 응답자의 부채 총액은 평균 10,641만 원으로 나타났고, 부채 총액의 분포는 1억 원 이상이 39.4%로 가장 높았고, 1,000만~5,000만 원 미만 24.2%, 5,000만~1억 원 미만 17.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부채 총액을 살펴보면 여성은 10,698만 원, 남성은 10,581만 원으로 여성이 약간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부채 총액을 살펴보면 30~35세가 13,758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20~24세가 6,867만 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학력이 높을수록 부채 총액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가구유형별로 부채 총액을 살펴보면 유자녀 부부가구가 19,038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1인가구가 8,444만 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별로 부채 총액을 살펴보면 비재학 미취업자가 12,062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재학생이 6,888만 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일자리가 없는 비재학 미취업자의 부채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2-5-25] 부채 총액 및 분포

[단위: 만 원, %]

구분		총액	500만 원 미만	500만~1,000만 원 미만	1,000만~5,000만 원 미만	5,000만~1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전체(n=2,394) ¹⁾		10,641	12.4	6.7	24.2	17.4	39.4	
성별	남성	10,581	13.2	6.9	24.1	16.1	39.7	
	여성	10,698	11.7	6.5	24.2	18.6	39.1	
연령	18~19세	10,227	24.1	5.2	11.2	15.3	44.2	
	20~24세	6,867	27.6	11.5	24.7	13.7	22.5	
	25~29세	8,770	14.1	7.6	26.2	19.6	32.5	
	30~35세	13,758	4.5	4.1	22.8	16.9	51.7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8,534	21.9	8.5	26.1	12.9	30.7	
	전문대 졸업	9,005	12.0	8.2	26.5	18.0	35.3	
	대학교 졸업	11,969	8.0	5.4	22.2	20.2	44.2	
	대학원 졸업	13,253	4.9	5.6	25.6	13.9	50.1	
가구 유형	1인가구	8,444	10.6	5.3	25.4	25.5	33.1	
	무자녀 부부가구	18,280	2.3	3.3	7.1	15.8	71.5	
	유자녀 부부가구	19,038	1.5	2.0	11.0	9.9	75.7	
	부모동거 가구	8,653	19.4	9.7	30.4	11.3	29.2	
	기타가구	11,061	16.8	9.8	27.9	12.5	33.0	
경제 활동 상태	경제 활동	취업	10,937	10.6	6.2	23.3	18.9	40.9
	경제 활동	실업	7,724	16.3	8.0	28.2	18.2	29.4
	비경제 활동	재학	6,888	30.1	6.3	25.2	15.0	23.5
	비경제 활동	비재학 미취업	12,062	13.2	8.4	26.2	9.5	42.7

주: 1) 부채가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함

- 부채가 있는 경우 부채용도 1순위는 주택 관련 비용 마련이 57.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자금 마련 17.2%, 생활비 마련 14.9% 기타 4.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부채가 있는 경우 부채용도 2순위는 생활비 마련이 33.9%로 가장 높았고, 주택 관련 비용 마련 24.2%, 채무상환 11.9% 학자금 마련 10.0%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2-5-26] 부채용도

[단위: %]

구분	1순위 ¹⁾ (n=2,400)	2순위 ¹⁾ (n=766)
학자금 마련	17.2	10.0
생활비 마련(식비, 의료비)	14.9	33.9
주택관련 비용 마련(주택구입, 보증금, 임대료 등)	57.4	24.2
취업준비를 위한 학원, 자격증 취득 비용	1.2	8.7
창업자금 마련	1.9	3.7
채무상환	3.2	11.9
기타	4.3	7.6

주: 1) 부채가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함

- 부채용도 1순위를 성별, 연령, 학력, 가구유형,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살펴봄

- 성별에 따른 부채용도 1순위는 남성(56.1%)과 여성(58.6%) 모두 주택비용 마련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에 따라서 부채용도 1순위를 살펴보면 주택비용 마련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20~24세(26.0%)와 25~29세(20.7%)는 학자금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에 따른 부채용도 1순위도 주택비용 마련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학력이 낮을수록 생활비에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 가구유형에 따른 부채용도 1순위 역시 주택비용 마련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부모동거 가구의 부채용도 1순위는 학자금이 26.9%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에 따른 부채용도 1순위 역시 주택비용 마련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실업자(21.0%)와 재학생(19.8%)은 생활비에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2-5-27] 부채용도(1순위)

[단위: %]

구분			학자금	생활비	주택비용	취업학원 자격증	창업자금	채무상환	기타
전체(n=2,400) ¹⁾			17.2	14.9	57.4	1.2	1.9	3.2	4.3
성별	남성		16.8	15.1	56.1	1.7	2.3	3.4	4.7
	여성		17.7	14.8	58.6	0.7	1.5	3.0	3.9
연령	18~19세		12.3	13.5	68.1	0.0	4.2	0.0	1.9
	20~24세		26.0	18.3	46.3	2.0	0.5	3.0	3.9
	25~29세		20.7	16.7	50.1	1.6	1.9	3.3	5.8
	30~35세		11.1	12.2	67.5	0.5	2.3	3.3	3.3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7.5	21.3	47.4	2.3	2.5	4.6	4.5
	전문대 졸업		14.5	16.8	56.6	0.3	2.2	3.9	5.7
	대학교 졸업		16.9	11.7	62.9	0.9	1.6	2.3	3.9
	대학원 졸업		24.9	7.3	61.3	0.0	0.9	1.8	3.8
가구 유형	1인가구		15.2	13.6	62.6	1.1	1.5	2.8	3.2
	무자녀 부부가구		4.9	6.6	82.4	0.5	2.8	0.8	2.1
	유자녀 부부가구		2.5	9.5	82.7	0.0	0.8	2.0	2.5
	부모동거 가구		26.9	18.4	39.4	1.5	2.5	4.6	6.6
	기타가구		17.5	24.0	47.9	2.2	1.1	2.7	4.5
경제 활동 상태	경제 활동	취업	15.0	14.2	59.6	0.7	2.3	3.1	5.0
		실업	23.6	21.0	48.6	1.0	0.5	2.4	2.9
	비경제 활동	재학	27.9	19.8	44.6	1.7	0.9	1.5	3.5
		비재학 미취업	21.7	13.5	54.7	3.4	0.9	4.5	1.3

주: 1) 부채가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함

- 부채용도 2순위를 성별, 연령, 학력, 가구유형,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살펴봄
- 성별에 따른 부채용도 2순위는 남성(33.0%)과 여성(34.9%)로 모두 생활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택비용에 응답한 비율이 여성이 다소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부채용도 2순위를 살펴보면 18~19세는 주택비용에 응답한 비율이 46.6%로 가장 높았고, 나머지 연령대는 생활비가 가장 높게 나타남
- 가구유형별 부채용도 2순위를 살펴보면 무자녀 부부가구는 주택비용이 29.5%로 가장 높았고 나머지 가구유형은 생활비가 가장 높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별로 부채용도 2순위를 살펴보면 실업자는 주택비용이 35.6%로 가장 높았고 나머지는 생활비가 가장 높게 나타남

[표 2-5-28] 부채용도(2순위)

[단위: %]

구분		학자금	생활비	주택비용	취업학원 자격증	창업자금	채무상환	기타	
전체(n=766) ¹⁾		10.0	33.9	24.2	8.7	3.7	11.9	7.6	
성별	남성	10.7	33.0	20.9	9.4	5.1	12.1	8.9	
	여성	9.3	34.9	27.6	8.1	2.2	11.6	6.3	
연령	18~19세	9.3	29.5	46.6	9.1	5.5	0.0	0.0	
	20~24세	10.0	38.1	24.3	14.4	1.4	5.2	6.7	
	25~29세	11.3	35.4	23.2	9.6	2.2	13.1	5.2	
	30~35세	8.8	31.2	24.3	5.8	5.8	13.7	10.4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8.5	30.0	29.2	12.8	3.1	11.5	5.1	
	전문대 졸업	3.9	30.7	20.4	5.9	6.8	18.7	13.6	
	대학교 졸업	11.7	36.5	22.4	7.6	3.3	10.7	7.8	
	대학원 졸업	19.0	42.5	20.8	2.1	2.3	7.9	5.5	
가구 유형	1인가구	13.1	33.9	25.0	7.2	3.2	10.6	7.0	
	무자녀 부부가구	11.5	28.7	29.5	3.0	4.8	13.6	8.9	
	유자녀 부부가구	4.1	31.9	27.0	2.2	8.2	13.3	13.2	
	부모동거 가구	8.0	34.7	22.0	12.7	3.2	11.9	7.5	
	기타가구	6.1	37.0	23.1	8.9	3.5	16.3	5.2	
경제 활동 상태	경제 활동	취업	10.6	34.2	22.1	6.1	4.1	13.4	9.5
		실업	4.7	32.6	35.6	18.2	1.6	5.9	1.6
	비경제 활동	재학	17.5	32.9	30.0	15.3	0.0	2.3	2.0
		비재학 미취업	6.8	33.7	25.6	13.1	4.3	12.1	4.4

주: 1) 부채가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함

- 부채 원리금 상황이 부담된다고 응답한 경우는 69.7%로 나타남
- 성별로는 여성은 71.7%, 남성은 67.7%로 부채 원리금 상황에 대해 부담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원리금 상황이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18~19세가 79.1%로 가장 높았고, 25~29세가 68.2%로 가장 낮게 나타남
- 학력별로 원리금 상황이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71.9%로 가장 높았고, 대학교 졸업이 68.3%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가구유형별로 원리금 상황이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유자녀 부부가구가 79.3%로 가장 높았고, 기타 가구가 66.3%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별로 원리금 상황이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비재학 미취업자가 76.9%로 가장 높았고, 취업자가 68.1%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2-5-29] 부채 원리금 상황 부담 정도

[단위: %]

구분		부담			보통	부담 안됨		
			매우부담	다소부담			별로 부담안됨	전혀 부담안됨
전체(n=2,400) ¹⁾		69.7	19.3	50.5	17.7	12.6	9.5	3.1
성별	남성	67.7	18.8	48.9	18.2	14.2	10.4	3.8
	여성	71.7	19.7	52.0	17.2	11.1	8.8	2.3
연령	18~19세	79.1	3.8	75.4	14.2	6.7	3.8	2.9
	20~24세	68.3	13.6	54.6	16.7	15.0	11.3	3.7
	25~29세	68.2	21.1	47.0	17.4	14.5	11.1	3.4
	30~35세	71.2	20.5	50.7	18.5	10.3	7.8	2.5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71.9	19.2	52.7	16.7	11.4	8.7	2.6
	전문대 졸업	70.5	18.1	52.4	19.5	10.0	5.7	4.3
	대학교 졸업	68.3	19.3	49.0	17.8	13.9	10.9	2.9
	대학원 졸업	69.2	21.3	47.8	17.0	13.8	10.2	3.6
가구 유형	1인가구	67.7	23.5	44.1	18.2	14.2	10.8	3.4
	무자녀 부부가구	69.3	17.8	51.5	19.9	10.8	8.7	2.1
	유자녀 부부가구	79.3	19.7	59.6	14.2	6.5	5.0	1.5
	부모동거 가구	70.6	14.8	55.9	15.9	13.5	10.2	3.3
	기타가구	66.3	19.1	47.3	23.9	9.8	6.4	3.4
경제 활동 상태	경제 활동	취업	68.1	19.9	48.2	18.6	13.4	9.8
		실업	73.4	22.4	51.0	17.7	8.9	7.7
	비경제 활동	재학	69.3	14.5	54.8	15.6	15.2	11.8
		비재학 미취업	76.9	16.0	60.9	13.7	9.4	8.2

주: 1) 부채가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함

6_주거

1) 주거 일반특성

(1) 주택유형

- 주택유형은 아파트가 40.2%로 가장 높았고 연립 다세대 28.9%, 다가구 단독주택 12.5%, 오피스텔 11.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 주택유형을 살펴보면 남성(39.7%)과 여성(40.8%) 모두 아파트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연립 다세대와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는 경향이 있음
- 학력별로는 모든 학력 수준에서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가구유형에 따라서는 유자녀 부부가구(64.4%)와 부모동거 가구(59.6%), 무자녀 부부가구(50.1%)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1인가구(34.3%)와 기타 가구(39.8%)는 연립 다세대에 거주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별로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취업자는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 비율이 12.1%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출신 지역에 따라 주택유형을 살펴보면 서울태생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50.3%로 가장 높았고, 서울로 이주한 경우는 연립 다세대에 거주하는 비율이 32.8%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2-6-1] 주택유형

[단위: %]

구분			일반 단독 주택	다가구 단독 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¹⁾	오피 스텔	고시원	그 외 거처 ²⁾
전체(n=5,194)			4.0	12.5	40.2	28.9	11.1	0.7	2.6
성별	남성		4.9	13.8	39.7	27.3	10.4	0.9	3.0
	여성		3.0	11.3	40.8	30.4	11.8	0.6	2.2
연령	18~19세		5.1	9.0	57.9	19.3	3.8	0.0	4.9
	20~24세		4.7	11.8	44.4	26.9	7.9	1.1	3.2
	25~29세		4.1	14.7	34.6	30.4	13.1	0.8	2.4
	30~35세		3.0	11.4	39.6	30.7	13.0	0.5	1.8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5.1	12.7	43.1	27.3	7.6	1.1	3.1
	전문대 졸업		4.2	12.3	37.8	33.0	10.4	0.3	2.1
	대학교 졸업		3.0	12.7	38.0	29.0	14.3	0.6	2.4
	대학원 졸업		2.5	10.4	43.6	29.4	12.3	0.6	1.1
가구유형	1인가구		4.0	20.1	8.8	34.3	26.4	2.2	4.3
	무자녀 부부가구		1.4	8.8	50.1	27.1	10.9	0.0	1.7
	유자녀 부부가구		3.1	6.4	64.4	20.8	2.7	0.4	2.3
	부모동거 가구		4.2	8.4	59.6	25.0	1.4	0.0	1.5
	기타가구		4.9	13.9	22.7	39.8	15.0	0.0	3.7
경제활동 상태	경제 활동	취업	4.0	13.1	38.3	29.8	12.1	0.5	2.2
		실업	2.7	11.8	39.1	33.9	7.4	1.3	3.8
	비경제 활동	재학	4.9	9.5	47.5	23.8	9.4	0.7	4.2
		비재학 미취업	3.7	12.5	44.0	26.0	9.8	1.3	2.6
출신지역	서울태생		4.6	10.4	50.3	26.3	6.2	0.3	2.0
	서울로 이주		2.9	15.7	25.1	32.8	18.4	1.5	3.5

주: 1) 연립주택+다세대주택

2) 영업겸용 단독주택+비거주용 건물(상가, 공장, 여관 등) 내 주택+판자집,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기숙사+기타

[참고] 서울시 주거실태조사(2020년) 주택유형

[단위: %]

구분	단독주 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고시원	기타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전체가구	30.2	42.0	20.2	3.4	1.9	0.2	2.1
청년가구주가구	31.6	26.6	22.3	15.4	3.6	-	0.4

자료: 김호기 외(2021), 2020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2) 주택 점유형태

- 주택 점유형태는 자가 32.1%로 가장 높았고, 전세 31.5%, 보증부 월세 27.6%, 무상 3.8%, 기타 3.5%, 보증금 없는 월세 1.6% 순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른 주택 점유형태는 남성(32.5%)과 여성(31.7%) 모두 자가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에 따라서 주택 점유형태를 살펴보면 18~19세(48.2%)와 20~24세(38.5%)는 자가 비율이 가장 높았고, 25~29세(32.4%)와 30~35세(39.3%)는 전세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한편 20대는 보증부 월세 비율이 10대와 30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에 따라서 주택 점유형태를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 이하(36.2%)와 전문대 졸업(33.9%)은 자가 비율이 가장 높았고, 대학교 졸업(36.0%)과 대학원 졸업(38.5%)은 전세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가구유형별로 주택 점유형태를 살펴보면 1인가구는 보증부 월세가 50.6%, 무자녀 부부가구는 전세가 60.2%, 유자녀 부부가구는 전세가 46.8%, 기타 가구는 보증부 월세가 39.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에 따른 주택 점유형태를 살펴보면 취업자는 전세가 34.1%로 가장 높았고 나머지는 자가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출신 지역별로 주택 점유형태를 살펴보면 서울태생은 자가가 43.0%로 가장 높았고,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이주한 청년은 보증부 월세가 41.0%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2-6-2] 주택 점유형태

[단위: %]

구분			자가	전세	보증부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¹⁾	무상	기타
전체(n=5,194)			32.1	31.5	27.6	1.6	3.8	3.5
성별	남성		32.5	31.7	26.7	1.7	4.0	3.4
	여성		31.7	31.2	28.4	1.5	3.6	3.5
연령	18~19세		48.2	19.7	16.4	3.9	6.5	5.3
	20~24세		38.5	23.9	28.4	1.8	4.1	3.3
	25~29세		27.5	32.4	31.7	1.3	3.9	3.2
	30~35세		28.5	39.3	24.4	1.4	3.0	3.5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36.2	26.3	27.3	1.9	4.4	3.9
	전문대 졸업		33.9	29.2	29.3	1.5	3.5	2.6
	대학교 졸업		28.1	36.0	27.5	1.5	3.4	3.5
	대학원 졸업		29.1	38.5	26.3	0.3	3.5	2.2
가구 유형	1인가구		5.4	37.8	50.6	3.0	1.8	1.4
	무자녀 부부가구		19.7	60.2	16.6	0.6	1.0	1.8
	유자녀 부부가구		31.9	46.8	16.1	0.8	1.9	2.4
	부모동거 가구		53.2	21.9	13.4	0.8	5.5	5.2
	기타가구		16.2	34.1	39.6	2.1	5.4	2.7
경제 활동 상태	경제활동	취업	30.6	34.1	27.6	1.6	3.2	3.0
		실업	32.8	25.8	30.8	2.3	4.2	4.2
	비경제활동	재학	38.1	25.5	23.1	2.0	7.0	4.4
		비재학 미취업	34.0	27.2	28.8	1.2	4.3	4.5
출신 지역	서울태생		43.0	28.2	18.7	1.3	4.9	4.0
	서울로 이주		15.7	36.4	41.0	2.1	2.3	2.6

주: 1) 보증금 없는 월세에 별도의 보증금 없이 일정한 기간의 집세를 지불하는 사글세 또는 연세, 일세를 합산한 비율

[참고] 서울시 주거실태조사(2020년) 점유형태

[단위: %]

구분	자가	전세	보증부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무상
전체가구	42.2	26.2	25.1	3.4	3.2

자료: 김호기 외(2021), 2020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3) 거주층

- 주택의 거주층을 살펴보면 지상이 95.0%로 가장 높았고, 지하층이나 반지층 4.1%, 옥탑 0.9% 순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른 지하층이나 반지층 거주 비율은 남성은 4.6%, 여성은 3.6%로 남성이 약간 높게 나타남
- 연령에 따른 지하층이나 반지층 거주비율은 20~24세가 4.9%로 가장 높았고, 30~35세가 3.3%로 가장 낮게 나타남
- 학력이 낮을수록 지하층이나 반지층 거주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가구유형별로는 1인가구가 지하층이나 반지층 거주비율이 5.8%로 가장 높았고, 유자녀 부부가구가 1.5%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에 따른 지하층이나 반지층 거주 비율은 비재학 미취업자가 5.4%로 가장 높았고, 재학생이 3.2%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주택유형별로는 일반 단독주택이 지하층이나 반지층 거주비율이 13.0%로 가장 높았고, 고시원 10.5%, 다가구 단독주택 9.1%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2-6-3] 거주층

[단위: %]

구분			지하층이나 반지층	지상	옥탑
전체(n=5,194)			4.1	95.0	0.9
성별	남성		4.6	94.2	1.2
	여성		3.6	95.7	0.7
연령	18~19세		3.5	96.2	0.3
	20~24세		4.9	94.3	0.8
	25~29세		4.3	94.5	1.1
	30~35세		3.3	95.8	0.9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5.3	93.7	1.0
	전문대 졸업		5.1	93.6	1.4
	대학교 졸업		3.0	96.4	0.6
	대학원 졸업		2.1	96.5	1.5
가구유형	1인가구		5.8	93.0	1.2
	무자녀 부부가구		2.0	97.7	0.3
	유자녀 부부가구		1.5	96.5	2.1
	부모동거 가구		3.3	96.0	0.7
	기타가구		5.7	93.2	1.1
경제활동상태	경제활동	취업	3.9	95.2	0.9
		실업	4.4	95.1	0.5
	비경제활동	재학	3.2	95.7	1.1
		비재학 미취업	5.4	93.4	1.2
주택유형	일반 단독주택		13.0	84.0	3.0
	다가구 단독주택		9.1	89.2	1.8
	아파트		0.3	99.3	0.4
	연립 다세대 ¹⁾		6.8	92.2	0.9
	오피스텔		0.4	99.4	0.2
	고시원		10.5	89.5	0.0
	그 외 거주 ²⁾		9.9	85.6	4.5

주: 1) 연립주택+다세대주택

2) 영업겸용 단독주택+비거주용 건물(상가, 공장, 여관 등) 내 주택+판자집,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기숙사+기타

(4) 주택 계약 현황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여부를 살펴보면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모두 부여 받은 경우가 48.7%로 가장 높았고, 모르겠다 29.2%, 전입신고만 하였다 14.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45.3%)과 여성(52.0%) 모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모두 부여 받은 비율이 가장 높았고 남성(16.4%)은 여성(12.5%)보다 전입신고만 한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남
- 연령과 학력이 높을수록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모두 부여받은 경우와 전입신고만 한 경우가 높게 나타났고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게 나타남
- 가구유형별로 살펴보면 부모동거 가구는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51.8%로 가장 높았고 나머지 가구유형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모두 부여받은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서는 재학생은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43.3%로 가장 높았고 나머지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모두 부여받은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2-6-4]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여부

[단위: %]

구분		전입신고만 하였다	확정일자만 부여 받았다	전입신고 및 확정 일자 모두 부여	둘 다 하지 않았다	모르겠다	
전체(n=5,194)		14.4	1.8	48.7	5.9	29.2	
성별	남성	16.4	2.0	45.3	6.4	29.8	
	여성	12.5	1.6	52.0	5.5	28.5	
연령	18~19세	9.6	1.4	16.8	7.8	64.4	
	20~24세	12.8	1.6	35.9	6.8	42.9	
	25~29세	15.0	1.4	51.8	5.5	26.3	
	30~35세	16.1	2.5	62.4	5.4	13.7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3.7	1.8	36.5	6.8	41.2	
	전문대 졸업	13.7	1.8	48.2	5.4	31.0	
	대학교 졸업	14.8	1.8	58.8	5.3	19.3	
	대학원 졸업	18.1	2.3	59.1	5.8	14.7	
가구유형	1인가구	17.3	2.7	68.1	6.3	5.6	
	무자녀 부부가구	13.7	2.7	77.4	2.9	3.3	
	유자녀 부부가구	12.6	3.8	74.0	1.6	8.0	
	부모동거 가구	12.0	0.9	29.2	6.1	51.8	
	기타가구	20.3	1.4	55.2	9.1	14.1	
경제활동 상태	경제활동	취업	14.6	1.7	53.2	5.6	24.9
		실업	11.8	1.9	41.4	7.6	37.3
	비경제활동	재학	15.7	2.2	31.6	7.3	43.3
		비재학 미취업	14.1	1.7	45.0	5.8	33.4

- 주택 계약당사자는 부모가 51.9%로 가장 높았고, 본인은 36.6%, 배우자는 4.9%, 기타는 4.0%, 친인척은 2.7%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 주택계약당사자를 살펴보면 남성(53.7%)과 여성(50.2%) 모두 부모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과 학력이 높을수록 주택 계약당사자가 부모라고 응답한 비율이 낮고 본인과 배우자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가구유형에 따라 주택 계약당사자를 살펴보면 1인가구는 본인이 81.7%로 가장 높았고 무자녀 부부가구는 본인이 53.5%, 유자녀 부부가구는 배우자가 45.6%, 부모동거 가구는 부모가 92.4%, 기타 가구는 본인이 37.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에 따른 주택 계약당사자는 모두 부모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주택 점유형태에(무상, 기타 제외)따라서 주택 계약 당사자를 살펴보면 자가는 부모가 84.7%로 가장 높았고, 전세(49.1%)와 보증부 월세(63.7%), 보증금 없는 월세(31.5%)는 본인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2-6-5] 주택 계약당사자

[단위: %]

구분			부모	본인	배우자	친인척	기타
전체(n=5,194)			51.9	36.6	4.9	2.7	4.0
성별	남성		53.7	37.1	2.3	2.9	4.1
	여성		50.2	36.1	7.3	2.6	3.8
연령	18~19세		87.7	4.7	0.6	3.4	3.6
	20~24세		70.9	21.7	0.7	3.0	3.7
	25~29세		48.9	41.1	2.9	3.0	4.2
	30~35세		32.0	50.4	11.5	2.1	4.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66.8	24.7	2.3	2.9	3.4
	전문대 졸업		51.5	34.7	6.7	2.0	5.1
	대학교 졸업		40.4	46.4	6.4	2.7	4.1
	대학원 졸업		35.0	49.9	7.1	3.3	4.7
가구유형	1인가구		11.7	81.7	0.7	1.8	4.1
	무자녀 부부가구		3.7	53.5	37.1	1.0	4.8
	유자녀 부부가구		5.2	45.0	45.6	0.8	3.3
	부모동거 가구		92.4	3.9	0.3	1.9	1.5
	기타가구		22.6	37.3	0.7	17.3	22.2
경제활동 상태	경제활동	취업	46.0	42.5	4.7	2.8	4.0
		실업	59.9	28.9	3.7	3.4	4.2
	비경제활동	재학	76.7	17.7	0.7	1.7	3.2
		비재학 미취업	55.6	28.5	9.1	2.8	4.1
주택점유 형태	자가		84.7	8.7	3.6	1.3	1.7
	전세		36.9	49.1	8.4	2.3	3.4
	보증부 월세		25.8	63.7	2.9	2.1	5.5
	보증금 없는 월세		30.7	31.5	4.3	18.0	15.4
	무상		75.4	3.6	1.6	16.0	3.5
	기타		76.2	4.4	3.2	3.3	12.9

2) 주거환경

(1) 주택 구조

- 방의 구조가 원룸형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는 24.9%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 원룸형 주택 거주 비율을 살펴보면 남성은 25.5%, 여성은 24.3%로 남

성이 약간 높게 나타남

- 연령에 따른 원룸형 주택 거주 비율은 25~29세가 31.1%로 가장 높았고, 18~19세가 9.4%로 가장 낮게 나타남
- 학력별로 원룸형 주택 거주 비율을 살펴보면 대학교 졸업이 29.9%로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20.6%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가구유형에 따른 원룸형 주택 거주비율은 1인가구가 67.7%로 가장 높았고, 유자녀 부부가구가 0.4%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에 따른 원룸형 주택 거주 비율은 실업자가 26.2%로 가장 높았고, 재학생이 22.5%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주택유형별로 원룸형 주택 거주 비율을 살펴보면 고시원이 92.7%로 가장 높았고, 아파트가 2.3%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2-6-6] 방의 구조

[단위: %]

구분		원룸형	원룸형 아님
전체(n=5,194)		24.9	75.1
성별	남성	25.5	74.5
	여성	24.3	75.7
연령	18~19세	9.4	90.6
	20~24세	22.6	77.4
	25~29세	31.1	68.9
	30~35세	22.8	77.2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0.6	79.4
	전문대 졸업	21.0	79.0
	대학교 졸업	29.9	70.2
	대학원 졸업	25.4	74.6
가구유형	1인가구	67.7	32.3
	무자녀 부부가구	7.7	92.3
	유자녀 부부가구	0.4	99.6
	부모동거 가구	1.3	98.7
	기타가구	23.9	76.1
경제활동상태	경제활동	취업	74.5
		실업	73.8
	비경제활동	재학	77.5
		비재학 미취업	76.7
주택유형	일반 단독주택		74.8
	다가구 단독주택		60.4
	아파트		97.7
	연립 다세대 ¹⁾		73.7
	오피스텔		23.9
	고시원		7.3
	그 외 거처 ²⁾		50.2

주: 1) 연립주택+다세대주택

2) 영업겸용 단독주택+비거주용 건물(상가, 공장, 여관 등) 내 주택+판자집,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기숙사+기타

- 거주하는 집의 방 개수는 평균 2.7개로 나타났고 방 개수의 분포는 3개가 56.9%로 가장 높았고, 2개 28.0%, 4개 7.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 방 개수가 1개인 경우는 남성은 6.6%, 여성은 6.5%로 유사하게 나타남
- 연령과 학력이 높을수록 방 개수가 1개인 경우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가구유형별로 방 개수가 1개인 경우는 1인가구가 29.1%로 가장 높았고, 부모동거 가구가 2.0%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방 개수가 1개인 경우를 살펴보면 취업자가 7.4%로 가장 높았고, 재학생이 3.9%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주택유형별로(고시원 제외) 방 개수가 1개인 경우는 오피스텔이 32.5%로 가장 높았고, 아파트가 4.0%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2-6-7] 방 개수

[단위: %, 개]

구분			방 개수					
			1개	2개	3개	4개	5개	평균
전체(n=3,905) ¹⁾			6.6	28.0	56.9	7.8	0.7	2.7
성별	남성		6.6	28.5	56.7	7.6	0.6	2.7
	여성		6.5	27.6	57.2	8.0	0.7	2.7
연령	18~19세		2.8	15.1	72.7	8.1	1.4	2.9
	20~24세		5.6	20.9	61.0	11.8	0.8	2.8
	25~29세		6.8	28.9	55.9	7.8	0.7	2.7
	30~35세		8.0	36.3	51.0	4.4	0.3	2.5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5.3	24.6	60.0	9.3	0.8	2.8
	전문대 졸업		6.3	30.9	57.7	4.5	0.6	2.6
	대학교 졸업		7.4	30.7	54.1	7.3	0.5	2.6
	대학원 졸업		10.4	27.7	52.2	9.2	0.5	2.6
가구 유형	1인가구		29.1	55.5	14.1	1.3	0.0	1.9
	무자녀 부부가구		7.1	47.0	44.7	1.2	0.0	2.4
	유자녀 부부가구		3.4	30.1	65.3	1.2	0.0	2.6
	부모동거 가구		2.0	17.1	68.8	11.1	0.9	2.9
	기타가구		5.9	54.9	36.0	2.8	0.4	2.4
경제 활동 상태	경제활동	취업	7.4	30.6	54.6	6.9	0.5	2.6
		실업	5.3	25.7	61.2	7.4	0.4	2.7
	비경제활동	재학	3.9	15.5	65.1	14.4	1.1	2.9
		비재학 미취업	5.6	27.4	58.6	7.3	1.1	2.7
주택 유형	일반 단독주택		5.4	37.8	40.9	10.9	5.0	2.7
	다가구 단독주택		10.1	44.8	40.9	4.0	0.2	2.4
	아파트		4.0	17.6	66.1	11.7	0.7	2.9
	연립 다세대 ²⁾		5.7	37.7	53.7	2.6	0.3	2.5
	오피스텔		32.5	48.5	15.9	3.1	0.0	1.9
	고시원		100.0	0.0	0.0	0.0	0.0	1.0
	그 외 거주 ³⁾		25.1	25.0	47.3	2.6	0.0	2.3

주: 1) 주택구조가 원룸형이 아닌 경우에 대해 분석함

2) 연립주택+다세대주택

3) 영업겸용 단독주택+비거주용 건물(상가, 공장, 여관 등) 내 주택+판자집,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기숙사+기타

- 거주하는 집의 거실 개수는 1개 95.3%, 0개 3.8%, 2개 이상 0.9% 순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 거실 개수가 0개인 경우는 여성 4.2%, 남성 3.4%로 여성이 약간 높게 나타남
- 연령별에 따라서 거실 개수가 0개인 경우는 25~29세가 4.5%로 가장 높았고, 18~19세가 1.8%로 가장 낮게 나타남
- 학력별로 거실 개수가 0개인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4.2%로 가장 높았고, 대학원 졸업이 2.0%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가구유형에 따라서 거실 개수가 0개인 경우는 1인가구가 13.3%로 가장 높았고, 유자녀 부부가구가 1.7%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별에 따라서 거실 개수가 0개인 경우를 살펴보면 취업자가 4.4%로 가장 높았고, 비재학 미취업자가 2.4%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주택유형별로(고시원 제외) 방 개수가 0개인 경우는 그 외 거처가 11.7%로 가장 높았고, 아파트가 1.0%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2-6-8] 거실 개수

[단위: %]

구분			거실 개수(대청마루 포함)		
			0개	1개	2개 이상
전체(n=3,909) ¹⁾			3.8	95.3	0.9
성별	남성		3.4	95.9	0.8
	여성		4.2	94.8	1.0
연령	18~19세		1.8	95.4	2.8
	20~24세		3.8	94.9	1.3
	25~29세		4.5	94.9	0.6
	30~35세		3.6	96.0	0.4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4.2	94.6	1.2
	전문대 졸업		3.5	95.5	1.0
	대학교 졸업		3.8	95.7	0.5
	대학원 졸업		2.0	97.1	1.0
가구유형	1인가구		13.3	86.5	0.2
	무자녀 부부가구		2.0	98.0	0.0
	유자녀 부부가구		1.7	97.9	0.4
	부모동거 가구		2.0	96.8	1.3
	기타가구		6.3	93.7	0.0
경제활동 상태	경제활동	취업	4.4	94.9	0.7
		실업	3.0	95.2	1.8
	비경제활동	재학	3.0	95.8	1.2
		비재학 미취업	2.4	96.8	0.8
주택유형	일반 단독주택		9.4	83.6	7.0
	다가구 단독주택		7.8	91.2	1.0
	아파트		1.0	98.5	0.5
	연립 다세대 ²⁾		5.7	93.4	0.9
	오피스텔		6.8	93.2	0.0
	고시원		100.0	0.0	0.0
	그 외 거처 ³⁾		11.7	86.6	1.6

주: 1) 주택구조가 원룸형이 아닌 경우에 대해 분석함

2) 연립주택+다세대주택

3) 영업겸용 단독주택+비거주용 건물(상가, 공장, 여관 등) 내 주택+판자집,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기숙사+기타

- 거주하는 집의 화장실 개수는 1개 58.5%, 2개 41.0%, 3개 0.4%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 거실 개수가 0개인 경우는 남성 59.1%, 여성 58.0%로 남성이 약간 높게 나타남
- 연령이 높을수록 화장실 개수가 1개인 경우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학력별로 화장실 개수가 1개인 경우는 전문대 졸업이 62.5%로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55.8%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가구유형에 따라서 화장실 개수가 1개인 경우는 1인가구가 91.8%로 가장 높았고, 부모동거 가구가 47.2%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별로 화장실 개수가 1개인 경우는 취업자가 60.8%로 가장 높았고, 재학생이 44.5%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주택유형별로(고시원 제외) 화장실 개수가 1개인 경우는 다가구 단독주택이 85.4%로 가장 높았고, 아파트가 40.7%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2-6-9] 화장실 개수

[단위: %]

구분			화장실 개수		
			1개	2개	3개
전체(n=3,909) ¹⁾			58.5	41.0	0.4
성별	남성		59.1	40.3	0.6
	여성		58.0	41.7	0.3
연령	18~19세		44.3	55.2	0.5
	20~24세		52.5	46.9	0.6
	25~29세		58.3	41.1	0.6
	30~35세		67.2	32.7	0.2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55.8	43.8	0.4
	전문대 졸업		62.5	37.2	0.4
	대학교 졸업		59.7	39.8	0.6
	대학원 졸업		61.4	38.6	0.0
가구유형	1인가구		91.8	8.0	0.2
	무자녀 부부가구		77.1	22.9	0.0
	유자녀 부부가구		58.6	40.9	0.4
	부모동거 가구		47.2	52.3	0.6
	기타가구		79.4	20.2	0.4
경제활동 상태	경제활동	취업	60.8	38.9	0.3
		실업	58.3	41.7	0.0
	비경제활동	재학	44.5	55.2	0.3
		비재학 미취업	58.9	39.9	1.3
주택유형	일반 단독주택		69.4	29.1	1.5
	다가구 단독주택		85.4	14.2	0.4
	아파트		40.7	58.9	0.4
	연립 다세대 ²⁾		75.7	23.9	0.5
	오피스텔		84.9	15.1	0.0
	고시원		100.0	0.0	0.0
	그 외 거처 ³⁾		82.5	17.5	0.0

주: 1) 주택구조가 원룸형이 아닌 경우에 대해 분석함

2) 연립주택+다세대주택

3) 영업겸용 단독주택+비거주용 건물(상가, 공장, 여관 등) 내 주택+판자집,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기숙사+기타

- 거주하는 주택의 전용면적은 평균 68.2m²로 나타났으며 분포는 40m² 미만이 31.8%로 가장 높았고 60-85m² 미만 18.9%, 102-135m² 미만 17.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 주택 전용면적을 살펴보면 남성은 68.2m², 여성은 68.3m²로 유사하게 나타남
- 연령이 높을수록 주택의 전용면적이 좁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학력에 따라서 주택 전용면적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73.9m²로 가장 넓었고, 대학교 졸업이 63.8m²로 가장 좁게 나타남
- 가구유형별로 주택 전용면적을 살펴보면 부모동거 가구가 93.7m²로 가장 넓었고, 1인가구가 32.4m²로 가장 좁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서 주택 전용면적을 살펴보면 재학생이 77.8m²로 가장 넓었고, 취업자가 66.2m²로 가장 좁게 나타남
- 주택유형에 따른 주택 전용면적은 아파트가 95.7m²로 가장 넓었고, 고시원이 17.4m²로 가장 좁게 나타남

[표 2-6-10] 주택 전용면적

[단위: %, m²]

구분		전용면적								
		40㎡ 미만	40~50 ㎡ 미만	50~60 ㎡ 미만	60~85 ㎡ 미만	85~102 ㎡ 미만	102 ~135㎡ 미만	135㎡ 이상	평균	
전체(n=5,194)		31.8	8.2	8.2	18.9	10.7	17.6	4.6	68.2	
성별	남성	31.1	8.6	8.1	19.0	11.6	17.4	4.2	68.2	
	여성	32.4	7.8	8.4	18.8	9.8	17.8	5.0	68.3	
연령	18~19세	12.0	4.0	3.2	24.0	19.6	30.3	6.8	88.9	
	20~24세	27.3	5.6	7.1	19.8	12.1	22.2	5.9	74.2	
	25~29세	39.1	7.5	6.5	15.6	10.3	16.2	4.8	64.5	
	30~35세	31.1	12.1	12.1	20.9	8.2	12.7	2.9	63.3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6.0	7.2	6.9	20.3	13.3	20.9	5.5	73.9	
	전문대 졸업	31.7	9.5	9.8	18.1	10.2	18.1	2.6	66.8	
	대학교 졸업	37.0	8.3	9.0	18.0	8.4	15.2	4.2	63.8	
	대학원 졸업	32.0	13.2	8.4	18.4	10.7	11.2	6.2	65.6	
가구 유형	1인가구	78.1	9.8	3.8	5.1	2.0	0.9	0.3	32.4	
	무자녀 부부가구	20.4	17.5	20.4	28.0	7.4	5.7	0.6	61.3	
	유자녀 부부가구	4.8	13.6	17.7	38.5	9.3	15.7	0.4	73.7	
	부모동거 가구	4.1	4.8	7.9	25.3	17.6	31.5	8.8	93.7	
	기타가구	40.4	14.0	14.6	16.4	5.5	7.6	1.7	55.3	
경제 활동 상태	경제 활동	취업	33.0	9.4	8.8	18.3	10.2	16.4	3.9	66.2
		실업	33.5	6.8	6.6	21.1	9.2	17.3	5.4	68.6
	비경제 활동	재학	26.2	3.7	6.6	18.5	14.2	22.6	8.3	77.8
		비재학 미취업	29.5	7.3	7.7	20.5	11.2	19.1	4.8	70.1
주택 유형	일반 단독주택	34.5	6.7	7.7	23.1	10.4	12.1	5.5	67.6	
	다가구 단독주택	50.9	13.9	7.7	13.5	8.1	4.9	1.0	48.8	
	아파트	3.3	3.5	8.3	23.7	15.1	36.9	9.1	95.7	
	연립 다세대 ¹⁾	40.4	12.7	10.7	19.6	10.1	4.6	1.8	55.0	
	오피스텔	79.0	8.9	3.9	5.5	1.2	1.2	0.3	32.9	
	고시원	100.0	0.0	0.0	0.0	0.0	0.0	0.0	17.4	
	그 외 거처 ²⁾	58.8	5.3	3.5	19.7	5.6	5.6	1.6	48.5	

주: 1) 연립주택+다세대주택

2) 영업겸용 단독주택+비거주용 건물(상가, 공장, 여관 등) 내 주택+판자집,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기숙사+기타

(2)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과밀도 기준)

- 최저주거기준은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가구 규모별 최소 주거면적과 필수설비 등에 대한 기준임(아래 표의 각주 참조)
- 이 조사에서는 필수설비의 단독 사용 여부를 묻는 문항이 없는 관계로 과밀도를 기준으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의 비율을 산출하였음
 - 과밀도의 판단은 주거면적과 방의 개수가 기준임
- 최저주거기준(과밀도)에 미달된 가구는 9.1%로 나타남
- 성별에 따른 최저주거기준(과밀도) 미달 가구는 남성은 9.2%, 여성은 9.1%로 유사하게 나타남
- 연령이 낮을수록 최저주거기준(과밀도)에 미달된 가구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학력이 낮을수록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된 가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가구유형별로는 기타 가구가 16.0%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된 가구 비율이 가장 높았고, 무자녀 부부가구가 2.7%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별은 실업자가 13.1%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된 가구 비율이 가장 높았고, 취업자가 8.0%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주택유형별로는 고시원이 31.0%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된 가구 비율이 가장 높았고, 아파트가 7.1%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2-6-11]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과밀도 기준)

[단위: %]

구분			최저주거기준 충족	최저주거기준 미달 ¹⁾
전체(n=5,189) ⁴⁾			90.9	9.1
성별	남성		90.8	9.2
	여성		90.9	9.1
연령	18~19세		87.8	12.2
	20~24세		88.0	12.0
	25~29세		91.5	8.6
	30~35세		93.3	6.7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88.8	11.2
	전문대 졸업		88.9	11.1
	대학교 졸업		93.0	7.0
	대학원 졸업		94.2	5.8
가구유형	1인가구		94.7	5.3
	무자녀 부부가구		97.3	2.7
	유자녀 부부가구		85.7	14.3
	부모동거 가구		88.9	11.1
	기타가구		84.0	16.0
경제활동상태	경제활동	취업	92.0	8.0
		실업	86.9	13.1
	비경제활동	재학	89.5	10.5
		비재학 미취업	89.3	10.7
주택유형	일반 단독주택		86.9	13.1
	다가구 단독주택		88.7	11.3
	아파트		92.9	7.1
	연립 다세대 ²⁾		91.4	8.6
	오피스텔		90.8	9.2
	고시원		69.0	31.0
	그 외 거처 ³⁾		76.5	23.5

주: 1) 현행 국토교통부 산정방식을 활용하였음. 단, 이 조사에서 시설의 단독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방 개수 기준과 총 주거면적 기준을 적용해 미달가구를 산출하였음

가구원 수(인)	표준 가구구성	실(방) 구성	총주거면적(m ²)
1	1인가구	1K	14
2	부부	1DK	26
3	부부+자녀1	2DK	36
4	부부+자녀2	3DK	43
5	부부+자녀3	3DK	46
6	노부모+부부+자녀2	4DK	55

※ 시설 단독사용 기준: 상·하수도, 주방(식당), 화장실, 목욕시설, 거실 중 하나라도 단독사용이 아닌 경우 최저주거기준 미달로 산정함

2) 연립주택+다세대주택

3) 영업겸용 단독주택+비거주용 건물(상가, 공장, 여관 등) 내 주택+판자집,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기숙사+기타

4) 최저주거 산출기준 충족하지 않은 케이스 제외하고 분석함

(3) 주거지 상태

- 주거지 상태에 대한 평가는 해당 내용에 대해 매우 불량 또는 불량하다고 응답한 비율을 합산해서 보고하였음
- 주거지의 집의 구조물, 난방 및 단열, 방수 상태 등이 불량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6.3%로 나타남
- 성별로는 여성은 18.8%, 남성은 13.7%로 여성이 집의 구조물, 난방 및 단열, 방수 상태 등이 불량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 연령이 높을수록 집의 구조물, 난방 및 단열, 방수 상태에 대해 불량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학력에 따라서는 대학원 졸업(21.0%)이 집의 구조물, 난방 및 단열, 방수 상태 등에 대해 불량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 졸업 이하(14.1%)가 가장 낮게 나타남
- 가구유형별로는 무자녀 부부가구가(20.3%) 집의 구조물, 난방 및 단열, 방수 상태 등에 대해 가장 불량하다고 평가했고, 부모동거 가구(14.8%)가 가장 낮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별로 실업자가(18.4%) 집의 구조물, 난방 및 단열, 방수 상태에 대해 불량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재학생(10.7%)이 가장 낮게 나타남
- 주택유형에 따라서는 다가구 단독주택 거주자(22.5%)가 집의 구조물, 난방 및 단열, 방수 상태에 대해 불량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오피스텔 거주자(9.7%)가 가장 낮게 나타남
- 주거지의 환기 상태가 불량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7.2%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은 19.5%, 남성은 14.8%로 여성이 주거지의 환기 상태가 불량하다고 평가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 연령이 높을수록 주거지의 환기 상태에 대해 불량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 학력에 따라서는 전문대 졸업(20.8%)이 주거지의 환기 상태에 대해 불량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 졸업 이하(14.8%)가 가장 낮게 나타남
- 가구유형별로는 기타가구(20.4%)가 주거지의 환기 상태에 대해 가장 불량하다고 평가했고, 부모동거 가구(14.5%)가 가장 낮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별로는 실업자(19.6%)가 주거지의 환기 상태에 대해 불량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재학생(10.7%)이 가장 낮게 나타남
- 주택유형별로는 고시원 거주자(30.2%)가 주거지의 환기 상태에 불량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아파트 거주자(10.4%)가 가장 낮게 나타남
- 주거지의 채광상태가 불량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4.7%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은 14.9%, 남성은 14.4%로 여성이 주거지의 채광상태에 대해

불량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25~29세(16.8%)가 주거지의 채광상태에 대해 불량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18~19세(5.8%)가 가장 낮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대학원 졸업(16.6%)이 주거지의 채광상태에 대해 불량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 졸업 이하(12.6%)가 가장 낮게 나타남
- 가구유형별로는 1인가구(21.3%)가 주거지의 채광상태에 대해 불량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부모동거 가구(10.2%)가 가장 낮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별로는 비재학 미취업자(15.5%)가 주거지의 채광상태에 대해 불량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재학(11.1%)이 가장 낮게 나타남
- 주택유형별로는 고시원 거주자(35.8%)가 주거지의 채광상태에 대해 불량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아파트 거주자(6.2%)가 가장 낮게 나타남
- 주거지의 냉방 상태가 불량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6%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은 7.7%, 여성은 7.4%로 남성이 주거지의 냉방 상태에 대해 불량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25~29세(8.9%)가 주거지의 냉방 상태에 대해 불량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18~19세(4.0%)가 가장 낮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전문대 졸업(9.4%)이 주거지의 냉방 상태에 대해 불량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 졸업 이하(7.0%)가 가장 낮게 나타남
- 가구유형별로는 1인가구와 유자녀 부부가구가 7.7%로 주거지의 냉방 상태에 대해 불량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무자녀 부부가구(6.7%)가 가장 낮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별로는 실업자(8.5%) 주거지의 냉방 상태에 대해 불량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재학생(6.0%)이 가장 낮게 나타남
- 주택유형별로는 고시원거주자(12.4%)가 주거지의 냉방 상태에 대해 불량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오피스텔 거주자(4.7%)가 가장 낮게 나타남

[표 2-6-12] 주거지 상태 평가

[단위: %]

구분		집의 구조물, 난방 및 단열, 방수 상태	환기상태	채광상태	냉방상태	
전체(n=5,194) ¹⁾		16.3	17.2	14.7	7.6	
성별	남성	13.7	14.8	14.4	7.7	
	여성	18.8	19.5	14.9	7.4	
연령	18~19세	5.5	6.7	5.8	4.0	
	20~24세	13.8	14.4	11.8	6.0	
	25~29세	16.9	19.2	16.8	8.9	
	30~35세	19.8	19.4	16.5	8.2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4.1	14.8	12.6	7.0	
	전문대 졸업	20.1	20.8	15.7	9.4	
	대학교 졸업	16.6	18.0	16.0	7.5	
	대학원 졸업	21.0	20.1	16.6	7.4	
가구 유형	1인가구	17.5	19.9	21.3	7.7	
	무자녀 부부가구	20.3	20.2	12.3	6.7	
	유자녀 부부가구	18.8	18.1	11.7	7.7	
	부모동거 가구	14.8	14.5	10.2	7.6	
	기타가구	16.1	20.4	20.3	7.4	
경제 활동 상태	경제 활동	취업	17.0	17.6	15.3	8.0
		실업	18.4	19.6	12.7	8.5
	비경제 활동	재학	10.7	10.7	11.1	6.0
		비재학 미취업	16.1	18.9	15.5	6.3
주택 유형	일반 단독주택		21.8	18.2	17.1	10.0
	다가구 단독주택		22.5	24.8	23.8	10.4
	아파트		12.9	10.4	6.2	5.6
	연립 다세대2)		19.7	24.4	21.5	9.3
	오피스텔		9.7	11.6	14.1	4.7
	고시원		20.5	30.2	35.8	12.4
	그 외 거처3)		20.6	24.6	18.5	12.0

주: 1) 매우불량+조금불량을 합산한 비율로 보고함

2) 연립주택+다세대주택

3) 영업겸용 단독주택+비거주용 건물(상가, 공장, 여관 등) 내 주택+판자집,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기숙사+기타

- 주거지의 소음에 대해 불량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7.3%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30.1%)이 남성(24.5%)보다 주거지의 소음에 대해 불량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25~29세(29.4%)가 주거지의 소음에 대해 불량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18~19세(16.4%)가 가장 낮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전문대 졸업(34.0%)이 주거지의 소음에 대해 불량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 졸업 이하(24.6%)가 가장 낮게 나타남
- 가구유형에 따라서는 1인가구(34.0%)가 주거지의 소음에 대해 불량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부모동거 가구(23.3%)가 가장 낮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별로는 실업자(29.3%)가 주거지의 소음에 대해 불량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재학생(20.9%)이 가장 낮게 나타남
- 주택유형에 따라서는 그 외 거처 거주자(43.4%)가 주거지의 소음에 대해 불량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아파트 거주자(20.5%)가 가장 낮게 나타남
- 주거지의 재난 및 재해 안전성에 대해 불량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7%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9.2%)이 남성(8.2%)보다 주거지의 재난 및 재해 안전성에 대해 불량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 연령에 따라서는 25~29세(9.9%)가 주거지의 재난 및 재해 안전성에 대해 불량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18~19세(5.2%)가 가장 낮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전문대 졸업(11.6%)이 주거지의 재난 및 재해 안전성에 대해 불량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 졸업 이하(8.1%)가 가장 낮게 나타남
- 가구유형에 따라서는 기타가구(11.1%)가 주거지의 재난 및 재해 안전성에 대해 불량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부모동거 가구(7.8%)가 가장 낮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서는 실업자(11.5%)가 주거지의 재난 및 재해 안전성에 대해 불량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재학생(6.7%)이 가장 낮게 나타남
- 주택유형에 따라서는 고시원 거주자(18.7%)가 주거지의 재난 및 재해 안전성에 대해 불량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아파트 거주자(5.4%)가 가장 낮게 나타남
- 주거지의 화재로부터의 안전성에 대해 불량하다고 평가한 비율은 13.1%로 나타남
- 성별로는 여성(15.1%)이 남성(11.1%)보다 화재로부터의 안전성에 대해 불량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 연령이 높을수록 화재로부터의 안전성에 대해 불량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 학력에 따라서는 전문대 졸업(17.9%)이 화재로부터의 안전성에 대해 불량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 졸업 이하(11.3%)가 가장 낮게 나타남

- 가구유형별로는 1인가구(15.6%)가 화재로부터의 안전성에 대해 불량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무자녀 부부가구 가구(9.8%)가 가장 낮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서는 취업자(13.9%)가 화재로부터의 안전성에 대해 불량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재학생(9.9%)이 가장 낮게 나타남
- 주택유형별는 연립 다세대 주택 거주자(20.4%)가 화재로부터의 안전성에 대해 불량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아파트(6.5%)가 가장 낮게 나타남
- 주거지의 방법 상태에 대해 불량하다고 평가한 비율은 13.8%로 나타남
- 성별로는 여성(16.0%)이 남성(11.5%)보다 주거지의 방법 상태에 대해 불량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 연령에 따라서는 25~29세(15.6%)가 주거지의 방법 상태에 대해 불량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18~19세(7.2%)가 가장 낮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전문대 졸업(19.0%)이 주거지의 방법 상태에 대해 불량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 졸업 이하(11.7%)가 가장 낮게 나타남
- 가구유형에 따라서는 1인가구(17.4%)가 주거지의 방법 상태에 대해 불량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무자녀 부부가구(10.4%)가 가장 낮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별로는 취업자(15.0%)가 주거지의 방법 상태에 대해 불량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재학생(9.6%)이 가장 낮게 나타남
- 주택유형에 따라서는 고시원 거주자(26.3%)가 주거지의 방법 상태에 대해 불량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아파트 거주자(7.8%)가 가장 낮게 나타남
- 주거지의 위생 상태에 대해 불량하다고 평가한 비율은 12.9%로 나타남
- 성별로는 여성(14.1%)이 남성(11.6%)보다 주거지의 위생 상태에 대해 불량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 연령이 높을수록 주거지의 위생 상태에 대해 불량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학력별로는 전문대 졸업(19.1%)이 주거지의 위생 상태에 대해 불량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 졸업 이하(11.6%)가 가장 낮게 나타남
- 가구유형에 따라서는 1인가구(15.4%)가 주거지의 위생 상태에 대해 불량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부모동거 가구(10.9%)가 가장 낮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서는 실업자(14.8%)가 주거지의 위생 상태에 대해 불량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재학생(9.4%)이 가장 낮게 나타남
- 주택유형에 따라서는 다가구 단독주택 거주자(18.7%)가 주거지의 위생 상태에 대해 불량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오피스텔 거주자(7.7%)가 가장 낮게 나타남

[표 2-6-13] 주거지 상태 평가(계속)

[단위: %]

구분			소음	재난, 재해 안전성	화재로부터 의 안전성	방범상태	위생 상태
전체(n=5,194) ¹⁾			27.3	8.7	13.1	13.8	12.9
성별	남성		24.5	8.2	11.1	11.5	11.6
	여성		30.1	9.2	15.1	16.0	14.1
연령	18~19세		16.4	5.2	5.6	7.2	6.4
	20~24세		26.2	7.8	11.1	11.5	11.2
	25~29세		29.4	9.9	14.6	15.6	14.0
	30~35세		28.1	8.8	14.6	15.1	14.3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4.6	8.1	11.3	11.7	11.6
	전문대 졸업		34.0	11.6	17.9	19.0	19.1
	대학교 졸업		28.1	8.4	13.3	14.1	12.2
	대학원 졸업		25.1	8.9	14.0	15.3	12.2
가구 유형	1인가구		34.0	9.5	15.6	17.4	15.4
	무자녀 부부가구		23.6	8.7	9.8	10.4	12.5
	유자녀 부부가구		23.7	9.0	11.1	12.7	12.4
	부모동거 가구		23.3	7.8	11.9	11.8	10.9
	기타가구		31.3	11.1	14.8	15.9	16.3
경제 활동 상태	경제 활동	취업	27.7	8.7	13.9	15.0	13.0
		실업	29.3	11.5	11.4	13.6	14.8
	비경제 활동	재학	20.9	6.7	9.9	9.6	9.4
		비재학 미취업	29.2	8.5	12.8	12.5	13.9
주택 유형	일반 단독주택		24.1	14.4	18.4	17.1	15.3
	다가구 단독주택		31.4	11.7	20.3	22.0	18.7
	아파트		20.5	5.4	6.5	7.8	8.0
	연립 다세대 ²⁾		31.5	11.5	20.4	19.7	18.2
	오피스텔		33.9	5.6	8.2	8.5	7.7
	고시원		30.7	18.7	15.8	26.3	15.7
	그 외 거주 ³⁾		43.4	16.1	13.3	17.3	18.0

주: 1) 매우불량+조금불량을 합산한 비율로 보고함

2) 연립주택+다세대주택

3) 영업겸용 단독주택+비거주용 건물(상가, 공장, 여관 등) 내 주택+판자집,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기숙사+기타

(4) 주거불안

- 최근 1년간 주거와 관련한 불안 상황을 경험한 경우는 21.5%로 나타남

[표 2-6-14] 최근 1년간 주거불안 상황 경험 여부

[단위: %]

구분(n=5,194)	있음	없음	합계
주거불안 상황 경험 여부	21.5	78.5	100.0

- 최근 1년간 경험한 주거불안 상황 1순위는 주거비용과 관련된 내용이 74.3%로 대다수를 차지함
 - 내용을 살펴보면, 임대보증금 부족 32.0%, 추가보증금이나 추가 임대료 15.6%, 공과금이나 관리비 연체 8.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최근 1년간 경험한 주거불안 상황 2순위 역시 주거비용과 관련된 내용이 67.4%로 대다수를 차지함
 - 내용을 살펴보면, 추가보증금이나 추가 임대료 23.8%, 임대보증금 부족 17.2%, 공과금이나 관리비 연체 10.2%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2-6-15] 최근 1년간 경험한 주거불안 상황

[단위: %]

주거불안 내용 ¹⁾		1순위 (n=1,117)	2순위 (n=533)
주거비용 관련	3개월 이상 월 임대료 연체	6.6	3.0
	이사 또는 임대차계약 갱신에 필요한 임대보증금 부족	32.0	17.2
	추가보증금이나 추가 임대료	15.6	23.8
	보증금 반환 위험	8.8	10.2
	공과금이나 관리비 연체(또는 납부 지연)	8.9	9.7
	3개월 이상 주택담보대출 이자 또는 원리금 상환 연체	2.4	3.5
그 외	주택압류, 재개발,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등으로 인한 퇴거(위기)	4.0	6.7
	주택 노후화 또는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인한 안전·건강문제 발생(위험)	19.1	20.1
	임대인이 기피하는 대상자(취약계층, 유아동반 등)라는 이유로 주택확보 곤란	2.7	5.9

주: 1) 주거불안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는 응답자에 대해 분석함

3) 주거비용

(1) 자가 및 전세

- 자가 주택의 가격은 평균 111,251만 원이며 자가 가격의 분포는 10억 이상이 33.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7-9억 미만 17.5%, 5~7억 미만 15.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권역별로 자가 가격을 살펴보면 동남권이 255,927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동북권이 68,224만 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은 124,371만 원, 여성은 98,333만 원으로 자가 가격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게 나타남
- 연령이 높을수록 자가 가격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학력별로 자가 가격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139,549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전문대 졸업이 69,030만 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가구유형에 따라서 자가 가격을 살펴보면 부모동거 가구가 평균 118,314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기타가구가 71,155만 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별로 자가 가격을 살펴보면 취업자가 118,759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실업자가 72,791만 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2-6-16] 자가 가격

[단위: %, 만 원]

구분		1억 원 미만	1억~3억 원 미만	3억~5억 원 미만	5억~7억 원 미만	7억~9억 원 미만	9억~1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	평균	중위수	표준 편차
전체(n=1,584) ¹⁾		0.4	12.6	15.1	15.9	17.5	5.1	33.5	111,251	72,000	307,778
지역	도심권	0.0	5.8	20.6	14.9	14.6	0.9	43.4	94,044	80,000	59,633
	동북권	0.8	11.5	17.6	19.9	23.1	6.4	20.7	68,224	70,000	36,342
	동남권	0.0	5.6	12.9	9.7	8.0	4.8	59.1	255,927	100,000	648,041
	서북권	0.5	15.5	15.1	17.1	20.4	3.5	27.9	73,103	70,000	44,386
	서남권	0.2	18.6	12.9	15.6	17.3	5.4	30.0	74,602	70,000	48,008
성별	남성	0.0	11.7	14.0	16.4	18.1	6.1	33.7	124,371	75,000	356,105
	여성	0.8	13.4	16.1	15.4	16.9	4.2	33.3	98,333	70,000	250,837
연령	18~19세	0.0	7.3	11.7	17.6	18.4	8.6	36.4	154,324	80,000	433,530
	20~24세	0.3	11.8	14.9	12.9	17.5	3.9	38.7	140,091	80,000	420,751
	25~29세	0.2	14.3	11.9	16.9	17.6	6.1	33.1	96,345	71,000	218,593
	30~35세	0.7	13.3	19.6	17.6	17.2	4.4	27.2	81,225	60,000	144,796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0.3	12.0	14.0	14.2	16.6	5.6	37.2	139,549	80,000	410,719
	전문대 졸업	0.4	15.8	19.1	14.3	20.1	7.9	22.5	69,030	70,000	43,236
	대학교 졸업	0.6	12.1	14.0	18.4	17.8	3.9	33.2	92,623	70,000	198,680
	대학원 졸업	0.0	12.4	21.0	15.0	15.6	2.7	33.3	120,313	70,000	328,235
가구 유형	1인가구	0.0	36.0	22.8	14.9	16.3	0.0	10.1	78,021	40,000	299,722
	무자녀 부부가구	0.0	5.7	16.9	21.9	22.4	7.3	25.8	76,168	70,000	35,714
	유자녀 부부가구	0.0	8.5	15.3	19.8	18.9	3.6	34.0	84,135	72,000	49,383
	부모동거 가구	0.5	11.2	14.6	15.3	17.2	5.7	35.6	118,314	80,000	329,059
	기타가구	0.0	22.0	11.6	19.1	18.9	0.0	28.4	71,155	60,000	49,775
경제 활동 상태	경제 활동 중	취업	0.4	12.2	16.6	15.5	17.8	5.7	118,759	70,000	351,321
		실업	0.7	16.4	13.2	18.3	16.5	3.4	72,791	70,000	45,840
	비경제 활동 상태	재학	0.0	9.3	14.3	16.8	15.8	4.8	112,784	80,000	261,482
		비재학 미취업	0.3	14.5	10.6	15.3	18.1	4.2	100,654	78,000	224,568

주: 1) 자가 거주자 1,584명에 대해 분석함

- 전세 거주자의 전세 보증금은 평균 23,443만 원이며 전세 보증금 가격의 분포는 1억~3억 미만인 57.7%로 가장 높았고, 1억 원 미만 17.1%, 3~5억 미만 15.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권역별로 전세 보증금 가격을 살펴보면 동남권이 33,425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서남권이 19,848만 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 24,343만 원, 남성 22,494만 원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전세 보증금 가격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남
- 연령에 따른 전세 보증금 가격은 18~19세가 32,412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25~29세가 22,910만 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학력별로 전세 보증금 가격을 살펴보면 대학원 졸업이 28,504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전문대 졸업이 20,606만 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가구유형에 따라서 전세 보증금 가격을 살펴보면 부모동거 가구가 32,988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1인가구가 14,820만 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서 전세 보증금 가격을 살펴보면 재학생이 27,986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비재학 미취업자가 21,823만 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2-6-17] 전세 보증금

[단위: %, 만 원]

		1억 원 미만	1억~ 3억 원 미만	3억~ 5억 원 미만	5억 ~7억 원 미만	7억 ~9억 원 미만	9억~ 1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	평균	중위수	표준편차
전체(n=1,487) ¹⁾		17.1	57.7	15.6	5.7	2.0	0.7	1.3	23,443	18,000	20,378
권역	도심권	9.9	62.3	13.0	9.9	2.8	1.1	1.1	24,899	20,000	18,536
	동북권	23.3	52.1	17.7	4.8	0.9	0.8	0.4	21,099	17,000	16,160
	동남권	5.8	50.3	24.6	9.4	3.9	1.8	4.3	33,425	25,000	27,337
	서북권	13.7	65.8	13.0	4.7	1.6	0.0	1.1	21,630	16,000	18,372
	서남권	21.3	62.3	10.5	3.9	1.5	0.1	0.4	19,848	15,000	17,288
성별	남성	19.5	56.4	15.3	5.9	1.3	0.5	1.1	22,494	18,000	20,073
	여성	14.8	59.0	15.8	5.5	2.6	0.9	1.5	24,343	19,000	20,635
연령	18~19세	8.0	39.7	33.6	9.8	2.8	3.6	2.6	32,412	30,000	24,775
	20~24세	22.0	50.7	14.6	7.6	2.9	0.5	1.7	23,729	18,000	21,841
	25~29세	18.6	60.2	10.8	5.6	2.3	0.7	1.8	22,910	15,900	23,007
	30~35세	14.2	59.6	19.1	4.7	1.2	0.6	0.6	23,253	20,000	16,505
학력	고등학교졸업 이하	22.5	52.1	14.7	6.2	2.8	0.6	1.2	22,643	16,000	20,882
	전문대 졸업	17.5	65.1	11.3	4.8	0.0	0.8	0.5	20,606	19,000	14,388
	대학교 졸업	14.3	60.3	16.1	5.8	1.4	0.7	1.4	23,912	19,000	20,566
	대학원 졸업	14.1	49.7	22.9	4.0	5.7	0.8	2.9	28,504	21,000	24,571
가구유형	1인가구	29.8	65.5	3.3	0.8	0.3	0.0	0.3	14,820	12,500	14,040
	무자녀 부부가구	4.5	53.2	35.2	5.1	1.0	0.0	1.0	28,881	27,000	16,372
	유자녀 부부가구	4.9	52.1	29.4	12.8	0.9	0.0	0.0	29,085	25,000	15,179
	부모동거 가구	8.1	47.6	21.2	11.9	5.5	2.3	3.5	32,988	24,000	26,365
	기타가구	15.3	68.0	14.1	2.7	0.0	0.0	0.0	19,082	18,000	9,974
경제활동 상태	경제활동 중	취업	16.1	59.1	16.0	5.0	2.0	0.6	23,249	18,000	20,257
		실업	19.3	59.5	9.1	5.3	3.9	0.9	23,743	19,000	20,875
	비경제활동 중	재학	20.4	45.3	17.9	8.7	3.5	1.2	27,986	20,000	26,887
		비재학 미취업	19.7	56.3	15.1	8.0	0.0	0.5	21,823	18,000	15,913

주: 1) 전세 거주자 1,487명에 대해 분석함

- 전세 거주자의 관리비는 평균 14만 원으로 나타났고, 관리비를 구간을 나누어 살펴보면 5만~10만 원이 24.3%로 가장 높았고, 10만~15만 원 22.5%, 5만 원 미만 16.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권역별로 전세 관리비를 살펴보면 동남권이 17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서남권과 동북권이 12만 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14만 원으로 전세 관리비가 동일하게 나타남
- 연령이 높을수록 전세 관리비가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학력별로 전세 관리비를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15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전문대 졸업 및 대학교 졸업이 13만 원으로 낮게 나타남
- 가구유형에 따라서 전세 관리비를 살펴보면 부모동거 가구가 19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1인가구가 9만 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별로 전세 관리비를 살펴보면 재학생이 16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취업자가 13만 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2-6-18] 전세 관리비

[단위: %, 만 원]

구분		5만 원 미만	5만~ 10만 원 미만	10만~ 15만 원 미만	15만~ 20만 원 미만	20만~ 25만 원 미만	25만~ 30만 원 미만	30만 원 이상	평균	중위 수	표준 편차	
전세(n=1,487) ¹⁾		16.2	24.3	22.5	10.7	11.5	3.6	11.2	14	10	13	
권역	도심권	13.2	30.9	21.8	9.6	9.1	1.9	13.5	14	10	15	
	동북권	16.4	29.3	18.2	10.8	11.6	4.2	9.5	12	10	11	
	동남권	13.0	13.3	22.7	13.6	15.7	5.6	16.2	17	15	14	
	서북권	21.4	22.2	18.4	10.9	11.6	5.1	10.4	14	10	16	
	서남권	16.9	26.6	26.4	9.2	9.5	2.1	9.5	12	10	11	
성별	남성	16.2	24.4	22.6	10.0	12.0	4.0	10.9	14	10	13	
	여성	16.3	24.1	22.4	11.4	11.0	3.3	11.6	14	10	13	
연령	18~19세	22.2	12.1	15.0	12.5	10.3	2.1	25.9	18	15	17	
	20~24세	13.8	20.9	24.2	6.9	13.0	2.5	18.8	15	10	14	
	25~29세	16.0	27.7	23.0	9.8	9.9	3.1	10.6	13	10	14	
	30~35세	17.2	23.4	21.8	13.1	12.3	4.7	7.6	13	10	11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8.4	20.7	22.9	7.9	11.4	2.9	15.8	15	10	14	
	전문대 졸업	20.9	20.7	22.6	11.6	11.3	3.2	9.7	13	10	12	
	대학교 졸업	14.4	27.3	22.0	11.8	11.7	4.0	8.8	13	10	12	
	대학원 졸업	12.3	22.8	24.1	13.6	10.3	4.9	12.1	14	10	10	
가구유형	1인가구	14.7	38.9	30.3	7.7	4.9	1.3	2.2	9	8	6	
	무자녀 부부가구	18.8	16.4	21.2	15.1	18.4	5.5	4.7	13	12	9	
	유자녀 부부가구	15.1	13.7	9.7	18.9	16.1	16.5	10.0	17	15	15	
	부모동거 가구	15.4	9.5	15.1	11.8	17.4	3.3	27.6	19	16	17	
	기타가구	25.2	24.8	22.9	7.4	8.4	1.8	9.7	13	10	16	
경제 활동 상태	경제 활동	취업	16.8	24.5	23.6	10.4	11.9	3.7	9.2	13	10	13
		실업	14.7	26.9	18.3	12.4	7.1	2.0	18.6	15	10	14
	비경제 활동	재학	12.9	22.3	18.0	8.2	13.9	4.5	20.3	16	10	14
		비재학 미취업	15.7	22.9	21.1	13.1	9.8	3.6	13.8	14	10	12

주: 1) 전세 거주자 1,487명에 대해 분석함

(2) 월세

- 보증부 월세 거주자의 보증금은 평균 4,241만 원으로 나타났고, 보증금을 구간을 나누어 살펴보면 1천~2천만 원 미만이 26.1%로 가장 높았고, 3천~6천만 원 미만 20.3%, 6천만 원 이상 19.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권역별로 월세 보증금을 살펴보면 동남권이 평균 5,602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서남권이 3,523만 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 월세 보증금을 살펴보면 남성은 4,352만 원, 여성은 4,142만 원으로 남성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월세 보증금을 살펴보면 30~35세가 5,704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18~19세가 3,150만 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학력이 높을수록 월세 보증금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가구유형별로 월세 보증금을 살펴보면 유자녀 부부가구가 13,067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1인가구가 2,431만 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서 월세 보증금을 살펴보면 실업자가 4,509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비재학 미취업자가 3,870만 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2-6-19] 보증부 월세 보증금

[단위: %, 만 원]

구분		5백만 원 미만	5백만~1천만 원 미만	1천만~2천만 원 미만	2천만~3천만 원 미만	3천만~6천만 원 미만	6천만 원 이상	평균	중위수	표준 편차
전체(n=1,380) ¹⁾		8.5	15.0	26.1	10.7	20.3	19.4	4,241	2,000	7,663
권역	도심권	9.3	7.0	25.3	20.5	23.7	14.3	4,123	2,000	7,384
	동북권	6.9	17.6	25.0	10.9	20.6	19.1	4,373	2,000	8,321
	동남권	4.5	10.1	27.3	11.0	19.7	27.4	5,602	2,000	9,452
	서북권	3.6	14.0	33.2	9.4	22.3	17.6	4,017	1,016	7,139
	서남권	13.9	16.9	24.0	9.1	18.8	17.3	3,523	1,000	5,998
성별	남성	9.6	16.3	23.6	11.5	19.7	19.2	4,352	2,000	8,106
	여성	7.5	13.8	28.4	9.9	20.7	19.6	4,142	2,000	7,249
연령	18~19세	17.2	27.5	17.1	5.0	21.5	11.7	3,150	1,000	7,089
	20~24세	10.6	16.4	34.5	6.7	16.2	15.5	3,690	1,000	8,583
	25~29세	8.8	18.3	23.9	12.6	19.3	17.2	3,676	1,300	6,231
	30~35세	5.1	7.6	22.1	12.4	25.4	27.4	5,704	3,000	8,416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3.8	16.3	25.6	10.2	17.5	16.7	3,898	1,000	7,919
	전문대 졸업	4.9	12.1	29.4	12.0	21.9	19.7	4,070	2,000	5,790
	대학교 졸업	5.4	16.1	25.6	10.7	22.1	20.2	4,429	2,000	8,024
	대학원 졸업	5.6	3.7	25.9	10.8	21.2	32.8	5,664	3,000	6,856
가구 유형	1인가구	11.0	18.9	29.7	11.1	17.6	11.6	2,431	1,000	3,096
	무자녀 부부가구	10.1	5.2	11.9	5.6	17.2	50.0	7,721	6,000	7,646
	유자녀 부부가구	2.3	2.5	5.9	9.8	17.4	62.1	13,067	10,000	14,520
	부모동거 가구	3.8	9.3	20.4	10.9	25.0	30.6	7,380	3,000	12,227
	기타가구	4.0	10.4	27.9	9.6	28.7	19.4	4,657	2,000	7,114
경제 활동 상태	경제 취업	7.1	13.6	27.1	10.8	20.3	21.0	4,328	2,000	7,354
	활동 실업	7.3	18.7	24.0	13.4	19.5	17.1	4,509	1,500	8,826
	비경제 재학	11.7	20.4	25.2	8.9	22.4	11.4	3,962	1,000	9,063
	활동 비재학 미취업	13.4	15.7	23.6	9.5	19.3	18.5	3,870	1,000	7,424

주: 1) 보증부 월세 거주자 1,380명에 대해 분석함

- 보증부 월세 거주자의 임대료는 평균 49만 원으로 나타났고, 임대료를 구간을 나누어 살펴보면 50만 원 이상이 46.2%로 가장 높았고, 40만~50만 원 미만 19.5%, 30만~40만 원 미만 18.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권역별로 보증부 월세 임대료를 살펴보면 동남권이 61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서남권이 42만 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49만 원으로 보증부 월세 임대료가 동일하게 나타남
- 연령이 높을수록 보증부 월세 임대료가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학력에 따라서 보증부 월세 임대료를 살펴보면 대학교 졸업이 50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대학원 졸업이 47만 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가구유형별 보증부 월세 임대료를 살펴보면 유자녀 부부가구가 66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무자녀 부부가구가 42만 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별로 보증부 월세 임대료를 살펴보면 취업자와 비재학 미취업자가 50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실업자가 46만 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2-6-20] 보증부 월세 임대료

[단위: %, 만 원]

구분			10만 원 미만	10만~ 20만 원 미만	20만~ 30만 원 미만	30만~ 40만 원 미만	40만~ 50만 원 미만	50만 원 이상	평균	중위 수	표준 편차
전체(n=1,380) ¹⁾			2.5	4.1	9.3	18.5	19.5	46.2	49	45	35
권역	도심권		1.2	3.1	0.8	17.2	21.0	56.7	58	50	33
	동북권		1.8	3.6	8.0	22.3	25.7	38.6	47	40	38
	동남권		1.8	4.9	7.6	14.5	8.6	62.7	61	55	52
	서북권		1.7	4.6	8.9	10.7	13.1	60.8	52	50	26
	서남권		4.0	4.0	12.9	20.6	21.6	37.0	42	40	20
성별	남성		2.6	3.8	9.5	20.0	21.6	42.5	49	45	36
	여성		2.4	4.3	9.0	17.2	17.6	49.5	49	48	34
연령	18~19세		2.5	0.0	8.9	15.5	24.4	48.7	56	45	37
	20~24세		1.1	4.4	5.7	21.3	21.2	46.4	49	45	24
	25~29세		2.2	3.2	9.6	18.1	20.5	46.4	48	45	35
	30~35세		4.3	5.5	12.2	16.9	15.8	45.4	50	45	44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4	3.3	8.3	19.1	20.1	46.8	49	45	26
	전문대 졸업		1.5	5.1	8.6	18.9	17.6	48.3	48	45	25
	대학교 졸업		2.6	4.0	9.4	19.2	20.0	44.9	50	45	44
	대학원 졸업		5.1	7.5	17.1	7.9	15.4	47.0	47	45	30
가구 유형	1인가구		2.5	3.9	10.0	21.5	23.8	38.3	44	42	29
	무자녀 부부가구		4.2	15.8	17.1	16.6	3.6	42.8	42	37	28
	유자녀 부부가구		2.6	7.7	27.1	13.1	5.2	44.3	66	38	104
	부모동거 가구		1.9	3.2	5.1	14.1	14.5	61.2	60	50	37
	기타가구		3.0	1.6	5.4	12.0	13.5	64.6	54	55	22
경제 활동 상태	경제 활동	취업	2.7	4.2	8.9	18.1	20.4	45.8	50	45	39
		실업	3.4	5.0	8.7	19.9	19.6	43.5	46	45	26
	비경제 활동	재학	0.0	4.0	6.6	25.3	18.0	46.1	49	45	23
		비재학 미취업	2.4	3.2	12.7	15.8	16.4	49.5	50	48	27

주: 1) 보증부 월세 거주자 1,380명에 대해 분석함

- 보증부 월세 거주자의 관리비는 평균 8만 원으로 나타났고, 이를 구간을 나누어 살펴보면 5만~10만 원 미만인 34.7%로 가장 높았고, 5만 원 미만 27.7%, 10만~15만 원 미만 21.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권역별로 보증부 월세 관리비를 살펴보면 동남권이 10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서남권이 7만 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8만 원으로 보증부 월세 관리비가 동일하게 나타남
- 연령별로 보증부 월세 관리비를 살펴보면 18~19세가 12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20~24세와 25~29세가 7만 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학력별로 보증부 월세 관리비를 살펴보면 대학원 졸업이 9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나머지는 8만 원으로 같게 나타남
- 가구유형에 따라서 보증부 월세 관리비를 살펴보면 유자녀 부부가구가 16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1인가구가 7만 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별로 보증부 월세 관리비를 살펴보면 비재학 미취업자가 9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실업자와 재학생이 7만 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2-6-21] 보증부 월세 관리비

[단위: %, 만 원]

구분		5만 원 미만	5만~10만 원 미만	10만~15만 원 미만	15만~20만 원 미만	20만~25만 원 미만	25만~40만 원 미만	30만 원 이상	평균	중위수	표준편차	
전체(n=1,380) ¹⁾		27.7	34.7	21.8	7.9	4.9	0.6	2.5	8	6	9	
권역	도심권	26.0	45.3	13.6	4.4	7.9	0.9	2.0	9	7	18	
	동북권	32.2	37.8	13.9	6.4	5.7	1.0	3.2	8	5	9	
	동남권	21.9	28.6	24.9	14.2	4.2	1.3	5.0	10	9	11	
	서북권	26.5	25.6	32.5	7.5	6.4	0.0	1.6	8	8	6	
	서남권	27.3	36.7	24.7	6.9	3.5	0.0	0.9	7	7	6	
성별	남성	27.1	35.5	21.7	6.7	5.5	0.5	3.2	8	6	9	
	여성	28.2	33.9	22.0	9.1	4.4	0.6	1.8	8	6	9	
연령	18~19세	14.8	40.6	31.9	4.1	3.0	0.0	5.7	12	6	26	
	20~24세	30.7	36.2	21.7	5.6	3.9	0.3	1.7	7	5	9	
	25~29세	29.2	37.5	21.0	6.2	3.4	0.4	2.5	7	6	8	
	30~35세	23.9	28.5	22.1	13.1	8.4	1.2	2.9	9	8	8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8.4	35.9	22.9	6.1	3.8	0.6	2.2	8	6	10	
	전문대 졸업	35.0	30.2	19.3	8.5	4.0	0.5	2.5	8	5	11	
	대학교 졸업	25.6	34.6	22.2	9.1	5.1	0.4	2.9	8	7	8	
	대학원 졸업	19.6	37.5	17.1	9.9	14.5	1.5	0.0	9	8	7	
가구 유형	1인가구	25.7	43.7	22.2	6.3	1.9	0.0	0.2	7	6	5	
	무자녀 부부가구	30.8	18.9	13.1	21.1	14.1	0.0	2.0	10	10	9	
	유자녀 부부가구	20.2	5.4	15.5	23.5	10.2	12.1	13.1	16	15	12	
	부모동거 가구	34.2	15.8	22.2	8.6	10.6	1.0	7.6	11	10	16	
	기타가구	26.0	35.3	23.8	6.9	6.3	0.0	1.7	8	7	7	
경제 활동 상태	경제 활동	취업	26.9	34.4	21.5	9.1	5.1	0.7	2.4	8	7	9
		실업	30.7	38.5	20.0	6.2	3.2	0.0	1.5	7	6	8
	비경제 활동	재학	22.2	43.9	23.4	3.3	6.5	0.0	0.7	7	5	6
		비재학 미취업	32.3	28.4	23.3	6.6	4.5	0.4	4.4	9	6	13

주: 1) 보증부 월세 거주자 1,380명에 대해 분석함

- 보증금 없는 월세 거주자의 임대료는 평균 52만 원으로 나타났고, 이를 구간을 나누어 살펴보면 50만 원 이상이 33.6%로 가장 높았고, 30~40만 원 미만이 23.2%, 20~30만 원 미만 17.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권역에 따른 보증금 없는 월세 임대료는 동북권이 72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서북권이 35만 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성별로는 여성은 60만 원, 남성은 45만 원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보증금 없는 월세 임대료가 더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보증금 없는 월세 임대료를 살펴보면 25~29세가 74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20~24세가 34만 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학력별로 보증금 없는 월세 임대료를 살펴보면 대학교 졸업이 74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대학원 졸업이 25만 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가구유형에 따라서 보증금 없는 월세 임대료를 살펴보면 부모동거 가구가 102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유자녀 부부가구가 20만 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서 보증금 없는 월세 임대료를 살펴보면 취업자가 60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실업자가 27만 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2-6-22] 보증금 없는 월세 임대료

[단위: %, 만 원]

구분			10만 원 미만	10만~ 20만 원 미만	20만~ 30만 원 미만	30만~ 40만 원 미만	40만~ 50만 원 미만	50만 원 이상	평균	중위 수	표준 편차
전체(n=75) ¹⁾			5.0	8.6	17.4	23.2	12.2	33.6	52	35	75
권역	도심권		44.3	0.0	28.4	0.0	27.3	0.0	20	20	22
	동북권		0.0	11.0	22.1	18.2	12.6	36.1	72	35	123
	동남권		8.4	7.1	8.8	25.5	0.0	50.2	54	50	47
	서북권		0.0	13.7	37.2	26.3	10.9	12.0	35	20	27
	서남권		3.9	7.0	10.6	28.8	17.2	32.6	42	39	28
성별	남성		6.9	11.3	13.4	30.2	11.7	26.6	45	35	51
	여성		2.8	5.6	21.9	15.3	12.9	41.5	60	40	96
연령	18~19세		0.0	0.0	0.0	69.2	0.0	30.8	45	35	19
	20~24세		0.0	11.3	22.1	19.2	22.6	24.8	34	33	14
	25~29세		9.7	16.6	7.9	12.5	8.1	45.1	74	40	127
	30~35세		7.3	0.0	28.9	22.3	9.7	31.9	51	30	46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0.0	11.2	15.2	24.8	23.2	25.6	39	39	21
	전문대 졸업		12.2	10.3	0.0	58.3	8.2	11.0	29	30	14
	대학교 졸업		7.9	5.7	22.7	11.2	2.9	49.6	74	46	110
	대학원 졸업		0.0	0.0	100.0	0.0	0.0	0.0	25	25	.
가구 유형	1인가구		5.7	9.6	17.4	24.7	13.2	29.5	38	35	24
	무자녀 부부가구		0.0	0.0	50.0	0.0	0.0	50.0	60	20	57
	유자녀 부부가구		51.6	0.0	0.0	0.0	48.4	0.0	20	2	27
	부모동거 가구		0.0	5.6	10.5	28.8	11.5	43.6	102	40	149
	기타가구		0.0	14.1	29.5	11.9	0.0	44.5	41	30	27
경제 활동 상태	경제 활동	취업	5.4	5.5	18.3	24.1	9.3	37.3	60	35	90
		실업	0.0	33.0	30.7	0.0	13.8	22.5	27	20	16
	비경제 활동	재학	0.0	8.7	21.4	37.4	20.8	11.7	37	35	21
		비재학 미취업	10.6	9.9	0.0	19.1	18.9	41.6	40	42	23

주: 1) 점유형태가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또는 연세, 일세에 해당되는 케이스에 대해 분석함

- 보증금 없는 월세 거주자의 관리비는 평균 6.7만 원으로 나타났고, 이를 구간을 나누어 살펴보면 5만 원 미만인 64.8%로 가장 높았고, 5만~10만 원 미만인 9.3%, 15만~20만 원 미만 7.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권역별로 보증금 없는 월세 관리비를 살펴보면 동남권이 10.7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도심권이 0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은 9.6만 원, 남성은 3.6만 원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보증금 없는 월세 관리비가 더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보증금 없는 월세 관리비를 살펴보면 30~35세가 8.8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20~24세가 3.7만 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학력에 따라서 보증금 없는 월세 관리비를 살펴보면 대학교 졸업이 9.3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대학원 졸업이 0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가구유형에 따라서 보증금 없는 월세 관리비를 살펴보면 부모동거 가구가 13.2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유자녀 부부가구가 0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별로 보증금 없는 월세 관리비를 살펴보면 실업자가 9.2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비재학 미취업이 1.0만 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2-6-23] 보증금 없는 월세 관리비

[단위: %, 만 원]

구분		5만 원 미만	5만~10만 원 미만	10만~15만 원 미만	15만~20만 원 미만	20만~25만 원 미만	25만~30만 원 미만	30만 원 이상	평균	중위수	표준편차
전체(n=65) ¹⁾		64.8	9.3	5.4	7.9	4.8	0.0	7.7	6.7	0.0	12.2
권역	도심권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동북권	50.7	20.2	12.5	11.5	0.0	0.0	5.1	5.8	2.0	7.7
	동남권	67.6	0.0	0.0	6.8	8.8	0.0	16.8	10.7	0.0	17.8
	서북권	50.5	33.9	0.0	15.7	0.0	0.0	0.0	4.4	0.0	5.9
	서남권	74.6	0.0	4.4	4.4	8.9	0.0	7.7	6.5	0.0	13.4
성별	남성	74.1	3.9	8.1	7.0	6.9	0.0	0.0	3.6	0.0	6.8
	여성	56.0	14.4	2.9	8.7	2.9	0.0	15.1	9.6	2.0	15.2
연령	18~19세	82.8	0.0	0.0	0.0	0.0	0.0	17.2	8.6	0.0	20.7
	20~24세	73.3	9.1	3.6	9.2	0.0	0.0	4.8	3.7	0.0	7.7
	25~29세	53.4	11.5	17.0	5.8	7.5	0.0	4.9	7.1	0.0	12.0
	30~35세	57.9	11.3	0.0	11.4	9.8	0.0	9.6	8.8	2.0	12.8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74.5	6.8	2.7	11.4	0.0	0.0	4.6	4.6	0.0	11.3
	전문대 졸업	62.4	0.0	10.9	11.7	14.9	0.0	0.0	5.9	0.0	8.4
	대학교 졸업	54.0	15.0	6.9	3.3	7.1	0.0	13.7	9.3	2.0	14.0
	대학원 졸업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
가구 유형	1인가구	76.5	5.7	4.4	7.9	3.0	0.0	2.5	3.7	0.0	8.0
	무자녀 부부가구	0.0	100.0	0.0	0.0	0.0	0.0	0.0	5.0	5.0	0.0
	유자녀 부부가구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
	부모동거 가구	53.1	0.0	10.8	11.9	0.0	0.0	24.2	13.2	0.0	18.5
	기타가구	32.0	33.7	0.0	0.0	34.3	0.0	0.0	10.1	7.0	9.8
경제 활동 상태	경제 취업	56.2	12.0	8.3	9.7	5.1	0.0	8.7	7.6	1.0	12.0
	경제 실업	75.3	0.0	0.0	0.0	10.4	0.0	14.3	9.2	0.0	18.8
	비경제 재학	82.4	0.0	0.0	17.6	0.0	0.0	0.0	2.6	0.0	6.3
	비경제 미취업	87.5	12.5	0.0	0.0	0.0	0.0	0.0	1.0	0.0	1.9

주: 1) 점유형태가 보증금 없는 월세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함, 사글세, 연세 및 일세는 포함되지 않음

- 주택 관련 부채가 있는 응답자는 전체 중 31.0%로 나타남
- 권역별로 주택 관련 부채가 있는 응답자는 서남권이 36.0%로 가장 높았고, 도심권이 24.5%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은 31.8%, 남성은 30.0%로 여성이 남성보다 주택 관련 부채를 보유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 연령과 학력이 높을수록 주택 관련 부채를 보유한 응답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가구유형별로 주택 관련 부채가 있는 응답자는 유자녀 부부가구가 73.9%로 가장 높았고, 부모동거 가구가 15.8%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서 주택 관련 부채가 있는 응답자는 취업자가 35.3%로 가장 높았고, 재학생이 13.3%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주택 관련 부채가 있는 경우 부채 금액은 평균 13,244만 원으로 나타났고, 이를 구간을 나누어 살펴보면 1억~2억 원 미만이 29.6%로 가장 높았고, 5천만~1억 원 미만이 24.8%, 5천만 원 미만 22.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른 주택 관련 부채 금액은 여성은 13,247만 원, 남성은 13,241만 원으로 유사하게 나타남
- 연령별로 주택 관련 부채 금액을 살펴보면 30~35세가 14,824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20~24세가 11,191만 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학력별로 주택 관련 부채 금액을 살펴보면 대학원 졸업이 15,120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전문대 졸업이 11,382만 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가구유형에 따른 주택 관련 부채 금액은 유자녀 부부가구가 18,669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1인가구가 9,121만 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별로 주택 관련 부채 금액을 살펴보면 비재학 미취업자가 15,316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실업자가 10,139만 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2-6-24] 주택 관련 부채 유무 및 부채 금액

[단위: %, 만 원]

구분		부채 없음	부채 있음 1)								평균	중위수	표준 편차
				5천만 원 미만	5천만 ~1억 원 미만	1억~ 2억 원 미만	2억~ 3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					
전체(n=5,194)		69.1	31.0	22.3	24.8	29.6	13.6	9.6	13,244	10,000		15,262	
권역	도심권	75.6	24.5	22.4	29.1	26.4	12.2	9.9	12,972	9,600		12,815	
	동북권	72.1	27.9	22.9	24.5	27.7	15.1	9.9	12,900	10,000		14,356	
	동남권	71.4	28.6	18.4	19.6	34.1	16.7	11.1	14,418	10,000		13,447	
	서북권	68.4	31.6	24.1	23.1	28.0	12.3	12.5	13,098	10,000		13,292	
	서남권	64.0	36.0	23.2	27.7	29.7	11.6	7.8	12,990	9,600		17,419	
성별	남성	70.0	30.0	22.5	23.3	29.9	14.2	10.2	13,241	10,000		13,101	
	여성	68.2	31.8	22.2	26.2	29.4	13.1	9.2	13,247	10,000		16,984	
연령	18~19세	87.3	12.7	22.1	20.0	26.1	19.9	11.9	13,316	10,000		13,249	
	20~24세	84.1	15.9	38.7	22.6	20.6	8.6	9.6	11,191	7,000		16,040	
	25~29세	69.6	30.4	24.0	29.4	31.1	8.9	6.6	11,836	9,500		16,702	
	30~35세	52.0	48.0	16.5	22.4	31.3	18.1	11.8	14,824	10,090		13,854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79.0	21.0	33.5	20.1	25.5	12.0	8.9	12,197	9,000		15,493	
	전문대 졸업	69.4	30.6	25.8	25.0	25.8	16.4	7.0	11,382	9,800		8,921	
	대학교 졸업	61.0	39.0	17.0	27.8	31.8	13.3	10.2	13,966	10,000		16,647	
	대학원 졸업	59.3	40.7	14.8	19.1	36.2	17.1	12.7	15,120	11,900		11,357	
가구유형	1인가구	59.7	40.3	26.7	35.4	29.3	5.5	3.0	9,121	8,000		7,578	
	무자녀 부부가구	30.2	69.8	4.6	18.8	33.0	28.1	15.6	17,998	17,000		12,029	
	유자녀 부부가구	26.1	73.9	8.7	11.3	36.0	24.8	19.1	18,669	16,500		13,125	
	부모동거 가구	84.2	15.8	28.3	17.6	25.7	14.5	13.9	14,794	10,000		18,517	
	기타가구	68.2	31.8	31.9	19.0	28.4	13.2	7.5	14,715	9,600		32,408	
경제활동상태	경제활동	취업	64.7	35.3	20.3	26.0	30.7	14.2	8.9	13,284	10,000	15,331	
		실업	74.5	25.5	26.4	30.9	26.3	9.7	6.8	10,139	8,000	8,892	
	비경제활동	재학	86.7	13.3	37.0	27.0	14.1	14.0	7.9	10,871	7,000	14,268	
		비재학 미취업	72.5	27.5	26.7	14.6	30.4	12.3	15.9	15,316	10,000	17,246	

주: 1) 주택관련 부채가 있다고 응답한 케이스를 대상으로 분석함

(3) 주거비 부담

- 임차가구(전세, 월세)의 주거비 부담을 파악해 볼 수 있는 지표인 월 소득대비 월 임차료(RIR: Rent to Income Ratio)와 월 소득대비 주거비(HCIR: Housing Cost to Income Ratio)를 분석하여 제시하였음
 - 전세 보증금과 보증부 월세 보증금은 전월세 전환률을 이용해 계산한 다음 월 임대료와 합하여 월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함(표의 각주 참고)
 - RIR이 25%를 초과하는 가구와 HCIR이 30%를 초과하는 가구는 주거비 과부담 가구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아래 표에 제시하였음
- RIR은 평균 17.5%로 나타남
- 권역별로 RIR을 살펴보면 도심권이 20.2%로 가장 높았고, 서북권이 15.9%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권역별 편차가 크지는 않았음
- 성별에 따른 RIR을 살펴보면 여성은 18.4%, 남성은 16.6%로 여성이 남성보다 약간 더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RIR을 살펴보면 25~29세가 18.8%로 가장 높았고, 18~19세가 14.4%로 가장 낮게 나타남
- 학력에 따라서 RIR을 살펴보면 대학교 졸업이 19.4%로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14.9%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가구유형별로 RIR을 살펴보면 유자녀 부부가구가 23.6%로 가장 높았고, 1인 가구가 14.9%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비교적 편차가 크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에 따른 RIR은 재학생이 24.6%로 가장 높았고, 실업자가 15.9%로 가장 낮게 나타남
- RIR이 25%를 초과하는 주거비 과부담 가구는 19.5%로 나타남
- 권역에 따른 주거비 과부담(RIR) 가구 비율은 동남권이 26.1%로 가장 높았고, 동북권과 서북권이 16.7%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은 20.3%, 남성은 18.6%로 여성이 남성보다 주거비 과부담(RIR) 가구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 연령과 학력이 높을수록 주거비 과부담(RIR) 가구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가구유형에 따른 주거비 과부담(RIR) 가구 비율은 유자녀 부부가구가 33.4%로 가장 높았고, 1인가구가 13.6%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다소 편차가 크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별로 주거비 과부담(RIR) 가구 비율을 살펴보면 비재학 미취업자가 22.6%로 가장 높았고, 실업자가 18.4%로 가장 낮게 나타남
- HCIR은 평균 17.5%로 나타났으며 RIR과 차이가 크지 않았음

- 이는 관리비 금액이 크지 않아 분석에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
- 권역별로 HCIR을 살펴보면 도심권이 20.3%로 가장 높았고, 서북권이 15.9%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RIR과 마찬가지로 권역별 편차가 크지는 않았음
- 성별에 따른 HCIR을 살펴보면 여성은 18.4%, 남성은 16.6%로 여성이 남성보다 약간 더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HCIR을 살펴보면 25~29세가 18.8%로 가장 높았고, 18~19세가 14.5%로 가장 낮게 나타남
- 학력에 따라서 HCIR을 살펴보면 대학교 졸업이 19.4%로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15.0%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가구유형별로 HCIR을 살펴보면 유자녀 부부가구가 23.6%로 가장 높았고, 1인 가구가 14.9%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RIR과 마찬가지로 비교적 편차가 크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에 따른 HCIR은 재학생이 26.5%로 가장 높았고, 실업자가 15.9%로 가장 낮게 나타남
- HCIR이 30%를 초과하는 주거비 과부담 가구는 14.3%로 나타남
- 권역에 따라서 HCIR 30% 초과 가구를 살펴보면 동남권이 19.0%로 가장 높았고, 서북권이 11.7%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은 14.4%, 여성은 14.2%로 HCIR 30% 초과 가구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남
- 연령별로 HCIR 30%를 초과하는 가구의 비율은 30~35세가 15.2%로 가장 높았고, 18~19세가 12.0%로 가장 낮게 나타남
- 학력별로 HCIR 30% 초과 가구는 대학원 졸업이 17.0%로 가장 높았고, 전문대 졸업이 12.6%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가구유형에 따라서 HCIR이 30%를 초과하는 가구의 비율은 유자녀 부부가구가 23.7%로 가장 높았고, 1인가구가 8.9%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별로 HCIR 30% 초과 가구는 재학생이 16.9%로 가장 높았고, 취업자가 13.8%로 가장 낮았으며 편차가 크지 않았음

[표 2-6-25] 임차가구 주거비 부담(RIR, HCIR)

[단위: %]

구분		RIR	RIR 25% 초과 가구 (주거비 과부담)	HCIR	HCIR 30% 초과 가구 (주거비 과부담)
전체(n=2,942)		17.5	19.5	17.5	14.3
권역	도심권	20.2	20.8	20.3	15.7
	동북권	17.9	16.7	18.0	13.3
	동남권	19.3	26.1	19.3	19.0
	서북권	15.9	16.7	15.9	11.7
	서남권	16.3	18.7	16.4	13.3
성별	남성	16.6	18.6	16.6	14.4
	여성	18.4	20.3	18.4	14.2
연령	18~19세	14.4	17.0	14.5	12.0
	20~24세	15.9	18.3	16.0	14.5
	25~29세	18.8	19.0	18.8	13.6
	30~35세	17.4	20.9	17.4	15.2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4.9	16.8	15.0	13.3
	전문대 졸업	16.6	18.4	16.7	12.6
	대학교 졸업	19.4	21.1	19.4	15.2
	대학원 졸업	19.2	24.5	19.2	17.0
가구유형	1인가구	14.9	13.6	14.9	8.9
	무자녀 부부가구	21.6	25.0	21.7	20.6
	유자녀 부부가구	23.6	33.4	23.6	23.7
	부모동거 가구	20.2	25.8	20.3	20.5
	기타가구	17.3	21.7	17.4	16.9
경제활동상태	경제활동	취업	16.5	18.8	16.5
		실업	15.9	18.4	15.9
	비경제활동	재학	26.4	20.2	26.5
		비재학 미취업	18.3	22.6	18.3

주: 전세 또는 월세인 가구를 대상으로 산출하였으며 전세 보증금과 월세 보증금은 전월세 전환률을 적용하여 산출함
 월소득 대비 월 임차료(RIR) = 월임차료/가구 월소득×100

월소득 대비 월 주거비(HCIR) = (월임차료+월주거관리비)/가구 월소득×100

보증금에 대한 전월세 전환률 적용(월임차료 값에 포함) = 보증금×(4.7/12)

*2022년 1월 기준 서울시 전월세 전환률은 4.7%임

[참고] 서울시 주거실태조사(2020년) RIR 25% 초과가구

[단위: %]

구분	RIR 25% 초과 또는 HCIR 30% 초과 가구
전체 가구	14.1
청년가구(가구주 연령 39세 이하)	15.2

자료: 김호기 외(2021), 2020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 자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파악해 볼 수 있는 지표인 가구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PIR: Price to Income Ratio)를 분석하여 제시하였음
 - PIR 계산 방법은 자가 가구의 평균 주택가격을 평균 가구소득으로 나눈 값을 제시하는 것과 중위 주택가격을 중위 가구소득으로 나눈 값을 제시하는 방법이 있음(표의 각주 참고). 두 가지 방법에 의해 산출된 값을 모두 아래 표에 제시함
- 평균값 기준 PIR은 17.1배로 나타남.
- 권역별로 평균값 기준 PIR은 동남권이 36.0배로 가장 높았고, 동북권이 10.8배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동남권을 제외한 나머지 권역들에서 유사하게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 평균값 기준 PIR을 살펴보면 남성은 19.6배, 여성은 14.7배로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남
- 연령이 높을수록 평균값 기준 PIR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학력에 따라서 평균값 기준 PIR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21.9배로 가장 높았고, 전문대 졸업이 11.8배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가구유형에 따른 평균값 기준 PIR은 부모동거 가구가 17.7배로 가장 높았고 무자녀 부부가구가 10.8배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에 따른 평균값 기준 PIR은 취업자가 17.5배로 가장 높았고, 실업자가 12.5배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중위수 기준 PIR은 12.0배로 나타남.
- 권역별로 중위수 기준 PIR은 동남권이 14.9배로 가장 높았고, 도심권이 11.1배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평균값 기준과 마찬가지로 나머지 권역들에서 유사하게 나타남
- 성별에 따른 중위수 기준 PIR은 남성은 12.5배, 여성은 11.7배로 남성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남
- 연령이 높을수록 중위수 기준 PIR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학력에 따라서 중위수 기준 PIR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13.3배로 가장 높았고, 대학원 졸업이 10.4배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가구유형별 중위수 기준 PIR은 기타 가구가 13.9배로 가장 높았고 무자녀 부부가구가 10.2배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서 중위수 기준 PIR을 살펴보면 재학생과 비재학 미취업자는 13.3배, 취업자와 실업자는 11.7배로 나타남

[표 2-6-26] 자가 가구 연소득대비 주택가격 배율(PIR: Price to Income Ratio)

[단위: %]

구분			평균값 기준 PIR	중위값 기준 PIR
전체(n=1,564)			17.1	12.0
권역	도심권		13.4	11.1
	동북권		10.8	11.7
	동남권		36.0	14.9
	서북권		11.7	11.7
	서남권		11.7	11.7
성별	남성		19.6	12.5
	여성		14.7	11.7
연령	18~19세		23.9	13.3
	20~24세		22.1	13.3
	25~29세		14.6	11.7
	30~35세		12.2	1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1.9	13.3
	전문대 졸업		11.8	11.7
	대학교 졸업		13.5	11.7
	대학원 졸업		17.2	10.4
가구유형	1인가구		15.6	10.8
	무자녀 부부가구		10.8	10.2
	유자녀 부부가구		13.5	12.0
	부모동거 가구		17.7	13.3
	기타가구		14.8	13.9
경제활동상태	경제활동	취업	17.5	11.7
		실업	12.5	11.7
	비경제활동	재학	17.2	13.3
		비재학 미취업	17.1	13.3

주: 자가 가구를 대상으로 계산 하였으며 PIR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음

$$PIR_t = \frac{mean(P_{j,t})}{mean(I_{j,t})} \text{ or } \frac{median(P_{j,t})}{median(I_{j,t})} \text{ 여기서 } P_{j,t} \text{는 } t\text{시점 } j\text{가구의 현재주택가격, } I_{j,t} \text{는 } j\text{가구의 연소득}$$

[참고] 서울시 주거실태조사(2020년) PIR(중위수 기준)

[단위: 배]

구분		중위수 기준 PIR
전체		13.5
권역	도심권	19.0
	동북권	13.5
	동남권	20.8
	서북권	10.4
	서남권	12.5

자료: 김호기 외(2021), 2020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4) 주택비용 마련방법

- 주택비용을 마련한 방법 1순위는 모름이 29.9%로 가장 높았고, 부모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는 경우 23.1%, 내가 번 돈 22.5%, 정부의 대출 9.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주택비용을 마련한 방법 2순위는 내가 번 돈으로 마련한 경우가 30.7%로 가장 높았고, 부모 등으로부터 지원 받음 19.4%, 민간금융기관 15.1% 부모 등으로부터 빌림 13.6%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2-6-27] 주택비용 마련방법

[단위: %]

구분	1순위 ¹⁾ (n=4,708)	2순위 ¹⁾ (n=1,676)
내가 번 돈	22.5	30.7
부모·형제·친척·친구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지원 받음	23.1	19.4
부모·형제·친척·친구 등으로부터 빌림	4.1	13.6
정부의 대출(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버팀목 자금대출)	9.7	11.1
서울시 대출(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등)	1.8	4.3
민간금융기관(회사 대출, 마이너스통장, 주택담보대출 등)	6.2	15.1
사채	0.0	0.2
기타	2.8	1.4
모름	29.9	4.3

주: 1) 점유형태가 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인 케이스에 대해 분석함

- 주택비용을 마련한 방법 1순위를 성별, 연령, 학력, 가구유형,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서 살펴봄
- 성별에 따라서는 주택비용을 마련한 방법(1순위)을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를 제외하고 남성은 내가 번 돈으로 마련한 경우가 23.3%로 가장 높았고, 여성은 무상으로 지원 받아 마련한 경우가 24.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이 높을수록 내가 번 돈으로 주택비용을 마련했다고 응답한 비율과 정부대출을 이용 했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연령이 낮을수록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학력이 높을수록 내가 번 돈으로 주택비용을 마련했다고 응답한 비율과 정부대출을 이용 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학력이 낮을수록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가구유형별로 주택비용을 마련한 방법(1순위)를 살펴보면 무자녀 부부가구(41.2%), 유자녀 부부가구(38.2%), 1인가구(37.1%)는 내가 번 돈으로 마련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부모동거 가구는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57.7%, 기타 가구는 무상으로 지원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2.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별로 주택비용을 마련한 방법(1순위)를 살펴보면 취업자는 내가 번 돈으로 마련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27.1%로 가장 높았고, 나머지는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2-6-28] 주택비용 마련방법(1순위)

[단위: %]

구분		내가 번 돈	부모, 형 제, 친척, 친구로 부터 무상으로 지원	부모, 형 제, 친척, 친구에 게 빌림	정부 대출	서울 시 대출	민간 금융 기관	사채	기타	모름	
전체(n=4,708) ¹⁾		22.5	23.1	4.1	9.7	1.8	6.2	0.0	2.8	29.9	
성별	남성	23.3	22.0	4.1	8.7	1.9	6.1	0.0	2.4	31.5	
	여성	21.8	24.2	4.0	10.6	1.6	6.3	0.0	3.2	28.4	
연령	18~19세	5.3	24.6	0.7	1.8	0.0	0.7	0.0	4.0	62.9	
	20~24세	10.7	30.6	3.0	4.1	1.2	3.1	0.0	2.4	45.0	
	25~29세	19.8	23.2	5.3	12.1	1.7	6.2	0.1	3.3	28.4	
	30~35세	38.6	16.4	4.2	13.1	2.7	9.7	0.0	2.4	12.9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3.7	26.9	2.8	5.9	0.9	3.9	0.1	3.0	42.8	
	전문대 졸업	25.2	19.2	4.3	11.7	1.9	5.0	0.0	3.1	29.6	
	대학교 졸업	28.6	21.6	4.8	11.6	2.6	8.4	0.0	2.3	20.2	
	대학원 졸업	30.4	17.7	7.1	16.2	1.1	7.0	0.0	5.2	15.4	
가구 유형	1인가구	37.1	29.1	6.7	15.1	2.3	7.0	0.0	1.0	1.8	
	무자녀 부부가구	41.2	10.8	5.9	18.6	6.5	11.9	0.0	2.4	2.8	
	유자녀 부부가구	38.2	12.4	5.2	22.5	3.4	12.9	0.0	2.5	3.0	
	부모동거 가구	8.0	20.5	1.8	3.3	0.6	4.0	0.0	4.1	57.7	
	기타가구	25.2	32.5	4.8	10.8	2.0	7.2	0.0	2.7	15.0	
경제 활동 상태	경제 활동	취업	27.1	20.9	4.1	10.7	2.2	7.4	0.0	2.7	25.1
		실업	17.6	24.2	3.9	9.0	0.5	4.7	0.0	2.6	37.6
	비경제 활동	재학	5.8	31.8	4.1	4.5	0.4	1.5	0.0	3.3	48.6
		비재학 미취업	16.4	26.6	4.1	9.1	1.8	4.6	0.0	3.1	34.4

주: 1) 점유형태가 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인 케이스에 대해 분석함

- 주택비용을 마련한 방법 2순위를 성별, 연령, 학력, 가구유형,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서 살펴봄
- 성별에 따라서 주택비용을 마련한 방법(2순위)를 살펴보면 남성과(31.8%) 여성(29.6%) 모두 내가 번 돈으로 마련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여성은 남성에 비해 정부대출이나 민간 금융기관을 이용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주택비용을 마련한 방법(2순위)은 18~19세는 부모, 형제, 친척, 친구 등에게 빌려 마련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20.2%로 가장 높았고, 나머지 연령은 내가 번 돈으로 마련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주택비용 마련 방법(2순위)에 대해 내가 번 돈으로 마련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대학원 졸업 이상은 민간 금융기관을 이용해 주택비용을 마련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21.0%로 다소 높게 나타남

- 가구유형별로 주택비용을 마련한 방법(2순위)을 살펴보면 모든 가구유형에서 내가 번 돈으로 마련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가운데 부부가구(무자녀, 유자녀)는 민간 금융기관을 이용해 마련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별로 취업자, 실업자, 재학생, 비재학 미취업자 모두 내가 번 돈으로 주택비용을 마련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2-6-29] 주택비용 마련방법(2순위)

[단위: %]

구분		내가 번 돈	부모, 형 제, 친척, 친구로 부터 무상으로 지원	부모, 형 제, 친척, 친구 에게 빌림	정부 대출	서울 시 대출	민간 금융 기관	사채	기타	모름	
전체(n=1,676) ¹⁾		30.7	19.4	13.6	11.1	4.3	15.1	0.2	1.4	3.9	
성별	남성	31.8	21.9	13.7	9.6	5.0	12.5	0.2	1.4	4.6	
	여성	29.6	17.2	13.5	12.3	3.7	17.5	0.3	1.3	4.3	
연령	18~19세	6.4	13.8	20.2	15.3	3.4	15.6	0.0	6.0	19.3	
	20~24세	28.6	19.6	12.8	10.1	4.1	12.4	1.1	1.9	9.6	
	25~29세	35.9	19.9	14.6	7.9	4.2	11.9	0.2	1.4	4.1	
	30~35세	28.3	19.2	12.7	13.8	4.5	18.7	0.0	0.9	1.9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6.0	21.5	12.5	10.5	4.3	14.4	0.9	1.9	8.2	
	전문대 졸업	25.9	20.4	11.3	15.3	5.7	15.1	0.0	1.7	4.7	
	대학교 졸업	33.8	18.2	14.4	11.0	4.3	14.8	0.0	1.1	2.5	
	대학원 졸업	33.0	19.2	15.5	5.3	2.4	21.0	0.0	1.0	2.6	
가구 유형	1인가구	35.0	22.5	16.6	9.6	3.5	11.2	0.1	0.4	1.2	
	무자녀 부부가구	32.6	16.1	8.2	12.2	8.3	20.3	0.0	1.8	0.4	
	유자녀 부부가구	25.4	13.7	11.2	17.3	5.2	25.2	0.7	0.6	0.8	
	부모동거 가구	23.8	17.8	10.7	9.2	3.5	16.9	0.2	3.4	14.5	
	기타가구	29.2	17.9	17.3	16.5	4.1	11.8	1.0	0.8	1.5	
경제 활동 상태	경제	취업	32.9	19.0	12.9	10.9	3.9	15.8	0.1	1.3	3.3
	활동	실업	21.3	18.2	17.0	11.5	5.6	12.0	1.0	1.0	12.4
	비경제	재학	23.5	21.3	14.4	11.0	5.0	11.0	0.0	3.1	10.9
	활동	비재학 미취업	25.2	21.2	15.7	11.9	5.7	14.2	0.9	1.3	3.7

주: 1) 점유형태가 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인 케이스에 대해 분석함

4) 주거인식

- 향후 본인 명의 주택 마련에 대한 전망을 살펴보면 마련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31.6%로 가장 높았고, 10~20년 미만 23.0%, 7~10년 미만 10.6%, 20년 이후 10.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본인 명의 주택을 이미 소유했다는 비율은 5.4%로 매우 낮게 나타남. 이에 본인 명의 주택 마련이 불가능하다는 응답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성별에 따라서 본인 명의 주택 마련이 불가능하다는 응답은 여성은 31.8%, 남성은 31.3%로 유사하게 나타남
- 연령별로 본인 명의 주택 마련이 불가능하다는 응답은 25~29세까지 그 비율이 높아

지다가 30~35세에 다시 응답 비율이 줄어들었음

- 30대의 경우 자가를 이미 소유한 경우가 12.7%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임
- 학력별로 본인 명의 주택 마련이 불가능하다는 응답은 전문대 졸업이 41.2%로 가장 높았고, 대학원 졸업이 25.8%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가구유형별로 본인 명의 주택 마련이 불가능하다는 응답은 유자녀 부부가구는 18.5%, 무자녀 부부가구는 20.2%로 비교적 낮았고 나머지 가구유형은 30%대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이는 결혼한 청년의 경우 주택을 마련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임
- 경제활동 상태별로 본인 명의 주택 마련이 불가능하다는 응답은 실업자가 38.5%로 가장 높았고, 재학생이 26.1%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2-6-30] 본인 명의 주택 마련에 대한 전망

[단위: %]

구분			이미 소유	1년 이내	1~3년 미만	3~5년 미만	5~7년 미만	7~10년 미만	10~20 년 미만	20년 이후	마련 불가능
전체(n=5,194)			5.4	1.0	3.5	6.6	8.2	10.6	23.0	10.3	31.6
성별	남성		5.1	1.2	3.3	6.6	8.2	10.0	23.7	10.8	31.3
	여성		5.7	0.7	3.6	6.7	8.2	11.1	22.3	9.9	31.8
연령	18~19세		1.3	0.7	0.5	1.1	4.2	10.6	35.0	21.7	25.0
	20~24세		0.7	0.5	1.1	3.2	7.5	12.1	29.9	15.2	30.0
	25~29세		3.1	0.6	3.0	7.4	9.2	11.2	22.0	9.2	34.4
	30~35세		12.7	1.9	6.6	9.8	8.4	8.5	15.8	5.3	31.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9	0.6	2.0	4.0	7.2	11.1	27.1	14.8	31.3
	전문대 졸업		5.4	1.1	2.7	5.8	7.9	8.8	18.1	9.1	41.2
	대학교 졸업		7.9	1.2	4.8	8.6	9.2	10.8	20.9	7.2	29.5
	대학원 졸업		11.2	1.6	5.4	12.5	8.4	9.3	20.3	5.7	25.8
가구 유형	1인가구		5.0	0.7	3.1	7.3	9.6	10.6	22.0	8.6	33.1
	무자녀 부부가구		19.2	2.1	11.9	10.8	8.7	6.9	15.4	4.8	20.2
	유자녀 부부가구		28.5	1.8	7.3	9.5	6.6	7.6	15.2	5.1	18.5
	부모동거 가구		1.7	0.8	2.3	5.4	7.3	11.5	25.5	12.8	32.9
	기타가구		6.0	2.0	3.0	7.2	8.8	8.7	21.4	9.2	33.7
경제 활동 상태	경제 활동	취업	6.5	1.2	4.5	7.8	8.6	10.6	21.6	8.4	31.0
		실업	2.9	0.8	1.7	3.8	7.1	11.2	19.5	14.5	38.5
	비경제 활동	재학	1.0	0.2	0.3	4.1	6.9	10.3	33.2	18.0	26.1
		비재학 미취업	5.1	0.7	2.3	4.9	7.9	10.4	23.7	11.0	34.1

- 본인 명의 주택(자가) 소유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4.9%,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9.3%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 본인 명의 주택 소유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남성은 75.1%, 여성은 74.9%로 유사하게 나타남
- 연령과 학력이 높을수록 자가 소유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가구유형별로 본인 명의 주택 소유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무자녀 부부가구가 79.5%로 가장 높았고, 유자녀 부부가구가 71.1%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별로 본인 명의 주택 소유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취업자가 75.9%로 가장 높았고, 실업자가 72.5%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2-6-31] 본인 명의 주택(자가) 소유 필요 정도

[단위: %]

구분		필요 하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필요 하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n=5,194)		9.3	2.7	6.6	15.7	74.9	37.1	37.8
성별	남성	9.5	3.1	6.4	15.5	75.1	33.0	42.1
	여성	9.3	2.4	6.9	15.9	74.9	41.1	33.8
연령	18~19세	10.3	1.8	8.5	20.7	69.0	38.4	30.6
	20~24세	8.6	2.4	6.2	16.6	74.8	38.5	36.3
	25~29세	9.5	3.0	6.5	15.0	75.5	38.5	37.0
	30~35세	9.6	2.8	6.8	14.8	75.5	34.1	41.4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0.4	3.2	7.2	17.4	72.2	36.8	35.4
	전문대 졸업	7.9	1.8	6.1	15.7	76.4	37.6	38.8
	대학교 졸업	8.7	2.5	6.2	14.6	76.7	37.8	38.9
	대학원 졸업	11.0	3.5	7.5	11.9	77.2	32.4	44.8
가구 유형	1인가구	9.2	2.6	6.6	15.3	75.5	37.1	38.4
	무자녀 부부가구	9.1	2.5	6.6	11.4	79.5	32.5	47.0
	유자녀 부부가구	10.3	3.3	7.0	18.6	71.1	27.0	44.1
	부모동거 가구	9.3	2.8	6.5	16.3	74.5	38.9	35.6
	기타가구	10.8	2.8	8.0	15.3	74.0	35.3	38.7
경제 활동 상태	경제활동	취업	9.1	2.7	6.4	15.1	75.9	36.7
		실업	11.6	3.4	8.2	15.9	72.5	38.7
	비경제활동	재학	7.8	2.0	5.8	18.9	73.3	39.7
		비재학 미취업	10.5	3.1	7.4	16.1	73.4	36.4

- 본인 명의 주택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 이유를 살펴보면 높은 집값이 43.4%로 가장 높았고, 자가 보유보다 거주지 질이 중요해서가 25.7%, 자가 마련을 위해 현재의 삶을 희생하기 싫어서 22.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 본인 명의 주택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높은 집값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여성의 경우 현재의 삶을 희생하기 싫어서, 그리고 거주지 질이 중요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모든 연령에서 본인 명의 주택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높은 집값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18~19세는 현재의 삶을 희생하기 싫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5.5%로 다소 낮게 나타남
- 학력별로 본인 명의 주택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 이하, 전문대 졸업, 대학교 졸업은 높은 집값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대학원 졸업은 현재의 삶을 희생하기 싫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5.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모든 가구유형에서 본인 명의 주택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높은 집값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가운데 유자녀 부부가구는 자가 보유보다 거주지의 질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3.5%로 다소 높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별로 모두 본인 명의 주택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높은 집값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가운데 취업자는 현재의 삶을 희생하기 싫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3.9%로 다소 높게 나타남

[표 2-6-32] 본인 명의 주택(자가)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단위: %]

구분		높은 집값	자가마련을 위해 현재의 삶을 희생하기 싫어서	자산 증식 및 보전의 수단이 되기 어려움	이사를 자주해야 할 상황이라서	자가 보유보다 거주지의 질이 중요해서	기타
전체(n=485) ¹⁾		43.4	22.0	5.7	2.3	25.7	0.9
성별	남성	47.2	19.3	6.2	2.5	23.9	1.0
	여성	39.7	24.7	5.3	2.1	27.5	0.8
연령	18~19세	52.0	15.5	6.8	0.0	25.7	0.0
	20~24세	41.3	23.4	4.3	6.8	23.4	0.8
	25~29세	43.0	21.3	6.6	0.0	27.8	1.3
	30~35세	43.7	23.0	5.7	1.9	25.1	0.7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45.1	21.6	5.6	2.8	24.0	0.9
	전문대 졸업	51.4	22.9	7.1	2.5	16.2	0.0
	대학교 졸업	41.7	20.1	5.3	2.1	29.6	1.3
	대학원 졸업	28.1	35.7	6.9	0.0	29.3	0.0
가구 유형	1인가구	41.7	23.0	3.3	3.0	28.1	0.9
	무자녀 부부가구	40.5	26.7	6.6	0.0	22.6	3.5
	유자녀 부부가구	38.9	19.4	8.2	0.0	33.5	0.0
	부모동거 가구	46.9	21.0	6.6	1.8	23.0	0.8
	기타가구	32.7	22.6	8.5	6.2	30.0	0.0
경제 활동 상태	경제 활동	42.8	23.9	6.0	2.6	23.7	1.1
	실업	48.7	17.0	1.9	0.0	32.5	0.0
	비경제 활동	44.9	18.5	7.7	0.0	26.7	2.3
	비재학 미취업	41.9	19.8	6.2	3.8	28.4	0.0

주: 1) 본인명의 주택(자가)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 또는 '그렇지 않다'에 응답한 케이스에 대해 분석함

- 본인 명의 주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사하지 않고 원하는 기간만큼 거주할 수 있어서가 34.2%로 가장 높았고, 임대료 상승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기 때문 21.2%, 자산증식 및 보전을 위해서 20.6% 등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 본인 명의 주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남성과 여성 모두 원하는 기간만큼 거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남성은 자산증식 및 보전을 위해서(22.6%), 여성은 임대료 상승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기 때문(23.9%)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모든 연령에서 본인 명의 주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원하는 기간만큼 거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연령이 높을수록 사회

적분위기, 집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낮게 나타남

- 학력별로 본인 명의 주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로 모두 원하는 기간만큼 거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학력이 높을수록 임대료 상승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고,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낮게 나타남
- 모든 가구유형에서 본인 명의 주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원하는 기간만큼 거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유자녀 부부가구는 임대료 상승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별로 모두 본인 명의 주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원하는 기간만큼 거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취업자와 실업자는 집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표 2-6-33] 본인 명의 주택(자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단위: %]

구분		임대료 상승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기 때문	이사하지 않고 원하는 기간만큼 거주	자산증식 및 보전을 위해	사회적 분위기	집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서	기타	
전체(n=3,891) ¹⁾		21.2	34.2	20.6	9.5	13.2	1.4	
성별	남성	18.4	30.3	22.6	12.2	15.1	1.5	
	여성	23.9	37.9	18.6	7.0	11.2	1.3	
연령	18~19세	14.9	30.2	19.4	12.6	21.5	1.3	
	20~24세	21.2	28.5	19.8	12.4	16.4	1.8	
	25~29세	22.5	33.6	21.7	8.7	12.1	1.5	
	30~35세	20.9	40.4	20.2	7.6	10.1	0.9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7.9	29.7	20.2	12.8	17.9	1.5	
	전문대 졸업	22.2	36.7	18.5	9.7	11.0	1.9	
	대학교 졸업	23.2	36.9	21.4	7.3	10.1	1.1	
	대학원 졸업	25.8	37.5	21.4	4.3	9.3	1.8	
가구 유형	1인가구	23.1	36.1	20.2	8.3	10.2	2.1	
	무자녀 부부가구	21.0	40.7	22.8	5.2	9.5	0.7	
	유자녀 부부가구	16.6	44.7	21.8	4.1	12.5	0.4	
	부모동거 가구	20.1	30.9	20.8	11.3	15.9	1.1	
	기타	23.5	35.8	17.6	10.2	11.3	1.7	
경제 활동 상태	경제 활동	취업	21.0	35.3	21.3	8.8	12.1	1.5
		실업	24.5	35.2	17.5	10.5	11.2	1.2
	비경제 활동	재학	22.8	26.5	20.7	12.5	16.6	0.9
		비재학 미취업	19.1	34.1	18.7	10.2	16.6	1.3

주: 1) 본인명의 주택(자가)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에 응답한 케이스에 대해 분석함

- 응답자가 인식하는 1인가구가 거주하기에 적절한 주택면적은 평균 61.7m²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 1인가구가 거주하기에 적절한 주택면적에 대한 의견은 남성은 62.3m², 여성은 61.2m²로 남성이 약간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1인가구가 거주하기에 적절한 주택면적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30~35세가 63.3m²로 가장 높았고, 20~24세가 60.9m²로 가장 낮게 나타남
- 학력별로 1인가구가 거주하기에 적절한 주택면적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62.1m²로 가장 높았고, 대학원 졸업이 60.2m²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가구유형별로 1인가구가 거주하기에 적절한 주택면적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유자녀 부부가구가 64.1m²로 가장 높았고, 1인가구가 58.8m²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별로 1인가구가 거주하기에 적절한 주택면적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비재학 미취업자가 62.5m²로 가장 높았고, 실업자가 60.6m²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2-6-34] 1인가구 거주 적정 주택면적

[단위: m²]

구분			실제 주택면적	적정 주택면적
전체(n=5,194)			68.2	61.7
성별	남성		68.2	62.3
	여성		68.3	61.2
연령	18~19세		88.9	61.1
	20~24세		74.2	60.9
	25~29세		64.5	61.1
	30~35세		63.3	63.3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73.9	62.1
	전문대 졸업		66.8	61.5
	대학교 졸업		63.8	61.7
	대학원 졸업		65.6	60.2
가구유형	1인가구		32.4	58.8
	무자녀 부부가구		61.3	60.1
	유자녀 부부가구		73.7	64.1
	부모동거 가구		93.7	63.9
	기타가구		55.3	59.8
경제활동 상태	경제활동	취업	66.2	61.7
		실업	68.6	60.6
	비경제활동	재학	77.8	61.9
		비재학 미취업	70.1	62.5

- 집의 의미 1순위는 휴식의 공간이 36.7%로 가장 높았고, 안전하게 보호받는 공간 27.7%, 나만의 사적인 공간 19.9%, 가족과 함께하는 공간 10.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가 인식하는 집의 의미 2순위 역시 휴식의 공간이 31.3%로 가장 높았고, 나만의 사적인 공간 26.2%, 안전하게 보호받는 공간 16.0%, 가족과 함께하는 공간 13.4%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2-6-35] 집의 의미

[단위: %]

구분(n=5,194)	1순위	2순위
안전하게 보호받는 공간	27.7	16.0
휴식의 공간	36.7	31.3
가족과 함께하는 공간	10.9	13.4
나만의 사적인 공간	19.9	26.2
생리위생 및 세탁, 식사를 위한 공간	1.7	4.8
자산 증식을 위한 수단	2.6	6.6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주는 공간	0.6	1.7
기타	0.0	0.1

- 집의 의미 1순위를 성별, 연령, 학력, 가구유형,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살펴봄
- 성별에 따른 집의 의미(1순위)는 남성은 휴식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9.2%로 가장 높았고, 여성 역시 휴식이 라고 응답한 비율이 34.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모든 연령에서 집의 의미(1순위)로 휴식의 공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30~35세는 집의 의미(1순위)가 가족과 함께하는 공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4.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학력에 따라서 집의 의미(1순위)를 살펴보면 휴식의 공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학력이 높을수록 사적 공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 가구유형에 따라서 집의 의미(1순위)를 살펴보면 유자녀 부부가구는 가족과 함께하는 공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3.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나머지 유형은 휴식의 공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에 따른 집의 의미(1순위) 역시 휴식의 공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비재학 미취업자는 가족과 함께하는 공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2.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출신지역에 따라서도 집의 의미(1순위)가 서울태생과 서울로이주한 경우 모두 휴식의 공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36.0%, 38.3%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2-6-36] 집의 의미(1순위)

[단위: %]

구분		안전한 보호	휴식	가족과 함께 하는 공간	사적 공간	생활 공간	자산 증식	사회적 지위 대변	기타
전체(n=5,194)		27.5	37.0	11.0	19.8	1.7	2.6	0.6	0.0
성별	남성	22.8	39.2	13.4	19.2	1.4	3.3	0.8	0.0
	여성	32.0	34.8	8.6	20.3	2.1	1.9	0.3	0.0
연령	18~19세	29.2	39.0	10.5	17.5	0.3	2.8	0.6	0.0
	20~24세	28.2	37.6	8.4	20.9	2.2	2.2	0.5	0.0
	25~29세	27.1	37.9	9.5	20.8	1.6	2.4	0.7	0.1
	30~35세	26.9	34.9	14.9	18.1	1.7	3.1	0.4	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8.6	36.5	10.4	18.8	2.1	2.8	0.7	0.0
	전문대 졸업	27.2	37.6	11.8	19.2	1.5	2.1	0.7	0.0
	대학교 졸업	26.6	37.9	10.8	20.4	1.5	2.3	0.5	0.1
	대학원 졸업	26.2	30.6	14.8	23.0	0.7	4.8	0.0	0.0
가구 유형	1인가구	25.6	38.7	8.0	23.5	1.3	2.4	0.5	0.0
	무자녀 부부가구	26.2	36.3	20.0	11.4	1.5	4.2	0.6	0.0
	유자녀 부부가구	24.7	29.6	33.5	6.8	2.5	2.0	0.4	0.5
	부모동거 가구	28.8	36.5	10.1	19.3	1.9	2.7	0.7	0.0
	기타가구	29.8	37.1	7.3	21.9	2.5	1.3	0.0	0.0
경제 활동 상태	경제 활동	취업	27.1	37.8	10.7	19.8	1.5	2.7	0.3
		실업	26.4	38.5	10.7	19.6	1.8	2.6	0.5
	비경제 활동	재학	27.1	36.9	10.3	20.2	2.6	2.4	0.5
		비재학 미취업	29.8	32.6	12.5	19.5	1.9	2.2	1.5
출신 지역	서울 태생	28.1	36.0	11.7	18.8	2.0	2.7	0.7	0.0
	서울로 이주	26.5	38.3	9.9	21.2	1.3	2.5	0.3	0.0

- 집의 의미 2순위를 성별, 연령, 학력, 가구유형,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살펴봄
- 성별에 따른 집의 의미(2순위)는 남성(30.3%)과 여성(32.5%) 모두 휴식의 공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에 따른 집의 의미(2순위)를 살펴보면 18~19세는 사적공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3.6%로 가장 높았고 나머지 연령은 휴식의 공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집의 의미(2순위)를 살펴보면 모두 휴식의 공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대학원 졸업자는 사적 공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9.9%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가구유형에 따라서 집의 의미(2순위)를 살펴보면 유자녀 부부가구는 가족과 함께하는 공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1.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나머지 유형은 휴식의 공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별로 집의 의미(2순위)를 살펴보면 휴식의 공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취업자는 가족과 함께하는 공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4.4%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출신 지역별로 집의 의미(2순위)를 살펴보면 1순위와 마찬가지로 서울태생과 서울로 이주한 경우 모두 휴식의 공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31.2%, 31.7%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2-6-37] 집의 의미(2순위)

[단위: %]

구분			안전한 보호	휴식	가족과 함께 하는 공간	사적 공간	생활 공간	자산 증식	사회적 지위 대변	기타
전체(n=5,194)			15.9	31.4	13.6	26.1	4.7	6.5	1.7	0.1
성별	남성		12.1	30.3	16.1	26.9	4.7	7.9	2.0	0.0
	여성		19.6	32.5	11.2	25.4	4.7	5.1	1.4	0.1
연령	18~19세		16.8	31.1	8.9	33.6	3.4	4.3	2.0	0.0
	20~24세		16.1	30.8	13.2	27.3	5.6	5.3	1.7	0.0
	25~29세		15.8	32.1	11.9	27.1	5.3	6.1	1.7	0.1
	30~35세		15.8	31.1	16.8	22.6	3.6	8.4	1.7	0.1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4.7	31.1	13.3	28.1	5.5	5.4	2.0	0.0
	전문대 졸업		17.8	33.7	13.7	24.1	4.2	4.4	2.0	0.1
	대학교 졸업		16.0	30.6	13.8	25.6	4.4	8.0	1.5	0.1
	대학원 졸업		19.7	34.6	14.2	19.9	3.5	6.6	1.6	0.0
가구 유형	1인가구		15.1	32.1	8.8	30.8	5.3	6.5	1.3	0.1
	무자녀 부부가구		10.1	32.5	28.4	11.1	4.1	12.3	1.5	0.0
	유자녀 부부가구		19.3	27.3	31.5	7.1	3.0	10.1	1.3	0.4
	부모동거 가구		17.0	30.9	13.2	26.8	4.5	5.5	2.1	0.0
	기타가구		15.5	33.2	13.4	25.5	5.5	5.5	1.5	0.0
경제 활동 상태	경제 활동	취업	15.7	30.8	14.4	25.7	4.6	7.3	1.5	0.1
		실업	15.6	31.5	12.7	28.8	5.5	4.1	1.9	0.0
	비경제 활동	재학	15.7	33.5	10.6	27.0	4.4	5.5	3.2	0.2
		비재학 미취업	17.1	32.4	12.7	26.0	5.0	5.0	1.8	0.0
출신 지역	서울 태생		16.1	31.2	14.6	25.6	4.6	6.1	1.7	0.1
	서울로 이주		15.6	31.7	12.2	26.9	4.9	7.0	1.8	0.1

- 향후 내 집 선택시 고려사항 1순위는 주거비용이 50.3%로 가장 높았고, 주택 위치 17.9%, 주택 유형 10.8%, 주택 상태 9.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향후 내 집 선택시 고려사항 2순위는 주택 위치가 29.1%로 가장 높았고, 주거 환경 20.1%, 주택 위치 19.4%, 주택 유형 13.9%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2-6-38] 향후 내 집 선택 시 고려사항

[단위: %]

구분(n=5,194)	1순위	2순위
주거 비용(매매가격, 전월세가격 등)	50.3	12.7
주택 유형(아파트, 다세대/빌라, 원룸, 오피스텔 등)	10.8	13.9
주택 상태(주택규모, 노후도, 방의 개수, 인테리어 등)	9.9	19.4
주택 위치(직장/학교와의 거리, 부모님과의 거리)	17.9	29.1
주거환경(의료/문화/상업시설/도시공원 및 녹지 접근성/교통/교육환경 등)	8.4	20.1
향후 주택 가격 변화(미래 자산가치 상승 기대)	2.5	4.7
기타	0.1	0.1

- 향후 내 집 선택 시 고려사항 1순위를 성별, 연령, 학력, 가구유형,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살펴봄
- 성별에 따라서 향후 내 집 선택 시 고려사항 1순위를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주거 비용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52.7%, 48.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모든 연령에서 향후 내 집 선택 시 고려사항 1순위가 주거비용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연령이 높을수록 주택 유형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 학력에 따라서 향후 내 집 선택 시 고려사항 1순위가 주거비용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학원 졸업은 주택위치라고 응답한 비율이 27.6%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모든 가구 유형에서 향후 내 집 선택 시 고려사항 1순위가 주거비용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무자녀 부부가구(14.9%)와 유자녀 부부가구(14.2%)는 주택 유형이 1순위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서 향후 내 집 선택 시 고려사항 1순위는 주거비용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취업자의 경우 주택 유형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1.8%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2-6-39] 향후 내 집 선택 시 고려사항(1순위)

[단위: %]

구분			주거비용	주택유형	주택상태	주택위치	주거환경	주택가격 변화	기타
전체(n=5,194)			50.3	10.8	9.9	17.9	8.4	2.5	0.1
성별	남성		52.7	11.4	8.2	17.6	7.1	3.0	0.1
	여성		48.0	10.2	11.6	18.3	9.7	2.1	0.0
연령	18~19세		48.9	7.7	9.9	16.5	11.9	5.2	0.0
	20~24세		47.9	9.2	14.4	17.1	8.4	2.8	0.1
	25~29세		52.2	9.9	9.4	18.0	8.4	2.1	0.1
	30~35세		50.6	13.8	6.7	18.9	7.9	2.2	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48.6	10.3	11.5	16.9	9.3	3.2	0.1
	전문대 졸업		56.4	10.3	8.6	16.1	6.6	2.0	0.0
	대학교 졸업		50.3	11.6	9.4	18.3	8.4	2.0	0.0
	대학원 졸업		48.0	9.1	5.8	27.6	7.0	2.6	0.0
가구 유형	1인가구		52.7	10.6	9.9	17.6	6.5	2.5	0.1
	무자녀 부부가구		48.6	14.9	8.0	18.5	7.5	2.5	0.0
	유자녀 부부가구		39.9	14.2	8.6	21.0	13.5	2.8	0.0
	부모동거 가구		50.1	10.0	10.2	17.6	9.4	2.7	0.0
	기타가구		49.1	11.2	11.3	19.9	7.6	0.9	0.0
경제 활동 상태	경제	취업	50.1	11.8	9.2	19.0	7.5	2.3	0.1
	활동	실업	53.7	7.3	9.8	17.7	9.2	2.4	0.0
	비경제	재학	47.9	9.8	12.4	15.8	10.7	3.2	0.2
	활동	비재학 미취업	51.1	9.1	11.3	14.9	10.3	3.1	0.0

- 향후 내 집 선택 시 고려사항 2순위를 성별, 연령, 학력, 가구유형,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살펴봄
- 성별에 따른 향후 내 집 선택 시 고려사항 2순위는 남성과 여성 모두 주택 위치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31.2%, 27.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모든 연령에서 향후 내 집 선택 시 고려사항 2순위로 주택 위치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연령이 높을수록 주택 유형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 학력에 따라서 향후 내 집 선택 시 고려사항 2순위가 주택위치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문대 졸업은 주택 상태라고 응답한 비율이 23.4%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모든 가구 유형에서 향후 내 집 선택 시 고려사항 2순위가 주택위치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1인가구(21.7%)와 기타가구(23.9%)는 주택 상태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서 향후 내 집 선택 시 고려사항 2순위를 살펴보면 주택위치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재학생(21.4%)과 비재학 미취업자(22.4%)는 주거환경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2-6-40] 향후 내 집 선택 시 고려사항(2순위)

[단위: %]

구분			주거비용	주택유형	주택상태	주택위치	주거환경	주택가격 변화	기타
전체(n=5,194)			12.7	13.9	19.4	29.1	20.1	4.7	0.1
성별	남성		11.1	15.3	17.6	31.2	19.7	5.1	0.1
	여성		14.2	12.6	21.1	27.2	20.5	4.3	0.1
연령	18~19세		11.1	11.4	21.5	28.6	21.4	6.0	0.0
	20~24세		13.8	12.4	21.3	27.2	21.0	4.1	0.1
	25~29세		11.8	13.4	19.1	30.9	19.6	5.2	0.1
	30~35세		13.0	16.3	17.7	28.9	19.7	4.4	0.1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3.2	12.6	20.3	27.9	20.8	5.2	0.1
	전문대 졸업		11.4	14.8	23.4	28.1	18.4	3.9	0.0
	대학교 졸업		12.4	15.2	17.4	30.8	19.6	4.5	0.2
	대학원 졸업		14.6	11.6	19.3	26.9	22.6	4.7	0.3
가구 유형	1인가구		13.6	12.1	21.7	29.7	19.4	3.6	0.0
	무자녀 부부가구		12.2	18.0	13.8	32.6	16.9	6.2	0.2
	유자녀 부부가구		13.5	16.3	13.4	26.3	27.0	3.5	0.0
	부모동거 가구		11.8	14.6	18.6	28.6	21.0	5.3	0.2
	기타		15.3	12.6	23.9	28.5	14.9	4.8	0.0
경제 활동 상태	경제 활동	취업	13.3	13.8	19.0	29.5	19.7	4.6	0.1
	경제 활동	실업	13.1	14.4	21.9	29.5	17.3	3.8	0.0
	비경제 활동	재학	10.2	13.1	21.3	27.7	21.4	6.2	0.2
	비경제 활동	비재학 미취업	11.5	14.6	18.7	28.4	22.4	4.4	0.0

- 주택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만족한다는 응답은 55.6%,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2.6%,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11.9%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 여성은 12.6% 남성은 11.1%로 주택 전반에 대해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남
- 연령이 높을수록 주택 전반에 대해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주택 전반에 대해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대학원 졸업이 15.0%로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10.4%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가구유형에 따라서 주택 전반에 대해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1인가구가 15.5%로 가장 높았고, 부모동거 가구가 9.5%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별로 주택 전반에 대해 불만족한다는 응답을 살펴보면 실업자가 14.3%로 가장 높았고, 재학생이 9.4%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주거환경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만족한다는 응답은 57.6%,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0.9%,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11.6%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 주거환경 전반에 불만족 한다는 응답은 여성은 12.9% 남성은 10.2%로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남
- 연령이 높을수록 주거환경 전반에 불만족 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주거환경 전반에 대해 불만족 한다는 응답은 대학원 졸업이 13.3%로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9.8%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가구유형에 따라서 주거환경 전반에 대해 불만족 한다는 응답은 1인가구가 14.2%로 가장 높았고, 부모동거 가구가 9.1%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별로 주거환경 전반에 대해 불만족 한다는 응답은 비재학 미취업자가 12.8%로 가장 높았고, 재학생이 7.8%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2-6-41] 주택 및 주거환경 만족도

[단위: %]

구분			주택 전반 ¹⁾			주거환경 전반 ¹⁾		
			불만족	보통	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전체(n=5,194)			11.9	32.6	55.6	11.6	30.9	57.6
성별	남성		11.1	34.3	54.6	10.2	33.2	56.6
	여성		12.6	31.0	56.5	12.9	28.7	58.4
연령	18~19세		4.4	25.0	70.6	4.0	25.2	70.8
	20~24세		9.3	30.3	60.4	9.1	28.9	62.0
	25~29세		13.4	34.0	52.7	13.2	32.0	54.8
	30~35세		13.8	34.5	51.7	13.3	32.5	54.3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0.4	32.1	57.6	9.8	30.9	59.3
	전문대 졸업		13.0	37.7	49.3	13.0	35.6	51.4
	대학교 졸업		12.5	32.2	55.4	12.5	29.8	57.7
	대학원 졸업		15.0	27.5	57.5	13.3	27.6	59.2
가구 유형	1인가구		15.5	36.4	48.1	14.2	35.2	50.7
	무자녀 부부가구		10.4	32.5	57.1	13.1	28.7	58.3
	유자녀 부부가구		11.5	35.1	53.4	13.6	30.1	56.4
	부모동거 가구		9.5	29.5	60.9	9.1	28.4	62.5
	기타		12.9	35.4	51.7	14.0	31.2	54.7
경제 활동 상태	경제 활동	취업	12.0	33.3	54.8	11.7	31.6	56.7
		실업	14.3	29.8	55.9	12.7	27.8	59.5
	비경제 활동	재학	9.4	24.9	65.7	7.8	24.4	67.8
		비재학 미취업	11.8	36.6	51.7	12.8	34.1	53.1

주: 1) '불만족'은 '매우 불만족한다'+ '불만족한다'를 합산 비율, '만족'은 '매우 만족한다'+ '만족한다'를 합산한 비율임

1) 결핍

- 경제적 어려움으로 공교육비를 한 달 이상 미납한 적이 있는 경우는 4.0%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 공교육비를 한 달 이상 미납한 적이 있는 경우는 여성은 4.5% 남성은 3.5%로 여성이 약간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공교육비를 한 달 이상 미납한 적이 있는 경우는 25~29세가 4.6%로 가장 높았고, 18~19세가 3.0%로 가장 낮게 나타남
- 학력에 따라서 공교육비를 한 달 이상 미납한 적이 있는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4.5%로 가장 높았고, 대학원 졸업이 2.1%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가구유형에 따라서 공교육비를 한 달 이상 미납한 적이 있는 경우를 살펴보면 기타가 4.8%로 가장 높았고, 유자녀 부부가구가 3.2%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별로 공교육비를 한 달 이상 미납한 적이 있는 경우를 살펴보면 실업자가 6.1%로 가장 높았고, 재학생이 2.5%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경제적 어려움으로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6.7%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여성은 8.5% 남성은 4.8%로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경우를 살펴보면 25~29세가 8.1%로 가장 높았고, 18~19세가 5.0%로 가장 낮게 나타남
- 학력에 따라서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경우를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8.0%로 가장 높았고, 대학원 졸업이 3.8%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가구유형별로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경우를 살펴보면 1인가구가 9.2%로 가장 높았고, 유자녀 부부가구가 3.8%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별로 공교육비를 한 달 이상 미납한 적이 있는 경우를 살펴보면 실업자가 9.3%로 가장 높았고, 재학생이 4.3%로 가장 낮게 나타남
- 본인 또는 가족 중 신용유의자가 있는 경우는 7.2%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 가족 중 신용유의자가 있는 경우를 살펴보면 여성은 7.9% 남성은 6.5%로 여성이 약간 높게 나타남
- 연령에 따라서 가족 중 신용유의자가 있는 경우를 살펴보면 30~35세가 8.3%로 가장 높았고, 18~19세가 4.2%로 가장 낮게 나타남
- 학력별로 가족 중 신용유의자가 있는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9.3%로 가장 높았고, 대학교 졸업이 5.5%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가구유형별로 가족 중 신용유의자가 있는 경우는 기타 가구가 8.6%로 가장 높았고, 부모동거 가구가 6.4%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별로 가족 중 신용유의자가 있는 경우는 실업자가 9.6%로 가장 높았고, 재학생이 2.8%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경제적 어려움으로 주거 관련 비용을 미납한 적이 있는 경우는 8.1%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 주거 관련 비용을 미납한 적이 있는 경우는 여성은 8.9% 남성은 7.2%로 여성이 약간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주거 관련 비용을 미납한 적이 있는 경우는 30~35세가 9.9%로 가장 높았고, 20~24세가 5.4%로 가장 낮게 나타남
- 학력에 따라서 주거 관련 비용을 미납한 적이 있는 경우를 살펴보면 전문대 졸업이 9.4%로 가장 높았고, 대학원 졸업이 5.4%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가구유형별로 주거 관련 비용을 미납한 적이 있는 경우는 기타 가구가 10.4%로 가장 높았고, 부모동거 가구가 6.5%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별로 주거 관련 비용을 미납한 적이 있는 경우는 실업자가 10.2%로 가장 높았고, 재학생이 4.7%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경제적 어려움으로 집의 냉난방을 유지하지 못한 적이 있는 경우는 6.9%로 나타남
- 성별로는 여성은 7.7% 남성은 6.1%로 여성이 남성보다 집의 냉난방을 유지하지 못한 적이 있는 응답자 비율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남
- 연령에 따라서 집의 냉난방을 유지하지 못한 적이 있는 경우를 살펴보면 25~29세가 8.2%로 가장 높았고, 20~24세가 5.3%로 가장 낮게 나타남
- 학력별로 집의 냉난방을 유지하지 못한 적이 있는 경우를 살펴보면 전문대 졸업과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7.4%로 가장 높았고, 대학교 졸업이 6.3%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가구유형에 따라서 집의 냉난방을 유지하지 못한 적이 있는 경우를 살펴보면 1인가구가 10.5%로 가장 높았고 유자녀 부부가구가 3.4%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별로 집의 냉난방을 유지하지 못한 적이 있는 경우는 실업자가 11.2%로 가장 높았고, 재학생이 5.2%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2-7-1]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생활 결핍 경험

[단위: %]

구분		공교육비 한 달 이상 미납			돈이 없어 병원		본인 또는 가족 중 신용유이자		주거관련 비용 미납		집 냉난방 유지 못함		
		있다	없다	비해당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전체(n=5,194)		4.0	65.8	30.2	6.7	93.3	7.2	92.8	8.1	91.9	6.9	93.1	
성별	남성	3.5	67.2	29.3	4.8	95.3	6.5	93.5	7.2	92.8	6.1	94.0	
	여성	4.5	64.4	31.2	8.5	91.5	7.9	92.1	8.9	91.1	7.7	92.3	
연령	18~19세	3.0	71.7	25.4	5.0	95.0	4.2	95.8	5.8	94.2	5.7	94.3	
	20~24세	3.6	76.1	20.3	5.6	94.4	7.2	92.9	5.4	94.7	5.3	94.7	
	25~29세	4.6	63.3	32.0	8.1	91.9	6.8	93.2	9.0	91.0	8.2	91.8	
	30~35세	3.9	58.4	37.7	6.4	93.7	8.3	91.7	9.9	90.1	7.0	93.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4.5	69.8	25.8	8.0	92.0	9.3	90.7	8.9	91.1	7.4	92.6	
	전문대 졸업	3.7	58.5	37.8	7.0	93.0	6.3	93.7	9.4	90.6	7.4	92.6	
	대학교 졸업	3.9	63.9	32.2	5.8	94.2	5.5	94.5	7.3	92.8	6.3	93.7	
	대학원 졸업	2.1	68.9	29.1	3.8	96.2	7.8	92.3	5.4	94.6	6.4	93.6	
가구유형	1인가구	4.2	65.5	30.4	9.2	90.8	8.1	91.9	9.8	90.2	10.5	89.6	
	무자녀 부부가구	3.9	59.9	36.1	7.0	93.0	6.9	93.1	9.8	90.3	5.4	94.6	
	유자녀 부부가구	3.2	58.4	38.4	3.8	96.2	7.5	92.5	8.2	91.8	3.4	96.7	
	부모동거 가구	3.9	67.6	28.6	5.3	94.8	6.4	93.6	6.5	93.5	5.0	95.0	
	기타가구	4.8	64.2	31.0	6.7	93.3	8.6	91.4	10.4	89.6	7.2	92.8	
경제활동 동상태	경제활동	취업	4.1	64.1	31.8	6.7	93.3	7.9	92.1	8.4	91.6	6.6	93.4
		실업	6.1	63.9	30.0	9.3	90.7	9.6	90.4	10.2	89.8	11.2	88.8
	비경제활동	재학	2.5	84.2	13.3	4.3	95.7	2.8	97.2	4.7	95.3	5.2	94.8
		비재학 미취업	3.8	61.1	35.1	7.1	92.9	6.1	93.9	8.0	92.0	6.9	93.1

- 앞에 제시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응답자들이 겪었던 생활상의 결핍 경험의 수를 살펴보면 없는 경우(0개)가 83.0%로 가장 높았고, 1개는 8.5%, 2개는 4.3%, 3개는 2.2%, 4개는 1.1%, 5개는 0.9%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 결핍 경험의 수가 5개인 응답자 비율을 살펴보면 여성은 1.2%, 남성은 0.7%로 여성이 약간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결핍 경험의 수가 5개인 응답자 비율을 살펴보면 25~29세가 1.2%로 가장 높았고, 18~19세가 0.6%로 가장 낮게 나타남
- 학력에 따라서 결핍 경험의 수가 5개인 응답자 비율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1.3%로 가장 높았고, 대학원 졸업이 0.0%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가구유형별로 결핍 경험의 수가 5개인 응답자 비율은 1인가구가 1.4%로 가장 높았고, 무자녀 부부가구가 0.6%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별로 결핍 경험의 수가 5개인 응답자 비율을 살펴보면 실업자가 1.4%로 가장 높았고, 재학생과 비재학 미취업자가 0.7%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2-7-2]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생활결핍 경험 수

[단위: %]

구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생활결핍 경험 수 ¹⁾					
		0개(없음)	1개	2개	3개	4개	5개
전체(n=5,194)		83.0	8.5	4.3	2.2	1.1	0.9
성별	남성	85.6	7.3	3.7	1.6	1.0	0.7
	여성	80.6	9.6	4.8	2.6	1.2	1.2
연령	18~19세	88.7	6.0	2.8	0.3	1.6	0.6
	20~24세	85.6	7.2	4.3	1.4	0.9	0.7
	25~29세	81.4	8.7	4.8	2.8	1.0	1.2
	30~35세	81.5	9.9	3.9	2.4	1.4	0.9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81.9	8.1	4.7	2.2	1.7	1.3
	전문대 졸업	80.3	10.8	6.2	1.0	0.7	0.9
	대학교 졸업	84.5	8.3	3.4	2.3	0.8	0.7
	대학원 졸업	85.3	7.6	3.4	3.4	0.4	0.0
가구 유형	1인가구	78.8	10.2	5.3	3.0	1.4	1.4
	무자녀 부부가구	82.2	9.2	4.3	3.1	0.6	0.6
	유자녀 부부가구	85.1	7.3	5.7	1.2	0.0	0.8
	부모동거 가구	86.0	7.2	3.4	1.4	1.2	0.7
	기타가구	80.3	10.0	4.6	3.3	0.9	0.9
경제 활동 상태	경제 활동 취업	82.0	9.3	4.6	2.1	1.0	1.0
	경제 활동 실업	79.0	8.6	5.3	3.8	1.9	1.4
	비경제 활동 재학	90.2	4.9	2.2	1.1	0.9	0.7
	비경제 활동 비재학 미취업	84.2	7.5	3.7	2.3	1.6	0.7

주: 1) '돈이 없어서 공교육비를 한 달 이상 내지 못함', 돈이 없어서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갈 수 없었음, 본인 또는 가족 중 신용유지자인 사람이 있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주거와 관련된 비용을 지불하지 못함,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집의 냉·난방을 유지하지 못한 적이 있음' 중 경험 유무에 따라 0개(없음)~5개로 계산함

- 경제적 어려움으로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도 살 돈이 없었던 적이 있는 응답자는 13.8%로 나타남
- 성별로는 여성의 14.8%, 남성의 12.7%가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도 살 돈이 없었던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도 살 돈이 없었던 적이 있는 경우는 25~29세가 17.2%로 가장 높았고, 18~19세가 7.8%로 가장 낮게 나타남
- 학력별로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도 살 돈이 없었던 적이 있는 경우는 전문대 졸업이 16.4%로 가장 높았고, 대학원 졸업이 10.2%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가구유형별로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도 살 돈이 없었던 적이 있는 경우는 1인가구가 20.5%로 가장 높았고, 부모동거 가구가 9.4%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별로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도 살 돈이 없었던 적이 있는 경우를 살펴보면 실업자가 20.6%로 가장 높았고, 재학생이 10.0%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다소 편차가 크게 나타남
- 경제적 어려움으로 먹을 것을 살 돈이 없어서 균형 잡힌 식단을 할 수 없었던 적이 있는 응답자는 20.0%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 먹을 것을 살 돈이 없어서 균형 잡힌 식단을 할 수 없던 적이 있는 경우는 여성은 22.4%, 남성은 17.5%로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먹을 것을 살 돈이 없어서 균형 잡힌 식단을 할 수 없던 적이 있는 경우는 25~29세가 23.2%로 가장 높았고, 18~19세가 12.9%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다소 편차가 크게 나타남
- 학력별로 먹을 것을 살 돈이 없어서 균형 잡힌 식단을 할 수 없던 적이 있는 경우는 전문대 졸업이 22.7%로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19.0%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별로 먹을 것을 살 돈이 없어서 균형 잡힌 식단을 할 수 없던 적이 있는 경우는 실업자가 28.1%로 가장 높았고 재학생이 14.8%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다소 편차가 크게 나타남

[표 2-7-3]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식생활 결핍 경험

[단위: %]

구분			경제적 어려움으로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도 더 살 돈이 없었다				먹을 것을 살 돈이 없어서 균형잡힌 식단을 할 수 없었다					
			그런 적이 있다	자주 그렇다	가끔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모름/거부	그런 적이 있다	자주 그렇다	가끔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모름/거부
전체(n=5,194)			13.8	1.4	12.4	79.0	7.2	20.0	3.8	16.2	73.4	6.6
성별	남성		12.7	1.3	11.4	78.9	8.4	17.5	2.9	14.6	74.4	8.0
	여성		14.8	1.5	13.3	79.2	6.0	22.4	4.7	17.7	72.3	5.3
연령	18~19세		7.8	0.4	7.4	77.9	14.3	12.9	1.8	11.1	73.3	13.8
	20~24세		12.6	1.7	10.9	78.4	9.1	18.1	3.1	15.0	73.3	8.6
	25~29세		17.2	2.0	15.2	75.4	7.3	23.2	5.6	17.6	70.3	6.5
	30~35세		12.1	0.6	11.5	83.8	4.0	19.4	2.8	16.6	76.8	3.7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4.4	2.2	12.2	76.5	9.2	19.0	3.9	15.1	72.2	8.8
	전문대 졸업		16.4	0.9	15.5	74.4	9.2	22.7	3.6	19.1	68.2	9.1
	대학교 졸업		13.0	0.9	12.1	81.7	5.3	20.0	3.8	16.2	75.5	4.4
	대학원 졸업		10.2	1.1	9.1	87.9	1.9	20.9	3.6	17.3	77.2	1.9
가구유형	1인가구		20.5	2.1	18.4	73.9	5.5	30.9	6.9	24.0	64.5	4.7
	무자녀 부부가구		11.7	1.3	10.4	85.0	3.4	15.3	2.8	12.5	81.6	3.1
	유자녀 부부가구		13.7	0.4	13.3	82.6	3.7	16.7	1.2	15.5	78.8	4.5
	부모동거 가구		9.4	1.0	8.4	81.7	8.9	12.9	2.0	10.9	78.7	8.5
	기타가구		16.0	1.8	14.2	75.9	8.1	27.2	5.6	21.6	65.6	7.2
경제활동상태	경제활동	취업	13.2	1.5	11.7	80.8	6.1	19.3	4.0	15.3	75.1	5.6
	경제활동	실업	20.6	1.9	18.7	68.7	10.7	28.1	4.6	23.5	62.6	9.4
	비경제활동	재학	10.0	1.5	8.5	82.6	7.5	14.8	2.9	11.9	78.1	7.2
	비경제활동	비재학 미취업	15.6	0.9	14.7	74.7	9.7	22.4	3.3	19.1	68.6	9.0

2) 건강

(1) 건강 상태 및 병원이용

- 주관적 건강 상태가 나쁘다고 인식하는 응답자는 17.0%로 나타남
- 성별로는 여성은 19.5%, 남성은 14.3%로 여성이 남성보다 주관적 건강 상태가 나쁘다고 인식하는 응답자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 연령이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 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학력별로 주관적 건강 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문대 졸업이 22.2%로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15.0%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가구유형별로 주관적 건강 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은 기타 가구가 24.2%로 가장 높았고, 유자녀 부부가구가 12.9%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별로 주관적 건강 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은 비재학 미취업자가 19.0%로 가장 높았고, 재학생이 10.1%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2-7-4] 주관적 건강 상태

[단위: %]

구분		건강 나쁨	건강 정도		보통이다	건강 양호	건강 정도	
			전혀 건강하지 않다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건강한 편이다	매우 건강하다
전체(n=5,194)		17.0	1.9	15.1	27.6	55.4	46.2	9.2
성별	남성	14.3	1.8	12.5	26.2	59.5	48.0	11.5
	여성	19.5	2.0	17.6	28.9	51.6	44.5	7.0
연령	18~19세	8.5	1.4	7.1	21.9	69.6	48.3	21.3
	20~24세	14.4	1.6	12.8	25.4	60.2	48.7	11.5
	25~29세	18.0	2.4	15.6	28.4	53.7	44.8	8.9
	30~35세	19.7	1.6	18.0	29.7	50.6	45.3	5.3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5.0	2.2	12.8	27.1	57.9	46.2	11.8
	전문대 졸업	22.2	3.2	19.0	32.4	45.4	38.6	6.8
	대학교 졸업	17.4	1.3	16.1	26.4	56.2	48.3	7.8
	대학원 졸업	15.2	0.7	14.5	29.1	55.7	48.3	7.4
가구 유형	1인가구	19.9	2.6	17.3	28.7	51.5	43.7	7.8
	무자녀 부부가구	17.7	1.6	16.1	29.0	53.4	47.9	5.5
	유자녀 부부가구	12.9	0.4	12.5	39.3	47.9	42.9	5.0
	부모동거 가구	14.5	1.5	13.0	25.8	59.8	48.5	11.3
	기타가구	24.2	2.5	21.8	26.6	49.2	42.2	7.0
경제 활동 상태	경제 활동	취업	17.4	1.6	15.8	27.6	55.0	46.5
	경제 활동	실업	18.7	3.3	15.4	28.2	53.1	42.9
	비경제 활동	재학	10.1	2.2	7.9	21.8	68.1	54.5
	비경제 활동	비재학 미취업	19.0	2.1	16.9	31.2	49.8	41.1

- 최근 1년간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주로 취한 조치를 살펴보면 병원 진찰 후 치료를 받은 경우가 67.7%로 가장 높았고, 아프거나 다친 적이 없음 16.4%, 병원 방문 없이

- 약만 복용하거나 바름 10.1%,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참음 5.7% 순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 아프거나 다쳤을 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참은 경우는 남성 6.4%, 여성 5.0%로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남
- 연령과 학력이 낮을수록 아프거나 다쳤을 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참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가구유형별로 아프거나 다쳤을 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참은 경우는 1인가구와 유자녀 부부가구가 6.9%로 가장 높았고, 기타 가구가 3.2%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별로 아프거나 다쳤을 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참은 경우는 비재학 미취업자가 7.1%로 가장 높았고, 재학생이 5.3%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2-7-5] 최근 1년간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주로 취한 조치

[단위: %]

구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참음	아프거나 다친 적이 없음	병원 진찰 후 치료받음	병원 방문 없이 약만 복용·바름	기타	
전체(n=5,194)		5.7	16.4	67.7	10.1	0.1	
성별	남성	6.4	21.3	63.6	8.5	0.2	
	여성	5.0	11.6	71.7	11.7	0.0	
연령	18~19세	9.7	21.2	58.9	10.2	0.0	
	20~24세	6.8	17.4	64.3	11.3	0.2	
	25~29세	5.4	16.0	67.9	10.7	0.1	
	30~35세	4.3	15.0	72.2	8.4	0.1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7.6	19.4	61.9	11.0	0.2	
	전문대 졸업	6.5	15.5	68.7	9.1	0.1	
	대학교 졸업	4.0	14.6	71.8	9.5	0.0	
	대학원 졸업	2.9	10.4	75.3	11.0	0.4	
가구 유형	1인가구	6.9	15.5	66.0	11.5	0.1	
	무자녀 부부가구	4.1	14.2	72.8	8.9	0.0	
	유자녀 부부가구	6.9	17.8	69.1	6.3	0.0	
	부모동거 가구	5.3	17.2	67.9	9.5	0.2	
	기타가구	3.2	15.3	69.4	12.1	0.0	
경제 활동 상태	경제 활동	취업	5.4	15.6	69.6	9.3	0.2
		실업	6.0	15.9	67.4	10.4	0.2
	비경제 활동	재학	5.3	20.0	62.9	11.8	0.0
		비재학 미취업	7.1	17.4	63.2	12.4	0.0

-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 1순위는 증상이 가볍다고 생각해서가 29.8%로 가장 높았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27.0%,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20.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 2순위를 살펴보면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가 44.5%로 가장 높았고, 증상이 가볍다고 생각해서 27.1%,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15.3%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2-7-6]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

[단위: %]

구분	1순위 (n=292) ¹⁾	2순위 (n=291) ¹⁾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27.0	8.1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20.6	15.3
가까운 곳에 병원이 없어서	0.6	3.5
증상이 가볍다고 생각해서	29.8	27.1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18.4	44.5
기타	3.6	1.4

주: 1) 아프거나 다쳤을 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참았다'라고 응답한 케이스를 대상으로 분석함

-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 1순위를 성별, 연령, 학력, 가구유형, 경제활동 상태별로 살펴봄
-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31.8%)과 여성(27.5%) 모두 증상이 가볍다고 생각해서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에 가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25~29세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30.6%)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에 가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나머지 연령에서는 증상이 가볍다고 생각해서 병원에 가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 이하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31.3%)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에 가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전문대 졸업은 증상이 가볍다 생각해서가 34.1%, 대학교 졸업은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가 25.6%, 대학원 졸업은 증상이 가볍다 생각해서가 42.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가구유형별로 1인가구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33.5%), 무자녀 부부가구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36.6%), 유자녀 부부가구는 증상이 가볍다고 생각해서(36.7%), 부모동거 가구는 증상이 가볍다고 생각해서(32.8%), 기타 가구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53.0%)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에 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별로 취업자는 증상이 가볍다고 생각해서(27.9%), 실업자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34.4%), 재학생은 증상이 가볍다고 생각해서(33.3%), 비재학 미취업자는 증상이 가볍다고 생각해서(34.2%)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에 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표 2-7-7]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1순위)

[단위: %]

구분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가까운 곳에 병원이 없어서	증상이 가볍다고 생각해서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기타	
전체(n=292) ¹⁾		27.0	20.6	0.6	29.8	18.4	3.6	
성별	남성	26.9	15.5	0.6	31.8	21.3	4.0	
	여성	27.1	26.7	0.6	27.5	15.0	3.1	
연령	18~19세	25.9	17.7	0.0	37.4	15.5	3.5	
	20~24세	25.5	11.8	0.0	36.0	21.3	5.4	
	25~29세	30.6	25.4	1.8	20.6	18.2	3.4	
	30~35세	24.5	27.0	0.0	31.2	16.0	1.4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31.3	17.0	0.0	30.5	17.8	3.4	
	전문대 졸업	15.3	28.6	2.2	34.1	13.3	6.6	
	대학교 졸업	25.6	23.7	0.9	25.4	21.8	2.6	
	대학원 졸업	25.4	10.8	0.0	42.7	21.1	0.0	
가구 유형	1인가구	33.5	22.5	0.8	28.8	12.8	1.6	
	무자녀 부부가구	33.8	36.6	0.0	16.1	13.6	0.0	
	유자녀 부부가구	24.5	27.7	0.0	36.7	5.1	6.0	
	부모동거 가구	20.1	14.1	0.6	32.8	26.8	5.6	
	기타가구	38.8	53.0	0.0	8.2	0.0	0.0	
경제 활동 상태	경제 활동	취업	27.4	23.6	1.0	27.9	17.2	3.0
		실업	34.4	7.4	0.0	30.2	15.9	12.0
	비경제 활동	재학	29.1	18.0	0.0	33.3	19.7	0.0
		비재학 미취업	21.5	18.2	0.0	34.2	22.7	3.5

주: 1) 아프거나 다쳤을 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참았다'라고 응답한 케이스를 대상으로 분석함

-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 2순위를 성별, 연령, 학력, 가구유형, 경제 활동 상태별로 살펴봄
-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46.0%)과 여성(42.8%) 모두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에 가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모든 연령에서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에 가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살펴보면 모든 학력 수준에서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에 가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대학원 졸업자는 78.9%로 다소 높게 나타남
- 가구유형별로는 무자녀 부부가구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50.9%), 나머지 가구유형은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에 가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별로도 취업자, 실업자, 재학생, 비재학 미취업자 모두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에 가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2-7-8]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2순위)

[단위: %]

구분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가까운 곳에 병원이 없어서	증상이 가볍다 생각해서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기타	
전체(n=291) ¹⁾		8.1	15.3	3.5	27.1	44.5	1.4	
성별	남성	6.3	14.2	3.8	27.9	46.0	1.9	
	여성	10.4	16.6	3.2	26.2	42.8	0.8	
연령	18~19세	0.0	7.0	3.3	27.7	58.5	3.5	
	20~24세	11.2	11.8	6.6	24.8	42.3	3.3	
	25~29세	8.6	20.2	2.2	30.4	38.7	0.0	
	30~35세	6.8	16.8	1.4	25.2	49.8	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5.9	15.5	4.7	25.1	46.7	2.0	
	전문대 졸업	15.1	7.9	0.0	34.4	40.1	2.6	
	대학교 졸업	9.3	19.8	3.5	27.5	39.9	0.0	
	대학원 졸업	0.0	0.0	0.0	21.1	78.9	0.0	
가구 유형	1인가구	8.3	12.9	3.7	26.0	47.3	1.8	
	무자녀 부부가구	16.6	50.9	0.0	22.4	10.1	0.0	
	유자녀 부부가구	5.5	30.7	0.0	16.6	47.2	0.0	
	부모동거 가구	6.6	12.7	4.4	29.9	44.9	1.5	
	기타가구	20.2	8.7	0.0	25.8	45.3	0.0	
경제 활동 상태	경제 활동	취업	8.6	16.3	3.5	29.7	40.8	1.2
		실업	11.5	15.9	3.3	19.7	45.4	4.2
	비경제 활동	재학	11.7	17.0	7.5	15.8	48.0	0.0
		비재학 미취업	3.2	11.1	1.9	27.8	54.3	1.7

주: 1) 아프거나 다쳤을 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참았다'라고 응답한 케이스를 대상으로 분석함

- 최근 2년간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없는 응답자는 45.4%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의 51.3%, 여성 39.8%가 최근 2년간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과 학력이 낮을수록 최근 2년간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 가구유형별로 최근 2년간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는 부모동거 가구가 52.0%로 가장 높았고, 무자녀 부부가구가 19.6%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별로 최근 2년간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는 재학생이 70.3%로 가장 높았고, 취업자가 36.5%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2-7-9] 최근 2년간 건강검진 여부

[단위: %]

구분			있다	없다
전체(n=5,194)			54.6	45.4
성별	남성		48.7	51.3
	여성		60.3	39.8
연령	18~19세		20.5	79.5
	20~24세		39.4	60.6
	25~29세		56.9	43.1
	30~35세		71.6	28.4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36.0	64.0
	전문대 졸업		59.0	41.0
	대학교 졸업		68.5	31.5
	대학원 졸업		68.7	31.3
가구유형	1인가구		57.0	43.0
	무자녀 부부가구		80.4	19.6
	유자녀 부부가구		71.3	28.7
	부모동거 가구		48.0	52.0
	기타가구		56.1	43.9
경제활동상태	경제활동	취업	63.5	36.5
		실업	44.7	55.3
	비경제활동	재학	29.7	70.3
		비재학 미취업	39.0	61.0

(2) 정신건강

- 응답자의 우울 증상을 살펴보기 위해 CES-D 점수를 활용하였으며 계산법에 따른 CES-D 점수가 16점 이상이면 우울 증상을 의심할 수 있음(표 각주 참조)
- 우울 증상이 의심되는 응답자는 34.2%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 여성의 38.4%, 남성의 29.9%가 우울 증상이 의심됨
- 연령에 따라서 우울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는 25~29세가 36.5%로 가장 높았고, 18~19세가 29.7%로 가장 낮게 나타남
- 학력에 따라서 우울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는 전문대 졸업이 41.5%로 가장 높았고, 대학원 졸업이 30.7%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가구유형에 따라서 우울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는 1인가구가 37.6%로 가장 높았고, 무자녀 부부가구가 31.6%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별로 우울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는 실업자가 42.6%로 가장 높았고, 재학생이 25.7%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산출된 CES-D 점수에 따라 저위험군(16점 미만), 중위험군(16~24점), 고위험군(25점 이상)으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 고위험군 비율은 17.9%로 나타남

- 성별에 따른 우울 점수 고위험군 비율은 여성은 19.5%, 남성은 16.1%로 여성이 남성보다 약간 더 높게 나타남
- 연령별 우울 점수 고위험군 비율은 25~29세가 19.2%로 가장 높았고, 18~19세가 13.1%로 가장 낮게 나타남
- 학력에 따라서 우울 점수 고위험군 비율을 살펴보면 전문대 졸업이 21.5%로 가장 높았고, 대학원 졸업이 14.6%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가구유형별 우울 점수 고위험군 비율은 1인가구가 20.4%로 가장 높았고, 유자녀 부부가구가 13.7%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별 우울 점수 고위험군 비율은 실업자가 28.4%로 가장 높았고, 재학생이 10.5%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2-7-10] 우울증상 여부 및 위험도

(단위: %, 점)

구분		우울 없음 ¹⁾	우울 있음 ¹⁾	우울 위험도 ²⁾			평균 ³⁾	
				저위험군	중위험군	고위험군		
전체(n=5,194)		65.8	34.2	65.8	16.4	17.9	13.4	
성별	남성	70.1	29.9	70.1	13.8	16.1	12.3	
	여성	61.7	38.4	61.7	18.8	19.5	14.6	
연령	18~19세	70.3	29.7	70.3	16.6	13.1	11.9	
	20~24세	69.2	30.8	69.2	14.8	16.1	12.6	
	25~29세	63.5	36.5	63.5	17.3	19.2	14.0	
	30~35세	64.5	35.5	64.5	16.7	18.8	13.8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66.4	33.6	66.4	15.4	18.2	13.3	
	전문대 졸업	58.5	41.5	58.5	20.0	21.5	15.4	
	대학교 졸업	67.0	33.0	67.0	16.2	16.9	13.1	
	대학원 졸업	69.3	30.7	69.3	16.1	14.6	12.7	
가구 유형	1인가구	62.5	37.6	62.5	17.1	20.4	14.4	
	무자녀 부부가구	68.4	31.6	68.4	16.0	15.6	12.5	
	유자녀 부부가구	67.8	32.2	67.8	18.5	13.7	12.5	
	부모동거 가구	67.4	32.6	67.4	15.7	17.0	13.0	
	기타가구	66.5	33.5	66.5	16.8	16.8	13.4	
경제 활동 상태	경제	취업	67.2	32.8	67.2	15.9	16.9	13.1
	활동	실업	57.4	42.6	57.4	14.2	28.4	16.5
	비경제	재학	74.3	25.7	74.3	15.2	10.5	10.9
	활동	비재학 미취업	58.5	41.5	58.5	20.1	21.5	15.2

주: 1) CES-D 11 척도 점수가 16점 이상이면 우울증을 의심할 수 있음(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2) 저위험군은 우울점수 16점 미만, 중위험군은 우울점수 16~24점, 고위험군은 우울점수 25점 이상으로 분류함

3) CES-D 11개 문항의 1~4로 코딩된 값을 0~3으로 변환하고(단, 2번 문항과 7번 문항에 대해서는 역 점수를 부여함), 11개 문항의 점수를 더한 우울 총점에 20/11을 곱하여 6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계산함(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 우울감을 느낄 때 하는 주된 행동 1순위는 수면을 취하거나 TV시청 또는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가 31.5%로 가장 높았고, 그냥 참는다 18.9%, 기타 지인과의 교류 9.9%, 운동을 하거나 여행을 간다 8.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우울감을 느낄 때 하는 주된 행동 2순위는 1순위와 마찬가지로 수면을 취하거나 TV 시청 또는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가 19.9%로 가장 높았고, 기타 지인과의 교류 19.7%, 취미/문화생활을 하거나, 쇼핑을 한다 16.7%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2-7-11] 우울감을 느낄 때 하는 주된 행동

[단위: %]

구분	1순위 (n=5,194)	2순위 (n=4,847) ¹⁾
그냥 참는다	18.9	6.2
약물 복용 등 의료적 도움을 받는다	3.6	1.7
심리상담을 받는다	1.5	1.9
수면을 취하거나, TV시청 또는 PC나 스마트폰 이용을 한다	31.5	19.9
과식/폭식/미식 또는 흡연이나 음주 등 유흥	7.9	12.9
가족과의 교류(가족과 대화를 하거나 만난다)	5.4	7.6
기타 지인과의 교류(친한 사람들과 대화를 하거나 만난다)	9.9	19.7
운동을 하거나, 여행을 간다	8.0	11.8
취미/문화생활을 하거나, 쇼핑을 한다	5.4	16.7
종교활동을 한다	1.0	1.3
기타	0.4	0.5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6.6	0.0

주: 1) 2순위 응답자 4,847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자살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 응답자는 15.0%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의 19.1%, 남성의 10.7%가 지난 1년간 자살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에 따라서 지난 1년간 자살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 경우는 25~29세가 16.7%로 가장 높았고, 18~19세가 12.7%로 가장 낮게 나타남
- 학력별로 지난 1년간 자살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 경우는 전문대 졸업이 16.6%로 가장 높았고, 대학원 졸업이 12.8%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가구유형별로 지난 1년간 자살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 경우는 기타 가구가 16.6%로 가장 높았고, 유자녀 부부가구가 11.3%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서 지난 1년간 자살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 경우는 실업자가 20.2%로 가장 높았고, 재학생이 8.9%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우울 위험도가 높을수록 지난 1년간 자살생각을 해본 응답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고위험군의 45.2%가 자살생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난 1년간 자살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 경우 그 이유는 기타를 제외하고 경제적 이유가 30.8%로 가장 높았고, 사회적 관계가 15.4%, 가족 내 불화나 관계 단절이 10.3%, 앓고 있는 질환이 9.8%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37.0%)과 여성(27.4%) 모두 경제적 이유로 자살생각을 해본 적

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음

- 연령별로 자살 생각을 해본 이유를 살펴보면 18~19세는 사회적 관계가 28.8%로 가장 높았고 나머지 연령은 경제적 이유가 가장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자살 생각을 해본 이유를 살펴보면 경제적 이유가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대학원 졸업은 앓고 있는 질환(16.9%)이나 사회적 관계(24.3%)로 인해 자살을 생각해본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모든 가구유형에서 자살을 생각한 이유로 경제적 이유가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1인가구는 사회적 관계가 18.0%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별로 자살 생각을 해본 이유를 살펴보면 재학생은 사회적 관계가 26.1%로 가장 높았고, 나머지는 경제적 이유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우울 위험도가 높을수록 경제적 이유나 앓고 있는 질환 때문에 자살을 생각해봤다고 응답한 경우가 높게 나타남

[표 2-7-12] 지난 1년간 자살생각 여부 및 이유

[단위: %]

구분			자살생각 없음	자살생각 있음	경제적 이유	앓고 있는 질환	가족 내 불화나 관계 단절	사회적 관계	기타
전체(n=5,194)			85.0	15.0	30.8	9.8	10.3	15.4	33.8
성별	남성		89.3	10.7	37.0	12.4	6.5	17.7	26.3
	여성		80.9	19.1	27.4	8.4	12.3	14.1	37.8
연령	18~19세		87.3	12.7	8.6	15.0	22.5	28.8	25.1
	20~24세		86.7	13.3	17.7	11.6	14.8	14.9	41.0
	25~29세		83.3	16.7	35.1	8.7	7.6	16.1	32.4
	30~35세		84.9	15.1	39.0	9.0	8.1	12.7	31.3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84.3	15.7	28.6	9.2	12.3	14.5	35.5
	전문대 졸업		83.4	16.6	28.6	6.0	13.6	19.6	32.3
	대학교 졸업		85.8	14.2	34.4	11.0	8.1	13.9	32.6
	대학원 졸업		87.3	12.8	25.3	16.9	0.0	24.3	33.6
가구 유형	1인가구		83.7	16.3	34.5	8.9	8.0	18.0	30.6
	무자녀 부부가구		87.2	12.8	30.3	10.2	15.1	8.6	35.9
	유자녀 부부가구		88.7	11.3	47.7	3.6	13.8	3.4	31.4
	부모동거 가구		85.4	14.6	26.0	11.2	10.2	15.7	37.0
	기타가구		83.4	16.6	37.1	7.4	17.1	10.9	27.5
경제 활동 상태	경제	취업	85.3	14.7	32.9	10.2	9.1	14.3	33.4
	활동	실업	79.8	20.2	31.5	5.6	10.9	17.2	34.8
	비경제	재학	91.1	8.9	15.1	11.5	11.8	26.1	35.5
	활동	비재학 미취업	82.0	18.0	28.3	10.2	13.3	14.4	33.9
우울 위험 도 ¹⁾	저위험군		94.2	5.8	20.8	7.8	11.6	12.2	47.5
	중위험군		80.7	19.3	30.2	9.5	9.8	14.7	35.9
	고위험군		54.8	45.2	35.7	10.9	9.8	17.2	26.5

주: 1) 저위험군은 우울점수 16점 미만, 중위험군은 우울점수 16~24점, 고위험군은 우울점수 25점 이상으로 분류함

3) 사회적 관계

- 최근 한 달간 3주 이상 외출하지 않은 적이 있는 응답자는 6.2%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 최근 한 달간 3주 이상 외출하지 않은 경우를 살펴보면 남성은 6.8%, 여성은 5.5%로 남성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최근 한 달간 3주 이상 외출하지 않은 경우를 살펴보면 25~29세가 6.9%로 가장 높았고, 30~35세가 5.5%로 가장 낮게 나타남
- 학력이 낮을수록 최근 한 달간 3주 이상 외출하지 않은 경우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가구유형별로 최근 한 달간 3주 이상 외출하지 않은 경우를 살펴보면 유자녀 부부가 8.4%로 가장 높았고, 무자녀 부부가 5.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별로 최근 한 달간 3주 이상 외출하지 않은 경우를 살펴보면 비재학 미취업자가 11.0%로 가장 높았고, 취업자가 4.4%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2-7-13] 최근 한달 간 3주 이상 외출하지 않은 경험

[단위: %]

구분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집 밖으로 나갔다
전체(n=5,194)			6.2	93.9
성별	남성		6.8	93.2
	여성		5.5	94.5
연령	18~19세		5.8	94.2
	20~24세		5.9	94.1
	25~29세		6.9	93.1
	30~35세		5.5	94.5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7.3	92.7
	전문대 졸업		7.1	92.9
	대학교 졸업		5.1	94.9
	대학원 졸업		3.5	96.5
가구유형	1인가구		5.6	94.5
	무자녀 부부가구		5.2	94.8
	유자녀 부부가구		8.4	91.6
	부모동거 가구		6.4	93.7
	기타가구		6.9	93.1
경제활동상태	경제활동	취업	4.4	95.7
		실업	10.7	89.3
	비경제활동	재학	6.6	93.4
		비재학 미취업	11.0	89.0

- 취업 또는 진로에 관한 조언이나 정보를 물어볼 사람이 없는 응답자는 24.7%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 취업 또는 진로에 관한 조언이나 정보를 물어볼 사람이 없는 경우는 남성은 26.1%, 여성은 23.5%로 남성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취업 또는 진로에 관한 조언이나 정보를 물어볼 사람이 없는 경우를 살펴보면 30~35세가 26.3%로 가장 높았고, 20~24세가 22.3%로 가장 낮게 나타남

- 학력에 따라서 취업 또는 진로에 관한 조언이나 정보를 물어볼 사람이 없는 경우를 살펴보면 전문대 졸업이 27.1%로 가장 높았고, 대학원 졸업이 17.2%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가구유형별로 취업 또는 진로에 관한 조언이나 정보를 물어볼 사람이 없는 경우는 유자녀 부부가구가 26.8%로 가장 높았고, 1인가구가 23.7%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별로 취업 또는 진로에 관한 조언이나 정보를 물어볼 사람이 없는 경우는 비재학 미취업자가 29.6%로 가장 높았고, 재학생이 20.2%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주거/금융/법률과 관련된 정보를 물어볼 사람이 없는 응답자는 41.6%로 나타남
- 성별로는 남성의 42.6%, 여성의 40.7%가 주거/금융/법률과 관련된 정보를 물어볼 사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에 따라서 주거/금융/법률과 관련된 정보를 물어볼 사람이 없는 경우를 살펴보면 25~29세가 42.7%로 가장 높았고, 18~19세가 40.5%로 가장 낮게 나타남
- 학력별로 주거/금융/법률과 관련된 정보를 물어볼 사람이 없는 경우는 전문대 졸업이 48.8%로 가장 높았고, 대학원 졸업이 31.7%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가구유형별로 주거/금융/법률과 관련된 정보를 물어볼 사람이 없는 경우는 부모동거가구가 43.6%로 가장 높았고, 무자녀 부부가구가 35.0%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별로 주거/금융/법률과 관련된 정보를 물어볼 사람이 없는 경우는 실업자가 48.4%로 가장 높았고, 재학생이 38.2%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아플 때 집안일을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응답자는 24.3%로 나타남
- 성별로는 남성의 27.4%, 여성의 21.3%가 아플 때 집안일을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이 높을수록 아플 때 집안일을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학력별로 아플 때 집안일을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는 대학교 졸업이 25.6%로 가장 높았고, 대학원 졸업이 22.5%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가구유형별로 아플 때 집안일을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는 1인가구가 39.4%로 가장 높았고, 무자녀 부부가구가 16.1%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별로 아플 때 집안일을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는 비재학 미취업자가 27.6%로 가장 높았고, 재학생이 18.8%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아파서 거동하기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응답자는 20.9%로 나타남
- 성별로는 남성의 24.3%, 여성의 17.7%가 아파서 거동하기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간 차이가 다소 크게 나타남
- 연령이 높을수록 아파서 거동하기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학력에 따라서 아파서 거동하기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를 살펴보면 전문대 졸업이 21.6%로 가장 높았고, 대학원 졸업이 17.8%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가구유형별로 아파서 거동하기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를 살펴보면 1인가구가 31.8%로 가장 높았고, 유자녀 부부가구가 14.2%로 가장 낮게 나타남
- 1인가구는 다른 가구유형에 비해 고립의 정도가 다소 높다고 볼 수 있음
- 경제활동 상태별로 아파서 거동하기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를 살펴보면 비재학 미취업자가 24.0%로 가장 높았고, 재학생이 16.1%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2-7-14]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여부 및 인원

[단위: %, 명]

구분		취업, 진로에 관한 조언이나 정보를 물어볼 사람			나에게 필요한 주거/금융/법률 관련 정보를 물어볼 사람			아플 때 집안일을 부탁할 수 있는 사람			아파서 거동하기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없다	있다	인 원	없다	있다	인 원	없다	있다	인 원	없다	있다	인 원	
전체(n=5,194)		24.7	75.3	4.5	41.6	58.4	3.0	24.3	75.7	2.5	20.9	79.1	2.7	
성 별	남성	26.1	73.9	5.0	42.6	57.4	3.4	27.4	72.6	2.6	24.3	75.7	2.8	
	여성	23.5	76.5	4.0	40.7	59.3	2.7	21.3	78.7	2.4	17.7	82.3	2.5	
연 령	18~19세	26.1	73.9	5.0	40.5	59.5	3.3	17.9	82.1	2.5	16.4	83.6	3.4	
	20~24세	22.3	77.7	4.6	40.6	59.4	3.1	20.1	79.9	2.8	17.3	82.7	3.0	
	25~29세	24.9	75.1	4.7	42.7	57.3	3.1	26.4	73.6	2.4	22.1	77.9	2.5	
	30~35세	26.3	73.7	4.0	41.5	58.5	2.9	26.7	73.3	2.2	23.6	76.4	2.3	
학 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6.7	73.3	4.6	42.5	57.5	3.2	22.6	77.4	2.6	20.5	79.5	2.9	
	전문대 졸업	27.1	72.9	3.8	48.8	51.3	2.7	25.5	74.5	2.3	21.6	78.4	2.4	
	대학교 졸업	23.1	76.9	4.6	39.9	60.1	3.0	25.6	74.4	2.4	21.5	78.5	2.5	
	대학원 졸업	17.2	82.8	4.7	31.7	68.3	2.7	22.5	77.5	2.3	17.8	82.2	2.4	
가 구 유 형	1인가구	23.7	76.3	4.4	40.6	59.4	3.1	39.4	60.6	2.3	31.8	68.2	2.5	
	무자녀 부부가구	25.2	74.8	4.4	35.0	65.0	3.1	16.1	83.9	2.1	16.7	83.3	2.4	
	유자녀 부부가구	26.8	73.2	4.0	39.1	60.9	2.7	19.1	80.9	2.1	14.2	85.8	2.1	
	부모동거 가구	25.1	74.9	4.6	43.6	56.4	3.1	16.8	83.2	2.7	15.5	84.5	2.9	
	기타가구	25.0	75.0	4.1	39.6	60.4	3.0	16.6	83.5	2.1	16.4	83.6	2.3	
경 제 활 동 상 태	경제 활동	취업	24.5	75.5	4.5	40.0	60.0	3.1	24.2	75.8	2.5	20.9	79.1	2.6
		실업	23.3	76.7	4.5	48.4	51.6	2.6	25.5	74.6	2.3	21.8	78.2	2.6
	비경제 활동	재학	20.2	79.8	4.9	38.2	61.8	3.6	18.8	81.3	2.7	16.1	84.0	3.1
		비재학 미취업	29.6	70.4	4.0	47.4	52.6	2.7	27.6	72.5	2.4	24.0	76.0	2.5

- 돈이 필요할 때 갑자기 큰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응답자는 38.5%로 나타남
- 성별로는 남성의 41.9%, 여성의 35.2%가 돈이 필요할 때 갑자기 큰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돈이 필요할 때 갑자기 큰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는 30~35세가 41.4%로 가장 높았고, 20~24세가 35.2%로 가장 낮게 나타남
- 학력별로 돈이 필요할 때 갑자기 큰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는 전문대 졸업이 43.7%로 가장 높았고, 대학원 졸업이 35.1%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가구유형별로 돈이 필요할 때 갑자기 큰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는 유자녀 부부가구가 39.4%로 가장 높았고, 기타가구가 36.6%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별로 돈이 필요할 때 갑자기 큰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는 실업자가 43.0%로 가장 높았고, 재학생이 33.5%로 가장 낮게 나타남
-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응답자는 19.0%로 나타남
- 성별로는 남성의 22.0%, 여성의 16.1%가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를 살펴보면 25~29세가 19.4%로 가장 높았고, 20~24세가 18.2%로 가장 낮게 나타남
- 학력별로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를 살펴보면 전문대 졸업이 22.0%로 가장 높았고, 대학원 졸업이 16.0%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가구유형별로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를 살펴보면 1인가구가 20.8%로 가장 높았고, 무자녀 부부가구가 14.4%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별로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를 살펴보면 비재학 미취업자가 24.2%로 가장 높았고, 취업자가 17.8%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연락 두절 시 나의 생사를 확인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응답자는 12.6%로 나타남
- 성별로는 남성의 15.7%, 여성의 9.6%가 연락 두절 시 나의 생사를 확인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연락 두절 시 나의 생사를 확인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는 18~19세가 14.6%로 가장 높았고, 20~24세가 12.1%로 가장 낮게 나타남
- 학력이 낮을수록 연락 두절 시 나의 생사를 확인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가구유형별로 연락 두절 시 나의 생사를 확인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는 1인가구가 14.6%로 가장 높았고, 기타가구가 9.0%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별로 연락 두절 시 나의 생사를 확인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는 실업자가 17.3%로 가장 높았고, 재학생이 11.1%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2-7-15]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여부 및 인원(계속)

[단위: %]

구분			돈이 필요할 때 갑자기 큰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나의 연락두절 시 나의 생사를 확인해줄 수 있는 사람		
			없다	있다	인원	없다	있다	인원	없다	있다	인원
전체(n=5,194)			38.5	61.5	2.7	19.0	81.0	4.0	12.6	87.4	4.2
성별	남성		41.9	58.1	3.0	22.0	78.0	4.3	15.7	84.3	4.4
	여성		35.2	64.8	2.4	16.1	83.9	3.8	9.6	90.4	4.0
연령	18~19세		40.7	59.3	3.6	18.3	81.7	4.7	14.6	85.4	5.8
	20~24세		35.2	64.8	2.9	18.2	81.9	4.7	12.1	87.9	4.7
	25~29세		38.1	61.9	2.6	19.4	80.6	4.0	12.3	87.7	3.9
	30~35세		41.4	58.6	2.4	19.3	80.7	3.4	12.8	87.2	3.8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40.3	59.7	2.9	20.1	79.9	4.4	14.4	85.6	4.7
	전문대 졸업		43.7	56.3	2.4	22.0	78.0	3.4	13.4	86.6	3.8
	대학교 졸업		35.6	64.4	2.6	17.4	82.6	3.9	11.1	88.9	3.8
	대학원 졸업		35.1	64.9	2.4	16.0	84.0	4.3	8.0	92.0	4.1
가구 유형	1인가구		38.0	62.0	2.6	20.8	79.3	4.1	14.6	85.4	3.9
	무자녀 부부가구		37.9	62.2	2.5	14.4	85.6	3.4	10.7	89.3	4.0
	유자녀 부부가구		39.4	60.6	2.2	15.6	84.4	3.0	10.4	89.6	3.6
	부모동거 가구		39.0	61.0	2.9	18.9	81.1	4.3	12.1	87.9	4.6
	기타가구		36.6	63.4	2.4	17.3	82.7	3.4	9.0	91.0	3.6
경제 활동 상태	경제	취업	37.9	62.1	2.7	17.8	82.2	4.1	11.4	88.6	4.1
	활동	실업	43.0	57.0	2.5	21.1	78.9	3.7	17.3	82.7	4.1
	비경제	재학	33.5	66.5	3.2	16.9	83.1	4.7	11.1	88.9	5.0
	활동	비재학 미취업	42.1	57.9	2.5	24.2	75.8	3.6	15.9	84.1	4.1

- 가족과의 대면 교류 빈도를 살펴보면 거의 매일 한다는 응답이 50.8%로 가장 높았고, 3개월에 1~2회 15.6%, 한 달에 1~2회 15.4%, 일주일에 1~2회 9.0%, 1년에 1~2회 7.2%, 전혀 없는 경우는 2.0%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 가족과의 대면 교류가 전혀 없는 경우는 남성의 2.1%, 여성의 1.8%로 남성이 약간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가족과의 대면 교류가 전혀 없는 경우를 살펴보면 25~29세가 2.5%로 가장 높았고, 20~24세가 1.3%로 가장 낮게 나타남
- 학력별로 가족과의 대면교류가 전혀 없는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2.5%로 가장 높았고, 전문대 졸업이 1.4%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가구유형별로 가족과의 대면교류가 전혀 없는 경우를 살펴보면 1인가구가 3.4%로 가장 높았고, 무자녀 부부가구가 0.3%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별로 가족과의 대면 교류가 전혀 없는 경우를 살펴보면 비재학 미취업자가 2.6%로 가장 높았고, 취업자와 재학생이 1.8%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2-7-16] 가족과의 대면 교류

[단위: %]

구분			전혀 없다	1년에 1~2회	3개월에 1~2회	한달에 1~2회	일주일에 1~2회	거의 매일 (일주일에 3~4회 이상)
전체(n=5,194)			2.0	7.2	15.6	15.4	9.0	50.8
성별	남성		2.1	7.2	16.4	16.2	9.1	48.8
	여성		1.8	7.2	14.8	14.7	8.9	52.7
연령	18~19세		2.3	1.9	4.3	6.6	7.8	77.1
	20~24세		1.3	4.3	12.1	11.4	7.9	62.9
	25~29세		2.5	9.0	16.9	16.8	8.6	46.3
	30~35세		1.9	8.7	19.3	19.1	10.7	40.4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5	5.4	10.9	12.1	8.7	60.4
	전문대 졸업		1.4	7.8	15.3	13.9	10.0	51.6
	대학교 졸업		1.7	8.8	19.7	18.1	8.8	42.8
	대학원 졸업		1.7	6.3	17.3	23.1	10.1	41.5
가구 유형	1인가구		3.4	16.6	34.6	29.9	10.0	5.5
	무자녀 부부가구		0.3	7.3	27.7	28.2	10.9	25.7
	유자녀 부부가구		1.7	4.1	9.2	17.1	15.1	52.8
	부모동거 가구		1.3	0.5	1.4	3.4	7.3	86.1
	기타가구		2.1	13.3	21.0	21.9	10.7	31.0
경제 활동 상태	경제 활동	취업	1.8	7.5	16.8	17.2	9.3	47.5
		실업	2.5	8.4	13.0	12.7	7.4	56.1
	비경제 활동	재학	1.8	3.6	13.0	10.9	8.4	62.3
		비재학 미취업	2.6	7.7	13.7	12.8	9.1	54.1

- 가족과의 비대면 교류 빈도를 살펴보면 거의 매일 한다는 응답이 37.6%로 가장 높았고, 일주일에 1~2회는 31.5%, 한 달에 1~2회는 12.4%, 전혀 없는 경우는 11.9%, 3개월에 1~2회는 3.9%, 1년에 1~2회는 2.7%로 나타남
- 성별로는 남성의 13.3%, 여성의 10.7%가 가족과의 비대면 교류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이 낮을수록 가족과의 비대면 교류가 전혀 없는 경우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학력별로 가족과의 비대면 교류가 전혀 없는 경우를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14.9%로 가장 높았고, 대학교 졸업이 8.9%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가구유형별로 가족과의 비대면 교류가 전혀 없는 경우를 살펴보면 부모동거 가구가 18.3%로 가장 높았고, 무자녀 부부가구가 4.8%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별로 가족과의 비대면 교류가 전혀 없는 경우를 살펴보면 실업자가 14.8%로 가장 높았고, 취업자가 10.9%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2-7-17] 가족과의 비대면 교류

[단위: %]

구분		전혀 없다	1년에 1~2회	3개월에 1~2회	한달에 1~2회	일주일에 1~2회	거의 매일 (일주일에 3~4회 이상)	
전체(n=5,194)		11.9	2.7	3.9	12.4	31.5	37.6	
성별	남성	13.3	3.0	4.5	14.5	32.8	31.9	
	여성	10.7	2.5	3.2	10.4	30.2	43.1	
연령	18~19세	21.4	4.1	1.2	7.5	23.4	42.4	
	20~24세	12.8	2.8	2.8	10.5	30.5	40.7	
	25~29세	10.9	2.6	4.5	13.2	32.2	36.6	
	30~35세	10.6	2.5	4.6	14.1	33.1	35.2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4.9	3.7	3.2	11.5	29.7	36.9	
	전문대 졸업	14.2	3.8	4.5	14.8	27.7	35.0	
	대학교 졸업	8.9	1.7	4.2	12.7	33.7	38.8	
	대학원 졸업	9.1	1.1	4.5	10.3	35.6	39.4	
가구 유형	1인가구	5.5	2.5	5.0	16.7	40.0	30.4	
	무자녀 부부가구	4.8	2.6	7.8	18.0	31.3	35.4	
	유자녀 부부가구	5.9	1.7	2.9	10.5	31.5	47.6	
	부모동거 가구	18.3	2.8	2.7	8.4	25.7	42.2	
	기타가구	6.9	4.4	4.2	17.5	33.2	33.9	
경제 활동 상태	경제 활동	취업	10.9	2.7	3.9	12.8	32.2	37.4
		실업	14.8	3.2	4.2	12.9	27.2	37.7
	비경제 활동	재학	12.3	2.1	2.0	8.6	31.6	43.4
		비재학 미취업	14.5	3.0	4.8	13.1	30.4	34.3

- 친인척들과의 대면 교류 빈도를 살펴보면 1년에 1~2회가 50.0%로 가장 높았고, 3개월에 1~2회는 18.3%, 전혀 없는 경우는 14.7%, 한달에 1~2회는 10.5%, 일주일에 1~2회는 4.2%, 거의 매일은 2.3%로 나타남
- 성별로는 여성의 16.4%, 남성의 12.9%가 친인척들과 대면 교류를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이 높을수록 친인척들과의 대면 교류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가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친인척들과의 대면 교류가 전혀 없는 경우를 살펴보면 전문대 졸업이 19.2%로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12.8%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가구유형별로 친인척들과의 대면 교류가 전혀 없는 경우를 살펴보면 1인가구가 18.2%로 가장 높았고, 부모동거 가구가 12.1%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별로 친인척들과의 대면 교류가 전혀 없는 경우를 살펴보면 비재학 미취업자가 18.9%로 가장 높았고, 재학생이 7.7%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2-7-18] 친인척들과의 대면 교류

[단위: %]

구분			전혀 없다	1년에 1~2회	3개월에 1~2회	한달에 1~2회	일주일에 1~2회	거의 매일 (일주일에 3~4회 이상)
전체(n=5,194)			14.7	50.0	18.3	10.5	4.2	2.3
성별	남성		12.9	50.7	19.2	10.6	4.4	2.3
	여성		16.4	49.3	17.4	10.4	4.1	2.4
연령	18~19세		7.8	48.3	18.0	14.5	5.6	5.8
	20~24세		10.5	46.2	20.4	14.2	5.9	2.7
	25~29세		16.3	51.5	17.4	9.0	3.4	2.3
	30~35세		17.7	51.8	17.6	8.1	3.4	1.4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2.8	47.2	19.1	13.1	4.8	3.1
	전문대 졸업		19.2	47.4	17.0	10.4	3.9	2.2
	대학교 졸업		15.1	52.7	18.1	8.5	3.8	1.7
	대학원 졸업		13.6	55.2	17.9	7.9	3.4	2.1
가구 유형	1인가구		18.2	56.6	15.5	5.9	3.1	0.7
	무자녀 부부가구		16.5	53.8	17.8	8.3	2.1	1.6
	유자녀 부부가구		13.0	42.1	20.1	16.9	5.6	2.3
	부모동거 가구		12.1	45.4	20.3	13.5	5.3	3.4
	기타가구		15.7	53.7	16.6	8.0	2.5	3.5
경제 활동 상태	경제 활동	취업	14.7	50.6	18.4	9.8	4.3	2.2
		실업	15.9	50.4	16.2	12.2	3.2	2.1
	비경제 활동	재학	7.7	51.4	20.1	12.7	5.3	2.8
		비재학 미취업	18.9	46.1	17.7	11.2	3.5	2.6

- 친인척들과의 비대면 교류 빈도를 살펴보면 1년에 1~2회가 33.2%로 가장 높았고, 전혀 하지 않는 경우는 27.3%, 3개월에 1~2회는 17.2%, 한 달에 1~2회는 13.0%, 일주일에 1~2회는 6.3%, 거의 매일은 3.2%로 나타남
- 성별로는 여성 29.2%, 남성의 25.3%가 친인척들과 비대면 교류를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이 높을수록 친인척들과의 비대면 교류가 전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친인척들과의 비대면 교류가 전혀 없는 경우를 살펴보면 전문대 졸업이 32.3%로 가장 높았고, 대학원 졸업이 25.3%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가구유형별로 친인척들과의 비대면 교류가 전혀 없는 경우를 살펴보면 1인가구가 29.1%로 가장 높았고, 유자녀 부부가구가 17.3%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별로 친인척들과의 비대면 교류가 전혀 없는 경우를 살펴보면 비재학 미취업자가 31.6%로 가장 높았고, 취업자가 26.4%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2-7-19] 친인척들과의 비대면 교류

[단위: %]

구분		전혀 없다	1년에 1~2회	3개월에 1~2회	한달에 1~2회	일주일에 1~2회	거의 매일 (일주일에 3~4회 이상)	
전체(n=5,194)		27.3	33.2	17.2	13.0	6.3	3.2	
성별	남성	25.3	33.6	18.3	14.1	6.1	2.6	
	여성	29.2	32.7	16.1	11.8	6.5	3.7	
연령	18~19세	23.6	30.2	17.2	15.6	6.9	6.6	
	20~24세	24.6	30.9	18.2	15.3	7.7	3.4	
	25~29세	28.1	34.3	18.0	11.7	5.4	2.5	
	30~35세	29.3	34.4	15.4	11.9	6.0	3.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6.6	30.0	18.3	15.1	6.3	3.7	
	전문대 졸업	32.3	31.9	14.8	12.0	5.9	3.3	
	대학교 졸업	26.7	35.5	17.1	11.7	6.4	2.6	
	대학원 졸업	25.3	40.6	14.9	9.6	6.2	3.6	
가구 유형	1인가구	29.1	37.4	16.7	10.6	4.9	1.4	
	무자녀 부부가구	27.0	33.5	18.8	12.5	5.6	2.6	
	유자녀 부부가구	17.3	34.0	15.2	16.2	10.1	7.1	
	부모동거 가구	26.9	30.2	17.8	14.2	6.9	4.1	
	기타가구	28.6	33.8	15.1	13.3	6.8	2.4	
경제 활동 상태	경제 활동	취업	26.4	34.2	17.3	12.7	6.5	2.9
	비경제 활동	실업	30.1	33.3	15.8	12.5	5.3	3.0
	비경제 활동	재학	24.1	32.4	18.7	14.5	6.2	4.2
	비경제 활동	비재학 미취업	31.6	29.3	16.3	13.2	6.0	3.5

- 친한 친구나 친한 사람과의 대면 교류 빈도를 살펴보면 한 달에 1~2회가 32.1%로 가장 높았고, 일주일에 1~2회는 31.4%, 3개월에 1~2회는 15.7%, 거의 매일은 12.5%, 1년에 1~2회는 5.7%, 전혀 없는 경우는 2.7%로 나타남
- 성별로는 남성의 3.3%, 여성의 2.1%가 친한 친구나 친한 사람과의 대면 교류를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친한 친구나 친한 사람과의 대면 교류가 전혀 없는 경우를 살펴보면 25~29세가 3.5%로 가장 높았고, 20~24세가 2.2%로 가장 낮게 나타남
- 학력별로 친한 친구나 친한 사람과의 대면 교류가 전혀 없는 경우를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3.8%로 가장 높았고, 대학원 졸업이 0.8%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가구유형별로 친한 친구나 친한 사람과의 대면 교류가 전혀 없는 경우를 살펴보면 유자녀 부부가구가 4.1%로 가장 높았고, 무자녀 부부가구가 0.6%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별로 친한 친구나 친한 사람과의 대면 교류가 전혀 없는 경우를 살펴보면 비재학 미취업자가 5.3%로 가장 높았고, 취업자가 2.1%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2-7-20] 친한 친구나 친한 사람과의 대면 교류

[단위: %]

구분		전혀 없다	1년에 1~2회	3개월에 1~2회	한달에 1~2회	일주일에 1~2회	거의 매일 (일주일에 3~4회 이상)
전체(n=5,194)		2.7	5.7	15.7	32.1	31.4	12.5
성별	남성	3.3	5.4	14.6	31.4	31.4	13.9
	여성	2.1	6.0	16.7	32.7	31.4	11.0
연령	18~19세	2.7	3.2	4.5	20.1	43.6	25.9
	20~24세	2.2	3.0	10.0	29.4	38.3	17.2
	25~29세	3.5	5.7	15.4	33.5	30.9	11.1
	30~35세	2.3	8.4	23.0	35.1	23.8	7.4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3.8	4.2	10.9	27.7	36.6	16.8
	전문대 졸업	3.1	7.8	18.4	30.7	29.9	10.1
	대학교 졸업	1.9	6.2	18.9	35.1	28.1	9.9
	대학원 졸업	0.8	7.6	18.5	43.7	23.3	6.2
가구 유형	1인가구	2.5	6.7	16.0	33.8	29.9	11.1
	무자녀 부부가구	0.6	10.4	32.0	35.2	17.5	4.3
	유자녀 부부가구	4.1	10.0	34.5	30.6	17.8	3.1
	부모동거 가구	3.1	3.7	11.6	30.5	36.3	14.8
	기타가구	2.6	7.2	16.0	33.8	24.2	16.2
경제 활동 상태	경제 활동	취업	2.1	5.2	16.1	33.5	30.9
		실업	3.4	7.2	15.7	29.9	31.8
	비경제 활동	재학	2.6	3.5	10.2	25.5	38.8
		비재학 미취업	5.3	8.2	17.7	32.0	28.3

- 친한 친구나 친한 사람과의 비대면 교류 빈도를 살펴보면 거의 매일 하는 경우가 43.6%로 가장 높았고, 일주일에 1~2회는 26.7%, 한달에 1~2회는 15.1%, 3개월에 1~2회는 6.4%, 전혀 없는 경우는 4.5%, 1년에 1~2회는 3.8%로 나타남
- 성별로는 남성의 5.4%, 여성의 3.5%가 친한 친구나 친한 사람과의 비대면 교류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친한 친구나 친한 사람과의 비대면 교류가 전혀 없는 경우를 살펴보면 18~19세가 5.6%로 가장 높았고, 30~35세가 4.0%로 가장 낮게 나타남
- 학력별로 친한 친구나 친한 사람과의 비대면 교류가 전혀 없는 경우를 살펴보면 전문대 졸업이 6.0%로 가장 높았고, 대학원 졸업이 2.5%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가구유형에 따라서 친한 친구나 친한 사람과의 비대면 교류가 전혀 없는 경우를 살펴보면 부모동거 가구가 5.9%로 가장 높았고, 무자녀 부부가구가 2.1%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별로 친한 친구나 친한 사람과의 비대면 교류가 전혀 없는 경우를 살펴보면 비재학 미취업자가 7.9%로 가장 높았고, 취업자가 3.5%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2-7-21] 친한 친구나 친한 사람과의 비대면 교류

[단위: %]

구분		전혀 없다	1년에 1~2회	3개월에 1~2회	한달에 1~2회	일주일에 1~2회	거의 매일 (일주일에 3~4회 이상)	
전체(n=5,194)		4.5	3.8	6.4	15.1	26.7	43.6	
성별	남성	5.4	4.0	7.0	17.3	29.8	36.4	
	여성	3.5	3.6	5.7	13.1	23.7	50.5	
연령	18~19세	5.6	3.4	4.7	6.2	24.2	55.9	
	20~24세	4.3	2.8	3.6	11.2	27.7	50.4	
	25~29세	4.7	3.5	6.8	15.5	24.9	44.6	
	30~35세	4.0	5.1	8.5	19.8	28.2	34.3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5.7	3.6	5.6	12.6	27.3	45.2	
	전문대 졸업	6.0	5.1	7.6	14.4	24.3	42.6	
	대학교 졸업	3.1	3.7	6.5	16.8	26.9	43.0	
	대학원 졸업	2.5	2.7	7.5	22.1	25.6	39.5	
가구 유형	1인가구	2.7	3.6	7.2	16.3	26.1	44.0	
	무자녀 부부가구	2.1	6.2	12.7	25.4	22.2	31.4	
	유자녀 부부가구	3.7	5.3	8.8	23.7	33.3	25.2	
	부모동거 가구	5.9	3.5	4.7	12.0	27.4	46.6	
	기타가구	4.9	3.8	6.9	17.0	23.2	44.1	
경제 활동 상태	경제 활동	취업	3.5	3.6	6.5	15.6	27.3	43.4
		실업	6.2	4.0	7.0	16.4	22.1	44.3
	비경제 활동	재학	3.9	2.6	3.4	10.6	26.8	52.7
		비재학 미취업	7.9	5.2	7.2	15.3	26.1	38.2

- 직장, 학교,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과의 대면 교류 빈도를 살펴보면 한달에 1~2회가 21.8%로 가장 높았고, 3개월에 1~2회는 17.4%, 일주일에 1~2회는 17.2%, 거의 매일이 15.8%, 전혀 없다는 경우는 15.1%, 1년에 1~2회는 12.7%로 나타남
- 성별로는 여성의 16.2%, 남성의 13.9%가 직장, 학교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과의 대면 교류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직장, 학교,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과의 대면 교류가 전혀 없는 경우를 살펴보면 25~29세가 16.7%로 가장 높았고, 18~19세가 12.4%로 가장 낮게 나타남
- 학력별로 직장, 학교,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과의 대면 교류가 전혀 없는 경우를 살펴보면 전문대 졸업이 17.7%로 가장 높았고, 대학원 졸업이 8.8%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가구유형별로 직장, 학교,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과의 대면 교류가 전혀 없는 경우를 살펴보면 기타 가구가 19.3%로 가장 높았고, 무자녀 부부가구와 유자녀 부부가구가 11.3%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별로 직장, 학교,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과의 대면 교류가 전혀 없

는 경우를 살펴보면 비재학 미취업자가 24.2%로 가장 높았고, 재학생이 11.4%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2-7-22] 직장, 학교,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 대면 교류

[단위: %]

구분		전혀 없다	1년에 1~2회	3개월에 1~2회	한달에 1~2회	일주일에 1~2회	거의 매일 (일주일에 3~4회 이상)
전체(n=5,194)		15.1	12.7	17.4	21.8	17.2	15.8
성별	남성	13.9	11.2	18.2	22.2	18.5	16.0
	여성	16.2	14.1	16.7	21.5	15.9	15.6
연령	18~19세	12.4	10.7	10.3	19.5	25.0	22.1
	20~24세	15.0	10.4	15.1	23.9	22.3	13.3
	25~29세	16.7	13.4	18.9	21.1	14.6	15.3
	30~35세	13.9	14.2	19.1	21.3	14.3	17.3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2	10.8	13.8	23.1	20.9	15.2
	전문대 졸업	17.7	14.1	18.8	19.3	14.0	16.1
	대학교 졸업	14.1	13.5	19.6	21.2	15.3	16.4
	대학원 졸업	8.8	16.9	23.0	23.7	12.9	14.7
가구 유형	1인가구	15.4	12.3	18.8	22.2	17.2	14.2
	무자녀 부부가구	11.3	18.2	20.7	25.1	10.7	14.1
	유자녀 부부가구	11.3	15.8	19.9	21.8	18.3	12.9
	부모동거 가구	15.2	11.7	16.0	21.0	18.6	17.5
	기타가구	19.3	14.9	16.9	22.8	11.7	14.4
경제 활동 상태	경제 활동	취업	13.1	11.7	17.7	21.7	17.0
		실업	18.7	18.5	19.3	22.4	7.0
	비경제 활동	재학	11.4	7.8	13.0	23.3	28.5
		비재학 미취업	24.2	17.3	18.4	21.0	6.9

- 직장, 학교,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과의 비대면 교류 빈도를 살펴보면 일주일에 1~2회가 21.9%로 가장 높았고, 한달에 1~2회는 19.9%, 전혀 없는 경우는 17.7%, 거의 매일이 15.7%, 3개월에 1~2회는 14.1%, 1년에 1~2회는 10.7%로 나타남
- 성별로는 여성의 18.2%, 남성의 17.1%가 직장, 학교,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과의 비대면 교류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에 따라서 직장, 학교,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과의 비대면 교류가 전혀 없는 경우를 살펴보면 25~29세가 18.4%로 가장 높았고, 30~35세가 16.5%로 가장 낮게 나타남
- 학력별로 직장, 학교,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과의 비대면 교류가 전혀 없는 경우를 살펴보면 전문대 졸업이 21.9%로 가장 높았고, 대학원 졸업이 12.3%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가구유형별로 직장, 학교,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과의 비대면 교류가 전혀 없는 경우를 살펴보면 기타가구가 20.7%로 가장 높았고, 무자녀 부부가구가 13.7%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별로 직장, 학교,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과의 비대면 교류가 전혀 없는 경우를 살펴보면 비재학 미취업자가 25.9%로 가장 높았고, 재학생이 14.5%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2-7-23] 직장, 학교,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 비대면 교류

[단위: %]

구분			전혀 없다	1년에 1~2회	3개월에 1~2회	한달에 1~2회	일주일에 1~2회	거의 매일 (일주일에 3~4회 이상)
전체(n=5,194)			17.7	10.7	14.1	19.9	21.9	15.7
성별	남성		17.1	10.5	15.2	20.1	23.0	14.1
	여성		18.2	10.8	13.1	19.8	20.9	17.2
연령	18~19세		18.2	9.0	10.8	15.2	28.1	18.8
	20~24세		18.0	8.1	11.3	21.6	26.1	15.0
	25~29세		18.4	12.5	14.8	19.2	19.4	15.7
	30~35세		16.5	11.2	16.3	20.3	20.1	15.6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9.4	9.2	12.6	19.9	24.0	14.9
	전문대 졸업		21.9	12.6	14.0	20.4	18.1	13.1
	대학교 졸업		15.4	11.4	14.9	20.0	21.5	16.9
	대학원 졸업		12.3	11.8	19.2	18.6	19.9	18.3
가구 유형	1인가구		16.8	10.6	14.2	19.9	22.0	16.6
	무자녀 부부가구		13.7	11.3	21.6	20.1	17.2	16.1
	유자녀 부부가구		14.3	11.5	15.4	26.3	17.9	14.6
	부모동거 가구		18.7	10.6	13.2	19.7	23.1	14.9
	기타가구		20.7	10.8	13.0	17.7	20.2	17.5
경제 활동 상태	경제 활동	취업	16.0	10.1	13.9	20.2	22.1	17.6
		실업	19.0	14.2	18.0	20.4	18.6	9.9
	비경제 활동	재학	14.5	5.8	10.8	19.4	32.9	16.7
		비재학 미취업	25.9	14.5	15.1	19.0	15.4	10.1

- 온라인 커뮤니티, SNS로 알게 된 사람들과의 대면 교류 빈도를 살펴보면 전혀 없는 경우가 59.3%로 가장 높았고, 1년에 1~2회는 13.3%, 3개월에 1~2회는 9.7%, 한달에 1~2회는 9.0%, 일주일에 1~2회는 5.4%, 거의 매일 하는 경우는 3.3%로 나타남
- 성별로는 남성의 3.6%, 여성의 3.1%가 온라인 커뮤니티, SNS로 알게 된 사람들과 대면 교류를 거의 매일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이 낮을수록 온라인 커뮤니티, SNS로 알게 된 사람들과 대면 교류를 거의 매일 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온라인 커뮤니티, SNS로 알게 된 사람들과 대면 교류를 거의 매일 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4.5%로 가장 높았고, 전문대 졸업이 2.3%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가구유형별로 온라인 커뮤니티, SNS로 알게 된 사람들과 대면 교류를 거의 매일 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부모동거 가구가 4.4%로 가장 높았고, 무자녀 부부가구가 0.6%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별로 온라인 커뮤니티, SNS로 알게 된 사람들과 대면 교류를 거의 매일 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재학생이 5.6%로 가장 높았고, 실업자가 2.2%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2-7-24] 온라인 커뮤니티, SNS로 알게 된 사람들과의 대면 교류

[단위: %]

구분		전혀 없다	1년에 1~2회	3개월에 1~2회	한달에 1~2회	일주일에 1~2회	거의 매일 (일주일에 3~4회 이상)	
전체(n=5,194)		59.3	13.3	9.7	9.0	5.4	3.3	
성별	남성	57.0	14.1	9.6	9.8	5.8	3.6	
	여성	61.5	12.6	9.7	8.2	5.0	3.1	
연령	18~19세	55.0	12.8	7.4	11.2	5.5	8.0	
	20~24세	58.5	12.9	8.9	9.6	5.7	4.5	
	25~29세	59.5	14.0	10.1	9.2	4.9	2.5	
	30~35세	60.7	12.9	10.3	7.9	5.8	2.5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55.8	13.8	10.0	10.3	5.6	4.5	
	전문대 졸업	61.0	12.5	8.9	9.0	6.3	2.3	
	대학교 졸업	61.6	13.0	9.5	8.0	5.2	2.7	
	대학원 졸업	62.4	13.6	10.4	6.6	3.9	3.1	
가구 유형	1인가구	57.7	13.1	10.7	9.6	6.4	2.4	
	무자녀 부부가구	67.4	13.5	9.0	6.3	3.3	0.6	
	유자녀 부부가구	64.9	11.2	10.5	7.7	3.1	2.6	
	부모동거 가구	58.8	13.5	8.7	9.2	5.4	4.4	
	기타가구	59.2	13.9	11.5	7.8	4.4	3.3	
경제 활동 상태	경제 활동	취업	58.6	13.5	9.9	9.1	5.9	3.0
		실업	61.0	12.7	11.4	8.4	4.4	2.2
	비경제 활동	재학	56.8	13.7	9.6	8.5	6.0	5.6
		비재학 미취업	63.0	12.5	7.7	9.4	3.5	3.9

- 온라인 커뮤니티, SNS로 알게 된 사람들과의 비대면 교류 빈도를 살펴보면 전혀 없는 경우가 46.1%로 가장 높았고, 거의 매일이 12.9%, 일주일에 1~2회는 12.2%, 한달에 1~2회는 11.0%, 1년에 1~2회는 9.0%, 3개월에 1~2회는 8.9%로 나타남
- 성별로는 여성의 15.9%, 남성의 9.7%가 온라인 커뮤니티, SNS로 알게 된 사람들과의 비대면 교류를 거의 매일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온라인 커뮤니티, SNS로 알게 된 사람들과 대면 교류를 거의 매일 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18~19세가 17.1%로 가장 높았고, 30~35세가 10.0%로 가장 낮게 나타남
- 학력별로 온라인 커뮤니티, SNS로 알게 된 사람들과 대면 교류를 거의 매일 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14.6%로 가장 높았고, 대학원 졸업이 8.7%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가구유형별로 온라인 커뮤니티, SNS로 알게 된 사람들과 대면 교류를 거의 매일 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기타가구가 16.0%로 가장 높았고, 유자녀 부부가구가 7.0%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별로 온라인 커뮤니티, SNS로 알게 된 사람들과 대면 교류를 거의 매일 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재학생이 16.7%로 가장 높았고, 실업자가 12.2%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2-7-25] 온라인 커뮤니티, SNS로 알게 된 사람들과의 비대면 교류

[단위: %]

구분			전혀 없다	1년에 1~2회	3개월에 1~2회	한달에 1~2회	일주일에 1~2회	거의 매일 (일주일에 3~4회 이상)
전체(n=5,194)			46.1	9.0	8.9	11.0	12.2	12.9
성별	남성		46.3	9.6	10.2	12.0	12.3	9.7
	여성		46.0	8.4	7.6	10.0	12.2	15.9
연령	18~19세		37.5	6.4	7.5	11.9	19.6	17.1
	20~24세		43.8	8.6	8.4	12.3	12.1	14.9
	25~29세		47.1	9.0	8.8	10.3	11.8	13.1
	30~35세		48.6	9.8	9.6	10.4	11.5	1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42.5	8.8	8.4	12.2	13.5	14.6
	전문대 졸업		50.9	8.9	7.0	10.0	11.7	11.5
	대학교 졸업		47.5	9.0	9.5	10.3	11.5	12.2
	대학원 졸업		50.2	10.0	11.2	9.7	10.2	8.7
가구 유형	1인가구		45.1	9.6	9.5	10.7	12.6	12.6
	무자녀 부부가구		56.2	9.7	9.3	8.0	9.3	7.5
	유자녀 부부가구		54.7	6.6	9.5	11.4	10.7	7.0
	부모동거 가구		44.8	8.9	8.1	11.7	12.7	13.9
	기타가구		45.7	7.4	10.4	9.7	10.9	16.0
경제 활동 상태	경제 활동	취업	46.6	9.1	9.1	10.6	12.2	12.4
		실업	45.2	10.0	9.7	11.6	11.4	12.2
	비경제 활동	재학	37.5	6.5	9.4	13.1	16.8	16.7
		비재학 미취업	50.3	9.5	7.0	11.0	9.8	12.4

4) 시간 사용

- 시간 사용에 대해 부족하다는 응답은 47.7%로 나타났고 여유롭다는 응답은 21.8%로 나타남
- 성별로는 여성의 51.5%, 남성의 43.8%가 시간 사용에 대해 부족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과 학력이 높을수록 시간 사용에 대해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 가구유형별로 시간 사용에 대해 부족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유자녀 부부가구가 56.8%로 가장 높았고, 부모동거 가구가 42.9%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별로 시간 사용에 대해 부족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취업자가 51.8%로 가장 높았고, 재학생이 37.7%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2-7-26] 시간 사용에 대한 여유 정도

[단위: %]

구분		부족하다	매우 부족	조금 부족	적절	여유있다	약간 여유	매우 여유
전체(n=5,194)		47.7	10.6	37.1	30.4	21.8	17.8	4.0
성별	남성	43.8	9.6	34.2	33.5	22.7	18.5	4.2
	여성	51.5	11.6	39.9	27.5	21.1	17.2	3.9
연령	18~19세	31.6	3.6	28.0	36.6	31.9	24.1	7.8
	20~24세	43.6	8.3	35.3	31.8	24.6	19.0	5.6
	25~29세	50.0	12.1	37.9	30.1	19.9	17.0	2.9
	30~35세	51.9	12.3	39.6	28.4	19.7	16.5	3.2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42.1	8.8	33.3	32.3	25.5	20.3	5.2
	전문대 졸업	47.5	13.1	34.4	33.4	19.0	14.8	4.2
	대학교 졸업	52.3	11.2	41.1	28.2	19.5	16.6	2.9
	대학원 졸업	52.7	13.3	39.4	27.4	19.9	16.1	3.8
가구 유형	1인가구	51.9	12.3	39.6	28.6	19.6	16.8	2.8
	무자녀 부부가구	52.2	10.7	41.5	24.3	23.5	18.1	5.4
	유자녀 부부가구	56.8	14.1	42.7	29.0	14.1	12.4	1.7
	부모동거 가구	42.9	9.0	33.9	32.7	24.5	19.5	5.0
	기타	53.4	12.0	41.4	28.8	17.8	14.1	3.7
경제 활동 상태	경제 활동	취업	51.8	11.2	40.6	29.5	18.6	2.8
		실업	41.0	12.2	28.8	28.6	30.4	8.2
	비경제 활동	재학	37.7	5.9	31.8	35.4	26.8	5.1
		비재학 미취업	40.9	10.4	30.5	31.7	27.5	6.3

- 시간 부족을 느끼는 활동 영역은 여가·문화 활동이 25.6%로 가장 높았고, 수면 22.4%, 개인 관리 21.8%, 교제 활동 12.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남성(24.2%)과 여성(26.9%) 모두 시간 부족을 느끼는 활동 영역이 여가·문화로 나타남

- 연령별로 시간 부족을 느끼는 활동 영역을 살펴보면 여가·문화 활동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연령이 높을수록 가사 관련 활동에 시간 부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학력별로 시간 부족을 느끼는 활동 영역을 살펴보면 여가·문화 활동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고등학교 졸업 이하는 일자리 관련 활동에 시간 부족을 느끼는 경우가 13.4%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가구유형별로 시간 부족을 느끼는 활동 영역을 살펴보면 여가·문화 활동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유자녀 부부가구는 가사 관련 활동에 시간 부족을 느끼는 경우가 16.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별로 시간 부족을 느끼는 활동 영역을 살펴보면 여가·문화 활동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실업자는 일자리 관련 활동에 시간 부족을 느끼는 경우가 18.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2-7-27] 시간 부족을 느끼는 활동 영역

[단위: %]

구분			수면	개인관리	일자리 관련활동	가사관련 활동	여가 문화활동	교제 활동	기타
전체(n=2,479) ¹⁾			22.4	21.8	11.2	5.9	25.6	12.6	0.5
성별	남성		22.7	22.8	11.9	4.6	24.2	13.2	0.6
	여성		22.2	20.9	10.6	6.9	26.9	12.0	0.4
연령	18~19세		20.5	23.6	12.2	2.9	24.9	14.4	1.6
	20~24세		23.1	21.6	14.0	4.0	24.2	12.7	0.5
	25~29세		23.0	22.2	11.2	5.8	25.7	11.7	0.5
	30~35세		21.6	21.4	8.8	7.9	26.8	13.1	0.4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2.8	22.1	13.4	4.6	24.0	12.5	0.7
	전문대 졸업		23.0	21.5	10.5	6.8	25.5	12.1	0.6
	대학교 졸업		22.3	21.6	9.8	6.4	26.9	12.5	0.4
	대학원 졸업		20.1	22.0	9.5	7.7	26.3	14.3	0.0
가구 유형	1인가구		22.3	21.9	11.0	6.3	26.0	12.3	0.2
	무자녀 부부가구		20.5	21.1	9.9	9.6	26.6	11.9	0.5
	유자녀 부부가구		21.6	18.1	6.4	16.5	25.5	11.6	0.3
	부모동거 가구		23.0	22.1	12.1	3.7	25.3	13.2	0.7
	기타가구		22.2	22.9	11.0	7.2	25.1	11.0	0.7
경제 활동 상태	경제 활동	취업	23.4	21.7	9.1	6.3	26.6	12.6	0.3
		실업	17.9	21.1	18.3	5.5	24.1	12.5	0.6
	비경제 활동	재학	20.9	21.1	14.2	4.3	23.9	14.2	1.3
		비재학 미취업	21.4	23.6	15.4	5.2	22.6	11.1	0.7

주: 1) 시간사용에 대해 '매우 부족' 또는 '조금 부족'이라고 응답한 사례에 대해 분석했으며, 복수응답임

5) 삶의 만족도

- 삶의 전반에 대한 만족도 점수는 평균 5.96점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 삶의 전반에 대한 만족도 점수를 살펴보면 남성은 5.99점, 여성은 5.93점으로 유사하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삶의 전반에 대한 만족도 점수를 살펴보면 18~19세가 6.75점으로 가장 높았고, 25~29세가 5.7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학력별로 삶의 전반에 대한 만족도 점수를 살펴보면 대학원 졸업이 6.36점으로 가장 높았고, 전문대 졸업이 5.4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가구유형별로 삶의 전반에 대한 만족도 점수를 살펴보면 무자녀 부부가구가 6.59점으로 가장 높았고, 기타가구가 5.61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별로 삶의 전반에 대한 만족도 점수를 살펴보면 재학생이 6.50점으로 가장 높았고, 실업자가 5.51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2-7-28] 삶의 전반에 대한 만족도

[단위: 0~10점]

구분			삶의 전반적 만족도
전체(n=5,194)			5.96
성별	남성		5.99
	여성		5.93
연령	18~19세		6.75
	20~24세		6.25
	25~29세		5.73
	30~35세		5.82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6.07
	전문대 졸업		5.48
	대학교 졸업		5.95
	대학원 졸업		6.36
가구유형	1인가구		5.68
	무자녀 부부가구		6.59
	유자녀 부부가구		6.22
	부모동거 가구		6.09
	기타가구		5.61
경제활동상태	경제활동	취업	6.02
		실업	5.51
	비경제활동	재학	6.50
		비재학 미취업	5.56

- 생활수준에 대한 만족도 점수는 평균 6.00점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른 생활수준에 대한 만족도 점수는 남성은 6.03점, 여성은 5.96점으로 남성이 약간 높게 나타남
- 연령이 높을수록 생활수준에 대한 만족도 점수가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학력별로 생활수준에 대한 만족도 점수를 살펴보면 대학원 졸업이 6.39점으로 가장 높았고, 전문대 졸업이 5.46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가구유형별로 생활수준에 대한 만족도 점수를 살펴보면 무자녀 부부가구가 6.40점으로 가장 높았고, 1인가구가 5.70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별로 생활수준에 대한 만족도 점수를 살펴보면 재학생이 6.68점으로 가장 높았고, 실업자가 5.35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건강에 대한 만족도 점수는 평균 5.84점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 건강에 대한 만족도 점수를 살펴보면 남성은 6.08점, 여성은 5.62점으로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남
- 연령이 높을수록 건강에 대한 만족도 점수가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학력별로 건강에 대한 만족도 점수를 살펴보면 대학원 졸업이 6.06점으로 가장 높았고, 전문대 졸업이 5.35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가구유형별로 건강에 대한 만족도 점수를 살펴보면 부모동거 가구가 6.09점으로 가장 높았고, 기타가구가 5.40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별로 건강에 대한 만족도 점수를 살펴보면 재학생이 6.53점으로 가장 높았고, 비재학 미취업자가 5.4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삶의 성취에 대한 만족도 점수는 평균 5.43점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 삶의 성취에 대한 만족도 점수를 살펴보면 남성은 5.51점, 여성은 5.35점으로 남성이 약간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삶의 성취에 대한 만족도 점수를 살펴보면 18~19세가 6.05점으로 가장 높았고, 25~29세가 5.2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학력별로 삶의 성취에 대한 만족도 점수를 살펴보면 대학원 졸업이 6.13점으로 가장 높았고, 전문대 졸업이 4.84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가구유형별로 삶의 성취에 대한 만족도 점수를 살펴보면 무자녀 부부가구가 5.93점으로 가장 높았고, 기타가구가 5.0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별로 삶의 성취에 대한 만족도 점수를 살펴보면 재학생과 취업자가 5.99점으로 가장 높았고, 실업자가 4.70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 점수는 평균 6.93점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 점수를 살펴보면 남성은 7.02점, 여성은 6.85점으로 남성이 약간 높게 나타남
- 연령이 높을수록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 점수가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학력별로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 점수를 살펴보면 대학원 졸업이 7.19점으로 가장 높았고, 전문대 졸업이 6.7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가구유형별로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 점수를 살펴보면 유자녀 부부가구가 7.59점으로 가장 높았고, 1인가구가 6.65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별로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 점수를 살펴보면 재학생이 7.44점으로 가장 높았고, 실업자가 6.55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사회적 친분관계에 대한 만족도 점수는 평균 6.56점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 사회적 친분관계에 대한 만족도 점수를 살펴보면 남성은 6.56점, 여성은 6.55점으로 유사하게 나타남
- 연령이 높을수록 사회적 친분관계에 대한 만족도 점수가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학력별로 사회적 친분관계에 대한 만족도 점수를 살펴보면 대학원 졸업이 6.81점으로 가장 높았고, 전문대 졸업이 6.16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가구유형별로 사회적 친분관계에 대한 만족도 점수를 살펴보면 무자녀 부부가구가 6.78점으로 가장 높았고, 1인가구가 6.3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별로 사회적 친분관계에 대한 만족도 점수를 살펴보면 재학생이 7.05점으로 가장 높았고, 비재학 미취업이 6.22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나의 안전에 대한 만족도 점수는 평균 6.84점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 나의 안전에 대한 만족도 점수를 살펴보면 남성은 7.09점, 여성은 6.60점으로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남
- 연령이 높을수록 나의 안전에 대한 만족도 점수가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학력별로 나의 안전에 대한 만족도 점수를 살펴보면 대학원 졸업이 7.05점으로 가장 높았고, 전문대 졸업이 6.40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가구유형별로 나의 안전에 대한 만족도 점수를 살펴보면 부모동거 가구가 7.03점으로 가장 높았고, 1인가구가 6.5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별로 나의 안전에 대한 만족도 점수를 살펴보면 재학생이 7.52점으로 가장 높았고, 비재학 미취업자가 6.65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사회 전반의 안전에 대한 만족도 점수는 평균 5.75점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 사회 전반의 안전에 대한 만족도 점수를 살펴보면 남성은 6.28점, 여성은 5.24점으로 다소 차이가 크게 나타남

- 연령이 높을수록 사회 전반의 안전에 대한 만족도 점수가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학력별로 사회 전반의 안전에 대한 만족도 점수를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6.00점으로 가장 높았고, 전문대 졸업이 5.42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가구유형별로 사회 전반의 안전에 대한 만족도 점수를 살펴보면 유자녀 부부가구가 5.96점으로 가장 높았고, 기타가구가 5.2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별로 사회 전반의 안전에 대한 만족도 점수를 살펴보면 재학생이 6.49점으로 가장 높았고, 실업자가 5.3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2-7-29] 생활영역별 만족도

[단위: 0~10점]

구분		생활수준	건강	삶의 성취	가족관계	사회적 친분관계	나의 안전	사회 전반의 안전
전체(n=5,194)		6.00	5.84	5.43	6.93	6.56	6.84	5.75
성별	남성	6.03	6.08	5.51	7.02	6.56	7.09	6.28
	여성	5.96	5.62	5.35	6.85	6.55	6.60	5.24
연령	18~19세	6.93	6.78	6.05	7.52	7.18	7.60	6.78
	20~24세	6.40	6.10	5.54	7.07	6.82	7.12	5.94
	25~29세	5.80	5.70	5.27	6.74	6.45	6.71	5.57
	30~35세	5.70	5.59	5.40	6.92	6.34	6.59	5.6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6.18	6.01	5.42	6.95	6.62	7.00	6.00
	전문대 졸업	5.46	5.35	4.84	6.73	6.16	6.40	5.42
	대학교 졸업	5.95	5.81	5.53	6.95	6.59	6.80	5.61
	대학원 졸업	6.39	6.06	6.13	7.19	6.81	7.05	5.87
가구 유형	1인가구	5.70	5.55	5.27	6.65	6.37	6.57	5.60
	무자녀 부부가구	6.40	5.96	5.93	7.43	6.78	6.96	5.89
	유자녀 부부가구	6.08	5.69	5.70	7.59	6.51	6.85	5.96
	부모동거 가구	6.18	6.09	5.49	7.03	6.67	7.03	5.87
	기타가구	5.66	5.40	5.09	6.70	6.41	6.58	5.27
경제 활동 상태	경제 활동	취업	6.06	5.84	5.59	6.94	6.59	5.72
		실업	5.35	5.62	4.70	6.55	6.26	5.37
	비경제 활동	재학	6.68	6.53	5.99	7.44	7.05	6.49
		비재학 미취업	5.61	5.47	4.76	6.76	6.22	5.57

- 미래 안정성에 대한 만족도 점수는 평균 4.95점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 미래 안정성에 대한 만족도 점수를 살펴보면 남성은 5.18점, 여성은 4.73점으로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남
- 연령에 따른 미래 안정성에 대한 만족도 점수는 18~19세가 5.86점으로 가장 높았고, 25~29세가 4.76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학력별로 미래 안정성에 대한 만족도 점수를 살펴보면 대학원 졸업이 5.23점으로 가

장 높았고, 전문대 졸업이 4.40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가구유형별로 미래 안정성에 대한 만족도 점수를 살펴보면 유자녀 부부가구가 5.34점으로 가장 높았고, 기타가구가 4.5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별로 미래 안정성에 대한 만족도 점수를 살펴보면 재학생이 5.64점으로 가장 높았고, 실업자가 4.24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시간적 여유에 대한 만족도 점수는 평균 5.44점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 시간적 여유에 대한 만족도 점수를 살펴보면 남성은 5.60점, 여성은 5.28점으로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남
- 연령이 높을수록 시간적 여유에 대한 만족도 점수가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학력별로 시간적 여유에 대한 만족도 점수를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5.67점으로 가장 높았고, 전문대 졸업이 5.11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가구유형별로 시간적 여유에 대한 만족도 점수를 살펴보면 부모동거 가구가 5.73점으로 가장 높았고, 유자녀 부부가구가 4.54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별로 시간적 여유에 대한 만족도 점수를 살펴보면 재학생이 6.08점으로 가장 높았고, 비재학 미취업자가 5.26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지역사회 환경의 질에 대한 만족도 점수는 평균 5.94점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 지역사회 환경의 질에 대한 만족도 점수를 살펴보면 남성은 6.06점, 여성은 5.84점으로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남
- 연령이 높을수록 지역사회 환경의 질에 대한 만족도 점수가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학력에 따라서 지역사회 환경의 질에 대한 만족도 점수를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6.15점으로 가장 높았고, 전문대 졸업이 5.4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가구유형별로 지역사회 환경의 질에 대한 만족도 점수를 살펴보면 부모동거 가구가 6.16점으로 가장 높았고, 1인가구가 5.6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별로 지역사회 환경의 질에 대한 만족도 점수를 살펴보면 재학생이 6.57점으로 가장 높았고, 실업자가 5.6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거주하는 지역사회 전반에 대한 만족도 점수는 평균 6.08점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 거주하는 지역사회 전반에 대한 만족도 점수를 살펴보면 남성은 6.19점, 여성은 5.97점으로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남
- 연령이 높을수록 거주하는 지역사회 전반에 대한 만족도 점수가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학력별로 거주하는 지역사회 전반에 대한 만족도 점수를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6.27점으로 가장 높았고, 전문대 졸업이 5.62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가구유형별 거주하는 지역사회 전반에 대한 만족도 점수는 부모동거 가구가 6.31점으로 가장 높았고, 1인가구가 5.8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별 거주하는 지역사회 전반에 대한 만족도 점수는 재학생이 6.68점으로 가장 높았고, 실업자가 5.7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 점수는 평균 5.76점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 점수를 살펴보면 남성은 5.87점, 여성은 5.66점으로 남성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 점수를 살펴보면 18~19세가 6.52점으로 가장 높았고, 25~29세가 5.5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학력별로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 점수를 살펴보면 대학원 졸업이 6.27점으로 가장 높았고, 전문대 졸업이 5.3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가구유형별로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 점수를 살펴보면 무자녀 부부가구가 5.98점으로 가장 높았고, 기타가구가 5.40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별로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 점수를 살펴보면 재학생이 6.36점으로 가장 높았고, 실업자가 4.8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나의 경제적 수준에 대한 만족도 점수는 평균 4.67점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 나의 경제적 수준에 대한 만족도 점수를 살펴보면 남성은 4.78점, 여성은 4.57점으로 남성이 약간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나의 경제적 수준에 대한 만족도 점수를 살펴보면 18~19세가 5.65점으로 가장 높았고, 25~29세가 4.41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학력별로 나의 경제적 수준에 대한 만족도 점수를 살펴보면 대학원 졸업이 4.97점으로 가장 높았고, 전문대 졸업이 4.11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가구유형별로 나의 경제적 수준에 대한 만족도 점수를 살펴보면 무자녀 부부가구가 5.18점으로 가장 높았고, 기타가구가 4.16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별로 나의 경제적 수준에 대한 만족도 점수를 살펴보면 재학생이 5.30점으로 가장 높았고, 실업자가 3.7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2-7-30] 생활영역별 만족도(계속)

[단위: 0~10점]

구분		미래 안정성	시간적 여유	지역사회 환경의 질	거주하는 지역사회 전반	내가 하는 일	나의 경제적 수준
전체(n=5,194)		4.95	5.44	5.94	6.08	5.76	4.67
성별	남성	5.18	5.60	6.06	6.19	5.87	4.78
	여성	4.73	5.28	5.84	5.97	5.66	4.57
연령	18~19세	5.86	6.65	6.76	6.99	6.52	5.65
	20~24세	5.18	5.65	6.29	6.42	5.98	4.93
	25~29세	4.76	5.27	5.79	5.89	5.53	4.41
	30~35세	4.78	5.21	5.67	5.83	5.69	4.56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5.10	5.67	6.15	6.27	5.81	4.83
	전문대 졸업	4.40	5.11	5.47	5.62	5.37	4.11
	대학교 졸업	4.95	5.31	5.90	6.03	5.78	4.67
	대학원 졸업	5.23	5.51	6.01	6.13	6.27	4.97
가구 유형	1인가구	4.74	5.15	5.68	5.83	5.68	4.36
	무자녀 부부가구	5.32	5.51	5.87	6.00	5.98	5.18
	유자녀 부부가구	5.34	4.54	5.77	5.83	5.93	5.05
	부모동거 가구	5.05	5.73	6.16	6.31	5.82	4.84
	기타가구	4.59	5.21	5.77	5.85	5.40	4.16
경제 활동 상태	경제 활동	취업	5.01	5.39	5.92	6.06	4.79
		실업	4.24	5.34	5.79	4.87	3.78
	비경제 활동	재학	5.64	6.08	6.57	6.68	5.30
		비재학 미취업	4.59	5.26	5.79	5.91	4.20

6) 사회 인식

- 사회에 대한 신뢰 점수는 평균 4.94점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 사회에 대한 신뢰 점수를 살펴보면 남성은 4.98점, 여성은 4.90점으로 유사하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사회에 대한 신뢰 점수를 살펴보면 18~19세가 5.33점으로 가장 높았고, 25~29세가 4.7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학력별로 사회에 대한 신뢰 점수를 살펴보면 대학원 졸업이 5.25점으로 가장 높았고, 전문대 졸업이 4.6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가구유형별로 사회에 대한 신뢰 점수를 살펴보면 유자녀 부부가구가 5.21점으로 가장 높았고, 기타 가구가 4.72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별로 사회에 대한 신뢰 점수를 살펴보면 재학생이 5.39점으로 가장 높았고, 실업자가 4.61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주관적 소득수준과 현재 부모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에 대한 신뢰 점수가 높게 나타남

[표 2-7-31] 사회 신뢰

[단위: 0~10점]

구분		불신										신뢰	평균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n=5,194)		4.3	1.8	6.5	11.1	9.9	28.2	13.6	16.2	6.6	1.1	0.7	4.94	
성별	남성	5.3	2.0	6.1	10.9	8.0	27.8	12.9	16.8	7.9	1.4	0.9	4.98	
	여성	3.3	1.7	6.8	11.3	11.7	28.7	14.3	15.8	5.4	0.8	0.4	4.90	
연령	18~19세	4.4	0.7	4.4	6.4	5.8	33.9	14.8	18.5	8.3	1.6	1.3	5.33	
	20~24세	3.6	1.3	5.2	10.7	8.9	27.7	14.6	19.2	6.9	1.1	0.8	5.13	
	25~29세	4.4	2.2	6.6	12.3	11.9	27.6	13.4	14.3	5.4	1.2	0.6	4.79	
	30~35세	4.6	2.0	7.8	10.9	9.3	28.3	13.0	15.5	7.4	0.9	0.4	4.86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5.3	1.5	5.7	10.3	8.8	28.2	13.3	18.1	6.9	1.1	0.9	5.00	
	전문대 졸업	5.1	1.7	7.8	15.0	8.8	29.0	12.0	13.8	6.0	0.6	0.3	4.67	
	대학교 졸업	3.4	2.0	7.1	10.9	10.9	28.2	14.1	15.3	6.2	1.4	0.5	4.92	
	대학원 졸업	1.9	2.1	3.4	8.9	13.3	27.0	16.3	16.4	8.7	1.1	0.9	5.25	
가구 유형	1인가구	4.4	1.8	7.8	11.5	10.9	27.4	12.0	15.9	6.3	1.2	0.7	4.85	
	무자녀 부부가구	3.8	1.8	6.9	9.1	9.5	28.9	14.6	16.1	7.6	1.2	0.6	5.03	
	유자녀 부부가구	3.4	1.9	4.9	9.8	8.0	30.4	11.0	17.0	11.6	0.8	1.1	5.21	
	부모동거 가구	4.2	1.7	5.8	11.1	9.1	28.3	14.7	17.0	6.5	1.0	0.6	4.98	
	기타가구	4.9	2.0	5.4	12.0	13.0	30.3	14.7	11.7	4.1	1.6	0.3	4.72	
경제 활동 상태	경제 활동	취업	4.1	2.0	6.8	11.4	10.0	28.0	13.7	15.5	6.7	1.2	0.6	4.91
		실업	5.4	2.4	7.3	13.9	11.3	29.0	11.1	13.5	5.0	0.7	0.5	4.61
	비경제 활동	재학	3.7	1.3	3.5	7.8	6.5	28.1	17.0	21.1	8.9	1.5	0.7	5.39
		비재학 미취업	4.7	1.0	6.9	10.7	11.0	28.7	12.6	17.4	5.3	0.8	0.9	4.91
	주관적 소득 수준	하	10.1	2.8	12.7	15.9	10.7	25.6	9.0	8.8	3.6	0.5	0.3	3.99
중		2.3	1.5	4.4	9.6	10.1	30.2	15.9	18.2	6.4	1.0	0.5	5.18	
상		1.5	0.8	3.3	7.4	4.6	19.5	9.2	25.4	20.5	4.5	3.4	6.17	
현재 부모의 소득 수준	하	10.0	2.8	11.6	16.2	10.2	25.4	8.9	8.7	5.3	0.7	0.3	4.08	
	중	3.1	1.7	5.4	10.3	10.2	29.7	15.2	17.5	5.6	1.0	0.5	5.04	
	상	3.2	1.3	5.6	8.6	7.9	24.5	11.8	19.4	13.4	2.5	1.8	5.46	

- 우리사회는 노력에 따른 공정한 대가가 제공되고 있냐는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는 48.3%, 동의한다는 응답은 20.7%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 노력에 따른 공정한 대가가 제공되고 있냐는 질문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은 여성은 53.3% 남성은 43.2%로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남
- 연령이 높을수록 우리사회는 노력에 따른 공정한 대가가 제공되고 있냐는 질문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노력에 따른 공정한 대가가 제공되고 있냐는 질문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은 대학교 졸업이 54.0%로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41.3%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가구유형별로 노력에 따른 공정한 대가가 제공되고 있냐는 질문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은 기타가구가 55.5%로 가장 높았고, 부모동거 가구가 44.2%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별로 노력에 따른 공정한 대가가 제공되고 있냐는 질문에 대해 동의하

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은 실업자가 50.5%로 가장 높았고, 재학생이 38.8%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주관적 소득수준과 현재 부모의 주관적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우리사회는 노력에 따른 공정한 대가가 제공되고 있냐는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낮게 나타남

[표 2-7-32] 노력 대비 공정성 인식

[단위: %]

구분			우리사회는 노력에 따른 공정한 대가가 제공되고 있다						
			비동의			보통	동의	어느 정도 동의	매우 동의
				전혀 동의 안함	별로 동의 안함				
전체(n=5,194)			48.3	13.7	34.6	30.9	20.7	18.5	2.3
성별	남성		43.2	14.6	28.6	31.8	25.1	21.6	3.5
	여성		53.3	13.0	40.3	30.1	16.6	15.5	1.1
연령	18~19세		31.8	6.5	25.3	39.9	28.3	24.8	3.5
	20~24세		39.6	9.4	30.2	36.2	24.2	21.1	3.1
	25~29세		53.2	15.0	38.2	27.1	19.7	17.6	2.1
	30~35세		53.6	17.5	36.2	29.0	17.4	15.9	1.5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41.3	11.5	29.8	34.9	23.8	20.8	3.0
	전문대 졸업		49.4	13.9	35.6	31.8	18.8	17.1	1.7
	대학교 졸업		54.0	15.7	38.3	27.1	18.9	17.1	1.8
	대학원 졸업		52.0	14.3	37.7	30.8	17.2	15.6	1.6
가구유형	1인가구		52.8	16.1	36.7	26.4	20.8	18.6	2.2
	무자녀 부부가구		52.0	17.4	34.6	31.5	16.5	15.6	0.9
	유자녀 부부가구		46.9	10.6	36.4	31.5	21.6	18.2	3.4
	부모동거 가구		44.2	11.8	32.4	33.6	22.3	19.8	2.5
	기타가구		55.5	15.8	39.7	32.8	11.6	10.6	1.0
경제활동 상태	경제활동	취업	50.0	14.5	35.5	29.9	20.2	18.0	2.2
		실업	50.5	17.1	33.5	29.8	19.7	17.0	2.7
	비경제활동	재학	38.8	9.4	29.5	33.1	28.0	26.0	2.1
		비재학 미취업	46.9	12.0	35.0	34.4	18.7	16.3	2.4
주관적 소득수준	하		61.8	24.9	36.9	24.1	14.2	12.8	1.4
	중		45.0	10.2	34.8	34.2	20.8	18.9	1.9
	상		29.4	6.0	23.4	25.5	45.2	36.3	8.9
현재 부모의 소득수준	하		62.4	25.1	37.3	23.5	14.2	12.2	1.9
	중		46.9	11.7	35.2	32.6	20.5	18.7	1.8
	상		38.4	10.1	28.4	31.9	29.7	25.0	4.7

- 부모의 경제·사회적 지위보다 내 노력이 더 중요하냐는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2.9%, 동의한다는 응답은 30.3%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 부모의 경제·사회적 지위보다 내 노력이 더 중요하냐는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 응답 비율은 여성은 48.4%, 남성은 37.2%로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남
- 연령이 높을수록 부모의 경제·사회적 지위보다 내 노력이 더 중요하냐는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부모의 경제·사회적 지위보다 내 노력이 더 중요하냐는 질문에 동의하지 않

는 응답 비율은 대학교 졸업이 47.7%로 가장 높고,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36.8%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가구유형별로 부모의 경제·사회적 지위보다 내 노력이 더 중요하냐는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 응답 비율은 기타가구가 52.0%로 가장 높았고, 부모동거 가구가 40.0%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별로 부모의 경제·사회적 지위보다 내 노력이 더 중요하냐는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 응답 비율은 취업자가 45.0%로 가장 높았고, 재학생이 34.2%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주관적 소득수준과 현재 부모의 주관적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의 경제·사회적 지위보다 내 노력이 더 중요하냐는 질문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낮게 나타남

[표 2-7-33] 사회적 성취에 있어서 부모의 경제·사회적 지위의 중요성

[단위: %]

구분			사회적 성취에 있어 부모의 경제·사회적 지위보다 내 노력이 더 중요하다						
			비동의	전혀 동의 안함	별로 동의 안함	보통	동의	어느 정도 동의	매우 동의
전체(n=5,194)			42.9	14.5	28.4	26.8	30.3	21.5	8.9
성별	남성		37.2	12.8	24.4	28.9	33.9	23.5	10.4
	여성		48.4	16.1	32.3	24.8	26.9	19.5	7.4
연령	18~19세		27.0	5.1	21.9	35.0	38.1	28.0	10.1
	20~24세		37.7	11.8	25.9	28.8	33.5	23.5	10.0
	25~29세		45.8	16.0	29.8	25.1	29.1	20.2	8.9
	30~35세		47.2	16.8	30.3	25.4	27.4	19.8	7.7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36.8	11.7	25.1	30.6	32.6	22.9	9.7
	전문대 졸업		44.2	16.7	27.6	25.1	30.7	22.3	8.4
	대학교 졸업		47.7	16.5	31.2	24.3	28.0	19.7	8.3
	대학원 졸업		45.8	13.1	32.7	23.1	31.1	22.4	8.8
가구유형	1인가구		45.3	17.2	28.2	25.6	29.1	19.8	9.3
	무자녀 부부가구		43.8	12.4	31.4	28.8	27.4	17.5	9.9
	유자녀 부부가구		42.9	13.7	29.2	25.4	31.7	23.9	7.8
	부모동거 가구		40.0	12.3	27.8	27.5	32.5	23.6	8.9
	기타가구		52.0	20.4	31.6	26.6	21.5	15.2	6.2
경제활동 상태	경제활동	취업	45.0	15.2	29.8	25.6	29.5	20.6	8.8
		실업	43.0	14.4	28.6	28.4	28.6	18.1	10.5
	비경제활동	재학	34.2	10.1	24.1	29.8	36.0	28.5	7.5
		비재학 미취업	40.1	14.4	25.7	29.0	31.0	21.9	9.1
주관적 소득수준	하		51.6	24.1	27.5	22.6	25.8	17.3	8.5
	중		40.8	11.5	29.3	28.8	30.4	22.1	8.2
	상		29.5	6.1	23.4	22.8	47.7	30.7	17.0
현재 부모의 소득수준	하		55.9	28.2	27.7	19.9	24.2	15.3	8.9
	중		41.3	12.2	29.1	28.4	30.3	21.9	8.4
	상		34.8	9.1	25.8	27.0	38.2	26.7	11.5

- 40~50대에 비해 청년세대의 사회·경제적 기회가 더 많은가에 대한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0.3%, 동의한다는 응답은 17.4%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 40~50대에 비해 청년세대의 사회·경제적 기회가 더 많은가에 대한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은 남성은 60.4%, 여성은 60.1%로 유사하게 나타남
- 연령별로 40~50대에 비해 청년세대의 사회·경제적 기회가 더 많은가에 대한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은 25~29세가 65.3%로 가장 높았고, 18~19세가 41.5%로 가장 낮게 나타남
- 학력별로 40~50대에 비해 청년세대의 사회·경제적 기회가 더 많은가에 대한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은 대학원 졸업이 68.1%로 가장 높았고, 전문대 졸업이 53.1%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가구유형별로 40~50대에 비해 청년세대의 사회·경제적 기회가 더 많은가에 대한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은 기타가구가 69.3%로 가장 높았고, 유자녀 부부가 57.6%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별로 40~50대에 비해 청년세대의 사회·경제적 기회가 더 많은가에 대한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은 실업자가 61.7%로 가장 높았고, 재학생이 54.5%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주관적 소득수준과 현재 부모의 주관적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40~50대 대비 청년세대의 사회·경제적 기회가 더 많은가에 대한 질문에 동의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2-7-34] 40~50대 대비 청년세대의 사회·경제적 기회

[단위: %]

구분			40~50대와 비교했을 때 청년세대가 사회·경제적으로 기회가 더 많다						
			비동의	전혀 동의 안함	별로 동의 안함	보통	동의	어느 정도 동의	매우 동의
전체(n=5,194)			60.3	31.1	29.1	22.3	17.4	13.8	3.6
성별	남성		60.4	33.6	26.8	22.2	17.4	13.3	4.1
	여성		60.1	28.8	31.3	22.5	17.4	14.2	3.2
연령	18~19세		41.5	14.9	26.6	31.1	27.4	23.1	4.3
	20~24세		53.4	25.6	27.8	27.5	19.1	14.9	4.2
	25~29세		65.3	35.2	30.1	19.6	15.0	11.6	3.5
	30~35세		64.1	34.5	29.6	19.2	16.7	13.5	3.2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54.0	26.9	27.1	26.4	19.6	15.5	4.1
	전문대 졸업		53.1	28.7	24.4	25.3	21.5	16.8	4.7
	대학교 졸업		67.2	35.2	32.0	18.2	14.6	11.6	3.0
	대학원 졸업		68.1	35.6	32.5	17.9	14.1	11.9	2.2
가구유형	1인가구		61.6	33.5	28.1	22.4	16.0	12.3	3.8
	무자녀 부부가구		63.5	32.4	31.1	19.8	16.7	12.0	4.7
	유자녀 부부가구		57.6	24.8	32.8	22.0	20.4	18.2	2.2
	부모동거 가구		58.1	29.3	28.8	23.0	19.0	15.3	3.7
	기타가구		69.3	37.2	32.1	19.9	10.8	8.0	2.8
경제활동상태	경제활동	취업	61.1	32.6	28.5	21.9	16.9	13.2	3.7
		실업	61.7	28.7	33.0	23.4	14.9	11.8	3.1
	비경제활동	재학	54.5	23.7	30.8	23.7	21.9	18.3	3.6
		비재학 미취업	59.7	31.3	28.4	22.6	17.7	14.1	3.6
주관적 소득수준	하		67.8	42.4	25.5	18.5	13.7	10.8	2.9
	중		58.2	27.5	30.6	23.6	18.3	14.7	3.6
	상		51.7	23.4	28.2	25.1	23.3	16.2	7.1
현재 부모의 소득수준	하		70.2	44.4	25.8	16.2	13.6	10.0	3.6
	중		58.1	28.0	30.1	23.8	18.1	14.7	3.4
	상		58.8	30.5	28.4	22.6	18.6	13.9	4.7

- 청년세대가 우리 사회로부터 충분한 관심과 지원을 받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1.6%, 동의 한다는 응답은 15.2%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 청년세대가 우리 사회로부터 충분한 관심과 지원을 받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은 남성은 52.5%, 여성은 50.7%로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남
- 연령과 학력이 높을수록 청년세대가 우리사회로부터 충분한 관심과 지원을 받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 가구유형별로 청년세대가 우리 사회로부터 충분한 관심과 지원을 받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은 기타 가구가 55.3%로 가장 높았고, 부모동거 가구가 50.3%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별로 청년세대가 우리 사회로부터 충분한 관심과 지원을 받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은 실업자가 53.9%로 가장 높았고, 재학이 46.1%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주관적 소득수준과 현재 부모의 주관적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청년세대가 우리사회로부터 충분한 관심과 지원을 받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낮게 나타남

[표 2-7-35] 청년세대에 대한 사회의 관심

[단위: %]

구분		청년세대는 우리사회로부터 충분한 관심과 지원을 받고 있다						
		비동의	전혀 동의 안함	별로 동의 안함	보통	동의	어느 정도 동의	매우 동의
전체(n=5,194)		51.6	20.0	31.6	33.2	15.2	13.0	2.3
성별	남성	52.5	23.0	29.5	31.9	15.7	12.9	2.8
	여성	50.7	17.1	33.6	34.5	14.8	13.0	1.8
연령	18~19세	37.5	12.1	25.5	40.9	21.6	17.6	4.1
	20~24세	43.7	15.7	28.0	39.0	17.3	14.6	2.7
	25~29세	56.0	22.7	33.4	31.2	12.8	10.9	1.9
	30~35세	56.0	22.1	33.9	29.1	14.9	12.9	2.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46.9	18.0	28.9	36.6	16.6	14.0	2.6
	전문대 졸업	49.3	21.0	28.4	34.0	16.6	14.5	2.1
	대학교 졸업	55.7	21.3	34.4	30.3	14.0	12.1	1.9
	대학원 졸업	58.4	21.4	37.0	30.3	11.3	8.9	2.4
가구유형	1인가구	52.2	20.9	31.4	31.3	16.5	14.4	2.1
	무자녀 부부가구	54.4	21.1	33.4	32.0	13.6	11.0	2.6
	유자녀 부부가구	52.0	14.7	37.3	31.8	16.2	15.0	1.2
	부모동거 가구	50.3	19.8	30.4	35.0	14.8	12.3	2.5
	기타가구	55.3	19.3	36.1	31.6	13.1	11.6	1.5
경제활동상태	경제활동	취업	52.5	20.7	31.8	32.8	14.7	12.4
		실업	53.9	22.1	31.8	32.5	13.6	11.1
	비경제활동	재학	46.1	15.7	30.5	34.8	19.1	17.3
		비재학 미취업	50.0	18.7	31.4	34.3	15.6	13.4
주관적 소득수준	하	63.1	29.7	33.4	26.4	10.5	9.4	1.1
	중	48.2	16.8	31.4	36.2	15.6	13.3	2.3
	상	39.8	13.2	26.6	30.3	29.8	23.3	6.5
현재 부모의 소득수준	하	62.3	32.3	30.0	25.4	12.3	10.2	2.2
	중	49.4	17.2	32.3	35.8	14.8	12.8	2.0
	상	49.1	18.7	30.4	30.2	20.8	17.0	3.7

- 우리 사회는 다른 나라에 비해 청년세대가 살만한 나라인가에 대한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2.3%, 동의한다는 응답은 9.9%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 우리 사회는 다른 나라에 비해 청년세대가 살만한 나라인가에 대한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은 여성은 66.5%, 남성은 58.0%로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우리 사회는 다른 나라에 비해 청년세대가 살만한 나라인가에 대한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은 25~29세가 66.7%로 가장 높았고, 18~19세가 48.5%로 가장 낮게 나타남
- 학력별로 우리 사회는 다른 나라에 비해 청년세대가 살만한 나라인가에 대한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은 대학교 졸업이 67.0%로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57.5%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가구유형별로 우리 사회는 다른 나라에 비해 청년세대가 살만한 나라인가에 대한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은 기타 가구가 64.7%로 가장 높았고, 무자녀 부부 가구가 59.5%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별로 우리 사회는 다른 나라에 비해 청년세대가 살만한 나라인가에 대한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은 실업자가 67.1%로 가장 높았고, 재학생이 56.1%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주관적 소득수준과 현재 부모의 주관적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우리사회는 다른 나라에 비해 청년세대가 살만한 나라인가에 대한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낮게 나타남

[표 2-7-36] 외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

[단위: %]

구분			우리사회는 다른 나라에 비해 청년세대가 살만한 나라이다					
			비동의	전혀 동의 안함	별로 동의 안함	보통	동의	어느 정도 동의
전체(n=5,194)			62.3	30.8	31.5	27.8	9.9	8.1
성별	남성		58.0	29.8	28.2	29.6	12.4	9.8
	여성		66.5	31.7	34.8	26.0	7.6	6.4
연령	18~19세		48.5	19.4	29.2	38.1	13.4	10.3
	20~24세		58.2	26.9	31.2	32.2	9.7	7.8
	25~29세		66.7	34.0	32.7	24.3	9.0	7.2
	30~35세		63.7	32.7	31.0	25.8	10.6	8.9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57.5	27.5	30.0	31.8	10.7	8.7
	전문대 졸업		60.1	32.4	27.8	30.7	9.2	7.6
	대학교 졸업		67.0	33.2	33.8	23.7	9.4	7.5
	대학원 졸업		65.4	31.6	33.8	23.8	10.7	8.8
가구유형	1인가구		63.6	31.9	31.7	26.1	10.3	8.5
	무자녀 부부가구		59.5	28.6	31.0	30.5	10.0	7.8
	유자녀 부부가구		61.0	28.0	33.0	24.9	14.2	11.1
	부모동거 가구		61.7	30.3	31.3	28.8	9.5	7.6
	기타가구		64.7	32.7	32.0	27.2	8.1	7.3
경제활동상태	경제활동	취업	62.7	31.6	31.1	27.7	9.6	7.7
		실업	67.1	32.5	34.6	25.3	7.5	5.8
	비경제활동	재학	56.1	24.9	31.3	32.0	11.9	10.2
		비재학 미취업	62.4	30.2	32.2	26.4	11.3	9.4
주관적 소득수준	하		74.3	44.3	30.0	19.2	6.5	5.4
	중		59.1	26.4	32.6	31.0	10.0	8.2
	상		48.1	21.5	26.6	29.0	23.0	17.1
현재 부모의 소득수준	하		72.4	42.9	29.5	20.4	7.2	5.4
	중		61.0	28.5	32.5	29.2	9.8	8.3
	상		56.6	27.5	29.2	29.5	13.9	10.1

- 최근 1년간 불안을 느낀 사회문제 1순위는 젠더갈등이 25.3%로 가장 높았고, 감염병 확산 18.3%, 사회경제적 불평등 15.7%, 경기침체 및 성장 둔화 9.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최근 1년간 불안을 느낀 사회문제 2순위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17.0%로 가장 높았고, 경기침체 및 성장 둔화 14.7%, 젠더갈등 14.0%, 감염병 확산 11.8%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2-7-37] 최근 1년간 불안을 느낀 사회문제

[단위: %]

구분	1순위 (n=5,194)	2순위 (n=4,814) ¹⁾
없음	7.4	0.0
세대갈등	6.8	6.8
젠더갈등	25.3	14.0
정치 및 대외관계	5.7	8.9
오프라인을 통한 학대, 폭력범죄	3.5	5.9
온라인을 통한 학대, 폭력 범죄	2.3	5.2
사회경제적 불평등	15.7	17.0
취약한 사회안전망	2.7	6.4
경기침체 및 성장 둔화	9.4	14.7
환경파괴	1.8	5.6
자연재해	0.3	1.2
온라인에서 사생활 침해	0.9	2.5
감염병 확산	18.3	11.8

주: 1) 2순위 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함

- 최근 1년간 불안을 느낀 사회문제 1순위를 성별과 연령별로 살펴봄
- 성별에 따라서 최근 1년간 불안을 느낀 사회문제 1순위를 살펴보면 남성(25.1%)과 여성(25.5%) 모두 젠더갈등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최근 1년간 불안을 느낀 사회문제 1순위를 살펴보면 18~19세는 감염병 확산이 25.3%로 가장 높았고, 나머지 모든 연령에서 젠더갈등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2-7-38] 최근 1년간 불안을 느낀 사회문제(1순위)

[단위: %]

구분	전체 (n=5,194)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8~19세	20~24세	25~29세	30~35세
없음	7.4	9.7	5.1	15.0	9.3	7.3	4.3
세대갈등	6.8	9.3	4.3	7.4	5.1	7.3	7.4
젠더갈등	25.3	25.1	25.5	24.6	31.0	26.4	19.4
정치 및 대외관계	5.7	7.6	3.9	6.1	5.6	4.6	7.0
오프라인을 통한 학대, 폭력범죄	3.5	1.1	5.9	2.9	3.7	2.9	4.2
온라인을 통한 학대, 폭력 범죄	2.3	1.6	2.9	2.8	2.8	2.2	1.8
사회경제적 불평등	15.7	15.6	15.8	8.3	11.1	17.4	19.1
취약한 사회안전망	2.7	1.8	3.5	1.5	2.7	2.7	2.8
경기침체 및 성장 둔화	9.4	9.5	9.4	3.7	7.8	10.2	11.2
환경파괴	1.8	0.7	2.8	0.4	1.5	2.2	1.7
자연재해	0.3	0.2	0.4	0.0	0.3	0.2	0.6
온라인에서 사생활 침해	0.9	0.6	1.2	2.1	0.9	0.8	0.8
감염병 확산	18.3	17.1	19.4	25.3	18.1	15.8	19.8

- 최근 1년간 불안을 느낀 사회문제 2순위를 성별과 연령별로 살펴봄
- 성별에 따라서 최근 1년간 불안을 느낀 사회문제 2순위를 살펴보면 남성(16.7%)과 여성(17.2%) 모두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모든 연령에서 최근 1년간 불안을 느낀 사회문제 2순위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연령이 높을수록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경기침체 및 성장 둔화가 문제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2-7-39] 최근 1년간 불안을 느낀 사회문제(2순위)

[단위: %]

구분	전체 (n=4,814) ¹⁾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8~19세	20~24세	25~29세	30~35세
없음	0.0	0.0	0.0	0.0	0.0	0.0	0.0
세대갈등	6.8	10.4	3.6	5.2	7.3	6.8	6.7
젠더갈등	14.0	15.9	12.3	10.0	13.9	15.8	12.9
정치 및 대외관계	8.9	12.1	6.0	12.0	9.6	7.7	9.0
오프라인을 통한 학대, 폭력범죄	5.9	2.6	8.9	6.7	5.2	6.4	5.9
온라인을 통한 학대, 폭력 범죄	5.2	3.1	7.0	4.5	6.0	4.9	4.9
사회경제적 불평등	17.0	16.7	17.2	15.3	15.6	17.6	17.7
취약한 사회안전망	6.4	5.3	7.4	8.6	6.2	6.9	5.7
경기침체 및 성장 둔화	14.7	16.3	13.2	12.0	13.4	14.2	16.7
환경파괴	5.6	3.5	7.6	7.9	6.0	5.6	5.0
자연재해	1.2	1.4	1.1	1.5	1.1	1.2	1.4
온라인에서 사생활 침해	2.5	1.8	3.1	5.1	2.8	2.1	2.2
감염병 확산	11.8	10.9	12.7	11.2	13.0	11.0	11.9

주: 1) 2순위 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함

- 30년 뒤 한국의 미래가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은 41.4%,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38.3%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 30년 뒤 한국의 미래가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을 살펴보면 남성은 43.8%, 여성은 39.0%로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30년 뒤 한국의 미래가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을 살펴보면 25~29세가 43.4%로 가장 높았고, 18~19세가 34.7%로 가장 낮게 나타남
- 학력이 높을수록 30년 뒤 한국의 미래가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가구유형별로 30년 뒤 한국의 미래가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을 살펴보면 기타가구가 42.7%로 가장 높았고, 유자녀 부부가구가 35.9%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별로 30년 뒤 한국의 미래가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을 살펴보면 취업자가 42.4%로 가장 높았고, 재학생이 38.3%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주관적 소득수준과 현재 부모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30년 뒤 한국의 미래가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낮게 나타남

[표 2-7-40] 30년 뒤 한국의 미래 전망

[단위: %]

구분		나빠짐	변화 없음		좋아짐	약간 좋아짐	매우 좋아짐		
			매우 나빠짐	약간 나빠짐					
전체(n=5,194)		41.4	15.6	25.8	20.3	38.3	33.9	4.5	
성별	남성	43.8	19.1	24.8	18.7	37.5	32.0	5.4	
	여성	39.0	12.3	26.7	21.8	39.2	35.7	3.5	
연령	18~19세	34.7	11.8	22.9	25.1	40.2	34.8	5.4	
	20~24세	40.9	13.4	27.5	20.0	39.1	34.9	4.1	
	25~29세	43.4	18.0	25.4	21.3	35.3	31.5	3.8	
	30~35세	40.8	15.7	25.1	18.5	40.7	35.4	5.3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40.2	15.5	24.7	21.6	38.3	33.6	4.7	
	전문대 졸업	41.1	15.8	25.3	21.7	37.2	34.1	3.2	
	대학교 졸업	42.3	15.9	26.4	19.1	38.6	34.2	4.4	
	대학원 졸업	43.5	13.7	29.8	17.0	39.5	33.0	6.6	
가구유형	1인가구	42.5	16.7	25.9	20.4	37.1	33.2	3.9	
	무자녀 부부가구	42.0	13.6	28.4	15.9	42.1	35.7	6.4	
	유자녀 부부가구	35.9	14.5	21.4	21.6	42.5	36.4	6.1	
	부모동거 가구	40.9	15.3	25.6	20.8	38.3	33.9	4.4	
	기타	42.7	15.9	26.8	19.1	38.2	33.7	4.5	
경제활동 상태	경제 활동	취업	42.4	16.4	26.0	19.3	38.3	33.8	4.5
		실업	42.0	16.1	25.9	22.4	35.6	32.1	3.5
	비경제 활동	재학	38.3	12.3	26.1	22.7	39.0	34.5	4.5
		비재학 미취업	38.7	14.3	24.5	21.8	39.4	34.5	4.9
주관적 소득수준	하	51.9	25.4	26.5	19.1	29.1	25.6	3.5	
	중	37.9	12.0	25.9	21.4	40.8	36.5	4.2	
	상	35.5	14.2	21.3	14.3	50.2	39.9	10.4	
현재 부모의 소득수준	하	51.1	26.4	24.7	16.9	32.1	28.1	4.0	
	중	39.3	13.1	26.3	22.2	38.4	34.7	3.7	
	상	39.6	15.2	24.5	14.9	45.5	36.7	8.8	

8_코로나19로 인한 변화

1) 일자리 변화

- 코로나19로 노동시간 감소를 경험한 응답자는 21.3%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해 노동시간 감소를 경험한 경우는 여성은 23.6%, 남성은 18.9%로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코로나19로 인해 노동시간 감소를 경험한 경우는 25~29세가 23.2%로 가장 높았고, 18~19세가 13.3%로 가장 낮게 나타남
- 학력별로 코로나19로 인해 노동시간 감소를 경험한 경우는 전문대 졸업이 24.2%로 가장 높았고, 대학원 졸업이 18.7%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가구유형별로 코로나19로 인해 노동시간 감소를 경험한 경우는 기타가구가 25.7%로 가장 높았고, 유자녀 부부가구가 17.2%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별로 코로나19로 인해 노동시간 감소를 경험한 경우는 실업자가 26.8%로 가장 높았고, 재학생이 12.9%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코로나19로 인해 임금 삭감을 경험한 응답자는 11.8%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해 임금 삭감을 경험한 경우는 여성은 12.6%, 남성은 10.9%로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남
- 연령이 높을수록 코로나19로 인해 임금 삭감을 경험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학력별로 코로나19로 인해 임금 삭감을 경험한 경우를 살펴보면 전문대 졸업이 15.8%로 가장 높았고, 대학원 졸업이 10.9%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가구유형별로 코로나19로 인해 임금 삭감을 경험한 경우를 살펴보면 기타 가구가 15.0%로 가장 높았고, 유자녀 부부가구가 10.2%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별로 코로나19로 인해 임금 삭감을 경험한 경우를 살펴보면 취업자가 13.5%로 가장 높았고, 재학생이 4.0%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코로나19로 인해 무급휴직을 경험한 응답자는 9.5%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해 무급휴직을 경험한 경우는 여성은 10.7%, 남성은 8.1%로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남
- 연령이 높을수록 코로나19로 인해 무급휴직을 경험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학력별로 코로나19로 인해 무급휴직을 경험한 경우를 살펴보면 전문대 졸업이 13.9%로 가장 높았고, 대학원 졸업이 7.5%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가구유형별로 코로나19로 인해 무급휴직을 경험한 경우를 살펴보면 무급휴직 경험은 무자녀 부부가구가 10.9%로 가장 높았고, 부모동거 가구가 8.1%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별로 코로나19로 인해 무급휴직을 경험한 경우를 살펴보면 무급휴직 경험은 실업자가 13.9%로 가장 높았고, 재학생이 3.4%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2-8-1]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관련 변화(노동시간, 임금, 무급휴직)

[단위: %]

구분		노동시간 감소			임금 삭감			무급휴직		
		있음	없음	해당 없음	있음	없음	해당 없음	있음	없음	해당 없음
전체(n=5,194)		21.3	38.2	40.4	11.8	45.9	42.4	9.5	46.2	44.4
성별	남성	18.9	37.0	44.1	10.9	43.8	45.4	8.1	43.8	48.0
	여성	23.6	39.4	37.0	12.6	47.8	39.5	10.7	48.4	40.8
연령	18~19세	13.3	23.5	63.1	5.7	29.1	65.3	3.9	28.3	67.7
	20~24세	22.6	29.2	48.3	10.1	38.4	51.5	8.5	37.6	53.9
	25~29세	23.2	40.9	35.9	13.0	49.2	37.8	9.4	50.3	40.3
	30~35세	19.7	45.9	34.4	13.0	51.7	35.3	11.4	52.4	36.2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2.2	28.7	49.1	11.2	36.9	51.9	9.1	36.3	54.6
	전문대 졸업	24.2	38.8	37.0	15.8	44.7	39.5	13.9	44.6	41.5
	대학교 졸업	19.9	45.8	34.3	11.2	53.3	35.6	8.7	54.5	36.8
	대학원 졸업	18.7	47.0	34.3	10.9	55.0	34.1	7.5	56.5	36.1
가구 유형	1인가구	22.6	41.0	36.4	12.6	49.6	37.8	10.2	50.6	39.2
	무자녀 부부가구	18.5	52.6	28.9	12.9	57.6	29.6	10.9	57.0	32.2
	유자녀 부부가구	17.2	38.5	44.4	10.2	43.0	46.9	10.4	43.0	46.6
	부모동거 가구	20.7	34.3	45.0	10.8	41.9	47.3	8.1	42.2	49.8
	기타가구	25.7	40.4	33.9	15.0	48.3	36.7	14.2	47.0	38.8
경제 활동 상태	경제 활동	취업	23.4	47.5	29.1	13.5	56.3	30.2	10.7	57.2
	경제 활동	실업	26.8	24.3	48.9	12.4	33.9	53.8	13.9	30.1
	비경제 활동	재학	12.9	14.4	72.7	4.0	20.3	75.8	3.4	20.5
	비경제 활동	비재학 미취업	15.5	22.6	62.0	9.4	25.7	64.9	6.1	25.8

- 코로나19로 인해 임금이 미지급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4.6%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해 임금이 미지급된 경험이 있는 경우는 남성은 5.0%, 여성은 4.2%로 남성이 약간 높게 나타남
- 연령이 높을수록 코로나19로 인해 임금이 미지급된 경험이 있는 경우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학력별로 코로나19로 인해 임금이 미지급된 경험이 있는 경우는 전문대 졸업이 5.9%로 가장 높았고, 대학원 졸업이 2.4%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가구유형별로 코로나19로 인해 임금이 미지급된 경험이 있는 경우는 기타 가구가 7.7%로 가장 높았고, 유자녀 부부가구가 3.7%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경제활동로 코로나19로 인해 임금이 미지급된 경험이 있는 경우는 취업자가 5.1%로 가장 높았고, 재학생이 1.8%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를 한적이 있는 응답자는 27.5%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를 한적이 있는 경우는 여성은 30.7%, 남성은 24.2%로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남
- 연령과 학력이 높을수록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를 한적이 있는 경우가 높게 나타남

- 가구유형별로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를 한적이 있는 경우는 무자녀 부부가구가 46.3%로 가장 높았고, 부모동거 가구가 20.7%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별로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를 한적이 있는 경우는 취업자가 35.4%로 가장 높았고, 재학생이 7.2%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코로나19로 인해 일시휴직을 경험한 응답자는 8.9%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해 일시휴직을 경험한 경우를 살펴보면 여성은 9.8%, 남성은 8.0%로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코로나19로 인해 일시휴직을 경험한 경우는 20~24세가 9.9%로 가장 높았고, 18~19세가 5.8%로 가장 낮게 나타남
- 학력별로 코로나19로 인해 일시휴직을 경험한 경우는 전문대 졸업이 11.1%로 가장 높았고, 대학원 졸업이 6.3%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가구유형별로 코로나19로 인해 일시휴직을 경험한 경우는 유자녀 부부가구가 10.6%로 가장 높았고, 1인가구가 8.6%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별로 코로나19로 인해 일시휴직을 경험한 경우는 실업자가 11.1%로 가장 높았고, 재학생이 5.1%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2-8-2]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관련 변화(임금 연체, 재택근무, 일시휴직)

[단위: %]

구분		임금 미지급(연체지급)			재택근무 실시			일시휴직(본인만 휴직)		
		있음	없음	해당 없음	있음	없음	해당 없음	있음	없음	해당 없음
전체(n=5,194)		4.6	50.9	44.5	27.5	32.8	39.7	8.9	46.9	44.2
성별	남성	5.0	47.3	47.8	24.2	32.2	43.6	8.0	44.3	47.7
	여성	4.2	54.4	41.5	30.7	33.3	36.0	9.8	49.3	40.9
연령	18~19세	2.4	30.0	67.6	2.8	29.1	68.0	5.8	29.3	65.0
	20~24세	3.8	42.4	53.8	12.5	33.9	53.7	9.9	36.1	54.1
	25~29세	4.9	55.1	40.1	31.7	34.6	33.8	9.2	50.7	40.1
	30~35세	5.2	57.6	37.2	40.6	30.5	28.9	8.4	55.2	36.4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4.6	40.8	54.6	12.2	33.4	54.4	9.8	35.7	54.5
	전문대 졸업	5.9	51.4	42.7	22.1	39.1	38.8	11.1	47.3	41.7
	대학교 졸업	4.3	58.9	36.7	40.5	31.2	28.3	7.8	55.6	36.6
	대학원 졸업	2.4	60.4	37.1	49.8	24.8	25.4	6.3	57.7	36.0
가구 유형	1인가구	5.1	55.7	39.2	34.0	33.4	32.5	8.6	52.0	39.4
	무자녀 부부가구	5.4	61.5	33.1	46.3	30.6	23.1	10.0	58.9	31.1
	유자녀 부부가구	3.7	49.8	46.6	31.8	26.7	41.5	10.6	44.9	44.5
	부모동거 가구	3.8	46.2	50.1	20.7	32.5	46.8	8.8	41.7	49.5
	기타가구	7.7	53.8	38.5	26.2	38.1	35.7	9.6	50.2	40.2
경제 활동 상태	취업	5.1	62.4	32.5	35.4	38.4	26.2	9.9	57.9	32.1
	실업	4.9	38.5	56.6	18.6	28.7	52.8	11.1	32.6	56.3
	재학	1.8	22.5	75.8	7.2	18.2	74.6	5.1	19.2	75.8
	비재학 미취업	3.9	28.2	68.0	13.0	21.3	65.8	6.2	26.4	67.4

- 코로나19로 인해 채용 일정의 연기 또는 취소를 경험한 응답자는 12.7%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해 채용 일정의 연기 또는 취소를 경험한 경우를 살펴보면 여성은 13.3%, 남성은 12.1%로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코로나19로 인해 채용 일정의 연기 또는 취소를 경험한 경우는 25~29세가 18.6%로 가장 높았고, 18~19세가 4.6%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가구유형별로 코로나19로 인해 채용 일정의 연기 또는 취소를 경험한 경우는 1인가구가 14.5%로 가장 높았고, 무자녀 부부가구가 8.9%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별로 코로나19로 인해 채용 일정의 연기 또는 취소를 경험한 경우는 실업자가 24.6%로 가장 높았고, 재학생이 5.4%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의 채용 감축을 경험한 응답자는 22.5%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의 채용 감축을 경험한 경우를 살펴보면 여성은 24.1%, 남성은 20.8%로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의 채용 감축을 경험한 경우는 25~29세가 30.3%로 가장 높았고, 18~19세가 9.0%로 가장 낮게 나타남
- 학력별로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의 채용 감축을 경험한 경우는 대학교 졸업이 27.4%로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17.3%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가구유형별로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의 채용 감축을 경험한 경우는 기타가구가 27.8%로 가장 높았고, 유자녀 부부가구가 13.0%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별로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의 채용 감축을 경험한 경우는 실업자가 39.8%로 가장 높았고, 재학생이 12.4%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코로나19로 인한 불경기로 창업계획에 차질을 경험한 응답자는 9.5%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한 불경기로 창업계획에 차질을 경험한 경우를 살펴보면 남성은 9.8%, 여성은 9.2%로 유사하게 나타남
- 연령이 높을수록 코로나19로 인한 불경기로 창업계획에 차질을 경험한 경우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학력별로 코로나19로 인한 불경기로 창업계획에 차질을 경험한 경우는 전문대 졸업이 11.4%로 가장 높았고, 대학원 졸업이 7.5%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가구유형별로 코로나19로 인한 불경기로 창업계획에 차질을 경험한 경우는 무자녀 부부가구가 13.6%로 가장 높았고, 부모동거 가구가 8.8%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별로 코로나19로 인한 불경기로 창업계획에 차질을 경험한 경우는 실업자가 14.4%로 가장 높았고, 재학생이 4.5%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2-8-3]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관련 변화(채용일정, 기업 채용 감소, 창업계획)

[단위: %]

구분			채용 일정의 연기 또는 취소			기업의 채용 감축			불경기로 창업계획 차질		
			있음	없음	해당 없음	있음	없음	해당 없음	있음	없음	해당 없음
전체(n=5,194)			12.7	41.9	45.3	22.5	35.8	41.8	9.5	40.2	50.3
성별	남성		12.1	40.0	47.9	20.8	34.6	44.6	9.8	37.5	52.7
	여성		13.3	43.8	42.9	24.1	36.9	39.0	9.2	42.8	48.1
연령	18~19세		4.6	29.0	66.4	9.0	25.4	65.5	5.2	28.4	66.4
	20~24세		9.1	36.5	54.5	17.6	32.4	50.0	6.7	35.9	57.4
	25~29세		18.6	42.5	38.9	30.3	35.5	34.2	10.6	42.6	46.8
	30~35세		10.9	48.4	40.7	20.5	40.9	38.6	11.4	43.4	45.2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0.2	34.5	55.4	17.3	31.1	51.7	8.5	33.6	57.9
	전문대 졸업		10.1	45.9	44.1	21.2	38.4	40.4	11.4	41.1	47.5
	대학교 졸업		16.1	46.7	37.1	27.4	38.9	33.7	10.1	45.3	44.6
	대학원 졸업		11.0	48.9	40.1	24.8	38.1	37.1	7.5	45.5	47.1
가구 유형	1인가구		14.5	44.9	40.6	24.6	38.2	37.3	9.4	44.2	46.4
	무자녀 부부가구		8.9	53.7	37.4	21.3	45.1	33.6	13.6	47.0	39.5
	유자녀 부부가구		9.2	39.4	51.5	13.0	36.1	50.9	10.2	35.9	53.9
	부모동거 가구		12.2	38.5	49.3	21.5	33.0	45.5	8.8	37.0	54.2
	기타가구		14.2	43.7	42.1	27.8	35.3	36.9	10.9	41.3	47.9
경제 활동 상태	경제 활동	취업	12.0	51.4	36.6	21.7	44.0	34.3	9.5	48.7	41.8
		실업	24.6	27.0	48.4	39.8	19.6	40.7	14.4	30.2	55.4
	비경제 활동	재학	5.4	20.0	74.6	12.4	18.9	68.8	4.5	19.8	75.7
		비재학 미취업	14.7	24.6	60.7	23.7	21.1	55.3	10.3	23.4	66.3

- 코로나19로 인해 아르바이트, 단기일자리 등의 소득 기회에 대한 감소를 경험한 응답자는 27.7%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기회에 대한 감소를 경험한 경우를 살펴보면 여성은 29.9%, 남성은 25.4%로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기회에 대한 감소를 경험한 경우는 20~24세가 37.4%로 가장 높았고, 30~35세가 17.4%로 가장 낮게 나타남
- 학력이 높을수록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기회에 대한 감소를 경험한 경우가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가구유형별로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기회에 대한 감소를 경험한 경우는 부모동거 가구가 31.5%로 가장 높았고, 무자녀 부부가구가 15.3%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별로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기회에 대한 감소를 경험한 경우는 실업자가 52.9%로 가장 높았고, 취업자가 23.3%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코로나19로 인해 취업설명회, 채용박람회 등이 연기되거나 취소된 경험에 있는 응답자는 13.5%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해 취업설명회, 채용박람회 등이 연기되거나 취소된 경험이 있는 경우는 여성은 14.2%, 남성은 12.8%로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코로나19로 인해 취업설명회, 채용박람회 등이 연기되거나 취소된 경험이 있는 경우는 25~29세가 17.6%로 가장 높았고, 18~19세가 7.4%로 가장 낮게 나타남
- 학력별로 코로나19로 인해 취업설명회, 채용박람회 등이 연기되거나 취소된 경험이 있는 경우는 대학교 졸업이 15.4%로 가장 높았고, 전문대 졸업이 11.8%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가구유형별로 코로나19로 인해 취업설명회, 채용박람회 등이 연기되거나 취소된 경험에 있는 경우는 1인가구가 14.1%로 가장 높았고, 유자녀 부부가구가 8.1%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별로 코로나19로 인해 취업설명회, 채용박람회 등이 연기되거나 취소된 경험에 있는 경우는 실업자가 21.0%로 가장 높았고, 재학생이 11.3%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코로나19로 인해 직업교육훈련, 자격증 시험 등의 구직준비 기회에 대한 감소를 경험한 응답자는 16.5%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해 구직준비 기회에 대한 감소를 경험한 경우를 살펴보면 여성은 18.8%, 남성은 14.1%로 여성이 다소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코로나19로 인해 구직준비 기회에 대한 감소를 경험한 경우를 살펴보면 25~29세가 21.6%로 가장 높았고, 18~19세가 7.4%로 가장 낮게 나타남
- 학력별 코로나19로 인해 구직준비 기회에 대한 감소를 경험한 경우를 살펴보면 대학교 졸업이 19.3%로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14.3%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가구유형별로 코로나19로 인해 구직준비 기회에 대한 감소를 경험한 경우는 부모동거 가구가 17.7%로 가장 높았고, 유자녀 부부가구가 10.1%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경제활동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구직준비 기회에 대한 감소를 경험한 경우는 실업자가 27.8%로 가장 높았고, 재학생이 11.9%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2-8-4]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관련 변화(소득 기회, 정보, 구직준비 기회)

[단위: %]

구분		아르바이트, 단기일자리 등 소득기회 감소			취업설명회, 채용박람회 등의 연기 또는 취소			직업교육훈련, 자격증 시험 등 구직준비기회 감소		
		있음	없음	해당 없음	있음	없음	해당 없음	있음	없음	해당 없음
전체(n=5,194)		27.7	32.9	39.4	13.5	38.0	48.5	16.5	37.8	45.7
성별	남성	25.4	32.0	42.6	12.8	36.0	51.2	14.1	36.0	49.9
	여성	29.9	33.7	36.4	14.2	39.9	45.9	18.8	39.4	41.7
연령	18~19세	26.1	22.5	51.5	7.4	26.1	66.5	7.4	29.2	63.4
	20~24세	37.4	25.2	37.4	13.5	33.9	52.5	16.7	33.6	49.7
	25~29세	29.6	33.9	36.5	17.6	38.7	43.7	21.6	38.0	40.5
	30~35세	17.4	40.4	42.2	10.1	43.0	47.0	12.5	42.8	44.8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34.9	24.3	40.8	12.0	32.5	55.5	14.3	32.6	53.1
	전문대 졸업	26.1	34.2	39.7	11.8	40.9	47.3	15.0	40.0	45.0
	대학교 졸업	22.3	39.8	37.9	15.4	41.8	42.8	19.3	41.4	39.3
	대학원 졸업	21.0	37.8	41.2	12.9	40.8	46.3	14.5	40.8	44.8
가구 유형	1인가구	25.0	37.5	37.6	14.1	42.1	43.8	16.9	41.6	41.5
	무자녀 부부가구	15.3	45.9	38.9	10.7	46.9	42.4	10.7	46.8	42.5
	유자녀 부부가구	18.0	33.3	48.7	8.1	37.8	54.1	10.1	37.3	52.6
	부모동거 가구	31.5	28.4	40.2	13.9	33.9	52.3	17.7	33.7	48.6
	기타가구	31.2	31.4	37.4	14.0	40.8	45.2	16.5	40.9	42.6
경제 활동 상태	경제 활동	취업	23.3	41.2	35.6	12.1	46.0	42.0	15.0	45.3
		실업	52.9	15.8	31.3	21.0	27.4	51.6	27.8	26.0
	비경제 활동	재학	28.2	15.3	56.5	11.3	20.3	68.5	11.9	21.2
		비재학 미취업	32.8	18.9	48.3	17.1	22.1	60.9	20.4	23.4

- 코로나19로 인해 구직활동 관련 비용부담이 증가한 응답자는 14.2%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해 구직활동 관련 비용부담이 증가한 경우는 여성은 15.5%, 남성은 12.9%로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코로나19로 인해 구직활동 관련 비용부담이 증가한 경우는 25~29세가 18.4%로 가장 높았고, 18~19세가 6.2%로 가장 낮게 나타남
- 학력별로 코로나19로 인해 구직활동 관련 비용부담이 증가한 경우는 대학교 졸업이 16.0%로 가장 높았고, 대학원 졸업이 11.7%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가구유형별로 코로나19로 인해 구직활동 관련 비용부담이 증가한 경우는 기타가구가 17.4%로 가장 높았고, 유자녀 부부가구가 7.9%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별로 코로나19로 인해 구직활동 관련 비용부담이 증가한 경우는 실업자가 28.3%로 가장 높았고, 재학생이 8.2%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2-8-5]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관련 변화(구직활동 관련 비용부담)

[단위: %]

구분			구직활동 관련 비용부담의 증가		
			있다	없다	해당 없음
전체(n=5,194)			14.2	39.7	46.1
성별	남성		12.9	38.0	49.1
	여성		15.5	41.3	43.2
연령	18~19세		6.2	27.7	66.1
	20~24세		13.1	36.3	50.6
	25~29세		18.4	40.7	41.0
	30~35세		12.1	43.9	44.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2.2	34.2	53.7
	전문대 졸업		15.6	38.9	45.5
	대학교 졸업		16.0	44.5	39.5
	대학원 졸업		11.7	44.4	43.9
가구유형	1인가구		15.8	42.8	41.4
	무자녀 부부가구		9.1	48.4	42.5
	유자녀 부부가구		7.9	39.1	53.1
	부모동거 가구		14.0	36.4	49.6
	기타가구		17.4	41.6	41.0
경제활동상태	경제활동	취업	12.4	47.4	40.2
		실업	28.3	27.5	44.2
	비경제활동	재학	8.2	24.4	67.4
		비재학 미취업	18.6	24.1	57.3

2) 교육·훈련 변화

- 코로나19로 인해 교육·훈련이 중단되거나 축소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33.1%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 교육·훈련이 중단되거나 축소된 경험이 있는 경우를 살펴보면 여성은 35.6%, 남성은 30.5%로 여성이 다소 더 높게 나타남
-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훈련이 중단되거나 축소된 경험이 있는 경우가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학력별로 교육·훈련이 중단되거나 축소된 경험이 있는 경우는 대학원 졸업이 38.2%로 가장 높았고, 전문대 졸업이 25.9%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가구유형별로 교육·훈련이 중단되거나 축소된 경험이 있는 경우는 부모동거 가구가 35.3%로 가장 높았고, 유자녀 부부가구가 24.0%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별로 교육·훈련이 중단되거나 축소된 경험이 있는 경우는 재학생이 43.7%로 가장 높았고, 취업자가 30.9%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을 통한 강의나 실습, 시험을 경험한 응답자는 33.1%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을 통한 강의나 실습, 시험을 경험한 경우를 살펴보면 여성은 52.3%, 남성은 42.3%로 여성이 다소 더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을 통한 강의나 실습, 시험을 경험한 경우는 20~24세가 59.9%로 가장 높았고, 30~35세가 37.2%로 가장 낮게 나타남
- 학력별로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을 통한 강의나 실습, 시험을 경험한 경우는 대학원 졸업이 58.5%로 가장 높았고, 전문대 졸업이 33.8%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가구유형별로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을 통한 강의나 실습, 시험을 경험한 경우는 부모동거 가구가 50.3%로 가장 높았고, 유자녀 부부가구가 27.3%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별로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을 통한 강의나 실습, 시험을 경험한 경우는 재학생이 69.9%로 가장 높았고, 취업자가 43.9%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2-8-6]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훈련 관련 변화

[단위: %]

구분		교육·훈련 중단 또는 축소			비대면 온라인 강의, 실습, 시험		
		있음	없음	해당 없음	있음	없음	해당 없음
전체(n=5,194)		33.1	31.1	35.8	47.4	23.4	29.2
성별	남성	30.5	30.7	38.8	42.3	25.0	32.7
	여성	35.6	31.5	32.9	52.3	22.0	25.7
연령	18~19세	40.1	18.4	41.5	59.0	12.0	29.0
	20~24세	38.5	27.6	33.9	59.9	17.0	23.2
	25~29세	32.8	32.8	34.4	45.0	25.5	29.6
	30~35세	27.6	34.7	37.7	37.2	28.9	33.9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36.2	25.9	37.9	52.2	18.8	29.1
	전문대 졸업	25.9	34.6	39.5	33.8	32.0	34.2
	대학교 졸업	31.9	34.9	33.2	45.8	25.9	28.3
	대학원 졸업	38.2	30.4	31.3	58.5	17.3	24.2
가구 유형	1인가구	32.8	33.3	33.9	47.3	25.4	27.3
	무자녀 부부가구	27.9	38.2	34.0	39.5	29.3	31.2
	유자녀 부부가구	24.0	29.5	46.5	27.3	26.5	46.2
	부모동거 가구	35.3	28.5	36.3	50.3	21.0	28.7
	기타가구	29.7	34.8	35.5	47.4	24.4	28.2
경제 활동 상태	경제활동	취업	30.9	36.6	32.5	43.9	28.4
		실업	40.9	22.9	36.2	52.8	19.7
	비경제활동	재학	43.7	18.0	38.3	69.9	7.9
		비재학 미취업	31.2	21.4	47.4	44.3	15.0

3) 주거 변화

- 코로나19로 인해 주거지 이동을 경험한 응답자는 3.8%로 나타남
- 코로나19로 인해 남성의 3.9%, 여성의 3.7%가 주거지 이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연령에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해 주거지 이동을 경험한 경우를 살펴보면 18~19세가 4.3%로 가장 높았고, 30~35세가 3.3%로 가장 낮게 나타남
- 학력별로 코로나19로 인해 주거지 이동을 경험한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4.3%로 가장 높았고, 전문대 졸업이 3.2%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가구유형별로 코로나19로 인해 주거지 이동을 경험한 경우는 1인가구가 4.6%로 가장 높았고, 유자녀 부부가구가 1.7%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별로 코로나19로 인해 주거지 이동을 경험한 경우는 실업자가 5.1%로 가장 높았고, 취업자가 3.6%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코로나19로 인해 주거비나 기타 생활비 등을 연체한 적이 있는 응답자는 5.4%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해 주거비나 기타 생활비 등을 연체한 적이 있는 경우를 살펴보면 여성은 5.8%, 남성은 4.9%로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남
- 연령이 높을수록 코로나19로 인해 주거비나 기타 생활비 등을 연체한 적이 있는 경우가 높게 나타남
- 학력이 낮을수록 코로나19로 인해 주거비나 기타 생활비 등을 연체한 적이 있는 경우가 높게 나타남
- 가구유형별로 주거비나 기타 생활비 등을 연체한 적이 있는 경우는 1인가구가 6.4%로 가장 높았고, 부모동거 가구가 4.7%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별로 주거비나 기타 생활비 등을 연체한 적이 있는 경우는 실업자가 6.6%로 가장 높았고, 재학생이 3.8%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2-8-7] 코로나19로 인한 주거 관련 변화

[단위: %]

구분			주거지 이동			주거비나 기타 생활비 연체		
			있음	없음	해당 없음	있음	없음	해당 없음
전체(n=5,194)			3.8	51.9	44.3	5.4	51.4	43.2
성별	남성		3.9	48.4	47.6	4.9	48.6	46.5
	여성		3.7	55.3	41.1	5.8	54.2	40.0
연령	18~19세		4.3	39.9	55.9	4.5	38.4	57.1
	20~24세		3.8	48.4	47.8	3.6	49.3	47.2
	25~29세		4.2	53.6	42.3	6.0	52.4	41.6
	30~35세		3.3	55.5	41.3	6.4	54.7	38.9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4.3	45.9	49.9	6.3	45.1	48.7
	전문대 졸업		3.2	50.6	46.2	5.8	50.1	44.1
	대학교 졸업		3.5	57.3	39.3	4.7	56.9	38.4
	대학원 졸업		3.9	57.3	38.8	2.9	58.0	39.1
가구 유형	1인가구		4.6	55.3	40.1	6.4	54.6	39.0
	무자녀 부부가구		4.1	59.6	36.3	5.8	58.8	35.4
	유자녀 부부가구		1.7	50.4	47.9	5.9	48.4	45.7
	부모동거 가구		3.5	48.7	47.9	4.7	48.4	47.0
	기타		3.6	53.6	42.8	4.9	53.9	41.2
경제 활동 상태	경제활동	취업	3.6	58.9	37.5	5.3	58.3	36.4
		실업	5.1	42.9	52.0	6.6	42.1	51.3
	비경제활동	재학	4.2	39.8	56.0	3.8	40.0	56.3
		비재학 미취업	3.8	35.6	60.7	6.3	35.1	58.7

4) 일상생활 변화

- 코로나19로 인해 중요한 관계로부터의 단절을 경험한 응답자는 31.3%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해 중요한 관계로부터의 단절을 경험한 경우를 살펴보면 여성은 33.6%, 남성은 29.0%로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남
- 연령과 학력이 높을수록 코로나19로 인해 중요한 관계로부터의 단절을 경험한 경우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가구유형에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해 중요한 관계로부터의 단절을 경험한 경우를 살펴보면 유자녀 부부가구가 37.4%로 가장 높았고, 부모동거 가구가 28.3%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해 중요한 관계로부터의 단절을 경험한 경우를 살펴보면 비재학 미취업자가 32.1%로 가장 높았고, 실업자가 29.1%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코로나19로 인해 일이나 생활에서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경험한 응답자는 64.6%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해 일이나 생활에서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경험한 경우를 살펴보면 여성은 71.4%, 남성은 57.4%로 여성이 다소 더 높게 나타남
- 연령이 높을수록 코로나19로 인해 일이나 생활에서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경험한 경우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학력별에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해 일이나 생활에서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경험한 경우를 살펴보면 대학원 졸업이 69.4%로 가장 높았고, 전문대 졸업이 61.4%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가구유형별에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해 일이나 생활에서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경험한 경우를 살펴보면 1인가구가 67.0%로 가장 높았고, 부모동거 가구가 63.0%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별에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해 일이나 생활에서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경험한 경우를 살펴보면 취업자가 65.8%로 가장 높았고, 비재학 미취업자가 60.5%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2-8-8]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생활 관련 변화

[단위: %]

구분		중요한 관계로부터의 단절			일이나 생활에서의 자유 제한		
		있음	없음	해당 없음	있음	없음	해당 없음
전체(n=5,194)		31.3	39.1	29.6	64.6	17.3	18.1
성별	남성	29.0	37.0	34.1	57.4	19.3	23.4
	여성	33.6	41.2	25.3	71.4	15.5	13.1
연령	18~19세	20.2	36.6	43.1	54.2	15.6	30.1
	20~24세	29.9	38.4	31.7	64.6	15.9	19.5
	25~29세	31.7	39.6	28.7	65.4	17.4	17.2
	30~35세	34.3	39.6	26.1	65.6	18.8	15.7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8.5	36.7	34.8	61.5	16.8	21.7
	전문대 졸업	28.6	40.2	31.3	61.4	19.6	19.0
	대학교 졸업	34.2	41.0	24.8	67.8	17.3	15.0
	대학원 졸업	36.3	38.6	25.1	69.4	15.8	14.8
가구 유형	1인가구	35.0	38.7	26.3	67.0	17.2	15.8
	무자녀 부부가구	34.0	40.1	26.0	64.3	20.2	15.5
	유자녀 부부가구	37.4	37.5	25.1	63.5	18.4	18.2
	부모동거 가구	28.3	39.2	32.5	63.0	17.1	19.9
	기타가구	29.1	40.7	30.3	65.2	15.9	18.8
경제 활동 상태	경제활동	취업	31.6	43.7	24.6	65.8	19.4
		실업	29.1	32.4	38.5	64.8	13.7
	비경제활동	재학	30.0	31.4	38.6	62.8	13.6
		비재학 미취업	32.1	28.4	39.6	60.5	13.2

9_정책경험과 평가

1) 서울시 주요 청년지원정책

- 서울시 주요 청년지원 정책 중 일자리 관련 사업은 서울뉴딜형 일자리, 취업날개서비스,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일자리 카페, 캠퍼스타운 등이 있음
- 서울시 일자리 관련 사업의 인지율을 살펴보면 취업날개 서비스가 30.9%로 가장 높았고, 일자리 카페 25.7%, 서울뉴딜형 일자리 20.1%,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 15.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서울시 일자리 관련 사업의 이용률(여부)을 살펴보면 취업날개 서비스가 11.2%로 가장 높았고, 캠퍼스타운 10.6%, 일자리 카페 9.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서울시 일자리 관련 사업에 대한 향후 이용 의향을 살펴보면 일자리 카페가 37.9%로 가장 높았고, 서울뉴딜형 일자리 35.8%, 취업날개서비스 34.7%,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 32.1%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2-9-1] 일자리 관련 사업

[단위: %]

구분	인지율 (n=5,194)		이용여부 (해당 정책을 '안다'고 응답한 경우)		향후 이용 의향 (n=5,194)	
	안다	모른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서울뉴딜형 일자리	20.1	79.9	8.8	91.2	35.8	64.2
취업날개서비스	30.9	69.1	11.2	88.8	34.7	65.3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	15.3	84.7	5.0	95.0	32.1	67.9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13.3	86.7	7.1	92.9	30.4	69.6
일자리 카페	25.7	74.3	9.4	90.6	37.9	62.1
캠퍼스타운	10.4	89.6	10.6	89.4	22.0	78.0

- 서울시 주요 청년지원 정책 중 주거 관련 사업은 역세권 청년주택, 노장청 쉼어하우스, 청년월세지원, 청년임차보증금 지원 등이 있음
- 서울시 주거 관련 사업에 대한 인지율을 살펴보면 역세권 청년주택이 51.0%로 가장 높았고, 청년월세지원 48.7%, 청년임차보증금 지원 39.7%, 노장청 쉼어하우스 8.6% 순으로 나타남
- 서울시 주거 관련 사업에 대한 이용률(여부)을 살펴보면 청년임차보증금 지원이 6.6%로 가장 높았고, 노장청 쉼어하우스 5.9%, 청년월세지원 5.8%, 역세권 청년주택 4.0% 순으로 나타남
- 서울시 주거 관련 사업에 대한 향후 이용 의향을 살펴보면 역세권 청년주택이 59.1%로 가장 높았고, 청년임차보증금지원 55.5%, 청년월세지원 53.4%, 노장청 쉼어하우스 18.8% 순으로 나타남

[표 2-9-2] 주거 관련 사업

[단위: %]

구분	인지율 (n=5,194)		이용여부 (해당 정책을 '안다'고 응답한 경우)		향후 이용의향 (n=5,194)	
	안다	모른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역세권 청년주택	51.0	49.0	4.0	96.0	59.1	41.0
노장청 쉼어하우스	8.6	91.4	5.9	94.1	18.8	81.2
청년월세지원	48.5	51.5	5.8	94.2	53.4	46.6
청년임차보증금 지원	39.7	60.3	6.6	93.4	55.5	44.5

- 서울시 주요 청년지원 정책 중 복지 사업은 청년수당, 학자금 대출지자 지원, 서울시 청년 '마음잇다' 등이 있음

- 서울시 복지 관련 사업에 대한 인지율을 살펴보면 청년수당이 56.8%로 가장 높았고,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45.4%, 서울시 청년 ‘마음잇다’는 11.4%로 나타남
- 서울시 복지 관련 사업에 대한 이용률(여부)을 살펴보면 청년수당이 11.7%로 가장 높았고, 서울시 청년 ‘마음잇다’는 10.7%,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9.7%로 나타남
- 서울시 복지 관련 사업에 대한 향후 이용 의향은 청년수당이 54.9%로 가장 높았고, 서울시 청년 ‘마음잇다’는 37.9%,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26.6%로 나타남

[표 2-9-3] 복지 사업

[단위: %]

구분	인지율 (n=5,194)		이용여부 (해당 정책을 ‘안다’고 응답한 경우)		향후 이용의향 (n=5,194)	
	안다	모른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청년수당	56.8	43.2	11.7	88.3	54.9	45.1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45.4	54.7	9.7	90.3	26.6	73.4
서울시 청년 ‘마음잇다’	11.4	88.6	10.7	89.3	37.9	62.1

- 서울시 주요 청년지원 정책 중 참여·공간 사업은 서울청년센터와 청년자율예산 등이 있음
- 서울시 참여·공간 사업에 대한 인지율은 서울청년센터는 15.9%, 청년자율예산은 6.7%로 나타남
- 서울시 참여·공간 사업에 대한 이용률(여부)은 청년자율예산은 11.2%, 서울청년센터는 8.3%로 나타남
- 서울시 참여·공간 사업에 대한 향후 이용의향은 청년자율예산은 26.6%, 서울청년센터는 25.2%로 나타남

[표 2-9-4] 참여·공간 사업

[단위: %]

구분	인지여부 (n=5,194)		이용여부 (해당 정책을 ‘안다’고 응답한 경우)		향후 이용의향 (n=5,194)	
	안다	모른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서울청년센터	15.9	84.1	8.3	91.7	25.2	74.8
청년자율예산	6.7	93.3	11.2	88.9	26.6	73.4

2) 중앙정부 주요 청년지원정책

- 중앙정부의 주요 청년지원정책은 정부일자리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주택 공급

정책, 청년 주택자금대출 지원 정책, 청년 주거비용 지원 정책, 청년 자산형성지원 정책 등이 있음

- 중앙정부의 주요 청년지원정책에 대한 인지율은 청년주택 공급정책이 61.7%로 가장 높았고, 청년 주택자금대출 지원 정책 51.1%, 국민취업지원제도 45.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중앙정부의 주요 청년지원정책에 대한 이용률(여부)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19.1%로 가장 높았고, 청년 자산형성지원 정책 18.8%, 청년 주택자금대출 지원정책 12.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중앙정부의 주요 청년지원정책에 대한 향후 이용 의향은 청년주택 공급정책이 64.6%로 가장 높았고, 청년 주택자금대출 지원 정책 61.6%, 청년 자산형성지원 정책 58.7%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2-9-5] 중앙정부 주요 사업

[단위: %]

구분	인지여부 (n=5,194)		이용여부 (해당 정책을 '안다'고 응답한 경우)		향후 이용의향 (n=5,194)	
	안다	모른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정부일자리사업	30.7	69.3	9.1	90.9	43.3	56.7
국민취업지원제도	45.9	54.1	19.1	80.9	51.3	48.7
청년주택 공급정책	61.7	38.3	6.7	93.3	64.6	35.4
청년 주택자금대출 지원 정책	51.1	48.9	12.9	87.1	61.6	38.4
청년 주거비용 지원 정책	33.7	66.3	5.1	94.9	55.5	44.5
청년 자산형성지원 정책	40.6	59.5	18.8	81.2	58.7	41.3

3) 청년세대를 위해 강화해야할 사업 분야

- 응답자가 생각하는 청년세대를 위해 강화해야할 사업분야 1순위는 고용(취·창업)지원이 25.8%로 가장 높았고, 소득지원 22.6%, 주거지원 12.8%, 자산형성 지원 12.7%, 공공일자리 제공 8.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가 생각하는 청년세대를 위해 강화해야할 사업분야 2순위는 고용 지원이 19.4%로 가장 높았고, 자산형성 지원 15.3%, 주거지원 14.7%, 소득지원 9.1%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2-9-6] 청년세대를 위해 강화해야 할 사업 분야

[단위: %]

구분	1순위 (n=5,194)	2순위 (n=5,192) ¹⁾
소득지원(현금, 물품지원)	22.6	9.1
자산 형성 지원	12.7	15.3
공공일자리 제공	8.1	7.7
고용(취·창업)지원	25.8	19.4
건강관리(신체, 정신)지원	3.0	6.2
심리상담, 생활 고민상담 등 상담 제공	2.6	5.3
여가, 문화 시설로서 청년공간 제공	2.1	4.2
또래모임 지원	0.7	1.3
시민교육	0.9	1.4
취업컨설팅 등 진로설계 지원	3.4	6.7
부채경감 지원	2.6	4.9
참여 보장 및 권리 강화	2.0	3.5
주거지원	12.8	14.7
기타	0.7	0.3

주: 1) 2순위 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함

- 청년세대를 위해 강화해야 할 사업분야 1순위를 성별과 연령에 따라 살펴봄
- 남성은 소득지원(24.7%)과 고용(취·창업)지원(24.5%) 분야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으며 여성도 마찬가지로 소득지원(20.7%)과 고용(취·창업)지원(27.1%) 분야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으나 소득지원 정책보다 고용지원 정책을 약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대부분 연령에서 고용(취·창업)지원을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지원에 대한 선호는 줄어드는 반면 주거지원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남

[표 2-9-7] 청년세대를 위해 강화해야할 사업 분야(1순위)

[단위: %]

구분	전체 (n=5,194)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8~19 세	20~24 세	25~29 세	30~35 세
소득지원(현금, 물품지원)	22.6	24.7	20.7	27.2	24.1	23.2	19.8
자산 형성 지원	12.7	13.7	11.8	8.6	11.4	14.3	13.0
공공일자리 제공	8.1	6.9	9.2	10.6	9.6	7.6	7.0
고용(취·창업)지원	25.8	24.5	27.1	26.8	27.1	25.1	25.4
건강관리(신체, 정신)지원	3.0	2.5	3.6	3.9	2.9	3.1	2.9
심리상담, 생활 고민상담 등 상담 제공	2.6	2.0	3.2	3.6	2.2	2.4	3.1
여가, 문화 시설로서 청년공간 제공	2.1	2.2	2.0	2.3	2.2	1.8	2.1
도래모임 지원	0.7	0.9	0.5	1.0	1.3	0.4	0.5
시민교육	0.9	0.9	0.9	1.0	1.1	1.1	0.5
취업컨설팅 등 진로설계 지원	3.4	3.6	3.2	3.3	4.1	2.6	3.8
부채경감 지원	2.6	1.9	3.2	0.6	1.5	2.9	3.5
참여 보장 및 권리 강화	2.0	2.7	1.3	2.6	2.4	1.9	1.6
주거지원	12.8	12.9	12.8	8.2	9.9	13.2	15.9
기타	0.7	0.7	0.6	0.5	0.4	0.6	1.0

- 청년세대를 위해 강화해야할 사업분야 2순위를 성별과 연령에 따라 살펴봄
- 남성(18.5%)과 여성(20.2%) 모두 고용(취·창업)지원 분야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남성은 여성보다 자산 형성 지원 정책을 약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1순위와 마찬가지로 모든 연령에서 고용(취·창업)지원을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지원에 대한 선호는 줄어들고, 자산 형성 지원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남

[표 2-9-8] 청년세대를 위해 강화해야할 사업 분야(2순위)

[단위: %]

구분	전체 (n=5,192) ¹⁾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8~19세	20~24세	25~29세	30~35세
소득지원(현금, 물품지원)	9.1	9.6	8.6	11.3	9.5	9.5	8.0
자산 형성 지원	15.3	16.7	14.0	12.3	13.7	15.5	17.1
공공일자리 제공	7.7	7.9	7.4	8.9	9.1	7.0	7.0
고용(취·창업)지원	19.4	18.5	20.2	22.6	20.1	19.2	18.5
건강관리(신체, 정신)지원	6.2	4.9	7.5	6.1	6.7	5.9	6.2
심리상담, 생활 고민상담 등 상담 제공	5.3	3.5	7.0	4.3	5.4	4.6	6.2
여가, 문화 시설로서 청년공간 제공	4.2	4.6	3.8	4.7	4.8	4.2	3.6
도래모임 지원	1.3	1.9	0.7	1.9	1.2	1.5	1.0
시민교육	1.4	1.7	1.1	0.7	2.2	1.2	1.1
취업컨설팅 등 진로설계 지원	6.7	7.1	6.4	5.1	7.5	6.1	7.1
부채경감 지원	4.9	4.8	5.1	2.0	2.6	6.3	5.9
참여 보장 및 권리 강화	3.5	3.8	3.3	5.4	3.8	2.9	3.7
주거지원	14.7	14.6	14.7	14.2	13.5	16.0	14.2
기타	0.3	0.5	0.1	0.6	0.0	0.3	0.6

주: 1) 2순위 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함

03

심층분석

- 1_서울시 청년집단의 이질성 연구:
부모동거가구와 비동거가구 청년 간 비교를 중심으로
- 2_청년의 일자리 이행
- 3_미취업 청년들이 겪는 부채부담에 관한 연구
- 4_청년세대의 재테크 실천에서 나타나는 불평등

03. 심층분석

1_서울시 청년집단의 이질성 연구: 부모동거가구와 비동거가구 청년 간 비교를 중심으로

1) 연구 개요

(1) 연구배경과 목적

청년문제가 가시화되고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가나 지자체 단위의 청년지원사업이 과도하리만큼 급증하고 있으나, 실제 청년들의 사업 체감도는 높지 않은 실정이다. 저성장시대에 코로나 19 상황이 겹치며 특히 청년실업 문제가 두드러졌고, 청년정책은 교육훈련이나 일자리정책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단기일자리나 공공에서 지원하는 취업지원 정책은 정책 수요자인 청년들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실효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정책 수요자인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이라기보다는 정책 공급자의 판단에 의한 사업이 많기 때문에 정책의 미스매치가 나타나는 것이다.

청년은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기를 경험한다는 특성 자체로 인해 내부 이질성이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 청년의 연령 범주는 19세에서 34세로 정의되고 있어 같은 청년층에 묶일지라도 각자 다른 생애주기에 놓일 수 있다.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여 청년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취업난이나 주거난 등 청년에게 발생하는 사회구조적 위기가 더해지면서 내부 격차가 더욱 심화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별로 차이를 보일 수 있는데, 특히 서울 청년들은 타지역 청년에 비해 내부 다양성이 더 크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이들의 상황을 진단할 필요가 있다.

서울 지역 청년들은 다른 지역의 청년들에 비해 더 풍요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지만, 비싼 생활물가를 감당해야 하기도 한다. 특히 높은 주거비용은 청년들의 경제적 가용성을 떨어뜨리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 서울태생 자체가 하나의 스펙으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원가족과의 동거 여부는 서울에서 생활하는 청년의 생활수준을 가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게다가 청년은 이행기라는 특성상 청년정책 선별기준이나 자격기준에 원가족의 경제적 수준이나 부모 동거 여부 등이 중요한 조건으로 포함되곤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에 대한 합리성은 검토된 적이 없으며, 청년들을 개별적 주체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에 본 장에서는 청

년집단을 크게 부모동거가구와 비동거가구로 구분하여 각 집단이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지 확인하고, 각 집단별로 가장 불안정한 집단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서울 내에서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과 비동거 청년의 상황은 매우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부모동거가구가 더 안정적인 것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경제적 안정성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동거 청년은 학업이나 취업으로 서울로 이주하면서 독립한 경우도 있겠으나, 경제적 안정성이 확보되어 독립했을 수도 있다. 즉, 동거가구와 비동거가구 내부 격차도 관측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층 내부 이질성을 파악하고 불안정 속성을 확인한 후에는 불안정 유형별로 서울시 청년정책이 용 경험을 파악하고자 한다. 청년이 얼마나 서울시 청년 정책에 포괄되는지, 어떤 속성을 가진 청년이 주로 정책의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최근 청년의 사회경제적 취약성은 조명되었지만, 모든 청년이 같은 상황에 처한 것은 아니다. 정책 효율성과 효과성을 위해서도 객관적으로 청년의 상황을 진단할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이나 사업의 수요자인 청년의 상황을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해본다.

(2) 분석방법 및 분석내용

이 연구의 분석대상은 2021년 서울청년패널조사 응답자로 만 18~35세 청년이다. 모든 분석에는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서울시 청년층의 내부 편차를 확인하기 위해 분석방법은 교차분석과 집합이론을 토대로 한 통합적 접근법을 활용하였다. 먼저 부모동거가구와 비동거가구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청년기의 이질성을 반영하고자 부모동거가구와 비동거가구 각각 연령집단을 한 번 더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부모동거 여부와 연령을 기준으로 나눈 후 어느 집단이 가장 불안정한지 확인하기 위해 이들의 불안정 속성을 통합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불안정 속성은 청년이 보편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고용, 소득, 부채 측면의 불안정성으로 구분하고자 한다(박나라·김교성, 2021). 불안정 속성의 구성은 아래 [표 3-1-1]과 같이 구성하였다. 먼저 고용불안정은 고용상태에 따라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임금근로자 중에는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가 불안정 고용에 해당하고, 비임금근로자 중에는 특수형태근로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가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실업자나 비재학 미취업자인 경우도 불안정 고용에 포함하였다. 소득불안정은 ILO의 저임금 기준을 활용하여 '전체 노동자 중위소득의 2/3 미만'으로 정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부채불안정은 부채가 있는 경우 불안정한 것으로 보았다. 부채불안정과 관련해서 부채의 이중성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 부채 여부는 신용 상태를 반영하는 지표로 볼 수 있으며, 고용이 안정적이거나 소득이 안정적인수록 채무를 지거나,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년기의 부채는 주로 주거비나 생활비, 학자금을 목적으로 발생하며, 이러한 명목의 부채는 신용 여부와 관계없이 마이너스 출발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불안정한 것으로 보았다.

각각은 불안정 속성이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으로 볼 수 있다(이승윤·백승호·김미경·김윤영, 2017). 각 청년 개인은 각각의 불안정 하위집합에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각 불안정 집합에 속한 경우 대문자를 활용하여, 고용 불안정 집합은 E, 소득 불안정 집합은

I, 부채 불안정 집합은 D로 정의한다. 안정인 경우는 소문자로 표기하며, 이때 불안정의 상태는 ① 매우 불안정(EID), ② 고용-소득 불안정(EId), ③ 고용-부채 불안정(EiD), ④ 소득-부채 불안정(eID), ⑤ 고용 불안정(Eid), ⑥ 소득 불안정(eId), ⑦ 부채 불안정(eiD), ⑧ 안정(eid)으로 총 여덟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각 청년 집단의 불안정성을 총체적으로 확인해보고자 한다.

[표 3-1-1] 불안정 속성의 구성

	구성요인	측정
불안정	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근로자: 임시·일용근로자, 이외 불안정근로자 - 비임금근로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특수형태근로자 - 실업, 비재학 미취업
	소득	- 월 임금이 전체 임금근로자 중위임금의 2/3 미만인 경우
	부채	- 부채가 1원 이상 있는 경우

2) 서울시 청년에 대한 이해

(1) 청년기의 특성

청년기는 보호를 받던 미성년에서 독립적 주체인 성인으로 이행하는 과정을 경험하는 시기이다. 학령기를 벗어나 노동시장으로 이행하고, 원가족으로부터 경제적 혹은 주거를 독립하여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게 된다. 그러나 모두가 동일한 경로나 속도를 갖는 것은 아니며, 최근의 거시경제적 변화는 청년의 이행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후기산업사회로 진입과 중첩된 경제위기 및 기술발전은 노동시장을 양극화시켰다. 노동생산성이 낮은 서비스 부문의 증가는 저임금 일자리를 양산하였고, 한편에서는 고임금의 고숙련·전문직 일자리가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높은 로봇 밀도를 가지고 있어 일자리가 빠르게 대체되고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다양한 형태의 노동계약 관계가 등장하고 비정형 노동(atypical work)이 증가하면서 일자리의 질적 측면은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화는 청년들의 삶의 경로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우리나라 청년들은 세계적으로 높은 학력수준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긍정적 노동시장 이행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OECD 교육지표 2021'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25~34세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OECD 국가 중 1위인 70.0%로 나타났으며, OECD 국가 평균(45.0%)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았다(OECD, 2021: 49). 그러나 고등교육 졸업자의 고용률은 77.0%로 OECD 평균인 84.0%보다 낮았다(OECD, 2021: 77). 전체 청년의 고용상황도 좋지 않다. 20대의 고용률은 2021년 57.4%로 전체 고용률인 60.5%보다 낮게 나타난다. 취업에 성공해도 마냥 좋지만은 않다. 20~29세 청년 비정규직 비율은 2013년 31.1%에서 2020년 37.8%로 증가 추세에 있다(보건복지부, 2021: 114). 임금수준의 현황도 좋지 않은데, 2021년 5월 발표된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첫 일자리에 취업하여 받은 임금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73.3%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노동시장 이행 어려움은 경제적 독립과 주거 독립을 어렵게 만들고, 사회참여도 제한하는 등 삶의 전반에 걸친 어려움으로 이어진다(김기현·이윤주·윤설희, 2017). 독립이 지연되고 있다.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동거하며 경제적 의존 하는 갱거루족 자녀가 증가하고 있다. 청년실업의 증가, 학자금 문제, 높은 주거비용 등으로 부모와 동거를 선택하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다. 성인 자녀의 독립 지연은 부모의 안정적 노후 대비를 어렵게 하는 등 연쇄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청년 세대의 부채 문제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중되는 취업난과 그로 인한 학자금 대출의 연체 문제부터 고금리 대출과 불법 금융 피해 노출까지 다양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박수민, 2022). 한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채는 신용상태에 따라 접근가능성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이중성을 갖는다. 고용이나 소득이 안정적인 청년이 채무를 지거나, 채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주로 주거비나 생활비 명목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거나 학자금 등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부채를 가진 경우가 다수이고, 이러한 명목의 부채는 발생하지 않아야 할 부채가 발생하여 마이너스 출발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불안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서울시 청년의 특성

서울은 다양한 기회가 집중된 곳으로 다수 청년이 선택하는 지역이다.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만18~34세 청년은 전체 청년 중 21.5%에 달한다. 경기(25.7%)를 제외한 다른 광역시와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이라 할 수 있다. 부산은 6.4%, 대구는 4.7%, 인천 5.8%, 광주 3.1%, 대전 3.3%, 울산 2.2% 수준이다. 서울은 거주하고 있는 청년 비율이 높으며, 청년 인구 유입이 많은 지역이므로 서울에서 태어난 청년과 이주한 청년 간에 편차가 높을 수 있음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서울의 청년은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 동거는 하지 않으나 원가족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청년, 완전 독립한 청년으로 혼재되어 있다는 특성을 갖는다. 19~34세라는 넓은 연령범주와 이행기라는 생애주기까지 고려하면, 부모동거 가구부터 1인 독립가구, 청년부부가구 등 다양한 형태로 세분화될 수 있다. 서울 청년들은 부모와 동거하는 비중이 69.0%로 전국 청년(63.9%)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김기현·배정희 2021). 코로나19나 고용상황 악화로 청년층 이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높은 주거비 문제가 중첩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서울 청년이 사회·경제적 어려움 상황에서 부모동거를 선택할 수는 없다. 부모가 서울에 함께 살 수 있는 경우에만 원가족과 동거라는 선택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저마다의 이유로 서울로 유입된 청년들은 높은 주거비를 감당해야 한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전국 전체가구의 주거빈곤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과 반대로 서울 청년 1인가구는 주거빈곤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권순필·최은영, 2018: 45). 최저주거기준 미달 청년가구 규모를 살펴보았을 때, 서울은 17.4%로 전국 11.3%보다 높게 나타난다. 1인 청년가구로 한정하는 경우 20.2%로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드러난다. 이러한 특성은 2020년 서울시 복지

실태조사에도 동일한데, 가구 전체를 기준으로한 서울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4.5%인데 반해, 청년 1인가구는 8.9%로 나타났다(김승연 외, 2021: 77).

서울 청년 다차원적 빈곤실태를 진단한 변금선·이혜림(2021)에 따르면, 서울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 위험은 다른 연령이나 전국 단위의 수치 비교할 때 더 높게 나타난다. 2009년과 2019년을 비교했을 때 소득빈곤은 오히려 감소하며, 다른 집단에 비해서도 높지 않았으나, 순자산과 부채를 고려할 경우 다른 연령대를 크게 상회한다. 서울 청년의 순자산 빈곤율은 2010년 45.5%에서 2019년 57.6%로 12.1%p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국 단위의 증가율인 6.5%p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이다(변금선·이혜림, 2021: 92). 7개 영역의 빈곤율을 분석했을 때, 전국과 서울 모두 다른 연령집단의 중복빈곤율은 낮아졌는데, 서울 청년은 2010년 19.5%에서 2019년 21.1%로 1.6%p 높아졌다. 이를 토대로 변금선·이혜림(2021: 93)은 교육과 취업을 위한 인프라는 물론 다양한 기회가 집중된 서울 청년이 오히려 더 빈곤할 가능성이 큰 '빈곤의 역설'이 나타난다고 보고한다.

(3) 부모동거 여부에 따른 이질성과 불안정 경험

이행기 청년에게 독립은 필연적 과정이다. 최근 청년층에게 사회적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원가족으로부터 독립 시기가 늦춰지고 있다. 인구주택총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30대 청년(30~34세) 중 부모와 동거하는 가구의 비중은 57.4%에 달하며, 해당 연령대의 1인가구 비중인 25.8%보다 31.6%p 높게 나타난다(박시내, 2021: 35). 20대는 그 차이가 더 확연하게 나타나는데, 20대 초반(20~24세)은 부모동거 가구 비중이 72.0%, 1인가구 비중이 11.1%이고, 20대 후반(25~29세)은 부모동거 가구와 1인 가구 비중이 각각 64.8%와 17.8%이다. 부모에게서 경제적 혹은 정서적 독립을 하지 못한 켄거루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청년 개인에게는 다음 생애주기로의 이행이 지연 혹은 막혔다는 것을 의미하고, 부모 세대는 부담이 되곤 한다. 자녀의 늦은 독립은 부모에게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최근 1인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이러한 추세에 맞춰 청년 1인가구도 급증하면서 이들의 취약성을 밝혀내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지원도 늘어나는 상황이다. 특히 서울은 교육과 일자리가 집중되어 있어 청년 1인가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증가하고 있다. 2016년 서울시는 최초로 1인가구를 위한 기본조례⁶⁾를 제정하고, 2019년에는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1인가구에만 집중하는 경우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지만, 다른 형태의 가구인 청년 다인가구 등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할 수도 있다. 청년층이 경제적으로 혼자 독립이 어려운 경우 주거비 절약을 위해 다인가구 옵션을 선택하기도 할 것이다. 세밀한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에게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부모동거 여부를 중심으로 가구를 구분하고, 연령을 세분하는 방법을 선택하고자 한다. 비동거 가구는 가구형태를 추가로 고려하여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서울 청년은 부모동거 여부에 따라 빈곤 위험영역과 중복빈곤 위험이 다르게 드러났다. 서울태생

6)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의 부모동거 청년은 노동, 교육·역량 빈곤이 컸고, 청년 1인가구는 주거와 사회적 자본 빈곤 위험이 컸다(변금선·이혜림, 2021: 102). 경제적 자립 준비가 된 경우 1인가구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은 기회의 도시로 부모와 사는 지역을 달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자발적 1인가구 혹은 다인가구도 많을 것이다. 1인가구 혹은 다인가구 집단 내에 내부 편차가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생애주기나 연령을 추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서울시 청년집단의 이질성을 크게 부모동거 여부로 구분하는 이유는 첫째, 서울의 경우 특히 주거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부모 동거/비동거 여부 자체가 주거나 경제적 안정성과 상당히 높은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물론 원가구 상황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집단 내의 이질성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둘째, 기존에 조명되지 못한 청년집단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전술하였듯 최근 1인가구의 증가로 이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1인가구를 따로 범주화하는 경우 더 취약할 수 있는 청년 다인가구를 발굴하지 못할 수 있다. 포괄적이지 못한 범주의 문제를 방지하고자 크게 부모동거 여부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비동거 가구의 경우 구체적인 가구형태를 한 번 더 세분하고자 한다.

3) 서울시 청년 집단의 이질성 분석

(1) 일반적 특성

부모동거 여부로 구분한 청년층의 일반적 특성은 [표 3-1-2]와 같다. 서울시 청년 중 부모동거 가구는 49.9%, 비동거가구는 50.1%로 거의 비슷한 비중을 보인다. 성별로 살펴보면, 부모동거 가구의 경우 남성(50.2%)이 여성(49.8%)에 비해 근소한 차이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반대로 비동거 가구는 여성의 비율(52.5%)이 남성(47.5%)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부모동거 가구에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50.7%, 비동거 가구에 대학교 졸업이 52.7%로 각각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모동거 가구 비율이 감소하고, 비동거 가구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청년과 비교했을 때 30대 집단의 차이가 두드러지는데, 부모동거 가구에서 30대 비율이 19.0%인 한편, 비동거 가구에서는 44.0%로 나타났다. 가구유형은 비동거 가구의 구성비를 확인하기 위해 포함하였다. 비동거 가구는 1인가구가 65.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부부가구가 21.8%, 기타가구가 12.6%이다. 부모의 경제적 지원은 부모동거 가구에서는 경제적 지원있음이 54.1%, 없음이 45.9%로 나타났으며, 비동거 가구에서는 경제적 지원 없음이 67.4%로 있음(32.6%)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서울 거주 이력을 살펴보면, 부모동거 가구는 서울 태생인 경우가 다수(82.3%)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비동거 가구는 서울로 이주한 경우(62.1%)가 더 높게 나타났다. 주거점유형태별로는 부모동거 가구인 경우 자가 53.2%로 가장 높았고, 전세나 월세/기타는 21.9%, 24.9% 수준이었으나, 비동거가구는 반대로 자가 비율이 11.0%로 낮고, 전세와 월세/기타가 41.0%, 48.0%이다. 경제활동 상태별로는 두 집단 모두에서 취업인 경우가 가장 높았으며(59.6%; 71.7%), 나머지 상태의 경우 모두 부모동거 가구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 3-1-2] 부모동거-비동거 가구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

구분		부모동거가구	비동거가구	전체	
전체		49.9	50.1	100.0	
성별	남성	50.2	47.5	48.9	
	여성	49.8	52.5	51.1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50.7	27.7	39.2	
	전문대 졸업	13.2	12.6	12.9	
	대학교 졸업	32.8	52.7	42.8	
	대학원졸업	3.3	6.9	5.1	
연령	18~19세	10.6	1.4	6.0	
	20~24세	37.2	17.3	27.2	
	25~29세	33.2	37.3	35.3	
	30~35세	19.0	44.0	31.5	
가구유형	부모동거가구	100.0	-	49.9	
	1인가구	-	65.6	32.8	
	무자녀 부부가구	-	12.5	6.3	
	유자녀 부부가구	-	9.3	4.7	
	기타가구	-	12.6	6.3	
부모의 경제적 지원	경제적 지원있음	54.1	32.6	43.3	
	경제적 지원없음	45.9	67.4	56.7	
서울 거주 이력	서울 태생	82.3	37.9	60.1	
	서울로 이주	17.7	62.1	39.9	
주거 점유 형태	자가	53.2	11.0	32.1	
	전세	21.9	41.0	31.5	
	월세/기타	24.9	48.0	36.5	
경제활동 상태	경제활동	취업	59.6	71.7	65.7
		실업	9.4	6.8	8.1
	비경제활동	재학생	14.7	6.5	10.6
		비재학 미취업	16.3	15.0	15.6

다음 [표 3-1-3]은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불안정 속성의 정도를 나타낸다. 청년들 중 고용 불안정을 경험하는 비율은 43.3%이고 소득 불안정은 37.7%, 부채 불안정은 46.1%로 나타난다. 성별로는 불안정성의 차이가 미미하게 관측되었으며, 학력별로는 큰 차이가 나타났다. 학력이 낮을수록 불안정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경우 고용, 소득 불안정이 각각 52.9%, 60.6%로 전체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부채 불안정은 34.8%로 전체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대학원 졸업의 경우 부채 불안정이 57.1%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길어진 학업 기간의 결과일 수

도 있고, 졸업 이후 주거비 마련을 위한 지출일 것으로 예상된다. 연령별로는 10대 청년은 고용과 소득 불안정이 48.2%, 84.5%로 매우 높게 나타나며, 20대 초반의 청년도 각각 53.5%, 66.5%로 높은 수준이다. 20대 후반과 30대 청년은 고용 불안정과 소득 불안정은 낮아지는 한편, 부채 불안정이 높아져 각각 50.1%, 63.1%로 나타난다.

가구유형별로는 부모 동거가구는 소득 불안정이 50.1%로 전체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났으며, 고용불안정은 47.1%로 다소 높고, 부채불안정은 31.8%로 낮은 편이다. 1인가구의 부채 불안정은 55.1%로 전체에 비해 높지만, 고용과 소득 불안정은 각각 39.2%, 27.0%로 전체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취업자 비율 관련하여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플러스 2021년 봄호’에서도 부모 동거여부별로 비슷한 추이가 나타나는데, 부모와 함께 사는 미혼인구는 57.9%, 1인가구는 74.6%로 집계되고 있다(박시내, 2021: 36). 1인가구의 불안정성은 더 세부적으로 확인하여 내부 격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학업이나 취업을 위해 비자발적으로 형성된 경우가 있을 것이고, 고용과 소득이 안정되어 독립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분석에서 연령을 추가 기준으로 삼은 이유이다. 부부가구의 경우도 고용과 소득 불안정은 낮지만 부채불안정이 무자녀의 경우 79.4%, 유자녀의 경우 81.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기타가구는 1인가구와 비교해볼 수 있는데, 기타가구가 1인가구 보다 고용과 소득불안정 수준이 다소 높게 나타났고, 부채불안정은 비슷하게 확인되었다. 청년 1인가구 지원도 중요하지만 기타가구의 취약성도 조명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부모의 경제적 지원 여부별로는 경제적 지원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고용과 소득 불안정은 높게, 부채 불안정은 낮게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경제적 지원이 ‘있는’ 경우 고용, 소득, 부채불안정은 53.4%, 59.9%, 34.0%로 고용과 소득 불안정은 전체보다도 높고, 부채 불안정은 전체보다 낮다. 경제적 지원이 ‘없는’ 청년은 고용과 소득, 부채 불안정이 35.5%, 20.7%, 55.3%로 나타나 고용과 소득 불안정은 전체보다 낮고, 부채 불안정은 높음이 관측되었다. 서울 거주 이력별로 살펴보면, ‘서울 태생’은 전체와 불안정 정도가 비슷하게 관측되었으며, 서울로 이주한 경우는, 소득 불안정(33.6%)이 낮고, 부채 불안정(53.0%)은 높게 나타난다.

주거 점유 형태별로는 각 불안정 정도의 차이가 두드러지는데, 특히 부채 불안정의 경우 자가와 월세는 34.8%, 43.0%로 낮은 수준이고, 전세는 61.2%에 달했다. 반대로 고용 불안정과 소득 불안정은 전세의 경우가 가장 낮았고(37.2%, 27.6%), ‘자가’와 ‘월세’의 경우는 고용불안정은 45.7%, 46.4%로 비슷했으나, 소득 불안정은 ‘자가’가 46.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경제활동상태별로 살펴보면, 취업 청년은 고용 불안정(29.7%)과 소득 불안정(23.3%)은 다소 낮은 수준이나, 부채 불안정은 51.7%로 두드러지고 있다. 취업한 경우는 주거비 등으로 인한 다른 형태의 불안정이 도사리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실업’의 경우는 소득 불안정이 51.8%, 부채 불안정이 42.0%로 나타나, 소득은 전체보다 불안정하지만 부채는 전체보다 다소 덜 불안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학생은 소득 불안정이 84.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부채 불안정은 22.8%로 전체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비재학 미취업자’는 소득 불안정이 59.4%로 높게 나타나며, 부채 불안정은 40.3%로 전체보다 다소 낮은 편이다.

[표 3-1-3]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불안정 속성

[단위: %]

구분			고용불안정	소득불안정	부채불안정
전체			43.3	37.7	46.1
성별	남성		43.1	38.1	46.0
	여성		43.4	37.3	46.2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52.9	60.6	34.8
	전문대 졸업		44.7	24.8	47.7
	대학교 졸업		35.5	22.6	54.7
	대학원졸업		31.0	21.4	57.1
연령	18~19세		48.2	84.5	16.3
	20~24세		53.5	66.5	27.7
	25~29세		43.0	28.7	50.1
	30~35세		33.8	13.9	63.1
가구유형	부모동거가구		47.1	50.1	31.8
	1인가구		39.2	27.0	55.1
	무자녀 부부가구		30.0	9.0	79.4
	유자녀 부부가구		45.4	26.0	81.3
	기타가구		46.2	32.3	53.0
부모의 경제적 지원	경제적 지원있음		53.4	59.9	34.0
	경제적 지원없음		35.5	20.7	55.3
서울 거주 이력	서울 태생		44.5	40.4	41.5
	서울로 이주		41.4	33.6	53.0
주거 점유 형태	자가		45.7	46.3	34.8
	전세		37.2	27.6	61.2
	월세/기타		46.4	38.9	43.0
경제활동 상태	경제활동	취업	29.7	23.3	51.7
		실업	100.0	51.8	42.0
	비경제활동	재학생	0.0	84.1	22.8
		비재학 미취업	100.0	59.4	40.3

(2) 집단별 이질성 분석

부모동거 가구와 비동거 가구의 이질성을 확인하기 위해 부모동거 여부별로 연령 기준을 한 번 더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표 3-1-4]의 부모동거가구를 살펴보면, 10대는 10.6%, 20~24세는 37.2%, 25~29세는 33.2%, 30~35세는 19.0%를 차지한다. 연령 집단별 성비는 전체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니나, 10대는 남성이 다소 많고, 20대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30대는 다시 남성이 52.6%로 여성(47.4%)보다 높게 나타난다. 연령별 학력 수준을 살펴보면, 10대는 모두 고등학교 졸업 이하로 나타났고, 20~24세도 77.2%가 고등학교 졸업 이하, 전문대 졸업은 11.1%, 대학교 졸업은 11.5%를 차지한다. 25~29세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25.2%로 앞선 두 연령 범주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전문대 졸업은 18.0%로 다소 높으며, 대학교 졸업은 53.3%로 가장 높고, 대학원 졸업은 3.5%로 나타난다. 30~35세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15.8%로 모든 연령 범주에서 가장 낮으며, 전문대 졸업은 16.3%, 대학교 졸업은 56.9%, 대학원 졸업은 11.0%이다.

[표 3-1-4] 부모동거가구-연령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

구분			부모동거 가구				
			전체	18~19세	20~24세	25~29세	30~35세
전체			49.9	10.6	37.2	33.2	19.0
성별	남성		50.2	55.0	48.0	49.8	52.6
	여성		49.8	45.0	52.0	50.2	47.4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50.7	100.0	77.2	25.2	15.8
	전문대 졸업		13.2	0.0	11.1	18.0	16.3
	대학교 졸업		32.8	0.0	11.5	53.3	56.9
	대학원 졸업		3.3	0.0	0.2	3.5	11.0
부모의 경제적 지원	경제적 지원있음		54.1	74.2	71.3	45.0	25.1
	경제적 지원없음		45.9	25.8	28.7	55.0	74.9
서울 거주 이력	서울 태생		82.3	83.4	82.2	81.7	82.9
	서울로 이주		17.7	16.6	17.8	18.3	17.1
주거 점유 형태	자가		53.2	53.9	54.2	51.6	53.7
	전세		21.9	20.9	24.3	21.9	17.9
	월세/기타		24.9	25.3	21.5	26.5	28.4
경제활동 상태	경제활동	취업	59.6	35.4	48.7	67.8	80.1
		실업	9.4	12.3	8.3	11.0	7.2
	비경제활동	재학생	14.7	38.0	24.0	4.6	1.3
		비재학 미취업	16.3	14.4	19.0	16.6	11.4

부모의 경제적 지원 여부를 확인해보면, 20대 초반까지는 경제적 지원 있음이 70%를 상회하며, 25~29세는 45.0%, 30~35세는 25.1%로 감소한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경제적 지원이 감소하지만, 30대 청년이어도 여전히 4명 중 1명 꼴로 경제적 자립이 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동거가구의 경우 부모와 생활환경을 공유하기 때문에 모두 간접적으로는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서울 거주 이력은 전 연령층에서 모두 80%를 상회한다. 주거 점유 형태는 전 연령층에서 자가 비율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 상태를 살펴보면, 높은 연령 범주일수록 취업한 비율이 높아짐이 두드러지고 있다. 비재학 미취업자의 비율도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20대 초반까지는 재학생의 비율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20대 후반과 30대 청년은 비재학 미취업자의 비율이 각각 16.6%, 11.4%로 나타난다. 청년 고용 위기가 드러나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20대 중반 이후로 노동시장 이행이 원활하지 못한 것이다. 실업은 연령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18~19세는 12.3%, 20~24세는 8.3%, 25~29세는 11.0%, 30~35세는 7.2%이다.

비동거가구를 연령 집단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는 [표 3-1-5]와 같다. 연령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18~19세는 1.4%, 20~24세는 17.3%, 25~29세는 37.3%, 30~35세는 44.0%를 차지한다. 부모동거 가구의 구성비와 다르게,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중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성비를 확인하면 여성이 52.5%로 남성(47.5%)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10대만 남성이 61.5%로 여성에 비해 높고, 20대 이상에서는 여성이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학력수준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는 부모동거 가구와 비슷한 추이를 보인다. 10대는 모두 고등학교 졸업 이하이며, 20대 초반도 68.9%가 고등학교 졸업 이하이고, 20.2%는 대학교 졸업으로 나타난다. 20대 후반과 30대 청년은 대학교 졸업이 각각 59.8%, 61.2%로 다수를 차지한다.

비동거가구는 가구유형별로 내부 이질성이 포착될 수 있다. 비동거 가구 전체 중에서는 1인가구가 65.6%로 가장 높고, 기타가구 12.6%, 무자녀 부부가구 12.5%, 유자녀 부부가구 9.3% 순이다. 10대는 1인가구가 86.9%로 가장 높았고, 기타가구가 나머지 13.1%를 차지하고 있다. 20~24세는 1인가구가 80.6%, 기타가구가 16.0%, 부부가구는 3.4%이다. 25~29세는 1인가구가 74.8%로 20대 초반까지에 비해 약간 낮은 비중이며, 기타가구는 15.0%, 부부가구는 10.2%로 나타났다. 30~35세는 1인가구가 가장 높은 비중(51.2%)을 차지하지만 다른 연령대에 비해 그 비중이 감소하였다. 타 연령범주와 다른 점은 부부가구가 39.7%로 증가하면서 기타가구는 9.1%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부모의 경제적 지원여부를 살펴보면 비동거가구는 경제적 지원이 없는 비율이 67.4%로 더 높아 부모동거 가구와 차이가 드러난다. 18~19세는 경제적 지원이 있는 비율이 68.0%이고, 20~24세는 58.2%이다. 20대 후반부터는 경제적 지원이 급감하는데, 25~29세는 30.4%, 30~35세는 23.2%이다. 비동거가구의 경우에도 30대가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경우는 4명 중 1명 정도로 나타난다. 비동거가구는 서울로 유입된 경우가 62.1%로 더 높으며, 20대 초반 연령대까지는 70%를 상회한다. 25~29세는 68.6%, 30~35세는 52.6%로 나타나, 서울 태생 청년이 독립한 경우가 점차 더 흔해짐을 확인할 수 있다.

주거 점유 형태는 부모동거 가구와 크게 차이가 나는데, 89.0%가 임차가구로 나타났다. 20대 초반까지는 월세가구 비중이 18~19세는 83.0%, 20~24세는 72.3%로 압도적으로 높다. 20대 후반 부터는 전세 가구 비중이 점차 늘어나 25~29세는 41.7%, 30~35세는 48.4%이다. 경제활동 상태 별로 구별해보면, 부모동거 가구와 비슷하게 연령층이 증가할수록 취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연령 이 낮을수록 재학생 비중이 높다. 비동거 가구의 경우도 비재학 미취업자의 비중이 20~24세는 13.2%, 25~29세는 16.4%, 30~35세는 15.0%로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3-1-5] 비동거가구-연령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

구분			비동거가구				
			전체	18~19세	20~24세	25~29세	30~35세
전체			50.7	1.4	17.3	37.3	44.0
성별	남성		47.5	61.5	43.2	47.7	48.7
	여성		52.5	38.5	56.9	52.4	51.3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7.7	100.0	68.9	21.4	14.5
	전문대 졸업		12.6	0.0	10.7	12.8	13.7
	대학교 졸업		52.7	0.0	20.2	59.8	61.2
	대학원졸업		6.9	0.0	0.2	6.0	10.6
가구유형	1인가구		65.6	86.9	80.6	74.8	51.2
	무자녀 부부가구		12.5	0.0	2.6	6.8	21.7
	유자녀 부부가구		9.3	0.0	0.8	3.4	18.0
	기타가구		12.6	13.1	16.0	15.0	9.1
부모의 경제적 지원	경제적 지원있음		32.6	68.0	58.2	30.4	23.2
	경제적 지원없음		67.4	32.1	41.8	69.6	76.8
서울 거주 이력	서울 태생		37.9	27.7	28.7	31.4	47.4
	서울로 이주		62.1	72.3	71.3	68.6	52.6
주거 점유 형태	자가		11.0	5.7	4.9	6.2	17.7
	전세		41.0	11.3	22.8	41.7	48.4
	월세/기타		48.0	83.0	72.3	52.2	33.9
경제활동 상태	경제활동	취업	71.7	34.2	58.3	71.1	78.8
		실업	6.8	2.8	8.0	8.1	5.4
	비경제활동	재학생	6.5	63.1	20.5	4.4	0.9
		비재학 미취업	15.0	0.0	13.2	16.4	15.0

불안정성을 통합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표 3-1-6]과 같다. 연령별 차이를 포착하기 위해 동거가구 여부별로 연령 범주를 한 번 더 세분하였다. 먼저 부모동거 가구를 살펴보면, '고용·소득 불안정형'이 21.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안정형' 20.1%, '소득 불안정형' 15.4%, '부채 불안정형' 12.3%, '고용 불안정형' 11.2% 순이다. 한편, 비동거가구는 '부채 불안정형'이 34.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안정형' 16.6%, '고용·부채 불안정형' 14.6%, '고용 불안정형' 8.7%, '고용·소득 불안정형' 8.6% 순이다. 원가족으로부터 독립은 높은 주거비를 요구하는 서울에서 독립된 공간을 필요로 함을 의미하고, 자산이 축적되지 않은 청년들은 부채를 얻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도 가구유형별 주택점유 형태를 살펴보면, 부모동거 가구는 자가인 경우가 70.7%이고, 1인가구는 월세가 59.3%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박시내, 2021).

부모동거가구를 연령 범주로 세분하여 불안정 유형을 살펴보면, 먼저 18~19세 청년은 '소득 불안정형'이 36.3%, '고용·소득 불안정형'이 34.8%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20~24세 청년은 '고용·소득 불안정형'이 30.8%로 가장 높았으며, '소득 불안정형'이 22.7%가 차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20대 후반부터는 다른 양상이 관측되는데, 25~29세는 '안정형'이 28.1%로 가장 높고, '부채 불안정형'이 16.2%, '고용·소득 불안정형'이 15.0%를 차지한다. 30~35세는 '안정형'이 34.9%로 더 높아졌고, '부채 불안정형'이 26.0%를 차지한다.

비동거가구의 경우 18~19세 청년은 '소득 불안정형'이 57.1%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여 부모동거 가구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24세 비동거가구는 '고용·소득 불안정형'이 22.9%, '소득 불안정형'이 19.4%, '안정형'은 13.6%, '부채 불안정형'은 11.0%, '고용 불안정형'은 10.8%로 집단 내 이질성이 두드러진다. 25~29세는 '부채 불안정형'이 32.8%로 가장 많으며, '고용·부채 불안정형'과 '안정형'이 각각 17.6%, 17.4%로 나타난다. 30대 청년은 '부채 불안정형'이 47.1%로 20대 청년에 비해 더 높아지고, '안정형'은 17.2%, '고용·부채 불안정형'은 16.1% 순이다.

매우 불안정형은 부모동거 가구에서 7.9%, 비동거가구에서 7.7%로 비슷하게 관측된다. 부모동거 가구는 20~24세 청년의 '매우 불안정형'이 9.0%로 가장 높고, 연령이 증가하면서 감소하여 30대에는 4.9%가 된다. 한편, 비동거 가구에서는 20~24세에 '매우 불안정형' 비율이 9.7%로 가장 높은 것은 부모동거 가구와 비슷했지만, 연령이 증가해도 크게 떨어지지 않고 일정 수준을 유지한다는 차이를 보인다.

반대로 '안정형'을 살펴보면 부모동거가구에서 20.1%로 비동거 가구 16.6%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부모동거 가구에서는 연령 범주별 차이가 두드러지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안정형이 빠르게 늘어나는 형국을 보인다. 비동거 가구는 18~19세가 9.2% 다른 연령범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나머지 연령 범주는 13.6~17.4%로 비슷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표 3-1-6] 부모동거여부-연령별 불안정성 유형 분석

[단위: %]

유형	조합	부모동거 가구					비동거 가구				
		전체	18~19세	20~24세	25~29세	30~35세	전체	18~19세	20~24세	25~29세	30~35세
안정	eid	20.1	6.2	9.3	28.1	34.9	16.6	9.2	13.6	17.4	17.2
다소 불안정	Eid	11.2	6.0	12.0	11.8	11.5	8.7	4.8	10.8	9.6	7.3
	eidD	15.4	36.3	22.7	8.0	2.4	5.9	57.1	19.4	3.7	0.7
불안정	eidD	12.3	1.4	4.9	16.2	26.0	34.8	0.0	11.0	32.8	47.1
	Eid	21.5	34.8	30.8	15.0	7.5	8.6	15.7	22.9	7.8	3.3
	EiD	6.4	2.1	4.0	8.4	9.9	14.6	0.0	5.1	17.6	16.1
매우 불안정	eiD	5.2	5.3	7.3	4.1	2.9	3.3	5.4	7.5	3.7	1.2
	EiD	7.9	7.9	9.0	8.6	4.9	7.7	7.8	9.7	7.3	7.1

빈곤가구의 불안정 유형은 전체 집단과 상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빈곤가구만을 대상으로 유형화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는 [표 3-1-7]과 같다. 빈곤가구 여부는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조사 기준연도: 2020년)의 균등화 시장소득의 중위소득인 3,018만 원의 50%인 1,509만 원을 기준선으로 설정했다. 2021 서울청년패널의 가구소득 데이터를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균등화한 값이 기준선 밑에 있는 경우 빈곤가구로 정의하였다.⁷⁾

전반적으로 빈곤 가구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 불안정성이 더 두드러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비동거-빈곤가구의 불안정 수준이 더 높았다. 부모동거-빈곤가구의 '안정형'은 11.0%인데, 비동거-빈곤가구에서는 1.4%에 그쳤다. '매우 불안정형'은 부모동거-빈곤가구와 비동거-빈곤가구에서 각각 13.4%, 23.6%로 나타나 빈곤여부를 구분하지 않았을 때보다 약 2배에서 3배 정도까지 높은 수치를 보였다. 부모동거-빈곤가구의 불안정 유형을 연령별로 살펴보았을 때 20대 초반까지는 '고용·소득 불안정형'과 '소득 불안정형'이 높게 나타났고, 20대 후반 이후로는 '고용·소득 불안정형'이 높았다. 비동거-빈곤가구는 20대 초반에서 '소득 불안정형'이 높게 나타나며, 20대 후반 이후로는 '매우 불안정형'과 '고용·소득 불안정형'이 높게 나타난다. 다른 집단에서 20대 후반 이후 불안정형이 감소하는 것과 달리 비동거-빈곤가구에서는 20대 후반과 30대에 '매우 불안정형'이 각각 26.0%, 43.6%로 매우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표 3-1-7] 빈곤가구의 불안정성 유형 분석

[단위: %]

유형	조합	부모동거-빈곤가구					비동거-빈곤가구				
		전체	18~19세	20~24세	25~29세	30~35세	전체	18~19세	20~24세	25~29세	30~35세
안정	eid	11.0	3.2	5.7	17.3	22.8	1.4	0.0	0.9	1.7	2.4
다소 불안정	Eid	9.0	5.1	9.6	8.9	12.8	1.6	0.0	0.0	3.2	1.9
	eidD	16.9	35.8	21.4	8.4	0.0	22.9	63.7	35.8	14.9	6.5
불안정	eidD	6.9	0.0	2.3	14.1	12.1	3.4	0.0	1.8	4.4	5.4
	Eid	32.2	40.0	35.8	26.8	24.4	31.3	10.5	37.3	31.0	22.3
	EiD	4.5	0.0	3.7	3.4	15.9	3.7	0.0	0.8	5.1	7.5
매우 불안정	eiD	6.1	9.6	7.3	3.2	5.1	12.0	13.6	10.6	13.8	10.5
	EiD	13.4	6.3	14.2	18.0	7.0	23.6	12.3	12.8	26.0	43.6

7) 전체 빈곤가구는 12.8%로 확인되었으며, 이중 부모동거가구의 비율은 55.1%이다.

(3) 불안정 유형별 정책이용 경험

불안정 유형화를 토대로 정책이용 경험을 파악하여, 정책 효과성을 간접적으로 확인해보고자 한다. 2021년 서울청년패널조사에서는 서울시의 주요 청년지원정책에 관한 인식과 이용 경험 등을 조사하였다. 서울시 주요 청년지원정책을 일자리, 주거, 복지, 참여·공간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정책은 아래 [표 3-1-8]과 같다. 정책 효과성을 간접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각 청년지원정책의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를 1, 없는 경우를 0으로 재코딩하고 모두 합산하여, 1 이상인 경우(어떠한 영역이든 정책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를 ‘정책이용 경험 있음’으로 간주하였다.

[표 3-1-8] 서울시 주요 청년지원정책

구분		주요정책	내용
일자리	1	서울뉴딜형 일자리	최대 23개월간 일경험과 취업에 필요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해 민간 일자리 취업을 독려
	2	취업날개서비스	청년에게 면접정장 무료 대여
	3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	우수 중소기업에서 청년 신규채용 시 1인당 1,000만 원을 지원해주고 육아휴직자 대체 청년인턴 지원
	4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청년인재와 유망기업을 매칭하여 인턴십을 진행하고 민간 기업의 정규직 채용을 촉진
	5	일자리카페	개별집중상담, 취업특강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스터디룸을 무료 대여
	6	캠퍼스타운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을 통해 대학-청년-지역주민 간 상생하는 지역공동체를 구축하고 청년 창업을 육성
주거	7	역세권 청년주택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층에게 출퇴근이 용이한 역세권에 시중 임대료의 30~95% 수준으로 주택을 임대
	8	노장청 쉼어하우스	서울시 소재 대학(원) 재학 및 휴학생에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남는 방을 시세보다 저렴한 값에 제공
	9	청년월세지원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 1인가구에게 월 20만 원씩 최대 10개월 월세 지원
	10	청년임차보증금 지원	최대 7,000만 원까지 대출금의 연 2% 이자율로 임차보증금을 대출
복지	11	청년수당	미취업청년에게 매월 50만 원, 최대 6개월간 구직 활동을 촉진하는 지원금 지급
	12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서울지역 대학(원)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이자 지원
	13	서울시 청년 ‘마음있다’	최대 7회(1회당 50분)까지 심리상담 전문가를 통한 검사 및 상담을 지원
참여·공간	14	서울청년센터	청년문제에 대해 청년시민이 직접 토론하고 숙의할 수 있는 공론장
	15	청년자율예산	실질적인 예산편성권한을 이양함으로써 청년들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는 사업

불안정 유형별 정책이용 경험은 [표 3-1-9]과 같다. 먼저 청년층 전체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경험있음’의 비중은 11.1~29.3%로 나타났다. 완전히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안정한 경우 정책이용 경험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정책이용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난 유형은 ‘고용·부채 불안정형(29.3%)’이며, ‘매우 불안정형(28.2%)’, ‘소득·부채 불안정형(27.3%)’, ‘고용 불안정형(21.0%)’ 순이다. 가장 낮은 유형은 ‘소득 불안정형’으로 11.1%이며, 다음은 ‘안정형’이 15.1%로 낮게 나타난다.

부모동거 여부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안정형’을 제외하고는 비동거 가구에서 ‘경험있음’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난다. ‘안정형’은 전체 청년의 비중(15.1%)과 비슷하게 부모동거가구와 비동거가구에서 각각 15.3%, 14.9%로 나타난다. 각 집단별로 살펴보면, 먼저 부모동거가구도 불안정할수록 정책이용 경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소득·부채 불안정형’이 26.1%로 가장 높으며, ‘고용·부채 불안정형(24.7%)’, ‘매우 불안정형(24.6%)’ 순이다. 부모동거가구도 전체 청년과 같이 ‘소득 불안정형’이 9.6%로 가장 낮았고, ‘부채 불안정형(14.1%)’, ‘고용 불안정형(14.9%)’가 다음으로 낮게 나타난다. 다소 불안정 유형 전체가 안정형보다 정책이용 경험이 더 낮은 것을 특징으로 한다. 비동거가구는 서울시 주요 청년정책 중 하나 이상 정책이용 경험이 있는 비율이 14.9~31.9%로 나타난다. ‘매우 불안정형’과 ‘고용·부채 불안정형’이 각각 31.9%, 31.2%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소득·부채 불안정형’과 ‘고용 불안정형’도 29.2%, 28.9%로 다음으로 높은 편이다. 비동거가구는 ‘안정형’이 14.9%로 가장 낮은 정책이용 경험을 보였으며, ‘소득 불안정형(15.0%)’, ‘부채 불안정형(17.9%)’ 순으로 낮았다.

[표 3-1-9] 불안정 유형별 정책이용 경험

(단위: %)

유형	조합	전체		부모동거가구		비동거 가구	
		경험없음	경험있음	경험없음	경험있음	경험없음	경험있음
안정	eid	84.9	15.1	84.8	15.3	85.1	14.9
다소 불안정	Eid	79.0	21.0	85.1	14.9	71.2	28.9
	eld	88.9	11.1	90.4	9.6	85.0	15.0
	eiD	83.1	16.9	85.9	14.1	82.1	17.9
불안정	Eld	82.2	17.8	83.7	16.3	78.3	21.7
	EiD	70.8	29.3	75.3	24.7	68.8	31.2
	elD	72.7	27.3	73.9	26.1	70.8	29.2
매우 불안정	EID	71.8	28.2	75.4	24.6	68.1	31.9

정책이용 경험이 어떤 영역에서 주로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불안정 유형별 대영역 정책이용 경험을 살펴본 결과는 [표 3-1-10]과 같다. 대체로 복지영역에서 가장 높은

이용 경험이 관측되었으며, 일자리, 주거, 참여·공간 순으로 나타난다. 복지영역이 3가지 정책으로만 구성된 것을 감안했을 때, 정책 이용률이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고용이 불안정하게 나타났을 때(E) 복지영역 이용 경험이 높았는데, 청년수당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실제로 청년수당을 이용 경험을 확인해본 결과, 고용불안정이 포함된 경우 이용 경험이 10% 내외로 확인되었다. 일자리 영역의 경우 불안정 수준과의 관계는 포착되지 않고 있다. 주거의 경우는 부채 불안정성이 포착되는 ‘부채 불안정형(8.2%)’, ‘고용·부채 불안정형(11.9%)’, ‘소득·부채 불안정형(9.5%)’ ‘매우 불안정형(7.5%)’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참여·공간 영역은 모든 불안정형에서 1.1~3.7%로 낮은 경험 비율을 보인다.

[표 3-1-10] 불안정 유형별 정책이용 경험: 전체가구-대영역

[단위: %]

유형	조합	부모동거	일자리	주거	복지		참여·공간
		경험 있음	경험 있음	경험 있음	경험 있음	청년수당	경험 있음
안정	eid	15.3	7.3	4.5	6.9	5.0	1.7
다소 불안정	Eid	14.9	7.3	5.4	13.0	10.0	2.1
	eld	9.6	5.1	2.5	7.0	3.9	1.3
	eiD	14.1	5.9	8.2	7.8	3.5	1.1
불안정	Eld	16.3	7.3	2.6	11.3	8.3	1.8
	EiD	24.7	10.2	11.9	16.9	11.3	2.5
	elD	26.1	11.3	9.5	14.5	4.5	3.7
매우 불안정	EID	24.6	8.0	7.5	19.0	11.2	2.2

다음은 부모동거 여부 집단별로 연령 범주를 구분한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3-1-11]은 부모동거가구 중 불안정 유형을 연령 범주로 구분한 정책이용 경험을 제시한다. 18~19세 범주를 먼저 보면, 정책이용 경험 있음은 0~26.2%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고용·부채 불안정형’이 26.2%로 가장 높으며, ‘부채 불안정형’은 22.8%, ‘안정형’은 17.3%, ‘매우 불안정형’은 12.7% 순이다. 20~24세는 9.1~26.8%로 10대 청년보다 내부 편차가 작게 나타난다. 대체로 불안정할수록 정책이용 경험이 높게 나타난다. ‘소득·부채 불안정형’이 26.8%로 가장 높으며, ‘고용·부채 불안정형(25.6%)’, ‘매우 불안정형(20.4%)’ 순으로 나타난다. 25~29세는 불안정 유형별로 정책이용 경험이 17.3~35.7%로 모든 연령 범주 중에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대 후반 범주도 불안정할수록 정책이용 경험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매우 불안정형’이 35.7%로 가장 높으며, ‘소득·부채 불안정형’이 34.7%, ‘고용·소득 불안정형’이 26.6%, ‘고용·부채 불안정형’이 26.4% 순으로 이어진다. 30~35세 범주는 6.1~28.5%로 나타나고 있다. ‘불안정형’ 모두에서 20% 이상의 정책이용 경험이 발견되며, ‘매우 불안정형’은 16.4%로 불안정정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안정형’은 13.2%이고, ‘다소 불안정형’에서는 ‘부채 불안정형’이 6.1%로 낮았고, 나머지는 18% 내외의 비율을 보인다.

[표 3-1-11] 불안정 유형별 정책이용 경험: 부모동거가구-연령 범주별

[단위: %]

유형	조합	부모동거	18~19세		20~24세		25~29세		30~35세	
		경험있음	경험없음	경험있음	경험없음	경험있음	경험없음	경험있음	경험없음	경험있음
안정	eid	15.3	82.7	17.3	88.4	11.7	82.1	17.9	86.8	13.2
다소 불안정	Eid	14.9	96.1	4.0	87.8	12.2	82.8	17.3	80.8	19.2
	eld	9.6	100.0	0.0	90.9	9.1	76.5	23.5	82.6	17.4
	eiD	14.1	77.3	22.8	84.7	15.3	79.2	20.8	93.9	6.1
불안정	Eid	16.3	91.9	8.1	87.1	12.9	73.4	26.6	71.5	28.5
	EiD	24.7	73.9	26.2	74.4	25.6	73.6	26.4	78.7	21.3
	elD	26.1	92.4	7.6	73.2	26.8	65.3	34.7	79.7	20.3
매우 불안정	EiD	24.6	87.3	12.7	79.6	20.4	64.3	35.7	83.6	16.4

[표 3-1-12]는 비동거 가구 중 불안정 유형을 연령 범주로 구분한 정책이용 경험이다. 18~19세는 '안정형'에서 서울시 청년지원정책이용 경험이 한 번 이상인 비율이 37.8%이고, '소득 불안정형'에서 5.2%로 나타난다. 20~24세는 정책이용 경험이 18.3~39.0%로 높게 나타난다. 부모동거 가구에서 가장 높은 이용 경험 집단인 25~29세보다도 높은 수치이다. 가장 높은 경험률을 보이는 유형은 '고용·부채 불안정형'으로 39.0%에 달한다. '매우 불안정형'과 '소득·부채 불안정형'도 32.8%, 30.2%로 높은 편이다. 다음으로 높은 유형은 '부채 불안정형(29.9%)', '고용 불안정형(25.4%)', '안정형(21.3%)' 순이다. 25~29세 집단은 13.1~40.2%로 상당히 높은 정책이용 경험을 보이고 있다. 20대 후반 청년 중 '매우 불안정형'에 속하는 청년의 40.2%가 서울시 청년정책을 이용했다고 응답했다. 정책이용 경험이 30%를 상회하는 유형은 '고용 불안정형(37.2%)', '고용·부채 불안정형(37.0%)', '소득·부채 불안정형(32.5%)'이다. 마지막으로 30~35세 범주에서는 서울시 청년정책을 경험한 비중이 9.0~25.3%로 나타난다. '안정형'의 경우 9.0%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매우 불안정형'이 25.3%로 가장 높다. '불안정형'은 20.8~24.9%가, '다소 불안정형'은 13.3~22.2%가 서울시 정책을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

[표 3-1-12] 불안정 유형별 정책이용 경험: 비동거가구-연령 범주별

[단위: %]

유형	조합	비동거	18~19세		20~24세		25~29세		30~35세	
		경험있음	경험없음	경험있음	경험없음	경험있음	경험없음	경험있음	경험없음	경험있음
안정	eid	14.9	62.2	37.8	78.7	21.3	81.0	19.0	91.0	9.0
다소 불안정	Eid	28.9	100.0	0.0	74.6	25.4	62.9	37.2	77.8	22.2
	eld	15.0	94.8	5.2	81.7	18.3	86.9	13.1	86.7	13.3
	eiD	17.9	-	-	70.1	29.9	77.6	22.5	85.9	14.1
불안정	Eid	21.7	100.0	0.0	80.6	19.4	73.2	26.8	79.2	20.8
	EiD	31.2	-	-	61.0	39.0	63.0	37.0	75.1	24.9
	elD	29.2	100.0	0.0	69.8	30.2	67.5	32.5	77.9	22.1
매우 불안정	EiD	31.9	100.0	0.0	67.2	32.8	59.8	40.2	74.7	25.3

4) 결론 및 함의

이 연구는 서울시 청년집단을 부모동거가구와 비동거가구로 구분하여 각 집단이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지 확인하고, 각 집단별로 가장 불안정한 집단을 식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때 불안정성은 고용, 소득, 부채 측면으로 구분하여 통합적으로 접근하였다. 또 불안정 유형별로 서울시 청년정책이용 경험을 파악하여, 어떤 집단의 불안정 유형이 실제 정책 대상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서울시 청년 중 부모동거가구와 비동거가구는 49.9%, 50.1%로 비슷한 비중을 보이고 있었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비동거가구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동거가구의 가구 유형을 살펴보면, 1인가구가 65.6%, 부부가구가 21.8%, 기타가구가 12.6%로 이루어져 있었다. 서울시 청년 전체의 불안정 속성을 확인했을 때, 고용불안정은 43.3%, 소득불안정은 37.7%, 부채불안정은 46.1%로 나타났다. 가구 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 부부가구의 부채불안정이 약 80% 수준으로 높게 확인되었다. 1인가구와 기타가구를 비교해보았을 때, 기타가구가 고용과 소득불안정 수준이 다소 높게 나타났고, 부채불안정은 비슷하게 확인되었다. 1인가구 지원도 중요하지만 기타가구의 취약성도 조명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부모동거가구와 비동거가구의 불안정 유형을 통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동거가구는 ‘고용·소득불안정형’이 21.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안정형’ 20.1%, ‘소득불안정형’ 15.4%, ‘부채불안정형’ 12.3%, ‘고용불안정형’ 11.2% 순이다. 한편, 비동거가구는 ‘부채불안정형’이 34.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안정형’ 16.6%, ‘고용·부채불안정형’ 14.6%, ‘고용불안정형’ 8.7%, ‘고용·소득불안정형’ 8.6% 순이다. 부모동거가구와 비동거가구 모두 20대 초반까지는 소득 불안정이 가장 두드러졌고, 20대 후반 이후로는 동거여부에 상관없이 부채 불안정이 포함된 유형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관측되었으나, ‘안정형’은 부모동거가구에서는 30% 내외로 높게 나타나나 비동거 가구에서는 17% 정도에 그쳤다. 빈곤가구로 한정하여 불안정 유형을 분석한 결과, 비동거-빈곤가구의 20대 후반 이후 불안정 문제가 두드러졌다. 다른 집단을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 20대 후반 이후 매우 불안정의 비율은 감소하여, 8.6% 이하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비동거-빈곤가구의 ‘매우 불안정형’은 25~29세는 26.0%, 30~35세는 43.6%로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불안정 유형별 서울시 정책이용 경험을 파악한 결과, 완전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안정 속성이 높을수록 정책이용 경험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부모동거 여부별로 살펴보면, 안정형을 제외하고는 비동거 가구에서 이용률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정책 대영역별로 확인했을 때는 복지영역에서 이용률이 가장 높았고, 특히 청년수당을 경험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구분했을 때, 부모동거가구는 20대 후반에서 정책이용 경험이 높았고, 비동거가구는 20대 전반에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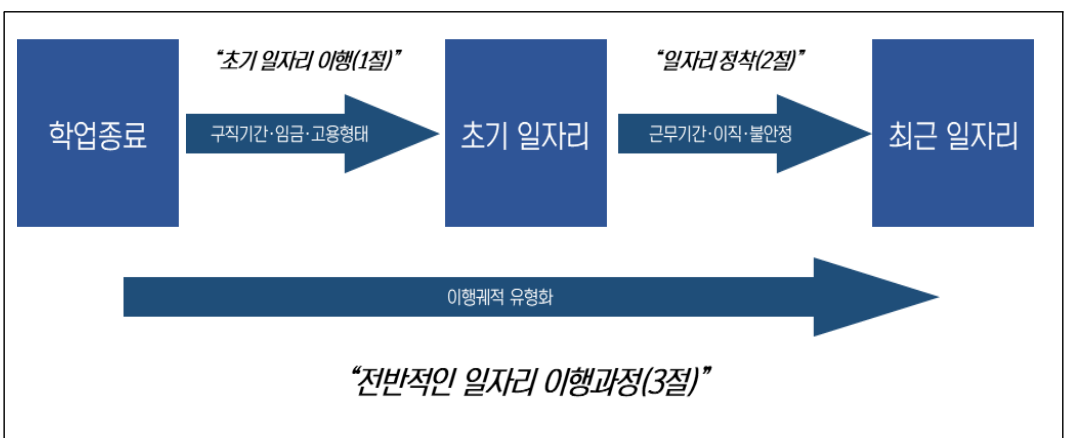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대 후반 비동거-빈곤가구의 불안정 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이들에 대한 개입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소득 불안정형과 매우 불안정형을 합산하면 20대 후반과 30대 청년 모두에서 절반을 넘는다. 이들에 대한 다각적 지원을 통해 빈곤이 이후 생애주기로 확장되는 것과 빈곤의 대물림 현상을 막을 필요

가 있을 것이다. 둘째, 기타가구의 취약성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 1인가구가 새로운 정책 집단으로 지목되면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고 있다. 청년의 경우 기타가구는 1인가구보다 더 불안정한 것으로 드러나 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일자리 영역 정책의 효과성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 4가지 영역, 총 15가지의 세부정책 중 일자리 영역의 주요 정책은 6개나 포함되지만, 청년들의 이용 경험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영역의 청년수당도 미취업자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일자리 영역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데, 청년들이 청년수당은 많이 이용하면서도 일자리 영역의 정책은 덜 이용하고 있다.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 해당 정책들의 실효성을 파악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2_청년의 일자리 이행

1) 들어가며

이 장에서는 청년층의 전반적인 일자리 이행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본 장은 크게 세 차원으로 구성되어 분석이 이루어졌다. 첫째, 청년층의 학업종료-초기 일자리 이행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둘째, 일자리 이행을 했다면, 최근 일자리를 갖기까지 정착 정도는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청년층의 전반적인 일자리 이행과정을 총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전술한 세 차원으로 구성된 틀은 서울 청년층의 전반적인 일자리 이행과정을 총괄적이고,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2-1] 청년의 일자리 이행 연구모형

2) 초기 일자리 이행

이 절에서는 청년층의 학업종료 이후 초기 일자리 이행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 사회에서 청년층이 갖는 초기 일자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 사회 내 노동시장 간 이동은 고착화되어

있으므로, 만일, 이들의 초기 일자리가 부정적일 경우 이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최요한, 2018). 이에 이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이들이 학업종료-초기 일자리가 어떠한 형태를 나타내고, 이에 대한 영향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졸업 이후 첫 일자리까지의 구직기간을 살펴볼 것이다. 둘째, 초기 일자리 임금수준에 대해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임금근로자 고용형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이 구성한 이유는 구직기간이 짧다고 해서, 질 높은 일자리를 담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함이다. 특히, 청년층의 노동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들은 자신의 여러 특성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저소득·불안정 일자리라도 가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 절에서는 전술한 종속변인에 대한 영향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인구사회학적특성, 부모특성, 학교특성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여 분석하였다(변금선, 2015; 양동규·최재성, 2019; 이용호, 2021).⁸⁾

(1) 변수설명

① 종속변인

이 연구의 종속변인 구직기간, 임금수준, 고용형태를 측정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문항을 활용하였다. 먼저, 구직기간은 고등/대학 졸업시점을 묻는 문항과 첫 일자리를 가진 시점을 묻는 문항을 활용하였다. 여기서 대학을 2년 이상 진학한 경험이 있는 이들은 마지막 대학 졸업시점을 활용하였다. 또한, 대학졸업 이전에 일자리를 가진 이들은 제외하여 분석하였다. 임금수준은 최근 3년간 경험한 일자리를 묻는 문항을 통해 파악하였다. 초기 일자리를 파악하기 위해 졸업 이후 2년 내 가진 일자리로 제한하였으며, 이를 통해 임금수준과 고용형태를 파악하였다. 동시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근무시간과 임금수준이 가장 높은 일자리를 주된 일자리로 보고 파악하였다.

② 독립변인

이상의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인구사회학적특성, 부모특성, 학교특성으로 구분하여 독립변인을 구성하였으며, 조작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인구사회학적특성인 연령은 마지막 고등/대학졸업 시점에서 본인 생년을 차감한 값을 활용하였다. 성별은 준거집단을 여성(=0)으로 하였으며, 교육수준은 학교교육을 묻는 문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학력을 도출하였다. 이에 준거집단을 고졸 이하(=0)로 하여 2~3년제 졸업(=1), 4년제 이상(=2)으로 조작화하였다. 가구원 수와 부모교육수준은 가구배경(L)을 묻는 문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파악하였다. 가구소득은 기본정보를 묻는 항목에 만 14세 무렵 가구소득 수준에 대한 주관적 판단((최하=1)~(최상=10))을 묻는 문항을 활용하였다. 학교특성은 학교교육을 묻는 문항으로 고등학교특성과 대학특성을 파악하였다. 이후 고등학교 유형은 일반고(=0)를 준거집단으로, 대학지역은 비서울권 대학(=0)을 준거집단으로 조작화하여 분석하였다. 아울러 대학유형은 2~3년제 졸업(=0)을 준거집단으로 하였으며, 졸업학과는 인문/사회를 준거집단으로 설정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8) 역인과관계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제한된 변인만을 투입하였다는 점을 한계점으로 남긴다.

[표 3-2-1] 초기 일자리 이행 독립변인

특성		조작적 정의
종속변인	구직기간	첫 일자리 시기(개월 환산)~졸업 시점(개월 환산)
	임금	졸업 이후 2년 내 주된 첫 일자리(시간당 임금)
	고용형태	졸업 이후 2년 내 주된 첫 일자리(비정규직(0)/정규직(1))
인구사회학적특성	연령	졸업 당시
	성별	여성(0), 남성(1)
	교육수준	고졸 이하(0), 2~3년제 졸업(1), 4년제 이상(2)
	가구원 수	명
	가구소득 수준	만14세 당시 주관적 가구소득 수준(0~10)
부모특성	부 교육수준	고졸 이하(0), 2~3년제 졸업(1), 4년제 이상(2)
	모 교육수준	고졸 이하(0), 2~3년제 졸업(1), 4년제 이상(2)
학교특성	고등학교유형	일반고(0), 특성화고(1), 특목고·자사고(2)
	대학지역	비서울권(0), 서울권(1)
	대학유형	2~3년제 졸업(0), 4년제(1)
	졸업학과	인문/사회계열(0), 이과계열(1), 교육계열(2), 예체능계열(3), 육사/기타계열(4)

(2) 첫 일자리 구직기간

분석 결과, 청년층은 졸업 및 중퇴, 휴학 이후 첫 일자리를 갖는데 평균 16.3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⁹⁾. 이는 졸업 이전에 일자리를 가진 이들과 조사시점까지 일자리를 갖지 못한 이들을 제외한 2,236명을 대상으로 살펴본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통상 청년층의 첫 일자리 구직기간이 약 10개월이라고 보고된 것과 비교해봤을 때 서울 청년층이 상대적으로 더 긴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2-2] 졸업 이후 첫 일자리까지 구직기간

	평균	표준편차
첫 일자리 구직기간(개월)	16.3	23.09
N	2,236	

⁹⁾ 고등학교와 대학교 졸업자 모두 해당 연도 2월에 졸업한다고 가정하고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졸업 이후 첫 일자리를 갖기까지의 구직기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Cox's 비례위험모형(proportional hazard model)을 실시하였다. 고졸자와 대졸자 모두 포함한 모형과 노동시장 성과에 주요한 영향을 주는 대학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대졸자로 한정된 모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전체대상 모형인 〈모형1〉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인구사회학적특성에서는 졸업 당시 연령이 높을수록 첫 일자리까지의 구직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exp(\beta)=1.046$, $p<.001$). 이는 상대적으로 연령이 많은 상태에서 졸업하는 것이 취업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유추된다. 또한, 남성은 여성과 비교해봤을 때, 구직기간이 상대적으로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exp(\beta)=0.902$, $p<.05$). 이는 선행연구와도 일치한 결과이지만(변금선, 2015), 짧은 구직기간이 질 높은 일자리를 담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본인의 교육수준이 높을 경우 구직기간은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2~3년제졸업($\exp(\beta)=1.424$, $p<.001$)과 4년제졸업이상($\exp(\beta)=1.435$, $p<.001$)을 고졸 이하와 비교해봤을 때 구직기간은 더욱 짧았다. 만14세 당시 주관적 가구소득이 높다고 판단할수록 이들의 구직기간은 긴 것으로 나타났다($\exp(\beta)=0.965$, $p<.01$).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부모특성에서 아버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이들의 구직기간 또한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수 선행연구에서 부모배경과 자녀 일자리 질이 긍정적 관계라는 것을 미루어볼 때(이용호 외, 2021), 이들이 충분한 취업준비를 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된다. 반면, 어머니 교육수준은 아버지 교육수준과 다르게 구직기간을 짧게 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exp(\beta)=1.170$, $p<.05$). 대학특성을 살펴보기 위한 〈모형2〉를 살펴보면, 대학특성 요인 이외는 〈모형1〉과 비슷한 영향요인을 나타냈다. 대학특성에서는 이과계열이 인문/사회계열에 비해 구직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exp(\beta)=1.127$, $p<.05$). 이는 이과계열의 경우 인문사회계열과 비교해봤을 때 상대적으로 졸업-취업의 연계가 보장되어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전술한 결과들은 청년층의 첫 일자리 구직기간과 관련한 선행연구와 대체로 일치한 결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전술하였듯 구직기간만을 살펴봐서는 그 형태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명확히 해석하기엔 한계점이 있다. 이에 다음 절에서는 임금수준과 고용 형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3-2-3] 구직기간에 미치는 영향요인

		〈모형1〉 전체집단	〈모형2〉 대졸자집단
		harz(robust se)	harz(robust se)
	연령	1.046(0.013)***	1.049(0.016)**
성별(ref. 여성)	남성	0.902(0.046)*	0.888(0.056)*
교육수준 (ref. 고졸 이하)	전문대	1.424(0.084)***	ref. 전문대
	4년제이상	1.435(0.087)***	1.201(0.193)
가구원수	명	1.020(0.018)	1.003(0.021)
가구소득	14세 당시	0.965(0.013)**	0.961(0.015)***
아버지교육수준	전문대	0.869(0.082)+	0.825(0.093)*
	4년제이상	0.872(0.074)+	0.848(0.083)*
어머니교육수준	전문대	1.170(0.079)*	1.234(0.090)*
	4년제이상	1.081(0.078)	1.124(0.087)
고등학교 유형(ref. 일반고)	특성화고	1.092(0.086)	1.023(0.126)
	특목고	0.887(0.073)	0.892(0.086)
대학소재지(ref. 비서울)	서울권	-	1.055(0.050)
대학유형(ref. 2~3년제)	4년제대학		1.604(0.297)
졸업학과(ref. 인문/사회)	이과계열		1.127(0.056)*
	교육계열		0.892(0.141)
	예체능계열		1.086(0.082)
	육사/기타계열		1.257(0.183)
wald test		157.50***	40.73***
N		2,617	1,916

주: <.1+, <.05*, <.01**, <.001***

(3) 초기 일자리 임금수준

초기 일자리 임금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졸업 이후 2년(24개월) 내 갖게 된 일자리의 임금수준을 파악하였다. 만일, 동시 일자리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주당시간이 가장 많고 임금수준이 높은 일자리를 주된 일자리로 판단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초기 일자리 임금수준을 살펴본 결과, 이들은 평균 227.97만 원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면 6.45만 원이며, 최종분석에는 시간당 임금을 활용하였다.

[표 3-2-4] 초기 일자리 임금수준

	평균	표준편차
평균 임금(원)	227.97	112.67
시간당 임금(원)	6.45	3.28
N	1,099	

초기 일자리 임금수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기 위해서 다중회귀분석(OLS)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전체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한 <모형1>을 살펴보면, 인구사회학특성에서 연령이 임금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021$, $p<.001$). 이는 앞서, 구직기간에도 연령은 정(+)적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미루어볼 때, 연령이 이들의 초기 노동시장 이행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영향이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판단하기엔 무리가 있다. 전술하였듯, 졸업 당시 높은 연령은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부담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이들이 이미 경력을 쌓은 상태에서 대학진학 후 졸업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남성은 여성에 비해 임금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eta=0.050$, $p<.05$). 이는 앞서 남성이 상대적으로 구직기간이 긴 것과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긴 구직기간이 부정적 노동시장 이행만을 의미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교육수준은 임금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청년층의 교육이 상향 평준화가 되었음에도, 학력프리미엄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가구원 수는 임금수준을 낮추는 반면($\beta=-0.022$), 주관적 가구소득은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012$, $p<.05$). 이는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당장의 취업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며, 가구소득은 앞서 구직기간 결과와 비교해봤을 때 충분한 취업준비 때문이라고 유추된다. <모형2>를 살펴보면, 대학특성 이외의 변인들은 <모형1>과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대학특성에서 4년제 대학은 2~3년제 대학보다 임금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430$, $p<.05$). 또한, 이과계열은 인문/사회계열보다 임금수준이 높았으며($\beta=0.055$), 교육계열은 상대적으로 더 낮게 나타났다($\beta=0.006$, $p<.05$).

[표 3-2-5] 초기 일자리 임금수준 영향요인

		〈모형1〉 전체집단	〈모형2〉 대졸자집단
		coef(se)	coef(se)
	연령	0.021(0.008)***	0.015(0.008)+
성별(ref. 여성)	남성	0.050(0.025)*	0.062(0.028)*
교육수준 (ref. 고졸 이하)	전문대	0.140(0.052)**	ref. 전문대
	4년제이상	0.183(0.059)**	0.430(0.181)*
가구원수	명	-0.022(0.008)**	-0.027(0.008)**
가구소득	14세 당시	0.012(0.006)*	0.010(0.006)
아버지교육수준	전문대	0.037(0.041)	0.020(0.042)
	4년제이상	-0.026(0.036)	0.006(0.040)
어머니교육수준	전문대	0.062(0.040)	0.073(0.042)
	4년제이상	0.053(0.037)	0.007(0.041)
고등학교 유형(ref. 일반고)	특성화고	0.047(0.043)	0.061(0.055)
	특목고/자사고	0.047(0.037)	0.044(0.040)
대학소재지(ref. 비서울)	서울권	-	0.071(0.024)
대학유형(ref. 2~3년제)	4년제대학		0.730(0.121)*
졸업학과(ref. 인문/사회)	이과계열		0.055(0.026)*
	교육계열		-0.006(0.067)*
	예체능계열		-0.014(0.040)
	육사/기타계열		-0.063(0.082)
R-Square(adj)		0.111	0.061
N		1,099	938

주: <.1+, <.05*, <.01**, <.001***

(4) 초기 일자리 고용형태

앞서, 구직기간과 임금수준과 더불어 초기 일자리(졸업 후 24개월 내)의 고용형태를 살펴보려고 한다. 이는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고용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먼저, 이들의 고용형태를 살펴보면 정규직은 약 68.99%, 비정규직은 약 31.0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록 정규직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10명 중 3명이 비정규직이라는 점을 미루어본다면 청년층의 불안정 일자리 문제가 시급함을 알 수 있다.

[표 3-2-6] 초기 일자리 고용형태

	정규직	비정규직
비율(%)	68.99	31.01
N	1,032	

다음으로, 고용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정규직 여(1)·부(0)로 이분형 로짓분석(binary logi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모형1>을 살펴보면 본인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정규직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전문대 졸업(odds=1.499, $p<.001$)과 4년제 이상 졸업(odds=1.621, $p<.001$)은 고졸 이하와 비교해봤을 때 정규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를 앞선 구직기간, 임금수준과 함께 고려했을 때,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짧은 구직기간-높은 임금수준-정규직 일자리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유추할 수 있다. 한편, 고등학교 유형에서는 특성화고인 경우 일반고에 비해 정규직 가능성이 높으나, 특목고/자사고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를 살펴보면, 교육수준은 여전히 정규직 가능성을 높였으며, 특목고/자사고는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과계열은 인문/사회계열에 비해 정규직 가능성이 높았다.

[표 3-2-7] 고용형태에 미치는 영향요인

		〈모형1〉 전체집단	〈모형2〉 대졸자집단
		odds(se)	odds(se)
	연령	0.997(0.010)	0.994(0.011)
성별(ref. 여성)	남성	1.028(0.031)	1.029(0.035)
교육수준 (ref. 고졸 이하/대학중퇴)	전문대	1.499(0.065)***	ref. 전문대
	4년제이상	1.621(0.073)***	1.210(0.226)+
가구원수	명	0.992(0.009)	0.984(0.010)
가구소득	14세 당시	0.998(0.008)	0.995(0.008)
아버지교육수준	전문대	0.965(0.050)	0.954(0.053)
	4년제이상	1.033(0.045)	1.040(0.050)
어머니교육수준	전문대	1.018(0.049)	1.029(0.053)
	4년제이상	0.949(0.047)	0.939(0.052)
고등학교 유형(ref. 일반고)	특성화고	1.199(0.054)***	0.985(0.072)
	특목고/자사고	0.878(0.046)**	0.869(0.051)**
대학소재지(ref. 비서울)	서울권	-	1.013(0.030)
대학유형(ref. 2~3년제)	4년제대학		1.560(0.256)+
졸업학과(ref. 인문/사회)	이과계열		1.060(0.032)+
	교육계열		0.996(0.082)
	예체능계열		0.920(0.052)
	육사/기타계열		0.860(0.107)
N		1,032	889

주: <.1+, <.05*, <.01**, <.001***

(5) 소결

본 절의 목적은 청년층의 초기 노동시장 이행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에 초기 노동시장 성과를 구직기간, 임금수준, 고용형태로 구성하여 살펴보았으며 주요 결과 요약은 다음과 같다.

졸업당시 연령이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수준의 일자리를 빠르게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졸업당시 높은 연령이 초기 노동시장 이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전술하였듯, 본 자료에서는 마지막 졸업시점 이후의 일자리 기준으로 파악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마지막 학업을 종료하기 이전에 경험한 일자리 또는 대학으로 인한 영향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에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남성은 여성에 비해 구직기간은 길었으나,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일자리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교육수준은 초기 노동시장 이행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냈는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고임금/정규직 일자리를 빠르게 갖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는 교육수준이 상향 평준화된 상황에서도 교육프리미엄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대학특성도 일부분 노동시장 이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이과계열을 졸업한 청년층은 인문/사회계열을 졸업한 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임금/정규직 일자리를 빠르게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과계열의 경우 졸업과 동시에 일자리 연계가 잘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자리가 ‘괜찮은 일자리’라는 것을 보여준다.

3) 일자리 정착

본 절에서는 청년층이 일자리를 가진 이후의 정착 정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에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노동시장 진입으로 이행이 완료되는 것이 아닌 이후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변금선, 2018; 남재욱, 2021; 이용호, 2021). 특히, 청년기 특성상 노동시장 이행이 활발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중요성은 더 커진다. 이들의 노동시장 이행 특성과 불안정 노동시장이 맞물려 노동시장에 진입하였더라도, 안정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본 절에서는 세 가지 차원으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이후의 정착 정도를 살펴볼 것이다. 첫째, 일자리 유지를 살펴보기 위해 평균 근무기간을 살펴볼 것이다. 둘째, 일자리 이동을 살펴보기 위해 이직정도를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진입 이후의 안정성을 살펴보기 위해 최근 일자리의 불안정 정도를 살펴볼 것이다. 역인과관계를 방지하기 위해 근무기간과 이직횟수에 대한 영향요인은 앞서 살펴본 요인과 동일하며, 불안정 정도는 최근 일자리이기 때문에 선행연구를 바탕으로(이승운 외, 2017)으로 더욱 다양한 요인을 투입하였다. 근무기간 및 이직횟수와 관련한 영향요인에 대한 설명은 1절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불안정성과 관련한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근무기간 및 이직횟수와 관련한 독립변인설명은 [표 3-2-8]을 참조하면 된다.

(1) 변수설명

① 종속변인

본 절의 종속변인은 근무기간, 이직횟수, 불안정성이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최근 3년간 경험한 일자리에 관해 묻는 문항을 활용하였다. 근무기간은 일자리를 그만둔 경우에는 일자리 시작 시기와 일자리 종료시기를 파악한 후 종료시기-시작시기한 값을 활용하였다. 재직 중인 경우에는 조사 시점에 일자리 시작시기를 차감하여 근무기간을 파악하였다. 이직횟수는 앞서 살펴본 일자리 종료시점을 토대로 일자리 이직횟수를 파악하였다. 불안정성은 취업자의 경우 최근 3년간 경험한 일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고용형태, 임금수준, 근로시간을 활용하였으며, 미취업자의 경우 미취업자-취업준비 관련 문항을 활용하여 잠재실업자를 파악하였다. 여기서 일자리는 근무시작이 2021년인 이들로 한정 지었다. 잠재실업자에는 적극 구직자(실업자) 이외에도 '4주 내 구직 활동하지 않았지만, 취업가능자'와 '4주 내 구직활동을 했지만, 당시에 일자리를 갖지 못한 자'를 포함한다. 최종적으로 불안정은 ILO기준에 따른 시간당 중위임금 2/3미만, 비정규직(비임금은 4인 이하 고용주/무급가족종사자), 4대 보험 미가입에 모두 해당되면 안정(=0)으로 규정하여 그 이외는 불안정(=1)으로 규정한다.

[표 3-2-8] 일자리 정책(근무기간·이직횟수) 독립변인

특성		조작적 정의
종속변인	근무기간	최근 3년간 일자리 기준(졸업이후: 근무시작-종료 개월환산)
	이직횟수	최근 3년간 일자리 기준(졸업이후: 일자리 이동)
인구사회학특성	연령	최근 3년간 일자리 중 첫 일자리 취득 당시
	성별	여성(0), 남성(1)
	교육수준	고졸 이하(0), 2~3년제 졸업(1), 4년제 이상(2)
	가구원 수	명
	가구소득 수준	만14세 당시 주관적 가구소득 수준(0-10)
부모특성	부 교육수준	고졸 이하(0), 2~3년제 졸업(1), 4년제 이상(2)
	모 교육수준	고졸 이하(0), 2~3년제 졸업(1), 4년제 이상(2)
학교특성	고등학교유형	일반고(0), 특성화고(1), 특목고·자사고(2)
	대학지역	비서울권(0), 서울권(1)
	대학유형	2~3년제 졸업(0), 4년제(1)
	졸업학과	인문/사회계열(0), 이과계열(1), 교육계열(2), 예체능계열(3), 육사/기타계열(4)

② 독립변인

노동시장 이행의 불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인구사회학특성, 부모특성, 일자리 특성을 투입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는 다음과 같이 조작화하였다. 연령은 근무시작 시기의 연령이며, 부모동거는 가구배경 항목 내 부모동거 여부 문항을 통해 파악하였다. 혼인상태 또한 가구배경 항목에 함께 포함되어 있다. 본인 소득 및 가구소득은 경제 항목의 본인 소득과 가구 총소득을 묻는 문항을 통해 파악하였으며, 분석 시 자연로그화한 값을 활용하였다. 이 외의 인구사회학특성 내 변수들과 부모특성은 1절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한 과정을 거쳤다. 일자리 특성은 최근 3년 경험 일자리에서 조사된 종사상 지위와 주된 일자리 항목을 통해 파악하였다.

[표 3-2-9] 일자리 정책(불안정성) 독립변인

특성		조작적 정의
종속변인	일자리 불안정성	2021년 일자리 기준 시간당 중위임금 전체 근로자 2/3이하 4대보험 미가입·잠재실업자(1) /그 외(0)
인구사회학 특성	연령	일자리 취득 당시 연령
	성별	여성(0), 남성(1)
	교육수준	고졸 이하(0), 2~3년제 졸업(1), 4년제 이상(2)
	부모동거	같이 안살고 있음(0), 살고 있음(1)
	혼인상태	미혼(0), 기혼(1)
	가구소득	가구균등화 자연로그
	본인소득	자연로그
	가구원 수	명
부모특성	부 교육수준	고졸 이하(0), 2~3년제 졸업(1), 4년제 이상(2)
	모 교육수준	고졸 이하(0), 2~3년제 졸업(1), 4년제 이상(2)
일자리 특성	종사상지위	정규직(0), 상용직(1), 임시일용직(2), 자영업(4인 이상)(3), 자영업(4인 미만)(4)
	회사규모	5인미만(0), 5-299 이하(1), 300인 이상(2)

(2) 일자리 유지

청년층이 졸업 이후 최근 3년간 경험한 일자리를 토대로 일자리 근무기간을 살펴본 결과, 이들은 평균 약 32.12개월 동안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층의 첫 일자리 평균 근무기간이 약 33.3개월이라고 보고된 것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김기현 외, 2022). 즉 서울 청년층 또한 3년 미만의 근무기간을 가지는 것이다.

[표 3-2-10] 평균 근무기간

	평균	표준편차
근무기간(개월)	32.12	29.69
N	2,221	

청년층의 평균 근무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한 OLS 결과, 초기 일자리 당시 연령이 많을 경우 근무기간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1.304$, $p<.001$). 통상 연령이 높을수록 그 일자리를 유지하려고 한다고 예상할 수 있으나, 본 분석결과는 상이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근무기간은 증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교육수준이 높을 경우 상대적으로 고임금-정규직 일자리를 갖을 확률이 높다는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상대적으로 ‘괜찮은 일자리’일 경우, 그 일자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한편, 가구원 수는 근무기간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는데, 이는 전술한 가구원 수가 임금수준을 낮추는데서 기인한 것으로 유추된다. 저임금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실업과 이직을 반복하는 특성을 보이기 때문이다(석상훈, 2008; 성재민, 2011). 한편, 특목고인 경우, 일반고와 비교했을 때 근무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자로 한정 지은 <모형 2>를 살펴보면, 대학특성이 추가되자 남성은 여성에 비해 근무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의 변인들은 <모형 1>과 맥락을 같이 했으며, 서울소재지 대학졸업인 경우 이외의 대졸자에 비해 근무기간이 길었다. 반면, 예체능계열 졸업자는 인문/사회계열 졸업자에 비해 근무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11] 평균 근무기간에 미치는 영향요인

		〈모형1〉 전체집단	〈모형2〉 대졸자집단
		coef(se)	coef(se)
	연령	-1.304(0.210)***	-2.153(0.271)***
성별(ref. 여성)	남성	-1.552(1.268)	-0.425(1.465)***
교육수준 (ref. 고졸 이하)	전문대	9.320(2.091)***	ref. 전문대
	4년제이상	11.434(1.721)***	5.954(7.466)
가구원수	명	-2.407(0.430)***	-2.068(0.495)***
가구소득	14세 당시	-0.168(0.340)	-0.392(0.389)
아버지교육수준	전문대	-2.722(2.215)	-2.040(2.476)
	4년제이상	-2.713(2.086)	-2.766(2.373)
어머니교육수준	전문대	2.116(2.238)	3.402(2.518)
	4년제이상	-2.199(2.179)	-1.753(2.476)
고등학교 유형(ref. 일반고)	특성화고	0.424(2.203)	1.608(3.168)
	특목고	-5.006(2.177)*	-4.795(2.533)+
대학소재지(ref. 비서울)	서울권	-	2.484(1.436)+
대학유형(ref. 2~3년제)	4년제대학		-4.336(7.345)
졸업학과(ref. 인문/사회)	이과계열		-0.010(1.597)
	교육계열		3.315(3.959)
	예체능계열		-6.337(2.215)**
	육사/기타계열		-6.154(4.619)
R-Square(adj)		0.06	0.06
N		2,221	1,695

주: <.1+, <.05*, <.01**, <.001***

(3) 이직

청년층의 졸업 이후 최근 3년간의 이직을 살펴본 결과, 이들의 대다수는 1번 이상 이직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최소 1번부터 2-3회까지 이직을 하는 양상을 보였다. 드물지만 최대 9번까지도 이직을 경험하는 이들도 있었다.

[표 3-2-12] 이직 횟수

횟수	N	%
0	1276	57.45
1	552	24.85
2	241	10.85
3	82	3.69
4	37	1.67
5	13	0.59
6	7	0.32
7	4	0.18
8	0	0.00
9	9	0.41
N	2,221	100

평균 이직횟수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OLS를 실시한 결과, 초기 일자리 당시 연령이 높을수록 이직횟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039$, $p<.001$).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많을수록 그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함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나, 앞선, 분석결과에서는 연령은 근무기간을 감소시켰다. 종합하면 연령이 많을수록 근무기간이 짧고, 이직도 감소함을 본다면, 이들은 일자리 이직 사이에서 실업 또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유추할 수 있다. 남성 또한 전술한 내용과 맥락을 같이 했다. 즉, 남성은 여성에 비해 짧은 근무기간과 드문 이직횟수를 보였다. 그러나, 남성은 여성에 비해 구직기간 자체가 길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일자리 자체에 늦게 진입하여 근무기간이 짧고 이직횟수가 드문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교육수준은 이직횟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관적 소득상태도 같은 맥락을 했다. 대학특성을 추가했을 때에는 4년제대졸자가 2~3년제 대졸자에 비해 이직횟수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청년층이 어떠한 일자리로 이직하는지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들은 상용직에서 상용직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임시·일용직에서 임시·일용직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일자리 상향이동 또는 하향이동의 비율은 낮았다. 이는 청년층이 이직하더라도, 그 일자리 형태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3-2-13] 이직 횟수에 미치는 영향요인

		〈모형1〉 전체집단	〈모형2〉 대졸자집단
		coef(se)	coef(se)
	연령	-0.039(0.008)***	-0.025(0.010)*
성별(ref. 여성)	남성	-0.128(0.051)**	-0.131(0.056)*
교육수준 (ref. 고졸 이하)	전문대	-0.162(0.084)+	ref. 전문대
	4년제이상	-0.210(0.069)**	0.502(0.279)+
가구원수	명	0.008(0.020)	-0.003(0.022)
가구소득	14세 당시	-0.024(0.014)+	-0.018(0.015)
아버지교육수준	전문대	0.035(0.109)	0.079(0.119)
	4년제이상	0.115(0.071)	0.057(0.076)
어머니교육수준	전문대	0.003(0.110)+	0.043(0.118)
	4년제이상	-0.082(0.071)	0.008(0.076)
고등학교 유형(ref. 일반고)	특성화고	0.094(0.088)	0.124(0.121)
	특목고	0.036(0.086)	0.114(0.095)
대학소재지(ref. 비서울)	서울권	-	-0.076(0.055)
대학유형(ref. 2~3년제)	4년제대학		-0.565(0.274)**
졸업학과(ref. 인문/사회)	이과계열		-0.079(0.061)
	교육계열		-0.134(0.151)
	예체능계열		0.094(0.084)
	육사/기타계열		-0.173(0.177)
R-Square(adj)		0.03	0.04
N		2,221	1,695

주: <.1+, <.05*, <.01**, <.001***

(4) 노동시장 내 불안정 경험

청년층의 최근 노동시장 내 불안정성 살펴보기 위해 2021년 기준 취업한 이들과 잠재실업자를 대상으로 노동시장 내 불안정 경험 여부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전술한 바와 같이 이승윤 외(2017)연구에서의 불안정 기준을 토대로 불안정/안정을 구분하였다. 위 연구에서는 중위임금, 4대보험가입여부, 정규직여부를 토대로 이를 구분한다. 구체적으로는 ILO기준에 따른 중위임금 2/3미만, 비정규직(비임금은 4인 이하 고용주/무급가족종사자), 4대보험미가입에 모두 해당되면 안정(=0)으로 규정하며, 그 이외에는 불안정(=1)으로 구분한다. 여기서 잠재실업자는 불안정으로 간주한다. 이를 토대로 서울 청년층의 불안정 비율을 살펴보면, 이들은 약 76.92%는 노동시장에서 불안정성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는 대다수 청년층이 노동시장 내 불안정한 상태로 놓여져 있음 보여준다.

[표 3-2-14] 노동시장 내 불안정 경험

	불안정	안정
비율(%)	76.92	23.08
N	1,144	

전술한 불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전체표본 <모형1>과 취업자 <모형 2>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모형1>을 살펴보면 남성은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동시장 내 안정된 집단에 속해있는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높은 교육수준은 이들을 안정된 집단에 속해있을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대적으로 불안정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구소득과 본인 근로소득은 이들을 안정된 집단에 속할 가능성을 높였다. 다음으로 취업자모형 <모형2>를 살펴보면, 연령은 불안정 집단에 속할 가능성을 감소시킨 반면, 높은 어머니 교육수준은 그 가능성을 높였다. 통상 어머니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안정된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 가능하다. 그러나 앞선 분석결과에서 어머니 교육수준이 이들로 하여금 구직기간을 짧게 만드는 반면, 임금수준/고용형태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미루어볼 때, 어머니 교육수준이 좋은 일자리로의 이행을 담보하지 않은 데서 기인한 것으로 유추된다. 다만, 교육수준의 전문대 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 한편, 종사상 지위에서는 본인이 정규직일 경우 모든 타 종사상 지위와 비교해봤을 때 안정된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15] 노동시장 내 불안정 경험 영향요인

2021년 취업자들 한정		〈모형1〉 전체집단	〈모형2〉 취업자집단
		odds(se)	odds(se)
	연령	0.901(0.003)	0.992(0.005)*
성별(ref. 여성)	남성	0.955(0.024)*	0.956(0.030)
교육수준 (ref. 고졸 이하)	전문대	0.902(0.036)**	0.983(0.051)
	4년제이상	0.832(0.029)***	0.950(0.043)
부모동거(ref. 비동거)	동거함	1.005(0.030)	0.969(0.040)
혼인상태(ref. 배우자 없음)	배우자 있음	1.106(0.043)*	1.047(0.057)
가구소득	가구균등화 로그	0.985(0.008)+	0.985(0.017)
본인근로소득	자연로그	0.968(0.003)***	0.998(0.003)
가구원 수	명	1.016(0.010)	1.020(0.013)
아버지교육수준	전문대	1.040(0.041)	1.033(0.053)
	4년제이상	1.003(0.037)	0.947(0.046)
어머니교육수준	전문대	1.054(0.043)	1.160(0.052)**
	4년제이상	1.027(0.038)	1.074(0.047)
종사상지위	상용직	-	2.038(0.046)***
	임시일용직		2.007(0.040)***
	자영업(4인이상)		1.931(0.096)***
	자영업(4인미만)		2.186(0.102)**
회사규모	5-299 이하	-	0.944(0.044)
	300이상		1.043(0.051)
N		1,144	644

주: <.1+, <.05*, <.01**, <.001***

(5) 소결

본 절의 목적은 청년층의 일자리 정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어에 일자리 정착을 근무기간, 이직횟수, 불안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며,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초기 취업당시 연령이 많을수록 근무기간과 이직횟수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하였듯 통상 연령이 많을 경우 근무기간을 늘리려고 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많을수록 미래를 생각하여 주된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과정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일자리로 인해 근무기간이 감소한 것으로 유추된다. 그러나, 이는 추후 정밀한 분석과 함께 해석되어야 타당하므로 제한된 해석임을 고려해야 한다. 한편, 연령은 이직횟수를 감소시켰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근무기간 감소와 상반된 결과이다. 통상 근무기간 감소는 이직횟수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많은 청년층이 만족스럽지 못한 일자리로 인해 근무기간을 단축시켜 퇴사하더라도, 또 다른 일자리로 이행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미취업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한편, 높은 교육수준은 이들의 일자리 정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교육수준은 근무기간을 증가시키는 반면, 이직은 감소시켰기 때문이다. 또한, 노동시장 이행이 안정적인 일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안정적인 일자리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은 그 일자리에 만족하여 정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가구소득은 이들의 이직횟수를 감소시키는 반면, 노동시장 이행에 불안정에 포함될 가능성을 높였다. 이는 가구소득이 높을 경우 취업을 위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미취업 상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유추된다. 이 외에도 정규직에 비해 비교적 불안정한 종사상 지위라고 판단되는 상용직, 임시일용직, 자영업은 불안정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노동시장 내 취업자간 불안정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4) 일자리 이행과정

본 절에서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초기이행부터 진입 그리고 그 이후까지의 과정을 총괄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청년층의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이행과정이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절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첫째,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일자리를 가진 청년층은 향후 어떠한 일자리로 이동하는지 파악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일자리 간 이동을 포착한 후에는, 둘째, 일자리 이동과 유지를 함께 포괄하여 노동시장 이행궤적을 유형화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접근방식은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년 내부 이질적 특성을 고려하여 이행을 유형화하여 볼 수 있다.

먼저, 일자리 간 이동을 살펴보기 위해서 최근 3년간 경험한 일자리를 토대로 이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이행을 유형화하기 위해서 조사시점으로부터 3년(36개월) 이전부터 경험한 일자리를 토대로 이를 살펴보았다. 이 모두, 학업이 종료된 이후에 경험한 일자리를 기준으로 살펴보았으며, 동시 일자리의 경우 주된 일자리를 기준(근무시간과 임금수준이 가장 많음)으로 파악하였다. 다만, 일자리가 동시에 시작되지 않고 A일자리가 종료시점 즈음에 새롭게 시작된 B일자리의 경우에는 A일자리가 끝난 후 바로 B일자리가 시작되었다고 보고 분석하였다.¹⁰⁾

(1) 일자리 간 이동

최근 3년간 경험한 일자리의 초기 고용형태는 정규직/상용직(71.23), 임시일용직(22.21), 비임금 근로(6.56)이었다. 또한, 최근 3년간 이직을 경험한 945명을 대상으로 일자리 간 이동을 살펴본 결과, 이들은 이전 시점의 고용형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령, 이전 시점에 정규직/상용직인 청년층은 그 다음 일자리 또한 정규직·상용직인 비율이 43.61%였고, 임시·일용직으로 하향이동한 비율은 7.42%에 불과했다. 한편, 임시·일용직인 경우에 정규직·상용직으로 상향이동한 비율은 13.20%에 불과했으며, 임시·일용직으로 유지된 비율은 24.51%로 나타났다. 자영업인 이들도 그 다음 일자리가 자영업인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상의 결과는 청년층이 이직하더라도 이전 일자리의 고용형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청년층의 노동시장 간 이동이 고착화되어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¹⁰⁾ 가령, pid=10003은 24230개월에 일자리를 시작해서 24243개월에 일자리가 종료되었다. 동시에 24238개월에 일자리가 시작되어 24258개월에 종료되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가 겹치기 때문에 일자리를 연속해서 볼 수 없다. 이에 24238개월에 시작되게 아닌 24243개월에 시작되어 24258개월에 종료하였다고 보고 분석하였다. 본 절의 목적은 일자리 이행과정을 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자리가 동시에 시작되지 않았더라도 종료시점이 누락되어 있거나, 현재까지 두 일자리 모두 진행 중인 경우에는 주된 일자리 하나만 보았다.

[표 3-2-16] 일자리 이동

이전 시점 \ 이후 시점	정규직/상용직	임시·일용직	자영업
정규직/상용직	43.61	7.42	2.25
임시·일용직	13.20	24.51	2.07
자영업	1.70	1.70	3.53
N	945		

(2) 일자리 이행과정 유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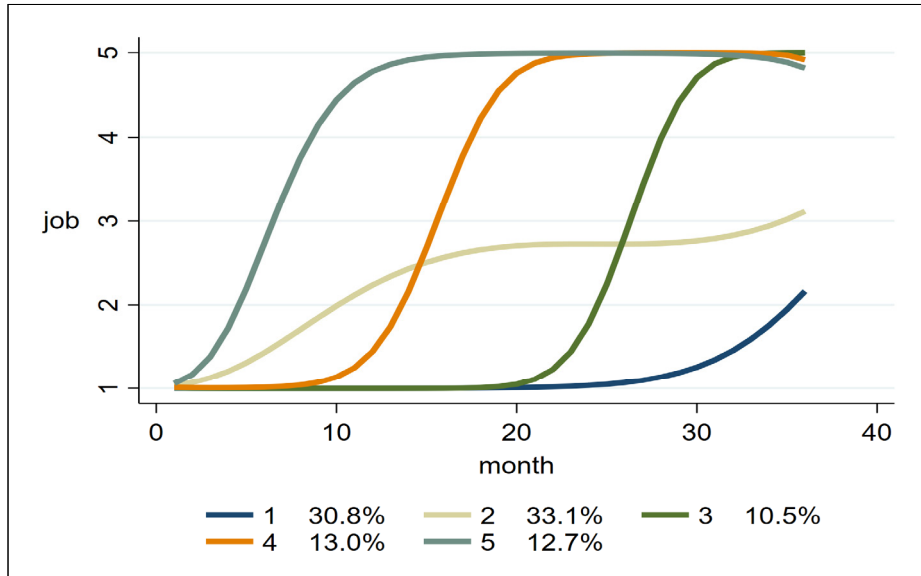
앞선, 일자리 간 이동과 함께 유지되는 일자리를 모두 포함하여 전반적인 청년층의 일자리 이행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청년층의 경제활동 상태를 일자리 안정화 및 노동시장 진입에 따라 서열화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가장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졌다고 판단되는 정규직은 가장 높은 점수 5점을 부과하였다. 그다음으로는 상용직 4점, 임시·일용직 3점, 비임금근로자 2점을 부과하였다. 청년층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임금근로자에 비해 임금상승률이 낮으므로(신재열, 2021) 더 낮은 점수를 부과하는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일자리 자체를 갖지 못하는 미취업의 경우에는 가장 낮은 점수인 1점을 부과하였다.¹¹⁾ 종합하면 정규직(5점), 상용직(4점), 임시·일용직(3점), 비임금근로자(2점), 미취업(1점)으로 정의된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안정된 경제활동상태를 의미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청년층의 경제활동상태를 서열화한 후에는 조사시점으로부터 3년 이전부터 경험한 일자리를 월별로 환산하여 유형화하였다. 이를 위해 집단중심궤적모형(Group-Based Trajectory model)을 활용하였으며, 그 결과 5개의 이행과정 유형을 도출할 수 있었다.¹²⁾

[표 3-2-17] 경제활동상태 서열화

경제활동상태	정규직	상용직	임시·일용직	비임금근로자	미취업
점수	5	4	3	2	1
N	1,686				

11)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구분하는 것 또한 중요하나, 이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어 미취업으로 묶어서 이행과정을 살펴보았다.

12) 통상, GBTM을 활용할 시 최적모형을 도출하기 위해서 BIC, AIC, entropy, 각 유형 내 비율 등을 활용한다(Jones et al, 2001; Nagin, 2005; Andruff et al, 2009). 이에 전술한 기준을 토대로 유형을 하나씩 증가시키며 분석한 결과, 5개 유형이 BIC=-46308.39, AIC=-46243.23, Entropy=0.991로 최적모형으로 판단되었다.



[그림 3-2-2] 노동시장 이행 유형화

최근 3년 동안의 이행궤적을 살펴보면 1유형은 노동시장 자체에 진입하지 못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① 미취업 유지형으로 명명하였다. 2유형은 노동시장에 진입하였지만 임시일용직 일자리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유지하고 있는 형태를 보이므로 ② 임시일용직 유지형으로 명명하였다. 3유형은 임금근로자 중에서 가장 늦게 정규직으로 이행하고 있으므로 ③ 늦은 정규직 진입형으로 명명하였다. 4유형은 전술한 3유형보다는 빠르게 정규직으로 이행하는 추이를 보이므로 ④ 중간 정규직 진입형, 5유형은 가장 빠르게 정규직을 갖기 때문에 ⑤ 빠른 정규직 진입형으로 명명하였다. 최종적으로는 ① 미취업 유지형 ② 임시일용직 유지형 ③ 늦은 정규직 진입형 ④ 중간 정규직 진입형 ⑤ 빠른 정규직 진입형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청년층의 노동시장이 매우 불안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판단되는 ③(10.5%), ④(13.0%), ⑤(12.7%)유형의 비율은 매우 낮은 반면, 이외의 유형 비율은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가령, 구직기간이 소요되더라도 최종적으로 정규직에 진입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판단되나, 약 64%의 청년층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는 청년층의 전반적인 노동시장 이행상태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5개의 유형화된 집단에 따라 청년층의 특성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교육수준에 따라 유형화 비율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안정적인 집단인 ③, ④, ⑤유형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높은 주관적 가구소득 역시 ④, ⑤유형에 속할 비율이 높았으며, ①유형의 비율도 높았다. 미취업유지형인 ①유형의 소득수준이 높은 이유는 앞서 전술한 것과 같이 이들이 충분한 일자리를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 유추된다. 대졸자를 살펴보면, 통상 이과계열과 육사/예체능계열에서 정규직으로 진입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3-2-18] 청년 특성에 따른 노동시장 이행유형 비교

구분		미취업 유지	임시일용 유지	늦은 정규직	중간 정규직	빠른 정규직	χ^2/F
연령	졸업 당시	22.57	22.59	23.49	23.30	23.69	1.926
성별	여	277(29.80)	329(35.30)	113(12.10)	153(16.40)	59(6.30)	6.82
	남	263(34.80)	229(30.30)	97(12.80)	121(16.00)	45(6.00)	
교육 수준	고졸 이하	174(40.10)	170(39.20)	31(7.10)	45(10.40)	14(3.20)	55.33***
	전문대	80(28.20)	98(34.50)	40(14.10)	50(17.60)	16(5.60)	
	4년제이상	286(29.50)	290(30.00)	139(14.40)	179(18.50)	74(7.60)	
가구 소득	14세 시절	5.36	5.22	5.37	5.05	5.24	3.11*
가구 원 수	명	2.45	2.74	2.46	2.56	2.63	3.34*
부 교육 수준	고졸 이하	215(29.50)	250(34.30)	99(13.60)	115(15.80)	49(6.70)	6.26
	전문대	40(32.00)	41(32.80)	14(11.20)	24(19.20)	6(4.80)	
	4년제이상	285(34.20)	267(32.10)	97(11.60)	135(16.20)	49(5.90)	
모 교육 수준	고졸 이하	283(30.50)	315(33.90)	122(13.10)	155(16.70)	54(5.80)	9.20
	전문대	65(28.60)	76(33.50)	33(14.50)	39(17.20)	14(6.20)	
	4년제이상	192(36.20)	167(31.50)	55(10.40)	80(15.10)	36(6.80)	
고등 학교 특성	일반고	408(31.40)	416(32.00)	170(13.10)	221(17.00)	86(6.60)	13.93*
	특성화고	75(33.50)	75(33.50)	27(12.10)	32(14.30)	15(6.70)	
	특목고	57(36.10)	64(40.50)	13(8.20)	21(13.30)	3(1.90)	
대학 지역	비서울	217(30.90)	206(29.30)	106(15.10)	125(17.80)	49(7.00)	3.95
	서울	149(27.10)	182(33.20)	73(13.30)	104(18.90)	41(7.50)	
학교 유형	4년제	88(27.90)	107(34.00)	46(14.60)	57(18.10)	17(5.40)	3.36
	2~3년제	278(29.70)	281(30.00)	133(14.20)	172(18.40)	73(7.80)	
졸업 학과	인문사회	170(29.40)	178(30.70)	75(13.00)	111(19.20)	45(7.80)	32.5***
	이과계열	99(26.70)	98(26.40)	77(20.80)	72(19.40)	25(6.70)	
	교육계열	19(35.80)	20(37.70)	4(7.50)	9(17.00)	1(1.90)	
	예체능 계열	69(32.20)	77(36.00)	21(9.80)	32(15.00)	15(7.00)	
	육사/기타 계열	9(25.70)	15(42.90)	2(5.70)	5(14.30)	4(11.40)	
N		519	556	177	220	214	1,686

주: <.1+, <.05*, <.01**, <.001***

(3) 소결

본 절의 목적은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과정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들의 최근 3년간 일자리 이동 추이와 고용형태 변화유형을 살펴보았다. 일자리 이동 추이를 살펴본 결과 이전 시점의 일자리가 유지될 확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이전 시점에 정규직인 이들은 이후 시점에도 정규직을 가능성이 높았으며, 이는 비정규직, 비임금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는 이들이 노동시장 내 상향이행 하기란 어려운 현실을 보여준다. 물론, 이전 시점에 청년층이 정규직이라면 이러한 현상은 긍정적이라고 보일 수도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 청년층의 초기 일자리가 비정규직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통계청, 2021)을 미루어보면 그렇지 않다. 이와 같이 청년층이 노동시장 이행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고용형태 변화유형을 살펴본 결과에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가령, 변화유형이 ① 미취업 유지형 ② 임시일용직 유지형 ③ 늦은 정규직 진입형 ④ 중간 정규직 진입형 ⑤ 빠른 정규직 진입형으로 구분됐는데, 결론적으로 정규직에 진입한 3, 4, 5유형의 비율은 매우 낮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즉, 상대적으로 노동시장 이행이 원활한 유형의 비율은 낮은 반면, 불안정 이행을 보이는 유형의 비율은 높은 것이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일자리 이동 추이와 변화유형을 살펴보았을 때, 현재 다수 청년층이 노동시장 내 불안정 이행상태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청년층을 위한 단기적 지원방안이 아닌 중장기적인 지원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_미취업 청년들이 겪는 부채부담에 관한 연구

1) 서론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를 거치며 청년들의 취업 문제는 늘 이슈로 떠올랐다. 청년층의 취업문제는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강도 높은 정책적 처방이 필요하다(남기곤, 2009). 최근 취업 연령이 높아지는 현상과 미취업 청년이 많아지는 현상으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발달 과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생애주기 속 청년기에는 결혼과 자녀출산 그리고 사회 발전을 위해 노동력의 선순환이 요구되는 시기이다(권중돈, 2014). 그러나 최근 경제활동 인구 중 청년의 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이 문제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현재 한국은 OECD 38개 국가들 중 청년 실업률 연평균 상승률은 0.76%로 10위에 해당한다(한국경제연구원, 2021). 또한 청년 실업 문제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대한민국 청년들이 경제 취약 계층이 될 가능성도 염두해야 한다.

그간 청년들의 미취업 문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물들이 제출되어왔다. 먼저, 윤성원(2020)은 노동시장정책을 미취업 문제와 연관지어 설명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일본의 노동시장정책과 비교하며 미취업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성을 찾고자 했다. 황정원, 길혜지(2021)는 청년들의 미취업 문제를 청년고용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분석하였다. 이영민 외(2019)는 청년실업의 원인을 기업들의 채용여건의 약화, 청년들의 선호 일자리와 다소 상이하다는 점, 기업들의 복리후생제도가 잘 구축되지 않았다는 점, 인구 및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대학 구조개혁이 미진하여 경쟁력이 낮아졌다는 점, 과잉학력자인 청년들이 노동시장으로 진출함으로서 실업률이 높아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어떤 요인이 청년들의 미취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이유로 청년들은 취업을 미루거나 취업준비 기간이 늦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대표적으로 한국사회에서 흔히 불리는 ‘캥거루족’과 ‘니트족’이란 단어만 살펴보더라도 이 현상이 우리사회에 반영된다고 볼 수 있다. ‘캥거루족’이란 25세를 기준으로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는 현상을 의미함으로서 일반적으로 부모와 주거를 함께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청년들을 의미한다(오호영, 2017). ‘니트(NEET)족’이란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f Training’의 약어로 정규교육 혹은 어떠한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청년층을 의미한다(이로미 외, 2010). 청년 미취업자들이 증가한다는 것은 곧 한국사회의 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청년들이 빚을 내거나 부채를 부담하는 현상과 이어질 수도 있다(이용호·이원익, 2020).

미취업 청년과 부채에 대해 사회적 문제로서 접근하여 그간 학계에서는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어왔다. 그간 미취업 청년들과 이들이 안고 있는 부채부담에 관해 수행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들의 취업 역량과 구직 활성화에 관한 연구(고재성 외, 2010; 이지혜 외, 2017; 지은·이미지, 2021), 둘째, 청년들의 자산 혹은 부채를 변수로서 접근하고 분석한 연구(김태은, 양세정, 2018;

최원호, 2018; 변금선, 2019; 하랑경 외, 2020; 이용호·이원익, 2020; Addo et al., 2019; Kim & Chatterjee, 2021), 셋째, 청년들의 미취업 결정요인에 대해 살펴본 연구(김안국, 2003; 박성재·반성호, 2006; 남기곤, 2009; 김용성, 2012; 이상인 외, 2021) 등이 있다.

현재 학계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이 겪는 부채부담에 대해 연구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미취업 청년들이 겪는 문제를 일반화한다면 다른 연구자료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취업 청년들이 겪고 있는 부채부담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제공한다면 청년 지원정책 및 실천 현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이 겪고 있는 부채부담 실태를 탐색적으로 살펴보고 심층 면담한 질적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를 내부자적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한다.

2) 문헌검토

(1) 부채의 개념과 문제의 심각성

이 연구의 주제인 청년들의 부채부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채에 대한 개념과 부채로 인한 문제점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채(debt)란 일반적으로 미래의 특정 기간까지 차입자가 대출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장동호, 2014). 일반적으로 부채는 가계의 구성원이 빌린 돈을 합산하여 ‘가계부채’라고 부른다. 이 가계부채에 대한 개념은 국가마다 다르고 부채를 측정하는 방법 역시 차이가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가계부채를 가계대출과 가계신용을 합한 개념으로 사용한다. 여기서 말하는 가계대출은 예금은행의 주택대출, 비은행예금 취급기관에서의 대출, 기타 금융기관에서의 대출을 의미한다(국회예산정책처, 2012). 그리고 가계신용은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 비영리단체의 부채를 합한 것을 의미한다(국회예산정책처, 2012).

그러나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와 가정형태의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청년들의 경우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채 역시 포함이 될 수 있다는 점과 가계부채를 포함하여 좀 더 포괄적인 부채단위로 접근하고자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채무를 ‘부채’로 통용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부채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부정적이다. 채무자들에 대한 평가는 빈민수준으로 나쁘다(장동호, 2014). 또한 언론에서 비추어 지고 있는 채무불이행자나 이들에 대한 차별이 사회에 만연하게 알려져 있어 부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여전하다.

그러나 단순히 부채가 있다고 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예측할 수는 없다. 부채의 총액보다 자산이나 소득에 대비한 부채의 양이 상환할 수 있는 양이라면 부채는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Turunen & Hiilamo, 2014). 즉, 부채는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경우나 소득에 대비한 부채의 수준은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박정민 외, 2017). 이에 부채가 주는 단점 외에도 부채의 수준이 청년의 복지도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부채는 과다채무로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과다채무는 채무로 인해 일상적인 삶이 어렵고, 채무를 적시에 상환하기 어려운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채무 이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다양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많은 연구에서는 부채가 많을 경우, 정신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며(박정민 외, 2017), 가족갈등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보고되고 있다(맹성준 외, 2019). 이처럼 부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부채를 지게 됨으로써 청년들이 겪을 수 있는 문제는 다양하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부채의 상환부담이 늘어날수록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Berger et al., 2016). 또한 학자금 대출과 같이 필요에 의한 부채 역시 불면증, 재정적 염려, 불안을 야기시킬 수 있다(Cooke et al., 2004). 이에 청년들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또한 청년들의 경우, 청년기에 이행할 필요가 있는 취업, 혼인과 같은 과업을 미루게 될 수 있다(배호중·한창근, 2018). 물론 혼인의 결정요인으로서 혼인상대에 대한 신뢰, 성격과 같은 심리적인 요인들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유미순·유가호, 2017). 그러나 혼인비용이나 부채를 포함한 자산은 개인 혹은 가구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게 된다. 혼인 시점에서 결혼식 비용, 혼수비용과 주거비 등의 영향이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경제적 부담감과 어려움이 혼인을 지연시키고 더 나아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부채로 인한 자살과 같은 위험이 생길 수 있다(이동준·한창근, 2021).

(2) 미취업 청년의 부채부담

최근 청년 부채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짐에 따라 청년 부채의 측면뿐 아니라 부모의 사회경제적 특성까지 고려한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년들의 부채에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관련 연구들(Houle, 2014)에서는 부모의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가 부채를 떠안게 될 가능성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하랑경 외, 2020). 이것은 부모의 소득과 자산이 높을수록 자녀의 부채가 줄어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한다. 더 나아가 부의 세습이 고착된다는 결과도 시사한다. 때문에 청년들이 느끼는 부채부담 역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2017년 이후, 30대 이하의 청년층의 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금융원에서는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대출규모에서 50%이상 상승하였다고 보고한다(신용상, 2021). 또한 청년층의 소득 대비 부채 비중(Loan to Income Ratio; LTI)은 5년간 20대가 43.8%p, 30대가 53%p 상승하여 20, 30대 연령층이 타 연령층에 비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¹³⁾. 이는 상환부담 위험이 빠른 속도로 누적된다고 볼 수 있다(신용상, 2021).

특히, 미취업 청년들의 경우, 경제활동에 제한이 있어 부채에 대한 부담감이 커질 수 밖에 없다. 미취업 청년들이 부채를 상환할 시,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아야 하는데, 부채를 상환하는 과정에서 이자는 끊임없이 증가할 가능성과 이자를 꾸준히 채무이행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미취업 청년들의 경우에는 직업훈련과 구직을 하는데 소모하는 비용도 있어 채무이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대안으로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제도와 취업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등의 제도가 운영 중이다(고용노동부, 2019). 이 외에도 ‘청년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은 사업을 실시하여 직업훈련에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김호원·이종구, 2018). 그럼에도 여전히

¹³⁾ 서울경제, 2021. 09. 26., ‘소득대비부채비율(LTI), 5년 동안 20대 43.8%p ? 30대 53%p 상승’, URL: <https://www.sedaily.com/NewsView/22RM4OD3RN>

미취업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문제는 청년층의 부채가 꾸준히 늘어나는 동시에 청년 취업난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기술발달로 인한 자동화와 기존 산업의 고용창출력 둔화, 기업의 신규채용위축, 코로나 19로 인한 취업난과 같은 취업난에 부딪히고 있다. 결국 현재 청년층의 취업은 어려워졌으며 이에 관한 새로운 문제에 계속 직면 중이다. 청년층의 미취업은 곧 노동시장에서 기술의 축적하기 어렵고 이미 습득한 기술의 경우에는 손상될 수 있어 인적자원이 약화된다는(Shultz, 1961). 청년들의 미취업에 대한 원인파악을 위해 학계에서는 꾸준히 연구물들이 발표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경험적인 자료로서 살펴본다면 좀 더 깊이 있는 이해와 다양한 함의점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 연구방법

(1) 분석전략 설정

이 연구는 미취업 청년들이 겪는 부채부담 실태 전반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이를 탐색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한 함의를 도출하는 데 의미를 둔다. 이를 위해 첫째, 2021년 서울청년패널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미취업 청년의 부채부담 실태 분석한다. 이를 위해 분석자료에서 측정 가능한 부채부담 현황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살펴본다. 둘째, 부채가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심층 면담한 자료로 질적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양적 자료 분석으로 드러나지 않는 미취업 청년의 부채부담 경험을 면밀하게 분석한다. 셋째, 질적 사례연구에서 도출된 분석결과와 서울청년패널조사 원자료 분석결과를 필요에 따라 상호 보완적으로 배치하여 보다 풍부한 함의를 끌어내고자 한다.

(2) 부채부담 측정 검토

가계의 부채부담을 측정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부채부담 측정과 관련된 접근 방법은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째, 총량적 접근이다. 총량적 접근은 미시단위에서 가계의 실질적인 부채 규모를 확인할 수 있으며 부채부담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표적인 측정 측정은 부채 유무, 부채 금액과 과중채무를 들 수 있다. 여기서 과중채무는 소득 측면과 자산 측면에서 평가하고 측정할 수 있다(박운태·노정현, 2017). 소득 측면에서 과중채무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L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총부채 상환비율(DTI) 등이 있다. 자산 측면에서 과중채무를 측정하는 방법은 담보인정비율(LTV), 자산총액 대비 부채총액(DTA) 등이 대표적이며, 가계부채의 부실 정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DSR과 DTA를 결합한 가계부실위험지수(HDRI)도 활용되고 있다.¹⁴⁾ 여기서 과중채무를 결정하는 임계치는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으며 명확하게 합의된 정의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변금선, 2019).

둘째, 부채의 종류와 내용을 고려하여 부채부담을 살펴보는 접근이다. 청년세대의 부채는 표면적으로 부채의 종류와 종류별 부채 금액의 크기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이행기의 과업과 위험사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 계층화 등 청년세대가 겪는 다양한 문제들의 사회경제적 표상이

¹⁴⁾ 과중채무에 대한 자세한 측정 내용은 한국은행 홈페이지(www.bok.or.kr) 경제용어 사전과 박운태, 노정현(2017)을 참조하라.

라는 의미를 갖는다(박정민 외, 2018). 청년부채의 주요 구성요소는 학자금 대출, 주거관련 대출, 생활비 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업권별 부채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소액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한 제2금융권 대출이나 내구재 대출, 작업대출 등의 불법대출로 인해 청년층의 과도한 부채부담 문제와 범죄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며(박수민, 2022),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청년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서울시복지재단, 2022).

셋째, 심리적 접근으로, 부채가 있는 가계의 주관적 부채부담을 살펴보는 방법이 있다. 이는 부채에 대한 태도나 불확실성 등 객관적 지표로 설명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해줄 수 있다(최현자·김예희, 2017). 주관적 부채부담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척도는 Retting & Danes(1994)의 경제적 스트레스 척도가 있으며, 부담의 정도를 간단하게 여부를 묻거나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는 방법도 사용되고 있다(곽민주 외 2012).

이 연구는 미취업 청년의 부채부담 실태를 탐색적이고 총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위에 기술한 측정과 관련된 세 가지 접근에 따라 부채부담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다만, 이 연구의 분석자료의 한계로 측정 가능한 변수를 최대한 활용하여 분석한다.

[표 3-3-1] 부채부담 측정

구분		설명
총량적 접근	부채 유무	부채 보유 여부
	부채규모	부채 총액
	과중채무	가처분소득대비 부채 비율(LTI) 100% 초과
	자산총액 대비 부채 총액(DTA)	부채총액/자산총액×100
내용적 접근	부채 용도	부채가 있는 경우 부채의 용도(학자금, 생활비, 주택관련 비용, 취업학원 또는 자격증 취득 비용, 창업자금, 채무상환, 기타)
심리적 접근	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 정도	5점 척도 중 매우 부담된다고 응답

주: 과중채무를 판단하는 임계점 기준은 European Commission(2014)과 변금선(2019)의 기준을 따랐음

(3) 질적 사례연구

이 연구는 미취업 청년들이 겪게 되는 부채 부담에 관하여 심층적 고찰을 하고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 연구자는 질적 사례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사례연구란 실제 사례를 분석하여 현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연구방법이다. 사례연구는 주변과 구분되는 하나의 '경계'를 가진 사례를 탐구한다(Stake, 1995; Cresswell, 2013). 이 연구의 사례들도 '부채부담'이라는 명확한 경계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시간 경과에 따라 연구참여자들이 가졌던 부채부담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례연구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례 내 분석을 통해 개별사례에 대해 파악하고 사례 간 분석을 통해 사례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하는 데 적합하다. 이에 미취업 청년들이 경험하는 본질에 대해 이해하기 위하여 질적 사례연구를 사용하였다.

① 심층 인터뷰 참여자 선정

이 연구에서는 현재 미취업 청년들의 부채부담 경험을 확인하는데 목적을 두고 연구참여자를 선정하고자 노력하였다. 연구 참여 기준은 ‘2021 서울청년패널’ 자료의 연구참여자들 중 미취업을 유지하고 부채 부담 경험이 있는 청년들로 선정하였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을 다양하게 살펴보고자 부채 경험을 ‘학자금 마련’, ‘생활비 마련(식비, 의료비)’, ‘주택관련 비용 마련(주택구입, 보증금, 임대료 등)’, ‘기타(취업준비 학원, 자격증 취득 비용, 창업자금 마련, 채무상환)’으로 구분하여 모집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의 모집을 위한 선정기준을 만들었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만 18~만35세의 미취업 청년일 것, 둘째, 부채가 있으며 이로 인한 부담을 가진 경험이 있을 것, 둘째, 1:1 심층 인터뷰에 참여할 의사가 있을 것.

연구자는 ‘2021 서울청년패널’의 본조사 대상자 중 다수의 사례자를 추천받았으며, 관련 전문가들과 협의 끝에 총 7명의 연구참여자를 모집할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의 기초정보는 다음과 같다.

[표 3-3-2] 연구참여자들의 기초정보

구분	성별	연령	부채 액수	부채용도
연구참여자 1	여	23세	1,000만 원	학자금 마련
연구참여자 2	남	30세	6,900만 원	생활비 마련, 주택 관련 비용 마련
연구참여자 3	남	24세	4,670만 원	학자금 마련, 주택 관련 비용 마련
연구참여자 4	남	30세	8,700만 원	학자금 마련, 생활비 마련, 주택 관련 비용 마련
연구참여자 5	여	28세	9,600만 원	주택 관련 비용 마련
연구참여자 6	남	33세	13,100만 원	학자금 마련, 주택 관련 비용 마련
연구참여자 7	여	36세	1,800만 원	주택 관련 비용 마련

② 자료수집

분석에 필요한 자료는 2022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수집했다. 이 연구의 자료는 1:1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되었으며 면담은 연구참여자당 2회가량 실시하였다. 1차 면담은 관계형성과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을 듣는 데 목적을 두었으며 2차 면담은 연구참여자들이 이야기한 내용 중 확인이 필요하거나 추가적인 질문을 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면담 시간은 90분이 넘지 않도록 노력했으며 원활한 면담을 위해 반구조화된 면담질문지를 작성하여 면담에 활용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가 이루어진 시점이 코로나19 감염병이 유행하는 시기에 이루어져 비대면 화상면담으로 자료가 수집되었다. 이에 면담은 주로 연구참여자들이 선호하는 장소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졌다. 면담 내용은 모두 녹음되었으며 녹음된 자료는 전사 후, 분석에 필요한 원자료(raw data)로 만들었다.

③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Creswell(2013)이 제안한 질적 사례연구방법의 절차에 따라 분석되었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이 가진 개별적인 경험을 기술하기 위해 ‘사례 내 분석’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이 겪었던 경험, 생각, 묘사 등을 상세히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부채에 대하여 다루는 이 연구의 특성상 연구참여자들의 익명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연구참여자들의 생활을 모두 드러내기보다는 미취업으로 인한 어려움과 부채부담에 대한 사건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자 했다.

이후,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의 공통된 주제를 찾기 위해 ‘사례 간 분석’을 실시하였다. 사례 간 분석은 이 연구의 목적에 맞추어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총 12개의 주제를 추출할 수 있었다.

④ 연구의 윤리적 고려

윤리적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심층면담 전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에 대하여 고지하고 사전 동의를 받았다. 또한, 연구참여에 대한 보상과 연구의 취지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다. 이 연구가 1차 자료를 활용하여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연구과정 중 발생하는 개인정보, 연구내용의 녹취 여부, 비밀보장, 익명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고 연구참여자가 연구참여를 중단하기 원한다면 철회할 수 있음을 고지했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의 음성이 녹음된 자료를 모두 익명화했으며 녹음 파일을 암호화하여 자료를 관리했다. 이 연구의 수행 과정에서 연구참여자의 과거 경험을 떠올리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이 부정적인 정서 반응이 일어날 시 연구를 즉각 중단하고 정신건강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 단체에 협조를 구했다. 더불어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에 기반을 둔 원활한 연구진행을 위해 질적연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인을 동료집단으로 구성하여 감수를 받았다.

4) 연구결과

(1) 부채부담 실태 분석결과¹⁵⁾

①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아래 [표 3-3-3]는 미취업 청년의 일반적 특성 제시한 것이다. 이 연구의 분석 대상은 미취업청년 개인의 부채이다. 청년 개인이 보유하는 부채는 이행기의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청년 개인의 특성뿐만 아니라 부모의 소득수준이나 사회경제적 지위와 같은 가구배경 및 특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미취업 청년은 남성 52.3%, 여성 47.7%로 유사했지만, 남성의 비율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20~24세 38.3%, 25~29세 31.3%로 미취업 청년 중 20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 22.3%, 대학교 재학 33.4%, 대학교 졸업 이상 44.3% 순으로 대학교 졸업 후에도 노동시장 진입이 지연되고 있는 청년의 어두운 고용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이는 미취업 청년의 현재 상태를 살펴보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미취업 청년의 현재 상태는 비재학 미취업 62.4%, 대학교 재학 33.4%, 대학원 재학 4.2%로 미취업 청년 중 상당수가 정규교육기관에 재학하지 않으면서 미취업 상태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미취업청년 개인의 본인 소득은 평균 116만 원으로 나타났다. 본인 소득을 5분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1분위에 속하는 청년은 42.4%로 중간인 2~4분위에 속하는 청년(50.3%)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5분위에 속하는 청년(7.4%)과 다소 큰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생활비 부족을 경험한 미취업 청년은 48.4%로 나타났다. 이는 미취업 청년의 상당수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15) 모든 계량적 분석은 서울청년패널조사 원자료에서 제공하는 모수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미취업 청년의 가구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구 내 지위는 가구주 33.4%, 가구원 66.6%로 가구원이 가구주보다 약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청년 가구주의 연령은 20대 이하 72.8%, 30대 27.2%로 20대 이하 가구주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은 58.1%,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는 미취업 청년은 64.2%로 나타났다. 이는 미취업 상태에 있는 청년의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는 미취업 청년이 부채를 보유했을 때 겪을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가구소득을 5분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1분위에 속하는 미취업 청년 비중이 28.6%로 본인소득의 1분위 비중보다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이는 미취업 청년의 경제적 상황(소득)이 다른 가구원, 특히 부모의 소득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부모의 소득 수준은 하층 14.6%, 중간층 69.2%, 상층 16.3%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 역시 본인 소득 분포 중 1분위가 42.4%인 것과 대조된다.

[표 3-3-3] 분석 대상의 일반적 특성

구분			n	%	
개인 특성	성별(%)	남성	933	52.3	
		여성	852	47.7	
	연령(%)	18~19세	201	11.3	
		20~24세	684	38.3	
		25~29세	559	31.3	
		30~35세	341	19.1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397	22.3	
		대학교 재학	596	33.4	
		대학교 졸업 이상	791	44.3	
	현재 상태(%)	비재학 미취업	1,114	62.4	
		대학교 재학	596	33.4	
		대학원 재학	74	4.2	
본인 소득(만 원)	평균(sd)		116(mean)	124(sd)	
	분포	1분위	756	42.4	
		2~4분위	897	50.3	
		5분위	132	7.4	
생활비 부족경험(%)	있음	865	48.4		
	없음	920	51.6		
가구 배경	가구 내 지위(%)	가구주	597	33.4	
		가구원	1,188	66.6	
	청년 가구주 연령(%)	20대 이하	435	72.8	
		30대	163	27.2	
	부모동거 여부(%)	동거	1,036	58.1	
		비동거	749	41.9	
	부모의 경제적 지원(%)	경제적 지원받음	1,146	64.2	
		경제적 지원받지 않음	639	35.8	
	가구균등화 소득(만 원) *결측값 제외	평균(sd)		234(mean)	146(sd)
		분포	1분위	497	28.6
			2~4분위	971	55.9
			5분위	270	15.5
현재 부모의 소득수준(%)	하	260	14.6		
	중	1235	69.2		
	상	290	16.3		
합계			1,785	100%	

② 미취업 청년의 부채부담 현황

미취업 청년의 부채부담 현황은 아래 [표 3-3-4]와 같다.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의 비중은 35.3%로 나타났으며 총부채규모는 평균 3,468만 원으로 확인되었다. 연소득 대비 총부채 금액 100%를 초과하는 과중채무 보유 비중은 26.0%로, 미취업 청년 본인의 소득이 평균 116만 원(위의 표 참조)인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총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평균 33.5%로 확인됐다.

부채용도를 살펴보면 주택비용 51.0%, 학자금 23.5%, 생활비 16.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의 부채문제가 주택비용 및 학자금대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확인된 바(금융위원회, 2017; 박정민 외 2018; 박수민, 2022)와 일치하며 생활비 등의 생계형 부채도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부채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이 매우 부담된다고 응답한 미취업 청년은 17.5%로 확인됐다.

[표 3-3-4] 미취업 청년 부채부담 현황

구분		분석결과	사례 수(n)
부채 보유(%)		35.3	1,782
총부채규모(만 원)		3,468	1,782
연소득 대비 총부채금액 100% 초과(%)		26.0	1,376
총자산 대비 부채비율(%)		33.5	1,405
부채용도(%)	학자금	23.5	633
	생활비	16.9	
	주택비용	51.0	
	취업준비 학원 및 자격증 취득 비용	2.4	
	창업자금	0.8	
	채무상환	3.3	
	기타	2.2	
부채 원리금 상환 매우 부담됨(%)		17.5	633

③ 미취업 청년 개인특성에 따른 부채부담 분석

앞에서 제시한 미취업 청년의 개인특성 중 현재 상태, 본인소득 분포, 생활비 부족 경험 여부에 따라 미취업 청년의 부채부담 실태를 분석하였다.

[표 3-3-5]는 미취업 청년의 현재 상태에 따라 부채부담 실태를 분석한 것이다. 부채를 보유한 미취업 청년의 비중은 대학생 42.3%, 비재학 미취업자 42.0%로 유사했으며 재학생은 22.1%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총부채규모와 과중채무 비중, 총자산 대비 부채비율 모두 비재학 미취업자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비재학 미취업자의 부채용도 중 주택비용이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과 연결된다. 대학생의 경우 주택비용을 제외하고 학자금 목적 부채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총부채규모가 평균 2,007만 원으로 확인되었으며 비재학 미취업자와 대학생에 비해

부채 총량 관련 수치들이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대학교 재학생은 부모의 지원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연령대임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으로 볼 수 있으나 대학교 재학생의 부채부담을 과소평가하기 어렵다. 이행의 측면에서 볼 때 졸업 후 부채를 상환하지 못한 상태에서 미취업 기간이 길어질 경우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원 재학생은 비재학 미취업자에 비해 총부채규모가 낮게 나타났으나 부채 보유 비중이 42.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학원 재학생도 주택비용이 38.1%로 가장 높지만 학자금 31.3%, 생활비 비중이 23.3%로 비재학 미취업자나 대학교 재학생보다 다소 높다. 이는 대학원생의 경우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생계형 부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대학원 재학생이 부채원리금 상환 부담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5] 현재 상태에 따른 부채부담

구분		비재학 미취업	대학교 재학생	대학원 재학생	사례 수(n)
부채 보유(%)		42.0	22.1	42.3	1,782
총부채규모(만 원)		4,261	2,007	3,316	1,782
연소득 대비 총부채금액 100% 초과(%)		32.1	12.9	30.4	1,376
총자산 대비 부채비율(%)		38.7	23.2	31.9	1,405
부채용도	학자금	22.0	27.1	31.3	633
	생활비	16.1	18.1	23.3	
	주택비용	52.5	48.7	38.1	
	취업준비 학원 및 자격증 취득 비용	2.5	1.7	3.6	
	창업자금	1.1	0.0	0.0	
	채무상환	3.9	2.0	0.0	
	기타	2.0	2.5	3.7	
부채 원리금 상환 매우 부담됨(%)		18.8	11.1	25.1	633

[표 3-3-6]는 미취업 청년의 본인 소득분위에 따른 부채부담 실태를 분석한 것이다. 전체 미취업 청년의 본인소득을 5분위로 구분하고 1분위, 2~4분위, 5분위로 나누어 비교분석 하였다. 본인 소득이 높은 분위에(소득수준) 속할수록 부채 보유 비중, 총부채규모, 과중채무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심리적 측면에서도 본인 소득이 높은 분위에 속할수록 부채 원리금 상환에 더 많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부채용도 중 주택비용 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는 한편 과중채무나 부채상환에 대한 부담을 경험하는 이들 중 상당의 사람들이 중간소득 계층 이상에 속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탁장한·박정민, 2017).

[표 3-3-6] 본인 소득분위에 따른 부채부담

구분		본인소득			사례 수(n)
		1분위	2~4분위	5분위	
부채 보유(%)		25.5	41.8	48.3	1,782
총부채규모(만 원)		2,551	3,774	6,662	1,782
연소득 대비 총부채금액 100% 초과(%)		23.3	25.9	33.7	1,376
총자산 대비 부채비율(%)		29.0	36.2	35.2	1,405
부채용도	학자금	26.3	23.3	16.1	633
	생활비	17.0	17.5	12.7	
	주택비용	50.4	49.2	63.2	
	취업준비 학원 및 자격증 취득 비용	2.2	2.6	1.8	
	창업자금	0.5	0.8	1.8	
	채무상환	2.1	4.0	3.0	
	기타	1.6	2.6	1.5	
부채 원리금 상환 매우 부담됨(%)		13.1	19.2	20.7	633

아래 [표 3-3-7]은 생활비 부족 경험 여부에 따라 부채부담 실태를 분석한 것이다. 생활비 부족 경험이 있는 경우 부채 보유 비중은 42.7%, 생활비 부족 경험이 없는 경우 부채 보유 비중은 28.4로 큰 차이가 나타났다. 총부채규모 생활비 부족 경험이 있는 청년이 평균 3,503만 원으로 더 높게 나타났으나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과중채무 비중은 생활비 부족 경험이 있는 청년 28.4%, 생활비 부족 경험이 없는 청년 23.5%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총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각각 41.1%, 26.0%로 큰 차이를 보였다. 부채용도는 두 집단 모두 주택비용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비중의 차이가 컸고, 생활비 부족 경험이 있는 청년은 생활비가 21.5%로 생계형 부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부채원리금 상환 부담 역시 생활비 부족 경험이 있는 청년이 더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3-7] 생활비 부족 경험 여부에 따른 부채부담

구분		생활비 부족경험 있음	생활비 부족경험 없음	사례 수(n)
부채 보유(%)		42.7	28.4	1,782
총부채규모(만 원)		3,503	3,435	1,782
연소득 대비 총부채금액 100% 초과(%)		28.4	23.5	1,376
총자산 대비 부채비율(%)		41.1	26.0	1,405
부채용도	학자금	25.9	20.0	633
	생활비	21.5	10.4	
	주택비용	43.2	62.0	
	취업준비 학원 및 자격증 취득 비용	3.1	1.3	
	창업자금	1.1	0.3	
	채무상환	3.4	3.2	
	기타	1.8	2.8	
부채 원리금 상환 매우 부담됨(%)		23.0	9.8	633

④ 미취업 청년의 가구 배경에 따른 부채부담 분석

먼저 미취업 청년 본인의 가구 내 지위에 따라 부채부담 실태를 분석한 결과는 [표 3-3-8]과 같다. 부채 보유 비중, 총부채규모, 과중채무 비중, 총 자산 대비 부채비율 모두 가구주가 가구원보다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이행기의 관점에서 보면 가구주인 청년은 가구원 청년에 비해 연령이 높고, 결혼과 독립으로 인한 주택 마련 등으로 나타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부채용도를 살펴봐도 알 수 있는데, 가구주 청년(55.8%)과 가구원 청년(47.2%) 모두 주택비용이 가장 높게 나타나지만 비율의 차이가 다소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른 부채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도 가구주 청년이 가구원 청년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3-3-8] 가구 내 지위에 따른 부채부담

구분		가구주	가구원	사례 수(n)
부채 보유(%)		46.4	29.8	1,782
총부채규모(만 원)		4,143	3,129	1,782
연소득 대비 총부채금액 100% 초과(%)		34.7	21.0	1,376
총자산 대비 부채비율(%)		40.3	29.8	1,405
부채용도	학자금	20.6	25.7	633
	생활비	16.4	17.2	
	주택비용	55.8	47.2	
	취업준비 학원 및 자격증 취득 비용	2.5	2.3	
	창업자금	1.5	0.2	
	채무상환	2.8	3.7	
	기타	0.4	3.6	
부채 원리금 상환 매우 부담됨(%)		23.4	12.9	633

아래 [표 3-3-9]는 미취업 청년 본인이 가구주인 경우, 가구주 연령을 20대 이하 가구주와 30대 가구주로 구분하여 부채부담 실태를 분석한 것이다. 부채 보유 비중, 총부채규모, 과중채무 비중, 총자산 대비 부채비율 모두 30대 가구주가 20대 이하 가구주보다 높았고 차이도 크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부채 원리금 상환에 대한 심리적 부담도 30대 가구주가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부채의 용도를 보면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20대 이하 가구주와 30대 가구주 모두 주택비용 비중이 가장 높지만 30대 가구주는 주택비용 비중이 월등히 높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으로 30대 가구주의 부채용도 중 학자금 비중 11.8%로 나타났다. 이는 20대 이하 가구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지만 결코 낮은 수준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는데, 주로 20대 대학생 시기에 받았던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못한 경우 결혼과 자녀출산으로 인한 이사, 전세 입주, 주택 구입 등 목돈이 필요한 30대에 부채부담이 누적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3-3-9] 청년 가구주 연령에 따른 부채부담

구분		20대 이하 가구주		30대 가구주	
		분석결과	사례 수(n)	분석결과	사례 수(n)
부채 보유(%)		39.6	438	64.6	158
총부채규모(만 원)		2,466	438	8,655	158
연소득 대비 총부채금액 100% 초과(%)		28.0	354	51.0	142
총자산 대비 부채비율(%)		37.3	349	47.3	145
부채용도	학자금	26.0	147	11.8	102
	생활비	16.7		15.8	
	주택비용	49.3		66.4	
	취업준비 학원 및 자격증 취득 비용	2.8		2.1	
	창업자금	1.9		0.9	
	채무상환	2.7		3.0	
	기타	0.7		0.0	
부채 원리금 상환 매우 부담됨(%)		21.0	147	27.2	102

아래 [표 3-3-10]은 미취업 청년의 가구소득 분위에 따라 부채부담 실태를 분석한 것이다. 본인소득과 마찬가지로 전체 미취업 청년의 가구소득을 5분위로 구분하고 1분위, 2~4분위, 5분위로 나누어 비교분석 하였다. 부채 보유 비중은 2~4분위가 37.1%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앞의 본인소득분위별 분석결과와 달리 1분위에 속하는 청년이 5분위에 속하는 청년보다 부채 보유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또한 총자산 대비 부채 비율 역시 1분위에 속하는 청년이 5분위에 속하는 청년보다 높다. 이는 가구 배경에 따른 부채의 계층화 가능성을 시사한다.

[표 3-3-10] 가구소득 분위별 부채부담

구분		가구소득(균등화)			사례 수(n)
		1분위	2~4분위	5분위	
부채 보유(%)		35.4	37.1	29.8	1,735
총부채규모(만 원)		2,552	3,746	4,246	1,735
연소득 대비 총부채금액 100% 초과(%)		23.1	27.9	23.5	1,366
총자산 대비 부채비율(%)		38.0	34.2	24.2	1,370
부채용도	학자금	27.1	22.6	20.9	620
	생활비	22.4	14.5	15.5	
	주택비용	41.2	53.9	58.6	
	취업준비 학원 및 자격증 취득 비용	3.4	1.9	1.3	
	창업자금	0.6	1.1	0.0	
	채무상환	2.7	3.7	2.4	
	기타	2.5	2.3	1.4	
부채 원리금 상환 매우 부담됨(%)		16.0	17.6	20.7	620

아래 [표 3-3-11]은 미취업 청년이 인식하는 현재시점의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부채부담 실태를 분석한 것이다¹⁶⁾. 부모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부채 보유 비중, 총부채규모, 과중채무 비중, 총자산 대비 부채비율 모두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발견되며 심리적인 부채부담 역시 부모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난다. 이는 부모세대와 청년세대 간 사회경제적 지위가 전이되는 부채의 계층화 현상(변금선, 2019)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표 3-3-11]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른 부채부담 분석

구분		하층	중간층	상층	사례 수(n)
부채 보유(%)		54.1	35.4	18.2	1,782
총부채규모(만 원)		3,857	3,775	1,807	1,782
연소득 대비 총부채금액 100% 초과(%)		32.5	27.7	12.5	1,376
총자산 대비 부채비율(%)		49.8	34.0	16.5	1,405
부채용도	학자금	32.1	20.9	21.9	633
	생활비	18.8	15.5	23.0	
	주택비용	37.7	56.2	43.8	
	취업준비 학원 및 자격증 취득 비용	2.8	2.5	0.0	
	창업자금	0.8	0.6	2.0	
	채무상환	4.4	2.9	3.6	
	기타	3.3	1.4	5.8	
부채 원리금 상환 매우 부담됨(%)		30.4	14.3	9.8	633

부모의 경제적 지원 여부에 따른 부채부담 지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부채의 계층화 현상은 더 여실히 드러난다. 부채 보유 비중은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없는 청년이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있는 청년보다 약 2배가량 높게 나타나며 총부채규모도 약 2,000만 원 높게 나타난다. 과중채무 비중과 총자산 대비 부채비율 역시 마찬가지로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없는 청년이 월등히 높다. 이는 원리금 상환에 대한 심리적 부채부담으로도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¹⁶⁾ 이 연구의 분석자료에서 부모의 실제 소득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청년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부모의 소득수준을 대안적 지표로 사용하였다

[표 3-3-12] 부모의 경제적 지원 여부에 따른 부채부담

구분		부모의 경제적 지원 있음	부모의 경제적 지원 없음	사례 수(n)
부채 보유(%)		26.9	50.6	1,782
총부채규모(만 원)		2,769	4,721	1,782
연소득 대비 총부채금액 100% 초과(%)		19.9	35.3	1,376
총자산 대비 부채비율(%)		26.3	45.3	1,405
부채용도	학자금	24.6	22.4	633
	생활비	15.9	17.8	
	주택비용	51.4	50.7	
	취업준비 학원 및 자격증 취득 비용	3.0	1.8	
	창업자금	0.6	1.0	
	채무상환	2.5	4.1	
	기타	2.0	2.4	
부채 원리금 상환 매우 부담됨(%)		12.0	22.8	633

부모와의 동거 여부에 따른 부채부담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의 경제적 지원 여부에 따른 분석 결과와 유사한 패턴이 나타났다.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청년은 동거하는 청년에 비해 부채보유 비율, 총부채규모, 과중채무, 총자산 대비 부채비율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원리금 상환에 대한 심리적 부담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3-3-13] 부모 동거 여부에 따른 부채부담

구분		부모와 동거	부모와 비동거	사례 수(n)
부채 보유(%)		27.3	46.6	1,782
총부채규모(만 원)		3,007	4,106	1,782
연소득 대비 총부채금액 100% 초과(%)		19.7	33.7	1,376
총자산 대비 부채비율(%)		27.5	41.2	1,405
부채용도	학자금	28.8	19.2	633
	생활비	16.2	17.4	
	주택비용	46.2	54.9	
	취업준비 학원 및 자격증 취득 비용	1.8	2.9	
	창업자금	0.4	1.1	
	채무상환	3.6	3.1	
	기타	3.0	1.5	
부채 원리금 상환 매우 부담됨(%)		12.6	21.5	633

(2) 질적 사례연구 결과

① 사례 내 분석

앞서 살펴보았던 연구 대상자를 중 총 7명의 연구참여자들을 1:1심층면담할 수 있었다. 연구자들은 최대한 다양한 사례를 가진 연구참여자들을 모집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연령, 부채액수, 부채 용도(목적) 등 최대한 다양한 사례를 가진 연구참여자로 선별하여 모집하였다. 모집된 연구참여자들을 1:1심층면담하여 사례 내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연구참여자 1

‘연구참여자 1’은 23세의 여성으로 약 4년 전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 연구참여자는 자신이 대출을 받으며 대학생활을 할지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집안이 부유하지는 않지만 대출까지 받으며 학교생활을 해야 하는지 의문도 있었다. 처음에는 3, 4백만 원을 대출받아 학교생활을 했지만 또 다른 학기가 다가오자 다시 대출을 받고 매 학기 대출을 반복하여 결국 1,000만 원이란 빚을 지게 되었다. 연구참여자는 학교생활을 하며 빚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연구참여자는 다른 학생들보다 장학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학과 대표직을 맡고 남들에 비하여 공부하는 시간을 늘리면서 성적장학금을 기대하기도 하였다. 동시에 빨리 경제활동을 하며 빚을 갚아야 한다는 생각에 대학생활 동안 휴학을 한 적도 없었다. 결국 연구참여자는 대학교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하는데 성공하였다. 취업을 하는 동안에도 연구참여자는 자신의 대출금을 빨리 청산해야 한다는 부채부담에 시달렸다. 매달 월급이 들어올 때마다 학자금 대출을 갚아가며 생활을 하였지만, 다른 직종에 비해 고된 일이 많아 소진되어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당시 그녀가 일했던 곳은 촬영 현장이었으며 대학에서 영상학과를 전공한 후, 취업을 할 수 있던 관련 직종이었다. 현재 일을 하지는 않지만 후배나 선배들의 졸업작품이나 포트폴리오 작업을 도와주며 간간이 돈을 벌고 있다. 현재 미취업자라는 현실을 극복하고 자신에게 남은 빚을 생각하며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빚을 갚기 위해서라면 직장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다. 현재 미취업과 과거 학자금 대출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은 경험이 많다고 진술한 바 있다.

나. 연구참여자 2

‘연구참여자 2’는 30세의 남성으로 현재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한 후, 늦은 나이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하고 현재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과거에 그는 해외 기업에서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일을 한 적이 있었다. 이러한 장점을 활용하여 현재 IT기업 쪽으로 취업을 생각하고 있지만 현재 취업 준비기간만 약 11개월에 달하고 있다. 현재 IT와 관련된 기업이 많이 늘고 있지만 그만큼 연구참여자가 지원하는 기업들에 많은 사람이 취업을 희망하고 있어 취업이 쉽지만은 않다. 그는 2년 전, 약 6,3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주거공간을 마련하였다. 또한 2021년에 생활비를 사용할 명목으로 약 600만 원 정도의 대출을 추가적으로 받았다. 현재 취업을 하고자 포트폴리오나 이력서를 내는데 필요한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새로운 컴퓨터를 구매하고자 추가적인 대출을 받았다. 연구참여자 2는 현재 부채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정도는 아니지만

현재 대출금을 갚으며 지출해야 하는 이자 때문에 고민이 많다. 이자율이 점점 올라갈수록 연구참여자가 부담해야 할 이자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취업을 하여 경제활동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현재 과거에 벌었던 돈과 사회복지무요원으로 근무하며 벌었던 돈으로 현재 생활 중이다.

다. 연구참여자 3

‘연구참여자 3’은 현재 24살의 대학생이다. 현재 서울에서 거주 중이며 서울 소재의 4년제 대학에 진학 중이다. 그러나 4학년부터 취업계 제도를 통해 졸업예정자로서 학교에 다니고자 현재 취업 준비 중이다. 연구참여자는 반도체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자 관련된 직종을 알아보고 있지만 연구참여자는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취업난을 몸소 겪고 있다. 취업을 준비한지는 몇 개월 되지 않았지만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구인건수가 줄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재 총 4,500만 원의 부채가 있어 이로 인한 고민을 하고 있다. 연구참여자는 과거에 170만 원의 학자금 대출이 있었으나 최근 모두 상환을 했다. 학자금 대출을 해결하여 부담은 덜하지만 여전히 연구참여자에게는 전세자금대출이 있어 이로 인한 부담을 갖고 있다. 연구참여자는 군대를 전역한 후, 복학을 하면서 학교 기숙사에서 머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연구참여자는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학점 시수로 인하여 전세 집을 알아보게 되었다. 결국, 연구참여자는 학교 근처의 반지하 원룸을 전세계약 하며 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되었다. 연구참여자는 현재 이자율이 많이 올라 전세대출을 받은 것을 후회하고 있는데, 다른 원룸의 월세와 이자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연구참여자는 그래도 전세대출을 빨리 갚고자 하는 욕심이 있어 간간히 학교에서 구인하는 근로장학생에 지원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부채를 모두 상환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취업을 하고자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그가 취업계 제도를 활용하는 이유 중 하나도 부채를 빠르게 상환하고자 하는 데 있다.

라. 연구참여자 4

‘연구참여자 4’는 현재 30살로 서울 소재의 한 대학에서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연구참여자는 본래 회계사로서 근무하고 있었지만 변호사가 되고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였다. 그는 대학원 과정과 생업을 함께 진행하고 싶었지만 대학원에서의 학점관리와 변호사 자격증을 위한 과정이 쉽지 않아 생업을 중단하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연구참여자는 학교 근처로 이사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전세자금을 위해 약 7,000만 원을 대출받게 된다. 월세에 비해 전세가 좀 더 지출이 적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하면서 연구참여자는 전세와 월세의 차이가 크게 줄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연구참여자는 생업을 중단한 지 약 5개월이 되었으며 현재 자신의 학비를 조금이나마 줄여보고자 학교에서 진행하는 교수님들의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한 학기에 약 200만 원 정도 금액을 장학금으로 받고 있다. 연구참여자는 과거 생업에 종사하다가 미취업자가 된 후, 수익이 사라져 전반적인 생활이 바뀌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연구참여자는 생활비를 줄이고자 보통 학교 식당에서 끼니를 해결하거나 친구들을 만나는 빈도 역시 줄

었다. 하지만 생활비가 부족하여 자신이 대학원 석사과정을 진행하며 생활비로 사용하고자 1,7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았다. 자신이 추가로 신용대출을 받으며 대학원에 입학한 것을 후회하기도 한다. 또래들과 비교를 하고 이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때문이다. 그런데도 연구참여자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고자 학업에 몰두하고 있다. 최대한 빠른 졸업 후, 취업이 부채를 상환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마. 연구참여자 5

연구참여자 5는 현재 28살의 미취업 여성이다. 연구참여자 5는 한 중소기업의 마케팅 부서에서 근무하다가 1년 전 퇴사를 한 후, 현재 다른 직렬에서 근무하고자 재취업을 준비하는 상황이다. 이용자는 작년에 회사를 다니고 있을 당시, 이사를 위해 '중소기업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약 9,600만원의 빚을 지게 되었다. 과거 학자금 대출을 상환했던 경험도 있었으며 꾸준히 근무한다면 갚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구참여자 5는 스스로 늦은 나이라고 생각하지만 자신이 어릴 때부터 일하고 싶어했던 디자인 직렬에서 근무하고자 준비 중이다. 이로 인해 취업 준비 비용과 대출금의 이자를 갚기 위해 하루 4시간씩 카페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고 있다. 연구참여자 5는 카페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지만 이자를 내고 생활비를 쓰기에는 수당이 많이 부족하다. 이로 인해 연구참여자 5는 가급적이면 식사를 집에서 해결하고 있다. 또한 외출을 가급적 피하려고 하고 주변 사람들을 만나는 빈도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연구참여자 5는 주변 또래들에 비해 수입이 적으며 자신이 현재 직업이 없다는 점에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낀다. 이로 인해 연구참여자 5는 최대한 빠른 취업을 위해 구직을 원하고 있지만 현재 자신이 희망하는 직렬로의 취업이 마음처럼 잘 되지 않는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취업 자리도 많이 사라졌으며 연구참여자 5가 과거에 근무했던 이력이 근무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있어 취업준비가 길어지고 있다. 연구참여자 5는 미취업 상태와 부채부담을 주관적으로 생각할 때, 타인보다 많이 부담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연구참여자 5는 부채와 현재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 우울감이 많이 든다. 연구참여자 5는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자신감이 과거에 비해 많이 없어졌으며 자존감도 낮아진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연구참여자 5 스스로도 정신건강에 좋지 않은 생활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연구참여자 5는 이러한 어려움에도 계속해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만 면접 전형에서 떨어졌을 때, 떨어진 원인을 자신감의 하락이라고 생각한다. 연구참여자 5 역시 미취업과 부채를 안고 사는 현실을 벗어나고자 하지만 악순환은 반복되고 있다.

바. 연구참여자 6

연구참여자 6은 현재 33살의 취업준비생이다. 연구참여자 6은 한 제조업체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약 10개월 전 퇴사를 하게 되었다. 연구참여자 6은 영업사원으로 일하며 고객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가 상당했으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고민하다가 7급 행정직 공무원으로서 재취업하고자 퇴사를 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현재 10개월 동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연구참여자 6은 대학시절에 학자금 대출로 2,100만 원을 받게 되었고 현재 약 600만 원 정도가 남아있다.

동시에 주택담보대출로 11,000만 원의 부채가 있다. 매달 빠져나가는 이자와 상환금을 포함하면 50만 원이 훌쩍 넘는다. 이자와 상환금이 통장에서 빠져나갈 때는 대출을 받았던 과거가 싫게만 느껴진다.

연구참여자는 늦은 나이에 직업이 없다는 점과 부채가 있음에 심리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 현재 또래에 비하여 늦은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과 미취업임에도 불구하고 빚을 지고 있다는 생각에 심적 압박감을 많이 느낀다. 이 때문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는 압박감 역시 다른 수험생에 비해 크게 와 닿는다. 그러나 경제활동을 일절 하지 않게 되면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에 놓여 친척들의 사업을 파트타임으로 도와주고 있어 온전히 공부에만 집중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생활이 지속되면서 합격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져만 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또래 친구들을 만났을 때,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스스로 친구들을 만나는 자리도 피하게 된다. 연구참여자는 시험의 합격만이 자신의 생활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사. 연구참여자 7

연구참여자 7은 현재 36살의 주부이다. 연구참여자는 약 4년 전 육아를 위해 퇴직하였다. 그녀는 2013년에 전세자금대출로 약 1,800만 원을 대출받았으며 현재까지 약 800만 원을 상환하였다. 현재 연구참여자는 두 아이를 양육하고 있으며 남편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연구참여자는 막내 아이가 현재 보육시설에 입학하지 못해 재취업 시기를 미루고 있다. 아이가 보육시설에 입학하기도 어려우며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아무 보육시설에 맡기기에 걱정이 되기 때문이다. 연구참여자는 결혼 전에는 휴대폰 부품을 조립하고 생산하는 업체에서 오래 일했었다. 이 때문에 퇴직한 직후에는 재취업에 자신감이 있었다. 그러나 미취업 상태를 유지한 4년 동안 그녀는 재취업에 대한 부담감과 경력단절 여성이 될 것이라는 두려움은 점차 커져갔다. 주변에 있는 여성들을 보아도 재취업에 성공한 사례는 극히 드물고 경력단절의 어려움으로 인해 전업주부의 삶을 사는 경우를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재취업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재 남편이 벌고 있는 수입으로는 아이 두 명을 양육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까지 부부가 모은 돈이 많지 않아 연구참여자 스스로도 취업 부담이 있는 상황이다. 현재 약 1,000만 원의 부채가 남아있지만 매달 나가는 이자만으로도 버겁다고 느낀다. 이로 인해 연구참여자의 막내 아이가 보육시설에 들어가는 것과 동시에 구직활동을 하고자 현재 취업준비 중이다.

② 사례 간 분석

앞서 제시한 사례 내 분석에서는 연구참여자 개개인이 가진 특성과 그들의 경험에 대해 비교 및 분석할 수 있었다. 연구자들은 사례 내 분석 과정을 바탕으로 총 12개의 공통범주를 추출할 수 있었으며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을 ‘대출의 계기’, ‘부채부담’, ‘부채상환을 위한 노력’, ‘미취업과 부채부담의 결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연구자들이 구분한 결과는 다음 [표 3-3-14]와 같다.

[표 3-3-14] 사례 간 분석의 공통범주

구분	공통범주	사례 내 주제
대출의 계기	학업을 위한 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장학금의 대상자에 선정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을 받게 됨(연구참여자 1) - 자신이 더 필요한 공부를 하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을 받게 됨(연구참여자 4) - 경제적인 상황이 어렵지만 학업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학자금 대출을 받게 됨(연구참여자 3, 6)
	생활비 마련과 생활고 극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을 위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자 대출을 받아 구매함(연구참여자 2) - 당장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 대출을 받음(연구참여자 4)
	주택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세금이 부족하여 대출을 받게 됨(연구참여자 2, 3, 4, 5, 7) - 보증금을 낼 돈이 부족하여 대출을 받게 됨(연구참여자 2, 6) - 자녀를 위해 조금 더 넓은 집에서 생활하고자 대출을 받게 됨(연구참여자 7)
부채부담	이자 상환의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달 지출되는 이자가 부담스럽게 느껴짐(연구참여자 1-7) - 이자를 상환하게 되면 생활비가 줄어든다고 줄어든 생활비로 한 달을 생활해야 함(연구참여자 3, 4, 5, 6)
	미래에 대한 걱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을 더 받아야 하지만 현재 빚을 생각하면 미래에 대한 걱정이 밀려옴(연구참여자 7) - 또 다시 대출을 받아 현재보다 더 생활이 어렵게 될 것 같다는 걱정이 됨(연구참여자 1, 7) - 대출금을 모두 상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됨(연구참여자 1-7)
부채 상환을 위한 노력	생활습관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도록 과도하게 절약하게 됨(연구참여자 1-7) - 외부에 있게 되면 돈을 쓰게 되어 집에서 잘 나가지 않게 됨(연구참여자 1, 2) - 돈을 절약하고자 지인들과 만남을 자제함(연구참여자 3, 4, 6)
	재취업 및 취업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이 어렵다는 것을 알지만 꾸준히 이력서를 내고 있음(연구참여자 1, 2, 3, 5) - 취업시장에서 남들과 경쟁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것은 가리지 않고 시도함(연구참여자 1, 2, 3, 5) - 늦은 나이지만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고자 함(연구참여자 6) - 육아와 함께 일을 병행하고자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연구참여자 7)
	파트타임 근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끔 있는 촬영 일이나 친구들의 포트폴리오 작업을 도와주는 일을 간간히 함(연구참여자 1) - 부채를 상환하고자 친척들의 사업체에서 일을 함(연구참여자 6) - 부채의 이자를 갚고자 카페에서 하루 4시간씩 일을 함(연구참여자 5) - 학교에서 모집하는 근로프로그램에 참여함(연구참여자 1, 3, 4)
미취업과 부채부담 의 결과	상대적 박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사람들이 출근하는 모습을 볼 때 부러움(연구참여자 1, 2) - 타인보다 빚이 많고 가진 것이 없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짐(연구참여자 6, 7) - 다른 사람들에 비해 사회진출이 늦었다는 생각이 듦(연구참여자 5, 6) - 사회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들과 내 자신을 비교하게 됨(연구참여자 3, 4, 5, 6)
	사회적 고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을 만나면 자꾸 타인과 비교를 하게 되어 주로 집에서 나가지 않으려함(연구참여자 1, 5) - 집에서 취업준비만 하다 보니 인간관계를 맺을 수 없어 소외감을 느낌(연구참여자 1, 2)
	정신건강의 폐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빚 규모를 생각하면 기본이 좋다가도 우울해지거나 불안해짐(연구참여자 2, 4, 5, 7) - 어려운 상황의 원인으로 자신에게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듦(연구참여자 5) - 빚을 생각하면 인생이 막막하다고 생각됨(연구참여자 3, 6) - 빨리 취업을 해야겠다는 심적 압박(연구참여자 5) - 취업을 위한 시험에 붙어야 한다는 압박과 불안감(연구참여자 6)
	대출 상환 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받은 금액을 갚기 버거워 대출이지만 납부하고 대출금을 갚는 것을 포기함(연구참여자 2) - 낮은 이자의 대출같은 경우 돈이 있더라도 상환을 하지 않고 기다림(연구참여자 6)

가. 학업을 위한 대출

연구참여자 1, 4, 6은 학업을 마치고자 대출을 받게 되었다. 이들은 모두 학자금 대출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연구참여자 1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소득연계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였지만, 가족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는 이유로 해당되지 않았다. 이에 연구참여자 1은 학자금 대출을 받게 되었다. 연구참여자 4는 자신이 더 필요한 공부를 하기 위해 대학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게 되었다. 연구참여자 4의 경우에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데, 학비를 충당하기 위해 신용대출을 받았다. 연구참여자 6은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학업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학자금을 대출받아 학교에 재학하게 되었다. 연구참여자 6의 경우에는 자신이 목표했던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니던 학교를 졸업해야 했다. 이 이유로 총 2,100만 원의 학자금 대출을 받게 되었다. 연구참여자 6의 경우 대학생활 2년동안 학자금 대출을 받아왔다. 총 3명의 연구참여자 3명은 배움과 자신의 미래를 위해 대출을 받아 현재까지 상환 중이다.

“저... 그 학자금 대출이라 20살부터 입학했을 때부터 빚을 지고 들어간 거죠. (중략) 학교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그냥 1,000만 원 빚을 지게 된 거예요. 그냥 입학한 거밖에 없는데... 몇 학기 지나니까 그냥 빚이 천...(연구참여자 1)”

“학자금 대출이 조금 남았어요. 한 600 정도? 그래서 이거랑 동시에 주택담보대출을 들어가게 되었거든요. 지금 아무래도 학자금 대출부터 먼저 갚아나가야 하는데, 당장 제가 이걸 갚는다고 하면 생활이 힘들어져서 천천히 갚으려고 하는 중이에요(연구참여자 4).”

나. 생활비 마련과 생활고 극복

연구참여자 2와 4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았다. 연구참여자 2의 경우 취업을 위한 작업이 필요한 컴퓨터를 구매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다. 그의 경우에는 IT와 관련된 직무경력이 있었으며 재취업 역시 IT 직렬로 희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컴퓨터가 필요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연구참여자 4 역시 연구참여자 4와 마찬가지로 당장 수입원이 없었으며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게 되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여기저기 쓴다고... 대출을 받았는데, 그... ‘햇살론17’(생계자금 대출)으로 대출을 받았어요. 당장 직업이 없는데 또 생활은 해야 하니까요. (중략) 생활비 목적으로 이제 대출을 하게 되었는데... 그거로 조금 조금씩 생활도 했고... 제가 이제 컴퓨터 쪽에서 일을 하다가 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컴퓨터가 갑자기 고장이 나서... 컴퓨터를 구매하려고 대출을 받았거든요. 일단 컴퓨터가 있어야 되니까...(연구참여자 2)”

17) 햇살론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대출시스템이다. 햇살론은 크게 ‘햇살론 생계자금 대출’과 ‘햇살론 긴급생계자금’으로 구분된다.

다. 주택 마련

연구참여자 1을 제외한 모든 연구참여자는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전세금 마련(연구참여자 2, 3, 4, 5, 7), 보증금 마련(연구참여자 2, 6)과 이사(연구참여자 7)를 목적으로 한 대출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주거마련을 위한 대출을 한 연구참여자들(연구참여자 2, 3, 4, 5, 6, 7)이 가장 많았다는 점에서 청년들의 주거 문제는 곧 부채부담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기숙사가 떨어져서... 기숙사에 살면 월 7만 원씩만 내고 살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저는 학점이 모자라서 기숙사 신청했는데 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월세를 알아보다가 결국에는 전세로 왔는데, 제가 전세대출 받을 때는 최대 7천만 원까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1억까지가 가능한데... 그래서 뭐 7천만 원 정도면 서울 반지하 정도밖에 못 구하니까 반지하 살게 되니까... 지상에 있는 원룸을 포기하게 된 거죠(연구참여자 3).”

“2020년 12월에 저 전세자금 때문에, 중소기업 전세자금 대출받았어요.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들한테 이자 좀 적게 주는 거로 해서 받았고, 취업준비하는 1년 동안은 갚아가면서 그냥 지내고 있어요. 이자는 보면 한... 한 달에 10만 원 정도가 나와요(연구참여자 5).”

“집 이제... 전세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리게 된 거예요. 이자랑 지금 원금이랑 같이 빠져나가더라고요. 지금 이제 1,000만 원 정도 남은 거 같아요. 월세를 연자니 돈을 다달이 내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그 돈 모아서... 좀 편한 게 낫잖아요? 애기도 키우면서... 그래서 전세를 얻으려고 그게 좀 더 나오니까...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죠(연구참여자 7).”

라. 이자 상환의 어려움

연구참여자들이 떠안게 된 부채는 신용 위험성은 있지만 다른 대출에 비해 그리 높은 편은 아니었다. 그런데도 대출을 받았기에 그에 상응하는 이자를 부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모든 연구참여자들은 매달 지출되는 이자가 부담스럽게 느껴졌다. 연구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금리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그만큼 매달 지출하는 금액이 적지 않으며 연구참여자들의 생활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었다. 이자로 인하여 생활비가 줄어들고 줄어든 생활비로 생활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연구참여자들(연구참여자 3, 4, 5, 6)도 있었다.

“사실 월세 생각하면... 전세자금대출 받아서 들어가는 게 낫긴 한데, 요즘에는 조금 이자율이 올라서 원래 한 5만 원만 내면 되는 건데 12만 원 내고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은 있죠. 그래가지고 원래 월세가 집주인이 뭐 고쳐줄 거 고쳐주고 뭐 그런 거 다 합해가지고 월세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전세라고 해가지고 고칠 거 고치고 돈 내고 하다 보니까 그냥 월세랑 똑같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빨리 갚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자율이 앞으로도 더 오를 거라고

예정이 되어있으니까는... 그러면은... 하아... (연구참여자 3)”

“이자도 최근에 금리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 전에 뭐 수입 여부와 관계없이 10만 원 가까이 나갔더라면 지금은 20만 원 가까이 나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수입이 없는데 지출이 커 저버리니까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연구참여자 4).”

“이자랑 원금이랑 갚다 보면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내야 하거든요? 그런데 5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부담이 좀 크죠. 1년에 600 정도인데 물론 지금 이제 학자금 대출은 일하고 있지 않으니까 자동으로 매월 나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연에 한 번씩은 100만 원 원금이랑 해서 갚게끔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뭐... 1년에 부채가 한 700 증반대가 나간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아무래도 부담이 좀 되죠(연구참여자 6).”

마. 미래에 대한 걱정

부채를 안게 된 연구참여자들은 미래에 대한 걱정이 앞서기 시작했다. 이들이 걱정한 내용으로는 ‘미래에 더 대출을 받아야 하지만 현재 경험한 부채부담을 생각하면 걱정이 밀려온다는 점’, ‘또다시 대출을 받게 되어 현재 안고 있는 부채부담보다 더 큰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는 걱정’, ‘대출금을 모두 상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 7의 경우, 자녀가 있다는 점과 모아둔 돈이 없다는 점 때문에 미래에 또 다른 대출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진 빚을 생각하면 미래에 대한 걱정이 밀려온다고 언급하였다. 연구참여자 1과 7은 또 다시 대출을 받아 현재보다 더 상황이 어렵게 될 것이라는 걱정이 앞섰다. 이들이 다시 대출을 받을 것이라는 걱정이 앞서는 요인으로는 미취업으로 인한 경제적 활동의 한계가 가장 손에 꼽혔다. 이는 미취업 상태와 대출이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한다. 또한, 모든 연구참여자는 대출금을 모두 상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걱정을 하였다. 이는 곧 부채부담으로 다가왔다.

“좀 빨리 해결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안되니까... 뭐가... 스무 살인데 그런 게 생기는 게 처음에는 엄청 심각한 일인 줄 알았었죠. 계속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돈이 쌓이니까... 그거를 보면서 언제 다 갚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거 같아요. 엄청나게 막연하고 그랬죠. (중략) 좀... ‘언제 갚지?’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좀 막 다른 사람들 보면 엄청 늦게까지 갚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남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초반에 갑자기 큰 부채가 생기니까 그때는 많이 무서웠던 거 같아요(연구참여자 1).”

“이거를 다 어떻게 갚아야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언제 다 갚나... 갚을 수는 있으려나 이런 생각 밖에 안 들죠(연구참여자 3).”

“애들이 커가니까... 지금 저희가 모아둔 돈이 정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을 또 받아야

하는데, 대출을 또 받으면 뭐... 당장은 괜찮겠죠. 전세자금대출 받아서 지금까지 갚는 것처럼 이자 갚으면서 원금 갚아가는 그 과정이 또 힘들 거란 말이죠. 계속 이렇게 대출받고 원금 갚아가고 이자도 갚아가고 그러는 고리의 순환이죠(연구참여자 7)."

바. 생활습관의 변화

부채는 곧 연구참여자에게 당장 해결할 수 없는 과제로 남게 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수익이 없는 상황 속에서 부채를 상환하는 방법은 다양하지 않았다. 이들은 돈의 지출을 아끼고자 절약하고자 했다.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을 살펴본 결과, 모든 연구참여자는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아끼고자 과도하게 절약을 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식사를 거른다거나 무언가를 구매할 때 가격이 싼 물품을 중심으로 구매하여 지출을 줄이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1과 2는 외출 하는 것을 지양하게 되었고 연구참여자 3, 4, 6은 지인과의 만남을 자제하게 되었다. 외출을 자제하는 습관은 곧 미취업과 부채부담의 결과인 사회적 고립감과 연결되기도 했다.

"아무래도... 대부분 친구들이랑 밥 먹고 그러는데... 이자도 내고 그러고 나서 아무래도 제가 쓸 수 있는 돈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밥 먹을 때도 좀 더 절약해서 먹고, 싼 데로 가고. 세 끼 먹을 거를 두 끼 먹는다던지... 아니면 아침 겸 점심으로 두유랑 이런 거로 때우고 저녁에 밥을 먹는다든지 그렇죠(연구참여자 3)."

"어... 아무래도 지금 자체에 수입이 없다 보니까... 돈을 더 아껴야 하고 예전에는 밥을 뭐 8,000 원짜리를 먹었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최대한 싼 거를... 특히 식비 같은 게 부담이 되는 게, 식비는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 가지고 서울에서 웬만한 평범한 밥 먹으려면 7,000원, 8,000원인데 하루 두 끼만 먹어도 16,000원 한 달 다 먹으면 거의 50만 원 되잖아요. 고정 지출이 되니까... 밥은 먹어야 하는데... (연구참여자 4)"

"아무래도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소득수준도 지금 너무 낮고 아무래도 알바이다 보니까 소득이 적기도 하고, 취업을 한다고 했을 때도 초봉이다 보니까 낮은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득이 계속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친구들 만나는 것도 10번 만날 거 5번 만나게 되고, 뭐 나가서 외식하는 횟수도 줄고 그랬던 거 같아요. 원래는 밖에서 많이 사먹고 그랬는데, 집에서 많이 해먹으려고 해요. 아무래도 그것도 다 생활비니까... 생활비를 줄여야만 하는 상황이라서... (연구참여자 5)"

"마트 같은 데도 가도 무조건 세일하는 거 사려고 하고 저 젊었을 때는 백화점가서 사려고 하고 했는데... 할인하는 거 몇백 원이라도 저렴한 거... 더 싼 거만 찾게 되고... 아무래도 빚이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중략) 이제 밖에 나가면 다 돈이니까 애기 핑계대고 못 간다고 하고 친구들이랑 약속도 안 잡고 못 간다고 하고... 거의 못 만나죠. 조금이라도 아껴야 하니까요(연구참여자7)."

아래 [표 3-3-15]는 부채 보유와 과중채무 여부에 따라서 기본적 생활과 관련한 미취업 청년의 결핍 경험을 분석한 것이다. 부채가 있는 미취업 청년은 부채가 없는 청년에 비해 결핍을 경험한 비중이 훨씬 높게 나타났으며 모든 영역에서 일관되게 높게 나타났다. 과중채무를 보유한 경우에도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결핍을 경험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부채가 있거나 과중채무를 보유한 미취업 청년의 약 20~30%가 가장 기본적인 삶을 구성하는 식생활에서 결핍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다.

[표 3-3-15] 부채 보유 및 과중채무 여부에 따른 미취업 청년의 결핍 경험 분석

[단위: %]

구분		공교육비 한 달 이상 미납	돈이 없어 병원 못감	본인 또는 가족 중 신용유이자	주거 관련 비용 미납	집 냉난방 유지 못함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 살 돈이 없었음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없었음
부채 유무	부채 없음	2.1	3.6	3.3	4.2	4.9	11.4	16.3
	부채 있음	7.3	12.5	10.5	13.4	12.0	21.4	30.4
과중채무 여부	과중채무 아님	3.6	6.6	5.2	6.8	7.6	15.0	22.0
	과중채무	6.9	10.3	10.4	11.7	9.6	19.9	29.4

주: 공교육비, 병원비, 신용유이자, 주거 관련 비용 미납, 냉난방 등의 결핍 경험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며, 식생활과 관련된 결핍경험은 자주 그렇다+가끔 그렇다의 합산 비율임

사. 재취업 및 취업 노력

연구참여자들은 부채를 청산하기 위해 경제활동을 하고자 노력했다. 모든 연구참여자가 취업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들이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방식이나 희망하는 일자리는 모두 달랐다. 연구참여자 1, 2, 3, 5는 취업이 힘든 현실을 마주하였고 이미 알고 있지만 꾸준히 구직활동을 하고 있었다. 또한, 취업시장에서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가리지 않았으며 다른 구직자들에 비해 돋보일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고 활용했다. 또 다른 연구참여자(연구참여자 6)는 자신이 늦은 나이임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지만 안정적으로 수입이 보장되는 공무원에 도전하고자 했다. 연구참여자 7의 경우에는 육아와 함께 일을 병행하고자 구직활동을 하는 중이었으며 자신의 배우자와 함께 경제활동을 하여 보탬이 되고자 하였다. 이들의 목표는 취업을 하여 자신의 빚을 청산하겠다는 것 하나였다. 이는 재취업과 취업 시도가 부채부담에서 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부채부담이 노동의 욕구를 높여주는 것은 아닌가? 이는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부채부담이 연구참여자들의 취업 욕구를 가중시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취업욕구와 취업 노력은 곧 연구참여자들에게 취업에 관한 심적 압박이나 정신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관해서는 조금 더 경험적인 자료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포트폴리오 만들면서 제가 애초에 생각하는 정도가... 항상 높아서... 마음대로 안 나왔을 때 화가 많이 나는 거 같아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러는데 거기서 놓으면 딱히 나아지는 게 없으니

까... 제가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 (구직활동을) 하는 거 같아요(연구참여자 1)."

"제가 대출로 받은 생계자금에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보니까 '빨리 취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또... 반도체 관련된 학과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는 반도체 관련된 스펙도 좀 쌓고 하면 좀 희망적? 그렇지 않을까... 하는 게 좀 있어요. 그 내일배움카드도 반도체 뭐 교육 그거 기다리고 있고요. 그런데 그게 좀 쓰기가 힘들더라고요. 상담도 필요하고.. 제도적으로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도 해야죠. 내일 배움카드도 교육도 듣고 학교에서 하는 취업 프로그램 그런 것도 하고(연구참여자 3)."

"한... 제대로 시작한 거는 5개월 정도 됐고 뭐... 관련해서 포트폴리오 만들고 중간중간에 알바하고 또 포트폴리오 만들고 최근 두 달에서 한 달정도는 계속 면접을 보고 다니고요. 매장 디스플레이 이랑 물건을 사게끔 만드는 인테리어나 디스플레이를 담당하는 범위에 직종에 취업하려고 계속 이력서도 넣고 그러고 있어요(연구참여자 5)."

"취업을 해야 되겠다. 회사에 취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항상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둘째가 지금 어린이집을 못가고 있어서 어린이집 보내면 바로 취업하려고 여러 군데 계속 알아보고 있어요(연구참여자 7)."

아. 파트타임 근무

연구참여자들(연구참여자 1, 3, 4, 5, 6)은 부채상환에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고자 파트타임 일을 하였다. 연구참여자 1은 자신의 전공(영상학과)과 연관된 촬영이나 친구들이 취업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 작업을 도와주며 돈을 벌었다. 또 연구참여자 6은 부채의 이자를 갚기 위해 친척들의 사업체에서 일하기도 하였다. 연구참여자 5 역시 하루 4시간 정도를 카페에서 일을 하였다. 연구참여자 1, 3, 4는 학교에서 모집하는 근로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매달 이자를 갚아나가기 위해 온전히 구직활동에만 신경을 쓸 수 없었다. 부채부담은 이들에게 필요한 구직활동에도 영향을 주었다는 것인데 이것은 선행연구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현상이다. 또한, 부채부담을 위한 파트타임 일자리가 곧 취업준비에 장애요인이 된다는 것 역시 시사하고 있다.

"가끔가다 촬영이나... 팀 도와주는 정도? 그런데 이것도 일을 거의 하는 거 같지가 않아요. 자리도 많이 없고 워낙 드물게 일을 하는 거라서요. 어... 제가 이제 학교를 그쪽(영상학과)으로 나왔으니 까 이제 주변에 그런 프로젝트(포트폴리오 작업)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좀 있어서... 그런 친구들 가끔 도와주고 돈 좀 받고 그래요(연구참여자 1)."

"제가 군대에서 모았던 돈이랑 해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죠. 그래서

그... 학교에서 3월 한 달동안 뭐... 들어오는 거 체크하는 거? 코로나 19 체온측정이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고 그러죠(연구참여자 3)."

"대출이자는 계속 나가는데 소득은 없고.. 그러니까 알바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알바를 하고 있어요. 이자를 갚으려고요. 그냥 카페알바 해요. 하루에 4시간 정도씩이요(연구참여자 5)."

"저희 이모님들 중에서 뭐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디 뭐 식자재 납품하거나 그런 일을 하시는데 그런 일 중에서 서류 작성 같은 거 하거나 이런 일을 중간중간에 일을 해요. 그런 식으로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일을 생각 안해본 건 아닌데, 단기 계약직 이런 거 뜨는 거 있잖아요? 그건 또 그거 나름대로 시간을 뺏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그냥 아직까지 그래도 저희 친척분들 회사에서 일을 도와드리고 돈 받고 하는 거예요. 이자도 갚고 해야 하나 까... (연구참여자 6)"

자.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박탈감은 타인과 상향비교를 하면서 경험하게 되며 개인의 정서적 반응성을 높인다(허지원, 2021). 특히, 분개, 불만족감, 분노와 같은 감정을 경험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미취업과 부채부담의 결과로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주변 사람이 출근하는 모습을 보며 부러움을 느꼈고(연구참여자 1, 2) 타인과 비교하며 가진 것 없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감정을 경험했다(연구참여자 6, 7).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 사회진출이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고(연구참여자 5, 6) 사회에서 자리를 잡은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게 되었다(연구참여자 3, 4, 5, 6).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했다. 연구참여자들은 미취업 상태와 부채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어 평가하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는 자신이 속한 조직이 없다는 것에 아쉬움을 표현했다. 이것은 연구참여자들에게 취업은 단순한 돈벌이 수단이 아닌 그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 친구들 중에서 지금 취업을 한 애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공무원... 그런 직업 있잖아요. 그런 애들도 저처럼 전세자금 대출받아서 살고 있는데 개네들은 직업이 그래도 있잖아요. 저보다 조건도 좋고... (중략) 그리고 또래들은 대부분 기숙사도 살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나가는 돈이나 이런 거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다고도 생각이 들고요(연구참여자 3)."

"저는 아무래도 다른 업무를 하다가 이 분야를 준비하다 보니까 20대 후반이라서 다른 친구들은 20대 초반, 20대 중반에 하는 거라서 4, 5년 정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늦지 않았나... 거기다 저는 대출도 있으니까 돈이 모으려면 더 시간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그 4년, 5년이라는 시간이 저한테는 너무 길게 느껴져요(연구참여자 5)."

“제 주변에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이 아무도 없어요. 일을 하거나 일을 하지 않더라도 결혼해서 일을 그만뒀거나... 본인이 포함된 조직이 있잖아요. 가족이든 간에 직장이든 간에 다 친구들은 다 조직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뭐 취업을 한 것도 아니고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족이 있긴 한데 의지가 되고 그렇긴 하지만 평생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저는 속한 곳이 없으니까... (중략) 일을 쫓 하고 있고 가정까지 꾸린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랑은 대화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있죠. 저랑 생활이 아예 달라져 버리니까요. 상황 자체가 비교가 일단 되잖아요. 저 빼고 다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연구참여자 6).”

차. 사회적 고립감

연구참여자들(연구참여자 1, 2, 5)은 사회적 고립감을 경험했다. 이들 중 연구참여자 1과 5는 외부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타인과 비교를 하게 되어 집에서 나가지 않고자 했다. 앞서 살펴본 상대적 박탈감이 곧 사회적 고립감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연구참여자 1과 2는 취업에 집중하다 보니 인간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점에서 소외감을 느꼈다. 구체적인 진술 내용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들 중 연구참여자 1과 2는 부채상환을 위한 노력으로 생활습관을 바꾸고 집 밖으로 잘 나가지 않았던 연구참여자들이다. 이들이 느낀 사회적 고립감은 취업준비와 생활습관의 변화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회사에 계속 있었으면 좀 더 돈도 벌고 더 많이 배웠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취업준비만 집에서 하는 거죠. (중략) 음... 거의 사람들도 안 만나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는 그냥 요새는 하루종일 그거만 붙잡고 사는 거 같아요(연구참여자 1).”

“최근에 그냥 계속 취업 준비만 하면서... 이력서도 여기저기 돌리고 포트폴리오도 작성하고 그러니까... 돈적으로도 아껴 쓰려다 보니까 집에만 있고... 잘 안 나가게 되는 거 같아요(연구참여자 2).”

“취업준비 한다고 일할 때 말고는 집에서 잘 나가지는 않거든요. 돈도 절약해야 하고 또 집에서 많이 해먹으려고 하고... 그런데 또 집에서는 취업준비만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저 개인적인 시간도 많이 없었던 거 같아요(연구참여자 5).”

아래 [표 3-3-16]는 취업한 청년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미취업 청년의 고립실태를 살펴본 것이다. 미취업 청년 중 조사시점 기준 최근 한달 간 3주 이상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던 적이 있는 경우가 취업 청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아래 제시한 사람들과의 대면 교류가 전혀 없는 경우도 큰 차이는 아닐지라도 미취업 청년이 취업 청년보다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표 3-3-16] 미취업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분석(취업 청년과의 비교)

[단위: %]

구분	최근 한달 간 3주 이상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음	대면 교류(전혀 없다)				
		가족	친인척	친한 친구나 사람	직장, 학교, 동네 등 알고 지내는 사람	온라인 및 SNS로 알게된 사람
취업자	4.4	1.8	14.7	2.1	13.1	58.6
미취업자	9.6	2.3	14.7	4.0	18.9	60.6

주: 대면교류는 해당 사람들과의 교류가 전혀 없다는 응답값임

카. 정신건강의 피해

연구참여자들(연구참여자 2, 3, 4, 5, 6, 7)은 미취업 상태와 부채부담의 결과로 우울감, 불안감, 막막함과 같은 감정상태를 경험했다. 연구참여자 2, 4, 5, 7은 자신이 대출받은 금액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다가도 우울해지거나 불안해지는 감정변화를 경험했다고 이야기했다. 연구참여자 5의 경우 어려운 상황의 원인으로 자신에게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빚을 생각하면 인생이 막막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진술한 연구참여자 3과 6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이 외에도 빨리 취업을 해야겠다는 심적 압박을 받은 연구참여자 5와 취업을 위한 시험에 붙어야 한다는 압박감과 불안감을 경험한 연구참여자 6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들이 경험한 부정적인 감정상태는 정신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청년의 미취업과 부채부담의 결과로 정신건강 관리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도출된 것은 이 연구에서 새롭게 발견한 점이다. 이는 부채부담을 안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에 대한 정신건강 측면에서의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미 일부 연구물에서 부채부담 혹은 구직활동에서 우울을 포함한 부정적인 상태를 경험한다고 보고된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는 부채 혹은 미취업의 스트레스를 포함한 정신건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움직임은 더딘 수준이다. 이 연구에서 대다수의 연구참여자들(연구참여자 2, 3, 4, 5, 6, 7)이 정신건강의 악화를 경험했으며 이를 포착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제가 거의 뭐 생활을 못 할 수준으로 네... 생활 겨우 할 수준이라는 얘기잖아요. 너무 힘들죠. 그럴 때가 되면은 먹고 살아야 할 돈이 다 떨어졌으니까 그거를 다 갚아야 되는데 많이 빠져나가면 너무 힘들고... 심적으로도 내가 이만큼 벌었는데 내 손에는 얼마 없을 것이고... 그러려면 취업을 해야 하는데, 취업도 어렵고 우울하고 많이 힘들죠(연구참여자 3).”

“미래 수입을 기대하면서 당장 없는... 미래 수입을 생각하면서 지출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당장 수입이 없어서 많이 불안해지는 거 같아요. 아무래도 나중에야 돈을 더 벌 수 있겠지만 지금 자체에 돈이 없으니까 최대한 아끼게 되고... (연구참여자 4)”

“조금 우울해요. 아무래도 미취업이라는 것도 우울한데 내가 이자라는 부담감도 갖고 있으니까 더 우울한 거 같아요. (중략) 빨리 빚도 갚아야 하고 돈도 벌려고 면접은 보고 계속 하는데, 합격은 아니고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서... 뭔가...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것인가? 싶고. 면접을 보는데 합

적이 안 되니까 어느 부분은 어떻게 보완을 해야할지를 모르지만... 뭔가 보통 불합격할 때는 불합격 한 거만 말하지 어떤 부분이 부족해, 이런 부분을 더 보완해야 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피드백이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연구참여자 5)”

“아무래도 제가 그게 만기가 12월이거든요? 뭐... 집을 그럼 빼야 하는 상황이라서, 그거를 갚지 못하거나 아니면 똑같은 중소기업 왜... 그런 조건이 아니면 다시 연장이 안 돼서 다시 돈을 갚고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인데 이사갈 돈도 넉넉하지가 않고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올해 더 빨리 취업을 해야지’, ‘요 근래 더 빨리 취업을 해야지’, ‘12월 안으로는 꼭 끝내야지’ 하는 마음이 들면서 압박을 많이 받고 있었어요. (중략) 빚을 갚으려면 빨리 일해야겠다. 빨리 취업해야겠다. 빨리 빚 갚아야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연구참여자 5).”

“일단 너무 막막하고 이제 내 인생의 족쇄 같다는 느낌이 너무 커요. 내가 떼려고는 하는데 떼어지지 않는 거죠. 이거 갚는 생활을 몇 년을 해도 줄지를 않는다는 거는 엄청 스트레스고 제 인생을 생각하면 신세가 진짜 안타까운 거죠. (중략) “취직이 잘 될까? 그게 제일 크죠. 아무래도 일단 수입이 없으니까 모아둔 돈으로 생활을 해야 하잖아요. 그 모아둔 돈이 그래도 2년 정도는 일을 하지 않아도 살 정도의 돈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걱정은 안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1년 가까이 되니까 불안하죠. 또 공무원 시험을 봐야 하니까 결과가 사실 불확실하니까... 아무래도 불안한 게 제일 크죠. 시험도 있고(연구참여자 6).”

“저는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빚 때문에 저기가 좀 있어서... 빚 때문에 빨리 갚아야지 빨리 갚아야지 이런 마음밖에 없어요. 속상하죠. 우울하고... 일단 빚이라는 자체가 제가 빚을 제가 남한테 돈 빌리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일단 그냥 내 돈이 아니니까 내 돈이 아니라 남의 돈이니까 빨리 갚아야지 빨리 갚자.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연구참여자 7).”

아래 [표 3-3-17]은 부채 유무와 과중채무 여부에 따라서 주관적 건강상태, 우울, 자살생각에 대해 분석한 것이다. 부채가 있는 미취업 청년은 부채가 없는 청년보다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우울증상 비중과 자살생각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부채가 있는 미취업 청년 중 절반 가까이가(45.5%) 우울 증상이 의심된다는 사실을 주목할만하다.

과중채무를 보유한 미취업 청년도 과중채무를 보유하지 않은 미취업 청년보다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우울증상이 의심되는 청년의 비중도 더 높게 나타났다. 다만 자살생각 여부는 오히려 과중채무를 보유하지 않는 청년이 과중채무를 보유한 청년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으나 큰 차이는 아니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들은 미취업 청년의 부채부담 문제가 단순하게 개인의 금융 관련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어려움이나 박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표 3-3-17] 과중채무 보유 여부에 따른 미취업 청년의 건강실태 분석

구분		주관적 건강상태(5점)	우울 증상 의심(%)	자살생각 여부(%)
부채유무	부채 없음	3.59	32.2	13.8
	부채 있음	3.29	45.5	19.2
과중채무 여부	과중채무 아님	3.50	37.3	16.8
	과중채무	3.32	42.3	15.1

주: 주관적 건강상태 점수가 높을수록 더 건강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타. 대출 상환 포기

연구참여자 중에서는 부채의 과부담으로 인해 대출금 상환을 포기한 경우도 찾아볼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연구참여자 2의 경험을 바탕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연구참여자 2의 경우 이자만 꾸준히 내며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그는 현재 미취업이라는 점과 부채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많은 대출금을 갚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결국 포기를 하였다. 그리고 연구참여자 6은 대출금의 이자가 낮거나 매달 돈이 빠져나가지 않는 경우에는 상환을 하지 않는다. 대신 이자가 많이 나가는 대출부터 이자와 원금을 갚아나가고 있다. 한번에 많은 돈을 상환하게 된다면 당장 나가게 되는 지출이 크기 때문이다. 연구참여자 6이 이야기한 ‘갚는 것을 포기한다’는 ‘갚는 것을 미룬다’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연구참여자 6이 대출금을 갚을 의사가 없다는 것을 ‘포기’로 표현했다는 점과 이 사례 역시 의도적으로 상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연구자는 ‘대출 상환 포기’의 공통범주에 포함했다.

“빚은 일단...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자만 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햇살론’ 같은 것도 이제 이제 장기 대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자만 계속 내는 거예요. 빚은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보증금 대출도 그냥 너무 크다 보니까... 그냥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못 갚으니까.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이자만 꾸준히 내는 게... (연구참여자 2)”

“학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내주기로 하셨는데, 일정 부분 갚아주시긴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도 갚을 수는 있거든요? 학자금 대출받고 나면은 월급의 일정 부분에서 나가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상여금 같은 거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 절반은 갚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갚을 수 있기는 하죠? 그런데 이자율이 높지가 않으니까 굳이? ‘일단 이자가 높은 거부터 갚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학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갚을 수 있어도 일단은 갚는 걸 포기하는 거죠. 매달 빠져나가지는 않으니까 당분간은 신경을 쓰지 않는 거죠(연구참여자 6).”

5)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서울시 미취업 청년들이 겪는 부채부담 실태와 대한 이에 대한 당사자들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더불어 미취업 청년들이 부채를 지게 된 계기와 부채를 해결하고 구직을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했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¹⁸⁾ 미취업 청년의 부채보유 비중은 35.3%, 부채금액은 평균 3,468만 원, 과중채무 보유 비중은 26.0%, 총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33.5%로 나타났다. 부채 용도는 주택비용 51.0%, 학자금 23.5%, 생활비 16.9% 등으로 나타났으며 부채 원리금 상환이 부담된다고 응답한 청년은 17.5%로 나타났다. 개인 특성에 따라 부채부담 실태를 분석한 결과 대학원 재학생, 생활비 부족을 경험한 경우 부채부담이 높고,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부채주택마련을 위해 부채를 보유한 경우가 높았으며 부채부담 또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구 배경에 따라 부채부담 실태를 분석한 결과 가구주, 30대 가구주,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없는 경우, 부모와 비동거하는 경우 부채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소득(균등화) 수준이 낮거나 부모의 소득수준이 하(위)층인 경우 부채보유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질적 사례 연구참여자들은 학업을 위한 대출, 생활비 마련, 주택마련과 같은 계기로 대출을 받고 부채를 안게 되었다. 부채를 얻은 후, 이자 상황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되었다. 이들이 걱정했던 것은 대출금을 모두 상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걱정과 또 다른 대출을 받을 것에 대한 걱정, 다시 대출을 받아도 현재보다 더 생활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었다. 그럼에도 연구참여자들은 부채와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생활습관을 변화시켜 절약을 하거나 취업을 위한 노력과 단기 직업을 갖는 노력을 하였다. 그 결과, 연구참여자들이 미취업이라는 점과 부채부담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 박탈감, 사회적 고립감, 정신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되었고 결국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대출 상환을 포기하는 상태까지 놓이게 되었다. 먼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적 함의를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연구결과 연구참여자들은 부채부담을 덜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 그들의 경험은 각기 달랐지만 다달이 필요한 이자와 대출금을 상환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결국 미취업 상태에서 부채부담을 줄이려던 그들이 경험했던 것은 상대적 박탈감, 사회적 고립감 그리고 정신건강의 폐해였다. 그리고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상환을 포기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부채부담에 관한 기존 연구들에서는 청년기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미취업이라는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청년의 부채부담과 관련된 내용을 다룰 시, 청년기의 다양한 특성과 미취업이라는 특성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실천 및 정책적 함의이다. 먼저, 연구결과 연구참여자들은 부채를 상환하는 기간이 길어 어려움이 있었다. 이는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를 줄이거나 소득수준을 증대시키는 정부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에 따른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정책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홍경준, 2017). 이에 정부에서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정부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18) 지면상의 한계로, 부채부담 실태에 대한 자세한 분석 결과값은 본문을 참고하라.

둘째, 취업률이 높지 않은 상황과 부채를 안고 있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은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다. 이를 대안으로 정부에서는 ‘내일배움카드’,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서울시 청년수당’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에 청년층의 양적 참여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의 일부 참여자들 역시 이러한 정책의 효과를 보고 있었다. 그러나 “그 내일배움카드로 반도체 뭐 교육 그거 기다리고 있고요. 그런데 그게 좀 쓰기가 힘들더라고요. 상담도 필요하고… 제도적으로 좀 복잡하더라고요(연구참여자 3).”와 같은 연구참여자 3의 진술처럼 상담이 필요하고 제도적으로 복잡한 점을 개선하여 어려운 점이 없도록 한다면 더욱 질적인 향상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러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청년 역시 증가할 것이라 사료된다.

셋째, 연구결과 부채부담이 정신건강 차원으로도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청년 정신건강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각 지역에 위치한 지역정신건강센터를 포함한 다양한 기관에서는 부채부담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자유롭게 상담을 하거나 정신건강측면에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에 연구자들은 지역사회에서 청년들을 위한 상담 혹은 자산, 부채와 관련된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청년들이 쉽게 접근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을 제안하고자 한다.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상담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면 청년들의 건강한 정신건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산 및 부채와 관련된 교육을 통해 대출금, 상환일, 이자 등에 대해 사전에 신중하게 고민해볼 수 있는 2차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과부담 부채 보유를 줄이는데 일조할 것이다. 더 나아가 상위기관에서는 법률 서비스나 채무관련 상담을 제공한다면 부채가 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에서 서울청년패널 원데이터를 활용한 부채부담 실태분석은 변량분석(analysis of variance)이 아니기 때문에 인과관계에 대한 추정이 아닌 경향성을 살펴본 것이며, 분석결과에 대한 일반화에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둘째, 이 연구의 질적연구 참여자를 선정할 때, 다른 종류의 대출이나 다소 위험성이 있는 고금리 대출 등의 대출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이례적인 사례를 포함하지 못했다는 점이 있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개선하여 좀 더 다양한 사례를 분석한다면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셋째, 이 연구의 참여자들이 7명으로 다소 적다는 점과 남성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점이다. 후속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와 부채부담을 어떻게 느끼고 해결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차이점을 구분한다면 좋은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넷째, 이 연구에서는 미취업청년들이 겪는 부채부담의 분석에 집중했다. 이러한 경우 질적 연구의 맥락과 구체성을 희석시킬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자 시간에 따른 부채생성과 부채부담의 요인의 발생과정에 집중하여 새로운 범주를 발견할 필요가 있다.

4_청년세대의 재테크 실천에서 나타나는 불평등

1) 들어가며: 재테크하는 청년들의 등장

2020년 코로나 19가 발발하면서 나타난 현상 중 하나는 이른바 “동학개미운동”이라고 불렸던 대중 투자 문화의 확산이다. 경제 불황으로 인해 저금리 국면이 고착화되면서 다른 자산에 투자하지 않은 채 현금만 보유하고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뒤쳐진다’는 인식이 재테크 커뮤니티에서 확산되었고 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청년세대는 코스피(KOSPI) 지수가 급전직하하는 와중에도 금융 시장에 언젠가 반등이 찾아올 것이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투자에 뛰어들었던 신참 투자자의 주역으로 여겨져 왔다. 각종 정보 검색 및 습득 능력을 갖추고 일상생활에서 투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 청년들은 주식과, 암호화폐를 비롯한 각종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최대한 자금을 끌어모아, 심지어는 신용대출을 받아가면서까지 자금을 확보하여 투자에 나서는 행태를 일컫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 “빚투(빚을 내 투자하다)”와 같은 신조어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돈이 일하게 하라”(존 리, 2020)는 재테크 전문가의 조언이 담긴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투자로 큰돈을 벌었다는 소식이 소셜 네트워크에서 돌아다니며, 심지어는 금융적 독립을 이루어 조기에 은퇴하는 것을 일컫는 “파이어(FIRE,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라는 말까지 유행한다.

청년세대의 투자 열기만큼이나 그에 대한 반응도 뜨겁다. 금융 전문가들은 청년들의 무모함을 우려하고 공격적 투자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올바른 투자법에 대한 교육을 강조한다. 반면 정치인들은 자산시장을 활성화하고 청년세대에게 자산 증식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한다¹⁹⁾. 언뜻 보면 전자는 부정적이고, 후자는 긍정적인 반응처럼 보이지만 이 두 갈래의 반응은 공통적으로 청년들의 재테크를 통한 자산 증식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 현상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장려할지를 고민하기 이전에, 청년들의 투자 열풍이 사회정책의 전제에 대해 제기하는 하나의 질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기존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전제해왔던 청년의 상이 바뀌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기존에 정책이 상대해왔던 청년의 상은 (예비)노동자였다. 청년이 정책의 범주로 등장한 것은 1997년 금융위기 이후 2004년 시행된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이었다. 2010년 이후 서울시를 중심으로 청년정책의 주제가 좁은 의미의 일자리 정책을 넘어 주거권, 건강권 및 다른 사회권까지 확장되어왔지만, 기본적인 기조는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가지고 노동할 수 있는 상태로의 이행을 지원한다는 것이었다(변금선 외, 2021). 청년정책의 패러다임을 둘러싸고 진행되었던 중앙정부(취업성공패키지)와 서울시(청년수당) 간에 벌어졌던 정치적 논쟁의 쟁점은 미래의 노동자인 청년을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냐는 것이었다. 정책적 관심이 되었던 청년의 얼굴은, 드라마 「미생」의 주인공과 같은

19) 한겨레, 2021. 11. 4., 이재명 “주식 장기보유에 세제혜택…청년 자산형성 기회 부여 필요”, URL: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17977.htm, 연합뉴스, 2022. 1. 13., 이재명-윤석열, 증시개장식서 ‘2030-동학개미’ 구매 경쟁(종합), URL: <https://www.yna.co.kr/view/AKR20220103081951001>, 경향신문, 2022. 1. 27., 부자만 좋은 포퓰리즘?...윤석열 “주식양도세 폐지”, URL: <https://www.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201271015011>

사회초년생 노동자들, 혹은 NEET청년들에 대한 연구나 노량진 고시촌에 대한 보도에 등장하는, ‘초년’에 진입하지 못하는 취업준비생의 얼굴이었다.

취업 준비생과 노동자가 아닌 투자자라는 상은 이런 얼굴과는 사뭇 다르다. 대학별 커뮤니티에 새롭게 생겨난 주식 게시판에서 어떤 주식이 유망한 투자처인지를 토론하고²⁰⁾, 출근해서도 증권 거래 어플리케이션에 눈을 떼지 못하는²¹⁾ 이들의 삶은 예비 노동자 혹은 사회초년생 노동자라는 틀로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및 서울시 청년수당과 같은 기존의 청년정책에서 청년의 취업이란 곧 “사회”에 진입(insertion)해서 자신의 명함을 돌리며 커리어를 가꾸어나갈 수 있는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계기이자, 살아가기 위한 소득의 원천으로 간주되었다(김홍중·조민서, 2021). 그렇다면 취업이라는 ‘이행’과는 다른 축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테크라는 실천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 재테크를 통해 청년들이 기대하는 소득은 기존의 주된 소득 원천인 근로소득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청년들은 왜 재테크에 뛰어드는가?

이 글은 하나같이 심층적인 연구를 요하는 이 모든 질문들에 직접 답할 수는 없지만, 이 질문들을 보다 잘 제기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 작업을 수행하고자 한다. 먼저 재테크라는 현상의 맥락을 살펴보고, 최근 청년들의 투자 열풍을 이제까지 전개되어왔던 자본주의의 금융화라는 정치경제적 흐름 속에 위치지우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청년들의 재테크 실천 현황을 일별함으로써 후속 연구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2) 청년 재테크를 위치 지우기

(1) 금융자본주의의 일상적 풍경으로서의 재테크

① 자본주의의 금융화와 재테크

먼저 “재테크”라는 말이 쓰였던 용례를 역사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재테크”는 재물을 뜻하는 한자 “財”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한국에서는 1980년대 후반 일본에서 유입되어 쓰이기 시작했다. 1990년대 초까지, “재테크”는 “자산”, “포트폴리오” 등의 금융 용어와 마찬가지로 기관, 단체, 기업의 금융 행위에 국한되어 통용되는 단어였다. 미디어 지면에 등장하는 “재테크”라는 용어에는 재벌의 부동산 투자를 ‘투기’로 보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깔려 있었다(최민석, 2011: 86). 가령 <<연합뉴스>>의 1990년 3월 23일자 기사 “기업, 재정난 속에 재테크”에서 재테크의 예시로 “외부에서 조달해온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고수의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행태를 들며, 이를 “설비투자 등 생산적인 부분에 활용”하는 선택과 대비시키고 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재테크는 개인의 투자 실천을 아우르는 말로 쓰이기 시작했다. 이 때만 해도 재테크는 일부 “복부인”을 비롯한 전문적인 “꾼들”의 전유물로 치부되었다. 고금리로 인해 재테크의 필요성이 전사회적으로 체감되지 않았고, 금융투자 및 대출에 대한 접근성이 낮았기 때문이다.

20) 경향신문, 2020. 10. 6., ①밀레니얼 재미들이 묻는다 “불로소득, 꼭 나쁜 건가요”, URL: <https://m.khan.co.kr/national-general/article/202010060600115#c2b>

21) 조선일보, 2020. 11. 28., “월급만 만다간 벼락거지” 8시50분이면 화장실 가는 주식열풍, URL: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0/11/28/6JHBZ3RBXNBMRGL3OIQZ3EX5P4

재테크가 개인들의 일상에 스며든 계기는 1997년 금융위기였다. 주식과 펀드, 벤처 기업, 주택담보대출 등 새로운 투자 기회에 대한 관심이 폭증했고 “부자 되세요”라는 유행어가 등장했다. 이른바 “부자학”이라는 지식의 형태가 유통되었고, 재테크와 관련된 동호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정수남, 2011; 오승민, 2015). 미디어에서도 재테크의 의미 변화는 확연히 드러난다. 최민석(2011: 87)의 분석에 따르면, 전국종합일간지 기사에서 “재테크”라는 말의 등장 빈도는 금융위기를 전후한 1996년-1998년까지 2배 이상 폭증했다. 이전까지 재테크와 주로 등치되었던 부동산 투자의 경우, 투기라는 도덕적 비판의 대상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학습과 투자가 권장되는 실천으로 그 의미가 바뀌었다(이은지, 2013). 금융위기는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해 이른바 “평생직장” 시대가 종언을 고하고 소득 원천이 불안정해지면서, 이전까지 주로 기업을 중심으로 부동산에 한해 이루어졌던 재테크 범위가 확장된 기점이었던 것이다.

1997년 금융위기 이후 일상화된 재테크라는 경제적 실천에는 한국적 특수성도 있지만, 다른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관찰되는 보편성도 찾아볼 수 있다. 재테크는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가 전지구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금융화(financialization)의 흐름 속에서 일상의 층위에 자리 잡았던 실천으로 볼 수 있다. 흔히 거시적인 정치경제의 맥락에서 금융화는 “거대한 상품 생산보다는 주로 금융적인 경로를 통해 이윤을 획득하는 축적의 패턴(Krippner, 2004: 174)”, “국내, 국제 경제의 작동에서 금융과 관련된 동기, 금융 시장, 금융 행위자, 금융기관의 역할이 증대되는 것(Epstein, 2005: 3)” 등으로 정의된다. 여기서 “금융적(financial)”이라는 단어는 “미래의 이자, 배당, 혹은 자본 이득을 기대하며 유동성 자본을 공급(혹은 이전)하는 것”과 연관되어있음을 의미한다(Krippner, 2004: 175). 금융화는 이처럼 자본주의의 축적양식이라는 정치경제 수준에서 진행되었던 변화이기도 했지만, 개인의 일상적 층위에서 사회문화적 변화 역시 수반하였다. 삶을 영위하기 위해 금융을 활용하고 금융에 의존하면서 관련된 제도, 문화, 용어에 친숙해지는 생활양식의 변화, 곧 “일상의 금융화(financialization of everyday life)”가 일어났던 것이다(Martin, 2002; Langley, 2008; Haiven, 2014). 금융이 일상으로 자리 잡은 세계에서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흐름을 관리하는 금융은 단순히 접근할 수 있는 자산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와 삶의 사이클이 하나가 되게 만들고, 자아를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나타난다(Martin, 2002: 2).”

이처럼 투자를 통해 부를 증식할 수 있으며 그래야만 한다는 태도가 대중적으로 확산되고 유통되는 “대중투자문화(Mass Investment Culture)”(Harmes, 2001)가 부상한 것은 1997년 금융위기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의 서두에서 언급하였던 “벼락거지”라는 최근의 유행어만큼 이 금융화된 일상에 대한 대중적인 감각을 잘 드러내는 말은 없을 것이다. 단기간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부자가 된 “벼락부자”라는 명칭에 능동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경제적 지위가 급상승한 개인을 특이한 경우로 바라보는 비난이 깔려 있다면, “벼락거지”라는 표현에서는 금융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머물러 있는 개인의 경제적 지위는 상대적으로 급락할 수밖에 없다는 자조가 서려 있다. 이 말 자체는 비록 2020년 하반기에 등장한 신조어이지만, 1997년 금융위기 이후 급속하게 확산되었던 금융을 바라보는 개인들의 태도를 반영하고 있다. 만성적인 저금리 상

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부동산과 주식을 비롯한 자산 가격이 치솟는 것을 불안한 심정으로 바라보는 개인들은 금융에 입문하며 투자의 세계에 눈을 뜬다(최철웅, 2013). 이는 몇 가지 거시경제 지표의 뚜렷한 변화를 통해 관찰된다. 개인순저축률은 1991년 24.2%로 최고치에 달했다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감소하여 2002년에는 0.4%로 최저치를 경신했고, 이후에도 평균 5%내외에 머물고 있다. 줄어든 저축의 자리를 메운 것은 주식, 펀드, 보험, 연기금과 같은 금융자산이었다(최철웅, 2015: 57).

금융 투자를 선택이 아닌 필수로 간주하는 흐름은 과거 군사 정권하에서 장려했던 근면성실과 근검절약 같은 덕목들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문제적인 소수만의 부도덕한 투기로 간주하였던 경향과 상반된다(Kim, 2017). 금융에 관심을 끌고 직장을 다니며 임금 노동에 매진하여 저축을 습관화하는 생활양식은 지나치게 수동적인 태도로 간주되며, 대신 철저한 학습을 통해 계산적인 투자에 나서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진다.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적 가능성(홈트레이딩 시스템 HTS, 증권 및 가상화폐 거래 어플리케이션)과 전사회적 분위기가 갖추어지면서 투자에 대한 관심은 더욱 증식되었다. 대학생들과 직장인들 사이에서 주식 투자 동아리와 동호회가 만들어지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기요사키, 2001)를 비롯한 재테크 관련 서적들이 베스트셀러 순위에 등극하며, 금리와 세율로 요약되는 경제의 동향에서 구체적인 투자 상품 소개에 이르기까지 금융 문해력 증진을 목표로 삼는 프로그램들이 경제방송은 물론 공중파에서까지 방영되는 현상 등이 일상에 스며든 금융의 사례이다.

② 재테크 실천에 대한 선행연구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개인들의 재테크 실천을 다룬 연구들은 구체적으로 집중했던 재테크의 종류는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금융위기 이후 만연하게 된 사회경제적 불안을 재테크를 추동하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가장 먼저 재테크의 대상이 되었던 부동산을 먼저 살펴보자. 수도권 지역의 자가를 소유한 중·장·노년층 여성들의 부동산 투자 실천을 연구한 최시현(2021)의 연구는 연구참여자들이 주택 자산가격이 노동소득의 증가 속도를 압도하는 상황에서 주택 매매를 통해서만 계급적 위치를 유지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부동산 다음으로 일반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여겨지는 주식 투자의 경우에도 임금 노동의 한계가 거론된다. “가치투자”를 학습하고 실천하는 30대 중·후반 이상의 투자자들을 다룬 오승민(2015)의 연구는 이들이 정리해고를 목도하면서 평생직장 시대가 저물었음을 자각하고, 그 자리에 “평생 직장으로서의 주식투자”라는 상상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에게 주식 투자가 성별이나 연령, 학력과 무관하게 투자 자금만 있다면 누구에게나 평생 동안 열려있다는 생각은 사라져가는 평생직장에 대한 대안으로 이해된다는 것이다(오승민·2015: 81). 매매방으로 출근하는 중·장년 남성 전업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김수현(2019)의 연구는 이들이 과거 소위 말하는 “좋은 직장”에 다녔으나, 명예퇴직 이후에 고정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부모와 자녀에 대한 부양책임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을 꿈꾸며 투자를 결심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1997년 금융위기 이후 국내 증시가 회복하는 이른바 “상승장”에서 수익을 경험한 것 역시 이들이 전업투

자자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2010년대 후반부터 이슈가 되었던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지는 서사와 실천을 연구한 Lee(2022) 역시 가상화폐 투자라는 재테크 실천이 위와 같이 임금노동의 현실에 대한 환멸어린 자각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평생직장의 전망은 묘연하고 임금 소득은 정체되어있는 상황에서 비트코인 투자자들에게 현재 하는 일은 불만과 불평의 대상이거나, 혹은 투자를 위한 종잣돈(seed money)의 안정적인 공급원으로 여겨진다(Lee, 2022: 10). 선행연구에서 재테크를 실천하는 개인들의 공통적인 배경으로 확인되는 것은 임금 노동만으로는 사회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인식이다. “평생직장은 더 이상 없다”는 구호로 요약되는, 임금노동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다는 불안과 노동소득만으로는 자신과 가족을 부양할 수 없다는 불만은 개인들이 재테크로 눈을 돌리게 만든다. 이상적인 상황에서 사회보장체계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했다면, 이처럼 “삶의 안전망에 대한 열망이 집합적으로 충족되지 못하고 재테크와 같은 개별화된 실천에 투사(조문영·조민서·김지현, 2021: 325)”되는 현상은 없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재테크의 유형은 임금 노동과 소득의 연계를 약화시키는 것을 일컫는 일반적 의미의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Esping-Andersen, 1990)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 상황의 징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재테크는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화하여 판매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싹트면서 노동을 넘어선 다른 경로로 소득을 확보하고자 하는, 모종의 개인화된 탈상품화의 기획이기 때문이다. 이런 개인들이 구성하는 사회는 더 이상 예측 가능한 ‘커리어’를 선행적으로 쌓아갈 수 있는 일터라는 공간과 이 커리어 기간에 비례하여 소득 및 자산을 축적해나갈 수 있다는 미래 전망이 있었던 임금노동 사회(salarial society)와는 다르다(Robert & Richard, 2017). 사회경제적 지위는 더이상 직업적 지위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Adkins et al., 2020). 동일한 직장에 다니면서도 자산 소유 여부에 따라, 보유 자산가치에 따라 주관적 계층 인식과 객관적 계층 위치가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재테크는 삶의 안정성과 사회경제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임금노동 외에도 금융 투자를 통해 자신의 삶을 조직해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개인들이 택한 선택지라고 볼 수 있다.

(2) 청년의 재테크가 제기하는 질문들

① 새로운 재테크 주체로서 청년?

재테크 열풍의 부상이 임금노동을 중심으로 한 삶의 모델에 대한 불만 및 불안과 연관이 있다고 할 때, 청년세대 내부의 재테크 열풍은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한다. 한국에서 청년이라는 세대 집단은 2000년대에 임금노동 사회에 진입할 수 없는 젊은 실업자들의 존재가 가시화되면서 정책의 범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조민서, 2019). 그 이후로 정책의 범주로서 청년은 임금노동사회에 진입하지 얼마 되지 않은 이른바 ‘사회초년생’을 포괄하는 집단으로 확대되었다. 아직 임금노동자로서의 커리어를 시작하지 않았든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든 이들을 ‘투자자’로 접근한 경우는 드물었다.²²⁾ 당연하게도 이들은 재테크에 뛰어든 경제적 자원이 많지 않았고, 규범적으로도 우선 임금 노동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얻을 것이 기대되었기 때문이다. 재테크를 포괄하는 범주인 금

응과 관련하여 청년을 다룬 연구들은 주로 학자금 등 부채와 관련된 연구였다(백진영·오명석, 2015; 천주희, 2016).²³⁾ 자신의 삶을 재생산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빚을 진 채무자로서의 청년은 수종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투자자의 상과는 거리가 있다. 따라서 자산과 관련된 정책 및 연구에서 청년은 자산 운용의 주체라기보다는 자산 형성을 지원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여겨져왔던 것이다.

이러한 흐름과 달리 최근 청년은 소액으로도 시작할 수 있는 주식과 암호화폐 투자 열풍으로 인해 재테크의 주체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재테크는 보다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재테크는 흔히 자산 증식을 목적으로 한 개인적 재무 관리 기술 정도로 정의되지만, 이런 정의로는 그 내부의 이질성을 온전히 포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단순히 가계 지출을 줄이고 돈을 아끼며 가계부를 쓰는 것과 예·적금에서부터 부동산, 뮤추얼 펀드, 주식, 암호화폐, 심지어는 음반 저작권과 예술 작품이 디지털화된 대체불가토큰(NFT, Non-fungible token)에까지 다종다양한 재테크 수단들은 종잣돈, 위험 부담, 기대가능한 실현 수익의 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는 시간 지평, 투자 상품에 대한 전문성 등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요건, 요구되는 능동성의 정도(강내희, 2014: 457-461) 등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청년층의 재테크 수단으로 여러 차례 거론되었던 주식과 가상화폐 중에서도 주식의 경우 과거 “국민주” 열풍, 벤처 투자 붐, 적립식 펀드 열풍 등 주기적으로 붐이 일었다. 그러나 가상화폐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액만으로 시작할 수 있으며 기대 수익률이 주식보다 훨씬 높다는 점에서 더더욱 청년층에게 각광받았다.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할 때, 최근 논란이 되는 청년세대의 재테크 열풍은 이중의 의미에서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첫째, 재테크 주체라는 측면에서 청년세대가 갖는 특수성이다. 재테크를 가능하게 하는 경제적 조건, 이른바 “종잣돈(seed money)”를 마련하기 위한 임금 노동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시작했다고 할지라도 다른 세대에 비해 얼마 되지 않은 청년세대는 어떻게 재테크를 시작하게 되는가? 주로 노동시장 진입과 관련된 정책의 대상으로 다루어졌던 청년은, 어떻게 재테크 투자자들의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는가?

둘째, 다른 세대에 비해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청년마저도 나름의 재테크를 시작할 수 있었던 재테크 수단의 특수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청년세대의 “영끌”, “빚투”와 관련하여 거론되었던 주식 및 암호화폐는 예·적금 및 부동산과 비교할 때 필요한 종잣돈의 크기에서도 차이가 나지만, 투자의 시간 지평, 위험도, 기대 수익률 역시 크게 다르다. 청년들은 재테크 일반이 아닌 이같은 특정한 재테크 수단들을 어떻게 접하게 되는가? 이 특정한 재테크 수단들은 청년들에게 어떠한 희망을 안겨주고 위험을 초래하는가?

22) 가령 전통적인 재테크의 상징처럼 꼽히는 부동산 투자의 주체로 거론되었던 “북부인”이라는 명칭은 가정 경제 내에서 작동하는 암묵적인 젠더 분업의 논리에 따라 재테크의 주체가 성별화 되어있음을 드러내기도 하지만(최시현, 2021), 동시에 재테크의 주체로 나설 수 있는 조건으로 충분한 자산의 규모를 암시하기도 한다.

23) 물론 채무자의 정체성과 투자자의 정체성이 항상 상호배타적인 것은 아니다. 이른바 “빚투” 현상, 즉 이동준 외(2021)의 연구에서 다루었던, 공격적인 투자를 위해 신용 대출을 받는 청년들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② 연구질문

이 모든 질문들은 재테크에 대한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풍부한 질적 사례 연구들을 통해 답변되어야겠지만, 이러한 질적 연구를 설계하기에 앞서 청년 세대 내부의 재테크와 관련된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재테크를 경험하고 있는지, 어떤 이유로 재테크를 실천하고 있는지, 재테크가 이들의 경제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떠한지, 재테크를 위해 운용하는 자산 및 재테크를 통해 벌어들이는 소득의 불평등은 어떠한지 등이다. 이 글은 서울 청년들의 소득과 자산, 재테크 수단별 실천 여부, 재테크 참여 동기 등에 대한 문항을 포함하고 있는 2021년 〈서울청년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이러한 질문들을 다루고자 한다. 첫째, 청년들의 재테크 실천 현황을 재테크 수단과 동기를 중심으로 탐색한다. 둘째, 재테크에 투입되는 자금의 규모, 즉 재테크를 통해 운용하는 자산의 크기와 불평등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재테크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의 크기와 불평등을 살펴본다.

3) 재테크와 불평등

(1) 청년 재테크 현황

① 재테크 실천 현황

가장 먼저 재테크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응답자 중 47.2%의 청년들이 하나 이상의 재테크를 실천하고 있었으며 재테크를 한다고 응답한 청년들의 평균 연령은 27.9살이었다. 재테크 수단 중에서도 참여가 활발한 수단은 전체 응답자 중 37% 이상이 한다고 대답한 예/적금과 주식/펀드였다. 재테크에 참여하는 청년들을 기준으로 이 수치를 다시 해석하면 재테크를 실천하는 청년 중 예/적금을 하고있는 청년은 80%, 주식/펀드는 78%로, 이 두 재테크 항목은 일반적인 재테크 종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식 투자와 더불어 “영끌”, “빚투”라는 유행어를 만들어내는데 일조했던 가상화폐를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청년들은 전체 응답자 중 10% 이상이었다. 재테크를 한다고 응답한 청년 중에서는 약 21% 이상이 가상화폐를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그다음에는 저축성 보험과 부동산 투자가 줄을 이었다. 역사적으로 가장 이른 시기부터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받았던 부동산 투자를 실천하는 비율이 청년들에게서 낮게 나타나는 까닭은 다른 재테크 수단에 비해 부동산 투자에 최소한으로 필요한 자금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표 3-4-2]와 [그림 3-4-1]에서 드러나듯, 대부분의 재테크 수단의 경우 전반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재테크에 참가하는 비율이 높다. 일반적으로 20세와 25세를 기점으로 재테크에 참여하는 비율이 급증한다. 이는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는 재테크 수단인 예/적금과 주식/펀드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가상화폐의 경우는 이런 점에서 흥미로운데, 이 두 재테크 수단이나 저축성 보험만큼 연령에 따라 실천하는 비율이 뚜렷이 증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표 3-4-1] 재테크 참여 현황

[단위: %]

구분	재테크 일반 ²⁴⁾	예/적금	주식/펀드	가상화폐	저축성 보험	부동산 투자	기타
실천 비율	47.2	37.7	37.0	10.1	7.8	3.3	0.6
연령 평균값(세)	27.9	28.0	28.0	28.0	29.4	30.3	2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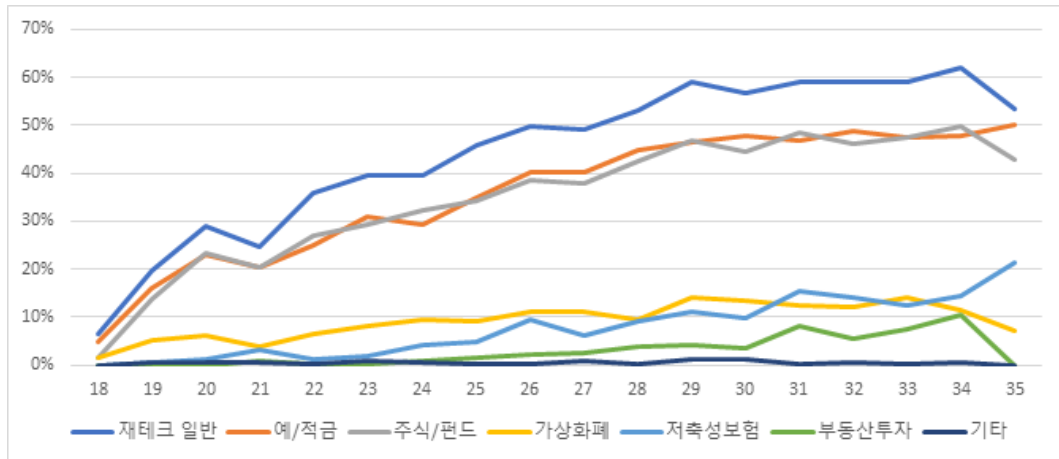
[표 3-4-2] 연령별 재테크 참여 현황

[단위: %]

연령	재테크 일반 ²⁵⁾	예/적금	주식/펀드	가상화폐	저축성 보험	부동산 투자	기타
18세	6.6	5.0	1.7	1.7	0.0	0.0	0.0
19세	19.8	16.2	13.7	5.1	0.5	0.0	0.5
20세	29.1	22.9	23.5	6.1	1.1	0.0	0.6
21세	24.7	20.3	20.3	4.0	3.1	0.9	0.4
22세	36.0	24.9	26.8	6.5	1.1	0.4	0.4
23세	39.6	30.9	29.1	8.1	1.8	0.3	0.9
24세	39.6	29.4	32.2	9.4	4.1	1.0	0.5
25세	45.9	35.0	34.2	9.1	4.8	1.4	0.3
26세	49.7	40.1	38.5	11.0	9.4	2.1	0.3
27세	49.0	40.2	37.9	11.1	6.3	2.6	0.9
28세	53.1	44.8	42.5	9.6	9.1	3.9	0.3
29세	58.9	46.4	46.7	14.0	11.0	4.1	1.3
30세	56.7	47.8	44.4	13.4	9.7	3.5	1.1
31세	59.2	46.9	48.3	12.5	15.3	8.1	0.3
32세	59.0	48.9	46.2	12.2	14.1	5.5	0.6
33세	59.2	47.6	47.6	13.9	12.6	7.5	0.3
34세	61.9	47.8	49.8	11.3	14.6	10.5	0.4
35세	53.6	50.0	42.9	7.1	21.4	0.0	0.0
평균	47.2	37.7	37.0	10.1	7.8	3.3	0.6

24) 하나 이상의 재테크를 경험

25) 하나 이상의 재테크를 경험



[그림 3-4-1] 연령별 재테크 참가 비율

② 재테크 실천 동기

다음으로 청년들이 재테크를 실천하는 동기를 살펴보자. 응답자들은 재테크를 하는 이유를 최대 두 개까지 고를 수 있었다. 1, 2순위별 차등을 주지 않고 응답을 분석한 결과 구체적인 재테크 항목을 막론하고 가장 많이 꼽힌 동기는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였다. 청년들이 주로 활용하는 재테크 수단인 주식/펀드와 예/적금의 경우 모두 27%가 넘었으며, 그 다음으로 많이 각광받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청년들의 경우에는 해당 문항에 대한 응답 빈도가 다른 문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주택 마련”, “노후 대비” 등 상대적으로 장기적인 목표를 이유로 꼽는 청년들은 낮았다. 주식/펀드와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청년들 사이에서 특히 많은 응답이 기록된 “경제적 자유”라는 가치가 청년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후속 질적 연구를 통해 탐구될 필요가 있다. 가령 이 가치가,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라는 선택지와 병렬되어 제시되었던 “생활비 마련”, “여가/취미생활을 위해”와 같이 현재와 관련된 것인지, 혹은 노후 대비 및 결혼 준비처럼 보다 미래지향적인 목표와 연관된 것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그게 아니면 무엇인지가 심층적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경제적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서라는 응답 다음으로 빈번하게 꼽혔던 재테크의 동기는 “주택 마련”이었다. 다른 재테크 수단들을 활용하는 것과 더불어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 응답한 청년들의 경우에는 “주택 마련”을 동기로 꼽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부동산에 투자하는 청년들이 경제적 자유 다음으로 많이 꼽은 재테크의 동기는 노후 대비였다. [표 3-4-2]에서 보듯 부동산에 투자하는 청년들은 전체 응답자 중 3.3%에 불과하며 이는 아직 다른 재테크 수단에 비해 부동산을 재테크 수단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청년세대의 상황을 보여준다. 그런데 그 대다수와 구별되는 3% 이상에게 부동산이란 살 곳이라는 사용가치를 지닌 대상이 아니라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투자가치를 지닌 상품인 것이다. 또한 부동산 투자를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는 이 소수의 응답자들은 다른 재테크 수단을 활용하는 응답자들에 비해 “생활비 마련”이나 “막연한 불안감”을 재테크의 동기로 꼽는 비율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다음 절에서 살펴볼 재테크와 불평등이라는 주제와 직결된다.

소득과 자산을 기준으로 보면 재테크 동기의 차이가 보다 확연하게 드러난다. 응답자들의 근로소득이 중위소득인 180만 원 미만인 경우와 이상인 경우 재테크를 하는 동기의 차이는 확연하다. 그 전에 짚어야 할 것은 우선 근로소득 구간에 따른 재테크에 참여하는 비율 자체의 차이일 것이다. 근로소득이 180만 원 미만인 청년들 2,559명 중 재테크를 하는 청년들은 900명으로 35.2%에 불과하지만, 180만 원 이상인 2,635명 중에서는 58.9%에 해당하는 1,551명이 재테크를 하고 있었다. [표 3-4-3]는 재테크를 하는 청년들이 재테크 동기로 꼽는 응답들을 중복으로 집계한 것이다.

[표 3-4-4]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근로소득과 무관하게 가장 많은 청년들이 재테크의 동기로 꼽은 것은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였다. 근로소득이 180만 원 미만인 청년들의 경우에 10%이상의 응답률을 기록한 동기는 생활비 마련 - 주택 마련 - 노후 대비 순이었다. 반면, 중위 근로소득 이상의 응답자들이 꼽은 동기는 주택 마련 - 노후 대비 - 결혼 준비 - 생활비 마련 순이었다. 전자에게 두 번째로 주된 재테크의 동기로 꼽혔던 생활비 마련은 후자의 집단에서는 4번째로 중요한 재테크 동기였고, 비율로 따지면 전자의 절반 정도만이 해당 동기를 재테크 동기로 꼽았다. 근로소득이 중위값 이상인 응답자들이 재테크 동기로 꼽은 목표들의 특징은 생활비 마련이라는 현재지향적인 성격보다는 주택 마련, 노후 대비, 결혼 준비 등 미래지향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다. 이는 응답한 청년들의 나이가 대학 및 대학원에 다닐 연령대임을 고려했을 때, 현재지향적 성격이 강한 교육비 마련이라는 동기를 주된 재테크 동기로 응답한 비율이 중위 근로소득 이하의 응답자들(3.9%)에게서 그렇지 않은 응답자들(1.2%)보다 3배 이상 높은 데서도 드러난다.

이처럼 재테크 참여 현황 및 동기에 대한 기술통계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각 재테크 수단이 청년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나아가 재테크에 많이 참여하는 청년들은 어떤 청년들인지 등 청년층 내부의 차이가 드러난다. 이같은 차이는 이러한 관찰 결과는 재테크가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 나아가 이러한 재테크에 부여하는 의미가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이를 탐색하고 해명하기 위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에 대해서는 결론에서 부연하도록 하고, 우선 다음 절에서는 재테크와 관련된 불평등을 다각적으로 들여다보고자 한다.

[표 3-4-3] 재테크 수단별 재테크 동기

[단위: %]

동기	재테크 전반	예/적금	주식/펀드	가상화폐	저축성 보험	부동산 투자	기타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27.5	27.0	28.5	33.2	26.7	33.1	31.6
주택 마련	21.9	22.5	22.3	20.0	24.4	18.7	15.8
노후 대비를 위해	14.2	14.6	14.4	12.6	17.4	24.5	14.0
생활비 마련	13.4	13.0	12.9	13.3	9.4	9.5	14.0
결혼 준비	9.3	9.6	8.9	8.0	11.9	6.4	7.0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6.2	6.7	5.9	6.0	5.3	2.5	7.0
여가/취미생활을 위해	4.9	4.3	4.9	5.3	3.4	2.8	3.5
대학, 대학원 등 교육비 마련	2.2	2.2	1.8	1.3	1.5	1.8	7.0
기타	0.3	0.2	0.3	0.3	0.0	0.6	0.0

주: 응답자들은 자신이 활용하고 있는 재테크 수단을 모두 체크하게 되어있었기 때문에, 열별로 나와 있는 재테크 수단들을 활용하는 응답자들의 집단은 상호배타적이지 않다. 가령 “가상화폐” 열의 응답 수치는 가상화폐만 투자하는 응답자들의 응답이 아니라, 다른 재테크 수단과 함께 가상화폐에도 투자하는 응답자들의 동기를 보여준다.

[표 3-4-4] 근로소득에 따른 재테크 동기의 차이

구분	중위 근로소득 미만		중위 근로소득 이상	
	응답자 수(명)	비율	응답자 수(명)	비율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458	27.4	805	27.6
생활비 마련	300	18.0	314	10.8
주택 마련	290	17.4	716	24.5
노후 대비를 위해	195	11.7	456	15.6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131	7.8	153	5.2
여가/취미생활을 위해	113	6.8	113	3.9
결혼 준비	106	6.3	323	11.1
대학, 대학원 등 교육비 마련	66	3.9	36	1.2
기타	12	0.7	3	0.1
합계	1,671	100.0	2,919	100.0

(2) 재테크 규모 및 결과의 불평등

앞에서는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어떤 이유로 재테크를 실천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재테크는 단순히 하는지의 여부, 즉 0/1로 나타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재테크를 하느냐의 여부 이상으로 중요한 쟁점은 재테크에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의 크기이다. 시장 여건과 수익률, 투자처 등이 모두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재테크로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의 크기가 다르다면 그로 인해 증식할 수 있는 자산의 크기 역시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절에서는 재테크와 관련된 두 화폐의 흐름, 즉 재테크를 통해 운용되는 자산과 재테크를 통해 발생하는 소득의 불평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① 재테크를 통해 운용되는 자산의 불평등

[표 3-4-5]에서 드러나듯, 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서울 청년들의 자산 현황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응답자의 3/4이상이 어느 정도의 금융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금융자산은 예/적금과 주식/채권/펀드는 물론, 아파트 중도금과 타인에게 받을 예정인 돈(갯돈, 빌려준 돈) 등을 모두 포함한다. 반면, 가장 오래전부터 일반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거론되었던 부동산을 보유한 비율은 12.1%에 불과했다.

언론에서 주식투자와 더불어 청년세대의 주된 재테크 수단으로 다루었던 가상화폐의 경우, 10.4%가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이 중 자산가치의 측면에서 비중이 높았던 것은 단연 부동산이었다. 자산가치의 평균값과 최댓값이 다른 자산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해당 자산 보유 비율과 자산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과 그렇지 않은 청년들 간의 자산 불평등이 상당할 것임을 추측해볼 수 있다.

[표 3-4-5] 자산 종류별 현황

[단위: 만 원]

	해당 자산 보유 비율	평균	표준편차	최댓값
금융자산(n=5,193)	75.4%	2,215.4	4,923.6	120,000
소유부동산(n=5,185)	12.1%	3,786.7	16,689.4	300,000
가상화폐(n=5,193)	10.4%	95.1	1,116.7	47,000
전세금, 임대보증금(n=5190)	1.3%	195.1	3,141.9	100,000
총 자산(n=5,194)	79.3%	6,285.1	19,315.2	370,000

해당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청년들, 즉 금융자산의 경우 75.4%, 부동산의 경우 12.1%, 가상화폐의 경우 10.4%의 청년들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해보면 이러한 불평등이 보다 확연히 드러난다. 부동산을 소유한 12.1%의 응답자들 가운데 부동산 자산 가치의 불평등도는 다른 자산들에 비해 상대적으로는 가장 낮은 편(0.5824)이다. 그러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청년들의 부동산 자산 가치는 3억을 초과하며, 이는 다른 종류의 자산들의 평균 가치를 가볍게 뛰어넘는다. 가장 많은 청년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해당하는 금융자산의 경우, 평균값과 중위값은 부동산에 훨씬 못 미치지만 지니계수는 소유부동산에 비해 높다. 금융자산과 소유부동산만 놓고 비교해보자면, 금융자산은 보유하고 있는 이들도 많지만 불평등도도 그만큼 높고, 부동산의 경우 보유자의 저변은 좁지만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공통성 때문에 금융자산만큼 불평등이 심하지는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두고 부동산 소유와 관련된 불평등은 부동산 가치 간 차이로 드러나기보다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느냐는 여부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청년들의 재테크 수단 중 하나인 주식의 경우, 금융자산의 일부로 함께 조사되어 그 자산 규모를 추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가상화폐의 경우에는 불평등도를 확인할 수 있다. 가상화폐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542명의 응답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 자산가치의 평균값이 900만 원인데 상위 25% 기준선은 700만 원이라는 데서 알 수 있듯이, 가상화폐의 자산 가치 불평등도는 다른 종류의 자산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가상화폐는 상기 열거된 재테크 수단들 중 가장 가치의 변동성이 심하다는 점을 고려해야겠지만, 그만큼 다른 재테크 수단에 비해 청년들이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금액이 천차만별이라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표 3-4-6] 자산 종류별 불평등(해당 자산이 있는 경우에 국한)

[단위: 만 원]

	지니계수	평균	중위값	표준편차	상위			
					25%	10%	5%	1%
금융자산(n=3919)	0.6550	2,936.3	5,478.7	1,000	3,293	7,800	10,000	22,000
소유부동산(n=634)	0.5824	31,414.4	38,009.1	17,000	49,500	85,000	105,000	155,000
가상화폐(n=542)	0.7844	912.7	3,352.9	200	700	2,000	3,000	10,000
전세금, 임대보증금(n=70)	0.6991	15,340.4	23,497.4	4,899.5	23,000	50,000	75,000	100,000
총액	0.7867	7,927.3	21,390.6	1,500	5,000	18,000	40,000	105,000

마지막으로, 이 각각의 자산들이 전체 자산 불평등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3-4-7]은 자산 원천 별 지니계수 분해법을 적용한 분석 결과이다. 우선 응답자들의 모든 보유 자산 중 소유 부동산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위에서 살펴보았던 응답자 중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비율은 12.1%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자산가치가 전체 응답자들의 자산가치 중 60%에 육박한다. 3/4이상의 응답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비중은 35.4%에 불과했다. 전체 자산 불평등에서도 소유 부동산의 불평등이 차지하는 몫(67.6%)은 금융자산(27.6%)을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상화폐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이들의 비율은 10%에 가까웠고 보유하는 이들 간의 불평등도도 높았지만 전체 자산 가치 중 차지하는 비중은 1.5%에 불과하며, 전체 자산 불평등도에 기여하는 비중도 1.3%에 불과하다. 가상화폐는 변동성과 리스크가 크다는 이유로 위험한 재테크 수단으로 지목되면서 가장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섰지만, 객관적 수치로 보았을 때 자산 불평등과 연관된 정도는 그보다는 적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재테크를 통해 운용할 수 있는 자산의 불평등은 가상화폐와 같이 최근에 부상한 재테크 수단에 투자된 자산보다는, 세대를 가리지 않고 가장 일반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간주되어왔던 부동산 자산가치의 불평등과 연관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4-7] 자산 종류별 전체 자산 불평등에 대한 기여도

	전체 자산 불평등도에 대한 기여도	전체 자산에서 해당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Sk)	자산 별 지니계수(Gk)*	지니 상관계수(Rk)
금융자산(n=5,193)	0.2758	0.3535	0.7392	0.8792
소유부동산(n=5,185)	0.6756	0.6002	0.9498	0.9873
가상화폐(n=5,193)	0.0126	0.0152	0.9775	0.7065
전세금, 임대보증금(n=5,190)	0.036	0.0311	0.9962	0.9684
총 자산(n=5,194)			0.8331	

주: 여기서 자산별 지니계수(Gk)는 전체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산출한 것으로, [표 3-4-6]에서 산출한 해당 자산 보유자들 간의 지니계수와는 다르다. 소유부동산과 가상화폐, 전세금, 임대보증금의 자산 별 지니계수는 0.95 전후로 매우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해당 자산이 없는 다수의 응답자들이 '0'으로 응답했기 때문이다.

② 재테크로 인한 소득의 불평등

그렇다면 재테크를 통해 발생하는 소득의 불평등은 어떠한가? 비록 청년세대의 재테크가 최근 화두로 부상하였지만, [표 3-4-8]에서 드러나듯 재테크 소득보다는 근로소득을 경험하는 청년들의 비중이 여전히 79.9%에 달한다. 다양한 소득 원천 중 이 글에서 관심을 갖는 소득원인 금융소득과 가상자산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는 청년은 각각 15.7%, 3.4%에 불과했다. 근로소득의 평균값은 163.6만 원으로, 금융소득(6.4만 원), 가상자산소득(1.9만 원) 보다 훨씬 많았다. 다만 평균과 표준편차, 최대값에서 유추해볼 수 있듯 근로소득보다는 금융소득이, 금융소득보다는 가상자산소득의 분포가 보다 불평등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4-8] 소득 종류별 현황

[단위: 만 원]

	해당 자산 보유 비율	평균	표준편차	최댓값
근로소득(n=5,193)	79.9%	163.6	134.9	1,000
금융소득(n=5,194)	15.7%	6.4	34.3	1,000
공적 이전소득 (n=5,194)	14.9%	3.5	13.4	213
사적 이전소득(n=5,194)	14.8%	10.7	40.7	1,000
사업소득(n=5,194)	4.0%	7.3	47.8	1,000
기타 소득(n=5,194)	3.4%	0.9	7.8	333
가상자산소득(n=5,194)	3.4%	1.9	19.4	500
기타 재산소득(n=5,194)	0.8%	0.5	10.4	500
임대소득(n=5,192)	0.5%	0.7	16.2	780
전체 소득	90.6%	195.3	149.5	1,320

79.9%의 응답자들이 있다고 응답한 근로소득과 달리 대다수에게 해당되지 않는 금융소득과 가상자산소득의 경우, 전체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평균값을 산출해내기보다는 해당 소득원이 있는 응답자들의 경우에 국한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표 3-4-9]의 결과를 [표 3-4-8]과 비교하면, 근로소득은 163만 원에서 204만 원으로 약 1.3배 증가한 비해 금융소득의 평균값은 6.4만 원에서 40.8만 원으로, 가상자산소득의 경우에는 1.9만 원에서 54.1만 원으로 크게 늘었다. (여기서 금융소득은 금융자산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 일반을 의미하므로 주식 배당금 혹은 주식을 비롯한 금융상품의 거래차익뿐만 아니라 예금 이자 등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재테크 수단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 인한 소득도 포함한다. 따라서 이 글이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주식 투자로 인해 발생한 소득과 금융소득을 동일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주식 투자와 연관된 소득 자체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는 추후 별도의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금융소득과 가상자산소득의 평균값과 중위값은 근로소득에 비해 훨씬 적기 때문에, 청년들 사이에서 재테크가 유행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주된 소득원은 근로소득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각 소득원별 지니계수이다. 근로소득(0.3193)과 사업소득(0.4632)보다 금융소득(0.6846)과 가상자산소득(0.6876)의 지니계수가 훨씬 높다. 특히 상위 25%, 10%, 5%, 1%의 기준선이 되는 값을 살펴봐도 근로소득에 비해 금융소득이, 금융소득보다는 가상자산소득이 가파르게 상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근로소득자 청년들과 비교했을 때 재테크를 경험하는 청년들 사이에서 재테크로 인해 얻는 소득의 불평등이 훨씬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4-9] 소득 종류별 불평등(해당 소득원이 있는 경우에 국한)

[단위: 만 원]

	지니계수	평균	중위값	표준 편차	상위			
					25%	10%	5%	1%
근로소득(n=4,150)	0.3193	204.7	200	119.8	270	350	400	550
금융소득(n=815)	0.6846	40.8	10	78.1	50	100	167	417
공적 이전소득 (n=774)	0.5454	23.1	13	27.5	30	50	75	125
사적 이전소득(n=770)	0.4787	72	50	82.1	90	150	240	400
사업소득(n=206)	0.4632	182.9	150	160.1	300	400	500	700
기타 소득(n=179)	0.4803	26.6	17	33.1	40	50	60	208
가상자산소득(n=178)	0.6876	54.1	17.5	90.6	50	150	250	500
기타 재산소득(n=39)	0.6543	65.3	25	102.8	50	200	300	500
임대소득(n=27)	0.6177	127.4	53	189.3	100	417	600	780
전체 소득(n=4705)	0.3489	215.6	200	142.4	283	380	467	735

마지막으로, [표 3-4-10]은 전반적인 소득 불평등에서 재테크와 연관된 소득 불평등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준다.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근로소득은 전체 소득원 중 차지하는 비중도 83.8%로 가장 높았고, 전체 소득 불평등에 기여하는 비율 역시 83.8%에 달했다. 근로소득 다음으로 응답자들의 전체 소득원 중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던 것은 사업소득이었다. 근로소득과 함께 재테크가 아닌 소득원천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의 경우, 해당 소득이 있는 응답자들을 기준으로 할 때의 지니계수(0.4632)는 금융소득(0.6846)·가상자산소득(0.6876)보다 낮지만, 해당 소득을 경험하는 청년들의 비율이 4%에 불과하여 소득원 별 지니계수(0.9788)는 매우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사업소득이 전체 소득 불평등도에 기여하는 정도는 약 5.8%였다.

[표 3-4-10] 소득 종류별 전체 자산 불평등에 대한 기여도

	전체 소득 불평등도에 대한 기여도	해당 소득원 비중(Sk)	소득원 별 지니계수(Gk)	지니 상관계수(Rk)
근로소득	0.8375	0.8376	0.4561	0.8991
사업소득	0.0583	0.0371	0.9788	0.6578
금융소득	0.0551	0.0328	0.9505	0.7247
가상자산소득	0.0177	0.0095	0.9893	0.7754
사적 이전소득	0.0134	0.0547	0.9227	0.109
임대소득	0.0075	0.0034	0.998	0.9017
공적 이전소득	0.0063	0.0176	0.9324	0.1582
기타 재산소득	0.0038	0.0025	0.9974	0.6236
기타 소득	0.0004	0.0047	0.9821	0.0386
전체 소득			0.4101	

재테크로 인한 소득원천에 해당하는 금융소득과 가상자산소득의 경우, 객관적인 소득 불평등에 대한 기여도는 높지 않았다. 이는 두 소득원이 [표 3-4-9]에서 살펴보았듯 해당 소득원이 있는 청년들 사이에서는 매우 불평등한 소득 분포를 보이지만, 전체 소득원 중 차지하는 비중이 근로소득보다 훨씬 더 낮게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금융소득이 전체 소득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3.3%였고, 전체 소득 불평등에 기여하는 정도는 약 5.5%였다. 가상자산소득의 경우 그 수치는 더욱 낮아 각각 1%, 1.8%를 기록했다. 정리하자면 재테크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원, 즉 금융소득과 가상자산소득은 해당 소득원이 있는 청년들과 없는 청년들 간에, 그리고 해당 소득원이 있는 청년들 사이에서 근로소득에 비해 불평등한 분포를 보인다. 그렇지만 절대적인 비중이 크지 않아 전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다.

4) 나가며: 청년들의 재테크, 해답인가 문제인가?

2022년 6월 현재, 이 글의 서두에서 언급한 신조어들을 넣어 뉴스를 검색해보면 이 신조어들이 탄생했던 시기, 곧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위기와 자산시장 폭락을 계기로 시작된 2020년의 “동학개미운동” 당시와는 사뭇 다른 풍경이 펼쳐진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긴축 기조에 따른 금리인상의 여파로 “영끌”과 “빚투”의 위험성이 드러나고 있다. 2년 전만 하더라도 꿈과 희망을 품고 투자 관련 지식을 습득하는 합리적이고 능동적인 존재로 그려졌던 개인투자자들은 최근의 기사에서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계좌를 들여다보며 한숨짓고,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 계좌의 반대매매를 강요받으며, 심지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신세로 그려진다. 이처럼 올상을 짓고 있는 투자자들의 사연들이 얼마나 많은 청년들에게 해당되는지 그 수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얼마나 많은 이익을 거두고 손실을 입었는지 역시 알 수 없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자산시장의 상황에 따라 사회경제적 안정성이 흔들리고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이들이 점점 주요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산시장이 불황을 겪는 지금,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를 처음 시작했던 청년들은 다시 금융 관련 정보를 스스로 검색하고 습득하며 자신의 앞날을 도모할 것이다. 금융 전문가들은 투자자 개인에게 포트폴리오 운용에 대한 조언을 쏟아낼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정책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 글은 이러한 질문을 고민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서울청년패널조사〉를 통해 청년들의 재테크 실천 현황을 파악하고자 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세대에게 재테크에 대한 경험은 소수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절반에 가까운 인구집단이 경험하는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47%가 넘는 응답자들이 하나 이상의 재테크를 경험하고 있으며, 주식/펀드나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는 청년들의 비중은 37%, 10%에 달한다. 재테크를 실천하는 비율과 이들의 재테크 실천을 추동하는 동기는 근로소득에 따라, 재테크 수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경제적 자유”라는 가치는 어디에서나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둘째, 청년세대가 주식 투자와 가상화폐를 통해 새롭게 재테크를 경험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재테크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과 재테크를 통해 증식하고자 하는 자산의 규모가 반드시 최근의 재테크 열기와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재테크를 통해 운용되는 자산의 대부분은

부동산이며, 이런 경우는 10% 초반대의 소수에게 해당한다. 금융자산과 가상화폐 자산이 전체 자산 불평등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다. 재테크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역시 전체 소득 불평등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근로소득에 비해 미미하다.

그렇다면 미디어와 출판계에서 조명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회자가 되는 청년들의 재테크 열풍은 과장된 것일까? 꼭 그렇게 볼 수만은 없다. 재테크라는 경제적 실천이 청년세대 사이에서 일상적인 풍경으로 자리 잡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더욱 부상할 수도 있다. 재테크와 관련된 소득의 불평등도가 근로소득보다 높고, 가상화폐 자산의 경우에도 해당 자산을 경험한 이들 간의 불평등도가 다른 자산의 경우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재테크 열풍이 더욱 거세질 경우 재테크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더더욱 심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재테크라는 경제적 실천은 재테크를 통해 운용할 수 있는 자산이라는 초기 조건은 물론, 재테크의 결과 발생하는 소득이라는 측면에서도 불평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평등은 자산 시장을 활성화하여 모두에게 “기회”와 “사다리”를 보장해서 모두가 일종의 “민주화된 자본 이득(democratized capital gain)”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치인들의 약속(Adkins et al., 2020)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현재 엄존하는 불평등을 극복하는 실천은 온전히 개인의 몫으로 귀착된다. 재테크의 꿈이 좌절될 경우 더욱 악화될 불평등은 재테크를 꿈꿀 수 있는 자유의 평등 앞에서 간과된다. 그러나 금융화 이전부터 자본주의에 상존하는 사회적 위험(social risk)에 맞서 구성원들의 삶을 집합적으로 보장해왔던 사회정책의 전통을 따르다면, 사회정책은 청년세대가 자산시장에 대해 품고 있는 열망을 제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하기보다는 이 열망이 먹고 사는 청년들의 개인화된 불안의 집합적 해결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이 글은 이런 고민의 필요성을 주장하고자 했다. 그 출발점은 본문에서 다루었던 재테크 수단 및 근로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항상 중요한 재테크의 동기로 꼽히고 있었던 “경제적 자유”라는 키워드가 될 수도 있다. 경제적 자유는 역사적으로 복지국가가 노동과 소득의 탈동조화, 곧 탈상품화를 통해 구성원들에게 제공하고자 했던 가치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노동을 전면적으로 대체하기 위해서이든, 혹은 노동소득만으로 부족해서이든, 재테크에서 소득을 얻으려는 청년들이 회구하는 것이 “경제적 자유”라는 조사 결과는 구성원들이 공적인 사회보장에 거는 기대가 얼마나 미약한지를 보여주는 슬픈 농담처럼 들린다. 그렇다면 재테크라는 현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되 긍정하지 않고, 이것이 막을 수 없는 흐름이라는 사실을 수용하기 이전에 이해하려는 노력들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요컨대 재테크를 현존하는 불평등에 대한 해답으로 여기기보다는, 재테크를 하지 않으면 충족될 수 없는 사회경제적 안정성의 부재라는 문제(problem)를 읽어내야 하며, 나아가 왜 그토록 많은 청년들이 재테크에 몰두하느냐는 질문(question)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내희, 2014, 「신자유주의 금융화와 문화정치경제」, 문화과학사.
- 고용노동부, 2019,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상반기 지원 인원을 늘린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고재성·이건남·변정현·김성남, 2010, “청년층 구직역량 개념 정의 및 가중치 분석”, 「직업교육연구」, 29(2): 17~42.
- 곽민주·이희숙·김민정, 2012, “주관적 부채부담에 따른 부채증가 가구의 특성과 영향요인”, 「소비자문제연구」, (43): 157~175.
- 국회예산정책처, 2012, 「주요국의 가계부채 조정과정 및 대응정책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 권순필·최은영, 2018, “지난 20년 우리가 사는 집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 「KOSTAT 통계플러스」, 2(여름호): 28~47.
- 권중돈, 2014, 「인간행동과 사회복지실천」, 학지사.
- 금융위원회, 2017, 청년·대학생 금융 실태조사 결과 및 향후 정책방향,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기요사키, 로버트, 2001,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형선호 역, 황금가지.
- 김기현·배정화·김창환·성재민, 2022,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 : 일자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기현·배정화, 2021, 「2021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기현·이운주·유설희, 2017,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수현, 2019, “개인투자자는 왜 실패에도 불구하고 계속 투자를 하는가?: 서울 매매방 개인 전업투자자의 꿈과 금융시장 간파”,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승연·노승철·장익현·김상현·변금선·이영주·이종선·박나리, 2021, 「2020년 서울시 복지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서울연구원.
- 김안국, 2003, “청년층 미취업의 실태 및 원인 분석”, 「노동경제논집」, 26(1): 23~52.
- 김용성, 2012, “고학력 청년층의 미취업 원인과 정책적 대응방안: 일자리 탐색이론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 34(3): 69~94.
- 김태은·양세정, 2018, “청년층의 부채상환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 「소비자학연구」, 29(6): 105~133.
- 김호기·박은철·남원석·오근상·민진홍·이기인, 2021, 「2020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서울연구원.
- 김호원·이종구, 2018, “취업성공패키지 청년층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의 만족도와 성과에 관한 연구”, 「취업진로연구」, 8(1): 1~20.
- 김홍중·조민서, 2021, “페이션시의 재발견: 고프만과 부르디외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55(3): 35~65.

- 남기곤, 2009, “청년층 미취업자 특성에 관한 분석-미취업 결정요인 및 낙인 효과를 중심으로”, 『산업노동연구』, 15(2): 99~123.
- 남재욱, 2021,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이후 이행과정의 불평등 연구”, 『한국사회정책』, 28(1): 133~160.
- 맹성준·김은경·한창근, 2019, “자신이 가족갈등수준에 미치는 영향: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50(2): 179~206.
- 박나리·김교성, 2021, “청년 불안정성의 궤적과 유형: 20대 청년의 고용, 소득, 부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28(3): 45~74.
- 박성재·반정호, 2006, “대졸 청년층 취업준비노력의 실태와 성과”, 『한국인구학』, 29(3): 29~50.
- 박수민, 2022, “청년 부채 현황 진단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2022(3): 21~32.
- 박시내, 2021, “저혼인 시대, 미혼남녀 해석하기”, 『KOSTAT 통계플러스』, 13(봄호): 24~47.
- 박윤태·노정현, 2017, “가구 연령별 가계부채 상환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부동산학회지』, 35(2): 145~158.
- 박정민·오옥찬·구서정, 2017, “가계부채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우울감과 자살생각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9(2): 171~190.
- 박정민·이기원·하은솔, 2018, “청년 채무 보유의 관련요인: 부모 사회경제적 특성의 역할”, 『한국사회복지학』, 70(4): 93~116.
- 배호중·한창근, 2018, “학자금 대출과 혼인이행: 4 년제 대학 졸업 여학생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8(1): 520~555.
- 백진영·오명석, 2015, ““꿈에 투자하세요”: 학자금대출을 통해 본 대학생의 신용과 부채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인류학』, 48(2): 3~43.
- 변금선, 2015, “가구 소득계층에 따른 청년 노동시장 성과의 차이: 취업 이행기간 및 임금수준을 중심으로”, 『직업능력 개발연구』, 18(1): 129~161.
- _____, 2018,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의 계층화: 1970~80년대 출생코호트의 청년기 노동계적 비교”, 『한국사회복지학』, 70(3): 113~137.
- _____, 2019, “청년의 부채부담 변화에 관한 연구: 출생코호트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12: 143~149.
- 변금선·김승연·박민진·이혜림, 2021, 「‘2025 서울시 청년정책’ 비전과 전략」, 서울연구원.
- 변금선·이혜림, 2021, 「서울시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 실태」, 서울연구원.
- 보건복지부, 2021,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0」, 사회보장위원회.
- 서울시복지재단, 2022, ‘개인회생’ 신청 청년 실태조사 발표, 서울시복지재단 보도자료.
- 석상훈, 2008, “저임금 근로의 동태적 분석: 상태의존성 검증”, 『산업경제연구』, 21(2): 691~709.
- 성재민, 2011, “저소득자 노동시장 지위 변화에 대한 동태적 분석”, 『사회보장연구』, 27(4): 165~189.
- 신용상, 2021, 「국내 가계부채 리스크 현황과 선제적 관리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 신재열, 2021, “첫 일자리의 선택이 노동소득에 미치는 영향: 첫 일자리 이후의 일자리 이행과 노동소득의 변화에 관한 검토”, 『경제와 사회』, 210~252.
- 양동규·최재성, 2019, “학자금 대출 경험이 노동시장 초기행태에 미치는 영향”, 『경제분석』, 25(4).
- 오승민, 2015, “가치투자의 수행성과 대중투자문화의 형성,”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호영, 2017, 「캥거루족 실태분석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유미순·유가호, 2017, “부부의 성격이 결혼만족도 및 이혼의도에 미치는 영향: 대구시 부부를 중심으로”, 「과학논집」, 43: 15~42.
- 윤성원, 2020, “한국과 일본의 적극적노동시장정책과 청년실업”, 「사회과학논집」, 51(2): 45~70.
- 이동준·강준혁·맹성준, 2021, “청년 주식투자자들의 ‘빚투’경험에 관한 연구: 근거이론 접근”, 「미래사회복지연구」, 12(1): 127~160.
- 이동준·한창근, 2021, “청년 주식투자자들의 신용대출 경험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9): 771~789.
- 이로마·박가열·정연순, 2010, “청년 니트 유형과 특성에 관한 질적 연구: 구직 희망자를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23(1): 153~175.
- 이상인·오미애·김문길·전진아, 2021, 「2020 고립청년 발굴 및 지원을 위한 미취업 청년 고립실태 분석 연구-서울특별시 청년수당 참여자를 중심으로」,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 이승윤·백승호·김미경·김윤영, 2017, “한국 청년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분석”, 「비판사회정책」 54: 487~521.
- 이영민·박철우·정동열, 2019, “청년실업 발생의 원인과 해소방안에 관한 소고”,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9(6): 793~801.
- 이용호, 2021, “청년층의 학자금 대출에 따른 노동시장 간 이행을 분석”, 「사회복지정책」, 48(4): 137~160.
- 이용호·엄선바·송지현, 2021, “부모의 사회계층이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고정효과모형을 적용하여”, 「한국사회복지학」, 73(2): 107~131.
- 이용호·이원익, 2020, “청년의 부채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정책」, 47(3): 227~253.
- 이은지, 2013, “한국에서 주택 담론의 역사적 변화: 1970년~2000년대 신문 기사를 통해 본 ‘내집마련’ 담론”,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지혜·남기범·천성문, 2017, “역량프로그램이 청년구직자의 취업스트레스와 구직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교육치료연구」, 9(3): 531~552.
- 장동호, 2014, “가계부채 문제와 복지국가의 관계에 관한 탐색적 연구”, 「사회복지정책」, 41(4): 201~226.
- 정수남, 2011, “‘부자되기’ 열풍의 감정동학과 생애프로젝트의 재구축», 「사회와 역사」 89: 271~303.
- 조문영·조민서·김지현, 2021, “안전의 열망과 기여의 의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수령자들의 서사», 「한국문화인류학」 54: 307~358.
- 조민서, 2019, “실업과 현금지급의 사회정치-서울시 청년수당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존 리, 2020, 「존리의 부자되기 습관」, 지식노마드.
- 지은·이미지, 2021, “2030 미취업 청년장애인의 구직역량 및 사회적 지지기반 유형별 특성 분석», 「장애와 고용」, 31(1): 323~344.
- 천주희, 2016, 「우리는 왜 공부할수록 가난해지는가」, 사이행성.
- 최민석, 2011,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일상생활의 금융화와 투자자 주체의 형성»,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시현, 2021, 「부동산은 어떻게 여성의 일이 되었나」, 창비.
- 최요한, 2018, “청년층 비정규직의 고용형태 이행확률의 추정», 「노동정책연구」, 18(4): 31~50.

- 최원호, 2018, “부채가계의 자산배분과 결정요인”, 『재무연구』, 31(4): 557~594.
- 최철웅, 2013, “일상의 금융화와 탈정치화의 정치”, 『문화과학』, 74: 284~311.
- _____, 2015, “가계의 금융화와 일상의 정치”, 『마르크스주의 연구』, 12(2): 45~84
- 최현자·김예희, 2017, “가계의 심리적 부채부담에 관한 연구”, 『Financial Planning Review』, 10(2): 53~77.
- 탁장한·박정민, 2017, “과중채무자의 사회경제적 박탈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48(2): 173~201.
- 통계청, 2021, 2021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
- 통계청, 2021, 2021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자사 시군고 주요고용지표,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
- 통계청, 2021, 2021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
- 하랑경·심혜원·김강화·박신아, 2020, “청년가구의 부채부담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40(4): 295~331.
- 한국경제연구원, 2021, 청년실업률 1%p 상승시 잠재성장률 0.21%p ↓, 한국경제연구원 보도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한국복지패널 유저가이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허지원, 2021, “상대적 박탈감과 정신건강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21: 70~70.
- 홍경준, 2017,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전략과 복지정책 방향,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사회보장학회정기학술대회』, 2017(2): 265~289.
- 황정원·길혜지, 2021, “청년고용정책이 대졸 청년층 취업에 미치는 효과 분석”, 『직업능력개발연구』, 24(2): 67~94.
- Addo, F. R., Houle, J. N., & Sassler, S., 2019, “The changing nature of the association between student loan debt and marital behavior in young adulthood”,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40(1): 86~101.
- Adkins, L., Cooper, M., & Konings, M., 2020, *The asset economy*, John Wiley & Sons.
- Andruff, H., Carraro, N., Thompson, A., Gaudreau, P., & Louvet, B., 2009, “Latent class growth modelling: a tutorial”, *Tutorials in quantitative methods for psychology*, 5(1): 11~24.
- Berger, L. M., Collins, J. M., & Cuesta, L., 2016, “Household debt and adult depressive symptom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37(1): 42~57.
- Cooke, R., Barkham, M., Audin, K., Bradley, M., & Davy, J., 2004, “Student debt and its relation to student mental health”, *Journal of Further and Higher Education*, 28(1): 53~66.
- Creswell, J. W., 2013, *Qualitative Inquiry &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조흥식, 정선옥, 김진숙, 권지성(역)(2015), 질적연구 방법론 다섯가지 접근 제3판, 학지사.
- Epstein, G. A., (Ed.). (2005), *Financialization and the world economy*. Edward Elgar Publishing.
- Esping-Andersen, G., 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rinceton University Press.
- European Commission, 2014, *The Over-Indebtedness of European Households: Updated Mapping of the Situation, Nature and Causes, Effects and Initiatives for Alleviating its Impact*, DG Health.
- Haiven, M., 2014, *Cultures of Financialization*, London, UK: Palgrave Macmillan.
- Harmes, A., 2001, “Mass investment culture”. *New Left Review*, 9: 103~124

- Houle, J. N., 2014, "Disparities in debt: Parents' socioeconomic resources and young adult student loan debt", *Sociology of Education*, 87(1): 53~69.
- Jones, B. L., Nagin, D. S., & Roeder, K., 2001, "A SAS procedure based on mixture models for estimating developmental trajectories",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29(3): 374~393.
- Kim, B., 2017, "Think rich, feel hurt: the critique of capitalism and the production of affect in the making of financial subjects in South Korea", *Cultural studies*, 31(5): 611~633.
- Kim, J., & Chatterjee, S., 2021, "Financial Debt and Mental Health of Young Adults", *Journal of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 Krippner, G. R., 2004, "The financialization of the American economy", *Socio-economic review* 3: 173~208.
- Langley, P., 2008, *The everyday life of global finance*,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Lee, S. C., 2022, "Magical capitalism, gambler subjects: South Korea's bitcoin investment frenzy", *Cultural Studies*, 36(1): 96~119.
- Martin, R., 2002, *Financialization of daily life*,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 Nagin, D., 2005, *Group-based modeling of development*, Harvard University Press.
- OECD, 2021, *Education at a Glance 2021: Social Indicators*, OECD Publishing.
- Rettig, K. D., Danes, S. M., 1994, *Economic and demographic factors associated with consumer debt use*, Credit Research Center, Purdue University Working Paper No. 52.
- Robert, C., & Richard, B., 2017, *From Manual Workers to Wage Laborers Transformation of the Social Question*, Routledge.
- Schultz, T. W., 1961, "Investment in Human Capital",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51(1): 1~17.
- Stake, R. E., 1995, *The art of case study research*. sage.
- Turunen, E. and Hiilamo, H., 2014, "Health effects of indebtedness: A systematic review", *BMC Public Health*, 14(1): 1~18.
- 연합뉴스, 2022. 1. 13., 이재명·윤석열, 증시개장식서 '2030·동학개미' 구매 경쟁(종합), URL: <https://www.yna.co.kr/view/AKR20220103081951001>
- 경향신문, 2022. 1. 27., 부자만 좋은 포퓰리즘?...윤석열 "주식양도세 폐지", URL: <https://www.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201271015011>
- 서울경제, 2021. 09. 26., '소득대비부채비율(LTI), 5년 동안 20대 43.8%p ? 30대 53%p 상승', URL: <https://www.sedaily.com/NewsView/22RM4OD3RN>
- 경향신문, 2020. 10. 6., ①밀레니얼 개미들이 묻는다 "불로소득, 꼭 나쁜 건가요", URL: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010060600115#c2b>
- 조선일보, 2020. 11. 28., "월급만 mind간 벼락거지" 8시50분이면 화장실 가는 주식열풍, URL: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0/11/28/6JHBZ3RBXNBMRGL3OIZQ3EX5P4
- 한겨레, 2021. 11. 4., 이재명 "주식 장기보유에 세제혜택...청년 자산형성 기회 부여 필요", URL: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17977.htm

부록

1_2021년 서울청년패널조사 조사표

※ 이 조사에 응답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됩니다.

2021년 서울청년패널조사

안녕하십니까?




서울연구원에서는 서울시의 의뢰를 받아 서울 청년패널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청년의 삶을 다각적으로 파악하여 청년정책 수립 및 개선의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조사는 약 40분 정도 소요되며, 저희가 드리는 질문에는 맞고 틀림이 없습니다. 평소에 가지고 계셨던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조사의 모든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하여 통계목적에만 사용되며 그 비밀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귀하의 응답은 서울시 청년정책 수립에 귀중한 기초자료로 이용되오니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조사담당자			
면접원 ID		면접원 이름	

일반사항			
집계구 번호		자치구	
가구번호		패널 구분	① 기존 ② 신규
응답자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단독 가구 여부	① 1인 가구 ② 다인 가구
응답자 생년월	<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 년	<div> <div></div> <div></div> </div> 월	(☞ 만 18세 미만/35세 이상 조사 종료)
응답자 연락처	<div> <div></div> <div></div> <div></div> </div> -	<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 -	<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

조사 주관기관	조사 수행기관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하지 않음 ☐

성명: (서명)

I. 교육·훈련

A-1. 학교교육

다음은 귀하가 경험한 학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A1. 귀하는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다니신 적이 있습니까?

- ① 현재 재학 중이다 (→ A1-1 이동)
- ② 졸업하였다 (→ A1-1 이동)
- ③ 중퇴하였다 (→ A1-1 이동)
- ④ 현재 휴학 중이다 (→ A1-1 이동)
- ⑤ 다닌 적이 없다 (→ A1-4 이동)

A1-1. 귀하가 다니고 있거나 다니신 적이 있는 고등학교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일반계고/인문계고(종합고 인문계 포함)
- ② 특목고(과학고, 외고)
- ③ 자율형 고등학교(공립, 사립)
- ④ 마이스터고교
- ⑤ 특성화고(상업계, 공업계, 농업계, 가사/해양전문계, 종합고(전문계) 등)
- ⑥ 예술·체육고교
- ⑦ 기타(대안학교, 해외고교, 방송통신고)

A1-2. 귀하는 고등학교에 언제 입학하셨습니다?

--	--	--	--

 년

(→ 현재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응답 후 A4 이동)

A1-3. 귀하는 고등학교를 언제 졸업/휴학/중퇴 하셨습니다?

--	--	--	--

 년

(→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응답 후 A2 이동)

A1-4. 귀하는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획득하셨습니다?

- ① 예 (→ A1-5 이동)
- ② 아니오 (→ A4 이동)

A1-5. 귀하는 언제 검정고시로 졸업자격을 획득하셨습니다?

--	--	--	--

 년

A2. 귀하는 대학(전문대 포함)에 다니고 있거나 다니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A2-1 이동)
- ② 없다 (→ A4 이동)

A2-1. 귀하는 몇 개의 대학을 다니셨습니까?

개

■ 귀하가 경험한 대학(교)에 대하여 다음 사항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험 한 대학 순서	A2-2. 학교 유형	A2-3. 대학 이름	A2-4. 전공이름	A2-5. 전공계열
	① 일반 4년제 대학 ② 2~3년제 대학 ③ 산업 대학 ④ 교육 대학 ⑤ 방송통신 대학 ⑥ 사이버(디지털) 대학 ⑦ 기능 대학(폴리텍) ⑧ 기타 ()	()대학(교)	()학과(학부)	① 인문계열 ② 사회계열(상경계열 포함) ③ 자연계열 ④ 공학계열 ⑤ 의/약학계열 ⑥ 교육계열 ⑦ 예체능계열 ⑧ 사관학교(육사,해사,공사), 경찰대 ⑨ 기타 ()
	1			
	2			
	3			
	4			

경험 한 대학 순서	A2-6. 학교 소재지		A2-7. 입학연도	A2-8. 재학상태	A2-9. 휴학/중퇴/졸업연도
	① 서울특별시 ② 강원도 ③ 경기도 ④ 경상남도 ⑤ 경상북도 ⑥ 광주광역시 ⑦ 대구광역시 ⑧ 대전광역시 ⑨ 부산광역시	⑩ 세종특별자치시 ⑪ 울산광역시 ⑫ 인천광역시 ⑬ 전라남도 ⑭ 전라북도 ⑮ 제주도 ⑯ 충청남도 ⑰ 충청북도 ⑱ 기타	()년	① 재학 중 (→ A3 이동) ② 휴학 중 (→ A2-9 이동) ③ 졸업 유예 (→ A3 이동) ④ 중퇴 (→ A2-9 이동) ⑤ 졸업 (→ A2-9 이동)	()년 ※ 휴학과 중퇴의 경우 마지막 휴학·중퇴시작 연도를 기준으로 기입 하여 주시고, 졸업의 경우 최종 졸업 연도를 기입하여 주세요.
	1				
	2				
	3				
	4				

A3. 귀하는 대학원을 다니고 있거나 다니신 적이 있습니까?

- ① 다니고 있거나 다닌 적이 있다(재학, 휴학, 중퇴, 졸업) (→ A3-1 이동)
- ② 다닌 적이 없다 (→ A4 이동)

A3-1. 그렇다면, 귀하가 다닌 대학원 과정은 무엇입니까?

- ① 석사과정
 ② 박사과정
 ③ 학·석사연계과정
 ④ 석·박사통합과정

A3-2. 귀하의 현재 대학원 과정 재학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재학 중
 ② 휴학 중
 ③ 졸업 유예(수료)
 ④ 중퇴
 ⑤ 졸업

A3-3. 대학원에 진학한 가장 주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 ① 학문(전공 심화)에 대한 관심 때문에
 ② 대학원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③ 졸업할 당시 취업이 어려워서
 ④ 학교 교수님의 권유로
 ⑤ 부모님의 권유로
 ⑥ 선배, 동기, 친구들의 권유로
 ⑦ 기타 ()

A4. 귀하는 귀하가 원하는 단계까지 학교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예 (→ A5 이동)
- ② 아니오 (→ A4-1 이동)

A4-1. 귀하가 원하는 단계까지 교육을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학비 마련이 어려워서
 ② 학교가 멀어서
 ③ 입학시험에 실패해서
 ④ 가족의 성차별, 인식부족 등의 이유로
 ⑤ 가사를 돌보아야 해서
 ⑥ 질병, 신체적 장애로 인해서
 ⑦ 기타()

다음은 대학 미진학 사유와 진학 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의 A5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분(고졸 이하 및 재수생 등 비진학자)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A5. 귀하는 추후에 대학(전문대 포함)에 진학할 의사가 있습니까?

- ① 예 (→ A5-1 이동)
 ② 아니오 (→ B1 이동)

A5-1. 언제쯤 대학(전문대 포함)에 진학할 계획이십니까?

향후

--	--

 년 이내

B. 직업훈련 · 교육

다음은 취업 또는 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나 직업훈련 참여 경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B1. 귀하가 취업이나 창업을 위해 지금까지 준비했거나 현재 준비하고 있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 ① 직무관련 직업교육 이수
- ② 직무관련 자격증 취득(기능, 기술 등)
- ③ 어학연수 또는 외국어 준비(외국어자격증 취득 포함)
- ④ 인턴·아르바이트 등 직무경험
- ⑤ 공개채용 등 취직 시험 준비
- ⑥ SNS, 블로그 등 인맥관리
- ⑦ 학교성적 관리 및 복수·부전공
- ⑧ 봉사활동 경험
- ⑨ 취업 관련 동아리 및 스터디 참여
- ⑩ 기타()
- ⑪ 준비 안 함 (→ B2 이동)

B1-1. 귀하는 현재 기준으로 지난 1년간 취업이나 창업을 위해 다음과 같은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거나 현재 받고 계십니까?

구분	경험 여부	
(1) 직장연수	① 있음	② 없음
(2) 오프라인 학원수강	① 있음	② 없음
(3) 오프라인 교양강좌(사회교육원, 평생교육원 등)	① 있음	② 없음
(4) TV 및 라디오 강좌 청취	① 있음	② 없음
(5) 온라인 강의 전문 사이트를 이용한 강의	① 있음	② 없음
(6) 전문 모바일 앱을 이용한 강의	① 있음	② 없음
(7) 유튜브의 강의 시청	① 있음	② 없음
(8) 개인 또는 그룹과의	① 있음	② 없음
(9) 기타()	① 있음	② 없음

B2. 귀하가 생각하기에 취업이나 창업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입니까?

- ⑫ 적성검사 및 상담 지원
- ⑬ 다양하고 많은 구인 정보
- ⑭ 자세하고 정확한 구인 정보
- ⑮ 교육·훈련 정보와 기회 제공
- ⑯ 다양한 형태의 경험 기회 마련
- ⑰ 구직 준비를 위한 탐색 비용 및 구직기간 동안의 비용 지원
- ⑱ 좋은 일자리 창출
- ⑲ 공공 일자리 확대
- ⑳ 기타()

B3. 귀하가 취업 또는 창업 준비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를 모두 골라 주십시오.

- ① 학교(상담교사, 교사, 지도교수 등)
- ② 공공기관(서울시, 고용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 ③ 사설기관(사설학원, 인터넷취업사이트 등)
- ④ 부모님이나 친인척
- ⑤ 친구, 선후배
- ⑥ 기타()
- ⑦ 도움받은 경험 없음

B4. 귀하는 취득하신 국가자격증(기술사, 기능사, 교사자격증, 영양사 등), 민간자격증 또는 외국자격증 등이 있으십니까? 일반 운전면허(2종 보통)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 ① 있다 (→ B4-1 이동)
- ② 없다 (→ B5 이동)

B4-1. 귀하가 취득하신 자격증은 총 몇 개 입니까?

개

《자격증 예시》

자격증 유형	예시
국가기술자격증 (기술사, 기사,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p>▶ 용접, 유체기계, 산업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보일러, 금속, 정보통신,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작응용, 광학, 로봇,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3D프린터운용기능사, 철도, 조선, 바이오화학제품제조, 타워크레인설치·해체, 환경위해관리기사 등 이공계열</p> <p>▶ 시각디자인, 제품디자인, 조리, 제과, 제빵, 미용사, 이용사, 보석감정, 보석가공, 보석디자인산업, 세탁, 잠수, 식육가공, 떡제조기능사, 농작업안전보건, 방재기사, 직업상담사, 사회조사분석사, 한글 속기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 전산화기사, 전자상거래 등</p> <p>▶ 비서 등 전문사무 영역의 자격증은 1급일 경우 산업기사에, 2급, 3급일 경우 기능사에 해당됨.</p>
국가전문자격증	교사, 의사, 약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보육교사, 약사, 영양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변리사, 법무사, 한약사, 공인노무사, 유통관리사, 경매사, 관세사, 보세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응급구조사, 기관사, 운항사, 항해사, 경영지도사, 자동차운전전문강사, 소방시설관리사, 생활체육지도사, 관광통역안내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농산물품질관리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가맹거래사, 검량사, 검수사, 경비지도사, 국내여행안내사, 기술지도사, 문화재수리기술자, 물류관리사, 손해평가사, 소방안전교육사, 산업보건지도사, 산업안전지도사, 주택관리사보,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등
민간자격증 (국가 공인, 비공인 포함)	정보검색사, TEPS, 한자능력검정, 번역사 1,2,3급, 증권분석사, 1종 투자 상담사, 정보검색사 1,2,3급, 사회보험관리사 1,2,3급, 웹프로그래머 1,2,3급, PC정비사1,2급, 인터넷 정보검색사 1,2급, 무역영어, 증권분석사, 댄스스포츠지도사, 매경TEST, 경제이해력검증시험(TESAT), AT자격시험(FAT, TAT), 리눅스마스터, 행정관리사(1,2,3급), CS LEADERS관리사, FLEX(외국어), SQL(전문가, 개발자), SMAT서비스경영자격, 정보기술자격(ITQ), 병원행정사, GTQ, 세무회계, 전산세무회계, 데이터분석(전문가, 준전문가), 데이터아키텍처전문가, KBS 한국어능력시험, 한국실용글쓰기검정, 반려견스타일리스트, 종이접기마스터, 샵마스터, 주거복지사 등
국제(외국)자격증	▶ 일본어 능력시험(JLPT), TOEIC, TOEFL, 중국어 능력시험(HSK), 미국공인회계사(AICPA), 국제재무분석사(CFA), 선물중개인(AP) 등

B5. 귀하는 현재까지 공무원 또는 공단(공사), 교원 임용 시험,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 경험이 있습니까?

※ **시험준비:** 학교 재학 시절을 포함하여 현재까지의 시험 준비 경험 모두를 의미하며, 공단(공사) 직원의 내부 진급을 위한 시험은 포함되지 않음

- ① 있다
- ② 없다

다음은 진로와 직업 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직업이 있는 분도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B6. 귀하는 진로와 관련하여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 ① 진로에 대해 별로 생각해보지 않았다
- ② 진로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지만 여러 방향으로 탐색 중이다(적성·강점 파악)
- ③ 어느 정도 진로를 결정하고 관련 분야를 탐색하는 중이다(정보검색, 진로상담·컨설팅)
- ④ 진로와 관련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학원수강, 스터디참여, 시험준비, 포트폴리오 구축, 입사 지원, 창업 준비, 지인추천/소개)
- ⑤ 진로가 확정되어 취업, 창업, 창작 활동의 시작을 앞두고 있다
- ⑥ 내가 원하는 진로에 해당하는 일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다

B7. 귀하께서 일자리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개**를 응답해주시시오.

1순위		2순위	
-----	--	-----	--

- ① 조직문화가 수평적인 일자리
- ② 급여(보상) 수준이 높은 일자리
- ③ 사회적 인지도가 높은 일자리
- ④ 고용 안정성이 높은 일자리
- ⑤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가 자유로운 일자리
- ⑥ 미래 성장 비전이 있는 일자리
- ⑦ 적성에 맞는 일자리
- ⑧ 복리후생이 우수한 일자리
- ⑨ 자아실현이 가능한 일자리
- ⑩ 기타()

B8. 다음의 항목들이 귀하가 하고 있거나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해당 항목이 도움이 된 경험이 있는 경우 도움 정도에 대해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경험 여부	전혀 도움되 지 않는다	도움되 지 않는다	보통이 다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1) 전공지식	① 있다 → ② 없다	①	②	③	④	⑤
(2) 이전 직장(일자리) 경험	① 있다 → ② 없다	①	②	③	④	⑤
(3) 동아리 또는 동호회 활동 경험	① 있다 → ② 없다	①	②	③	④	⑤
(4) 정부 또는 서울시의 취업/창업 지원 프로그램	① 있다 → ② 없다	①	②	③	④	⑤
(5) 민간 취업/창업 상담 및 컨설팅	① 있다 → ② 없다	①	②	③	④	⑤
(6) 취업/창업 관련 교육	① 있다 → ② 없다	①	②	③	④	⑤
(7) 자격증 취득	① 있다 → ② 없다	①	②	③	④	⑤

B9. 다음의 항목들에 대해 최근 청년들이 일자리(직장, 사업, 일거리)를 구할 때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취업·창업정보가 부족하거나 잘 모른다	①	②	③	④	⑤
(3) 학력, 기술, 기능이 모자란다	①	②	③	④	⑤
(4) 경험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5) 제시된 사업 또는 일자리의 수입이 적다	①	②	③	④	⑤
(6) 근로환경이나 근로시간이 안 맞는다	①	②	③	④	⑤
(7) 나이 제한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II. 일자리 공통

C. 일자리 경험

다음은 귀하의 지난주 일자리 경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C1. 귀하는 **지난 일주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일**: 학생의 아르바이트, 현장실습, 인턴 활동, 프리랜서 활동, 농림수산업 종사 등이 모두 포함되며,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나 농장 등에서 무보수로 일하는 경우, 즉 가족의 소득활동을 위해 보수를 받지 않고 일하는 경우도 포함

※ **일시 휴직이란**, 일거리나 직업이 있는 상태에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일을 잠시 중단한 것을 의미합니다

- ① 일을 하였음 (→ C2 이동)
- ② 휴가 및 일시 휴직 (→ C1-1 이동)
- ③ 일을 하지 않았음 (→ C1-1 이동)

C1-1. 지난주에 일하지 않은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④ 일시적인 병 혹은 사고 때문에
- ⑤ 휴가·연가 등의 사용으로
- ⑥ 진학 준비 중 혹은 정규교육기관(고등학교, 대학교 등)에 재학 중이어서
- ⑦ 집안일(경조사, 이사, 가사 및 육아 등) 때문에
- ⑧ 사업장이 일시적으로 휴업하여서
- ⑨ 일자리가 없어서(구직준비 중, 구직활동 중)
- ⑩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 ⑪ 날씨가 좋지 않아서
- ⑫ 사업이 부진하여서
- ⑬ 기타()

다음은 귀하의 과거 모든 일자리 경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C2. 귀하는 **현재 일자리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일주일에 1시간 이상, 1개월 이상**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 근로장학생, 아르바이트, 현장실습생, 인턴, 프리랜서, 자영업, 가족의 소득활동을 위해 보수를 받지 않고 일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무인점포 운영이나 숙박 임대업 등은 포함하되, 부동산 임대나 주식투자 등은 제외하고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예
- ② 아니오 (→ E1 이동(p.27))

C2-1. 귀하는 언제 처음으로 일자리를 가지셨습니까?

 년

 월

C2-2. 귀하는 최근 3년간 총 몇 개의 일자리를 가졌습니까? (**현재 하고 있는 일 포함**)

 개

【다음의 C3은 C2-2에서 응답한 최근 3년간 가진 모든 일자리에 대해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C3. 귀하가 최근 3년간 경험한 일자리에 대하여 다음의 내용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주일에 1시간 이상, 1개월 이상 일을 한 모든 일자리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C3-1. 일자리 시작 시기	C3-2. 현재 재직 여부	C3-3. 일자리 종료 시기
	()년 ()월	① 그만둠 (→ C3-3 이동) ② 재직중 (→ C3-4 이동)	()년 ()월
경험 일자 리			
1			
2			
3			
4			
5			

	C3-4. 고용형태	C3-5. 직종
	① 정규직 임금근로자 ② 상용 임금근로자 (계약기간 1년 이상이거나 무기계약) ③ 임시근로자 (계약기간 1개월 이상 1년 미만) ④ 일용근로자 (계약기간 1개월 미만) ⑤ 특수형태근로자 (고객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소득을 얻는 형태: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퀵서비스 배달원 등) ⑥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⑦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개인 프리랜서 포함) ⑧ 무급가족종사자	① 관리자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③ 사무 종사자 ④ 서비스 종사자 ⑤ 판매 종사자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⑧ 장차·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⑨ 단순노무 종사자 ⑩ 직업군인 ⑪ 기타 ()
경험 일자 리		
1		
2		
3		
4		
5		

경험 일자리	C3-6. 주당 평균 근로시간	C3-7. 월평균 근로 소득(세후)
	주당 () 시간	세후 월 평균 () 만 원
1		
2		
3		
4		
5		

[종사 직업 분류표]

구분	설명	예시
① 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 기업, 단체 또는 그 내부 부서의 정책과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현업을 겸할 경우에는 정책을 결정하고 관리, 지휘, 조정하는데 직무 시간의 80%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관리자 직군으로 분류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회의원, 고위공무원, 기업 고위임원, 정부기관 부서장, 정부지방서기관장, 경리부서장, CFO, 재무부서장, 예산팀장 등 담당업무 부서의 실장, 부서장, 금융 관련 지점장 관리자, 연구관리자, 유치원 원장 등 <p>※ 직업군인 중 소대장 등은 '⑩ 직업군인'임</p>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개념과 이론을 이용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자문, 지도(교수) 등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원, 시험원, 학원 강사, 시스템 전문가 및 소프트웨어 개발자, 정보시스템 웹 운영자, 정보보안 및 네트워크 시스템 관리자, 항공기 및 선박 기관사 및 관계자, 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영양사,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청소년지도사, 직업상담사 등), 변호사, 판검사, 변리사, 교사, 공공행정 전문가, 자산운용가, 손해보험 사정사, 기자, 디자이너 등
③ 사무 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를 보조하여 경영 방침에 의해 사업계획을 입안하고 계획에 따라 업무추진을 수행하며, 당해 작업에 관련된 정보(data)의 기록, 보관, 계산 및 검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금전취급 활동, 법률 및 감사, 상담, 안내 및 접수와 관련하여 사무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영, 회계, 금융, 법률, 감사, 상담, 안내, 통계 등 사무원, 사무보조원
④ 서비스 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안전 및 신변보호를 위한 보안 관련 서비스, 돌봄 및 보건·복지 관련 서비스, 이·미용, 혼례·장례 등 개인 생활서비스, 운송 및 여가·스포츠 관련 서비스, 조리 및 음식 관련 서비스 등 대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찰, 소방, 돌봄(요양보호사, 보육 및 교사 보조직), 미용, 혼례 및 장례종사자, 항공기, 열차 등 승무원, 호텔 및 오락시설 등 서비스원, 골프장 캐디 등 여가 서비스 종사원 등
⑤ 판매 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업활동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인터넷 등 통신을 이용하거나 상점이나 거리 등에서 상품을 판매 및 임대하며, 상품을 광고하거나 상품의 품질과 기능을 선전하는 등의 활동을 수행하며, 매장에서 계산하는 활동도 수행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업직, 매장 판매직, 상품대여, 통신 및 방문노점 판매 관련직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기 계획과 판단에 따라 농산물, 임산물 및 수산물의 생산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기초로 전답작물 또는 과수작물을 재배·수확하고 동물을 번식·사육하며 산림을 경작, 보존 및 개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 축산, 원예, 임업, 어업 관련 숙련직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업, 제조업, 건설업 분야에서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응용하여 금속을 성형하고 각종 기계를 설치 및 정비한다. 또한 섬유, 수공예 제품과 목재, 금속 및 기타 제품을 가공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가공, 섬유, 의복, 금속, 목재, 가구, 악기, 정보통신, 건설, 운송, 기계, 금속 성형 등 관련해 특정 기능원(재단사, 제빵사, 정육가공원, 수선사, 전기통신 수리원, 장도차 정비원 등)
⑧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계를 조작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대규모적이고 때로는 고도의 자동화된 산업용 기계 및 장비를 조작하고 부분품을 가지고 제품을 조립하는 업무로 구성된다. 여기에는 운송장비의 운전업무도 포함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가공, 섬유, 화학, 금속, 기계제조, 전기 및 전자, 운전, 상하수, 목재, 인쇄 등 관련 기계를 직접 조작해 업무를 수행하는 기계조작직 <p>※ 배달을 위한 차량운전 포함(배달원은 단순노무)</p>
⑨ 단순노무 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로 수공구의 사용과 단순하고 일상적이며, 어떤 경우에는 상당한 육체적 노력이 요구되고, 거의 제한된 창의와 판단만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역 및 적재, 배달원, 청소 및 경비원, 가사 육아도우미, 주방보조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매장 정리, 전단지 배포, 주유원 등
⑩ 직업군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무복무를 제외한 직업 군인만을 의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업군인

【다음의 C4는 C3-2에서 ‘그만둠’ 상태인 일자리 중 가장 마지막 일자리에 대해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C4. 귀하가 가장 최근에 그만둔 일자리는 스스로 원해서 그만둔 것이었습니까?

※ 고용계약의 종료, 업체의 폐업, 해고 등은 ‘② 아니오’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① 예
- ② 아니오

C4-1. 그 일을 그만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직장의 파산, 폐업, 휴업 등으로 인해
- ② 정리해고로 인해
- ③ 권고사직
- ④ 명예퇴직(희망퇴직)
- ⑤ 계약기간이 끝나서
- ⑥ 소득 또는 보수가 적어서
- ⑦ 일거리가 없거나 적어서
- ⑧ 일이 임시이거나 장래성이 없어서
- ⑨ 적성, 지식, 기능 등이 맞지 않아서
- ⑩ 근로시간 또는 근로환경이 나빠서
- ⑪ 자기(가족) 사업을 하려고
- ⑫ 건강, 고령 등의 이유로
- ⑬ 회사 내 인간관계 때문에
- ⑭ 회사가 이사하여서(전근·발령을 받아서)
- ⑮ 우리집이 이사하여서
- ⑯ 기타()

C4-2. 그 일을 그만둔 후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 ① 생계유지를 위한 생활비 부족
- ② 재취업을 위한 교육, 훈련 기회의 부족
- ③ 재취업을 위한 일자리 정보 부족
- ④ 재취업을 위한 일자리 기회 부족
- ⑤ 이전 직장경력으로 인한 재취업 과정에서의 차별
- ⑥ 창업을 위한 자금조달 등 어려움
- ⑦ 가족을 돌보면서 할 수 있는 일자리 기회 부족
- ⑧ 기타()
- ⑨ 특별히 없었음

C4-3. 귀하는 그 일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현재 일자리가 있는 경우 D1 이동, 일자리 없는 경우 E1 이동)
- ② 아니오 (→ C4-4 이동)

C4-4.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실업급여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 ②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 ③ 절차가 복잡해서, 요구사항이 많아서
- ④ 실업급여 혜택이 크지 않아서
- ⑤ 신청 도중에 취업이 되어서
- ⑥ 기타()

Ⅲ. 취업자

D-1. 주된 일자리

다음은 귀하의 가장 주된 일자리인 **【C3에서 판별된 주된일자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자리가 1개 이상이라면 가장 오랜 시간 일하는 일자리를 주된 일자리로 보고, 일하는 시간이 동일하다면 가장 수입이 많은 일자리를 주된 일자리로 봅니다.

D1. 현재 귀하의 가장 주된 일자리는 다음 중 어느 산업에 해당합니까?

※ 내가 하는 일이 아닌, **회사가 하는 일(산업)**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 세부 산업에 대한 분류는 참고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① 농업, 임업 및 어업
- ② 광업
- ③ 제조업
- ④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 ⑤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⑥ 건설업
- ⑦ 도매 및 소매업
- ⑧ 운수 및 창고업
- ⑨ 숙박 및 음식점업
- ⑩ 정보통신업
- ⑪ 금융 및 보험업
- ⑫ 부동산업
- ⑬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⑭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⑮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⑯ 교육서비스업
- ⑰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⑱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⑲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⑳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
- ㉑ 국제 및 외국기관

[종사 산업 분류표]

종사산업 중분류			
① 농업, 임업 및 어업	농업	⑦ 도매 및 소매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임업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어업		소매업; 자동차 제외
② 광업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⑧ 운수 및 창고업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금속 광업		수상 운송업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항공 운송업
	광업 지원 서비스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③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⑨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업
	음료 제조업		음식점 및 주점업
	담배 제조업		출판업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⑩ 정보통신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방송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우편 및 통신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정보서비스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⑪ 금융 및 보험업	금융업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보험 및 연금업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⑫ 부동산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부동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⑬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연구개발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전문 서비스업
	1차 금속 제조업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⑭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전기장비 제조업		임대업; 부동산 제외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⑮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교육 서비스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⑯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건업
	가구 제조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기타 제품 제조업	⑰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④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⑱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도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⑤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㉔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	가구 내 고용활동
	환경 정화 및 복원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㉕ 국제 및 외국기관	국제 및 외국기관
⑥ 건설업	종합 건설업		
	전문직별 공사업		

D2. 현재 귀하의 가장 주된 일자리의 사업체는 다음 중 어디에 속합니까?

- ①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
- ② 외국인회사
- ③ 공공기관 및 공기업(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공사합동기업)
- ④ (재단, 사단)법인단체
- ⑤ 정부부처(공무원(예: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군인)
- ⑥ 사회적 기업
- ⑦ 특정회사나 사업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
- ⑧ 기타()

D3. 귀하의 가장 주된 일자리의 사업체 전체 종사자 수는 몇 명입니까?

- ※ 종사자 수의 기준은 종사하는 일자리의 상호로 파악되는 전체 사업장 차원의 종사자 수를 말합니다(예. OO은행의 ◇◇지점일 경우 종사자 수를 지점 기준이 아닌 은행 전체 종사자 수로 작성).
- ※ 그룹사의 경우 해당 계열사에 대해서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예. □□그룹의 △△자동차에 다니는 경우 △△자동차 계열사의 종사자 수로 작성).
- ※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자신을 포함한 일자리에 고용된 종업원이 몇 명인지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급여(임금)를 받는 가족이나 친지도 종사자 수에 포함되며, 임금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제외하고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단, 특정 시기에 한시적으로 고용하는 사람은 제외).
- ※ **파견근로 및 용역근로자**의 경우 파견되어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곳의 종사자 수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예. ♡♡파견업체에서 ▽▽업체로 파견되어 근무할 경우 ▽▽업체 기준으로 작성)
- ※ **공무원, 공립학교 교사** 등은 '300명 이상'으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⑨ 1~4명
- ⑩ 5~299명
- ⑪ 300명 이상
- ⑫ 잘 모르겠다

D4. 귀하가 가장 주된 일자리에서 일하시는 장소는 주로 어디입니까?

※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재택근무의 경우에는 평소 근무하시던 사업장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사도우미, 입주도우미, 입주 과외선생님, 택시기사 등은 ③, 대리운전기사, 배달 라이더 등은 ④에 해당됩니다.

- ① 자택
- ② 사업장 내
- ③ 사업장 사무실 이외의 지정된 장소
- ④ 기타()

D4-1. 이곳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 일하는 곳이 여러 지역인 경우 가장 주된 근무지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재택근무의 경우 평소 근무하시던 사업장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① 서울
- ② 경기
- ③ 인천
- ④ 기타()

D4-2. 귀하가 집에서 사업장까지 출·퇴근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왕복)은 평균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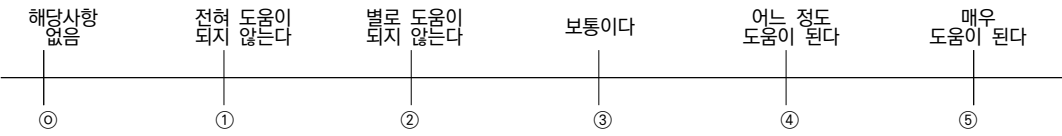
 시간 분

D5. 귀하의 가장 주된 일자리의 직무 수준 및 전공 일치도는 어떠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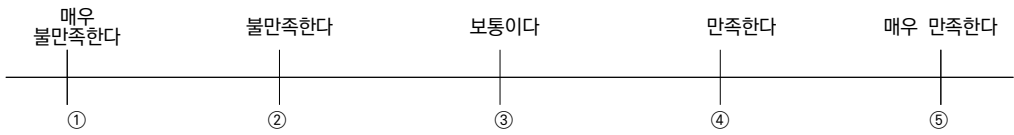
구분	직무 수준 및 전공 일치도		
(1) 나의 교육수준보다 현재 일자리 직무수준이	① 낮다	② 유사하다	③ 높다
(2) 나의 기술수준보다 현재 일자리 직무수준이	① 낮다	② 유사하다	③ 높다
(3) 나의 전공분야와 현재 일자리의 직무가	① 불일치한다	② 어느 정도 일치한다	③ 일치한다

D6. 귀하가 대학(교) 또는 대학원을 통해 습득한 전공지식이 가장 주된 일자리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 대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사람은 '① 해당사항 없음'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D7. 귀하는 가장 주된 일자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D8. 귀하가 주된 일자리를 통해 희망하는 월평균 소득과 주당 노동시간은 어느 정도 인니까?

- ※ 주당 노동시간은 점심시간 등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 불규칙적으로 일하는 직업(예. 농사나 일용 건설 노무자 등)의 경우 1년 중 일한 날 하루 평균 시간을 기준으로 주 5일 근무하였을 시에 환산 시간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예. 하루 평균 근무시간 6 × 5일 = 주당 노동시간 30시간)

(1) 본인이 원하는 월평균 소득

: 약

원

(2) 본인이 원하는 주당 노동시간

: 약

시간

D9. 귀하는 현재 가장 주된 일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 자영업자 또는 고용주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지 않은 경우는 '② 없음'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	<div>·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 근로자의 존엄성이 침해되거나 적대적, 위협적, 모욕적 업무환경이 조성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div> <div>· 과도한 업무부여, 타인의 일 전가, 고함 및 모욕적인 발언, 물리적 폭력,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의 차별, 정당한 이유 없는 부서 이동, 집단 따돌림, 의사와 상관없는 음주·흡연·회식 참여 강요, 성적불쾌감을 느끼는 행동, 직원의 권리(휴가사용, 복지혜택 등)를 이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div>
위험한 근로환경	<div>· 위험한 근로 환경에는 기계 등의 진동, 심한 소음, 일하지 않을 때조차 땀을 흘릴 정도로 높은 온도, 실내/외 관계없이 낮은 온도, 연기, 먼지(목분진, 광물 분진 등) 등의 흡입, 신너 등 유기용제 증기 흡입, 화학제품/물질을 취급하거나 직접 접촉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div>

구분	경험 여부
(1) 직장 내 괴롭힘	① 있음 ② 없음
(2)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근로환경	① 있음 ② 없음
(3) 손님으로부터의 욕설, 폭언, 모욕적인 말, 성적 불쾌감을 느끼는 행동	① 있음 ② 없음 ③ 해당사항 없음

다음은 취업자의 전체 일자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D10. 고객이나 일감을 구하기 위해서 웹사이트나 핸드폰 앱 등 온라인 플랫폼(예. 배달의 민족, 숨고, 크몽, 라우드 소싱, 오투잡 등)을 사용하는 일자리가 있습니까?

【C3-2에서 현재 재직중인 모든 일자리 중 해당하는 일자리를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현재 재직중인 일자리 1
- ② 현재 재직중인 일자리 2
- ③ 현재 재직중인 일자리 3
- ④ 해당되는 일자리 없음

【다음의 D11~D11-2는 고용형태(C3-4)가 ② 상용 임금근로자 (계약기간 1년 이상이거나 무기계약), ③ 임시근로자 (계약기간 1개월 이상 1년 미만), ④ 일용근로자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일자리가 있으신 경우에 응답해주세요.】

D11. 귀하는 비정규직 일자리보다 정규직 일자리를 선호하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D11-1. 귀하가 현재와 같은 고용형태로 일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지금 직장에서 퇴직(또는 정리해고) 후 다시 재취업 되었기 때문
- ② 정규직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서
- ③ 이 직장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있기 때문
- ④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어서
- ⑤ 가사
- ⑥ 육아, 자녀 돌봄
- ⑦ 학업, 직업훈련 때문에
- ⑧ 많은 임금을 보장하므로
- ⑨ 경험을 쌓을 수 있어서
- ⑩ 단기간만 일하길 원했기 때문
- ⑪ 돈이 급해서
- ⑫ 건강상의 이유로
- ⑬ 일의 성격상, 계절적이어서
- ⑭ 기타()

D11-2. 귀하는 고용될 때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작성하였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다음의 D12~D13은 C3-2에서 현재 재직중인 일자리가 여러 개인 경우에 응답해주시시오.】

D12. 귀하가 현재 여러 개의 일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주된 이유부터 순서대로 2개를 응답해주시시오.

1순위		2순위	
-----	--	-----	--

- ① 한 개의 일자리로는 생활비가 부족해서
- ② 생활비 이외의 여유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 ③ 하고 싶은 일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 ④ 원하는 일자리가 수입이 안정적이지 않아서 하고 싶은 일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 소득원을 마련하려고
- ⑤ 이직을 위해 사전에 다른 일 경험을 쌓기 위해서
- ⑥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서
- ⑦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양만큼 일할 수 있어서
- ⑧ 기타()

D13. 귀하가 현재 하고 있는 일(전체 일자리)을 통해 희망하는 월평균 소득과 주당 노동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 주당 노동시간은 점심시간 등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러 개의 일을 하는 경우 귀하의 주된 일과 그 외의 다른일의 합산 소득과 합산 노동시간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불규칙적으로 일하는 직업(예. 농사나 일용 건설 노동자 등)의 경우 1년 중 일한 날 하루 평균 시간을 기준으로 주 5일 근무하였을 시에 환산 시간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예. 하루 평균 근무시간 6 × 5일 = 주당 노동시간 30시간)

(1) 본인이 원하는 월평균 소득

: 약

--	--	--	--	--	--	--	--

 원

(2) 본인이 원하는 주당 노동시간

: 약

--	--

 시간

【다음의 D14~D14-2는 C3-6에서 현재 재직중인 일자리의 총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경우 응답해주시시오.】

D14. 귀하가 일주일에 36시간 미만 일한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정규근무시간이 36시간 미만
- ② 건강문제(일시적 병, 사고)
- ③ 날씨가 좋지 않아서
- ④ 휴가·연가, 공휴일
- ⑤ 교육·훈련 참여
- ⑥ 육아
- ⑦ 가족적 이유(육아 외 가족 돌봄 등)
- ⑧ 노사분규
- ⑨ 일시적으로 일거리가 없어서
- ⑩ 사업부진, 조업중단
- ⑪ 기타()

D14-1. 귀하는 지난주에 더 많은 시간 일하기를 원하였습니까?

- ①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시간을 늘리고 싶었음(근로시간 연장) (→ D14-2 이동)
- ② 현재 하고 있는 일 이외의 다른 일도 하고 싶었음 (→ D14-2 이동)
- ③ 더 많은 시간 일할 수 있는 일(직장)로 바꾸고 싶었음 (→ D14-2 이동)
- ④ 계속 그대로 일하고 싶음 (→ D15 이동)

D14-2. 귀하는 지난주에 일이 더 주어졌거나 더 많은 시간 일할 수 있는 다른 일(직장)이 주어졌다면 할 수 있었습니까?

- ① 있었음
- ② 없었음

D15. 귀하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은, 귀하가 하고 싶은 일입니까?

- ① 예 (→ D16 이동)
- ② 아니오 (→ D15-1 이동)

D15-1. 귀하는 하고 싶은 일이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 ① 예 (→ D15-2 이동)
- ② 아니오 (→ D16 이동)

D15-2. 귀하가 희망하는 직업은 무엇입니까?

※ 현재 직업이 있으면서 직업을 바꿀 계획이 없는 경우 현재 직업을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직업이 있으면서 직업을 바꿀 계획이 있는 경우 바꾸기 희망하는 직업을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업명: _____

D15-3. 귀하는 향후 그 희망 직업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현재 직업이 희망 직업인 경우에는 '⑤ 매우 그렇다'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① 전혀 아니다
- ② 아니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D-2. 구직/이직/창업

D16. 귀하는 구직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적성검사 및 상담 지원
- ② 다양하고 많은 구인 정보
- ③ 자세하고 정확한 구인 정보
- ④ 교육·훈련 정보와 기회 제공
- ⑤ 구직기간 동안의 비용 지원
- ⑥ 기타()

【다음의 D17은 자영업자를 제외하고 주된 일자리의 고용형태(C3-4)가 ① 정규직 임금근로자, ② 상용 임금근로자(계약기간 1년 이상이거나 무기계약), ③ 임시근로자(계약기간 1개월 이상 1년 미만), ④ 일용근로자(계약기간 1개월 미만), ⑤ 특수형태근로자인 경우 응답해주십시오.】

D17. 현재 하고 계시는 주된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구직활동을 한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 구직활동: 취업을 위해 원서접수 또는 취직시험에 응시, 신문, 잡지, 인터넷, 휴대폰 어플 등의 구인광고를 보고 전화하거나 찾아가는 경우, 사업체에 찾아가 면담한다든지 전화로 상담하는 경우, 지인에게 일자리를 알아봐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등을 포함합니다.

- ① 1개월 미만
- ②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③ 6개월 이상 1년 미만
- ④ 1년 이상

D18. 귀하는 이직 또는 창업할 의향이 있습니까? 해당하는 내용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다른 직장으로 이직할 의향이 있음 (→ D18-1 이동)
- ② 창업할 의향이 있음 (→ D19 이동)
- ③ 이직 및 창업의향 없음 (→ D19 이동)

D18-1. 이직을 희망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더 나은 보수/복지를 위해
- ② 개인발전/승진
- ③ 더 나은 근무환경(직장상사, 동료, 식대, 출퇴근 시간/거리 등)
- ④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
- ⑤ 더 나은 안정성을 위해
- ⑥ 기술 또는 기능 수준이 맞지 않아서
- ⑦ 개인 사업을 위해서
- ⑧ 건강상의 이유로
- ⑨ 집안사정 때문에(육아, 가사부담 등 포함)
- ⑩ 기타()

D18-2. 이직을 희망하지만 현재 이직하지 않은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다른 직장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서
- ② 다시 취업을 준비할 자신이 없어서
- ③ 재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 ④ 당장 생계유지가 급해서
- ⑤ 시간이 지나면 개선될 것으로 생각해서
- ⑥ 기타()

D18-3. 언제쯤 이직할 계획이십니까?

- ① 3개월 이내
- ② 3개월 이상 ~ 6개월 이내
- ③ 6개월 이상 ~ 1년 이내
- ④ 1년 이후
- ⑤ 모르겠다

D19. 귀하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취업을 위해 **이직 활동** 및 **창업 준비**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해당하는 내용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직장 이직활동을 한 적이 있음 (→ D19-1~D19-2 응답)
- ② 창업 준비를 한 적이 있음 (→ F1(p.31) 응답)
- ③ 이직활동 및 창업 준비를 한 적 없음 (→ G1(p.33) 이동)

D19-1. 귀하는 새로운 일자리(직장, 일거리)를 어떻게 알아보셨습니까?

※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표시하되 1개 이상일 경우 2개까지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	--	-----	--

- ① 학교, 학원에서 제공하는 취업정보를 통해서
- ② 교사, 교수, 스승을 통해
- ③ 친구, 친지의 소개
- ④ 고용복지센터를 통해서
- ⑤ 신문, TV, 벽보 등의 광고를 통해
- ⑥ 일하고 싶은 곳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 ⑦ 가족을 통해서
- ⑧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하여
- ⑨ 취업하고 싶은 일자리(직장, 사업, 일거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
- ⑩ 전 일자리(직장, 사업, 일거리)에서 업무상 알게 된 사람을 통해
- ⑪ 기타()

Ⅳ. 미취업자

E-1. 미취업자 - 취업준비

E1. 귀하는 지난 4주 내에 일자리(창업 준비도 포함)를 구해 보았습니까?

※ **일자리**: 타인, 또는 회사에 고용되어 임금(보수)을 받고 일하거나(직장, 아르바이트 등) 내 사업(개인사업, 프리랜서, 가게, 식당 등의 주인 혹은 농림수산업)을 하거나, 가족(친척)의 일을 일주일에 18시간 이상 돈을 받지 않고 돕는 것을 의미함

- ① 일자리를 구해보았다 (→ E2 이동)
 ② 일자리를 구해보지 않았다 (→ E1-1 이동)

E1-1. 지난 4주 내에 일자리(직장, 사업 일거리 등)를 구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주된 이유부터 **순서대로 최대 2개까지** 선택해주시시오.

1순위		2순위	
-----	--	-----	--

- ①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자리(직장)가 없을 것이라고 여겨져서
- ②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에 맞는 일자리(직장)가 없을 것이라고 여겨져서
- ③ 근처에 일자리(직장)가 없을 것이라고 여겨져서
- ④ 일자리(직장)를 찾을 수 없어 포기함
- ⑤ 기능, 학력, 능력이 부족하여
- ⑥ 성별, 연령, 장애 등에 대한 차별 때문에
- ⑦ 일할 욕구를 느끼지 못해서
- ⑧ 여행이나 문화예술, 취미활동을 위해서
- ⑨ 어린 자녀를 돌보기 때문에
- ⑩ 자녀 이외 가족 돌봄, 가사 활동 때문에
- ⑪ 질병이나 지병 때문에 휴식을 취하기 위해
- ⑫ 학교(정규교육기관)에 다니고 있어서
- ⑬ 입시학원에 다니고 있어서
- ⑭ 학원에 다니지 않고 진학준비 중이어서
- ⑮ 취업, 창업을 위한 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에 통학 중이어서
- ⑯ 학원이나 기관에 다니지 않고 취업, 창업 준비 중이어서
- ⑰ 군입대 대기 중이어서
- ⑱ 인간관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 ⑲ 진로를 정하지 못해서
- ⑳ 기타()

E2. 귀하는 지난주에 일자리(직장, 사업, 일거리)가 주어졌다면 일할 수 있었습니까?

- ① 일할 수 있었다 (→ E3 이동)
 ② 일할 수 없었다 (→ E2-1 이동)

E2-1. 지난주에 일자리(직장, 사업, 일거리)가 있더라도 일을 할 수 없었던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학교(정규교육기관)에 다니고 있어서
- ② 입시학원, 취업, 창업을 위한 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에 다니고 있어서
- ③ 학원에 다니지 않고 진학 준비 중이어서
- ④ 학원에 다니지 않고 취업, 창업 준비 중이어서
- ⑤ 아이들 키우는 일 때문에(육아)
- ⑥ 가사일 때문에
- ⑦ 건강문제로
- ⑧ 당분간 쉬고 싶어서
- ⑨ 기타()

E3.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직장을 구하지 못한 이유가 “사회 전반적 문제” 또는 “개인적 사유” 중 더 큰 것은 어떤 것입니까?

- ① 사회 전반적 문제
- ② 개인적 사유

E4. 귀하는 하고 싶은 일이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 ① 예 (→ E4-1 이동)
- ② 아니오 (→ E5 이동)

E4-1. 귀하가 희망하는 직업은 무엇입니까?

※ 현재 직업이 있으면서 직업을 바꿀 계획이 없는 경우 현재 직업을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직업이 있으면서 직업을 바꿀 계획이 있는 경우 바꾸기 희망하는 직업을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업명: _____

E4-2. 귀하는 향후 그 희망 직업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현재 직업이 희망 직업인 경우에는 ‘⑤ 매우 그렇다’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① 전혀 아니다
- ② 아니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E-2.미취업자 - 구직/창업

E5. 귀하는 앞으로 취업 또는 창업을 위한 활동을 할 의향이 있습니까?

- ※ **구직활동**: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한 활동도 포함하여 이력서 제출, 입사시험 응시, 구직사이트 등록 등 구체적으로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경우 의미
 ※ **창업을 위한 활동**: 창업 정보 수집, 창업을 위한 교육 수강, 투자자금 확보 등 창업을 위해 구체적으로 준비활동을 하는 경우 의미

- ① 있다
 ② 없다
 ③ 잘 모르겠다

E6. 귀하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취업을 위해 구직 활동 및 창업 준비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해당하는 내용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직장 구직 활동을 한 적이 있음 (→ E6-1~E6-3 응답)
 ② 창업 준비를 한 적이 있음 (→ F1(p.31) 응답)
 ③ 구직 활동 및 창업 준비를 한 적 없음 (→ G1(p.33) 이동)

E6-1. 마지막으로 구직활동을 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년			월	~					년			월
--	--	--	--	---	--	--	---	---	--	--	--	--	---	--	--	---

E6-2. 귀하는 일자리(직장, 일거리)를 어떻게 알아보고 계십니까?

※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표시하되 1개 이상일 경우 2개까지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	--	-----	--

- ① 학교, 학원에서 제공하는 취업정보를 통해서
 ② 교사, 교수, 스승을 통해
 ③ 친구, 친지의 소개
 ④ 고용복지센터를 통해서
 ⑤ 신문, TV, 벽보 등의 광고를 통해
 ⑥ 일하고 싶은 곳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⑦ 가족을 통해서
 ⑧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하여
 ⑨ 취업하고 싶은 일자리(직장, 사업, 일거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
 ⑩ 전 일자리(직장, 사업, 일거리)에서 업무상 알게 된 사람을 통해
 ⑪ 기타()

E6-3. 귀하가 일자리(직장, 일거리)를 찾고 있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자녀의 학비 또는 용돈을 벌기 위해 일자리를 찾고 있는 경우는 '① 생활비를 벌기 위해'에 해당됩니다.

- ① 생활비를 벌기 위해
- ② 배우자 또는 다른 가족이 실직하여
- ③ 본인의 학비 또는 용돈을 벌기 위해
- ④ 자신의 발전을 위해
- ⑤ 지식이나 기술의 활용을 위해
- ⑥ 여가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
- ⑦ 기타()

E7. 귀하는 구직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적성검사 및 상담 지원
- ② 다양하고 많은 구인 정보
- ③ 자세하고 정확한 구인 정보
- ④ 교육·훈련 정보와 기회 제공
- ⑤ 구직기간 동안의 비용 지원
- ⑥ 기타()

V. 창업 준비

F. 창업 준비

F1. 창업을 준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장기적으로 임금근로자보다 소득이나 장래성이 더 나을 것 같아서
- ② 적당한 임금근로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서
- ③ 창업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일이어서
- ④ 누군가(직장상사 등)의 간섭이 싫어서
- ⑤ 일하는 시간이 자유로운 편이어서
- ⑥ 가정과 가까운 곳에서 일하려고
- ⑦ 취업시 스펙이 될 수 있어서
- ⑧ 배우자(또는 친지, 친척)의 일이라 함께 해야 하므로
- ⑨ 가업(또는 집안에서 하도록 정해진 일)이어서
- ⑩ 친구나 친지의 추천으로
- ⑪ 기타()

F2. 귀하가 창업을 위해 지금까지 준비했거나 현재 준비하고 있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 ① 창업관련 교육 이수
- ② 사업 아이템 선정
- ③ 사업계획 수립
- ④ 입지 선정
- ⑤ 상권 분석
- ⑥ 자금마련
- ⑦ 인턴·아르바이트 등 직무경험
- ⑧ 관련업종 담당 종사자 만남
- ⑨ 마케팅 계획 수립
- ⑩ 창업 관련 스터디 참여
- ⑪ 기타()
- ⑫ 준비 안 함

F3. 창업을 준비할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 ① 자금 부족
- ② 기술 부족
- ③ 인력확보 어려움
- ④ 창업 지식 부족
- ⑤ 창업지원 부족
- ⑥ 창업인프라 부족
- ⑦ 복잡한 창업 절차
- ⑧ 창업성공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 ⑨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 창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 ⑩ 기타()

F4. 귀하가 생각하기에 창업을 위해 가장 필요한 자원은 무엇입니까?

- ① 창업관련 교육
- ② 창업 및 경영 1:1 맞춤형 컨설팅
- ③ 창업 및 운영 자금의 장기, 저리 지원
- ④ 온라인 상거래 지원
- ⑤ 창업 공간지원(보육센터 등)
- ⑥ 청년, 노인 고용 장려금 등 임금 지원
- ⑦ 행정서비스 지원(세무, 회계, 법률 등)
- ⑧ 직업교육훈련 지원(자격증 과정 등)
- ⑨ 벤처기업 육성
- ⑩ 기타()

F5. 귀하는 창업을 위한 정보를 어떻게 알아보고 계십니까?

※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표시하되 1개 이상일 경우 2개까지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	--	-----	--

- ① 창업 관련 교육을 통해서
- ② 교사, 교수, 스승을 통해
- ③ 친구, 가족, 친지를 통해서
- ④ 창업지원센터, 고용복지센터를 통해서
- ⑤ 신문, TV, 벽보 등의 광고를 통해
- ⑥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하여
- ⑦ 창업하고자 하는 분야의 전문가를 직접 찾아다니면서
- ⑧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통해서
- ⑨ 기타()
- ⑩ 알아보고 있지 않음

VI. 경제(소득, 소비, 재산, 부채)

G. 경제(소득, 소비, 재산, 부채)

다음은 귀하의 지난해 소득에 관한 질문입니다.

G1. 2020년 1년 동안 다음 항목별로 본인의 소득은 월평균 얼마였습니까? (배우자나 다른 가구원 소득 제외)

※ 세후 실수령액을 응답해 주십시오. (각종 세금 및 사회보험료 공제 후 받는 금액)

※ 해당하는 소득이 없는 경우 '0'을 입력해 주십시오.

소득 유형		소득 금액
1. 근로소득		세후 월평균 _____만 원
2. 사업소득 ※ 사업경영을 통해 얻은 사업수입(매출액)에서 인건비, 재료비, 사무실(상가) 임대료, 대출이자 등을 뺀 순수익을 의미합니다.		세후 월평균 _____만 원
3. 재산 소득	3-1. 금융소득 ※ 금융자산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으로, 예금의 이자, 주식의 배당금, 주식의 매매차익, 사채 또는 채권의 이자(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받는 이자) 등이 포함	세후 월평균 _____만 원
	3-2. 임대소득 ※ 주택, 건물, 토지 등 부동산 임대료에 따른 임대수입에서 부동산 유지·관리비, 대출이자 등의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	세후 월평균 _____만 원
	3-3. 기타 ※ 자격증 대여, 무형자산(저작권 인세, 특허권)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	세후 월평균 _____만 원
4. 가상자산소득 ※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하여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쳐 이익이 발생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가상자산 예시: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G), 리플(xrp), 테더(usdt), 도지코인(doge) 등		세후 월평균 _____만 원
5. 사회보험 급여나 정부보조금 등 공적 이전 소득 ※ 고용보험(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직업능력개발급여 등), 산재보험(휴업급여, 장해연금, 유족급여 등)에서 받은 급여가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양육수당, 장애연금,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청년수당, 청년 월세지원금, 아동수당, 한부모양육지원금 등 각종 현금수당		세후 월평균 _____만 원
6. 사적 이전 소득 ※ 부모, 자녀, 형제, 자매, 친지, 동료 등으로부터 받은 현금 및 현물소득		세후 월평균 _____만 원
7. 기타 (위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소득)		세후 월평균 _____만 원
합계		월평균 _____만 원

G2. 2020년 1년 동안 가구 전체의 소득은 월평균 얼마였습니까?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다른 가구원 소득 포함)

※ 가구: 혈연, 혼인, 입양 등으로 이루어진 가족이 가구 내에서 동거하면서 소득과 소비를 공유하는 생활공동체 관계를 의미합니다. 가족이 아닌 가구원은 가구에서 제외합니다.

월 평균 ()만 원

G3. 귀하는 2020년 1년 동안 정부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받았다
② 받지 않았다

G4. 귀하는 2020년 1년 동안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받으셨습니까? 받으셨다면 각각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용어설명〉

※ 근로장려금은 2009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 구성과 '충급여액' 등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자녀장려금은 2015년부터 추가된 제도로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수혜가 가능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	2,000만 원	3,000만 원	3,600만 원
	자녀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	-	4,000만 원	
	재산	2억원 (1.4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은 지급액의 50% 감액)		

*총소득 =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종교인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

항목	수혜 여부	금 액
1) 근로장려금	① 받았다 → ② 받지 않았다	2020년 총액 _____ 만 원
2) 자녀장려금	① 받았다 → ② 받지 않았다	2020년 총액 _____ 만 원

다음은 지난해 생활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G5. 귀하가 2020년 한 해 동안 본인이 사용하신 생활비 총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배우자나 다른 가구원 생활비 제외)

1년 생활비 총 금액 () 만 원

G5-1. 귀하가 지출하신 생활비 중 각 항목별 지출 비중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항목의 지출비율의 합이 100%가 되도록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각 항목의 지출비율의 합이 100%가 되도록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비율
1. 식비	식료품비, 외식비, 배달음식 및 음식 포장 등에 지출 비용	()%
2. 주거비	월세, 관리비, 각종 공과금 등	()%
3. 의류/잡화비	옷, 신발 등 의류 구매 및 세탁비, 수선비용 등	()%
4. 교통비	대중교통비, 자동차 구입 및 유지 비용 등	()%
5. 통신비	휴대폰, 인터넷 등 요금	()%
6. 교육비	등록금, 학원비, 자기계발, 교재구입비 등	()%
7. 양육비	자녀를 양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8. 의료비	입원비, 진료비, 수술비(임플란트, 성형수술 등도 포함), 약값, 건강진단비, 건강보조식품 구입비용 등	()%
9. 문화 여가비	영화관람, 도서구입 등 교양문화비, 여행비, 친구나 지인의 대인관계에 지출 비용	()%
10. 기타	위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지출 비용	()%
합계		100%

G6. 2020년 1년 동안 가구 전체 생활비는 월평균 얼마였습니까?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다른 가구원 생활비 포함)

※ 가구: 혈연, 혼인, 입양 등으로 이루어진 가족이 가구 내에서 동거하면서 소득과 소비를 공유하는 생활공동체 관계를 의미합니다. 가족이 아닌 가구원은 가구에서 제외합니다.

월평균

--	--	--	--	--

 만 원

G7. 귀하는 다음의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 ※ 특수직역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제외자이므로, (4), (5)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직장가입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부모, 배우자 등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라간 상태를 의미합니다.

국민건강 보험	· 전국민 대상의 국가의 공적 건강보험 가입여부를 의미하며, 보험회사를 통해 가입한 민간건강보험(예. 실손형 의료보험, 상해보험, 특정질병보험) 등은 제외됩니다.
국민연금	· 대상: 직장(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 사업중단이나 휴직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어서 납부예외기간인 경우는,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나 가입 중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① 가입으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직역 연금	· 업종, 직종 분류상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군인 등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원연금 등 해당 직역연금 가입자가 아닐 수 있으므로 가입된 보험 기준으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는 고용보험에 해당사항이 없으며, 자영업자 및 고용주도 고용보험에 가입 가능하므로 보험 가입여부에 대하여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	· 고용주는 사업장이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인지를 기준으로 가입여부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가입여부				
(1) 국민건강보험	① 직장가입	② 직장가입 피부양자	③ 지역가입	④ 미가입	⑤ 모름
(2) 국민연금	① 가입			② 미가입	③ 모름
(3) 특수직역 연금(공무원, 군인, 교원만 해당)	① 가입	(→ 가입 시 응답 후 G8 이동)	② 미가입		③ 모름
(4) 고용보험	① 가입			② 미가입	③ 모름
(5) 산재보험	① 가입			② 미가입	③ 모름

G8. 2020년 1년 동안 귀하의 생활비가 부족한 적이 있었습니까?

- ① 있다 (→ G8-1 이동)
- ② 없다 (→ G9 이동)

G8-1. 2020년 1년 동안 귀하의 생활비가 부족한 적이 있었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셨습니다?

가장 **주된 방법부터 순서대로 최대 2개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① 은행 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 이용
- ② 현금서비스 이용
- ③ 부모님에게 무상으로 지원을 받음
- ④ 부모님에게 빌림
- ⑤ 친척이나 친지에게 빌림
- ⑥ 친구나 이웃에게 빌림

- ⑦ 사채이용
- ⑧ 부동산매각이나 전세금 인상
- ⑨ 전세나 월세의 규모를 줄임
- ⑩ 저축이나 예금이나 적금의 해약
- ⑪ 주식이나 채권을 비롯한 금융자산 매각(파생금융상품(CD, MMF등) 포함)
- ⑫ 자동차나 내구재 또는 금·은 등의 귀중품 매각
- ⑬ 기타()
- ⑭ 해결하지 못함

G9. 2020년 1년 동안 귀하의 생활에 가장 부담이 되었던 항목은 무엇입니까?

가장 부담이 되었던 항목을 순서대로 최대 2개까지 선택해주시시오.

1순위		2순위	
-----	--	-----	--

- ① 가정내 식료품비
- ② 외식비
- ③ 의료비
- ④ 공교육비
- ⑤ 사교육비 , 자기계발비
- ⑥ 주거비(월세, 관리비 등)
- ⑦ 각종 빚(채무)의 원리금 상환
- ⑧ 교통비(대중교통 이용, 자동차 유지비용)
- ⑨ 경조사비
- ⑩ 통신비(휴대폰, 인터넷)
- ⑪ 사회보험료
- ⑫ 주택마련자금
- ⑬ 가족이나 친지 보조(같이 살고 있지 않은 부모님, 가족을 위해 지출한 비용)
- ⑭ 세금이나 공과금
- ⑮ 문화사교비
- ⑯ 기타()
- ⑰ 부담되는 경우가 없다.

G10. 귀하가 한 달 동안 생활하는데 필요한 1인 적정생활비는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적정생활비 총액 월평균

--	--	--	--

만 원

다음은 귀하의 재산에 관한 질문입니다.

G11. 현재 기준 귀하의 재산 총액은 얼마입니까?

※ 부동산, 금융자산, 가상화폐 및 자동차와 같은 재산을 모두 포함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억					만 원
--	--	--	--	---	--	--	--	--	-----

G11-1. 현재 기준 다음의 항목별 귀하의 재산 총액은 얼마입니까?

〈유의 사항〉

- ※ 없음은 반드시 '0'으로 표시합니다.
- ※ 재산은 명의를 기준으로 파악합니다.
 - 예컨대, 타인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고 집을 산 경우, 비록 본인의 집이 아닐지라도 본인의 재산으로 가정하고 이를 파악하여 조사표에 기재합니다.
- ※ 공동명의로는 50%로 가정해 응답합니다.

자산 유형	자산 금액
1. 소유부동산 ※ ① 주택 ② 주택 외 건물 ③ 토지 ④ 분양권 등	____억 ____만 원
2. 주택이나 건물, 토지 등을 남에게 빌려주고 받은 전세금과 임대보증금 총액 ※ 현재 살고 있지 않은 아파트나 주택을 남에게 세를 주고 받은 전세금, 가게나 사무실을 남에게 세를 주고 받은 보증금이 이에 해당합니다. ※ 임차인(부동산을 빌려쓰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이용료(월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____억 ____만 원
3. 금융자산 ※ ① 예금 ② 적금 ③ 주식·채권·펀드 ④ 아직 타지 않은 갯돈 ⑤ 기타(남에게 빌려준 돈, 아파트 중도금 등)	____억 ____만 원
4. 가상화폐 ※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전자거래가 가능한 증표를 의미합니다. 예시)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G), 리플(xrp), 테더(usdt), 도지코인(dogD) 등	____억 ____만 원
합 계	____억 ____만 원

G11-2. 현재 기준 귀하의 본인 명의의 자동차 대수는 얼마나 됩니까?

〈유의 사항〉

- ※ 없음은 반드시 '0'으로 표시합니다.

본인 명의 소유 자동차 대수 : 총 대

G12. 귀하는 현재 자산형성을 위해 재테크를 하고 계십니까?

- ① 예 (→ G12-1 이동)
- ② 아니오 (→ G13 이동)

G12-1. 귀하께서 하고 계신 재테크 수단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예금 및 적금
- ② 저축성 보험
- ③ 부동산 투자
- ④ 주식/펀드
- ⑤ 가상화폐
- ⑥ 기타

G12-2. 귀하가 재테크를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가장 주된 것부터 순서대로 최대 2개까지 선택
해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① 대학, 대학원 등 교육비 마련
- ② 생활비 마련
- ③ 결혼 준비
- ④ 주택 마련
- ⑤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 ⑥ 노후 대비를 위해
- ⑦ 여가/취미생활을 위해
- ⑧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 ⑨ 기타()

(→ 응답 후 G14 이동)

G13. 귀하가 재테크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재테크를 하고 싶지만 재테크할 여유 자금이 없다
- ② 재테크를 했다가 실패했다
- ③ 재테크에 관심이 없다
- ④ 재테크 방법과 정보 등을 몰라 시작할 수 없다
- ⑤ 기타()

다음은 귀하의 부채에 관한 질문입니다.

G14. 현재 기준 귀하의 부채 총액은 얼마입니까?

- ※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빌린 돈이나 학자금 대출은 포함하고, 사업용으로 빌린 돈은 제외합니다.
- ※ 금융기관 대출, 카드빚, 일반사채 및 기타 부채를 모두 포함
- **금융기관 대출:** 은행, 저축은행, 비은행 금융기관(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캐피탈, 회사 등에서 받은 대출금과 마이너스통장 등
 - **카드빚:** 현금서비스, 카드론, 대환대출, 카드 할부금, 대환대출 미상환금, 구입한 자동차 카드 할부 등
 - **일반사채:** 이자를 지불하기로 약속하고 친인척, 지인 등에게 빌린 돈 등
- ※ 명의를 기준으로 응답
- 타인의 부탁으로 본인의 명의를 빌려주고 돈을 빌린 경우에도 본인이 이자를 지불하지 않더라도 부채가 있는 것으로 가정
- ※ 부채가 전혀 없는 경우 '0'을 입력해주세요.

					억						만 원
--	--	--	--	--	---	--	--	--	--	--	-----

【G15~G16은 G14에서 현재 부채 총액이 0원이 아닌 응답자만 응답해주세요.】

G15. 현재 귀하에게 부채가 있다면 부채의 주된 용도는 무엇입니까? 가장 주된 것부터 순서대로 최대 2개 까지 선택해주시요.

1순위		2순위	
-----	--	-----	--

- ① 학자금 마련
- ② 생활비 마련(식비, 의료비)
- ③ 주택관련 비용 마련(주택구입, 보증금, 임대료 등)
- ④ 취업준비를 위한 학원, 자격증 취득 비용
- ⑤ 창업자금 마련
- ⑥ 채무상환
- ⑦ 기타()

G16. 귀하께서는 부채에 대해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이 얼마나 부담이 되십니까?

- ① 매우 부담됨
- ② 다소 부담됨
- ③ 보통
- ④ 별로 부담되지 않음
- ⑤ 전혀 부담되지 않음

VII. 주거

H. 이사 경험 및 계획

다음은 귀하의 이사 경험과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H1. 귀하는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셨습니까?

- ① 서울 (→ H2 이동)
 ② 서울 이외의 지역 (→ H1-1 이동)

H1-1. 귀하가 태어난 곳은 어디입니까? ()도 ()시 / 국가명()

※ 국내의 경우 해당 지역의 지명을, 국외의 경우 해당 국가의 국가명을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H1-2. 귀하는 언제 서울로 이사하셨습니까? ()년부터 서울로 이사하여 거주

※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이사한 경험이 여러 번이면 가장 최근 서울로 이사온 연도를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H1-3. 서울로 이사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부모님(혹은 주된 양육자)을 따라서
 ② 일자리와 관련된 이유로
 ③ 학업을 위해서
 ④ 거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⑤ 결혼, 독립 등의 이유로
 ⑥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⑦ 내 집을 마련하여서
 ⑧ 주거지원을 받게 되어서
 ⑨ 주거지 계약만료 등으로 인하여
 ⑩ 자녀의 교육 및 보육 환경을 위해서
 ⑪ 기타()

H2. 귀하는 2022년에 서울 이외의 지역으로 이사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 ① 예 (→ H2-1 이동)
 ② 아니오 (→ I1 이동)
 ③ 잘 모르겠다 (→ I1 이동)

H2-1. 귀하가 서울 이외의 지역으로 이사를 계획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자녀의 교육, 보육 환경을 위해서
 ② 자녀 외 동거가족과 관련된 이유로 (부모님의 이사, 부모님 부양 등)
 ③ 일자리와 관련된 이유로 (취·창업 준비, 인사이동으로 인한 근무지 이동 등)
 ④ 거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학교, 직장 등 통근 편의, 집의 크기 확장, 환경 및 건강, 편의 시설 등)

- ⑤ 결혼, 독립 등의 이유로 (결혼으로 인한 신혼집 마련, 독립 등)
- ⑥ 경제적인 이유로 (주거비 부담, 평수를 줄이는 등)
- ⑦ 내 집을 마련하여서
- ⑧ 주거지원을 받게 되어서
- ⑨ 기타()

I. 현재 거주지

다음은 귀하의 주거지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11. 귀하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 반드시 건물전체의 등기상 점유형태를 기준으로 하여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① 일반단독주택
- ② 다가구단독주택
- ③ 영업겸용단독주택
- ④ 아파트(5층 이상)
- ⑤ 연립주택(4층 이하)
- ⑥ 다세대주택
- ⑦ 비거주용 건물(상가, 공장, 여관 등) 내 주택
- ⑧ 오피스텔
- ⑨ 고시원
- ⑩ 판잣집,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 ⑪ 기숙사
- ⑫ 기타()

12. 귀하의 거주 위치는 어디입니까?

- ※ **지하**: 건물바닥에서 지표면까지 높이가 해당 층의 1/2 미만인 경우
 ※ **반지하**: 건물바닥에서 지표면까지 높이가 해당 층의 1/2 이상인 경우
 ※ 복층형 주택의 제일 위층(예: 펜트하우스)에 거주하는 경우, 옥탑이 아닌 ③ 지상으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① 지하층이나 반지층
- ② 지상
- ③ 옥탑

13. 귀하가 거주하는 주택의 전체면적(전용면적)은 얼마입니까? 평 또는 제곱미터(㎡) 중 알고 계시는 단위로 응답해주시시오.

- ※ 마당, 정원, 창고 등을 제외한 주택의 면적을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일부를 세준 경우 세준 면적을 제외하고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면적 작성 시 주요 면적 단위 환산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평 또는				㎡
--	--	--	------	--	--	--	---

[주요 면적 단위 환산표]

평	1	15	17	20	23	25	27	29	32	35	37	40
제곱미터(㎡)	3.3	50	56	66	76	83	89	96	106	116	122	132
평	42	45	47	50	55	60	65	70	75	80	90	100
제곱미터(㎡)	139	149	155	165	182	198	215	231	248	264	298	331

I3-1. 귀댁의 주택 구조는 어떻습니까?

- ① 원룸형 (→ I4 이동)
 ② 원룸형 아님 (→ I3-2 이동)

I3-2. 그 주택의 방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용도를 구분하여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방, 거실, 식당 용도로 구분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방의 일부를 세 준 경우에는 방의 개수에서 제외하고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1) 방

--	--

 개

(2) 거실(대청마루 포함)

--	--

 개

(3) 화장실

--	--

 개

I4. 귀하가 거주하는 집의 (등기상) 점유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주택을 증여받거나 상속받아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자가'에 해당됩니다.

- ① 자가 (→ I4-1 이동)
 ② 전세 (→ I4-2 이동)
 ③ 보증금 있는 월세 (→ I4-2 이동)
 ④ 보증금 없는 월세 (→ I4-2 이동)
 ⑤ 사글세 또는 연세 (→ I4-2 이동)
 ⑥ 일세 (→ I4-2 이동)
 ⑦ 무상 (→ I4-2 이동)
 ⑧ 기타() (→ I4-2 이동)

I4-1. 귀하가 거주하는 (자가인 경우)집의 현재 주택가격은 얼마입니까?

--	--	--	--

 억

--	--	--	--

 만 원

I4-2. 귀하가 거주하는 (자가인 경우)집의 명의 혹은 (전·월세 등)계약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 ① 부모
 ② 본인
 ③ 배우자
 ④ 친인척
 ⑤ 기타()

15. 귀하는 전입신고 또는 확정일자를 부여 받았습니까?

※ 전입신고: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하였을 때 새로운 거주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전입사실을 알려 주민등록의 주소지를 정정 한 것
※ 확정일자: 확정일자란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로, 이사하는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부여받을 수 있음

- ① 전입신고만 하였다
- ② 확정일자만 부여받았다
- ③ 전입신고를 하였고, 확정일자도 부여받았다
- ④ 둘 다 하지 않았다
- ⑤ 모르겠다

【I6은 I4에서 거주하는 집의 점유형태가 ②전세, ③보증금 있는 월세, ④보증금 없는 월세, ⑤사글세 또는 연세, ⑥일세인 경우에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6. 귀하가 거주하는 집의 가격 혹은 임차료는 얼마입니까?

※ 귀하의 가구에 해당하는 내용만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돈이 없어 월세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계약한 월세'를 기준으로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세의 경우, 한 달 분(하루 방세×30일)으로 환산하여 '월세'에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보증금에 0원으로 작성).
※ 기숙사의 경우, 월평균 기숙사 비용을 '보증금 없는 월세'에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보증금에 0원으로 작성).

구분		금액	
1) 전세	(1) 전세보증금	<div><div></div><div></div></div> 억 <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 만 원	
	(2) 관리비	월 평균	<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 만 원
2) 월세	(1) 보증금	<div><div></div><div></div></div> 억 <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 만 원	
	(2) 월세	월 평균	<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 만 원
	(3) 관리비	월 평균	<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 만 원
3) 사글세, 연세 및 일세	(1) 연세 또는 일세	월 평균	<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 만 원

【17은 14에서 거주하는 집의 점유형태가 ①자가, ②전세, ③보증금 있는 월세인 경우에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7. 귀하는 주택의 구입비용, 보증금 등을 어떻게 마련하셨습니까?

※ 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2개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방법으로만 비용을 마련한 경우 1순위에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	--	-----	--

- ① 내가 번 돈
- ② 부모·형제·친척·친구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지원 받음
- ③ 부모·형제·친척·친구 등으로부터 빌림
- ④ 정부의 대출(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버팀목 자금대출)
- ⑤ 서울시 대출(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등)
- ⑥ 민간금융기관(회사 대출, 마이너스 통장, 주택담보대출 등)
- ⑦ 사채
- ⑧ 기타()
- ⑨ 모름

17-1. 귀하는 주택 관련 부채(주택구입비, 보증금, 주택 증개축비용 등 포함)가 있으십니까?

※ 주택관련 부채에는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경우는 제외 됩니다.
※ 전세자금대출도 포함하여 응답해주시요.

- ① 주택관련 부채 있음 (➡ 17-2 이동)
② 주택관련 부채 없음 (➡ 18 이동)

17-2. 귀하의 주택 관련 부채(주택구입비, 보증금, 주택 증개축비용 등 포함)는 얼마나 됩니까?

※ 주택관련 부채에는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경우는 제외 됩니다.
※ 전세자금대출도 포함하여 응답해주시요.

약							만 원
---	--	--	--	--	--	--	-----

18. 귀하가 거주하는 집의 상태에 대하여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매우 불량	조금 불량	보통	조금 양호	매우 양호
(1) 집의 구조물(건고, 균열 상태), 난방 및 단열, 방수 상태	①	②	③	④	⑤
(2) 환기 상태(창문 개폐 여부, 통풍 상태, 곰팡이나 습기 상태)	①	②	③	④	⑤
(3) 채광 상태	①	②	③	④	⑤
(4) 냉방 상태(에어컨이나 냉방 시설 유무)	①	②	③	④	⑤
(5) 소음(차량 경적, 공사장 소음 등 외부소음, 층간소음)	①	②	③	④	⑤
(6) 재난, 재해(산사태나 홍수, 지진 피해 등) 안전성	①	②	③	④	⑤
(7) 화재로부터의 안전성(화재예방 전기시설, 화재대피시설 유무)	①	②	③	④	⑤
(8) 주택 방범상태(외부인의 주택 내 침입에 대한 안전성)	①	②	③	④	⑤
(9) 주택 위생 상태(악취, 벌레 등)	①	②	③	④	⑤

19. 귀하는 현재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아래와 같은 주거불안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주거불안 사유가 여러 개일 경우 불안감을 더 크게 경험하였던 사유를 1순위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1순위에만 '⑩ 해당 없음'으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	--	-----	--

- ① 3개월 이상 월 임대료 연체
- ② 이사 또는 임대차계약 갱신에 필요한 임대보증금 부족
- ③ 임대인이 기피하는 대상자(취약계층, 유아동반 등)라는 이유로 주택확보 곤란
- ④ 3개월 이상 주택담보대출 이자 또는 원리금 상환 연체
- ⑤ 주택압류, 재개발,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등으로 인한 퇴거(위기)
- ⑥ 주택 노후화 또는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한 안전·건강문제 발생(위험)
- ⑦ 공과금이나 관리비 연체(또는 납부 지연)
- ⑧ 보증금 반환 위험
- ⑨ 추가보증금이나 추가 임대료
- ⑩ 해당 없음

다음은 귀하가 평소 집에 대해 가지고 계신 생각에 대한 질문입니다.

110. 귀하는 본인 명의의 집을 언제쯤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 ① 이미 소유하고 있다
- ② 향후 1년 이내
- ③ 향후 1년 이상 3년 미만
- ④ 향후 3년 이상 5년 미만
- ⑤ 향후 5년 이상 7년 미만
- ⑥ 향후 7년 이상 10년 미만
- ⑦ 향후 10년 이상 20년 미만
- ⑧ 향후 20년 이후
- ⑨ 마련할 수 없을 것 같다

I11. 귀하는 '내 명의로 집(자가 소유)이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I11-1 이동)
 ② 그렇지 않다 (→ I11-1 이동)
 ③ 보통이다 (→ I12 이동)
 ④ 그렇다 (→ I11-2 이동)
 ⑤ 매우 그렇다 (→ I11-2 이동)

I11-1. '전혀 그렇지 않다' 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높은 집값 때문에
 ② 자가마련을 위해 현재의 삶을 희생하고 싶지 않아서
 ③ 자산 증식 및 보전 수단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④ 이사를 자주 해야 할 상황이라서
 ⑤ 자가 보유 여부보다는 거주지의 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⑥ 기타()

(→ I12 이동)

I11-2.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고 생각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임대료 상승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기 때문에
 ② 이사하지 않고 원하는 기간만큼 살 수 있어서
 ③ 자산 증식 및 보전을 위해서
 ④ 자가가 있어야 인정받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⑤ 집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서
 ⑥ 기타()

I12.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1인 가구가 거주하는데 적절한 규모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평 또는 제곱미터(㎡) 중 알고 계시는 단위로 응답해주시요.

			평	또는				㎡
--	--	--	---	----	--	--	--	---

I13. 귀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집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가장 주된 것부터 **순서대로 2개를** 선택해주시요.

1순위		2순위	
-----	--	-----	--

- ① 안전하게 보호받는 공간
 ② 휴식의 공간
 ③ 가족과 함께하는 공간
 ④ 나만의 사적인 공간
 ⑤ 생리위생 및 세탁, 식사를 위한 공간
 ⑥ 자산 증식을 위한 중요한 수단
 ⑦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주는 공간
 ⑧ 기타()

4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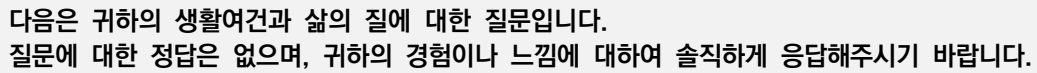
I14. 귀하는 향후 주거를 선택하는데 있어 다음 항목 중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가장 주된 것부터 순서대로 2개를 선택해주시요.

1순위		2순위	
-----	--	-----	--

- ① 주거비용(매매가격, 전월세가격 등)
- ② 주택유형(아파트, 다세대/빌라, 원룸(다가구), 오피스텔 등)
- ③ 주택상태(주택규모, 노후도, 방의 개수, 인테리어 등)
- ④ 주택위치(직장/학교와의 거리, 부모님과의 거리)
- ⑤ 주거환경(의료/문화/상업시설/도시공원 및 녹지 접근성, 교통, 교육환경 등)
- ⑥ 향후 주택 가격 변화(미래 자산가치 상승 기대)
- ⑦ 기타()

I15. 귀하가 거주하는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매우 불만족한다	불만족 한다	보통 이다	만족 한다	매우 만족 한다
(1) 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2) 주거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J4. 귀하는 다음의 각 항목별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구분	← 매우 불만족				보통				매우 만족 →			
(1) 나의 생활수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나의 건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내가 삶에서 성취한 것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가족관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5) 나의 개인적인 관계 (사회적 친분관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6) 나의 안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7) 사회의 전반적인 안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8) 미래 안정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9)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0) 지역사회 환경의 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1) 내가 거주하는 지역사회 전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2) 내가 하는 일 ※ 직업이 없는 경우 현재 상황에 대한 만족 정도에 대해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3) 나의 경제적 수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다음은 귀하의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질문입니다.

J5. 귀하는 최근 한달 간 3주 이상 집 밖으로 나가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치료 등을 이유로 나가지 않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① 예
② 아니오

J6. 귀하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직장 동료)이 있으십니까?

【항목별로 '있다' 선택 시 해당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인원 수를 적어주세요.

동일한 사람이 여러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하여 기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없다	있다	인원
(1) 취업이나 진로에 관한 조언이나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	①	②	→ ____명
(2) 나에게 필요한 주거/금융/법률 관련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	①	②	→ ____명
(3)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하는 경우, 집안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	①	②	→ ____명
(4) 몸이 아파서 거동하기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①	②	→ ____명
(5) 내가 돈이 필요할 때 갑자기 큰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	①	②	→ ____명
(6)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①	②	→ ____명
(7) 내가 갑자기 연락 두절되었을 때, 나의 안부(생사)를 확인해줄 수 있는 사람	①	②	→ ____명

J7. 귀하는 다음의 각 집단의 사람들과 직접 만나는 대면 형태로 평소 얼마나 자주 교류하십니까?

※ 교류란 '다른 사람과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거나 의사소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사람이든 다른 사람이든 일주일에 매일 같이 사람들과 만난다면 직접 만나는 교류에서 '⑥ 거의 매일'에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 비대면 교류란 인터넷(SNS), 전화 등의 비대면 방식의 교류를 뜻합니다.

구분	전혀 없다	1년에 1~2회	3개월에 1~2회	한 달에 1~2회	일주일 에 1~2회	거의 매일 (일주일 에 3~4회 이상)
(1) 가족들과의 대면 교류	①	②	③	④	⑤	⑥
(1) 가족들과의 비대면 교류	①	②	③	④	⑤	⑥
(2) 친인척들과의 대면 교류	①	②	③	④	⑤	⑥
(2) 친인척들과의 비대면 교류	①	②	③	④	⑤	⑥
(3) 친한 친구나 친한 사람과의 대면 교류	①	②	③	④	⑤	⑥
(3) 친한 친구나 친한 사람과의 비대면 교류	①	②	③	④	⑤	⑥
(4) 이외 직장, 학교,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 대면 교류 (업무 상 교류 제외)	①	②	③	④	⑤	⑥
(4) 이외 직장, 학교,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 비대면 교류 (업무 상 교류 제외)	①	②	③	④	⑤	⑥
(5) 온라인 커뮤니티, SNS로 알게 된 사람 들과의 대면 교류	①	②	③	④	⑤	⑥
(5) 온라인 커뮤니티, SNS로 알게 된 사람 들과의 비대면 교류	①	②	③	④	⑤	⑥

다음은 귀하의 건강에 대한 질문입니다.

J8. 귀하의 건강상태는 전반적으로 어떠합니까?

- ① 전혀 건강하지 않다
- ②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건강한 편이다
- ⑤ 매우 건강하다

J9. 귀하는 최근 1년간 아프거나 다쳤을 때, 주로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 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참음 (→ J9-1 이동)
- ② 아프거나 다친 적이 없다 (→ J10 이동)
- ③ 병원 진찰 후 치료받음 (→ J10 이동)
- ④ 병원 방문 없이 약만 복용하거나 바름 (→ J10 이동)
- ⑤ 기타() (→ J10 이동)

J9-1.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주된 이유부터 [순서대로 2개를](#) 선택해주시요.

1순위		2순위	
-----	--	-----	--

- 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 ②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 ③ 가까운 곳에 병원이 없어서
- ④ 증상이 가볍다고 생각해서
- ⑤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 ⑥ 기타()

J10. 최근 2년간 건강검진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J11. 귀하는 지난 1주일간 얼마나 자주 다음과 같이 느끼셨습니까?

구분	극히 드물다 (일주일 1일 미만)	가끔 있었다 (일주일 1~2일간)	종종 있었다 (일주일 3~4일간)	대부분 그랬다 (일주일 5일 이상)
(1)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다.	①	②	③	④
(2) 비교적 잘 지냈다.	①	②	③	④
(3) 상당히 우울했다.	①	②	③	④
(4)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①	②	③	④
(5) 잠을 설쳤다.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①	②	③	④
(6)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①	②	③	④
(7)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	①	②	③	④
(8)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9) 마음이 슬펐다.	①	②	③	④
(10)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11) 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J12. 귀하께서는 지난 1년 동안 자살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 ① 예 (→ J12-1 이동)
- ② 아니오 (→ J13 이동)

J12-1.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경제적 이유 때문에
- ② 현재 알고 있는 질환 때문에
- ③ 가족 내 불화나 관계 단절 때문에
- ④ 친구나 주변 지인들과의 갈등, 단절 등 사회적 관계 때문에
- ⑤ 기타()

J13. 귀하께서 일상생활에서 우울감을 느낄 때 주로 하는 행동들은 무엇입니까? 가장 주된 것부터 **순서대로 2개**를 선택해주시시오.

1순위		2순위	
-----	--	-----	--

- ① 그냥 참는다
- ② 약물 복용 등 의료적 도움을 받는다
- ③ 심리상담을 받는다
- ④ 수면을 취하거나, TV 시청 또는 PC나 스마트폰 이용을 한다
- ⑤ 과식/폭식/미식 또는 흡연이나 음주 등 유흥
- ⑥ 가족과의 교류(가족과 대화를 하거나 만난다)
- ⑦ 기타 지인과의 교류(친한 사람들과 대화를 하거나 만난다)
- ⑧ 운동을 하거나, 여행을 간다
- ⑨ 취미/문화생활을 하거나, 쇼핑을 한다
- ⑩ 종교활동을 한다
- ⑪ 기타 ()
- ⑫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다음은 귀하의 사회에 관한 인식과 사회참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J14. 귀하는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어느 정도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1) 우리사회는 노력에 따른 공정한 대가가 제공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사회적 성취에 있어 부모의 경제·사회적 지위보다 내 노력이 더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3) 40~50대와 비교했을 때 청년세대가 사회·경제적으로 기회가 더 많다	①	②	③	④	⑤
(4) 청년세대는 우리사회로부터 충분한 관심과 지원을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사회는 다른 나라에 비해 청년세대가 살 만한 나라이다	①	②	③	④	⑤

J15. 최근 1년간 불안을 느꼈던 사회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가장 주된 것부터 **순서대로 2개**를 선택해주시시오.

※ '① 없음'을 선택할 경우 2순위에 다른 보기를 선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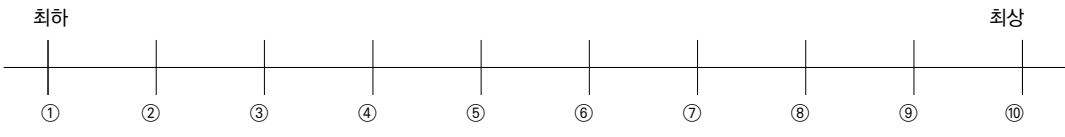
1순위		2순위	
-----	--	-----	--

- ① 없음
- ② 세대갈등
- ③ 젠더갈등
- ④ 정치 및 대외관계
- ⑤ 오프라인을 통한 학대, 폭력 범죄
- ⑥ 온라인을 통한 학대, 폭력 범죄
- ⑦ 사회경제적 불평등
- ⑧ 취약한 사회안전망
- ⑨ 경기침체 및 성장둔화
- ⑩ 환경파괴
- ⑪ 자연재해
- ⑫ 온라인에서 사생활 침해
- ⑬ 감염병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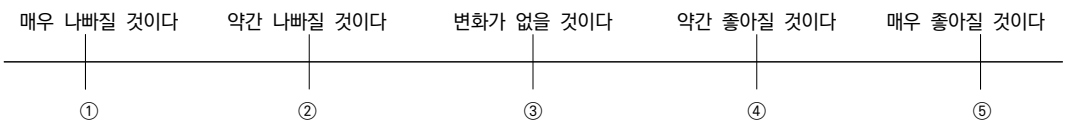
J16. 귀하는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J17. 귀하의 소득수준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J18. 현재와 비교하여 30년 후 2051년 한국의 미래는 어떠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귀하의 시간 사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J19. 귀하는 전반적으로 시간 사용에 대해 어떻게 느끼십니까?



【J19-1은 J19에서 보기 ① 또는 ②라고 응답하신 분들만 응답해주세요.】

J19-1. 귀하가 시간 부족을 느끼는 활동 영역은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① 수면
- ② 개인관리
- ③ 일자리(업무) 관련 활동 (예: 통근/통학시간, 주된 취업활동 시간, 부업, 구직활동 등)
- ④ 가사 관련 활동 (예: 자녀 돌보기, 자녀 외 가족돌보기, 가사활동 등)
- ⑤ 여가, 문화 활동 (예: 자기계발 활동, 여가활동, 종교활동, 참여 및 봉사활동 등)
- ⑥ 교제 활동 (예: 가족 및 친지/직장, 동료/친구 및 동호회 등과의 전화 및 모임 등)
- ⑦ 기타()

VIII. 정책 경험과 평가

K1-1. 다음은 서울시의 주요 청년지원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주요 정책	인지 여부
일 자 리	(1) 최대 23개월간 일경험과 취업에 필요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해 민간 일자리 취업을 독려하는 서울뉴딜형 일자리	① 안다 ② 모른다
	(2) 청년에게 면접정장을 무료로 대여해주는 취업날개서비스	① 안다 ② 모른다
	(3) 우수 중소기업에서 청년 신규채용 시 1인당 1,000만 원을 지원해주고 육아휴직자 대체 청년인턴을 지원해주는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	① 안다 ② 모른다
	(4) 청년인재와 유망기업을 매칭하여 인턴십을 진행하고 민간 기업의 정규직 채용을 촉진하는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① 안다 ② 모른다
	(5) 개별집중상담, 취업 특강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스터디룸을 무료 대여해주는 일자리카페	① 안다 ② 모른다
	(6)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을 통해 대학-청년-지역주민 간 상생하는 지역 공동체를 구축하고 청년 창업을 육성하는 캠퍼스타운	① 안다 ② 모른다
주 거	(7)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층에게 출퇴근이 용이한 역세권에 시중 임대료의 30~95% 수준으로 주택을 임대해주는 역세권 청년주택	① 안다 ② 모른다
	(8) 서울시 소재 대학(원) 재학 및 휴학생에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남는 방을 시세보다 저렴한 값에 제공해주는 노장형 셰어하우스	① 안다 ② 모른다
	(9) 보증금 5천,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에게 월 20만 원씩 최대 10개월 월세를 지원해주는 청년월세지원	① 안다 ② 모른다
	(10) 최대 7,000만 원까지 대출금의 연 2% 이자율로 임차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청년임차보증금 지원	① 안다 ② 모른다
복 지	(11) 미취업 청년에게 매월 50만 원, 최대 6개월간 구직 활동을 촉진하는 지원금을 지급해주는 청년수당	① 안다 ② 모른다
	(12)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서울지역 대학(원)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이자를 지원해주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① 안다 ② 모른다
	(13) 최대 7회(1회당 50분)까지 심리상담 전문가를 통한 검사 및 상담을 지원하는 서울시 청년 '마음잇다'	① 안다 ② 모른다
참 여· 공 간	(14) 청년의 삶에 대한 공감 및 정책에 대한 이해가 갖춰진 청년지원매니저를 통하여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청년센터	① 안다 ② 모른다
	(15) 실질적인 예산편성권한을 이양함으로써 청년들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는 청년자율예산	① 안다 ② 모른다

【K1-2는 K1-1에서 인지 여부에 '① 아니다'라고 응답한 항목들에 대해서만 응답해주세요】

K1-2. **지난 1년간** 해당 지원을 받거나 이용하신 적이 있습니까?

	주요 정책	이용 여부
일 자 리	(1) 최대 23개월간 일경험과 취업에 필요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해 민간 일자리 취업을 독려하는 서울뉴딜형 일자리	① 있다 ② 없다
	(2) 청년에게 면접정장을 무료로 대여해주는 취업날개서비스	① 있다 ② 없다
	(3) 우수 중소기업에서 청년 신규채용 시 1인당 1,000만 원을 지원해주고 육아휴직자 대체 청년인턴을 지원하는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	① 있다 ② 없다
	(4) 청년인재와 유망기업을 매칭하여 인턴십을 진행하고 민간 기업의 정규직 채용을 촉진하는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① 있다 ② 없다
	(5) 개별집중상담, 취업 특강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스터디룸을 무료 대여 해주는 일자리 카페	① 있다 ② 없다
	(6)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을 통해 대학-청년-지역주민 간 상생하는 지역 공동체를 구축하고 청년 창업을 육성하는 캠퍼스타운	① 있다 ② 없다
주 거	(7)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층에게 출퇴근이 용이한 역세권에 시중 임대료의 30~95% 수준으로 주택을 임대해주는 역세권 청년주택	① 있다 ② 없다
	(8) 서울시 소재 대학(원) 재학 및 휴학생에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남는 방을 시세보다 저렴한 값에 제공해주는 노장청 쉼어하우스	① 있다 ② 없다
	(9) 보증금 5천,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에게 월 20만 원씩 최대 10개월 월세를 지원해주는 청년월세지원	① 있다 ② 없다
	(10) 최대 7,000만 원까지 대출금의 연 2% 이자율로 임차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청년임차보증금 지원	① 있다 ② 없다
복 지	(11) 미취업 청년에게 매월 50만 원, 최대 6개월간 구직 활동을 촉진하는 지원금을 지급해주는 청년수당	① 있다 ② 없다
	(12)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서울지역 대학(원)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이자를 지원해주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① 있다 ② 없다
	(13) 최대 7회(1회당 50분)까지 심리상담 전문가를 통한 검사 및 상담을 지원하는 서울시 청년 '마음잇다'	① 있다 ② 없다
참 여· 공 간	(14) 청년의 삶에 대한 공감 및 정책에 대한 이해가 갖춰진 청년지원매니저를 통하여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청년센터	① 있다 ② 없다
	(15) 실질적인 예산편성권한을 이양함으로써 청년들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는 청년자율예산	① 있다 ② 없다

K1-3. 향후 해당 지원을 받거나 이용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주요 정책		향후 이용 의향
일 자 리	(1) 최대 23개월간 일경험과 취업에 필요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해 민간 일자리 취업을 독려하는 서울뉴딜형 일자리	① 있다 ② 없다
	(2) 청년에게 면접정장을 무료로 대여해주는 취업날개서비스	① 있다 ② 없다
	(3) 우수 중소기업에서 청년 신규채용 시 1인당 1,000만 원을 지원해주고 육아휴직자 대체 청년인턴을 지원하는 서울형 중소기업 지원	① 있다 ② 없다
	(4) 청년인재와 유망기업을 매칭하여 인턴십을 진행하고 민간 기업의 정규직 채용을 촉진하는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① 있다 ② 없다
	(5) 개별집중상담, 취업 특강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스터디룸을 무료 대여 해주는 일자리카페	① 있다 ② 없다
	(6)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을 통해 대학-청년-지역주민 간 상생하는 지역 공동체를 구축하고 청년 창업을 육성하는 캠퍼스타운	① 있다 ② 없다
주 거	(7)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층에게 출퇴근이 용이한 역세권에 시중 임대료의 30~95% 수준으로 주택을 임대해주는 역세권 청년주택	① 있다 ② 없다
	(8) 서울시 소재 대학(원) 재학 및 휴학생에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남는 방을 시세보다 저렴한 값에 제공해주는 노장청 쉼어하우스	① 있다 ② 없다
	(9) 보증금 5천,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에게 월 20만 원씩 최대 10개월 월세를 지원해주는 청년월세지원	① 있다 ② 없다
	(10) 최대 7,000만 원까지 대출금의 연 2% 이자율로 임차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청년임차보증금 지원	① 있다 ② 없다
복 지	(11) 미취업 청년에게 매월 50만 원, 최대 6개월간 구직 활동을 촉진하는 지원금을 지급해주는 청년수당	① 있다 ② 없다
	(12)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서울지역 대학(원)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이자를 지원해주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① 있다 ② 없다
	(13) 최대 7회(1회당 50분)까지 심리상담 전문가를 통한 검사 및 상담을 지원해주는 서울시 청년 '마음있다'	① 있다 ② 없다
참 여· 공 간	(14) 청년의 삶에 대한 공감 및 정책에 대한 이해가 갖춰진 청년지원매니저를 통하여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청년센터	① 있다 ② 없다
	(15) 실질적인 예산편성권한을 이양함으로써 청년들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는 청년자율예산	① 있다 ② 없다

K2-1. 다음은 중앙정부의 주요 청년지원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주요 정책	인지 여부
(1)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등 정부일자리사업	① 안다 ② 모른다
(2)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구직촉진수당(50만 원, 6개월) 및 서비스 제공(심층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① 안다 ② 모른다
(3) 행복주택, 청년 매입·전세주택, 청년 공공지원 및 민간임대주택 등 청년 주택 공급 정책	① 안다 ② 모른다
(4) 청년전용 저금리 대출상품 지원, 청년전용 버팀목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임차보증금, 청년전용 보증부월세 대출 등 청년 주택자금 대출 지원 정책	① 안다 ② 모른다
(5) 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학기숙사비 부담 경감 등 청년 주거비용 지원 정책	① 안다 ② 모른다
(6)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저축계좌 등 청년 자산형성지원 정책	① 안다 ② 모른다

【K2-2는 K2-1에서 인지 여부에 '① 안다'라고 응답한 항목들에 대해서만 응답해주세요】

K2-2. 지난 1년간 해당 지원을 받거나 이용하신 적이 있습니까?

주요 정책	이용 여부
(1)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등 정부일자리사업	① 있다 ② 없다
(2)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구직촉진수당(50만 원, 6개월) 및 서비스 제공(심층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① 있다 ② 없다
(3) 행복주택, 청년 매입·전세주택, 청년 공공지원 및 민간임대주택 등 청년 주택 공급 정책	① 있다 ② 없다
(4) 청년전용 저금리 대출상품 지원, 청년전용 버팀목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임차보증금, 청년전용 보증부월세 대출 등 청년 주택자금 대출 지원 정책	① 있다 ② 없다
(5) 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학기숙사비 부담 경감 등 청년 주거비용 지원 정책	① 있다 ② 없다
(6)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저축계좌 등 청년 자산형성지원 정책	① 있다 ② 없다

K2-3. 향후 해당 지원을 받거나 이용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주요 정책	향후 이용 의향
(1)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등 정부일자리사업	① 있다 ② 없다
(2)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구직촉진수당(50만 원, 6개월) 및 서비스 제공(심층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① 있다 ② 없다
(3) 행복주택, 청년 매입·전세주택, 청년 공공지원 및 민간임대주택 등 청년 주택 공급 정책	① 있다 ② 없다
(4) 청년전용 저금리 대출상품 지원, 청년전용 버팀목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임차보증금, 청년전용 보증부월세 대출 등 청년 주택자금 대출 지원 정책	① 있다 ② 없다
(5) 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자금, 대학기숙사비 부담 경감 등 청년 주거비용 지원 정책	① 있다 ② 없다
(6)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저축계좌 등 청년 자산형성지원 정책	① 있다 ② 없다

K3. 귀하는 청년세대를 위해 가장 강화해야 할 사업 분야를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필요한 [순서대로 2개](#)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① 소득 지원(현금, 물품지원)
- ② 자산 형성 지원
- ① 공공일자리 제공
- ② 고용(취·창업)지원
- ③ 건강관리(신체, 정신) 지원
- ④ 심리상담, 생활 고민상담 등 상담 제공
- ⑤ 여가, 문화 시설로서 청년공간 제공
- ⑥ 또래모임 지원
- ⑦ 시민교육
- ⑧ 취업컨설팅 등 진로설계 지원
- ⑨ 부채경감 지원
- ⑩ 참여 보장 및 권리 강화
- ⑪ 주거 지원
- ⑫ 기타()

IX. 가구배경

L. 가구 배경

L1. 귀하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은 본인을 포함하여 모두 몇 명입니까?

가족 명, 가족 외 명

※ 가구 작성 기준

- 취업, 학업, 군복무 등의 이유로 잠시 떨어져 살지만(기숙사, 하숙, 자취 등) 부모님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경우는 부모님의 가구를 기준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모님과 떨어져 살아도 부모님의 도움 없이 생계가 가능하다면 본인이 사는 가구를 기준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결혼하여 부모님과 따로 사는 경우는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자녀 등 본인의 가구를 기준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구원**: 혈연이나 주민등록과는 상관없이 가구 내에서 동거하면서 소득과 소비를 공유하는 생활공동체 관계를 의미합니다. 직장 때문에 따로 사는 가장, 학생, 기타 이유로 같이 살지 않지만 생계를 같이하는 혈연가족은 가구원으로 포함됩니다.

가구원	비가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거, 사실혼 관계에 의한 배우자 포함·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함께 살고 있는 친인척 등· 미혼 형제자매 중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경우· 식구는 아니지만 9개월 이상 계속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혼한 형제자매 중 따로 사는 경우·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따로사는 형제자매 중 재학이나 군복무 등의 이유가 아니면서 경제적으로 독립한 경우

※ **가족**: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가구원을 의미합니다.

L2. 귀하의 가구원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구원 번호	L2-1. 본인과의 관계	L2-2. 가구원 생년	L2-3. 동거 여부	L2-4. 가구주 여부
	⑥ 본인 ① 아버지 ② 어머니 ③ 할아버지 ④ 할머니 ⑤ 형제, 자매 ⑥ 배우자(사실혼 포함) ⑦ 자녀 ⑧ 친인척 ⑨ 친구 ⑩ 기타 ()	()년	① 동거 ② 비동거 【본인은 비해당】	가구주 여부 체크 ※ 가구주 : 호주 또는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그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 하는 사람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5				<input type="checkbox"/>

가구원 번호	L2-5. 취업 여부	교육수준	
		L2-6.	L2-7.
	⑥ 비해당 ① 취업 ② 미취업	① 미취학 (만 7세 미만) ② 무학 (만 7세 이상) ③ 초등학교 ④ 중학교 ⑤ 고등학교 ⑥ 전문대학 ⑦ 대학교 ⑧ 대학원(석사) ⑨ 대학원(박사)	⑥ 비해당 ① 재학 ② 휴학 ③ 중퇴 ④ 수료 ⑤ 졸업
1			
2			
3			
4			
5			

L3. 귀하의 혼인상태는 어떠합니까?

- **미혼:** 혼인한 사실이 없는 사람(미혼모 포함)
 - **미혼 유배우:** 법적으로 혼인하지는 않았지만 동거인이나 동반자가 있는 사람 (사실혼 관계 포함)
 - **기혼 유배우:** 법적으로 혼인하여 배우자가 있는 사람
 - **사별:** 배우자 중 한 쪽이 사망하여 현재 재혼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는 사람
 - **이혼:** 배우자가 서로 헤어져서 현재 재혼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는 사람
 - **별거:** 법적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같이 살고 있지 않은 사람

- ① 미혼

(→ L3-1 이동)
- ② 미혼 유배우(사실혼 등)

(→ L4 이동)
- ③ 기혼 유배우(법적 혼인)

(→ L4 이동)
- ④ 사별

(→ L3-1 이동)
- ⑤ 이혼

(→ L3-1 이동)
- ⑥ 별거

(→ L4 이동)

L3-1. 앞으로 결혼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예

(→ L4 이동)
- ② 아니오

(→ L3-2 이동)
- ③ 모르겠다

(→ L4 이동)

L3-2. 결혼할 의향 혹은 계획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독신생활이 좋아서

② 학업 때문에

③ 직장생활에 지장을 줄 것 같아서

④ 실업상태이거나 고용이 불안정해서

⑤ 나의 건강이나 장애로 인해

⑥ 장애 또는 만성질환 등 돌봐야 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⑦ 가사나 육아의 부담이 클 것 같아서

⑧ 경제적 여건이 안 되어서

⑨ 적합한 상대가 없어서

- ⑩ 결혼을 하기에 적절한 연령이 아니어서
 ⑪ 개인적인 경험으로 인하여(부모님의 이혼 혹은 불화 경험 등)
 ⑫ 기타 ()

L4. 귀하는 자녀가 있으십니까?

- ① 있다 (→ L4-1 이동)
 ② 없다 (→ L4-2 이동)

L4-1. 귀하의 자녀는 몇 명입니까?

 명

L4-2. 앞으로 자녀를 가질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 L4-3 이동)
 ② 없다 (→ L5 이동)

L4-3. 앞으로 몇 명의 자녀를 가지실 계획이십니까?

 명

L5. 귀하는 주된 양육자로부터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고 계십니까?

- ① 예 (→ L5-3 이동)
 ② 아니오 (→ L5-1 이동)

L5-1. 귀하는 언제 경제적으로 독립하셨습니다?

 년 부터

L5-2. 귀하가 주된 양육자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학업 또는 진로준비
 ② 취업
 ③ 결혼 후 분가
 ④ 양육자와의 불화
 ⑤ 그냥 독립하고 싶어서
 ⑥ 양육자 안 계심(사망) (→ L6으로 이동)

L5-3. 언제쯤 주된 양육자로부터 경제적인 독립하실 것이라 예상하십니까?

- ① 향후 년 후
 ② 잘 모르겠다

L6. 귀하의 주된 양육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 ① 예 (→ L6-1로 이동)
 ② 아니오 (→ L6-3로 이동)

L6-1. 주된 양육자와 함께 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생활비 등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② 양육자가 독립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③ 학교, 직장 등의 통근 문제가 없기 때문에
 ④ 외로움에 대한 걱정 때문에
 ⑤ 자녀 양육 및 가사 문제 때문에

- ⑥ 독립계획이 없어서
- ⑦ 건강상의 이유로
- ⑧ 기타()

L6-2. 언제쯤 주된 양육자와 함께 살지 않으리라고 예상하십니까?

향후

--	--

 년 후
(→응답 후 L7로 이동)

L6-3. 언제부터 주된 양육자와 함께 살지 않으셨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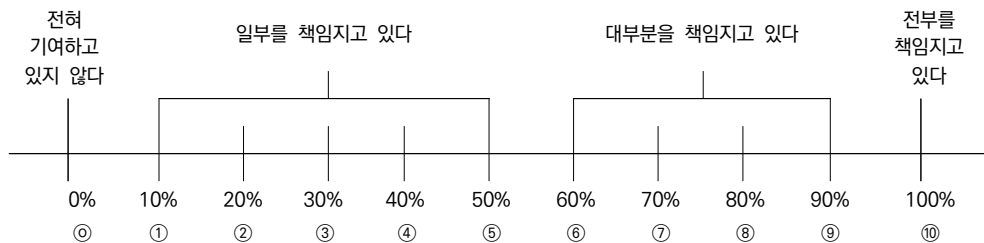
--	--	--	--

 년 부터

L6-4. 주된 양육자와 함께 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학업 또는 진로준비
- ② 취업
- ③ 결혼 후 분가
- ④ 양육자와의 불화
- ⑤ 그냥 독립하고 싶어서
- ⑥ 양육자 안 계심(사망)
- ⑦ 기타()

L7. 귀하는 가구의 생계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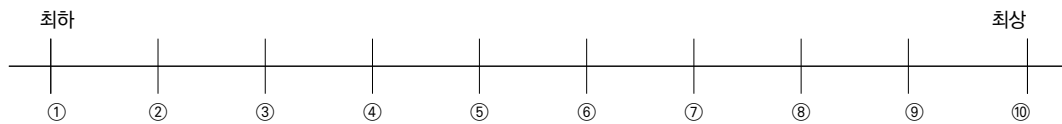
M. 기본정보

다음은 귀하의 성장배경 및 기본정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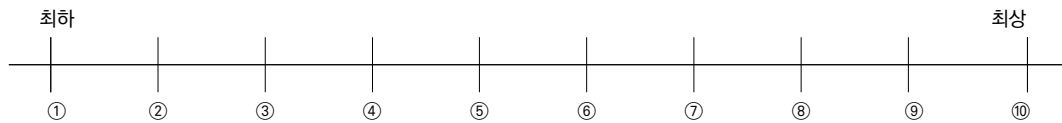
M1. 귀하가 **만 18세 이전까지** 가장 오래 살았던 지역은 어디입니까?

- ① 서울
- ② 부산
- ③ 대구
- ④ 인천
- ⑤ 광주
- ⑥ 대전
- ⑦ 울산
- ⑧ 경기
- ⑨ 강원
- ⑩ 충북
- ⑪ 충남
- ⑫ 전북
- ⑬ 전남
- ⑭ 경북
- ⑮ 경남
- ⑯ 제주
- ⑰ 세종
- ⑱ 국외

M2. 만 14세일 무렵 귀하의 부모님(혹은 주된 양육자)의 소득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M3. 현재 귀하의 부모님(혹은 주된 양육자)의 소득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M4. 귀하는 진단받은 장애가 있습니까?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지적장애), 발달장애(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 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장애, 미등락장애 등

- ① 있음
- ② 없음

M4-1. 귀하의 가구원 중에 장애가 있는 분이 있습니까?

- ① 있음
- ② 없음

M5. 귀하는 군대에 복무하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M5-1 이동)
- ② 아니오 (→ N1 이동)

M5-1. 복무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습니까?

년

부터

월

~

년

부터

월

X. 코로나19로 인한 변화와 전망

N1. 귀하는 코로나19로 인해 다음의 상황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다음 항목에 대한 귀하의 경험에 대하여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경험 여부		
일자리	(1) 노동시간이 줄었다	① 있음	② 없음	③ 해당사항 없음
	(2) 임금이 삭감되었다	① 있음	② 없음	③ 해당사항 없음
	(3) 무급휴직을 경험했다	① 있음	② 없음	③ 해당사항 없음
	(4) 임금이 미지급되었다(연체지급 되었다)	① 있음	② 없음	③ 해당사항 없음
	(5) 재택근무를 (일정기간 이상) 실시하였다	① 있음	② 없음	③ 해당사항 없음
	(6) 일시적으로 휴직하였다(사업장은 운영되었으나 본인만 휴직)	① 있음	② 없음	③ 해당사항 없음
	(7) 채용일정의 연기 또는 취소	① 있음	② 없음	③ 해당사항 없음
	(8) 기업의 채용 감축	① 있음	② 없음	③ 해당사항 없음
	(9) 코로나로 인한 불경기로 창업 계획 차질	① 있음	② 없음	③ 해당사항 없음
	(10) 아르바이트, 단기일자리 등 소득 기회 감소	① 있음	② 없음	③ 해당사항 없음
	(11) 취업설명회, 채용박람회 등의 연기 또는 취소	① 있음	② 없음	③ 해당사항 없음
	(12) 직업교육훈련, 자격증 시험 등 구직준비 기회 감소	① 있음	② 없음	③ 해당사항 없음
	(13) 코로나로 인한 구직활동 관련 비용부담의 증가	① 있음	② 없음	③ 해당사항 없음
교육·훈련	(1) 코로나로 인한 교육·훈련 중단 또는 축소	① 있음	② 없음	③ 해당사항 없음
	(2)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 강의, 실습, 시험	① 있음	② 없음	③ 해당사항 없음
주거	(1) 코로나로 인한 주거지 이동	① 있음	② 없음	③ 해당사항 없음
	(2) 코로나로 인한 주거비나 기타 생활비 연체	① 있음	② 없음	③ 해당사항 없음
일상생활	(1) 중요한 관계로부터의 단절	① 있음	② 없음	③ 해당사항 없음
	(2) 일이나 생활에서의 자유 제한	① 있음	② 없음	③ 해당사항 없음

조사 후 기록표			
조사담당자			
면접원 ID		면접원 이름	
응답자 정보			
응답자 성명			
응답자 연락처	<div><div></div><div></div><div></div></div> - <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 - <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		
조사 정보			
조사일시	2021년 <div><div></div><div></div></div> 월 <div><div></div><div></div></div> 일	유치일	2021년 <div><div></div><div></div></div> 월 <div><div></div><div></div></div> 일
최종완료일	2021년 <div><div></div><div></div></div> 월 <div><div></div><div></div></div> 일	방문 횟수	총 <div><div></div><div></div></div> 회
조사 요일	① 평일 ② 주말·공휴일	조사 시간대	① 9시 ~ 12시 이전 ② 12시 ~ 15시 이전 ③ 15시 ~ 18시 이전 ④ 18시 ~ 21시 이전 ⑤ 21시 이후
조사 소요시간	총 <div><div></div><div></div><div></div></div> 분		

Abstract

The 2021 Seoul Youth Panel Study (SYPS)

Seung-Yun Kim · Geum-Sun Byun · Sangil Kim · Eunjoo Oh · Jinha Kim · Ho-Kee Kim · Min-Jin Park · Donghwa Park · Ah-Reum Lim · Nari Park · Yongho Lee · Dong-Jun Lee · Minseo Cho

Youth policy should cope with the risks that are experienced in this process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the multidimensional life change in youth and life transitions of the life cycle. Recently, various surveys have been conducted for Youth in South Korea. However, existing cross-sectional survey data are difficult to chase the process of change in youth and policy evaluation and feedback are not difficult. In order to overcome such limitations. The Seoul Institute and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discussed organizing the Seoul Youth Panel Study(SYPS) and began the main survey in 2021.

The population of the SYPS is who aged 18 to 34 living in Seoul. The contents of the questionnaire were composed of capture various areas of life such as education, vocational training, employment, economic life, housing, perceptions, policy evaluation, COVID-19 considering the changes in the life transitions of the life cycle of youth. We completed about 5,194 personal samples.

This study contains descriptive report and in-depth analysis reports. The descriptive analysis report provides the analysis results of each questionnaire area and reference to researchers who use the Seoul Youth Panel Survey data. The in-depth analysis reports were conducted to raise the utilization of SYPS data and derive policy implications by analyzing youth issues using SYPS data.

Contents

01 Introduction

- 1_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Study
- 2_Research Design
- 3_Research Methods and Survey System
- 4_Sampling Design
- 5_Sample and Weight

02 Descriptive Analysis

- 1_General Features
- 2_Life Transition Features of Youth
- 3_Education and Vocational Training
- 4_Work
- 5_Economic Life
- 6_Housing
- 7_Life Condition and Perception
- 8_Life Change caused by COVID-19
- 9_Experience of receiving Policy Program and Policy Evaluation

03 In-depth Analysis

- 1_A Study on the Heterogeneity of the Youth Groups in Seoul: focusing on
Comparison between Youths living with Parents and Youths non living with
Parents
- 2_Transition to job of Youths
- 3_A Study on the Debt Burden of Unemployed Youths
- 4_Inequality in the Financial Technology Practice of the Youth generation

2021 서울청년패널조사(1차)

서울연 2021-BR-18

발행인 박형수

발행일 2022년 12월 30일

발행처 서울연구원

ISBN 979-11-5700-697-7 93330 20,000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이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연구원에 속합니다.

The 2021 Seoul Youth Panel Study (SYPS)

2021-BR-18 20,000원

